2019 열림과 나눔의 인문학 축제

제10회
문예창작공모전 작품집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여는 글 ····· 8

<시 부문>

[국어국문 정예찬] 반지하 ····· 10
[영어영문 김다영] 겨울나무 ····· 11
[국어국문 나지수] 열꽃 ····· 12
[심리학과 박현] 그림 남자 ····· 13
[영어영문 김다영] 흰 장미 ····· 14
[영어영문 김다영] 은행나무 ····· 15
[영어영문 김다영] 모래 여자 ····· 16
[영어영문 김다영] 시들어 가는 베고니아 ····· 17
[심리학과 박현] 별 ····· 18
[심리학과 박현] 가을꽃 ····· 19
[심리학과 박현] 세상탄생론 ····· 20
[국어국문 이인혜] 침묵의 평화 ····· 21
[국어국문 이인혜] 진리 ····· 22
[국어국문 이인혜] 모정(母情) ····· 23
[미디어스쿨 김예지] 커피 ····· 24
[미디어스쿨 김예지] 안개꽃 ····· 25
[미디어스쿨 김예지] 이 세상 너머에 ····· 26
[미디어스쿨 최화현] 시 쓰는 날 ····· 27
[미디어스쿨 최화현] 그해 봄 ····· 28
[미디어스쿨 최화현] 나와 나 ····· 29
[사학과 차수빈] 518을 기억하는 시 ····· 30
[사학과 차수빈] 518을 기억하는 시 ····· 31
[사학과 차수빈] 518을 기억하는 시 ····· 32
[사학과 차수빈] 518을 기억하는 시 ····· 33
[사학과 차수빈] 518을 기억하는 시 ····· 34
[사학과 황서영] 빈처 ····· 35
[사학과 황서영] 무명 ····· 37
[사학과 황서영] 척애(隻愛) ····· 38
[융학인재학부 최윤하] 달밤 ····· 39
[융학인재학부 최윤하] 여름밤 ····· 40
[융학인재학부 최윤하] 가난한 가을 ····· 41
[융학인재학부 최윤하] 소녀의 이름, 엄마 ····· 42
[융학인재학부 최윤하] 할아버지 편지 ····· 43
[인문학부 이상훈] 봄으로 기억될 ····· 44
[인문학부 이상훈] 애써 찾는 핑계 ····· 45
[인문학부 이상훈] 추억 ····· 46
[일본학과 임다운] 도시 불면증 ····· 47
[일본학과 임다운] 봄이 오면 만나자 ····· 48

[일본학과 임다운] 봄 비 ····· 49
[일본학과 임다운] 1월 1일 ····· 50
[일본학과 임다운] 눈 ····· 51
[철학과 이영재] 고백 ····· 52
[철학과 이영재] 멈춰라 ····· 53
[철학과 이영재] 짝사랑 ····· 54
[철학과 이영재] 파도야 ····· 55
[철학과 이영재] 허우적거리지 마라 ····· 56
[철학과 김경민] 그 밤 ····· 57
[철학과 김경민] 무력 ····· 58
[철학과 김경민] 찬란한 기다림 ····· 59
[금융재무 허정현] 침묵 ····· 60
[금융재무 허정현] 다가옴 ····· 61
[금융재무 허정현] 책 ····· 62
[국어국문 배민정] Mr. Smith ····· 63
[국어국문 배민정] 시멘트 세상 ····· 64
[국어국문 배민정] 60년 구두의 주인 ····· 65
[국어국문 나지수] 독방 ····· 66
[국어국문 나지수] 낙서 ····· 67
[국어국문 최동희] 워터독 ····· 68
[국어국문 최동희] 동굴 ····· 69
[국어국문 최동희] 비파-hippo pleco ····· 70
[국어국문 류정은] 날개 ····· 71
[국어국문 류정은] 나무고아원 ····· 72
[국어국문 류정은] 차차차 ····· 73
[국어국문 김홍인] 변기 위의 교살 ····· 74
[국어국문 김홍인] 비극의 사춘기 ····· 75
[국어국문 김홍인] 유리 정조대 ····· 76
[국어국문 김홍인] 이스터 에그 ····· 77
[국어국문 김홍인] 지하의 압생트 ····· 78
[국어국문 이예림] 바다1 ····· 79
[국어국문 이예림] 바다2 ····· 80
[국어국문 이예림] 바다3 ····· 81
[국어국문 임소윤] 누군가의 일상 ····· 82
[국어국문 임소윤] 삼키다 ····· 83
[국어국문 임소윤] 아가미 ····· 84
[국어국문 임소윤] 충치 ····· 85
[국어국문 정예찬] 연못 ····· 86
[국어국문 정예찬] 네트워크 마케팅 ····· 87
[국어국문 최유진] 사랑하는 사람에게 ····· 88
[국어국문 최유진] 가을과 겨울사이 ····· 89

[국어국문 최유진]양면성 ····· 90
[국어국문 정예빈] 막힌 불꽃 ····· 91
[국어국문 정예빈] 외로움의 색 ····· 92
[국어국문 정예빈] 내면 ····· 93
[나노융합스쿨 윤종성] 같은 듯 다른 삶을 사는 우리 ····· 94
[나노융합스쿨 윤종성] 그 시절 수많은 빛이 내리던 날 ····· 95
[나노융합스쿨 윤종성] 연극을 기다리며 ····· 96
[나노융합스쿨 윤종성] 좌현으로 기울여진 좌뇌의 공간 ····· 97
[나노융합스쿨 윤종성] 함께 했으면서 함께 하지 못한 날들에 대하여 ····· 99
[빅데이터 신준철] 나는 조건이 필요하다. ····· 100
[빅데이터 신준철] 투두두두 우르르 쾅쾅 ····· 101
[빅데이터 신준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진 새 ····· 102
[사학과 이지수] 白 ····· 103
[사학과 이지수] 목련 ····· 104
[사학과 이지수] 드러내다 ····· 105
[사학과 김세연] 이야기 ····· 106
[사학과 김세연] 거울 ····· 107
[사학과 김세연] 회상 ····· 108
[인문학부 남하은] 미래(未來) ····· 109
[인문학부 남하은] 독백(獨白) ····· 110
[인문학부 남하은] 외사랑 ····· 111
[사회복지학부 김지수] 선인장 호텔 ····· 112
[사회복지학부 김지수] 짝사랑 ····· 113
[사회복지학부 김지수] 제행무상 ····· 114
[생명과학과 장설아] 눈 ····· 115
[생명과학과 장설아] 겨울 녹는 소리 ····· 116
[생명과학과 장설아] 밤 ····· 117
[생명과학과 장설아] 가는 길 즐기기 ····· 118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임민주] 예쁜 먹구름 ····· 119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임민주] 노을 ····· 120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임민주] 달 ····· 121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임민주] 낙엽 ····· 122
[언론방송융합미디어 임민주] 따듯한 눈 ····· 123
[일본학과 강수연] 기숙사 ····· 124
[일본학과 강수연] 청춘 ····· 125
[일본학과 강수연] 틈새 ····· 126
[일본학과 강수연] 여름날의 동물원 속 펭귄 ····· 127
[철학과 양영진] 세월哀悼(애도) ····· 128
[철학과 양영진] 카펫 ····· 130
[철학과 양영진] 이력서 ····· 131
[철학과 양영진] 혹시 ····· 133

[철학과 양영진] 愛猫無限流動性固體(애묘무한유동성고체) ····· 134
[광고홍보 최승아] 향 ····· 135
[광고홍보 최승아] 마음 ····· 136
[광고홍보 최승아] 간판 ····· 137
[국어국문 이준규] 공들여 올린 탑이 한 번에 무너질 때 ····· 138
[국어국문 이준규] 눈을 감아도 우리의 밤은 찬란하다 ····· 139
[국어국문 이준규] 밤과 별을 그리며 ····· 140
[국어국문 이준규] 착각 ····· 141
[국어국문 이준규] 별 하나에 대한 꿈 ····· 142
[국어국문 서희영] 오즈의 토토 ····· 143
[국어국문 서희영] 소나기 ····· 145
[국어국문 서희영] 향기 ····· 146
[인문학부 김준원] 살찌는 계절 가을 ····· 147
[인문학부 김준원] 짝사랑 ····· 148
[인문학부 김준원] 이제는 엄마에게 내가 ····· 149
[인문학부 김준원] 거울 ····· 150
[인문학부 박유진] 눈꽃 ····· 151
[인문학부 박유진] 시선 ····· 152
[인문학부 박유진] 정리 ····· 153
[중국학과 박예은] 더불어 산다는 것 ····· 154
[중국학과 박예은] 안개 속 ····· 155
[중국학과 박예은] 단풍나무 ····· 156
[인문학부 도혜린] 사과에게 ····· 157
[인문학부 도혜린] 노다지 궁전 ····· 158
[인문학부 도혜린] 침전 ····· 159

<소설 부문>

[국어국문 김수동] 골든 디스크 ····· 161
[중국학과 오규리] 참치 캔 속 목소리 ····· 185
[국어국문 류정은] 인조인간 ····· 192
[언론방송융합미디어 김창용] 커피집 소녀 ····· 202
[영어영문 김진화] 호수로부터. ····· 212
[국어국문 이인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 218
[인문학부 김규찬] 노란 깃털 ····· 233
[인문학부 김동연] 만약에 지금 당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둘 중 하나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 239
[인문학부 김의영] 찌질이의 사랑 ····· 244
[인문학부 김준원] 참을 수 없는 ····· 260
[인문학부 이중원] 인연 ····· 263
[인문학부 정원화] 기억의 방 I ····· 272
[일본학과 정주연] 평범한 일상 보내기 프로젝트 ····· 280

[철학과 민지영] 오, 나의 베르단디! ····· 289
[철학과 강병교] 피는, 카네이션 ····· 294
[국어국문 최동희] 무대 위의 이방인 ····· 297
[국어국문 김홍인] 보통잡부 ····· 306
[사학과 김세연] 화의(花意) ····· 315
[심리학과 지서이] 해저담 ····· 325
[융합인재학부 최윤하] 전장으로부터 ····· 335
[언어청각학과 전은진] 밤의 고아 ····· 339
[일본학과 임다운] 봄, 그 죽음의 계절 ····· 345

<비평 부문>

[국어국문 이인혜] 동심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를 깨닫다, <우리들> ····· 352
[국어국문 한지인] 영화 '기생충'과 모스부호 ····· 358
[인문학부 정원화] 히치콕의 서스펜스가 담긴 4편의 영화 ····· 367
[미디어스쿨 박지현] 이 세상 모든 지영이에게 ····· 375
[인문학부 강규민] 다크나이트 비평문 ····· 376
[국어국문 윤은진] <사바하> 비평문 ····· 384
[영어영문 김태민] 다크나이트의 영향. ····· 391
[중국학과 박예은] 이슬람의 두 얼굴, 그들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 394
[국어국문 정예빈] 드림웍스의 전략 ····· 397
[국어국문 최동희] 서정주 작품의 신라정신에서 보이는, 영원(永遠)주의의 궁극적 목표 ····· 404

<시나리오 부문>

[이예림 외 2명] 배달시키신 분 ····· 413
[김홍인] 표면세계 ····· 423
[문지원 외 2명]그들의 말 못할 입시 ····· 438
[신지민 외 2명] 불꽃 놀이 ····· 447
[정예빈 외 2명] 아이스크림 ····· 459
[김규찬] 노란 깃털 ····· 471
[황지현 외 2명] 다시 만난 시간 ····· 480
[최지혜 외 2명] 스마트폰 우정 알람 ····· 487
[김진경 외 2명] 야욕(野慾) ····· 494
[정예찬 외 2명] 신음 ····· 504
[이석원] 흩어지는 이의방 형제 ····· 512
[용은혜 외 2명] 유예 ····· 518

공모전 심사평 ····· 527

여는 글

올해 열 번째 문예창작 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2010년 가을에 첫 문예창작 공모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것입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작품을 창작하여 출품을 해주고 문학 전공 선생님들께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주신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인문대 학술제의 일환으로 학과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림대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작품을 받게 되어, 시 145편, 소설 22편, 비평 10편, 시나리오 12편이 모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에 주최측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끔 창작 동아리를 운영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하지 않는데 강요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로 쓰여질 리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서야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순수 문예 창작에 시간을 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온 작품들임을 알고 있기에 한 작품, 한 작품이 소중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쓴 글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컴컴한 자기 안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나와 눈부시게 환한 광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작품을 출품해준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올해 인문대 학술제는 '열림과 나눔의 인문학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림'은 밖으로 열린다는 뜻도 있지만, 열매가 열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거쳐 결실을 맺은 작품을 이 가을을 맞아 여러 사람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문예창작 공모전은 명실상부한 열림과 나눔의 장입니다. 글을 직접 쓴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문예창작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모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 문학작품을 창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느리게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온 작품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흑백으로만 구분되는 활자들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문학작품은 어쩌면 진심을 담기에 가장 좋은 수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이 문예창작 공모전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가을
국어국문학 전공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신서인 올림

- 시 부문 -

반지하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낙엽이 모인 윗창문에
가로등 빛이 떨어지면
뒤집어진 하늘과 무중력을 느낀다.

뿌리를 못 내려
하늘에 누워
별들 사이에 온도를 잰다
- 굳이 가까워지지 않아도 될
그 정도의 온도 -

한 구석 페트병은 별빛을 깨트려
이 방이 얼마나 컸던가를 말하고 있다.

내게도 부서지면
팔지 못할 그들의 값을 헤아리며
내 몸에도 밤이 얼마나 차지했는가
따졌던 것들을 생각한다

깜빡
죽어가는 가로등
점멸하는 별

겨울나무

영어영문학과
20171203 김다영

차창 밖 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떠난 새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앙상한 나뭇가지는 평온했고
아픈 나를 위로했다
찬바람 속에 홀로 선 채
떠나간 나뭇잎들이 그립지 않다 했다

나비가 되길 바랬던 그 많던 나뭇잎들은 어디로 떠났을까
누군가는 바람 때문이라 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라 했다

다 비운 자리
바람이 머물다 기약 없이 떠나고
눈꽃은 피고 지고
수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자 기다려도 외롭지 않다 했다

찬바람은 너의 그림자가 너무 오래 머문 탓이다
봄 햇살을 생각했다
흐드러지게 피어날 봄꽃도 생각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뒷동산 나비를 따라갔다

열꽃

국어국문학과
20171024 나지수

불꽃이 작은 불꽃이
던져주는 작은 장작 받아먹고
힘을 차린 그것이 꽃을 피우려
천 길 아래 지옥귀보다 상냥한 손길로

혈관에 불을 붙여
여린 내장 살라먹고
피부 검게 물들이면

40도 미지근한 온도에서
불에 그슬린 껍질이
희게 꽃 진다

살갗에서 자라 뿌리가 거기에 있어
곱게 물러나지 못하고
발악하다 뜯겨져 내리며

걸음마다 자국 흩뿌린
꽃길 그 어드메
떨어뜨려도 다시금 엉겨 붙는
화가 진저리나도록 선명할 때

울지 않고 타들어가
얼굴 한 켠에 말라붙어 있는
껍질 벗겨진 웃음이
알아보기 힘들만치 환한 빛깔이라
차마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림 남자

심리학과
20192116 박현

내가 막 펜을 종이에 갖다댔을 때였다
그 남자는
펜 속 잉크 터널을 걸어나왔다

그 잉크 남자는
그저 걸어나갔다
나는 오직
그의 뒷 모습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으므로

그 검은 남자는
점점 작은 곰 젤리 같아지다
이윽고-
점이 되어 사라지고야 말았다

나는 그의 옆에
가로등이라도 하나
그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펜 속의 잉크를 모두 먹어갔으므로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검정을 모두 가져간 남자의
하얀 종이를 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작아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먼먼길 가느라 내 잉크액을
모두 챙겨갔을지 모르므로

흰 장미

영어영문학과
20171203 김다영

너를 어찌 보낼 수 있을까
푸르른 창백함이여

길을 잃었는가
핏빛을 다하여
나를 가둬 버린 순수

창백한 입술로
무엇을 말하려고

떨고 있는 입술 사이
꽃향기 스치자
땅이 흔들린다
넘치는 강물이 울고 있다

허공을 헤매는 눈물방울
수천 년을 돌고 돌아
꽃잎 사이로 고이고

깊은 꽃 속 어둔 방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는 적막

가슴에 내려앉은
차가운 꽃잎 하나

은행나무

영어영문학과
20171203 김다영

이별을 예감하는 축제는 화려했다
빈손으로 갈 것을 알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은
모조리 불사르고 싶었다
잎맥 사이사이 흐르는
뜨거운 사무침을 기억해야 했다
너를 앓고 떠돌고 밟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하늘 향해 소리치고 소리쳤다
시들어가는 격정의 순간에
그리움 뿐이었다
매일 밤 별빛과 달빛을 마시고
취해버린 마른 잎은
흔들린다
순결한 영혼 속에서
떨어지는 빛바랜 연민이며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마지막 축배를 나누자

모래 여자

영어영문학과
20171203 김다영

바람이 알려준 곳으로만 가야 했다
중력을 무시한 죄책감 따위는 잊자
바람의 노래를 들었고 이야기에 귀 기울였을 뿐

흔들리는 것은 풀잎의 마음이야
정하지 못한 길을 방황하고 있는 거야

옷을 갈아입고
소용돌이치는 석양의 물결 속으로
허락도 없이 나를 덮어 버려

바람 불면 일어나
고장 난 흔들의자를 밀어주네
그가 부르던 노랫소리를 따라

부서진 심장이 바람에 날려가면
구절초 꽃잎이 피어나네

시들어 가는 베고니아

영어영문학과
20171203 김다영

그가 떠난 후
바람에 날리는 커튼

있었거나 없었던 오후는 다시 오지 않았다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
말라가는 눈물이 자꾸 고개를 돌린다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도 흔적 없이 사라진
그림자와 오후 3시의 햇살

그가 떠난 시간으로 고개를 떨군다

파란 문을 잠그고
창백해지는 초록의 섬

흐려지는 물빛을 떠다니고

별

심리학과
20192116 박현

어렵사리 검게 칠한 위에
감히 박힌 빛나는 점
우리는 그것을 모두 별이라 부른다

그러나 과학자는
그 모든 것을 별이라 부르지 않는다

제 스스로 빛나는 놈만 별이라나
과학자는 저어만 알아먹는 단어로 그걸 어렵게 얘기터라

저어 말에 의하면 이렇다
저 광점(光點) 중에는 남의 빛을 빌어먹는 녀석들이 있다는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별이라 부른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부르는거란 말인가

아니다
충분히 칙칙한 검은 위에
지 한 몸 어설프게라도 빛을 부려준다면
충분히 별이라 부를만한 것이다

그런 우김이 못마땅한
합리적 회색도시는
그런 별을 모두 덮어버리고야 마는 것이다!

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에서 별을 보기 어렵다

밤
그 뒤에는 그들이 찬란히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
우리는

가을꽃

심리학과
20192116 박현

가을에는 모두
고개 위 나무들의 불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같이 작고 왜소한 인간은 말이다
이 아래 피어난 작은 자수들을 바라보게 된다

가을꽃으로 말하자면 말이다
어쩌면 그들은 봄에 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동기-
봄꽃들은 말이다
지붕도 마음도 하얗게 만드는 겨울을 지나
따스한 기운보다도 먼저
코 끝에 재채기를 뿌려놓는다

저어들이 한 해의 생명을
온 몸으로 뽐낼 때 말이다
가을꽃들은 알았던 것이다

푸른 잎의 열감이
우리의 정열을 녹여버릴
후(後)의 계절을 말이다

그 생명의 뙤양볕에
우리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도 모르다가
어느덧 차가운 칼날이
흐물한 뼈를 베어낼 때가 돌아오면
작은 반창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물론 그들도 말이다

이 험난한 사계가 담긴 세상에 두려웠을 것이다
눈에 띄지도 않는 이 낮은 곳에 있기까지 말이다

세상탄생론

심리학과
20192116 박현

빅뱅

그것은 우주대폭발이론을
비웃으며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눈뜬 세상
그것은 어른들이 만들어간 세상이다

어른들의 세상
인간종은 날개가 없다
진보하고 진부한 과학의 세상
밤하늘의 별빛을 지워
지상에 심어놓은 곳
이 곳을 도시라 한다

아이들은
눈 감고 잠들기 전
당연히 생각했다
인형은 노래를 부르고
사람은 망토 하나에 하늘을 누비는
세상

그리고 그 눈감은 세상
하늘에
이윽고
별을 찍는다
그 곳은 그래서 도시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세상
그것을 어른들은 비웃고야 만다

빅뱅을

침묵의 평화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삶을 선물인 양 던져준 이여

침묵의 땅에 속하여 살아온 치들 중에
감히 귀 여는 이 있을 리 만무하니
발화점을 가뿐히 넘긴 분노는 빗나간 자리로
눌린 이가 터뜨린 신음은 있어도 있지 않은 것

어떤 죄도 없이 물리는 쪽이 된 이들의 호흡
치욕을 비집고 새어나온 목소리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갈망하나

공기 중에 섞여 모두의 숨으로 트이지만
발 딛고 선 곳은 마치 진공
틈 없이 하얀 질식의 땅

오래된 것은 그토록 가소로운 것
평화롭기에 공정하지 못한 곳에 서서
가는 다리를 떨며 하늘을 올려 보아도

목덜미를 물려버린 짐승은
기어이 성대를 먼저 잃고
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숨이 멎어주기를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뿐

삶이 내게 준 것은 죽음이 전부였으니
욕망한 적 없는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 되었음을
오만한 그대가 이제 기꺼이 알아주길

진리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죄많은 자들로 역겨운 곳
여전히 중앙에 발을 딛고 서서

달빛이 무력해지는 흙빛 밤
아득한 절벽 가까이 흰 것 하나
가려진 시간에 끝으로
기어코 멎음으로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예사였다면
짓이겨져야 하는 것은 울타리가 아닌가

범주 아래 속하지 못한 자에게
고통뿐인 세상이여
이제 무엇이 내려 놓아지길 바라나

힘없이 맥을 놓아버린 것들을 보고도
또 다른 것을 찾아 악다구니를 쓰니
진저리 나는 세상아
너의 숨구멍을 스스로 막아라
차라리 사라져버리고 말아라

죄없는 자들의 소리가 뭉개지는 곳
낭떠러지의 다음 주인은 누구일까

모정(母情)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살인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다
바라보는 어린 눈동자에
짓눌리는 삶에도 칼 들 수 없는 이 태반이니

덧없는 시간의 굴레 안에서
늙어가는 하루와 짓물어가는 손등을
모른 척 하기 바빴다는 고백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내밀한 마음의 소리들을 듣지 않은
위선의 책임을 묻는 시간은 도래해
꿈의 빗장을 걷어내고 죄인을 끌어낸다
진실하고도 참혹한 현실로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목도하며
안정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올랐던 그 시절 그 때
내 발목을 잘라 묶어두는 것으로
그대가 다쳤던 순간들을 이어 붙일수만 있다면야
시간을 되돌려 내 기꺼이

살인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다
긴 시간 당신의 숨결을 잘라
나의 숨을 이어왔으니

커피

미디어스쿨
20182511 김예지

세상에 나 혼자인 거 같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새벽에
커피를 마신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네 생각이 아닌 커피에게 미루기 위해 마신다

속이 쓰렸다
네가 한 말이 쓴 건지 커피가 쓴 건지

다 커피 때문이다
커피 때문이라고
커피를 탓하며 다시 커피를 마신다

안개꽃

미디어스쿨
20182511 김예지

네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도는
나는 안개꽃 주인공인 너는 장미

언제나 장미의 주변에는
수많은 안개꽃이 있다
나는 수많은 꽃들 중 한 개일 뿐

빨갛고 예뻐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흰색이 있어서 빨간색이 더 돋보인다는 것을
장미꽃은 알까

장미꽃은 영원히 모르겠지
영원히 주인공만 할 테니
아 장미꽃이고 싶어라

이 세상 너머에

미디어스쿨
20182511 김예지

이 세상에 와서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았다
더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했다
한줌의 두려움 호기심과 함께
저세상에는 무엇이 기다리나

저세상에 가면
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초원
군데군데 핀 샛노란 유채꽃
그 사이 강아지가 뛰노는
그런 낙원 같은 곳일 거야

저세상에 가면
슬픔 같은 감정은 느낄 시간도 없이
행복한 감정만 있고
아플 일 없고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향 같은 곳일 거야

그래 그런 곳이 아니면 어때
이 세상보다 나은 게
단 한 개라도 있겠지

발이 바닥과 점점 멀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루었다

시 쓰는 날

미디어스쿨
20152610 최화현

글을 잘 쓰는 사람조차
글 쓰는 일은 어렵다고 말한다.

시도 그렇다.
글 몇 자로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건
참 어려운 일이다.

몇 밤을 꼬박 새워 쓴 시가
단 한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

그 날은
시를 좀 썼구나 하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날이다.

그해 봄

미디어스쿨
20152610 최화현

노란 개나리가 만연하던 어느 날
길가 옆 돌담길에 올라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던 너

그 좁고 높은 곳을 걸으며
넌 이제 이런 길만 보면
내 생각이 날거라며 웃던 너

그 말을
그저 웃어넘겼던
나

그런데
어쩌면 내가 틀렸나보다
지금은 개나리만 봐도 네 생각이 나

나와 나

미디어스쿨
20152610 최화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그때는 늘 내가 가도 괜찮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더이상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던 날,
눈앞의 네가 웃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던 날,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걸

518을 기억하는 시

사학과
20151450 차수빈

<破春> 봄을 깨다

晩春深夜中　늦봄 깊은 밤중에
忽矻警覺醒　갑작스런 천둥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렸네
急起出外省　급히 일어나 나가 밖을 살피니
世上遮血瀛　세상이 피바다로 덮이었구나.

518을 기억하는 시

사학과
20151450 차수빈

<獨朙> 홀로 영롱한 달빛

突出現虎衆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 무리에
兎部防相攻　토끼떼는 서로 합쳐 공격했네
紅氣滿昊天　붉은 기운이 흰 하늘에 가득 차고
唯寒月獨朙　오직 차가운 달만이 홀로 어스름하구나

518을 기억하는 시

사학과
20151450 차수빈

<苦待伏龍> 복룡을 고대하며

狼退而虎現　이리가 물러가니 범이 나타나
閑寂村再恛　한적한 마을이 다시 혼란해졌다
兎囚外人謹　토끼만 가둬두고 외인을 삼가니
伏龍[1]何着矣　복룡은 언제야 나타난다는 말인가?

1) 숨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재사나 호걸

518을 기억하는 시

사학과
20151450 차수빈

<斷腸> 창자가 끊어지다

問安啓駕躬 문안하고 집을 나선 자식이
路上固屍體 노상에 시체로 굳어있네
視捧痛哭母 끌어안고 통곡하는 어미를 보니
如我斷腸哉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듯하구나

518을 기억하는 시

사학과
20151450 차수빈

<紅平和> 붉은 평화

紅平和之後 붉은 평화의 뒤에서
小烈士隱偯 작은 열사는 숨죽여 울었네
其時虎已老 그 때의 호랑이는 이미 늙었는데
何兎不辨矣 어찌하여 토끼들은 그대로란 말이오?

빈처

사학전공
20171117 황서영

다른 이들은 그대를 빈처라 하였다
호롱불 아른거리는 그림자 밑
그대의 행색이 비치자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가난을 꿈꾸고자 붓을 잡은 것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잡은 붓은
그대를 나락으로 몰고있었다

기꺼이 날 위해 빈처를 자처한 그대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언젠가 호강하게 해 줄 것이오

떳떳하게 말해보았지만 추레한 그대의 자태에
나는 그만 뜨거운 태양아래,
고개 숙인 해바라기가 되었다.

무명

사학전공
20171117 황서영

우리 사랑을 하러 가자
우리끼리 서로의 눈을 마주할 수 있을 곳으로 가자
너의 볼이 붉어지면 내가 너의 볼에 손을 가져다대고
따스하게 감아쥐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런 곳에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

우리의 이름 석자가 쓰이지 않는 곳으로 가자
나는 너가 불러주는 A로
너는 내가 불러주는 B로
우리는 영원히 A와 B로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아담과 이브의 성이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의 성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맡겨두자

사랑을 하러 떠나자
너와 내가 손을 마주 잡고
가슴의 고동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B야 나는 너의 이름이 좋다
사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자상한 너에게 딱 맞는 이름이다
B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몇 번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너의 이름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찌 그리 잘 어울리는지
마치 너에게 불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만 같다.

너가 나를 보고 웃을 때면
나도 너처럼 나독하게 웃고 싶어진다
너가 나를 향해 마주할 때면
나도 너를 보고 웃고만 싶어진다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만 같다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인 것 같다.

척애(隻愛)

사학전공
20171117 황서영

낙엽이 떨어진다. 나는 느낀다
아, 내가 점점 네게서 멀어지는 구나
오로지 네가 너로 보이는 구나
나의 사랑이 끝을 맺어가는 구나

달밤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그대를 그리는 밤은
참 깊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높게 떠오른 달은
찰랑이는 내 맘 속 물결을 알기라도 하는지
더욱 힘을 내며 내 바다를 비추네요

오늘 이렇게 달이 예쁜 것은
내가 그대를 생각함이 깊어서인가요
아님 정녕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 참 어려운 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달이 참 예쁘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대신하는 거라고

오늘는 용기있게
그대에게 편지를 써보고자 합니다
물론 첫 인사는
"오늘따라 달이 참 예쁘네요!"

여름밤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여름밤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무덥다는 핑계로 창문을 열어두면
그대를 닮은 별이 촤르륵 흘러들어오니까요

그 별빛으로 오늘도 난
밤늦게까지 그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아, 늘 첫 문장 쓰기가 어렵네요
'안녕'은 너무 어색한걸요?
'주말에 뭐해?'는 너무 빠른 것 같죠?

어머, 벌써 별빛이 숨어버리려해요
아침이 오나봐요

결국 오늘도 첫 문장 쓰기는 실패했지만
오늘 밤에도 그대를 닮은 별빛은
변함없이 쏟아질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로 해요

아, 여름밤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무덥다는 핑계로 창문을 열어두면
그대를 닮은 별이 촤르륵 흘러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전 당분간은 이 무더위도
계속 되었으면 해요

가난한 가을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랬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몸뚱이라지만

이번 가을은
내 영혼을 씻기울
독서를 해야지

허나 책값은 기세가 등등하고
영혼을 씻기기는 커녕
잡아먹기까지 할 모양인데

이렇게 가난한 영혼이
주린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오늘밤도 깊게 잠들지 못함은

정녕 나의 가난함이 문제인 것일까
아니면 영혼은 굶지마는 육신은 먹이는 나의 나약함의 문제인것일까

가난한 글쟁이는 작은 한숨만 유리창으로 뿜어내어
그 창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본다

아, 헤세의 데미안도 이렇게 쓰여졌을까
명작의 탄생도 이런 고난 속에서였겠지

오늘도 가난한 글쟁이는 눈물로 그의 글을 위로한다

소녀의 이름, 엄마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조막만한 손이
벌겋게 부르튼 것이 보입니다
많아야 열여덟 소녀는
한 겨우내 얼어붙은 개울목서
빨래를 해냅니다

어느새 해는 흐르고 흘러
소녀는 한 손에는
찬란한 울음을 터뜨리는 작은 생명을 떠안고
다른 한손으로
자기보다 더 어린 그것을 위한
허연 쌀죽을 끓입니다

그 더 어린 것이 먹은 쌀죽이
아직
다 넘어가지 않았다 생각 들지만
소녀가 품었던 작은 생명은
그보다 더 작은
숨을 쉬는 것을 품습니다

간밤에 내가 꿈결에서나 봤던
소녀의 까만 머리칼은
어느새 백발의 긴 실타래가 되어버리고
나는 이제 그 헌신의 실타래로
베를 짜는
또 다른 소녀가 되고있습니다

할아버지 편지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아가, 할애비다
당신 살아오셨던 길만큼 투박한 손글씨로 시작한
한통의 편지는
내가 살아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아본 글이었다

무뚝뚝한 할아버지셨지만
그해 설날에는 무슨 일인지
하얀 봉투에 편지 한통과
까까 사먹으라 넣어놓으신 오만원이 있었다

나이가 몇 개인데 까까냐고
우스갯소리하며 읽어 내린 편지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는 내 평생 가장 따뜻했던 봄에 찾아온 꽃이었다는 구절만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봄꽃도 시샘한다던 삼월의 봄은
내가 꿈으로 그려낸 페이지도 함께 도려내갔다

몇 해가 흘러지만 난 아직도 까까를 못사먹었다
할아버지가 그리울 땐 그 투박한 손글씨를 눈에 담고
편지지에 남아있는 향이라도 맡으면 그날이 그려질까 코만 킁킁댄다

아마 앞으로도 그 오만원은
당장 금간 유리창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몇 번을 기웠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양말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할지라도
언제나 내 책장 한 켠에 존재하겠지만

그날의 그 마음만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하겠지

봄으로 기억될

인문학부
20191069 이상훈

몇 번의 봄이 남아 있을까
몇 번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나가는 세월이 서글퍼
떨어지는 낙엽을 아쉬워하는 것인가

그들의 봄에 겨울 같은 추위를 느끼게 했었나
아니면
겨울에도 봄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었나

남은 봄의 시간은 같지 않다
그들과 우리
같이 볼 벚꽃의 양은 같지 않다

계절 하나하나가 짧게 느껴진다
찾아올 겨울을 알기에
봄이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그리고
겨울에 떠나도 봄으로 기억될 사람이 있기에

애써 찾는 핑계

인문학부
20191069 이상훈

가까이 가지 못한 거야

겨우 보이던 너가 다시 멀어질까 봐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될까 봐

눈을 마주치지 못한 거야

내 눈에 담긴 진심이 보일까 봐
나를 보는 너의 눈빛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까 봐

그래서
잊으려 한 거야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끈이 끊기기 전에 먼저 놓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다시 알게 된 거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혼자 숨죽여 미련한 거야

추억

인문학부
20191069 이상훈

항상 곁에 머물다 가는 것이 있다

지칠 때면 나를 안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네준다

내가 초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쑥 찾아와 곁에 머물다 간다

나를 찾아오는 걸 막을 수 없고
나를 떠나가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리움과 닮았지만, 확실히 다른
아련함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다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곁에 머물다 가는 것이 있다

도시 불면증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밤을 죽였다

상복을 입은
잠과 어둠
우는 별과
달

장례식은 끝나지 않는다

이게 다
밤이 내게서
잠을 빼앗았기
때문
이다

어설프게
낮을 흉내내던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이
된다

우리는 밤을 잃었다.

봄이 오면 만나자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온 세상이 하얀 도화지가 되면
그 위에 네 이름을 새기고 싶어져

손끝으로 한 자 한 자 적어내리다 보면
가슴 속 먹먹함이 검게 올라와
네 이름은 먹처럼 물들고

아려오는 게, 시큰거려오는 게
가슴에서부턴지, 손끝에서부턴지

눈이 녹아 전부 사라져버리면
그 땐 네가 내 곁에 있겠지

봄 비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빗소리가 거슬렸다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꽃잎을 밀어 떨어뜨리는 떨어트리는 모양새가
아니꼬웠다

본래부터 낙화할
알면서도 개화한
그것이 운명일지라도

날아보지도 못한 채
빗방울에 밀려
떠내려가는 여린 꽃망울은
아직은 너무 어렸다

그렇게 사랑의 꽃비는
진흙 속에 파묻혀 떠내려가고
거뭇한 나뭇가지에는
질긴 무성한 잎사귀만이 남아
초록빛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요동치는 꽃나무 속에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1월 1일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한 해가 지났습니다

나는 고작 하루 사이에
나이를 먹어
어째서인지 축하 속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진심과 허례허식 사이에
치이고 치여
구분 짓는 것도 그만두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잠 오지 않는 밤
스쳐지나가는 것은
어제였던 작년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1초조차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작년, 어제가 아파서

나의 새해 첫 날 밤은
그렇게 눈물로 얼룩져
억눌린 후회로 지새웠습니다

눈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흐렸다
파란 하늘이 없었다
가을이 가버렸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먼지를 머금은 듯한
백탁 하늘에
먼지가 내렸다
먼지가 내렸다

하얀 먼지는
바닥을 긴다
길바닥에
발에 채인다

짓밟힌다
더러워진다

검게 녹는다

원래부터 더러웠던 먼지는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더럽혀져서
하수구 속에
물거품을 내며 떨어져
냄새나는 폐수처럼 고였다.

고백

철학과
20151326 이영재

내 이 멍청한 머리로
되도 않는 거창한 글자를 생각하는 거 보니
너를 많이 좋아하나보다

멈춰라

철학과
20151326 이영재

술 잔 부딪히는 소리 멈춰라
열심히 돌아다니는 그대들 멈춰라
시끄럽게 떠드는 그대들도 멈춰라
내 앞에서 우는 그대도 잠시만 멈춰라

모두 잠시만 멈춰라

이젠 못 볼 그대
싫어질 때까지만 보게
모두 잠시만 멈춰라

짝사랑

철학과
20151326 이영재

그녀가 날 봐주기만 해도

세상은 내 사랑을 못 이겨 터져버릴 거야

파도야

철학과
20151326 이영재

오늘은 네 생각이 너무 커져

모레위에

내 마음 조심스레 적어본다

아직은 홀로 간직하고 싶으니

아무도 모르게 조심히 가려다오

허우적거리지 마라

철학과
20151326 이영재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팔십 먹은 노인마저 갓난이가 돼 허우적거린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가라앉는 방법이란 것도
모른 채 계속 허우적거린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가만히 물 위에 누워있어라

물 밖이라고 다르겠는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계속 가라앉는다면
그냥 가만히 누워 흘러가 버리자

그 밤

철학과
20181007 김경민

당신도 그 밤을 기억하고 있을까.
당신의 밤이 당신만큼 아름답길 바라던 그 밤을

아니면 아주 까맣게 물들어버린 그 밤을 기억하고 있을까.
당신을 보고 싶어도 까맣게 물들여져 볼 수 없던 그 밤을
더는 당신만을 볼 수 없어졌던 그 밤을

내가 당신과의 그 밤을 기다린 건 알까
내가 당신과의 그 밤을 되돌리고 싶었던 건 알까

아, 모르겠지
당신과 또 다른 밤을 기억하려는
그 순간을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내 소란한 밤의 주범이니

아, 내 밤의 소란을 만든 당신의 밤은 고요하지 않았으리라
그래도 당신의 밤을 위해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려봐야지
당신이 밤의 고요를 되찾기를 바라봐야지

아아 그래도 당신의 밤은 시끄러우려나

무력

철학과
20181007 김경민

너는 두려워했고,
어린 난 그걸 몰랐다
네가 그 비에 서서히 죽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죽어가는 너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함께 울 수 있었다

너는 오늘 하루를 간신히 견디고 서있었지만
나는 네게 오늘만 견디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 말이 네가 견디는 마지막 오늘이 될 것만 같았다

이내 나도 너를 따라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곧
찬란한 또 다른 너는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간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찬란한 기다림

철학과
20181007 김경민

나는 오늘도 걸었다
찬란한 기다림의 그 거리를 걸으며
그날의 너를 떠올렸다.

유난히 그 날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끝내 너는
내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이었다
처음엔 네가 돌아오면 어떤 말부터 해야할지 고민하다
나중에는 너는 나 없이 뭘 하고 있을지 널 헤아리다
지금은 내가 널 다시 만난다면 또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한다

가끔 너는 내게 물었다
보잘 것 없는 나를 왜 사랑하냐고
너에게 닿지 못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나에게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아, 저 멀리서 웃으며 날 향해 달려오는 너의 인영이 보이는 것 같다.
눈이 나리는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다 눈을 감는다

침묵

금융재무학과
20173133 허정현

한정된 공간에 있는 우리들
조여 오는 침묵속에
딱딱하게 서 있는 간수

마음마저 구속하는 족쇄에
침묵을 지키며 서서히
몽롱한 세계로 죽어간다

창문너머 있는 공간은
빛마저 삼킬 듯한 창밖의 하늘
내일의 희망마저 잡아먹혀

한없이 떨어지는 눈동자
한줄기의 빛조차
창문너머로 사라져 간다

다가옴

금융재무학과
20173133 허정현

또각또각 조용해진다
뚜벅뚜벅 고요해진다
철벅철벅 조용히 다가온다

턱턱 무언가 막혀간다
파랗고 노랗게 붉어진다
점점 서서히 막혀간다

또각또각 다시 조용해진다
뚜벅뚜벅 다시 고요해진다
철벅철벅 다가온다

책

금융재무학과
20173133 허정현

다양한 세상
행복한 세상
암울한 세상
즐거운 세상
외로운 세상
전능한 세상
관찰자 세상
허무한 세상

Mr. Smith

국어국문학과
2018048 배민정

옆집 사는 스미스 씨,
우리 동네 모범 시민
인생의 재미보다 허무를 먼저 배웠다지?

그의 방 책장엔 책이 가득해
그가 말하길, 목표란 부질없는 것이라네
    작별하기 위해 시작되는 관계,
    세상이라는 기계의 부품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 부품으로 돌아가는 기계임을 망각한 세상,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의 이름밖엔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는 그저 책 한 권의 마지막 장이 주는 쾌락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중

옆집 사는 스미스 씨,
누가 뭐래도 우리 동네 모범 시민
다들 그를 본받도록 해

시멘트 세상

국어국문학과
2018048 배민정

19XX년 XX월 XX일 탄생
그가 태어난 곳은
시멘트 도로 위에,
시멘트 건물 속,
시멘트 바닥과,
시멘트 벽으로 이루어진
회색 시멘트 세상

“고향이 어디십니까…?”
“시멘트 바닥입니다.”
“오! 고향이 같군요.”
안도하며 떠나버리는 사람들

따사로운 봄날의 햇빛이
그들 세상에 아무리 내리쬐도
그들의 벽은 무정한 회색일 수밖에
뼛속까지 무섭도록 시린 외로움이 덮쳐온다.

너도 나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동질감과
적어도 햇빛이 이곳을 비춰준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받아야 하는 추악한 나날들

60년 구두의 주인

국어국문학과
2018048 배민정

그를 이루는 모든 것은 보통 경멸스럽기 짝없다

오직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두 눈을
결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뱉어내던 입을
기어코 나의 간절한 호소를 담아내지 못하던 두 귀를
오직 처와 자식에게만 크게 울리던 목소리를
어디부터 꼬였는지 모를 의도대로만 움직이는 팔과 다리를
나는 증오한다

언젠가 그의 생이 다하는 날이 오면
나는 평생 그를 증오하며 살거나,
눈물 몇 방울에 후련히 그를 떨쳐내거나,
아니면 평생 죄의식을 지고 살아가겠지,
아주 오래전부터 켜켜이 쌓아뒀던 증오는 빈틈투성이

어느 날에는 증오가 두 눈 밖으로 흘러넘쳐
그의 등에 칼을 꽂아 넣으리라!
부엌에서 칼을 뽑아 달려간다
칼날 끝엔 왜소해진 그의 앙상한 등뼈와 가죽
증오 속에서 피어버린 연민
골치 아프게도
지독한 악취 속 곰팡이 같아

고요한 어둠이 찾아오면
나는 소원한다.
제발, 증오로 두 눈이 멀어버리기를
조금의 연민도, 일말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를 향한 미움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소원한다

독방

국어국문학과
20171024 나지수

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쪽방 어두컴컴한 구석
내 기억에서 가장 작은
그 방 조그마한 창가에

창가에 오르지 못해서
고개만 빠끔 내밀다가
손도 대지 못하고 겁내
떨어질까 무서워 울면

달이 무심도 하지 훌쩍
맞닿은 눈을 피하던 그

방에
작은 방에
수많은 밤이
늘어져 나를 기다리는
그곳이 아직도 나를 봅니다

큰 눈 산 눈으로 물끄러미
작은 밤 어두운 방 그 창을
훤히 열어두고 지켜봅니다

낙서

국어국문학과
20171024 나지수

펜을 물끄러미 내려보다가
차마 들 수가 없어
망설이기를 수 차례,

깊게 내리누른 선 아래로
새어 나온 마음이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워져서

발가벗은 자국에
살을 더할까 장식을 덧댈까
이것저것 들이대다
모자람이 더 커 보일까 봐
덧그린 모양새가 더 흉할까 봐

그래서
차마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늘진 곳에
살짝 끼워놓은 낙서

워터독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숨 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3차원 직육면체 세계를
멍한 표정으로 돌아다는 너를

네가 매일 즐기는
하루 한 끼는
뫼비우스가 마련한 것이다
한 공간 속에서 비슷한 맛에 길들여지며
갇혀 있다는 사실이 흐릿해진다

너를 창조한 것은 조물주가 아닌
우리들이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꼬마의 이마에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해

하나 둘씩 모여
네가 자랄수록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혹을 감상하면서 감탄사를 내뱉는다
이미 차고 넘치는 주머니 속에다
‘福’ 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새까만 흑심을
어떻게든 쑤셔 넣으려 애쓰고 있다

워터독 너는, 아니 너희는
인간의 욕심을 대신 짊어진 아틀라스다.

동굴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쩍 벌어진 동굴 속으로
나는 집어삼켜질 뻔했다
태어나 처음 마주한 것은 검붉은 어둠
어렴풋한 기억 속에, 첫 번째 획이 깊게 패였다

포근한 요람이 감쌌던 온기가
미세하게나마 흐르고 있어서일까
밖은 너무 넓고 으슬으슬했던 나머지
동굴 속 어딘가에는 요람을 가리키는 길이 있을 것 같았다
입구가 저리 넓으니 가는 길은 분명 많을 것이다

하나뿐이다
어둠 속에서 지워질 일방통행로

동굴과 마주치지 않으려
잔가시 가득 자란 쓰라린 시간 속을 헤엄쳤고
비늘의 결 틈새에 깊게 박힌 그 기억을 물결에 흘려보내려 몸부림쳤다
나를 품어 키웠던 요람이
동굴 깊은 어둠 속에 가둬버리려 했음을 고개 저었다
검정색에 흰색을 조금씩 섞어 가며 밝게 만들려 애썼고
내 글과 그림은
내내 회색 도화지 위에 쓰이고 그려져 왔다

어항 속 구피는 새끼를 한 마리 낳았다.
어미에게 잡아먹히려던 걸 곧바로 건져 냈다,
새로 마련한 넓은 어항에다 옮겨 주었다.
조명을 최대치로 올리고 먹이를 듬뿍 뿌렸다.
이곳은 녀석을 위해 준비한 호화스런 궁전.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작은 눈동자를 향해,
검붉게 칠해진 입술을 유리에 가져다대어
간접적 입맞춤으로 인사를 건넨다.

비파-hippo pleco
관상어항에 청소 용도로 키우는 메기과 물고기.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조명을 키면 유리벽 한가운데 네가 붙어 있다. 숯가루를 뒤집어쓴 듯 꼬질꼬질한 모습이 너무나 우습다. 두툼한 입술의 쉴 새 없는 움직임이 심히 부산스럽다.
주연, 조연들이 기지개를 피며 단장을 시작하는 틈을 타, 매력을 어필해 보려 애쓰는 엑스트라의 모습에 나는 조소를 금치 못한다. 결핍된 개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나는 손등으로 유리를 탁 친다. 당신은 탈락입니다. 그래, 그 구석이 네 자리야. 센터는 다음 기회에. 이것은 매일 매번 치루는 오디션이고, 반복 재생되는 영상 필름이다.

공허한 호주머니 속에 뭔가가 있는 듯 착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꺼져 있는 조명을 켠다. 웬일로 네가 유리벽에 붙어 있지 않는다. 새하얗게 변해 가는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다. 숨이 가쁜 너를 꺼내 다른 곳으로 옮겨 담는다. 비좁은 원룸 속 작은 어항은, 내게도 네게도 잘 어울리는 무대다.

무대를 떠난 엑스트라의 존재가 잊힌다. 내가 서 있는 이유도 희미하다.

주연, 조연만 남은 무대가 시간이 갈수록 결여해진다. 이끼와 물때로 검게 뒤덮여 시야조차 탁하다. 회복한 널 다시 큰 어항에 넣는다. 유리가 투명해지고 조연 주연의 색이 환해질 때쯤, 엑스트라는 구석으로 돌아간다.
제 자리를 본능적으로 찾아간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여전히 구석진 자리다, 초라하기는커녕,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당당한 왕좌다.
수많은 원고지와 서류 봉투로 가득한 책상을 바라본다. 이 방 속 가장 구석진 공간에 있는 나의 자리. 네가 어항을 닦고 자리로 돌아갈 때, 나는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책상에 앉는다.

오늘 아침에도 조명을 킨다. 이제는 유리벽 한가운데 붙은 네가 자랑스럽다. 네 비늘과 같이 새까만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선다.

날개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아침 안개, 척척한 바닷바람
김 서린 거울과
더러운 세면대 앞에서

나의 습기는 어디로 가는가?

바다를 사랑하는 운명은 눈물에 빠져들어
사라진 아가미를 찾으려는데

내려가는 하루들 속 첫 번째 도약은
하늘이 가장 높이 뜬 날 이루어졌다
그러나 깊은 곳 숨은 나의 왕국은 온데간데없어

힘찬 날갯짓에 문득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날개였던가?

나무가 흘리는 빠알간 핏방울이 아름다워
심해를 잊은 나는

비로소 활짝 펴질 날개를 기대하며
구름에게로 날아가 폭삭 안기고 말테다
포말처럼 부서지고 마련다

나무고아원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더듬거리며 누군가를 부르는
힘찬 아우성이 들리나요

고사리손을 잼잼거리며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는 곳

가장 아픈 날들이 모여
왜 고통이 아름다운가를 논하다가
가끔은 침엽수의 뾰족함을 부러워하다가

꽃의 이름도 나무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냥 상냥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들이객을 맞이하며
바람결 따라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참매미와 맹꽁이들의 놀이터

플라타너스의 낭만은
이곳에서 선잠을 잡니다

차차차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한 곡 추시겠습니까?

스텝을 밟아요
바로 이렇게

정해진 동작은 없어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모두 괜찮아요

음악에 몸을 맡기더라도
두 손 맞잡은 나를 잊진 말아요

손을 놓더라도
그것은 아주 잠시뿐

원- 투-
차차차

내 발을 밟아도 좋아요
그러나 멈추지는 말아주세요

변기 위의 교살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누군가를 안으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미완성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일상의 나는
옛사랑을 반복하고
몽정으로 어머니를 꾸는 것 같이
시간 속에 죽은 그녀와 몸을 또 섞고

실제 머물렀던 순간보다 더 잦은 방문
그녀의 얼굴을 맞출 때마다
방문을 닫아놓고 오래 앓는다

어떻게 하면 침대 위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불 밖은 맛없는 어머니의 음식 같아
이불 품에 안겨 있으면 앓지 않아도 양수가 터질 것 같아

배수구로 씻겨나가는 잔 꿈이 아쉬워 변기에 앉아 애써 졸아본

다 다 지루한 문어체만 늘어놓다
통증에 놀라 혼잣말을 붙잡고
긴 정적이 끝나면 잠이 들어
늘 홀로 대화를 적고

내 속에서 꺼내놓는 것들은
화장실 휴지에 적혀
아무리 건져내려도 잘 녹아버리고

뿌듯함은 어쩌다 막힌 변기 속에 뭉쳐있다

점점 단물이 빠지는 침대
쉽게 맞춘 위로가 너무 많아져서
변기 위로
매듭진 이불보를 낮게 건다
언제든지 졸다가 숨 막히도록 미소 짓게

비극의 사춘기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나는 좀처럼 다리를 꼬지 못한다
죄책감마저 느끼는 찝찝함에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한다
참회를

애완동물이 좋아할만한 달달한 것을 생각한다
적당히 뿌려두면 발정 나서 핥아댈 만한
얼굴에 신열이 오른다
참을 수 없어 아픈 쾌락

속옷이 또 더러워졌다
가라앉은 상상에 자신을 대입해보자
멈칫 이는 손가락
나는 문득 고개를 파묻었다

이 병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새로 산 속옷을 입는 설렘이
자꾸 엄한 허무를 만족시켜
주말이면 홀로 무수한 속옷을 갠다

나도 할례를 한다면
쉰내가 숨겨질 수 있을까
지금 벗을 속옷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의 비명

나비의 변태 따위라면 더 깨끗할 텐데
수시로 붉어지는 얼굴
하루하루 고해를 빨래하며
부끄러움은 이상한데서 들뜬다

유리 정조대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새어나간 것들은 모두 장난
내밀한 것들이 너무 많이 팔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리광을 부린다
혀에 깁스를 했어요
어젯밤 거짓말을 하다 턱에 걸렸어요
만성이 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재발한다고 하니
보험처리 할 필요 없이 입바른 말 만 해줘요

그는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이해자를 자청한다
방 한가득 흩어놓은 즉석사진들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 안에는 그대가 있지요
우리의 관계는 투명할수록 비싸서
쉽게 깨지더라도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네요

서로 열쇠는 묻어둔 채 옹알옹알

몇 푼 안 되는 속을 지키기 위해
가방을 앞으로 매도
똑같은 언어로 생각을 쌓으니
비밀은 최저시급도 안 돼
안전을 위한다면 스스로를 가둬야 돼

때때로 생리현상에 고통 받아도 기쁘다
네가 받아야만 하는 무게를 잘 관찰할 수 있어서
굳어있는 인형 보다 단단한 체온을 증명할 수 있어서

이스터 에그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몰래 병아리 한 마리 사들고 왔을 땐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나는 병아리가 너무 귀여워서
뽀뽀를 하고 즐겁게 TV를 틀고
떨어지는 리모컨에

병아리가 고장 났어

노란 멜로디언처럼 호스를 불어봤어
푸들거리는 몸짓은 소리가 안 나서
나는 혼날까봐 열심히 울었어

왠지 오락처럼 울었어

병아리는 영화처럼 눈이 돌아갔어
교회에서 무섭게 우는 사람들이 생각났고
처음으로 나도 따라 해봤어
아멘-
아멘-하니 뭔가 좀 개운해 졌어

아, 부모님 오시기 전에 어서 버려야겠어

경비아저씨 몰래 아파트 화단에 묻으며
부활절이 생각났어
만약 화단에서 다시 살아나면 어쩌지?
나는 왠지 무서워져서 흙을 두껍게 쌓았어
아멘-
아멘-하니 부활절 계란은 잘 삶아져 있잖아?

그래서 무덤이 계란처럼 둥글구나
다시 태어나기 전에 빨간 리본으로 묶어주려고

지하의 압생트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지하철 창가는 항상 건조한 멀미를 부른다
잔상처럼 뭉개지는 사람을 피해
고개를 박고 있을 때 갑자기 눈꺼풀을 찢는 빛살
재채기를 참고 밖을 보았다 졸음이 깨지고

한강은 굳었다
한편의 창을 메우고도 남을 가득한 아침에
자갈처럼 잘게 바스락거리는 수정들
발이 닿으면 모래사장처럼 버석거릴 고체 같았고
지나는 창 너머에 매인 유람선
수세미로 물때를 벗겨낸 것처럼
순간은 제 색보다 더 하얀 빛을 자랑하였고
얼마 멀지 않아 덩그러니 놓인 오리배
커다란 잠실타워를 등대삼아
사람도 없이 홀로 깨어있다
바람도 잔잔하여
파란 마노석 지대 위로 눈처럼 고운 모래가 쌓이고
죽지 않아 색을 가진 생물 한 척이 푸욱 박혀서
사르륵 사르륵 하얀 모래가 잔바람에 날려
밑동을 얕게 긁고 사라지는 것 같았다

파란 터에 솟은 가로등 작은 화분 하나
누군가 불을 끄듯 일식이 왔다
창에 다시 찬 소용돌이
눈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
무언가에 젖어 뭉개진 시야
동요 같은 CM송
다음 역에선 병원을 광고하고 있다

바다1

국어국문학과
20171070 이예림

지어낸 운명에 뺨 맞은 존재
어쩌다 여기로 도착했을까

그저 난파된 마음 조각 끌어안고
파도에 이끌려 흐르는대로 나아갔다

비수를 뽑아내는 일은
그렇게 외로워야만 했을까

아이처럼 되풀이되는 질문들에
수평선 너머만이 알고 있다며
속삭이던 파도의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에 취해
굳어져가는 심장을 말없이 품고
목덜미로 달려드는 졸음을 가만히 지켜봤다

끝없는 망망대해
사람 살 곳은 아닌 것 같지만
내 발목은 바다를 가르고

어깻죽지에 돋은 두 물혹
날개라 믿었던 아픔까지도
이젠 내 외로움 달래주네

바다2

국어국문학과
20171070 이예림

눈 뜨면 늘 바다 한 가운데였다
중심을 잡고
아닌 척 뭍을 기다리고 있으면
입술을 스치는 바닷바람에 목이 메었다

공연히 옮아오는 파도를 흩으면
흩어진다 그저 놓으면 놓쳐진다
아득해도 잊어지질 않던 부름이여!
나는 죽을만치 아프기를 실패했다

기억들은 언제나 아름답고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저기 새끼손톱으로 가려지는
조각배처럼

바다3

국어국문학과
20171070 이예림

시인이라고 하기도 부끄럽다네
꽃물 든 뒷꿈치를 보면
나는 영영 불구가 되었건만

동풍, 바다와 바람과
남실남실 춤추는 쪽배
어질어질 쏟아지는 빛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음에

나는 시인이라 하기도 부끄럽다
이젠 거짓말도 못하는 인생
농담같이 흘러간 눈물도
쓸모를 찾지 못한 의미들도

뒤돌아보면 조용히 눈 맞춰오던 심연
그리워도 다시 볼 수 없을
그 새캄한 눈동자처럼

안녕을 보냈으니까

누군가의 일상

국어국문학과
20181089 임소윤

무표정에 건조한 목소리
팔을 내밀어 주먹을 쥔다
이것은 익숙한 아픔이다

기침을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삼켜진 씨앗은 뱉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몸을 거름 삼아 자란다

그렇게 그렇게 자라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숲이 되려나

맛있는 것도 재밌는 것도 없는 이곳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밖 세상도 좋은 곳은 못 되지 싶다

이곳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놔서 밝은 것인지
이곳에 어두운 사람들만 모아놓고 가둔 것인지
내 상태로 보자면 후자를 면치는 못할 터였다

밖에서 온 사람들은 냄새를 하나씩 달고 온다
씁스름한 냄새, 달큰한 냄새, 시원한 냄새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지더만
코끝에 알코올 냄새는 지워진 적이 없다

밖에서 온 사람들은 날씨가 좋다고 한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다 좋다고 한다
날씨는 좋을 수 밖에 없을 운명인가
오늘도 나는 곁눈질로 창밖만 바라보네

삼키다

국어국문학과
20181089 임소윤

잠시 뒤돌아
왔던 길을 멀리 본다면
현재의 나는 조금 쓴맛

그리고 다시 뒤돌아
눈 감는다면
밍밍한 비린맛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래
해질녘 즈음엔 항상 혼자여서
향기로운 뱅 로제의 끝맛은 씁쓸하고

안개 낀 새벽의 텁텁한 공기의 맛과
가끔씩 밀려오는 무거운 짠맛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모든 맛들이 녹아들어
아무렇게나 섞여버리면

복잡미묘한 울렁거림에

그냥
삼켜버리고 마는 것일까

아가미

국어국문학과
20181089 임소윤

내 몸의 흉터들이 벌어져
아가미로 변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차가운 공포를 들이마시고
뜨거운 광기를 내쉰다

벌어진 아가미로 호흡하고
돋아난 비늘로 물살을 갈라
축축한 시간 속에서 헤엄치며 나아가리라

쏟아지는 별에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람의 노랫소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충치

국어국문학과
20181089 임소윤

쿵. 쿵.
이가 시리다

그것은 청춘의 사랑니
단단해 마지않던 어금니
웃을 때 드러나던 송곳니

반짝이던 눈에
맺힌 절망을 보았을 때

싱그러운 웃음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척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시리다 못해 쓰라린 침묵으로
대신해 버리고 말았다

쿵. 쿵.
이가 시리다

아아, 나의 마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이를 좀먹는 충치처럼

썩어 버렸네.

연못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복된 거룩한 성일에 모인 교인
목사는 말라버린 베데스다[2]를 이야기 했다

300만원 어치를 들고 가도 다음 달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곳
천사들이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의 현장

색색 예수의 창 너머로 황톳빛 빗물이 쏟아진다
천사는 어떤 물에도 동하지 않고
사람들은 썩어가는 살들을
박박 문대고 간다

와이퍼를 흔들며 가는 대학병원 앞
5만원 어치 수액을 맞으며
주사 바늘 사이로 들어오는
3일치 희석된 못의 물을 생각한다

복된 성일
거룩해지는 육신
수요 예배까지 은혜로운 3일

2) 베데스다 : 신약성경에 나오는 연못. 새벽에 천사들이 연못에 기적을 주어 그 날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는 곳. 가난한 사람보다 부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웠던 곳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백만원도 채 안되는 가격-
명동의 한가운데 사장되는 폐건물 앞 플랜카드
그 빚이 지금도 불어나는지 아는 건
XXXX-XXXX로 전화하는 사람들뿐이다

빚을 진 건 건물이 아닌데
몇 조각 떨어지는 콘크리트도 평가가 된다
파란 방수천으로 잠시 가려
보내는 소록도

문화의 거리
넥타이, 손목시계, 가방들 사이로
빚만 쌓여가는 물건 전단지를 돌린다
-협상 가능한 가격!-

세계는 네트워크 마케팅
문을 두드리고 전단지를 돌리고
만나서 물건을 파는 과정

똑똑한 면접관은
내가 돌린 전단지를 빠르게 넘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어국문학과
20161108 최유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되짚어 볼 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나에게만 오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남기지 않듯이
당신의 생도 잔잔해지리라는 것을
잊지않길

사랑하는 당신에게 해주고픈 말.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만나길

가을과 겨울사이

국어국문학과
20161108 최유진

문득 눈앞이 일렁인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려 할 때
순간 차오르는 감정들을 빼내려고 할 때
가장 무기력한 순간들이 찾아온다

언뜻 읽은 글에 공감이 되는 건
당신이라 지칭한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건
모든 짐을 싣고 가는 수레가 되는 일이 되기에

떠오르는 마음을 잡고 차오르는 눈물을 삼켜
다시 다짐하는 순간이 생(生)을 다할 때 까지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해본다

離別이 아름다워 질 때
비로소 비워질 테

양면성

국어국문학과
20161108 최유진

빛과 어둠
거짓과 진실
관점과 해석

생각해보았을까
아니, 알기나했을까
웃음 뒤엔 눈물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세상이 세워질 때
나의 세상은 무너졌다는 것을
배려란 이름에
희생이란 단어를
당신은 알았을까

아름다움 뒤엔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았을까

막힌 불꽃

국어국문학과
20171093 정예빈

해가 저 멀리 지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붉디붉은 하늘은 어느새 푸른 남보랏빛으로 메워졌다
심연에 잠긴 듯 고요해진 공창 안에
나는 홀로 떨어져있다

큰 눈동자들은 눈알을 굴리면서 날 쏘아보고
커다란 입술들은 키득키득 거리며 미소를 지어낸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말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마저 짊어가기엔
힘든 나를 바라봐주세요

원,
투,
쓰리,

쏘아올린 꽃에 사방으로 퍼진 메아리 소리
불은 노래한다
떨어지는 촛농과 같이
끄기 힘든 우는 소리를 막다 흘린다

외로움의 색

국어국문학과
20171093 정예빈

타오르는 태양 위에
얹어진 붉은 베일같은

저녁 노을빛은 빨간색이다
외로움의 색이다

태양의 모든 빛이
지상에 닿는
낮과 달리
대기 중 미립자에 튕겨져
파장이 긴 붉은색만이
남게 된

저녁 노을빛은 고독의 색이다

매일 저녁 홀로 빛나고 있는
아름다움에 가려진 붉은 외로움

고독하기에 아름다운 것
아름답기에 고독한 것

내면

국어국문학과
20171093 정예빈

믿었던 이의 배신에
어린 두려움에
눈을 감으며 외면했던
성장판이 닫힌 채 살아가는 아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 속에
깊은 바다 속, 지면 위에
광활한 우주 속에 떠돌면서 살고 있다

빗물이 떨어뜨려 굳어진 지면을 허물며
심해의 지면을 끌어올려
넓은 우주에서 소리를 외치며
이젠 너를 찾는다

같은 듯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나노융합스쿨
20143517 윤종성

찬 바람이 부는 버스 밖에
서리가 내려진 한강이 보이고
마주하며 바라보는 듯한
깨끗한 유리 창가에는
모두가 각자 다른 한강의 풍경을 보고 있다

퇴근하며 오늘의 하루를 끝마치고
내일의 시작 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생기가 엿보이기에
오늘의 끝점을 찾는 이들의 눈에는
커다란 푸른 빛의 구가 자리 잡고 있다

눈을 감아버린 한 청춘은
갈 길을 찾고 싶어 손을 휘저어 보지만
제 갈피를 찾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고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지만
아무도 선뜻 도와주는 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마냥

한 청춘은 암흑 속에서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그 시절 수많은 빛이 내리던 날

나노융합스쿨
20143517 윤종성

가볍게 잔을 부딪쳐 건배라며 외치는 이 순간

다시금 나는 이 육사 순열을 생각해
서글퍼지는 표정을 감출 길이 없음을 깨달아
문을 열고 조심히 밖으로 나간다

첫눈이 온다는 소식이 기쁘지만
마지막 눈을 기억하지 못하는 슬픔에
먼 우주의 별을 가슴에 그려본다

또렷한 기억이 말해주듯
새가 지저귀는 동시에 모든 감각을 깨우고
목련 한 꽃잎 아래에
나무가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 보인다

노련한 신사가 옛 추억에 젖어 들 때, 즘
젊은 청년을 품에 안은 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
술잔을 다시 마주친다

올해의 첫눈이 유난히 길게 내리는 이 밤을 뒤로한 채

연극을 기다리며

나노융합스쿨
20143517 윤종성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에게 닿기를 말이야.
하지만 너는 내게 닿을 기회를
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지.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어
그림자의 형태도 보이지 않았을까?

산과 바다가 변하는
시간의 절반을 지나.
너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인고하고 그리워했어.

단풍의 잎사귀가 붉어질 때
내게로 다가와 귀를 기울여 줬고
우리 서로는 만날 수 있었어.

추운 겨울이 오기 며칠을 남겨두고 말이야.

좌현으로 기울여진 좌뇌의 공간

나노융합스쿨
20143517 윤종성

몸을 가누기도 힘든 어둠의 덫으로 쉼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시차가 느껴지지 않는 이곳은
이곳이라 할 수 없고 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미지의 공간으로
아니,
어쩌면 알 수도 있는 공간으로 끝없이 떨어진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무덤의 골 속으로
끊임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제발
끝 지점에 머리가 닿기를 바라며
머리가 닿아 산산조각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 지점에 닿았을 때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고 붕 떠 있다

더는 추락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 다시금 추락한다
좌현으로 기울어진 좌뇌의 촉수에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힘겨운 싸움에
더는 불을 지펴주지 못한다

밖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가
힘겨운 싸움과는 상반되어 짜증이 치밀어오른다
싸움에서 승자가 없는
패자만이 있는
이 긴 싸움의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어쩌면 날 선 칼의 중력의 힘을 받아
거슬러 올라가야 끝이 날까?

수많은 어둠 속의 덫들에 엉켜
잠 못 드는 나날들이 계속된다
참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는 날들이 많아지고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크게 소리를 질러본다
나아지지는 않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언제까지 추락해야 하는 걸까?

끝이 없는 추락지점은 아닐까?

좌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함께 했으면서 함께 하지 못한 날들에 대하여

나노융합스쿨
20143517 윤종성

방 안에 서서히 어둠이 드리우고
밖에는 한 밝기의 가로등 빛이 비쳐
가로등을 바라보며 잦은 사고에 잠긴다

흘러나오는 슬픈 음악을 들으며
이중 문으로 되어있는 창밖의 빛을
바라보는 이 순간을
그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티고 기다리며
돌아오는 빛이.
방 안에 퍼질 때까지 인고했을까?

방안은 여전히 어두워 밖에 가로등 빛의 의지해
하나둘씩 불이 켜지는 건너편의 창가를 보며
그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품에 의지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창 안에서 바라보고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작은 위로를 받았을까?
서서히 지쳐가는 눈동자에
왜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을까

함께 했으면서 함께 하지 못한 날들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눈물을 남몰래 어두운 방 안에서
가로등의 빛을 보며 손등으로 훔친다

나는 조건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20185254 신준철

물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은
비로 내리길 원한다.

나도 그와 같다.

다만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 1: 당신이 있어야 한다.

조건 2: 그대가 있어야 한다.

조건 3: 너가 있어야 한다.

투두두두 우르르 쾅쾅

빅데이터
20185254 신준철

지금 나는 슬프지 않다.

그가 나를 보고 꺾인 나뭇가지를 떠올린다면
그의 눈이 꺾인 탓이다.

그녀가 나를 보고 시들은 꽃을 떠올린다면
그녀의 눈이 시든 탓이다.

하늘은 나와 똑같다.
다들 먹구름이 잔뜩 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전혀.

투두두두 우르르 쾅쾅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진 새

빅데이터
20185254 신준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진 새가 나에게 말을 건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차가워. 햇빛은 짧고, 외투는 가벼워.’

하등 쓸모 없는 말이다.

짹짹짹짹

내가 너에게 말을 건다.

짹짹짹짹

白

사학과
20171076 이지수

숨을 내뱉듯
운명인 듯 자신을 내어
白을 얻었다

白은 희미했고
바스라졌으며 사라졌다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白은
너의 굳은 의지였고
소망이었다
白은 희망이었다

너의 白이
수많은 날이 되고
암흑 속 빛이 되어
세상이 되었다

목련

사학과
20171076 이지수

시리도록 푸르고 새하얀 겨울
새하얀 꽃봉오리가
이 자리가 제 자리라는 듯이
시리도록 소복이 쌓인 눈 속에
조그마하게
자리 잡았다

주위의 것들은
모두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인지
그 꽃은 그곳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

주위의 것들에
서서히 파묻혀가
이리 저리
피해보지만

눈인지 꽃인지 모를
그 풍경 속에
그 꽃은 서서히
홀로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사라져갔다

드러내다

사학과
20171076 이지수

고치를 왜 벗기는가
고치는 벗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 벗는 것일 텐데

그 안에 온전치 못한
나는 무엇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가

그 여린 살결을 할퀴어
그대는 무엇을 위해
드러내는가.

이야기

사학전공
20181015 김세연

단정함이 무너지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찬란하게 펼쳐지는 남자의 이야기
차갑고 시린 심연 속으로 가라앉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손에 남은 투명함이 실수를 창조한 것일까
속에 담긴 붉은빛의 감정을 표현한 것일까

어둠 속에 홀로 빛나는 허공 위로 흩뿌려진 선혈
태양을 삼킨 듯 붉게 채워지는 시야
잔인하고 아름다운 붉은색과 푸른색의 뒤섞임
희망없이 추락하는 구원을 갈구하는 손

남자의 이야기 끝은 바람의 끝자락이었다.

거울

사학전공
20181015 김세연

빛을 삼킨 채 빛을 잃은 거울 하나
세상을 흑의 결정으로 만든 채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로 어둠을 삼킨다

어둠의 시야를 채우는 것은
어둠 속 작게 반짝이는 파편 조각들
맑게 빛나며 뒤섞인 파동 속 흔적

그제야 어둠은 거울 속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암흑만이 존재할 것이라 믿었던
자신의 존재 속 빛을 안은 채

회상

사학전공
20181015 김세연

기억의 파도 속에서 바둥거린다

손에 쥔 것이 바람뿐인 나는
꽃을 안은 사람에게 손을 뻗는다

여유로운 웃음과 꽃을 바닥에 흩뿌리는
오만하고 나태한 자의 모습과 마주하며
혹여 잃을까 다급하게 꽃을 줍는다

파스스, 손 안에서 꽃이 부서지고
반짝이는 안개가 되어 사라지는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선명해지는 인영을 바라본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은, 과거의 나를.

미래(未來)

인문학부
20191042 남하은

굶주린 새끼들을 위해
어미 물고기는 먹이를 찾아 나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빈 손으로 돌아온 어미의 시야가 흐릿해져 갈 때 쯤
하늘에서 내려온 듯
푸르른 3)만나가 아른거린다

어서 우리 아가들, 우리 아가들 먹여야지
어미가 먹이를 낚아챈 순간

엄마, 나두 나두
철없는 새끼들이 아우성치며 달려든다

맛있다
보이지 않는 엄마를 찾으며 새끼들은
아가리 안의 고기를 행복하게 씹어재낀다

3)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광야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 주었다고 하는 기적의 음식.

독백(獨白)

인문학부
20191042 남하은

광활한 우주
말 걸어도 대답 없고
대답 해도 들리지 않는
천국의 국경선

수많은 원석 중 하나가 내려와
네 눈에 박힌다

찬란하게 빛나는 소우주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결국 다른 방향의 은하수를 바라본다

내 것인 적 없던 나의 별을 잃은 것이 심히 애닯고 안타까우나
나를 보지 않고도 빛나는 그 모습이 무참히 아름다워
그리워
오늘도 나는 너를 노래하며 기뻐할 뿐이다

외사랑

인문학부
20191042 남하은

쉬이 식지 않는 새벽의 기운을 빌려
이렇게 고백하여 본다

어렴풋이 비쳐오는 너의 그림자 하나만으로
내 마음은 길을 잃어 방황하였다

갈 곳 몰라 헤메는 나의 눈동자는
그 와중에도 너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아름답고도 차가운 그 계절에
나는 너를 감히 사랑하였고

따뜻한 봄이었던 너는
그렇게 나에게 올 줄 몰랐다

나는 오늘도 널 위해 뿌린 눈물 한 줌으로
하루를 거두어 낸다

선인장 호텔

사회복지학부
20182321 김지수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다
햇빛은 화살처럼 내린다
사막에서 살아남을려면
선인장처럼 가시를 세워야한다고
그래야 시들지않고
꽃을 피울수 있다고

그래 선인장처럼 따뜻해야지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에
새가 살고 벌레가 살수있게 품어주어야지

다른이들이 화살을 피할수 있게

짝사랑

사회복지학부
20182321 김지수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나는 너에게 조용히 스며들었다

내가 너에게 축축히 젖어들었을때
너는 다른이에게
벅시어져 나를 적시지 못했다

나는 나의 몸을 지어짰다
너를 짜낼려고 한방울이라도 더 짜낼려고
더 비틀고 더 짠다
그래도 너는 촉촉이 남아있다

이젠 내가 마를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지

제행무상

사회복지학부
20182321 김지수

저 멈춰버린 시계처럼
우리도 멈출수 있었다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었을텐데

하지만 우리는 멈추는 법을 몰라
과거의 아름다움만 볼뿐

그렇다고 억지로 멈추지 마라
어짜피 그것도 순간이니

눈

생명과학과
20173536, 장설아

밤새 눈이 내렸나봅니다. 10층에서 내려보는 세상은 하늘도 땅도 나무도 죄다 하이얗습니다. 그 아래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도, 꽁꽁 얼은 까만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각막에도 눈이 내린 듯, 창에서 눈을 돌려 방안을 보아도 온통 하이얗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어 눈을 털어냅니다. 오늘은 10시에 하나, 1시에도 하나, 그리고 6시에 또 하나, 눈처럼 쌓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밟으며 길을 나섰습니다. 이 발자국에도 곧 눈이 쌓일 거란 생각에 내딛는 발걸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오가 조금 안된 시간, 다시금 나와 바라본 풍경은 아침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후가 채 되기도 전, 인간에게 짓밟히고 이기적인 문명의 바퀴에 깔리고 뜨거운 햇볕에 녹아 거먼 죽처럼 된 세상. 이 세상의 그 어느 순수함도 진리도 아름다움도 변치 않는 것은 없나봅니다. 아침에 내 눈까지 깨끗하게 해주었던 눈마저 이렇듯 변했으니.

쌓인 눈을 털어내듯 쌓인 일과를 털어내고 돌아와 보는 집. 하릴없이 저 혼자 느낀 실망감에 젖은, 몸뚱아리를 씻고 나와 아침 그 자리에서 창을 내다봅니다. 아아.

아아. 있었습니다. 진탕의 풍경 속, 인간에게 짓밟히고 이기적인 문명의 바퀴에 깔리고 뜨거운 햇볕에 녹지 않은 작은 세상. 여전히 건물 옥상마다 그대로 쌓인 것들이. 변치 않은 그것들은 달빛에 비춰 아침의 그것보다 하이얗습니다.

겨울 녹는 소리

생명과학과
20173536, 장설아

입춘도 설날도 지났다
부슬부슬
봄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버스차창을 따라 흘러내리는
애잔한 물자욱들은
그저 구름이 만들어낸 물방울일까

혹, 겨울이 녹아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슬부슬
나를 모아 새싹을 피워내라고
부슬부슬
얼었던 세상도 따스히 녹아내리라고

그렇게 겨울은,
자신을 온전히 녹이며
스러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밤

생명과학과
20173536, 장설아

밤, 빛마저도 흡수한 듯 블랙홀 마냥 캄캄한 밤에
창 사이로 옅은 달빛이 흘러나와 누윈 몸을 적신다.
초 가는 소리만이 울리는 세상이 나를 흡수해간다.

째깍째깍, 서러운 마음에 누군가 토닥여주기라도 한 듯
몸을 둥글게 말아 흐으 하고 흐느껴본다.
째깍째깍, 한참 전 성인이 된 나이지만 어머니 향한 그리움에
아이마냥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너의 낮처럼 강한 척 할 필요 없어.
누구나 이 곳에선 외로움에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그리움에 흐느끼는 아이가 된단다.
울렁이는 세상 속 환청이 두 귀를 짓누른다.

째깍째깍, 째깍째깍

빠르게 스쳐가는 삶, 가끔은 멈춰서
다시금 나를 찾아다오.
희미해져가는 어둠 속, 그 소리 또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채칵채칵, 그리고 칭얼대며 이리 말해도 좋단다.
‘오늘도 난 울러 왔어.’
채칵채칵, 채칵채칵..

가는 길 즐기기

생명과학과
20173536, 장설아

산책의 의미는 목적지가 아닌
가는 길에 있다

인생은 꿈을 향한 산책이다

그리고, 인생 또한 그렇다

예쁜 먹구름

(주제 :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과
20172563 임민주

사람들은 예쁜 흰 구름만 좋아한다.
꺼멓고 어두운 내가 무섭나?

아니면…

먹구름 친구들과 몰려다녀
보기 좋지 않은가?

그래도…

메마른 땅과 목마른 꽃들에게
물을 주는 건 나인데…?

이젠 나도 예쁜 흰 구름처럼
예쁜 먹구름이 될 거야

노을

(주제 :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과
20172563 임민주

하루 내내 빛을 내어주다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장 강력한 빛과 열을 내고서
빨갛게 타올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

고마워, 수고했어.
들어가서 잘 쉬고 내일보자.

달

(주제 :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과
20172563 임민주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한 달빛.

나에게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만…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저 밝은 빛을 나눠준다.

깜깜한 이 곳
저 달 덕분에 밝아졌다.

방도, 나도

낙엽

(주제 :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과
20172563 임민주

아얏,
떨어졌다,

뒹구르르
날아간다.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것도 모른 채.

바람에 몸을 맡겨보지만
멈추고 싶다.

마음이 아리다.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떨어진 곳에
눈이 쌓이는 그 날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있을까?

따듯한 눈

(주제 :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언론방송융합미디어 학과
20172563 임민주

보슬 보슬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네.

나무와 땅
따듯하도록
그들 위를 덮어주네.

정작
자기는
녹아 사라질 거면서…

따듯한 겨울을
선물하고 사라지는
너는 예쁜 눈.

기숙사

일본학과
20181601 강수연

자유와 거래의 결과는 나의 만신창이
내 상처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 곪아갔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던 치부
껍데기 속에 몸을 감추고 땅 속에 파고들었다.

다녀오세요- 후엔 더 큰 껍데기가 된다.
온전히 내 세상이어도 도태되어버린 두 발은
땅위에 디디고 서기도 힘들어 금방 주저 앉아버린다.
그렇게 한참 응시하게 된 주변 소음

아침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학군단의 아침훈련
입을 다물었지만 침 흘리던 욕실의 샤워기
뒤척이면 고통에 몸부림치던 침대의 매트리스
바람에 울렁거리며 벽을 때리던 블라인드

텅 빈 눈으로 한참 세상에 귀 기울이면
그럴 줄 알았단 걱정 섞인 그들의 아우성이 도착한다.
보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사랑스런 동기들이, 전공서적 속 일본어들이.

죽은 꽃동산의 기억은 매화의 시간
모두에게 등 돌리고 웃지 않는 거울 속을 바라봤다.
간신히 웃는 거울에 이유를 붙여본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청춘

일본학과
20181601 강수연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 사이 어디쯤일까,
그동안은 삭막한 겨울이었나
어쩌면 죽지 못했던 싹이었나

치맛자락 한번 화려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뜨거운 뙤약볕에 말라 부서질 바엔
외로워도 시들지 않는 조화가 행복하지 않을까
텅 빈 마음보다야 초라한 외면이 덜 아프지 않을까

먼지 머금은 회색 바람이 왼 뺨에 입을 맞추면
눈 먼 여린 잎은 외사랑의 미소를 잃고선
받아둔 빗물을 삼키고 삼키며
스며든 해악을 마시고 소리를 먹는다.

주눅 들고 쭈그러들다 마침내 고요히 잠든 씨앗
내일이 두려워 애써 스스로를 고장내본다
춤추는 요람 사이로 비치는 필연
단잠을 괴롭히는 진한 향기에 막아본 코

나 언제쯤이면 꽃이 될까
동이 트면 드리우는 검은 그림자
씨앗을 가득 채운 잿빛 먼지
주저앉아 받아먹는 빗물
깊어지는 한숨에 두터워지는 겉옷

틈새

일본학과
20181601 강수연

구름이 걸레를 짠다
머리 위는 포화상태
아래는 굶주려있다

벽과 천장의 이음새
그 틈 사이로 물이 떨어진다
모두가 다 받아먹기엔
모자라 부족해 살려줘

커피메이커는 빨리 내려주지 않아
거름종이 구멍마다 맺히는 방울을
보다 보면 애가 타 죽어버릴거야

반쯤 막혀있는 파이프는
종종 동전에 맞았고
언제나 속에서 가래가 끓었다

골지 박스 주름 안쪽엔
다둥이 엄마가 살고 있다
집은 빠르게 접혀나간다

오점을 남겨선 안되는 나의 집
윗층 사는 집주인은 분명 알고있다

들리지 않는 층간소음이
천장을 닳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름날의 동물원 속 펭귄

일본학과
20181601 강수연

아이가 들어서지 않던 부부는
해외 입양을 결심했다
애 먼 아이만 가족을 잃었다
친양자제도에 자비는 없었고
고통도 온전히 당사자의 몫

그 해 여름은
아이의 고향이 불 없이
촛농 흐를만큼 기이했단다

양부모의 나라는 아니 아이방은
항상 시원했기에 모를 수밖에 없었다
만년빙을 보며 눈놀이를 하는
비슷한 꼬마들과 지내는 생활이 익숙하다
납치당한 펭귄은 행복하다

유리 안에서 살기위해
바깥 자연의 가족들을 죽인다
꿈에도 모르겠지

놀고 먹기 좋은 단칸방이
불안정한 마당보다야
안심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갇혀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세월哀悼(애도)

철학과
20167014 양영진

채 물들지 못하고 떨어진
파란 이파리를
가슴에 묻는 일이란
어떤 느낌인지를 아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 더는 말 말라는
나랏일을 논하시는 분들의 고함소리에
고작, 파란 새잎이 잠긴 이유를 묻는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묻는 일이 끝날 즈음엔
그런 일 잊었노라, 모르는 척하는 날이
올런지도 모르겠지요

먼저 가는 이가 흘린 눈물은
하루가 채 안 가 말라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즈음엔
그저 늦은 밤, 그리움에 떠밀려
그 바다에 홀로 찾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채 물들지 못하고 떨어진 파란잎
먼저 떠나보낸 노란잎의 눈물은
가는 세월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잔잔한 수면 위로
목격자인 갈매기까지 만나게 되면
가라앉지 않으려
허공을 향해 뻗은 그 파리한 이파리
문득 떠오르고는 합니다

노란 잎보다 먼저 떨어진, 파란 잎을
가슴에 묻는 일이란
어떤 느낌인지를 아십니까

그저 어떻게
떨어졌는지 만이라도
알고 싶은
주름진 노란잎의 마음을 말입니다

카펫

철학과
20167014 양영진

아침 6시 반
학교 운동장에는
카펫이 깔린다
지난밤에는 힘차게
하늘을 날던 융단들

나방,
곤충강 나비목[鱗翅目]에 속하는 종류 중
나비류를 제외한 나방류의 총칭
나방은 별빛이나 달빛으로 길을 찾는 하는 습성이 있어,
더 강한 불빛인 등불에 모여든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나방

지난 밤
유리에 가로막힌 가로등 빛에
털투성이 몸, 수없이 찍었을,
이제는 체액을 떨구며 죽어가는 융단들

나는 조깅을 그만두고 운동장에서 나왔다
융단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나는 나의 가로등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력서

철학과
20167014 양영진

흐릿한 기억 속에는, 무수한 발자국
눈앞에는 네모반듯한 하얀 종이
검은 줄로 구분되어진 빈칸들 속에서
한순간의 채점표로 요약되는 내 발자국의 기억
비좁은 빈 칸 속에 어색하게 웃는 나를
밀어 넣기

하지만,
반듯한 하얀 길 위에서
잠시 멈추는 발걸음.

>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 어떻게도 도착할 수 없는
> 빈칸의 건너

그래, 중요한 건
게을렀던 옛날의 나를 욕하기
이 어지러운 하얀 미로 속에
헤맬 필요가 없는 수저들을
부러워하기
그리고 나의 앞날에 절망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다시 내딛는다.
발자국을 찍으면서
한 발자국 내딛을 때 마다
가슴이 고동친다.

이 어지러운 미로 속을
헤매며 걸어 나간다
저 빈칸의 끝에 다다를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멈출 수는 없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

혹시

철학과
20167014 양영진

혹시는 혹시여서
혹시나 하고 돌아보더라도, 역시
역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
지금 많이 아파서
혹시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역시,
인스타 사진 속 당신 얼굴은, 너무 밝아서
역시, 그럼 그렇지
혹시나 하는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역시 다 알았다는 말투로, 역시.
하지만, 혹시나 너 미안해할까.
나 역시 인스타 사진 속 얼굴은, 너무 밝아서
혹시 너도 그럴까?
살며시 고개 드는 혹시.
혹시, 새벽 2시25분,
혹시 하고 묻고 역시,
끝없이 대답하며
잠 못 드는 밤.

愛猫無限流動性固體(애묘무한유동성고체)

철학과
20167014 양영진

골판지내부의털뭉치내부의유동성고체아니액체내부의솜방망이내부의분홍육구
사각이난용기사각의고체아닌액체유동성운동의사각이난액체.
털뭉치가통과하는촉감의말랑함을투시하는사람.
이세상귀여움을모형으로만들어진귀여움을모형으로만들어진이생물.
새하얀양말.(이생물의이름은치이즈였다)
묘항현령. 그대목에방울을달수는없지마는그대목소리는참방울같습네다.
유기의몸으로서물과효모와밀가루로이루어진식빵을추진하는말랑한중량.
쾌청의하늘아래빵을굽는노란호랑이. 얼굴에배가고프다고씌어져있다.
내게와몸을부비는그대온기에새삼깨닫는동양의겨울.
내기꺼이내지갑을열어드리리다. 사냥에성공한마드무아젤.
뼈와살과털뭉치와연분홍젤리로이루어진상자아니상자안고양이아니액체로질주하는물리공식.
시계문자반십이시에비릿내나는깡철통앞에내리워진두개의젖은황혼.
이생물은대체무어시관대알수없는행복감을주는내부의만족감내부의다리를휘감는부드러운꼬리의인사.
즉석식당의문간에방금도착한행복은삽시간에헤어진다.
생선기름내가엎질러진손바닥에분홍젤리가실린다.
샅겉을질주하는혓바닥.신경을질주하는까끌함과쾌감.
오고가는저사람은사람이아닌집사가아닌사람아닌집사아닌오늘의저녁아닌여자가아닌남자가아닌사람이아닌그저집사가아닌먹이를주는사람혹은은먹이를주지아니하는사람.
허나나는이생물앞에먹이를주는사람으로만족한다.(허나나는애처로운이별에애처로워하는나)
걸어다니는유동성고오체가사一뿐히걷기시작한다.(심장이멎는일이다)
봉ㅇㄴ재터의근방에서승천하는굳빠이.
바깥은겨울. 노오란털뭉치의군집이동.
고양이귀엽다.

향

광고홍보학과
20192634 최승아

오늘도 나를 알리기 위해 나를 피운다.
내가 느끼는 나의 향은 평범한 것이 짝이 없는데
나에게 오는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나를 켜고 끔을 반복할수록 나는 줄어들었다.
나에게 오던 그들은 나의 향이 배어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저 주변에 머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알릴 수 없었고
그저 그들에게 밴 나의 향이 다른 향으로 가려져
나의 향이 그리워 지길 바랄 뿐이었다.

마음

광고홍보학과
20192634 최승아

오늘은 나의 마음을 종이배로 접어 보내려했다.
하지만 서로를 이어주는 길이 없어 너에게 전하지 못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반듯한 종이비행기로 접어 너에게 보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떨어졌고, 멀리있던 너에게 닿지 못했다.

결국 나는 나의 맘을 꾸깃꾸깃 꾸긴 종이안에 숨겨 너에게 던졌고
꾸겨진 종이는 곧장 너에게 닿다.

원래 나의 마음은 보여주지도 못한 체 상처만 주었다.
너에게 닿기 위해 숨기고 포장한 것일 뿐인데
마음을 전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간판

광고홍보학과
20192634 최승아

저 사람의 간판만 보고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 가야 알 수 있으니까

시끄러운 노래방인지 조용한 카페인지 좋은 노래가 나오는 옷가게 인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아무리 청아하고 단아한 글씨체로 쓰인 간판이라도
아무리 멋지고 날렵한 글씨체로 쓰인 간파이라도
아무리 세련되고 아름다운 색으로 쓰인 간판이라도

그 속은
어두울 수도
좁을 수도
내가 앉을 곳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 버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넓고 밝게
해줄 수 있다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들여 올린 탑이 한 번에 무너질 때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조금씩 쌓아올리기만 했던
나혼자만의 탑이
그 모진 풍파도 견디더니
조그마한 균열도 버티더니
우수수 한 번에 무너졌다.

돌 하나 더 올리기만하면
이 탑을 고정시킬수 있는데
나는 대책없이
무너지는 탑을 보고만 있다.

그 모진 풍파도 조그마한 균열도
내가 쌓은 탑은 잘 버텨주었는데
정작 탑을 쌓은 나는 너무 지쳐
아무 것도 막지 못하나보다.

눈을 감아도 우리의 밤은 찬란하다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내 옆에 그대가 있고
그대 옆에 내가 있는
우리 함께 손잡은 이 밤
눈을 감아도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셀 수 있고
눈을 감아도
칠흑같은 어둠이 무섭지 않는
그대 내 옆에 있기에
눈을 감아도 찬란히 밝은 밤.

밤과 별을 그리며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주황빛 놀이 지고 우리 머리 위 하늘은
검정색 수채화 물감을 푼 듯
검푸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내 위로 보이는 별은 내 것이고
우리 위로 보이는 별도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같은 하늘을 보며
별을 셀 수 있다는 자체에

내일이면 꼭 다시 이 자리에서
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약속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착각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착각은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받게 되더라도

그 허상에 빠지면
좋은 프레임을 씌우려 자각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려한다.

착각은 나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허상일지도 모른다.

별 하나에 대한 꿈

국어국문학과
20171075 이준규

잠깐 달콤한 꿈이었다.
깨고 싶진 않았는데
그 꿈이 현실이라 오해해
그 달콤함에 못 헤어나올까봐
이제 그만 깨어나려한다.

꿈에서 내가 바라보는 곳엔
우연한 별 하나가 있었고
별과 마주보면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별은 나에게 무심했고
다가가려는 나에게 별은 점점 멀어져갔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달콤한 꿈이었다.
그래서 깨야만했다
별이 더 멀어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오즈의 토토

국어국문학과
20181053 서희영

생각을 물고 물어서
복잡함의 끝까지 다다르면
눈물이 터진다

그러면
앉아 있는 네가 있다

너는 내게 한마디의 위로도
하다못해 걱정 어린 눈빛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나도 세상의 귀를 닫고
갈 곳 없는 어수선한 시선도 거두고
그저 너의 곁에 몸을 맞춘다.

내겐 11살부터 느낄 수 있었던
따스함만 남고
설명 불가한 무의 상태가 된다.

짧은 새에 넌 나를
별생각 없던 편안으로
11살로 돌려보낸다

어떤 설교로도 그 어떤 연민으로도
너의 하얀 속눈썹만치도 느낄 수 없는
무의 상태

도로시가 토토와 같이 길을 떠나던 것처럼
처음 본 너를 토토라 이름 짓던
11살로

1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같이 나서던
너가 떠나면
앉아있는 너를 보지 못해 울고 울기만 하다가
난 정말 어른이 되는거겠지

그땐 편안으로 가고 싶지 않음이 너무나 분명하다
복잡함인 생각만 물고 물어서
마지막에 있는 너를 만나야 하니까

소나기

국어국문학과
20181053 서희영

소나기가 내렸다

물이 물을 밀치고
창에 매달렸다
밀려난 것은 바닥에 가차없이 부서졌다

먼저 죽지 않기 위해 서로를 해하는 것이
꼭 우리 같다고
생각하며
차에서 발을 내딛고
첨벙-

물은 아프지 말라고
웅덩이를 만든다
밀려난 물은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나은 듯하다

아픈 사람이 오히려 아플 이를 걱정하는
아이러니

오늘은 웅덩이를 피해 지나친다

향기

국어국문학과
20181053 서희영

숨이 흘렀다

짧은 새에 넌 나를 감돌고
내가 된다

오늘은 유독
싱그러운 너를 닮고 싶어
솔향을 뿌려본다

살찌는 계절 가을

인문학부
20191031 김준원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고
내 옷엔 단추가 떨어지네.

짝사랑

인문학부
20191031 김준원

눈이 부셔 해를 피했지만
차마 너를 피하지 못했다.

이제는 엄마에게 내가

인문학부
20191031 김준원

밥 좀 잘 챙겨먹어
피곤하면 쫌 쉬고
약도 잘 챙겨먹어
아프지 말고
이제는 엄마가 아들해
사랑해

거울

인문학부
20191031 김준원

저 아이는 언제나 혼자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저 아이가 나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여있다.

저 아이가 나에게 다가온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내 눈물이 차오른다.

저 아이가 내 앞에 섰다.
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만져지지 않는 아이의 손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눈꽃

인문학부
20191049 박유진

사락사락 흩날리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가는구나

가는구나 가는구나
어이하여 이리 가는 거냐
손끝 자락에 이리 닿았다 가는 게냐

소복소복 쌓인 눈밭 위를
홀로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가버렸구나 가버렸구나
이미 저 멀리 가버렸구나
잡았다 이제 흔적도 없어 가는 게냐

나에게 살포시 닿았다가
이리도 매정하게 사라지는
너를 하염없이 보았다

시선

인문학부
20191049 박유진

눈을 조금만 낮추면
예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요

마타리 개망초 같은
자그마한 들꽃의 귀여움도
보이고

먹을 것이 귀한 옛날
우리 배를 채워주던 무릇도
보여요

눈을 조금만 낮추면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들도
보여요

눈을 조금만 낮추고
예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세요

정리

인문학부
20191049 박유진

어릴 적 꺾은 네 잎 클로버
이미 시들어 버린 지 오래인데
쉽게 버릴 수가 없다

너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행복과 기쁨 같은 모든 감정이
얹혀 있어 못 버리고

너를 발견하기 위해서
흙투성이가 되었던 추억들도
얹혀 있어 못 버리고

너와 함께 지내온 시간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도
얹혀 있어 못 버린다

이젠 너를 버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
난 버릴 수가 없구나

기쁨 고마움 슬픔 미안함
모든 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손이 또다시 떨린다

어릴 적 꺾은 네 잎 클로버
이미 시들어 버린 지 오래인데
내일로 또 미루었다

더불어 산다는 것

중국학과
20161512 박예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다가서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내가 너의
네가 나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나의 것이 너에게로
너의 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

이렇게
나와 네가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

안개 속

중국학과
20161512 박예은

온 세상이 자욱한 안개로
덮힌다

푸르르던 나무들도
높고 푸른 하늘도
어디론가 향하는 낯선 차들도
내 앞에 펼쳐진 길도

자욱한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사라진다

끝을 모르고 달린다
이 길을 따라가본다

자욱한 안개 속
하나의 빛이 깜빡깜빡
나보다 앞선 차들이
생존신고를 한다

잘 오고 있다고
끝이 있다고
자욱한 안개가 걷힐 때 까지

단풍나무

중국학과
20161512 박예은

빨갛게 노랗게
자기의 색깔을 뽐내며
물들어가는 단풍나무들

그리고 그 아래
가장 곤고하고 또 초라한
푸르른 나를 마주한다

폭풍 같은 가을
쓸쓸함, 곤고함이 아닌
여유롭고 풍족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걸까

빨갛고 노란 그들의 화려한 색깔들마저
나의 것으로 끌어안으며
물들어가지 않는데도
그저 나로 그렇게

그들의 화려함이 끝나고 쓸쓸함이 찾아온다면
그 쓸쓸함을 내가 안아줄 수 있을테니

사과에게

인문학부
20191043 도혜린

사과야
나의 유일한 심장으로 낳았기에 너는
빨갛게 빠알갛게 물들어가는 것이다.

사과야
너는 나를 곧 떠날 터인데
저 까마득히 깊은 곳으로
너는 끌려갈 터인데

사과야
따가운 여름의 혈을 닮은 너의
두 뺨은 검푸른 상처로
뒤덮을 터인데

사과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인들 못하리
나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너를 위한다면

사과야
끌어당기는 힘은 거스르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마지막 바람이 불 때까지도
놓고 싶지 않은데 사과야

노다지 궁전

인문학부
20191043 도혜린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흘러내리는 어둠 속에서
불 씨 같은 눈물로 노래를 부른다

어호야 둥둥 금맥을 찾아라

그러자 까마득한 아래에서
다른 도깨비들이

어호야 둥둥
노다지 캐오면 안 잡아먹지

풍요로운 도깨비방망이
다 쓸어간 원숭이 새끼가
이제는 금 나와라 뚝 딱
채찍을 휘두른다

은하수 깃들여놓은 궁전에
손이 닿으려고 하면
버얼건 꽃잎들이 자꾸만
자꾸만 떨어진다

오늘도 뿔 위에 피어난
수십 개의 동백꽃잎

*노다지: 금
**노다지 궁전: 강원도 정선 화암동굴에 위치해 있으며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채광했던 당시 금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약 5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채광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한 곳이다.

침전

인문학부
20191043 도혜린

끝없는 적막 속에 몸을 담그는 순간
나를 보이게 하던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나를 숨 쉬게 하던 쉼표들도 보이지 않았다

삶의 톱니바퀴에 옷자락이 걸린 듯
무너져 내린 시간의 탑 조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해를 찾아 구르던 홍채가
살덩이에 묻히고
저녁달과 마주 보는 것을 좋아하던 발이
등져 누워버리고
바람 따라 움직이던 팔도
내팽개져 굳어버렸다

적막이 일렁이던 가운데
어스름히 뒤돌아선 달빛의 밤
숨은 햇빛의 아침만이
유일한 회전이 되었다.

- 소설 부문 -

골든 디스크

국어국문학과
20131107 김수동

1.

남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실 기타는 없고 오른손은 허공을 말아 쥐고 왼손으론 배꼽 언저리를 튕기고 있는 것이었지만 기석이 보기에 그것은 분명 기타였다. 반쯤 쥔 손끝이 간질 앓는 것처럼 미묘하게 부르르 떠는 것이 정확히 코드를 짚는 모양새였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엔 이상한 손짓을 하는 노숙자처럼 보이겠지만 원곡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연주였다. 남자가 연주하는 건 마침 기석도 알고 있는 곡이었다.

허공에 손짓으로 그려내는 지미 헨드릭스의 'Purple Haze'는 퍽 열정적이었다. 덕분에 기석은 잠시 가던 길도 잊고 연주를 바라봤다.

이런 것도 에어 기타라고 부르나? 하고 기석은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길 한 가운데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머쓱해져 뒤통수로 손이 올라갔다.

오가는 사람들 중에 남자에게 큰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짝지어 가는 학생들이 남자를 보곤 쑥덕대며 킬킬댔고 사람들은 그의 행색에 혀를 차거나 뚜껑이 열린 채로 널 부러진 기타 케이스에 잔돈을 던지고 갔다.

기석은 민망함을 감추며 가던 길을 가려고 서둘렀다. 약속엔 늦을 것 같았다. 발길을 서두르는 기석의 머릿속엔 괜한 관심을 준 후회보다 다른 물음이 차올랐다.

'그래서 기타는 어디 있는 거야?'

평일 오전의 상가 안은 한산했다. 근처 공원에서 소일하는 것도 지쳐 시간을 죽이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노인들과 늦은 취미를 위해 기웃대는 중년들이 가져오는 지루함은 먼지가 쌓인 채 하염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의 악기들과 닮아있었다.

사물이 비슷한 인간들을 끌어당기는 건지 그들이 자길 닮은 물건을 찾아서 오는 건지 뭐가 됐든 기석은 둘 다 싫었다. 낙원이라는 이름은 또 뭔가. 기석은 상가의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림도 없지, 굳이 따지자면 이곳은 연옥에 가까운 곳이었다.

기석이 가게에 들어섰을 때 길수와 형만은 배달 그릇을 바쁘게 늘어놓고 있었다. 안은 중화요리 특유의 기름향이 가득했다. 그 냄새를 맡자 아침도 거른 기석의 속에서도 창자가 꼬이는 소리가 울려왔다. 기석은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형, 뭐야?"

"왔어? 저기 의자 좀 갖고 와서 앉아. 네 것도 시켰어."

기석의 물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의자나 갖고 오라는 길수가 기석은 어이가 없었지만 몸은 순순히 의자를 끌어왔다.

"나 집에서 여기까지 두 시간인데……"

"시간 딱 맞춰 오게 잘 말했네. 원래 속이 비어있으면 나올 소리도 안 나와. 너는 음악 한다는 새끼가 그것도 모르냐."

젓가락을 그릇 모서리에 삭삭 비벼가며 열심히 비닐 랩을 뜯던 형만이 무심히 말했다. 기석

은 생전 북만 두들겼지 뭐 한번 불어본적도 없는 인간이 뭘 아냐고 면박주고 싶었지만 형만의 우람한 팔뚝을 보며 조용히 젓가락으로 짜장면 그릇 테두리를 비볐다.

"근데 난 짬뽕이 좋은데."

"원래 짱깨는 짜장이 메인이야."

"형은 짬뽕이잖아."

"나는 해장해야 돼서."

"미안, 메뉴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네. 대신 탕수육 많이 먹어."

길수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지만 기석은 그쪽 앞에 놓여있는 잡채밥을 보면서 미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기석은 투덜거리며 면을 입에 밀어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볼멘소리는 사라지고 가게 안은 후룩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빈 그릇을 내놓고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한 잔씩 나눠들은 세 사람은 이내 식후의 나른함에 그대로 늘어져 버렸다.

"나 오늘 레슨 받는 거 아니었어?"

"야 소화 좀 시키고 하자." 형만이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게 아침부터 중화요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끼, 잘 먹어놓고 지랄이네. 너 요새 어디 가서 밥 사주는 사람은 있냐."

"없어."

"거봐! 형들이 챙겨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어깨라도 주물러 주던가 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너처럼 굴면 나긋나긋해 질 때까지 줄 세워서 빠따 치고 그랬어."

기석은 또 시작된 형만의 레퍼토리가 듣기 싫어 대충 눈을 피하며 남은 커피를 마셨다.

"나는 가게가 바쁜 줄 알고 일찍 오라고 한 줄 알았지."

"바빴으면 좋겠다야." 항상 사람 좋게 웃는 길수의 표정에도 쓴웃음이 걸렸다.

"그럼 왜 일찍 부른 거야."

"이따가는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형만이 툭 던지듯 말했다.

"길수형 방송도 해?"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기석은 조금 놀라서 물었다. 길수는 그런 반응이 쑥스러운지 말끝이 흐렸다.

반년 전에 시작한 개인 방송이 구독자가 최근에 만 명을 겨우 넘겼다고, 취미삼아 시작했지만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제법 책임감이 느껴져서 매일 꾸준히 방송을 열고 있다고 길수는 얼굴을 붉히면서 조곤조곤 말했다.

"방송 콘텐츠가 뭔데?"

"딱 보면 모르냐? 길수가 얼굴이 좀 되잖아. 딱, 폼 잡고 치면 계집애들이 들어와서 보는 거지. 아깝다 나도 이 면만 좀 괜찮았으면……"

기석은 카메라를 보며 자기 얼굴을 더듬는 형만을 무시하고 길수에게 방송에 대해 좀 더 물어봤다.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인 길수였기에 기석도 관심이 쏠렸다.

"처음엔 기타 솔로 연습하고 혼자 녹음해서 들으려고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했어. 근데 그렇게 영상이 쌓이니까 또 보는 사람이 하나 둘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친 김에 좀 색다른 게 뭐가 있을까하다가……"

"하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나름 클래식 전공생이었잖아. 배운 게 도둑질이라

고…… 옛날 학부생 때 연습하던 곡들 중에 좋아하던 곡 위주로 기타로 편곡해서 연주했지.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방송도 키게 됐고……"

"형 보기보다 수완이 있네." 이야기를 들은 기석은 살짝 감탄했다.

"수완은 무슨. 이제 여기서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반응 좋다며."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신청곡이라도 받아봐."

"가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거의 아이돌 곡이나 유행하는 노래라서……"

"다들 그런 거 해."

"난 그렇게 하긴 싫어서. 그냥 지금 봐주는 사람들로 만족하려고."

속 편한 소리라고 기석은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학창시절에도 길수는 만만해 보이는 얼굴로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의사 부모를 이기고 음대를 온 사람이었다. 아쉬운 것 없이 자라면 저런 강단이 생기는 걸까. 기석은 생각했다.

"우리 길수씨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 신경 많이 쓴다?"

"내가 언제?"

"너 틈만 나면 구독자 수 새로 고침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거울을 보다 말고 불쑥 참견하는 형만의 말에 길수가 당황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길수 역시 퍽 신경을 쓰곤 있었다. 그 모습에 조금 착잡하던 기석의 기분도 풀렸다.

"내가 요즘 인터넷 방송을 좀 봐서 아는데."

"형은 젊은 애들 나오는 것만 보잖아."

형만은 기석의 말에 말문이 멈췄지만 대꾸하지 않고 하던 말을 이어갔다.

"이 바닥도 그 뭐냐……옐로오션 상태거든."

"레드오션이겠지."기석이 정정했다.

"야 너 노란 불에서 미리 멈춰야 되는 거 몰라? 그게 그거지……아무튼 요즘 이쪽 바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개나 소나 들어와서 한 몫 건져 보려고 하니까 새빠지게 해도 본전도 건지기 힘들어. 이럴 때일수록 그 뭐야, 비즈니스적인 시야가 필요하다고."

역시나 수박 겉핥기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기석은 그래도 우쭐한 형만의 비위를 맞춰줄 겸 더 물어봤다.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본업이 방송도 아니고."

너무나 뻔뻔한 형석의 대답에 같이 듣고 있던 길수는 이마를 짚었다.

"뭐 대충 게스트라도 끌고 오면 될 거 아냐."

"누구."

"여자."

"아는 사람 있어?"

"내 마누라 데려올까?"

"미선이? 그냥 둘이 손잡고 어디 놀러가서 다시 오지 마."

"너는 누구 데려올 사람 없냐?"

학을 떼는 길수의 말에 형석은 입만 다시고 이번엔 만만한 기석에게 물었다.

"오다 특이한 사람은 봤는데."

사실 기석은 줄곧 노숙자 사내를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 없이 기타를 치는 남자. 어째선지 그 인상이 셔츠에 흘린 잉크처럼 배어서 잘 지워지지 않았다.

"특이한 사람 좋지. 원래 게스트는 한 번에 이목을 끌어야 돼." 형석이 맞장구부터 쳤다.

"행색은 노숙자 같은데. 허공에 기타를 치는 시늉을 하더라고 근데 엄청 느낌 있게 잘 쳐서. 계속보다 아까도 좀 늦을 뻔 했어."

"MR 틀어놓고 하는 거? 그거 그냥 거지 동냥이잖아."

"아니 앰프도 없이. 기타 케이스는 있는 데 비어가지고 옆에 열어놓고. 그런 것도 에어 기타라고 하는 진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헤까닥 한 거지." 형만의 핀잔에도 별로 개의치 않은 기석이 어깨를 으쓱 하는데 길수가 뜻밖에 말을 했다.

"마브씨를 봤나 보네."

"형 아는 사람이야? 마브면 뭐 교포인가."

"아니 나도 잘은 몰라. 그 사람 뭐 입고 있었어?"

"무슨 다 헤진 청록색 코트."

"그럼 맞아. 맨날 그 코트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마대 걸레자루 같다고 상가 사람들끼리 부르는 별명이야. Mop씨. 그 사람 역 앞에서 그러고 있는지 좀 됐어. 매일 나와 있거든."

기석은 다시금 노숙자의 행색을 떠올려 봤다. 그럴 듯한 이름이었다.

점심이 지났어도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침보다 유동인구가 늘어난 거리에 홀로 앉아있는 그는 좁은 해류 속에 솟아난 작은 암초 같기도 했다. 세 사람은 그런 남자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었다.

"저 양반이야?" 형만이 탐탁치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 저 아저씨."

"맞네, 마브씨."

"그래? 그럼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바로 가자."

두 사람의 대답에 형만은 흥, 코를 한 번 풀더니 곧장 남자에게 다가갔다. 행동력이 너무 좋아서 곁에 있던 두 사람이 미처 말릴 새가 없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형석은 본인 가게에서 손님을 맞을 때처럼 만면에 미소를 띠고 노숙자에게 말을 붙였다.

"지금 기타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악기 좀 쳐 봐서 알거든요."

살갑게 물어봤지만 남자는 대답은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남자는 여전히 자기 연주에만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기석이 모르는 곡이었다.

"형은 뭔 노래인지 알아?"

"'Layla'네. 에릭 클랩튼 노래야."

그렇구나. 기석은 끄덕이곤 다시금 남자를 관찰했다. 확실히 남자의 손놀림은 범상치 않았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본다면 아티스트들처럼 본인만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다시 보고 있자니 역시 범상치 않았다. 기석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말아 씹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중할 때의 버릇이었다. 남의 연주(?)에 감흥을 느껴보기도 오랜만이었다.

"형이 보기엔 어때?" 기석은 마찬가지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길수에게 물었다.

"진짜 괜찮은데? 일단 느낌이 있어." 그렇지. 기석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고무된 길수는 더 가까이 가서 연주를 관찰했다. 한편 계속 진전이 없자 형만은 아예

옆에 걸터앉은 채로 말을 걸고 있었다. 약간 약이 오른 모습이었다.

"어르신 저도 같이 해도 될까요? 저도 악기 할 줄 알거든요. 쿵작쿵작, 이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기타치고 계시니까 내가 드럼 치면 딱 맞겠다."

형만은 그리 말하곤 눈치껏 박자를 맞춰 허공에 드럼을 치기 시작했다. 산만한 덩치로 쭈그려 앉아 사지를 들썩이는 모습은 보기에 몹시 민망했고 폼은 잔뜩 과장되어 있었다. 팔을 들썩이며 이따금 휘두르는 데 곁에 있으면 누가 얻어맞기 딱 좋은 모양새였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휘둘러진 팔이 남자의 어깨를 치고 말았다. 남자는 즉시 연주를 멈추고 형만을 노려봤다.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자기 연주에 심취했는지 눈까지 감고 연주를 하느라 형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다.

노숙자가 처음으로 입을 벌렸다. 벌린 입에선 말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가 들려왔다. 침이 끓는 소리였다. 기석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늦었다. 퉤하는 소리와 함께 누런 가래가 형만의 뺨에 척 달라붙었다. 가래침을 맞은 형만의 몸 역시 우뚝 멈춰 섰다.

형만은 뺨을 쓸어내고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인 것 같았다. 형만은 다혈질이긴 했지만 본인의 체급을 알기에 쉽게 손부터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형만이 화가 날 때는 그런 경우 곱게 끝난 적은 없었다. 기석의 기억에 그럴 때는 익히 아는 전조가 있었다.

'제발 웃지만 말아라.' 기석은 속으로 빌었다.

"허어, 참 이거……." 오도카니 가래가 말라가는 손바닥을 보던 형만의 입에서 한숨 비슷한 감탄사가 나왔다. 그리곤 짧게 한 마디를 덧 붙였다.

"재밌는 영감탱이네?"

형만의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야, 막아!" 기석이 막아야 된다고 몸을 뻗는 순간 먼저 달려든 길수가 형만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감아 넣고 기석을 향해 외쳤다.

양팔에 두 명이나 매달고서 날뛰는 형만에게 매미처럼 매달린 채 휘둘러지면서 기석은 자신의 하루가 남자를 마주치고 기묘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노숙자가 치는 연주에 신경을 썼을까. 엄밀히 말하면 연주도 아닌 것을.

공복에 밀어 넣은 짜장면이 계속 휙휙 휘둘러지니까 속에서 올라올 것 같았다. 내가 팔에다 먹은 걸 게워내면 이 인간이 멈출까? 아니면 더 날뛸까? 애초에 이 인간은 나랑 같은 사람이 맞기는 한가? 사람의 탈을 쓴 곰이 아닐까? 우린 모두 단군의 후예니까 하나쯤은 모계 쪽 피가 진한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아수라장 속에서 기석은 불편한 속과 별개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원심력 때문에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힘이 모자라 팔을 놓친 기석의 몸이 핑그르르 풀려났다. 기석이 어찌어찌 멈춰 섰을 땐 하필이면 남자와 형만 사이를 가로 막아섰다. 다음 순간 가속을 받은 형만의 주먹이 기석의 안면에 안착했다. 짱돌 같은 주먹이 안면에 날아와 박히자 기석의 어지러운 머릿속은 단번에 멈췄다.

흐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 기석이 한 마지막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기타는 어디 있는 거야?'

2.

파출소에 억울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 제가 안쳤다니까요?" 형만은 연신 책상을 내리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로했다.

"자꾸 그렇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조서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경사는 그런 형만의 말을 무시하며 그의 행동에 경고를 주고 조서 작성에 열중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가 아닌 만큼 눈치껏 팔을 거둔 형만은 다시 한 번 좀 더 정중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조금 욱해서 손이 올라간 건 맞는 데 누가 맞지는 않았다니까요?"

"저 분은 뭐에요 그럼."

경사는 눈대중으로 그의 왼편에서 콧잔등에 얼음 팩을 대고 마찬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기석을 가리켰다.

"아니, 저쪽은 제 친한 아는 동생인데……"

"저기요 선생님."

"예……"

타자를 멈춘 경사가 정색하자 형만은 다소곳하게 손까지 모으고 대답했다.

"저희는 익명으로 거리에서 다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간 거구요. 가보니까 상해를 입고 쓰러지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관계를 정리해야 되서 지금 서까지 동행하신 거예요.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보내 드릴 겁니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넵."

형만의 대답에 경사는 짧게 고개를 젓곤 다시 무미건조한 질문들을 이어나갔다. 형만이 충실하게 대답할 동안 먼저 조사를 마친 기석은 일어나 마찬가지로 조사를 마친 길수 옆으로가 앉았다.

"좀 괜찮아?"

"뭐 나름 쓰-읍, 괜찮아."

미간에 몰리는 통증을 참으며 기석이 대답했다.

"저 형 진짜 성질 고쳐야 돼."

"미안하다. 내가 이번엔 꼭 저 새끼 버릇 고쳐 놓을게."

"나 이번엔 진짜 합의금 받을 거야."

정색하며 말하는 길수에게 기석은 장난으로 정색하며 받았다. 그런 기석에게 길수는 작게 웃으며 치료비에 웃돈까지 얹어서 보내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나저나 진짜 침을 뱉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

기석이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아까 그러는 거 보면 정신이 좀…… 지금도 보면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

제일 먼저 시작한 남자는 모니터를 앞에 두고 여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유인 즉 그는 모든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어떤 물음에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조서가 작성될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다그치거나 대답을 강요하기엔 죄가 없었고, 내버려두기엔 관련자는 맞으니 경찰도 난감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말할 생각 없으세요?"

남자를 맡은 젊은 순경이 최대한 어르고 달래가며 물어봐도 남자는 허공을 보고 작게 오므린 팔로 또 다시 허공을 튕기고 있었다. 간간히 입술이 들썩이며 뭔가 웅얼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신음이상의 무언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기석은 졸지에 자신을 봉변당하게 만든 남자를 이제는 신기함을 넘어서 뭔가 형언 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바라봤다. 그러다 이내 관심을 끄기로 마음먹었다.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

수록 골치 아프게 엮일 거라고 육감적인 차원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마음먹은 김에 기석은 자리를 떠야겠다 싶었다. 시간을 보니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출근 시간이 6시였으니 중간에 병원에라도 들르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형, 나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가볼게."

"어어, 그래 얼른 가봐. 저 돼지는 내가 기다리면 되니까. 어디로 출근한다고 했지?"

"서초동."

"빨리 가야겠네."

"그래야지."

"일은 할만 해?"

"별거 없어. 중요한 건 감독이 알아서 다해."

"다행이네."

기석은 말에 어렴풋한 연민이 실린 걸 느꼈다. 무례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르듯 일어났다.

"형."

"왜?"

"나 다음에는 기타 말고 베이스 좀 알려줘."

"기타는 더 안치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길수는 어리둥절한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담배가 한 대 피고 싶었던 기석은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들었다. 얄궂게 속이 텅 비어있는 담뱃갑을 우그러뜨리며 기석은 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방금 나온 파출소로 들어가 한 대 빌릴까 하다 들어가자니 귀찮고 모양도 안 나서 그냥 가기로 했다. 자리를 뜨는 내내 입안이 깔깔해서 기석은 고이는 침을 뱉으며 걸었다.

만일 기석이 귀찮음을 참고 파출소로 다시 들어갔더라면 그는 자리를 뜨는 자신을 바라보던 남자와 시선이 마주쳤을 것이다. 그러면 어딘가 무서운 남자의 시선에 다시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와 기석이 다시 마주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기석은 베이스를 배우러 여느 때처럼 길수의 가게로 갔다. 기타를 치다 베이스를 친다고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애초에 다른 악기를 배운다기보다 곁다리로 한 번 걸치고 가는 느낌이었으니까. 길수는 베이스가 뭐가 좋아 보였냐고 물었지만 기석은 그저 '그냥'이라고 답했다. 그리곤 다시 코드를 뚱땅거리는데 집중했다.

정신없었던 저번 주와 달리 이번 주는 둘 다 오롯이 가르치고 배우는 데만 몰두했다. 레슨을 시작하고 집중이 돌아오자 연습을 하면 항상 느끼던 일상적인 감각이 돋아났다. 지난주와 대비되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차분한 감각이었다.

잔 물기를 쫙 뺀 레슨은 무척이나 일찍 끝났다. 일어나는 기석에게 길수가 점심이라도 먹자 했다. 그 제안에 기석은 메뉴를 물었다. 길수가 순두부, 고등어 백반, 해장국 등등 예시를 꺼냈다. 나오는 족족 고개를 내젓던 기석은 '딱히 당기는 게 없네.'라고 말하고 상가를 나섰다. 그렇게 길가로 나와 편의점에서 참치가 든 김밥에 우유하나 그리고 담배 한 갑을 샀다.

편의점 창가에 앉아 데우지도 않은 김밥을 입안에 우겨넣고 마시는 우유의 맛은 더럽게 맛이 없었다. 기석은 그저 빨리 식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속을 채울 것을 찾은 것이었다. 점심

으로 끌리는 것도 없었지만 공복에 담배를 태우는 건 더 싫었다.

마침내 한가로이 골목 구석에서 흡연을 하는 중이었다. 기석은 골목 한 구석에 쭈그린 채로 담벼락에 기대 묵묵히 한 모금씩 피우고 있었다. 눈을 감고 연기가 돌아다니는 길목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던 기석은 누가 오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이완되어 있었다. 그래서 코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을 때 지저분한 노숙자와 한 뼘 간격으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걸 알자 펄쩍 놀라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른 기석이 겨우 숨을 고르고 보니 노숙자의 인상착의가 익숙했다. 걸레 같은 코트를 입고 다녀 별명이 붙은 남자, 마브씨였다. 마브는 잔뜩 주름진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기석의 왼편 담벼락에 기대어 놓은 케이스에 담긴 베이스였다.

"한 대 드릴까요?"

갑작스런 재회에 긴장한 기석이 말했다. 혹여 해코지라도 당할까 조심스런 말투였다.

"그거……인가."

처음으로 입을 연 마브의 목소리는 낮은 저음에 중간에 새는 소리가 있었다. 깊은 토굴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 같았다. 그래서인지 발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뭐라고 하시는……"

"그거 기타냐고."

"아뇨, 베이스요……"

"왜."

"네?"

"기타는."

"베이스인데……"

"베이스 말고."

"아니, 무슨……"

선문답 같은 대화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나서야 기석은 노인의 화법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요지는 왜 기타를 안치고 베이스를 치냐는 것이었다.

기석은 잠시 머리를 쥐어뜯으며 치밀어 오르는 두통을 참았다. 이젠 노숙자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가. 이런 부류의 인간은 애초에 대꾸를 하면 안 되는 법이었다.

기석이 짐을 챙겨 자리를 뜨려는데 뒤에서 예의 동굴 바람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원래 다른 악기 했었지? 입술을 보니까 금관이구만."

대충 찍었겠지.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기석의 발은 멈췄다.

"재능이 없어서 관둔 것 같은 데 다른 악기를 잡는다고 될 리가 있나."

가방이 바닥에 던져지고 들고 있던 라이터가 굴러다녔다. 기석은 순식간에 마브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낡은 셔츠를 틀어쥔 주먹 위로 기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좆도 모르면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기석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한 대 후려칠 기세였다. 반면 멱살이 잡힌 마브의 표정은 담담했다. 사실 담담한 게 아니라 아예 박장대소를 했다.

누가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것 마냥 웃음이 터진 마브는 기석이 어이가 없어 손에서 힘을 빼자 아예 바닥을 구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어떻게 보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화를 낸 건지 깨닫자 기석은 참담한 기분이었다.

지갑을 보니 오천 원 지폐 한 장에 천 원 권이 두어 장이 있었다. 기석은 합이 만원이 안되

는 금액을 모두 집어서 바닥에 누운 마브에게 던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자리를 뜨려고 했다.
마브가 바짓단을 붙잡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런 미친……경찰 부르기 전에 놔."
"그 악기 아직 하고 싶어?"
"이거 안 놔?"
"따라오면 하게 해줄게."
"이런 시발!"
마브의 손을 뿌리치다 보니 부득이 발길질이 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머리가 차인 마브의 몸이 굴러가더니 엎드린 채로 널 부러져 미동이 없었다. 기석은 아차 싶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기석은 다가가 조심스레 발끝으로 마브의 몸을 뒤집었다. 바람 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찢어진 이마와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마브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까처럼 박장대소는 아니었지만 킬킬대는 웃음이 휘파람 소리 같았다. 골목엔 휘파람 소리가 메아리 치고 기석의 귓전에도 소용돌이치듯 맴돌았다.
"따라와."
마브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 비척거리며 난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 걸음 가다 멈춰 서서 돌아보는데 안 따라 올 거냐고 묻는 표정이었다. 기석은 잠시 서 있다 가방을 들어 멨다. 그리곤 떨어진 지폐들을 줍고 깨진 보도블록 틈 사이에 박힌 라이터도 주운 후에 그를 따라갔다.

마브는 보기보다 걸음이 빨랐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며 걸어가는 것 같은데 어째선지 좀처럼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휘청거리며 걷는 데 잠시 눈을 떼면 훌쩍 앞서가 있었다.
길의 문제도 있었다. 마브가 가는 길은 대중이 없고 예측을 할 수도 없었다. 한참 걷다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따라가면 실외기가 줄지어 서서 더운 김을 뿜고 있는 곳을 까치발로 지나는가 하면 담벼락을 넘는 건 예삿일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더니 옥상으로 나갔는데 다시 골목이 펼쳐지고, 지상인지 지하인지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가게가 나오고 환풍기로 들어가서 승강기로 나가는 등 나름 서울 토박이라고 생각했던 기석은 나중에 가서는 지금 있는 이곳이 종로 이전에 서울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마브가 멈춰 섰을 때쯤 기석은 땀범벅이 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기묘한 방식으로 도착한 곳은 종로의 여는 후미진 골목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골목이었다. 문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 가운데 마브는 지하로 가는 계단이 판자로 막혀있는 곳 앞으로 가 판자를 치우고 아래로 내려갔다. 기석 역시 따라 내려가는데 얼마 안가 앞이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으로 발아래를 비추며 내려가야 했다.
마브는 계단 끝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기석이 따라 들어가자 여전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공간이었다. 라이트를 비춰 봐도 제법 넓은 공간인 듯 테이블과 소파 몇 개 정도만 눈에 들어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어디서 웃풍이 드는지 서늘한 공기에 오랜 쌓여 매캐한 먼지와 쥐똥 냄새가 실려 왔다.
"저기요! 어디계세요!"
기석은 어느 새 또 자취를 감춘 마브를 찾기 위해 소리쳤지만 메아리치는 그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고 라이트로 주위를 좀 더 살피자 내부 구조가 이전보다 자세히 눈에 들어왔다. 중앙으로 나 있는 복도를 기준으로 양편에 테이블들이 있고 맞은편 끝에는 무대로 보이는 단이 있었다.

기석은 계속 마브에게 어디 있느냐고 외치며 안쪽으로 다가갔다. 기석이 무대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명이 켜졌다. 빛이 들어오자 기석은 이제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여러 대의 구형 티비가 정사각형으로 짜여 벽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티비들 옆엔 요란하게 꼬인 마이크 선 한 무더기가 쌓여있고, 무대 위엔 빈 스탠드와 심벌즈가 다 날라 간 드럼 세트가 있었다. 이곳은 원래 가요장이었다. 그것도 전속 밴드들이 반주를 해주는 아주 구식 가요장.

조명은 무대 한 가운데만을 비추고 있었다. 조명 아래로 먼지들이 회오리치는 게 보였다. 먼지들은 이따금 빛을 받아 번쩍였는데 마치 번개들이 번뜩이는 눈보라 같았다.

마브는 눈보라 한 가운데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난 마브의 분위기는 이전과 뭔가 달랐다. 얼굴은 흐른 피를 닦아내다 생긴 핏자국과 땟자국이 섞여 얼룩덜룩했다. 록커들이 하는 기괴한 화장을 연상시켰다.

마브의 발아래에는 예의 그 기타 케이스가 놓여있었다. 그가 몸을 숙여 기타 케이스를 열어젖혔다. 케이스 안은 이번에도 비어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두 손을 받쳐서 케이스 안에 집어넣더니 그대로 빈손을 들어올렸다. 잡은 모양새가 마치 기타 같았다.

허공에 기타를 들어 올린 마브는 목에 끈까지 걸어 넘겼다. 물론 그 역시 실체는 없었다. 실체 없는 헤드를 만지고 실체 없는 넥을 쓰다듬는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무언극 같다만 기석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조율을 마친 마브는 스탠드에 역시 있지도 않은 마이크를 꼽고 나서야 비로소 준비를 끝냈다.

짧은 침묵이 지나가고 마브가 이내 마이크에 대고 짧게 말했다.

“The house of the rising sun.”

그리곤 연주가 시작됐다.

“There is……a house……in New Orleans……”

소리가 들렸다. 발음이 반쯤 새는 마브의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음울한 컨트리풍의 기타 리프였다. 그것은 사방팔방을 통틀어 어느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울려오는 게 아니었으나 분명히 들렸다. 그것은 어떤 발원지를 가지지도, 매질을 타고 전해지는 파동도 없었지만 들리고 있었다. 기석은 유심히 귀를 기울여 소리의 발원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기석의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다.

“My mother was a tailor! She sewed-my new blue jeans!”

소리는 수면 위에 동심원이 그려지는 것처럼 기석을 중심으로 펴져 나가며 주위를 덮었다. 기타 리프뿐만이 아니었다. 처음엔 은근슬쩍 베이스 라인이 덧대졌다. 그리곤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던 크래쉬 심벌을 잘게 두드리는 소리가 끼어들더니 마침내 기묘한 전자 키보드가 나타나 현란하게 건반 위를 움직이며 곡은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I'm goin' back to New Orleans! To wear that ball and chain!”

어디에도 실체는 없었지만 소리가 보인다고 해야 할 지. 하나의 밴드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밖에 표현 할 수 없었다. 밴드는 기석을 둘러싸고 회전하며 하이라이트 부분을 연주했다. 마브는 이제 기타를 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스탠드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그 자신도 연주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And God…… I know I'm one……”

마브가 마지막 가사와 함께 잡고 있던 스탠드를 놓자 모든 것들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물이 배수구로 빠지듯이 나타날 때와 반대 순으로 하나 둘 가장 바깥에서부터 사라졌다. 하나의 잡음까지 모조리 왔던 곳으로 사라지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가요장은 여전히 먼지로 자욱했고 마른 쥐똥 냄새는 고약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기석을 보며 마브가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기석이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석은 입고 있던 야상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는 퍼지지 않고 자욱하게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마지막 연기를 내뱉고 꽁초를 튕겨 버린 기석이 말했다.

"오오, 이 친구야.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아는지가 중요하지."

마브는 호들갑스럽게 무대를 내려와 검지를 기석의 관자놀이 옆에 대고 까닥이며 말했다.

"뭘 알아야 하는 데요?"

"진실."

마브는 그 단어를 무겁게 뱉어냈다.

"정확히는 음악의 진실. 그건 이 세상의 진실과도 같은 거지."

이야기가 너무 거창해지고 있었다. 좀 전까지 느껴지던 전율은 사라지고 다시금 미친 노숙자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금 또 의심하고 있지?"

라고 기석이 생각할 쯤 또 어떻게 알았는지 매섭게 캐물었다.

"의심하면 안 돼. 믿어야 돼. 그런 식이면 친구가 악기를 다시 연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정곡을 찔려 뜨끔한 기석은 한 편으론 섬뜩했다.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걸까. 불가능 한 이야기였지만 그런 식이라면 이 남자가 보여준 것들은 뭔가. 의심하면 안 된다. 기석은 남자의 말을 곱씹었다.

기석이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고 살짝 물러났다. 마브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두 손을 비비며 웃었다.

"세 가지야. 내 부탁을 세 가지만 들어주면 돼."

먼지가 푹푹 일어나는 소파에 걸터앉은 기석이 뭔지 말해보라는 투로 바라봤다.

"첫 번째는 나한테 역사를 배우는 거야. 정확히는 팝의 역사지."

그 정도쯤이야 라는 느낌으로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날 친구의 친구가 하는 방송에 출현시켜 줘."

그럴 거면 왜 자기 코에 금이 가게 한 건지 기석은 의문이었지만 좀 전에 약속한 것을 떠올리며 이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길수를 설득하는 건 그리 어려울 게 없는 일이었다. 기석에겐 생각이 있었다. 조금 의외인 감이 있었지만 두 번째 조건에도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브는 잠시 가까이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기석이 몸을 일으켜 다가가자 마브가 귓가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몇 마디 안 돼는 짧은 말이 오가자 기석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커졌다. 말을 마친 마브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도 기석은 같은 표정이었다.

"아니, 그건 어떻게……진심으로?"

마브는 아무렇지 않게 끄덕였다. 앞의 것들과 비교해서 마지막 조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위험 부담의 정도가 차원을 달리했다. 당황해서 입술을 씹는 기석에게 대답을 독촉하는

시선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기석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던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기석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브는 이를 드러낸 채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쉭-쉭, 마브가 웃을 때 마다 빠진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샜다.

3.

의사는 관찰되는 외상은 없다고 말했다. 엑스레이, MRI, 저주파든 고주파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하고 나온 수많은 차트와 사진들을 짚어가며 전문 용어를 쏟아냈다. 한 참을 혼자 떠들 길래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었다. 의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엔 외상 후의 스트레스가 심적인 부분에 작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분의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일체유심조라 이거지.'

앞에 놓인 종이 더미들을 양 손으로 구긴 기석은 그대로 의사의 면전에 뿌렸다.

차량이 반파된 사고에서 조수석에 있던 기석이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유일한 상처라고 해봐야 앞 유리가 깨지면서 튄 파편이 윗입술에 스쳐서 생긴 작은 생채기가 전부였다. 병원에선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당일에 연고를 바르고 지금에 와선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된 그 기적 때문에 기석의 삶은 무너졌다.

트럼펫을 연주할 수 없었다. 십 수 년에 걸쳐 길을 낸 수로가 둑이 무너져 모두 쓸려나가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것처럼 기석은 20년 가까이 연주해온 악기가 낯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슬럼프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도 격려가 이어졌다. 길은 다시 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이 점차 퇴적되어 갔다. 그런 시간이 1년을 채워가던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있던 기석은 다급한 마음에 휴학을 했다. 그리고 계절이 순배를 돌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휴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교는 예전과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전까지 응원해주던 이들은 모두 졸업한지 오래였다. 남아있는 몇몇도 자기 살길을 찾느라 바빴다. 그래도 기석은 버텼다. 더 이상 악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기석은 내내 보이는 눈치와 은밀한 모욕들도 버텨냈다. 그런 기석을 나가떨어지게 만든 건 은사라고 여기던 남 교수 덕분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러 온 기석에게 남 교수는 계속 자기 소일거리 이야기를 했다. 대화의 맥이 잡으려하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다녔다. 기석이 그가 대화하는 내내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느끼던 중이었다. 노크와 함께 누가 들어왔다. 고교시절부터 유수의 콩쿨에서 입상을 한 신입생이었다. 그 후배를 맞이하는 남 교수 눈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다.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그 시선이 기석은 익숙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은사의 눈이었다.

다음날 기석은 자퇴 수속을 밟아 학교를 나왔다.

자퇴 직후 사고를 낸 당사자를 찾기 위해 기석은 사고 차량의 차주였던 형만을 찾아갔다. 기석은 그에게 사고자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고기를 손질하던 형만은 기석의 얼굴을 보더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당시의 기석의 막무가내였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기석은 배알도 없는 병신이냐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접시와 식기가 주변을 날라 다녀도 형만은 날뛰는 기석을 힐금 보고 묵묵히 남은 고기를 마저 손질했다. 이윽고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야 형만은 칼을 꼽아 놓고 장갑을 벗으며 기석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형만은 차를 몰아 그대로 시내로 나갔다. 차안에서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만이 차를 댄 곳은 인근 대학 병원의 주차장이었다. 자주 와본 걸음으로 형만은 병원 내부 편의점에서 건강음료를 사서 승강기에 탔다. 형만이 앞서서 들어간 곳은 중환자실이었다. 열 명 남짓한 환자들 중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손에 꼽았다.

형만은 창가 옆에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병석에는 기석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호흡기를 단채 누워있었다. 남자의 곁에는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형만은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사온 음료를 그녀 옆에 내려놨다. 여자는 형만을 보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형만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다. 기석은 아무 말 없이 남자와 고갤 숙인 여자를 바라봤다.

남자의 직업은 에어컨 수리기사였다. 그리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대리기사를 뛰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피로가 쌓여 그날따라 자주 졸던 남자는 귀가 중에 한 순간 깊게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기석이 취해 누워있던 형만의 차를 그대로 들이박았다. 일찍 결혼한 남자는 아이가 둘이었다. 형만이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 해줬지만 입원비를 대기 위해 이제는 맞벌이였던 아내가 남편 대신 밤낮으로 일을 나가고 있다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석은 홀로 남자를 찾아갔다. 남자의 아내는 처음엔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석에게도 형만처럼 고개를 숙였다. 기석은 숙인 고개 사이로 익숙한 감정이 느껴졌다.

여자는 기석을 원망하고 있었다. 왜 당신이 아니고 내 남편인가. 왜 내 남편인가. 왜 나인가.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갤 숙이는 것이었다. 기석은 그 감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입술 하나로 쓸모없어진 자신과 달리 남자라면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누워 있어야 한다면 부양할 가족도 간병하기 위해 고생할 가족도 없는 자신이 적격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으니 이거야말로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이후에도 기석은 한 달에 두어 번 정기적으로 남자를 찾아갔다. 남자의 아내는 그를 거북해하는 눈치였지만 발길이 계속 이어져 익숙해지자 마주치면 작게 목례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다. 남자의 병실은 대부분 아무도 없는 날들이 많았다.

기석이 남자의 병실에 찾아가는 건 무언가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었다. 대개 가만히 병상을 바라보다 집에 갔다. 오늘도 그런 날들 중 하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기석의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

기석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표지를 넘겼다. 좋게 말해도 잘 쓴다고는 할 수 없는 필체로 짤막하게 정리 된 글이 쓰여 있었다.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마브가 진행한 역사 수업의 필기였다. 가장 위쪽엔 괄호를 치고 '팝의 역사'라고 제목이 붙어있었다.

-음악이란 무엇?

-단순히 인위적으로 조율된 청각적 신호의 집합이 아님. -> 인간을 움직이는 힘?

-선사시대부터 그 힘을 이용함. 예)고대 제사장들의 제사 음악, 전쟁에 동원 된 북과 나팔.

-음악에 취한 사람은 신을 보거나 괴력을 발휘함. -> 음악을 연주한 이의 명령대로 조종되

는 경우도 있었다(증거는 없음).

-2차 대전 이후의 영국은(갑자기 왜?) 미국에게 초강대국의 자리를 뺏김. 그 자리를 되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

-그 중 위 사례에 주목한 영국의 과학자들은 연구 끝에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정수를 발견함.(어떻게?)

-반복적인 인체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개인에게서 정수를 추출하는 것 역시 성공함.

-정수는 이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음. 많은 피 실험자들이 그 과정에서 실패하여 죽음.

-> 그러나 결국 실험 끝에 소수의 인원에게 이식하여 실용화 시키는데 성공.

-오늘날 대중들은 그 실험군의 이름을 'Beatles'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음.(헛소리)

삐뚤빼뚤한 필체와 중간 중간 따로 남긴 메모는 노트에 적힌 이야기를 더욱 유치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적은 내용들을 찬찬히 읽던 기석은 이내 양손으로 안면을 쓸어내리며 한 숨을 가득 내뱉었다.

"아저씨."

기석은 여느 때와 같이 눈을 감고 있는 남자를 불렀다.

"소원을 이룰 수만 있으면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할래요? 대신 실패하면 무조건 인생이 파탄 나는 거야."

기석과 남자 사이엔 심박 수를 알리는 신호음만 울렸다.

"뭐, 우리는 이미 파탄 나있으니까. 애초에 밑져야 본전이네. 그리고 아저씨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기석은 그렇게 말하며 입만 웃었다.

노트를 덮어 가방에 넣은 기석은 이후 병실을 나섰다. 사온 음료수 중에 한 병을 챙겨간 건 비밀이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요장에서 만났다. 기석이 환경의 불결함을 지적하며 차라리 자기 집에서 보자고 제안해도 마브는 보안상의 문제로 제의를 일축했다. 덕분에 기석은 항상 땀범벅으로 노트를 피고 마브를 노려봤다. 어디서 주워왔는지 한쪽 바퀴가 빠진 칠판까지 가져다 놓은 마브는 그런 기석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분필을 휘갈겼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비틀즈."

"그래! 맞아 비틀즈!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마브는 함부르크라고 칠판에 적었다.

"비틀즈가 함부르크에서 초기 시절을 보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함부르크에 있는 동안 비틀즈는 이식 수술을 받은 거라고 영국 정부의 관할 아래에서."

또 시작이구만 하는 느낌으로 기석은 팔짱을 끼고 바라봤다.

"함부르크 시절을 전후로 비틀즈는 음악적이나 기교적으로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 당연하지 수천 명 분의 정수를 이식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정수를 받는 다면 말이지 음악적 악상도 기교도 정상적인 범주의 인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아니면?"

"아우라Aura. 희랍어 숨에서 유래된 말이지. 그리고 그 단어 그대로 내쉬는 숨결이 달라. 다시 말해 개인이 뿜어내는 영적 파동이 다르지. 그것이 일정한 음정을 가진 멜로디가 되서

주변에 퍼져나가면 평범한 인간은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마브는 그렇게 말하고 겪어봐서 알고 있지 않으냐는 눈으로 바라봤다. 내내 시큰둥하게 듣고 있던 기석도 거기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60년대 들어서 영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실제 침략전쟁이었다고. 미국 정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지. 원자 폭탄이상으로 문화 폭탄은 강력했어. 결국 60년대 내내 영국에게 시달린 미국은 거의 백기를 들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지."

마브는 목소리는 강의를 하면서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구부정한 허리가 세워지고 혈색이 돌더니 앙상한 손발에는 힘줄이 바로섰다. 발음도 정확해지고 말은 점차 청산유수가 되어갔다. 이야기 자체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

"미국 역시 반격의 준비를 했어. 첩보전을 통해 정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극비리에 대항마를 준비했지 미국이 선택한 건 젊은 신예 록 가수였어."

마브는 칠판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름을 적었다. 기석은 내심 뜨악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한편으론 이쯤되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심정도 없잖아 있었다.

"정수를 주입받은 엘비스는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 미국은 간신히 본토 방어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중요한 걸 간과했다고. 정수의 부작용에 대해선 몰랐던 거야. 앞에서 말했지 다수의 정수를 시술 받은 인간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다고. 대신 그만큼 신체와 정신에 부하를 준다는 사실을 단 기간에 기술을 따라잡은 미국은 놓치고 있었지. 결국 1977년 이식을 받은 엘비스의 신체가 붕괴하고 미 정부는 그의 사인을 자살로 발표하지.

하지만 미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가기로 해 인간에게 담을 수 없다면 무생물은? 천재 물리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이었지.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나오느냐고? 나도 몰라 천재라잖아. 봉고도 꽤나 잘 쳤으니 음악적 조예도 없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얘기 했더라, 그래그래 무생물, 추출한 정수를 사물에 담는 발상. 성공 가능성은 몰랐지만 정부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진행하던 우주 탐사 프로젝트 그랜드 투어에 연장선상으로 위장했던 그 프로젝트는 골든 디스크라고 명명되었지. 보이저 2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의 패러디라고 할까.

누구 생각인지 그다지 좋은 작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뭐 국운을 건 프로젝트이니만큼 살벌하게 돌아갔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 때마침 미국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일도 일어났어. 1980년 12월 8일 비틀즈의 리더 격이던 존 레논이 총격으로 사망해. 범인 마크 채프먼은 정신질환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쪽에선 뭐, 다 아는 사실이지……"

"뭘 알아요?" 어깨를 으쓱하는 마브에게 처음으로 기석이 물었다.

"암살이었다고. 뻔하잖아."

"누가 왜 암살하는데요."

"당연히 영국 정부지! 친구, 이해력이 이렇게 모자라면 빨리 말해줘야 돼. 처음부터 말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왜 영국 정부가 존 레논을 죽였는데요."

기석은 다른 사람도 아닌 마브에게 지적으로 무시당하자 몹시 자존심이 상했지만 궁금한 건 궁금했기에 참고 물어봤다. 마브는 김이 샌다는 뜻으로 푸하고 입술을 털었다.

"비틀즈가 영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노래만 봐도 알잖아. 사랑, 평화, 섹스가 좋아 전쟁 따윈 싫어요. 아무리 통제하려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어할 수 없는 법이니

까. 존 레논은 본보기로 죽은 거였지. 이제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도 될까?"

기석은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 소파에 퍽 소리가 나게 기댔다. 뒤이어 올라오는 먼지를 마셔 잔뜩 기침을 하는 기석을 잠시 안쓰러운 눈으로 보다 마브는 다시 하던 이야기를 이어갔따.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 정부가 내린 판단은 단기적으론 옳은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론 자충수였다고 할 수 있었어. 4명이 부담하던 것을 3명이서 부담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비틀즈는 결국 해체하게 돼.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미국에선 그야말로 싸우지도 않고 이긴 격이었는데, 이건 프로젝트를 이끌던 과학자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 영국을 타도하기 위해 움직이던 프로젝트는 적이 자멸하자 아이러니하게도 동력원을 잃어버린 거야.

그대로 좌초될 위기였던 골든 디스크 프로젝트는 다행히 당시 대통령이던 레이건에 의해 새로운 목표를 지시 받아 견인 될 수 있었어. 바로 냉전을 끝낼 비대칭 전략 병기로서의 목적이었지. 생각해봐 이념이 있는 곳에 음악이 빠질 수 있겠어? 앞에서 말했지 원자폭탄 보다 뜨거운 걸 찾으라면 바로 문화폭탄이라고.

1981년 마침내 완성된 골든 디스크는 적합하다고 판단된 개인에게 주어지게 돼. 본래 5명으로 기획되어 있었지만 이례적인 적응도를 보인 개인을 고려한 도박적인 수였어. 거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이 강력하게 작용했지. 비틀즈의 사례를 들면서 여러 마리 개의 목줄을 틀어쥐는 건 어렵지만 한 마리의 목줄을 쥐는 건 쉬운 일이라는 논리였지.

그런 논리로 잭슨 집안의 8남 마이클이 대망의 골든 디스크의 첫 사용자로 낙찰되었어. 마이클 잭슨, 23살의 나이로 핵폭탄보다 강력한 힘을 얻은 남자."

마브는 그 이름을 잠시 음미하듯 되뇌었다.

"마이클은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어. 혹자는 고르바쵸프 같이 머리에 커피 얼룩이나 있는 인간 덕분에 냉전이 끝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전적으로 마이클의 활약이 컸지. 크렘린 궁에 Dangerous가 울려 퍼지던 날 펜타곤에선 샴페인을 터트렸어.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최강국이었어. 더 이상 골든 디스크가 필요하지도 않아 보였지.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라고. 정부는 이제 마이클을 자국의 내부 상황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려고 했어. 마이클은 아이처럼 순진했으니까 더욱 다루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

물론 마이클이 그렇게 천치 같은 인간은 아니었어. 아이 같은 것은 그의 순수한 감성이지 지능이 아니었으니까. 자신의 힘이 어떤 파급력과 위력을 가졌는지 쯤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자신의 이 이대로 권력자들을 위해 쓰인 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예상할 수 있었지. 남들보다 순수한 그의 양심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었어.

바로 그것이 그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지. 자신과 불특정다수의 삶을 두고 저울질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 아니겠어? 그러나 선택은 내려야하는 법이고 마이클은 결단을 내렸어. 그는 결국 다수의 삶을 구원하는 쪽을 선택했어. 그건 정말이지 위대한 희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봐, 아직 감동을 느끼기엔 일러. 아, 먼지가 눈에 들어갔다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할 땐 집중을 하라고. 자자 얼마 남지 않았어. 눈물이 쏙 빠질 시간이야. 마이클이 실천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고통스러운 것이었어. 세 번의 월드 투어를 다니는 동안 마이클은 골든 디스크를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쪼개서 흘려보냈어. 골든 디스크는 보통의 인간이 다룰 수도 없는 물건이었고 그는 분명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라고 해도 그런 무지막지한 물건을 쪼개는 건 수명을 깎아내는 일과 같았지. 타오르는 태양을 상상

해봐. 그리고 그 다음엔 그걸 한줌씩 손을 직접 잡아 뜯어낸다고 떠올리는 거야.

마이클의 행위는 처음엔 들키지 않았지만 결국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 애초에 그의 몸이 자신의 행위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육안으로 드러났으니 말 다했지. 정부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마이클에게서 골든 디스크를 회수했지만 이미 일부를 제외한 디스크의 대부분은 세계 각지에 퍼져있었어. 그들은 분노했지만 이미 떠나간 디스크를 회수하기는 요원했지. 그래서 대신 남아있는 마이클에게 공격의 화살이 쏟아졌지.

마이클의 생애 후반 동안 그에게 가해진 공격들을 봐. 그것들이 정말 특정한 목적이 없는 악의들로만 보여? 그들은 마이클을 공격해 그의 모든 것들을 짓밟으려 했어. 그리고 대부분 성공했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지. 실낱같은 그의 생명을 손에 틀어쥐고 끊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한 듯 손을 털었어.

그가 죽은 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누구도 이런 사실들엔 신경 쓰지 않고 있어."

거기까지 말을 마친 마브는 입을 다물었다. 그 표정은 기석이 처음 거리에서 그를 봤을 때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기석은 그의 눈에서 항상 빛나는 곤충과도 같은 비인간적인 안광이 아닌 인간적인 감정의 편린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찰나의 것이었다. 마브의 눈은 그새 방향을 알 수 없는 광기가 차올라 있었다.

"수업 끝!"

마브가 박수와 함께 소리쳤다. 기석은 정신없이 칠판을 비롯한 무대 위의 잡동사니들을 움직이는 마브를 바라봤다. 치우는지 어지르는 건지 도깨비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도깨비 같은 것 그것이 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정확했다.

기석은 비틀즈가 왜 죽었고 마이클 잭슨이 불쌍했네 하는 이야기 따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없었다. 마브의 본 모습이 과묵한 건지 미친 건지 망상증인 건지 인간적인 건지 감성적인 건지 멜랑콜리 한 건지 센티멘털 한 건지는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었다. 도깨비불이 무슨 모양으로 타오르건 간에 도깨비불은 도깨비불인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기석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저 약속한 대가에 대한 지불 능력이 그에겐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돈을 받아내려면 가끔은 채무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방법이었다.

"질문이 있어요."

"오호 뭐가 궁금해?"

"그래서 그 조각 난 디스크들은 어떻게 된 건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 그치? 그건 말이야……"

기석의 질문이 마음에 들었는지 마브는 들고 있던 잡동사니들을 던져버렸다. 그리곤 아까부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물건을 챙겨와 기석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여기 있지!"

항상 속이 비어있던 그의 기타 케이스였다.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물건을 당장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석은 어쩐지 두근거렸다.

"보고 싶나봐?"

"확인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아."

마브는 한 번에 걸쇠 두 개를 풀었다. 뚜껑을 연 케이스 안은 텅 비어있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없는 게 아니면 뭔데요."
"친구는 소리를 볼 수 있어?"
"없죠."
"그럼 소리의 뭉쳐 놓는다면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럼 그보다 많은 소리를 뭉쳐 놓은, 예컨대 소리의 결정이 있다면 보일까?"
"그것도 안보이겠죠."
"거 봐."
'대신 들리겠지.' 기석은 또다시 이길 수 없는 말싸움은 하기 싫어 뒷말은 속으로만 했다.
"그래요 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줄 건데요. 그쪽만 보이지 나는 내가 받아도 떨어트렸는지 발로 차고 다니는지 알 수도 없는 걸."
"그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마브가 케이스를 뚜껑을 덥고 걸쇠를 잠그며 말했다.
"이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기석은 자신을 쳐다보는 마브를 보며 말을 끝맺지 못했다. 믿어야 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되묻는 눈이었다. 떠보려다 손해만 본 기석은 애꿎은 소파만 걷어찼다. 케이스를 가져가라니 뭔 혹부리 영감 혹도 아니고, 그렇게 꿍얼대며 기석은 담배를 찾았다.

4.

길수를 설득하는 것은 간단했다. 자신처럼 길수도 마브의 앞으로 데려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앞에서도 마브는 전과 같은 연주를 선보였다. 이번 곡은 건즈 앤 로지스의 Welcome to the Jungle이었다. 찢어지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기타 리프가 호쾌하게 뻗어 나와 가까이 서 있는 이들을 강타했다.
"선생님!"
길수의 반응은 기석의 예상 이상이었다. 마브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길수의 모습은 무협지의 사제 간에 처음 조우하는 장면 저리가라 하는 것이었다.
기석의 예상을 빗겨나간 것은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었다.
"스승님!"
기석이 절대 혼자 오라고 당부했음에도 길수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끌고 온 길수 옆에 꿇어앉은 형만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찾아온 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이었지만 덕분에 마브의 인터넷 방송 데뷔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방송 장소는 가요장이었다. 스튜디오를 대실해서 방송을 하는 게 낮지 않겠냐고 기석이 제안했지만 마브가 일관되게 거부했다. 기석의 편을 들어주는 인원은 없었다. 별 수 없이 기석은 형들과 예정에도 없던 대청소를 하며 가요장을 임시 스튜디오로 꾸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래식 기타맨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키게 되었는데요."
길수는 방송을 송출하고 평소보다 훨씬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팅창은 새로운 스튜디오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뒤이어 등장한 마브에게는 무척이나 냉담했다.

-노숙자 좀 치워라.

-좀 씻겨서 오시지.

“하하, 이 선생님께서 사실 엄청난 은둔 고수시거든요. 여러분 부디 겉모습은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연주를 감상해 보시죠.”

-그래도 비위가 상하네요

-굳이 보고 싶지 않아요

-방송 노선을 알 수가 없네

방송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흐름을 타자 급속도로 냉각되어 갔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길수는 민망한 웃음만 나올 뿐 채팅을 읽는 눈은 둘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던 마브가 팔을 들어 자세를 잡고 움직였다. 코드를 잡는 움직임을 보던 기석은 얼른 메고 있던 베이스에 손을 올려 치기 시작했다. 둥둥 두두둥 둥둥, 베이스 라인이 들리자 형석 역시 박자를 타며 드럼에 시동을 걸었다. 메인 기타는 없었지만 바탕이 완성된 리듬이 들려오자 매섭게 올라오던 채팅들도 조금 수그러들었다.

기석이 눈치를 주자 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던 기석이 얼른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익숙한 멜로디였다. 90년대 히트한 B급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의 주제가였다.

“If there's something strange-In your neighborhood. Who you gonna call?”

마브가 노래하자 세 사람이 일제히 외쳤다.

“Ghostbusters!”

마브는 연주가 진행될수록 리듬을 타며 흐느적댔다. 치렁치렁한 코트와 볼품없는 외견이 합쳐져 그 자신이 유령처럼 보이는 춤사위였다.

-ㅋㅋㅋㅋㅋㅋㅋ이거 뭐임

-이상한데 빠져드네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지만 채팅창에는 재미있다는 의견들도 하나 둘 나타났다. 탄력을 받은 그들은 뒤이어 유명 팝송들을 커버해서 연주했다. 세 번째 곡을 마쳤을 때 방송은 순항 궤도에 올라있었다. 우려 속에 시작된 것 치고는 이 날 방송은 성공적으로 끝마친 편이었다. 후에 그들은 성공을 자축했지만 진짜 본편은 다음날부터였다.

마브가 리듬을 타며 흐느적대는 영상을 짧게 잘라 합성한 영상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왔다. 영상은 순식간에 엄청난 추천을 받아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되었다. 일견 기괴해 보이기도 하는 영상이 유저들의 마이너한 감성을 자극했는지 삽시간에 수많은 합성과 패러디가 범람하게 만들었다.

마브는 어느새 인터넷상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유명인 이었다. 일단 유명해지자 방송에는 곧장 전에 없던 대규모의 입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방송의 규모가 너무 불지불식간에 커져서 길수가 방송을 관리할 사람을 급하게 구할 정도였다.

방송으로 마브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난 후에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거나 자신들의 잣대로 비웃었다. 웃는 이들은 어느 쪽이건 마브를 웃어넘길 만큼 가볍게 여겼다. 반면 웃지 않는 이들은 하나의 형태로 귀납됐는데 그것은 바로 추종하는 것이었다.

방송이 반복되면서 끝자락에 마브는 항상 자기 멋대로 카메라 앞을 막아서며 자신만의 음악이론과 음모론을 횡설수설 쏟아냈다. 그런 행동을 기석 말고는 막는 사람이 없었다. 기석이 겨우 카메라 앞에서 뜯어내야 방송 끝이 났다. 그런데 마브를 말리는 것은 기석이 어찌할 수 있었지만 마브가 하는 말에 달라붙는 이들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마브가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건 길수의 방송이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 건 기석은 이번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마브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게 중요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아직 계절은 단풍이 저물지 않았다. 기석은 이제 마지막 약속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이었지만 기석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다. 마지막 약속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무서워?" 어느새 기석 옆에 다가온 마브가 물었다.

"아니요."

"아직도 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마치 물러줄 것 같은 말투였다.

"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나도 몰라요,"

그 말 그대로였다.

5.

V3는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다. 그룹 이름은 라틴어 문구 veni, vidi, vici에서 따온 것이다.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23세, 각각 보컬과 댄스 랩에 특화 되어 있는 3인조로 구성되어있다. 보컬을 하는 리더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랩 담당은 전남 익산 출신 댄스 담당은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었지만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한인 2세다.

위키에 적힌 정보들을 읽으며 기석은 처음으로 V3라는 그룹에 대해 알아갔다. 뉴스에도 곧잘 나오곤 했기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을 지녔는지는 관심이 없었기에 읽다가 종종 놀라는 부분들도 많았다. 가령 이들의 팬클럽 회원 수가 해외와 국내를 합쳐 한국 인구의 몇 배에 달한 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더 그랬다.

모니터에서 눈을 뗀 기석은 침대에 풀썩 누웠다. 매트릭스에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기석의 입에서도 깊은 한 숨이 나왔다. 내일 오후 7시 한국 인구보다 몇 배는 많은 아이돌 그룹이 서울 한 복판에서 공연을 한다. 장소는 바로 기석이 일하는 콘서트홀이었다. 왜 굳이 상암이나 잠실 같은 대형 공연장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코딱지만 한 자기네 콘서트홀에서 귀국 이후 첫 공연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했다.

7천 명을 간신히 넘기는 콘서트홀에서 내일은 특수 배치를 통해 1만 명까지 수용 인원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고작 1만 여석을 가지고 초거대 아이돌 팬덤을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뉴스에선 내일 인근에 추정인원만 3만 여명 정도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기석은 눈을 감고 그 인파를 상상해봤다. 건물과 거리에 땅이 보일 틈이 있을까 싶었다. 선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십대 이십대들이 포화직전의 상태로 운집해 있을 것이었다. 기석은 눈을 떴다. 그는 그 공간을 공연 바로 30분 전에 정전시킬 계획이었다.

이론상 계획은 완벽했다. 두 달 전부터 기석은 준비했으니 기석은 준비했던 대로만 하면 실행하면 됐다. 기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홀 내부엔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의 경호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음향실에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살펴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을 열어 준비한 작업복을 넣어 놨다. 설비팀에서 입는 작업복과 최대한 유사한 것을 인

터넷에서 찾아 구매한 것이었다.

일찍 온 시간 동안 기석은 원래 출근해서 하는 일들을 미리 처리했다. 정확히 30분 뒤 음향 감독이 팬더같은 다크써클을 늘어트린 채 올라왔다. 커피를 마셔도 졸려 보이는 감독에게 인사를 나눈 기석은 한 일을 보고했다. 감독은 수고했다고 한 뒤 본인이 자리에 앉아 기기들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기석은 얼마 안 있어 잠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일어났다. 그리고 소화전에서 아까 숨겨놓은 옷을 꺼내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을 가는 길목에도 경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는데 옷이 바뀌어 있다면 눈에 띌 것이 분명했다. 기석은 거기에 생각해둔 것이 있었다. 기석은 복도를 지나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뒤 복도 반대편에서 소란이 들리고 다급하게 무전을 주고받으며 달려가는 경호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기석은 주의가 다른 곳에 쏠린 사이 얼른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는 중에 복도에서 익숙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놔! 짜식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어!"

30분 일찍 올 때 함께 와서 북쪽 쪽문에 숨어 있게 한 형만이었다. 환복을 마친 기석을 모자까지 눌러쓰고 화장실을 나왔다. 원래 입었던 옷은 작업 가방에 넣어 챙겼다. 전기실 앞에 오자 기석은 조금 긴장이 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경호원중 누구도 작업복과 가방을 챙긴 기석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전기실 안에 들어온 기석은 차단기 레버에 준비한 로프와 추로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 나왔다. 연습했던 대로라면 지렛대의 원리로 대량 20분안에 차단기가 내려갈 것이었다.

전기실을 빠져나온 기석은 곧장 음향실로 갔다. 방음 때문에 살짝 사이공간이 있는 곳에서 기석은 옷을 갈아입었다. 혹여 누가 복도를 지나다니진 않을까 음향실에서 감독이 나오진 않을까 하며 엄청나게 눈치를 보며 환복 했는데 사실상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완전 범죄에 성공한 기석은 음향실 한 구석 자기 자리에 앉아 차단기가 내려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얼 하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기엔 진정이 되지 않던 기석은 어제 마브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V3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찾아야지,'

'그 디스크?'

'맞아, 골든 디스크.'

'그건 당신 기타 케이스 안에 있다면서요.'

'그건 일부야. 그리고 내가 본 건 완성품이고.'

'V3가 골든 디스크의 완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그들이 또 다시 시작 한 거야.'

'무슨 증거로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이름을 봐 V3라니 무슨 약자겠어. Voyager 3라는 뜻이잖아.'

'찾아보니까 veni, vidi, vici의 줄임말이라던데.'

'둘러대기로는 뭘 못해.'

기석은 거기까지 생각하다 피식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말싸움으로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공연 20분 전, 기석의 예측보다 10분 정도 늦게 홀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일제히 정전이 됐다. 어둠이 군중을 뒤덮자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하여 침묵을 지켰다. 어둠이 가시질 않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누군가가 발을 밟혔는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를 기점으로 어둠 속은 전쟁터가 됐다. 비명과 악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기 위해 날뛰느라 넘어지고 밟히기 일 수였다. 안전 요원들이 급하게 라이트를 켜서 흔들며 군중을 진정시키려했지만 산불 앞에 시냇물일 뿐이었다.

모두가 이성을 잃은 시간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상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마브를 찾으러 갔다. 마브는 약속한 곳에 잘 숨어있었다. 외투를 입은 몸을 옹송그린 게 방수포를 씌운 화물들과 비슷했다. 기석은 설명할 시간도 없이 마브를 일으켜 세워 V3가 있을 대기실로 쪽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러다 기석은 얼마 안가 아차 싶었다. 대기실 쪽 문 현관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잔득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보였다. 경호 업체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쯤은 해두었을 것이란 사실을 간과한 기석의 실수였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형 라이트까지 켜놓아서 무대처럼 밝았다. 더 이상은 무리라는 판단하고 기석이 포기하려던 찰나였다. 기석의 아래에서 호각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마브가 입에 호루라기를 물고 있었다.

-삐리이이이익!!

“와아아!!”

수십 명이 넘어가는 고함소리가 기석과 마브가 온 쪽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하나같이 청록색 코트를 입고 얼굴로 마스크를 가린 이들이었다. 어림잡아도 서른 명이 넘어가는 인원이었다.

“뭐해! 어서 가!”

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복면 일당 중 하나가 기석을 붙잡고 어서 가라고 재촉했다. 기석이 아는 목소리였다.

“길수 형?”

“통성명할 시간 없어! 빨리!”

복면 일당들은 모두 마브의 추종자였다. 기석은 마브와 함께 뛰면서 이쯤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브의 설계였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물어 볼 시간이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수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대기실 앞에 당도했다. 현관에서 벌어진 사태 때문인지 대기실 외부에 보이는 경호원은 없었다.

“얼른 들어가요.”

“그전에 이거 받아.”

얼른 들어가라고 기석은 보채는 와중에 마브가 익숙한 물건을 건넸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기타 케이스였다.

“친구는 약속을 다 지켰으니까 가질 자격이 있어.”

“알았으니까 좀, 빨리 가요.”

경호원들이 언제 올지 몰라 기석은 마음이 다급했다. 마브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아마도 일은 실패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친구가 이제부터 내 몫을 대신해서 살아야 해. 나도 원래는 그들 밑에서 일했어. 하지만 마이클을 곁에서 보면서 깨우쳤어 세상은 나 홀로 소리 낼 수 없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마브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눈물 때문인지 옆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는 비상 조명등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처음부터 완벽한 소리는 없어. 수만 수천가지의 소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내 삶을 뉘우치기 위해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

"……"

기석은 더 이상 보채지 않았다.

"친구, 한 가지만 더 알아둬. 삶은 항상 고통스럽지만 다행인 건 그래서 더 아파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럼 평소와 다를 건 하나도 없잖아."

마브는 그렇게 말하고 대기실을 향해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 불이 돌아왔을 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6.

향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V3 콘서트 정전 사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식어가고 있었다.

기석과 길수 형만, 세 사람이 고기 집에서 소주를 넘기며 서로의 무용담을 나누는 그런 후일담은 없었다. 형만은 취객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한 나머지 제지하던 경호원 한 명의 턱이 나가게 만들었다. 법원에선 과거의 경력을 바탕으로 상습적이라는 판단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길수는 다행히 다른 복면들과는 달리 무사히 빠져나갔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던 나머지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기석은 완전 범죄는 얼어 죽을 완전 범죄였다. CCTV를 하나도 고려하지 못한 범죄 내역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바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잡혀버렸다. 자사 측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덥기 위해 손해 배상과 해고 처리로 끝나 감방 신세를 지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 말하기 어려웠다. 직장에서 잘린 이후로 기석은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에 나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이후로도 가끔 만났다. 주로 형만의 가게였다. 고기를 굽긴 구웠지만 서로 말 없이 고기를 굽고 서로의 앞에 놔주었다. 세 사람이 소주를 넘기고 있으면 티비에서는 항상 마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뉴스에선 마브가 IMF 때 파산한 레코드 회사의 사장이었다고 했다. 본명은 김득철, V3의 소속사 대표와는 선후배 사이로 열등감에 벌인 범죄라고 보인다고 했다.

"난 어쩐지 사기꾼 같았어." 길수가 잔을 비우며 말했다.

"난 뭘 하는 건지 못 알아 들었어." 형만이 잔을 비우며 말했다.

"된 통 걸린 거지." 기석이 마지막으로 말하며 잔을 비웠다.

세 사람은 그러곤 계속 말없이 잔만 비웠다.

기석은 여전히 가끔 남자가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갔다. 이전과 다른 것은 항상 기타 케이스를 들고 간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는 건 아저씨를 보고 하는 이야기였나 봐."

기석은 남자 곁에 앉으며 말했다.

"뭐, 아저씨는 반도 못 건졌지만."

그렇게 말하고 뭐가 웃긴지 잠시 소리 없이 끅끅대며 웃었다. 웃음이 가라앉자 기석은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기석은 마브처럼 연주할 수 없었다. 혹부리의 영감의 혹이 그럼 그렇지.

기석은 그래도 나름 마브가 했던 것처럼 허공을 말아 쥐고 왼손으로 배꼽 언저리를 튕기는 시늉을 해봤다. 실실 웃음이 나왔지만 기석은 계속 코드를 짚었다.

"There is·····a house·····in New Orleans·····"

찬찬히 노래를 시작한 기석은 이내 목청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내 간호사들이 달려와 들려나가는 내내 기석은 계속 노래했다.

<끝>

참치 캔 속 목소리

중국학과
20171059 오규리

걔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얼굴이 창백하게 번져갔다. 마치 마임을 하는 것 같았다. 걔는 입술을 계속 움직였으나 내게 전해지는 말이, 그 소리가.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러니까 걔의 격앙된 얼굴에 어울릴 만한 목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다. 이게 전염성이 없다는 건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지 않고 걔의 손을 붙잡았다. 결국 너도. 내 말은 홀로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작은 소리를 내며 터졌다. 걔의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누구는 고장 난 라디오 소리로 착각할 만큼 구석진 곳에서.

소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 현상은 6개월 전, SNS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지갑을 주웠다는 한 고등학생의 영상이 시작이었다. 영상 속 지갑은 가만히,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움직임 없이 말을 뱉어내고 있었다. 현수야 엄마 말 진짜 안 들려?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엄마도 안 들려. 근데 말은 하고 있거든? 영상에 대한 반응은 미미했다. 이렇게 뻔한 합성을 누가 믿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대다수. 몇몇은 자기가 아는 세상 모든 현수를 태그하며 어머니 뭐하시니? 따위의 농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댓글은 거기서 그쳤다. 말하는 지갑에 끊임없는 관심을 줄 만큼 인생이 시시한 사람들이 있을 리가. 적어도 표면상으론 그랬다. 사실 생각보다 시시한 사람들이 가끔 영상을 찾아보는지 조회 수는 느리게 꾸준히 오르긴 했다. 그러던 중 새로 달린 댓글 하나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진짜 현수의 등장이었다. 지갑이 부르던 그 현수. 현수는 지갑에 담긴 목소리가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확실하다고 했다. 이틀 전부터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하셨고 병원을 여러 곳 찾아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영상의 조회 수는 빠르게 치솟았다. 누군가 나서서 현수에게 질문도 했다. 혹시 지갑의 주인도 어머니이신가요? 그 밑으로 현수의 답변이 달렸다. 아니요. 처음 보는 지갑입니다. 그냥 저 목소리만 저희 어머니의.....

현수 엄마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지갑을 주웠던 고등학생은 현수에게 지갑을 전달했다. 그 과정을 찍어 다시 한 번 SNS에 업로드 했지만 생각만큼 큰 관심을 받진 못했다. 이미 곳곳에서 목소리가 담긴 물건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다.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목소리를 잃었음에도 말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말을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때로는 너무 뜬금없는 물건에서 흘러나왔다. 곧 목소리 찾아주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나는 이젠 울고 있는 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다. 걔는 소리 없이 울다가 휴대폰을 들고 메모장을 켜서 내게 할 말을 써 내렸다.
[나 이제 어떡하지? 당장 내일 학교는 어떻게 가?]
“은지야 일단 동사무소 가서 신고부터 하고...”
목소리 찾아주기 운동은 이제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기적처럼 목소리 주인에게 목소리가 담긴 물건을 전해주는 훈훈한 관경은 오래 전 현수 엄마 사건 때나 선명했던 것이었다. 목소리

가 담긴 물건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첫 번째, 동사무소에 자신의 본래 목소리가 담긴 파일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끝없이 기다린다. 수색 팀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목소리가 담긴 물건을 찾고 그 목소리와 맞는 파일을 매칭 시킬 때까지 기다린다. 드는 비용은 당연히 없다. 갑작스런 사태에 정확한 병명, 사실 이게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인지 외계의 교란인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국가에서 베푸는 무능한 아량이었다. 수색 팀은 열심히 발로 뛴다지만 늘어가는 목소리 실종자들 각자의 사정을 헤아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돈을 주고 사설 업체에 맡긴다. 그들은 받은 만큼 결과를 보여줬다. 유명한 사설 업체 일수록 빠른 성공, 높은 금액, 목소리가 담긴 물건을 평소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케이스까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친절을 갖췄다.

은지가 그만한 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 확실한 위로는 돈, 그뿐이라 나는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은지 몰래 시계를 확인했다. 곧 아르바이트 갈 시간이었다. 은지는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가 눈물 번져 미끄러운 자판 위로 문자를 꾹 꾹 눌러 전송 중이었다. 그러다 은지가 짧은 숨을 토해냈다. 눈물 자국으로 엉망인 얼굴이 알 수 없게 일그러졌다. 나는 시계와 은지를 번갈아보다가 눈앞에 들이밀어진 메모장에 결국 작게 웃음을 흘리고 말았다.

[내 목소리 존나 무거운 냉장고 같은데서만 안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은지는 목소리가 없어서 나는 정확한 글자를 볼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벌어야 했다. 걔가 냉장고 생각에 웃음이 터진 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다.

결국 아르바이트는 출근 시간을 3분 넘겨 도착했지만 큰 걱정은 없었다. 빵집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너머로 매니저가 나를 힐끔 돌아봤다. 괜히 숨을 거칠게 쉬며 유니폼을 챙겨 제빵실로 들어갔다. 따로 공간 없이 이미 퇴근한 제빵사의 컴컴한 빈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색 바랜 빵모자를 손에 쥐고 매니저가 서 있는 카운터로 향했다. 그 짧은 거리라도 달려가는 성의를 보이며 고개를 꾸벅 숙였다. 매니저는 괜히 텁텁한 입을 몇 번 벙긋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돼.”

모자를 눌러쓰며 죄송해요, 작게 중얼거렸다. 매니저는 겉옷을 챙겨서 열 걸음도 채 되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고 빵집을 벗어났다. 빵집은 온통 투명한 유리창이어서 사람들이 진열된 빵을 구경하기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경하기도 쉬웠다. 내 시선은 거리를 지나는, 손님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머무르다가 아직도 빵집 앞 골목을 벗어나지 않은 매니저의 느린 발자국을 따라 쫓았다.

퇴근이 평소보다 늦어졌다. 사장은 술을 먹고 12시가 넘어서 매장에 왔다. 사장 친구들도 함께였고 모두 같은 냄새를 지닌 채였다. 사장은 내게 커피 3잔을 부탁했다. 부탁이었나. 잘 모르겠다. 이미 마감 정리를 끝내놓은 커피 머신을 다시 작동 시키고 샷을 내리는데 사장이 다가왔다.

“샷 4개로 세 컵에 나눠 담아.”

커피에는 한 잔당 2개의 샷이 들어가야 한다.

"네."
나는 그저 사장 말대로 했다. 세 잔의 커피는 옅은 농도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그들의 목 너머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손목에 자리한 작은 시계가 아닌 매장 시계를 빤히 바라보다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자를 벗고 묶었던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알코올을 머금은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나는 그들의 말소리만한 풍선을 생각했다. 그 풍선은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지더니.....
"어머, 둘 다 갑자기 왜 이래?"
사장은 입만 벙긋거리는 친구들을 앞에 두고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들은 몇 번 더 말을 뱉으려 노력하다가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를 한 번, 그 커피를 내려준 나를 한 번 바라봤다. 사장도 그들을 따라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금 전 상상 속에 커질 대로 커진 풍선이 결국 터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커피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만든걸요. 그렇게 커피 들고 저를 보신들 제가 뭘..... 어쩌라고.

나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사장은 그제야 나를 퇴근시켰다.

내가 머무는 고시텔 '빛나 하우스'는 4층짜리 건물이다. 3층까지 한 층마다 6개의 방이 있고 4층은 독채로, 건물 주인의 지인 혹은 다른 층에 비해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간간히 머무른다. 나는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색과 공기가 모두 차갑고 어두웠다. 5개의 문을 지나치는 동안 들리는 작은 말소리들이 때론 반갑게 들리는데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6번째 문을 열고 작은 방안으로 들어서 문을 닫자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반가워했는지 매번 뒤늦게 깨닫곤 한다. 정적을 깨고 벨 소리가 울렸다. 액정에 빛나는 이름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어 아빠."
나는 온갖 피곤함을 다 떠안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이 시간에 깨어있네.'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손을 뻗어 작은 전등을 켰다. 굳이 방 전체를 밝히고 싶진 않았다. 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새벽 시간, 글이 쓸데없는 감정 머금고 무거워지는 걸 조심하라던 시간이지만 노트북을 열고 자판에 손을 올렸다.
'잘 다니던 학교 마음대로 쉬니까 좋니.'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은 뭔가 완성작인 것 같았다. 그것을 글로 풀어내려 애쓰고 있자니 화면 속 글자는 또 멋없게 붕 떠 버린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글 같은 거 배워서 뭐하려고.'
글이 막히자 아빠의 목소리는 금세 내 주의를 머금고 뚜렷해졌다. 아빠의 말대로 학교는 1년도 채우지 못했다. 한 학기 만에 휴학을 결심했던 3달 전의 나는 그 패기에 미치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만났다. 머릿속에 있던 것은 소리가 실려 말이 될 때,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빠짐없이 낯설다. 그 낯선 것은 초라해 보이기도 쉽다. 내가 그날 내뱉은 말들은 나의 치기어린 행동에 그 어떠한 힘도 실어주지 못했다. 나는 아빠 앞에서 무게 없이 나풀대는 어떠한 가벼움일 뿐이었다. 어느새 적막이 찾아왔다. 아빠의 숨소리가 전등빛만큼 옅게 깔렸다. 아빠는 그렇게 몇 번 숨을 고르다 이렇게 물었다.
'..... 밥은 잘 먹고 다녀?'

나는 그 날 꿈속에서 목소리를 잃었다. 도망간 목소리는 냉장고 안쪽, 그 중에서도 냉동 칸에서 발견됐다. 나는 힘겹게 냉장고를 끌고 아빠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내 목소리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릴까 걱정되던 밤이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공통점은 없다. 제비뽑기보다 무작위적이었고 때론 공평하다 느낄 정도였다. 이틀 후에 만난 은지는 전과 다름없었다. 내가 말하는 전은, 목소리를 잃기 전이다. 걔는 방긋 웃으며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들어올렸다. 흐흐 콧바람 섞인 웃음소리가 들리니 어렵지 않게 걔를 따라 웃을 수 있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은 목걸이에서 나왔다.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지 작은 보석에서 나오는지는 큰 상관이 없어보였다. 은지는 운이 좋았다. 어제 빵집을 다시 찾은 사장 친구들은 각자 허리춤에 농구 골대와 선풍기 날을 달고 있었다. 커피 말고 주스를 주문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 엉뚱한 곳에서 흘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아래를 힐끔거렸다. 차라리 그들의 엉덩이를 보고 주문을 받는 편이 자연스러웠을 거다. 오래된 더빙영화같이 어설픈 그들은 별로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돈을 가져서 빠르게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은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귀에 꽂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나 알바나 좀 해보려고,"

알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나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피곤해서, 대답하는데 졸음 쫓을 힘만 낭비하는 기분이라서 그랬다. 어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빵집에서 일했다. 사장은 술을 마시진 않았으나 늦었고, 별 다른 말없이 나를 퇴근시켰다. 남은 빵 몇 개를 손에 들고 방에 도착했지만 뒤늦게 끼니를 챙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습작을 하다가 잠에 들었다.

"빵집 일은 어때?"

은지의 목소리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방금은 정말 잠을 자다가 멱살이 잡힌 기분이라 짜증이 올라왔다. 은지는 여전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 미숙한 움직임에 스스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체의 감정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얼굴에 존재하는 모든 근육들은 의도를 잊고 엉망으로 날뛰었다. 은지는 이틀 만에 그 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설업체에 의뢰를 했다고 했다.

사실 걔는, 알바를 해본 적도 없다.

은지는 내가 함께 저녁까지 먹기를 바랐다. 마침 굳어버린 얼굴이 감기핑계를 대기 적절해서 겨우 걔를 떼어 놓을 수 있었다. 딱히 누구를 겨냥할지 몰라 숨겨야 되는 화를 꾹 눌러 담고 고시텔로 향하는 걸음에 괜히 무게를 실었다. 그러다 나는 내가 화가 나지 않았다고 여기기로 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상대도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냥 피곤한 내 탓을 했다. 사실 정말, 피곤했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었다. 곧 '빛나 하우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곳의 간판은 빛 한 점 없어서 처음 찾는 사람들에겐 그 역할과 쓰임새를 다하지 못하곤 한다. 물론 나는, 옆 건물 사우나처럼 빛나는 붉은 글씨 따위가 아닌 게 오히려 마음에 든다. 간판 밑으로 가까워질수록 내 걸음에선 힘이 빠졌다. 가벼워진 발걸음에 속도를 붙일 참이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휙- 뒤를 돌아봐야 했다.
"아빠?"
사우나 앞에서 뿌연 연기에 휩싸여 있던 남자가 담배를 문 채로 나를 힐끔 쳐다봤다. 그는 곧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나는 계속 허공을 두리번댔다.
선아.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소리를 찾아 고시텔에서 점차 멀어졌다. 뭐야 아빠 어디야 왜 숨어있어? 순간 아빠 손을 놓친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이곳은 사람 많은 놀이동산도 아니어서 심장이 기분 나쁘게 쿵쾅거렸다. 빨라지던 걸음은 사우나 뒤편 쓰레기장에 이르러서야 멈췄다.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길 고양이가 빈 참치 캔을 핥고 있었다. 나는 발을 한 번 굴러 고양이를 쫓아냈다. 덩그러니 남아있는 참치 캔. 그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선아.
그 안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손을 더듬거려 불을 켰다. 작은 방이 밝아졌다.
선아.
으악. 나도 모르게 참치 캔을 떨길 뻔 했다. 괜히 또 움푹 파인 곳에 목소리가 있어서 그게 바닥으로 쏟아져 버릴까 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찰랑이는 물 같은 아빠의 목소리를 상상한 뒤였다. 아빠는, 아빠의 목소리는 몇 분 간격으로 내 이름만 불러댔다. 뭐하는 거야? 언제부터 저런 거지? 이런데 왜 연락도 없어?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하려다가 통화 연결 음을 듣고 정신이 들었다. 참치 캔에서 대신 목소리가 흘러나올세라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문자, 문자를 해봐야지. 다시 휴대폰을 드는데 바로 벨소리가 울렸다. 아빠가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제야 팔이 살짝 저려왔다. 참치 캔을 책상 구석에 밀어 놓고 전화를 받았다.
'어, 선아. 미안한데 내가 오늘 조별과제 모임이 늦게까지 있어서, 마감타임 대타 가능하지?'
이미 확신에 찬 말투를 탓할 순 없었다. 내가 휴학생인 걸 잘 아는 언니였다. 짧은 정적이 이어지자 언니는 바로 본론에 들어간 게 민망했는지 몇 마디 덧붙여왔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부탁인가? 부탁에서는 보통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다. 요즘 내가 받는 부탁들은 예외적으로 한 가지 대답만을 취급해서 나는 자주 속이 답답했다.
"네. 그럴게요."
언니는 출근 1시간을 남겨두고 내게 전화했다. 나는 이 방에 몇 발자국 남기지도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일단 일 끝나고 생각하자. 모든 걸. 책상 구석에 자리한 참치 캔을 잠시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너무 캄캄하니 조금 무서웠다. 책상 위에 작은 전등을 켰다. 아까보단 마음이 편했다. 돌아서서 방문을 잡아 내렸다.
선아, 저녁은 먹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아빠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말을 잃어온 사람이었다. 아빠의 말이 큰 도화지였다면 그것은 엄마가 떠나면서, 내가 집을 나오면서, 반씩 접혀가며 결국 아주 작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었다.

아빠의 직업은 때마다 좀 더 나은 상황을 찾아 자주 바뀌었고 대부분 말이 필요 없는 자리였다. 아마 도화지는 그때부터 크게 접히는 대신 조금씩 조각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손님이 골라온 바게트를 썰며 줄이 늘어선 카운터를 바라봤다. 바게트는 기계 없이 빵 칼로 직접 썰어야 했는데 손님 하나가 그걸 발견하곤 헛웃음을 내뱉었다. 아니, 그걸 직접 썰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힘이 바짝 들어간 손이 아팠다. 딱딱한 바게트가 하필 세 개였다.

방 안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차마 들어가지 못 하고 복도를 서성거렸다. 그것은 해제를 잊은 알람처럼 끊임없이 시끄러웠다. 무시 끝에 조용해진 방 안으로 들어섰다. 겉옷도 벗지 않고 침대 위로 엎어졌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렸다. 동사무소에 신고는 했을까. 말없이 보낸 오늘은 어땠을까. 어제와 다름없었나. 그런데 왜 자꾸.

선아, 저녁은 챙겨 먹었어?

소리가 되지도 않는 말은 왜 자꾸 내뱉는 걸까. 누가 듣고 있을 줄 알고. 누가 듣길 바라긴 하나. 나는 참치 캔 속을 물로 헹궈버리는 상상을 해봤다. 목소리는 의외로 접착성이 없어서 금세 떨어져 나가버릴 거다. 흐르는 물을 따라 하수구로 내려가서 쓰레기가 된 말들의 장에 파묻히겠지. 다시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 함에 들어갔다. 받은 문자 없는 칸 안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다. 아빠 목소리 내가 주웠어. 작은 참치 캔이야. 다행이지. 곧 다가올 아빠 생일 때 목소리에 맞는 작은 케이스를 선물할게. 아악. 문자를 완성하지 못 하고 휴대폰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저건 너무 배역에 충실한 배우 같았다. 나는 저렇게 말 못한다. 적당히 쓰인 가족 극 대본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지 않나.

왜 계속 내 이름 불러.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

그런 말 잘 안했잖아.

그날 밤 꿈속에서 아빠는 하수구 밑으로 빠져버렸다. 그 장면이 끝이었지만 나는 왠지 알고 있었다. 깊숙이 흘러 내려가다가 목적지엔 닿지 못하고 중간쯤 애매하게 끼어버릴 몸이란 걸.

나는 다음 날 바로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작은 화면 속이었다. 카운터 건너편, 케이크가 포장되길 기다리는 학생들의 휴대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낡은 건물 엘리베이터 문틈에 몸이 끼어 죽은 50대 수리공. 그의 가방에선 김밥 한 줄과 생수 한통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올라간 입 꼬리를 허술하게 가리며 중얼거렸다. 아 뭔가 슬픈데 웃기다. 어떻게 문에 끼여 죽지. 나는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고 포장된 케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젠 손에 익어버린 단계를 끝내고 고개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을 제외하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나는 빵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손님을 응대하는 법을 경험했다.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이런 건, 내 행동을 어떻게 제어하지도 못한다. 배움 없는 초보는 그냥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건가. 손을 들어 눈가를 더듬는데 갑자기 시야에 손바닥이 들이 밀어졌다.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드니 학생 하나가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다.

“거스름돈 덜 주셨거든요?”

나는 그제야 내 실수를 알아차렸다.

나는 생각보다 빨리, 다시 빵집에 출근했다. 사장은 내가 자리를 비운 2주일 간 나왔던 알바생을 함께 붙여줬다. 덕분에 일은 훨씬 쉬웠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생일을 앞두고 케이크를 사가는 손님이 유독 많았다. 나는 쉴 틈 없이 케이크 진열대 뒤를 서성여야 했다. 새 알바생은 근무시간 내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옆을 서성이더니 조금 한가로운 시간에 내게 말을 붙여왔다.

"저기, 괜찮으세요?"

나는 케이크 진열대를 정리 중이었다. 말을 내뱉은 알바생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보였다. 말을 받아 든 내 표정이 어땠을 진 잘 모르겠다. 나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 케이크를 들어 올리다가, 그대로 놓치고 말았다. 케이크는 진열대 틈 사이에 낀 채 반 정도가 으스러졌다. 나는 그 케이크를 본 순간부턴 절대, 괜찮을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겉옷을 벗지도 손을 씻지도 불을 켜지도 않았다. 침대 대신 좁은 바닥에 누웠다. 온통 캄캄해서 침대 모서리나 책상 다리가 눈에 익기 전까진 어둠 속에 붕 떠있는 느낌이었다. 눈을 깜박일수록 몸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숨을 느리게 뱉었다. 소리 없이 퍼진 숨은 그냥 그렇게 공중에 머물렀다. 너무 조용해서 곧 무언가 들릴 것만 같았다.

선아.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책상 구석에 놓인 참치 캔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한참 후에 참치 캔 속 목소리가 내게 물어왔다. 저녁은 먹었어? 눈앞이 흐려졌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때 묻은 벽지가, 천천히 일그러졌다. 생각보다 무겁고 축축한 것이 한 방울씩 눈가를 타고 스쳤다. 그것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하나의 형태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작게 입을 벌렸다. 이제, 이제 먹으려고.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대답을 했다. 그리고 나도 물었다. 아빠는 저녁 먹었어? 참치 캔 속에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어디선가 김밥 한 줄을 삼키느라 대답하지 못할 아빠를 상상했다.

인조인간

국어국문학과
20161033 류정은

1

「아늑하게 잘 꾸몄지만 수수한 거실. 뒷배경 오른쪽에 난 문은 현관으로 통하고, 뒷배경 왼쪽의 다른 문은 헬메르의 서재로 통한다. 두 문 사이에는 피아노가 있다. 왼쪽 벽 가운데에는 문이 있고, 더 앞쪽에 창문이 있다. 창문 가까이에는 둥근 탁자와 팔걸이의자, 작은 소파 하나. 오른쪽 벽에는 뒤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벽의 무대 정면 쪽에는 타일이 붙은 난로가, 그 앞에는 팔걸이의자 몇 개와 흔들의자 하나가 있다. 난로와 옆문 사이에는 작은 탁자가 있다. 벽에는 동판화가 걸려 있다. 도자기와 자그마한 장식품들이 놓인 선반, 양장본 책이 여럿 꽂혀 있는 작은 책장이 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다. 겨울날.」

*Henrik Johan Ibsen <인형의 집> 서막 (민음사)

빳빳한 베이지색 모직 코트를 걸친 노라가 가벼운 걸음걸이로 무대에 등장한다. 관객은 모두 노라의 흥얼거림과 몸짓에 집중하고 있다. 흥겨운 동작으로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킨 노라는 이제 막 첫 대사를 내뱉으려 한다.

미로는 그 모습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무대를 바라보았다. 주인공을 맡은 여배우는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몸짓은 가볍고 매끄러웠으며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특히 표정연기가 일품이었다. 그녀는 눈썹을 얼마나 치켜올리거나 내려뜨려야하는지, 미간을 어느 정도로 찌푸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풍부한 표현력이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연극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극은 인류 역사를 새로 쓸 경이적인 사건이라 대서특필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조용했던 객석도 커튼콜 때가 되자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보냈다. 환호성 소리 사이에서 간간이 휘파람 소리도 들렸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미로는 관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보냈다.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미로는 입꼬리를 양쪽으로 힘껏 당겨 치켜올렸다.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이내 눈도 살짝 접어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얼굴 근육이 마비될 것만 같았다.

"무대 아래에서는 싫은 역할만 해야 해. 나는 무대 위가 좋아."

그 언젠가 자신이 내뱉은 말이었다. 이제야 이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관객들의 시선은 주인공에게 쏠려 있었다. 그러나 미로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표정을 관리했다. 연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2

소극장에서 상영하기로 했던 연극이 갑자기 몸집을 불렸다. 공연장이 커지고 소품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침내 감독이 미로를 슬쩍 불러냈을 때 미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이렇게 갑자기요?"

미로는 황망해져 물었다.

"미안해. 윗사람들 사정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네 하고 수그리는거 외에 할게 있나…"

감독은 눈썹을 팔자로 휘며 말했다. 난처하다는 듯이 미로의 오른쪽 팔뚝을 쓸어내리며 사과하는 얼굴에는 실실거리는 웃음이 배여 있었다. 미로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감독의 손은 허공에 어색하게 떠있다가 물러났다. 순간적으로 감독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았다. 다행이었다.

“원래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좀 더 인간다운 면을 보여주고 싶다나.”

그녀에게 극장은 삶이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미로는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했다. 배역을 맡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극장에 몸담은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미로는 이번 일에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 있었다. 다만 자신의 역할을 빼앗아간 '그것' 의 모습이 진심으로 궁금했다. 이번 일로 로비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분명 적지 않은 액수를 받았을 것이다.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도 이번에만 참아줘. 다음에는 원하는대로 하게 해줄게." 미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감독은 덧붙였다. 미로는 네. 하고 대답했다. 감독은 자꾸 입맛을 다셨다. 번들거리는 얼굴이었다. 그는 기어코 미로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가. 미로는 궁금했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들러리를 서주는 대가였다.

우습게도 그것의 이름은 ‘노라’라고 했다. 주인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다. 이번 극을 연기하게 되면서 새로 붙인 이름인지, ‘노라’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이 배역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결국 미로 자신은 '노라'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미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감독은 미로가 노라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것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어딘지 어색했다. 연구소와 감독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감독은 노라를 완벽한 여배우로 만들기 위한 단계에 미로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로는 내심 그것이 우스웠다. 미로는 자신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라 하니,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노라와의 만남은 평범했다. 노라가 먼저 미로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미로는 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주 인사했다. 미로는 순간 노라가 인간이 아닐까란 생각을 했다. 노라의 관절은 매우 부드럽게 움직였고 표정 또한 자연스러웠다. 가끔가다 보이는 한 박자 느린 반응 또한 그를 신중한 성격의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미로는 알았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실은 노라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 뿐이었다.

“네가 할 연극이 어떤 건지 알아?”

미로가 노라에게 물었다.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을 각색한 거에요.”

노라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작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노라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

"그건 인터넷에 접속한거야?"
미로의 물음에 노라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툭툭 치며 대답했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노라는 '내장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노라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어째서 노라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노라는 연습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한 번만 입력하면 되니까. 노라는 인간보다 효율적이었고 연기는 완벽했다.

미로는 노라를 관찰하고 노라는 미로를 관찰했다. 하루는 미로가 노라에게 말했다.
"<인형의 집>이 처음 상영되었을 때 노라는 그냥 집을 나가기만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노라가 대답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미로가 말했다.
"지금 결말은 마음에 들어?"
네가 연기할 이 연극 말이야. 미로가 덧붙였다. 노라는 흠 소리를 내며 말을 흐렸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미로가 다시 물었다. 노라는 눈동자를 굴렸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니까. 노라가 남편을 죽이는 결말로 개작되기도 했었어요. 그 편이 관객들한테는 더 즐거울 테니까…"
"그거 말고. 너 말이야. 나는 네 생각이 궁금해."
미로가 노라의 말을 끊었다. 노라가 미로를 가만히 응시했다. 적당한 대답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저의 생각이 중요한가요?
노라가 머리를 갸웃 기울였다. 미로는 노라의 대답이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웠다. 미로와 노라가 마주 웃었다.

3

연노란색의 암막커튼이 집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미로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불이 켜지고 난방장치가 가동됐다. 미로는 청록색의 패브릭 소파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소파는 이번에 새로 장만한 것이다. 패브릭 소재는 관리하기 어려울까 싶어서 망설였는데 막상 사고 나니 별거 아니었다. 소파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모노톤의 가구들 사이에서 선명한 청록색 소파는 동떨어진 듯 하면서도 잘 어울렸다. 그래서 미로는 소파에 엎드린 채 손끝을 세우곤 멍하니 푹신하고 보들한 소파의 감촉을 느끼곤 했다. 새로 생긴 습관이었다.
미로는 늘어뜨렸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순간적으로 앞이 깜깜해지며 현기증이 느껴졌다. 왼손으로는 관자놀이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소파 등받이를 잡아 몸을 지지했다.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몇 초 동안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차분해졌다.
미로는 비척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았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다. 그것을 느릿하게 정리했다. 거의 바닥을 드러낸 병들이 몇 개 있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 보였다. 미로는 노라를 생각했다. 그게 어떻게 표정을 지었더라. 노라의 연기를 따라서 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었는데 막상 해보려니 잘 되지 않았다. 미로와 노라는 생김새가 전혀 달랐다. 미로가 생각하기에, 노라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그래서 노라의 환한 미소를 따라 지을 수가 없었다. 미로는 노라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보았다. 본래 미로는 자신의 시원시원한 눈썹과 눈꼬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조금 더 동글동글한 편이 좋을 것 같았다. 미로는 얼굴을 뜯어보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 얼굴은 마치 노라를 닮아있었다. 생각이 생각을 물며 이어졌다. 미로의 기분이 순식간에 저조해졌다. 미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기계 주제에 어딜.

미로는 단순한 것이 좋았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마음을 잔뜩 흔들고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볼까? 미로는 주위 공간을 둘러보았다. 하얀 카라 화분에 눈이 갔다. 카라는 예전 작품에서 소품으로 사용한 조화였다.

카라는 비록 가짜였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진짜처럼 보였다. 문득 다시 화단을 가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미로는 식물을 키우는 것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잘만 키우던데 왜 자기는 매번 죽이고 마는지. 시들어버린 식물을 바라보며 섭섭하진 않았지만 아쉽기는 했다. 사실 식물이 죽는 이유는 명확했다. 식물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매번 키우기 어려운 화초들을 사오니 식물이 시들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는 관리가 쉬운 선인장을 키워보라고 했다. 하지만 미로는 어렸을 적 선인장 가시에 찔려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선인장은 너무 뾰족해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미로는 투박한 선인장 보다는 향기롭고 다채로운 꽃이 좋았다. 애정을 쏟는 일은 많은 노력을 요한다. 그렇기에 미로가 꽃을 시들게 하는 원인이 명백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미로는 조화 옆에 플로럴향이 나는 방향제를 함께 두는 것으로 집을 장식했다. 그러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향도 생화보다 진하고 넓게 퍼져서 훨씬 만족스러웠다. 미로는 새로 들여놓을 꽃을 어떤 색으로 살지 고민했다. 빨간색도 좋을 것 같고 분홍색이나 보라색도 예쁠 것 같았다.

4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미로는 소원해진 연인에게 줄 선물로 꽃다발을 샀다. 관계에 익숙함과 단조로움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미로는 지금 시기가 지나가면 편안함과 안락함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다. 꽃다발을 들고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이 왠지 낯간지러워 자꾸만 멋쩍은 듯 수줍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로는 여러 가지를 상상했다. 이 꽃을 받으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대로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 깜짝 놀라게 할까? 아직 식사 전이겠지? 외식을 하자고 할까? 나는 집에서 먹는 것도 좋고….

미로는 즐거운 상상을 하느라 연인에게 연락을 남기지 못한 채 그의 집 앞에 도착했다. 뒤늦게라도 방문 소식을 알릴까 하다가 결국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다. 그의 오래된 아파트 앞에서 미로는 자신이 꽤 오랜만에 이곳을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다음에 이사할 날이 오면 그때에는 너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무심결에, 혹은 그런 분위기에 함께 그리던 미래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신과 그가 함께 사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막연하게나마 느꼈다. 갑자기 그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미로는 뛰듯이 계단을 올라 그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문득 그가 곤란해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꽃다발을 들고 연인의 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미로를 부끄럽게 했기에 서둘러 검지손가락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은 없었다.

미로는 두 번을 더 누르고 나서야 그가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허탈했다. 그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일단 그의 집에 들어가 있기로 했다.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다시 묘한 자신감이 생겼다. 지금도 자신은 그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해도 되는 것일까.

그때 아래층에서 큰소리를 내며 누군가 계단 위로 뛰어올라왔다. 미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였다. 침입자를 경계하던 그의 날 선 표정이 미로의 얼굴을 보자 누그러졌다.

"난 또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아." 그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로가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돈해주었다. 그 사이 문이 잠기는 바람에 그가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다 말고 미로를 돌아보더니 난감하게 웃으며 10분만, 아니 5분만을 외쳤다. 어질러진 집 안을 보여주기 싫다는 덧붙임에 미로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그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연 뒤 잽싸게 그 틈으로 들어갔다. 그 모양을 보고 미로는 아직 우리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은 아닌 것 같아 내심 기쁘고 설렜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이 민망하지 않았다. 충동적이었지만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은 잘한 일 같았다.

1인 가구의 조촐하면서도 생활감 있는 집안 풍경은 변한 것이 없었다. 많이 어질러 놨던 것은 아닌 모양인지 집 안은 깨끗했다. 그가 뒤에서 미로를 감싸 안았다. 미로는 연인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꽃다발을 건네줬고 그는 기쁘게 받았다. 늦은 점심을 배달시켜 함께 먹었다. 그리고 나란히 누워 게으름을 피우다가 키스를 하고….

미로는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미로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 그는 통화 중이었다. 얼핏 듣기에 업무 얘기인 것 같아 조용히 안방 침대에 드러누웠다. 자꾸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잠옷으로 입을 것이 필요했다. 예전에 두고 간 옷가지들이 장롱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그의 통화가 길어지는 듯 싶어 직접 찾아 입기로 했다. 미로가 흥얼거리며 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안에는 여자가 있었다.

급하게 치우기는 했는지 바짝 말라서 빳빳해진 마른빨래와 두어 번 입은 듯한 옷이 헝클어져 장롱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리고 옷가지 사이에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네킹 인형이었다. 미로는 인형을 옷장에서 끌어냈다. 옷가지들은 인형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인형은 알몸이었고, 그가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말랑한 감촉이 소름끼쳤다.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통화를 마친 그가 놀란 표정으로 미로를 보고 있었다. 미로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싸움을 하듯 한참을 말 없이 대치했다. 결국 그는 먼저 등을 돌렸다.

그는 이 끔찍한 것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난처해 보이는 그의 표정 속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읽혔기에 미로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미로는 그가 말한 바를 당장 실행하기를 원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일반쓰레기로 분류된 그것은 커다란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가

야 했다. 그는 어딘가에서 톱을 꺼내오더니 깔끔하고 정확하게 인형의 사지를 절단했다. 그가 아무렇지 않아 보였기에 미로 역시 무덤덤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물고기나 생닭은 손질하기 꺼려하던 그가 능숙하게 인형을 토막 내는 모습에 미로는 현관으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문고리를 움켜쥔 미로가 쥐어짜듯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나는 잠시 나가 있을게."

목소리는 볼썽사납게 떨렸고 약간의 쇳소리가 났다. 미로는 그것이 부끄러워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밖으로 나갔다.

미로는 정처 없이 걸었다. 절단된 인형의 모습이 자꾸만 자신을 뒤쫓는 것 같았다. 영영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화는 더더욱 나지 않았다. 노라가 보고 싶었다. 적어도 노라는 살아 있었다. 미로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

날이 막 어둑해졌을 무렵 그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방 안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코골이를 들으며 미로는 거실 한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자고 있어서 다행이이었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껄끄러웠다. 미로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관으로 몸을 틀었을 때 무언가가 미로의 시야에 잡혔다. 현관 바로 옆에 봉투에 담긴 인형이 놓여 있었다. 반투명한 비닐 안으로 산발이 된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두 볼은 발긋했고 입꼬리는 미미하게 올라가 있어서 마치 수줍어하는 모양새였다. 인형의 머리가 미로 쪽을 향하고 있었기에 미로는 그가 일부러 봉투를 저곳에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나한테 화가 났기 때문에? 나는 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지? 미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사고가 마비되어 도통 생각이란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미로는 코골이 소리가 들려오는 방으로 비척거리며 들어갔다.

5

미로는 아파트를 나왔다.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미로는 자고 있는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그리고 빠르게 인형이 담긴 봉투를 넣었다. 모든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비이성이 이성을 이긴 순간이었다. 미로는 캐리어를 내려다보았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앞두고 그와 함께 장만한 가방이었다. 그 때 캐리어에는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며 구매한 커플 옷과 기념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토막 난 여자가 있을 뿐이다. 이상하게도 미로는 인형을 보면 화가 치밀기보다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미로는 이것을 노라와 많은 시간을 보낸 탓이라고 생각했다. 미로는 그가 무서웠다. 그리고 인형이 불쌍했다. 이것을 지켜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리어의 바퀴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분명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 소리가 마치 그가 쫓아오면서 나는 발소리 같았다. 그래서 미로는 앞만 보며 걸었다.

거리는 활기가 가득했고 상점마다 캐럴이 흘러나왔다. 흥겨우면서도 달콤한 노랫소리였다. 미로는 무작정 걸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걸어도 캐럴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캐리어가 덜컹거렸다.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캐리어를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손잡이가 미로의 손에 꽉 달라붙어 있었다. 미로는 손잡이를 움켜쥔 오른손을 영원히 펼치지 못할 것 같았다. 뒤늦게 슬픔이 몰려왔다. 진심을 다해 울고 싶지 않았기

에 지금은 연기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미로는 자신은 무대 위에 있으며 앞에는 수많은 관객이 있다고 상상했다. 이어서 이전에 연기한 비운의 주인공을 떠올렸다. 그제야 미로는 울음을 연기할 수 있었다.

미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이 되자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다. 계속 밖에 있다가는 감기라도 걸릴 것 같았다.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는 행복과 낭만으로 포장된 날이다. 미로는 행복했던 지난 크리스마스를 떠올렸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듯 밝은 표정이었다. 얼굴을 찡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많은 분노와 슬픔은 다 어디로 숨는 걸까. 미로는 갈 곳 없이 떠돌다가 결국 극장으로 갔다. 해도 뜨지 않은 야심한 시간에 공연장에는 싸늘한 기운이 가득했다.

무대에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소리에 집중하니 간간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했다.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먼저 와 있는 것 같았다. 미로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대 바로 뒤는 자질구레한 소품들과 박스들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다. 그 너머로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미로는 가까이 다가가 높이 쌓인 박스 뒤에 서서 그들을 엿보았다. 밀회를 즐기는 연인은 감독과 노라였다.

감독은 노라에게 지분거리고 있었다. 노라는 예의 그 은근하게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눈동자만이 낯선 손을 쫓고 있었다. 주인공은 새장 밖으로 나갔지만 그 곳은 단지 무대 뒤였을 뿐이다. 감독이 노라의 가슴을 주물거리고 치마를 들추는 동안 노라는 가만히 서서 감독이 하는 양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미로가 발소리를 죽이고 감독의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 감독은 노라를 탐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지만 노라는 고개를 들어 미로를 발견했다. 미로가 검지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가져다댔다. 노라가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 하세요."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밝게 나왔다. 뒤에서 쏟아지는 조명 탓에 감독과 노라의 위로 큰 그림자가 드리웠다. 감독은 깜짝 놀라며 얼어붙었다. 심장께에 손을 올리고 숨을 잔뜩 들이마시며 나온 허억 소리가 감독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려주었다.

불쑥 튀어나온 그림자의 정체를 알아본 뒤 감독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감독이 소리를 질렀다. 미로는 대수롭지 않을 듯 말했다.

"오늘이 첫 공연이잖아요.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슬쩍 눈동자를 돌렸다가 노라와 눈이 마주쳤다. 저것의 입꼬리는 여전히 미미하게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하시는 거에요?" 미로가 재차 물었다.

"네가 알 거 없어."

감독은 떳떳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난처해 보이지도 않았다. 미로를 성가셔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드디어 첫 공연이에요. 오늘은 참아 주세요."

미로는 더 이상 감독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미로가 난처하다는 듯, 그러나 부드럽게 타일렀다. 불만이 가득해 보이던 그는 결국 노라를 미로에게 떠넘기고는 자리를 떠났다.

감독이 완전히 가버리자 미로는 노라의 앞으로 다가갔다. 노라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미로는 대답 대신 손등으로 노라의 볼을 쓸어보았다. 손가락에 와 닿는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매끈했다. 아름다웠지만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차가운 손끝을 통해 부드러운 피부의 온기가 느껴졌다.

"기분이 불쾌하신가요?"

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불쾌함이 읽혀서요."

미로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노라가 자신의 표정에서 불쾌함을 읽어내자 그는 정말로 불쾌해졌다.

"네가 내 기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지.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노라는 예의 그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미로는 이것에게서 감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라에게는 감정이 필요 없었다.

미로가 노라의 머리와 옷을 정돈해주며 말했다.

"나는 네가 감독을 싫어했으면 좋겠어."

"왜요?"

"나는 감독이 싫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라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천진하게 말했다.

"아까처럼 단 둘이 있지 마."

말이 날카롭게 나와서 마치 명령조처럼 들렸다. 미로는 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노라도 미로를 마주 바라보다가 평온한 어투로 다시 물었다.

"미로는 저를 싫어하나요?"

"나는 너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야?"

노라가 눈썹을 찡그렸다. 미로는 그 표정이 마음에 들었다.

"안될 것은 없죠."

노라가 대답했다. 가벼운 말투였지만 여전히 눈썹은 찡그린 채였다. 노라가 잠시 뜸을 들이다 다시 말했다.

"조금 슬퍼요."

미로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노라가 말을 덧붙였다.

"당신에게 미움 받으면 저는 슬프답니다."

갑자기 미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미로는 노라의 감정표현은 모두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노라의 행동 중에서 논리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것들은 없었다. 그러나 미로는 노라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 미로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잠깐 만날래?"

미로는 충동적으로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데요?"

미로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이라고 말했다. 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단 둘만 만나는 거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미로는 은밀하게 속삭였다.

6

고위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객석 가득 앉아 있었다. 유명 배우들도 눈에 띄었다. 모르긴 몰라도 기자들도 잔뜩 초청했으리라. 사실상 연극 공연이라기보다는 제품 발표회에 가까워보였다. 연극은 완벽했고 노라는 배우로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연극이 끝난 뒤 장내가 소란스러웠다. 열기와 환호에 미로는 정신이 없었다. 노라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노라의 뒤로 자신과 동료 배우들이 배경처럼 서 있었다. 미로는 노라의 뒷모습을 보았다. 조명 때문에 마치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구석에 서 있는 자신이 유독 초라해 보였다. 미로는 앞으로도 이렇게 노라의 뒷모습을 바라볼 날이 많을 것을 예감했다. 미로는 노라처럼 될 수 없었다.

노라는 책임 연구원을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노라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더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감탄했다. 그들은 노라의 머리칼과 피부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과학의 발전을 찬양했다. 미로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그 모습을 모두 관찰했다. 사람들은 미로를 지나쳐 노라에게로 달려갔다. 미로는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모두가 자신을 지나쳐 등을 보이며 멀어져갔다. 미로는 노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노라가 아까와 같이 눈썹을 찡그려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사람들을 상대했다.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새벽 내내 떠돌다가 극장에 들어와 몇 시간 쪽잠을 잔 것이 다였다. 그래서 미로는 자신과 노라가 사용하는 배우 대기실로 들어갔다. 탁자 위에는 와인과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선물로 두고 간 모양이었다. 미로는 홀로 노라를 기다리며 오늘 공연한 연극을 복기했다. 새벽녘에 목격한 감독과 노라를 떠올렸다. 대기실 구석에 있는 캐리어를 떠올렸다. 이제야 알았다. 캐리어에 들어가 있는 인형은 노라가 아니라 미로 자신이었다. 모두가 연기를 하며 산다. 모두가.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만을 원할 것이다. 그것은 미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낼 수 없었다. 아무리 발악하고 발버둥 쳐도 자신은 결국 절망감과 패배감만을 맛볼 것이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로는 생각했다. 내가 '노라'를 연기했어도 오늘과 같은 환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다. 사람들은 기계이자 인형이자 인간인 노라를 원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로는 노라처럼 연기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은 순식간이었다. 미로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와인병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노라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찍었다. 병의 바닥이 머리에 닿기 전 노라의 눈은 크게 확장되어 살인자의 모습을 가득 담았다. 뒤로 넘어가는 노라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한 번 병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병이 깨졌다. 물풍선에 바늘 끝을 가져다댄 것처럼 와인이 터져나왔다. 노라의 몸이 완전히 무너졌다.

미로는 눈동자만 내려 미로를 응시했다.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든 옷이 마치 피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달큼한 와인의 단내 사이에서 미로는 강렬한 쇠비린내를 맡았다. 이것은 노라가 쏟아낸 피가 아니다. 와인이다. 그러면 이 비릿한 냄새는 무엇일까. 미로는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에 비틀거리며 목만 남은 병을 떨어뜨렸다. 웅덩이를 위로 떨어지며 튀어 오른 핏방울이 미로의 신발코와 바짓단에 선명한 자국을 새겼다.

미로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져 앞으로 고꾸라질 뻔하였다가 간신히 균형을 찾았다. 심장은 힘껏 펌프질을 하고 있었지만 피는 순환하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미로는 정신

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허리를 숙이며 천천히 무릎을 접었다. 모든 행동은 슬로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이루어졌다. 노라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엎어져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손을 노라에게로 뻗었을 때 미로는 역겨움을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시 미로를 장악했다. 그는 이 본능적이고 야만적인 느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미로는 창백한 낯빛으로 굽혔던 허리를 세웠다. 미로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힘을 너무 꽉 준 탓에 손톱이 미로의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미로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미로는 천천히 일어났다. 당장 이 극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미로는 노라를 지나쳐 가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미로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눈은 소복하게 쌓이지 못하고 녹아버려 땅이 질척했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은 무언가 쓸쓸한 느낌이 든다. 행복을 모두 연소시키고 남은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다. 미로는 오늘도 거리를 헤매야했다.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커피집 소녀

언론방송융합미디어학과
20152524 김창용

“ 2700원입니다.”

“어, 그, 그.”

오늘도 역시 제대로 입을 떼지 못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로 계산하고 가게 문을 열고 나온다. 문 위에 달린 종소리마저 왠지 날 약 올리는 것만 같다. 나는 언청이라든가, 지능이 낮은 바보는 아니다. 편한 친구들과 있을 땐 쉴 새 없이 떠들어 대는 입이지만 왜 여자와 이야기만 하면 혀가 굳어버리고 머리가 멈추고 심지어는 아랫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기까지 할까. 내가 호감이 있는 상대와 이야기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평범하다 못해 얼굴도 잘 외워지지 않는 집 앞의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저기 뒤에 마일드 세븐도 하나 주세요.’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 담배 사러 갔다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면 괜히 애꿎은 초콜릿만 사서 나올 때도 있다. 오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다. 어쩌지, 두 개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텅텅 비어 곽 안에서 나뒹구는 담배를 슬쩍 열어 보며 한숨을 푹 내쉰다. 병신. 스물넷, 우리 부모님 세대에 태어났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나이인데 이게 무슨 한심한 꼴이람. 연초를 태우고 싶었지만 일단은 아끼자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억지로 뗐다. 익숙한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카페 앞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에는 어수룩하게 붙인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문구가 떡하니 붙어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항상 이 카페의 커피만 마셔왔다. 딱히 쉬는 날도 없었고 일찍 닫은 적도 없던 카페인지라 머릿속이 하얘진다. 아쉬운 걸음을 뒤로하고 다른 뒷길로 빠져 카페를 찾아다닌다. 왜인지 대로변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는 싫었다. 어딜 가든 똑같은 맛과 디자인으로 생각이 턱 막혀버린다.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카페에 가서 글이라도 끄적여야 머리가 돌아가는 내 성격상 프랜차이즈 카페는 천적이다. 처음 보는 골목으로 들어간다. 인적 드문 곳 구석에 위치한 카페 하나가 있다. 눈에 띄는 간판도 없고 멀리서 보면 이곳이 카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특이한 인테리어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가니 띠링 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다시 머리가 굳어버린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높지 않은 상냥한 말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떨린다. 어둡다기보단 포근한 조명에 느릿하게 비치는 그녀의 금발 머리, 큼지막한 두 눈,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단발에 똑 떨어지는 어깨선. 회색에 가까운 나는 찬란히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순간 신경이 멈추었다. 그 뒤에 나는 양발의 평행도 맞추지 못한 채 계산대 앞에 섰고,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메뉴판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별다른 것 없는 메뉴의 이름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귀찮은 손님일 뿐이겠지만 왜 긴장이 되는 걸까. 평소에 매일 말하던 아메리카노라는 단어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 아. 아,메리카노 주세요.”

겨우 말을 뗐더니 산 넘어 산인가보다.

“뜨거운 거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안 그래도 큰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내가 턱마저 달달 떠는 것을 본 모양이다. 아니면 내가 신기하게 생겼다거나.

“따뜻, 아니 뜨거운 거로 주세요.”

진짜 끝났다 싶을 때쯤 카드를 내미니 그녀가 뭐라 말하는 것 같지만 내 귀까지 전해지지 못한다. 아마 가격은 얼마고 준비되면 불러주겠다는 말이겠지.

“쿠폰… 드릴까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를 받고 돌아서려는 절 또 불러 세운다. 물론 그녀는 기계적으로 응대할 뿐이고 불러 세웠다는 것은 내 착각이겠지만.

“괘, 괜찮습니다. 아니 주세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평소였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이번엔 왠지 받고 싶었다. 평소에 그랬듯 여자와 말을 하면 불안하고 얼른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보단 순수하게 떨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쿠폰을 건네받고 자리에 앉았다. 지갑에 꼬깃 접어 집어넣은 뒤 노트북과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공부도 좋지만 일단 뭔가를 써내려가야 몸과 마음에 안정이 생겨 내 신체 리듬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습관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우선 오늘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한 일부터 방금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일까지 빼곡하게 써내려간다.

“손님?”

하지만 애써 찾은 마음의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다. 그녀가 내 옆까지 와 직접 커피를 들고 서 있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쳐다만 본다. 그녀 생각을 지우려 글에만 집중하니 그녀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것도 듣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상황 파악이 끝난 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맙다고 고갤 숙인다. 머그잔의 온기를 양손으로 감싸 느끼며 조금 진정을 찾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마신다. 평소 가던 카페의 아메리카노와는 확연히 다른 향이 느껴진다. 살짝 산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묵직했다. 맛이 다르다기보다는 느낌이 달랐다. 어디서 가져온 콜롬비아니 과테말라니 원두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냥 기분이 조금 달라졌다. 이 복잡한 느낌을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다. 나는 어느새 몇 모금을 삼켜버리고 나서야 잔을 드디어 내려놓았다. 뜨거운

커피 탓에 입안이 퍽 얼얼했다. 시야가 드디어 트인 듯 주위를 둘러보니 손님이 나뿐이다. 시간대가 한가한 시간대인 것도 한 몫 했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이곳에 카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항상 카페에 와서 글 따위를 적는 것은 딱히 글쟁이가 되고 싶다거나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시작했다. 이제 습관이 되어 그런 목적들은 가물가물해진 채 의무적으로 아침 일찍 카페에 들린다. 내가 워낙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새로 찾은 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 덕분에 전혀 집중되질 않는다. 기지개를 켜는 척하며 주위를 둘러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지 못하게 움찔댄다거나, 눈을 바로 내리깐다. 그녀는 내게 단 한 줌의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눈치껏 알고는 있지만 괜히 허리와 등 어깨에 힘을 주어 자세를 고쳐잡는다. 문득 거의 반 잔을 비워냈을 때 아까보다 더 기분이 좋아졌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까.’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로 바보 같은 나 자신을 탓했다. 주문도 제대로 못 하는 놈이 어쩌다 이런 허무맹랑한 용기가 솟아났는지 모르겠다. 또 말을 더듬어 그녀의 농담 소재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결국 눈알을 도륵 굴려대다 그녀의 뒷모습을 흘깃 지나친 후 다시 제 일에 집중했다. 그렇게 또 한 모금, 다시 한 모금. 잔의 바닥에 가라앉은 커피 가루를 보고 있으니 자신감이 생기는 듯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안경을 벗고 뚫어져라 바라본다. 뭐라도 좀 바르고 올걸, 드라이 좀 하고 올 걸. 평소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다.

‘커피에 뭐가 들었나.’

어느덧 슬슬 사람들이 많아질 시간대가 다가오고 나는 부랴부랴 제 짐을 가방에 욱여넣었다. 결국 한 마디를 더 건네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그녀가 내게 또 오라며 인사를 했는지도 분명치 않았다.

다음 날도 오픈 시간에 맞춰 카페로 향하는 길, 다 떨어진 담배 생각이 나 편의점에 들르고 싶었지만 잘 닦인 출입문 너머로 보이는 긴 머리 실루엣 덕에 이참에 담배나 끊어야지 하며 위로하고 걸음을 돌렸다. 익숙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 갔던 그 카페가 눈에 밟힌다. 한 번 머쓱한 웃음을 짓고 어제 갔던 그곳으로 간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새 페인트 냄새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그녀가 인사해주는 것을 이번엔 또렷이 보았다. 이번에는 떨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그녀 앞에 섰다.

“아메리카노 주, 주, 주세요.”

조금 열이 받는다. 아메리카노는 잘 말해놓고 마지막 가서 망쳤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며 열 번은 연습한 말인데. 눈치를 보면서 그녀의 얼굴을 잠깐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가 힘들다. 아니, 표정을 읽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기에 읽을 수 없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오늘은 커피를 제대로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어제와 똑같은 맛, 뜨겁지만 후르릅 소리를 내며 얼른 마시고 싶은 맛이다. 커피 원두에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지만 내 입맛에 꼭 맞는다

정도로는 말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글을 쓰면서 커피를 홀짝이고 머그가 가벼워진 뒤에 그제야 주위 환경이 눈에 들어온다. 여전히 한산해 여유로움이 내게도 듬뿍 흘러들어오는 듯하다.

“케이크 하,하나 주세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케이크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고민했다. 무난한 치즈 케이크로 할지 머리를 굴려대다 매혹적인 빨간 자태에 끌려 레드벨벳 케이크를 골랐다. 정말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녀에게 한번 더 말을 걸고 싶었다. 눈치 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아보고 싶었다. 담배 한 갑 살 돈으로 고른 것이라 생각하니 아깝지도 않았고 그녀와 한마디 더 한다는 것도 맘에 든다. 케이크 귀퉁이를 포크로 잘라 먹으면서 든 생각인데, 여기 커피를 마시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무서워 담배도 못 사는 놈이 조금 말을 더듬을지라도 주문에 재주문까지 성공했다.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레드벨벳 케이크까지 당당하게 시킨 것도 스스로 대견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다. 나는 평일 날 마다 그 카페로 가서 시간을 보냈고 잠들기 전 항상 설렘에 취해있었다. 둘 사이의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얼굴을 익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좋았다. 눈을 감아도 그녀의 얼굴을 또렷하게 그려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에서 꽤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 스스로도 느낀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로 주세요, 사이즈는 벤티로요.”

하루 거의 두 잔이나 여기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이 아메리카노만이 내 굳어진 혀를 말랑하게 만들어줄 수단이며 그녀와 나를 연결해줄 매개체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른다. 몇 살인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심지어 그녀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그래서 오늘은 진득하게 붙어있을 예정이다. 쌀쌀한 늦가을 저녁 5시가 되면 어둑어둑 해가 저문다. 문틈으로 한기가 삐져나올 때가 되니 그녀 대신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깔끔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를 대신한다. 둘이 무슨 재미난 농담이라도 주고받는 듯 시시덕거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곤 문밖에 나가려 한다. 아르바이트생끼리 저렇게 친한 건 흔하지 않은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다 뒤늦게 가방을 싸매고 그녀를 따라나섰다. 커피의 향이 서서히 날아갈 때 쯤되니 넘치던 자신감이 한풀 꺾여버린다. 오늘만큼은 정말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하면서도 신호등 앞에 선 그녀의 옆으로 갔다.

“혹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작지만 명확한 소리로 물었다.

“네?”

그녀는 제법 당황한 듯 놀라며 내 쪽으로 돌아섰다.

“이,이름이라도 여쭈,쭤, 봐도 될까,까요?”

이미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고 저 너머로 보이는 신호등의 색깔이 얼른 바뀌길 바랐다. 초록색으로 바뀌면 당장에라도 달려가 도망치고 싶었다. 커피가 부족했냐보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나는 추운 날씨를 탓했다.

“아 서연이요, 이서연.”

결국 이름을 들어내는 것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 뒤에 더 이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성공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탓일까. 갑자기 바뀌어버린 초록색 신호가 원망스러웠다. 그녀에게 한 마디 더 던지고 싶었다. 그녀의 발걸음을 다음 신호까지만이라도 묶어두고 싶었다. 신호등 옆 숫자가 작아질수록 내 마음은 다급해진다.

“저는 오,오태민이라고 합니다.”

그녀를 부르는 초록빛 신호에 안절부절못하자 나는 꾸벅 인사로 그녀를 놓아주었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후회는 남지 않았다. 아직 궁금한 것이 산더미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괜히 기분이 좋아 미친놈처럼 혼자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걸었다.
그날 밤 절친한 친구와 만나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니 재미있다는 듯 뒷 내용을 더 갈구해댔다. 하지만 3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알아낸 것은 그녀의 얼굴과 이름뿐이다.

“야 그래도 많이 늘었다. 이름도 물어보고 인마.”

소주가 한 잔, 두 잔 들어가도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주 한 병 더 달라는 말은 여전히 어렵다. 흔히들 술을 마시면 과감해진다고 하던데, 나에게 있어 그 역할은 커피가 대신해주는 것 같다. 사실 내가 멍청이처럼 굴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나와는 정반대인 용호가 부럽다. 사실 중학생 때까지는 그놈이나 나나 첫사랑이라 불러도 될만한 연애를 해봤다는 점은 같다. 그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여자인 친구가 더 많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나는 첫사랑의 비참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 지독한 병이 되어 이 지경까지 떨어졌고, 용호는 나와는 달리 청춘을 퍽 즐기는 중이다.

“자신감이 중요해. 생긴 것도 멀쩡한데 왜 그렇게 말을 못 하냐. 저번에 너한테 관심 있다던 그 후배는?”

“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용호는 그런 내 모습이 답답하다는 듯 욕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나도 이 나이까지 돼서 이럴 줄은 몰랐다. 상처에는 연고를 빠르게 발라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알아서 낫겠거니

하다가는 덧나기 일쑤다. 서연 씨가 그 연고가 될 것이라 믿고 싶다. 난 용호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눈을 질끈 감고 잔에 남은 투명한 마취제를 목구멍으로 넘긴다. 오늘따라 잔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후 놈에게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 몇 개를 더 주워듣고는 자릴 털고 일어났다. 혼자 갈 수 있겠느냐며 도와주겠단 말에 손사래 치며 혼자 집에 가겠다 고집 피웠고 비틀비틀 균형 잡아 집에 돌아가 몸을 던졌다. 옷도 채 벗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되새기며 더 묻지 못한 질문을 가슴에 묻고 잠이 든다.

"매일 다섯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그녀에게 천연덕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 너에게만큼은 내 말을 똑똑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커피가 한 두잔 들어간 뒤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만. 그녀도 오전은 한가했는지 내 말을 자주 들어준다. 벌써 한 달째다. 잡스러운 이야기도 나누면서 꽤 친해졌다. 나이는 스물셋으로 나보다 한 살 어리다는 것과 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 마루라는 요크셔테리어 견종의 강아지를 8년째 키운다는 것. 내 착각일지는 몰라도 이제 그녀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와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좋아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이 카페를 못 찾았으면 좋겠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비록 그녀와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까진 못 돼더라도 최소한 알아갈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점심때쯤 날이 풀리면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레 제 자리를 찾아간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마음 단단히 먹었다. 남자 친구가 있는지,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각오가 돼 있다. 덕분에 아메리카노를 석 잔이나 마셨더니 속이 메슥거린다. 카페인 탓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녀가 퇴근하는 시간 다섯 시 오 분 전. 그녀의 교대가 오고 나는 티 내지 않고 자연스레 가방을 챙겼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버렸다.

"오늘 끝나고 기다릴 거지?"

나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표정으로 키 큰 남자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고, 그 남자도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든다. 표정을 읽게 되었다는 착각, 내 환상은 여기서 끝이 났다. 날 진정시켜주던 카페에 가득한 커피 냄새조차 내 숨을 턱턱 막아버렸다. 그제야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이 잘 닦인 출입문에 비춰 보인다. 꼴에 멋 부린다고 입은 옷들도 그 남자가 대충 입은 유니폼에 비하면 추레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녀는 그동안 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었던 내 모습이 그렇게 우습게 보일 수가 없다. 나는 그녀와 마주칠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밖을 나섰다. 때 이른 눈이 내린다. 신호가 몇 번이고 바뀌었지만 그 횡단보도를 건널 엄두가 나질 않는다. 고갤 들어 차가운 눈이 얼굴에 내려앉아도 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을 모른다.

"병신새끼."

눈이 오고 날도 추워져 사람들 사이의 빈틈은 점점 사라진다. 하지만 내 주변엔 아무도 없다. 나는 속으로 욕을 삼키다 못해 토해냈다.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끊었던 담배 한 갑을 사서 나온다. 얼어붙은 손으로 라이터를 간신히 켜고 입에 담배 한 모금을 크게 빨았다. 눈이 핑 도는 게 오랜만의 연기 탓이겠거니 했다. 어느새 발밑에는 타다 버려진 꽁초 세 개가

나뒹굴고 있다. 왜 나는 그 모습이 날 닮아 안쓰러워 보인다 생각했는지 맨손으로 주워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나의 상상 속 세계도 담뱃불로 마저 태워버렸다. 습관이란 것은 참 무섭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기계적으로 씻고 옷을 입고 또 그 카페 앞에 선다. 하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차갑게 식은 문 손잡이를 잡은 내 손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기 전에 뒤돌아섰다. 온종일 펜이 잡히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심지어 그녀가 내 이름을 기억해줄 것이란 확신조차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연연하는 이 사실이 괴롭다. 나는 패배자다.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냐. 괜찮은 사람 소개해줄까."

오랜만에 만나든, 어제 만나든 용호는 변함없다. 거친 말투와 무심한 소릴 툭툭 뱉어대지만 그 속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군대에 다녀와서도 한결같다. 항상 내가 복잡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세상 간단한 답을 내놓는다. 속 편하게 사는 놈이지만 그런 용호가 항상 부러웠다.

"됐어 인마. 어차피 그 커피 못 마시면 말도 안 나와."

용호는 내 말을 듣곤 완전 미친놈이라며 웃어버린다. 커피만 마시면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웃긴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내려준 커피만 마시면 긴장이 풀어지고 자신감도 생긴 건 사실이다. 거의 십 년을 여자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는데 그녀와의 대화는 달랐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정말 달라질 줄 알았다. 운명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쳇바퀴를 돌 뿐이었다. 잦아진 용호와의 술자리로 그렇게 고집하던 생활 규칙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은 단숨에 꺼질 뿐이다. 통면도도 않고 나갈 일이라고는 담배를 사러 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하얀 눈발 사이로 담뱃재를 휘날렸다.

마냥 시간만 죽이던 무렵 좋은 생각이 떠올라 그녀가 일하던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 둥지를 틀었다. 커피 맛은 그곳만 못하지만 안락한 느낌에 글이 줄줄 써진다. 다시 나의 루틴을 찾았다. 그 글이 완성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점 더 추워진다. 그녀가 내려준 커피 생각이 난다. 내가 미쳤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속는 셈 치고 고갤 돌려본다.

"생딸기 라떼 하나 주세요."

고갤 돌려보니 그녀가 계산대 앞에 서 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머그잔을 받아든 모습을 계속 바라보다 눈이 마주친다.

"서,서연씨?"

그녀도 여간 놀란 게 아닌듯싶다. 평소였다면 그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왜 이 먼 카페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아, 누구...?”

“그, 그, 커, 커피집.”

머저리같이 커피집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부끄럽다. 부모님도 카페란 말을 쓰시는데 커피집이란 말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아 태민 씨?”

다행히도 이름을 기억해주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추웠던 날에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은 녹는듯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테이블에 자신의 머그잔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다.

“왜 요새 안 와요? 내가 내려준 커피가 맛이 없나?”

그런 이유는 아닌데. 솔직하게 말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 나는 당황해 평소보다 어버버거리면서 간신히 이야기의 꼬릴 잡고 이어나갔다. 없는 말솜씨로 대충 둘러댔다. 그녀의 표정을 다시 읽지 못하겠다. 커피가 필요하다. 분명 그 카페의 커피 머신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커피만 생각이 난다.

“그,그런데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있어,어야 되는 거 아니,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사실 그 앞의 질문이 안 들린 탓에 뭐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튀어나온 말이긴 하지만.

“아, 그만뒀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니까 같이 일하기 불편하더라고요.”

상상도 못 할 대답을 들었다. 내심 기뻤다고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너는 내가 가까이 가기엔 너무 멀리 있는 여자니까. 한없이 추락하는 자존감에 나는 네 커피 한 잔이 절실했다. 그녀의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그녀와 이렇게 마주한다는 것이 날 더 떨리게 한다. 그녀가 짧은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났다. 나는 바보같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못했다. 어차피 내가 그녀의 번호를 영영 물어보지 못할 것을 하늘도 아는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녀와 카페에서 마주쳤다. 분명 조금만 더 길게 말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애꿎은 커피 탓을 하며 기회를 계속 다음으로 미루었다. 내게 찾아온 기회를 난 영원한 실패의 낙인으로 바꾸어버리기 직전이다.

“그런데 매일 커피집 와서 뭐 쓰세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내게 와 노트북을 빤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부끄럽게도 커피집이란 말을 썼던 것을 잊지도 않았나보다. 난 잔뜩 붉어진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그녀의 말을 얌전히 들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에게서 평소 듣지 못했던 솔직한 감정이 담긴 이야기. 예전에 주고받았던 말이라 해봤자 그녀와 관련한 사실에 관해 묻고 들었던 것인데 이런 주제는 처음이다. 사뭇 진지한 얼굴로 변하며 그녀는 나에게 꽤 솔직한 말들을 털어놓았다. 여자의 속마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법 머리를 굴려가며 아는 만큼 착실하게 대답해주었다.

“뭐,뭘 하든 자,잘 하실 것 같은데…”

그녀는 내 말을 듣고는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일순 용기를 내 물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랑은 왜 헤어지신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내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연애란 게 그런 거죠 뭐.”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내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때라도 그녀를 잡아야 했다. 머저리같이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만 보았다. 결국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따라나섰다. 그녀는 멀리 가지 않았다. 뒷모습이 작게나마 보였다. 하지만 더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골목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조금의, 아주 조금의 자신감만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다. 정신을 차리고 그녀가 일하던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다.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부탁했다. 일 초가 아쉬웠다. 다시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후회하며 떨었다. 그 뜨거운 커피를 받아든 뒤 단숨에 털어 넘기고 집 앞으로 뛰어갔다. 얼어붙은 길 탓에 넘어질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집 앞의 편의점으로 들이닥쳤다.

“마,마일드 세븐 하,하나 주세…”

말을 또 더듬는다. 내가 찾던 그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없다. 다시 한 번 말해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나는 고개를 떨군다. 커피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려준 커피라서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어보려 했던 것, 그녀의 이름 세 글자만이라도 알아보려 했던 것, 어리숙한 나조차도 한번 꿈에 안아보고 싶었던 것. 그 소박한 욕심들이 내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아도 그녀는 온데간데없다. 아는 것이라곤 나이와 이름뿐이다. 쓸데없이 커피에만 집착해 정작 나를 바꿔준단 한 명의 여자를 놓쳤다. 드디어 눈물이 나온다. 집에 가면서 처량하게 손으로 눈가를 쓸었다. 단 한 모금 빤 담배

가 끝까지 타들어간다. 오늘따라 담배 연기가 매웠다.

날이 더워지고 밤이 짧아졌다. 살도 조금은 빠져 옷 입는 맵시가 난다. 강한 햇살을 피해 그늘진 구석에서 숨은 나는 아직도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특별한 기억이 아른거린다.

“오빠 무슨 생각해?”

잠자코 생각에 잠겨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튀어나와 놀라게 해주려 크게 외친다. 나는 상당히 놀랐지만 무덤덤한 척하며 말했다.

“혜원아 왔어? 그냥 이 골목만 오면 옛날 생각이 나서.”

“응? 무슨 생각?”

나는 그 늦가을의 추억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며 좋은 인연을 만났다. 다시 그 카페, 그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셔보니 별다를 바 없는 보통의 커피다.

“왜 날도 더운데 뜨거운 거 마셔?”

나는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웃어만 보였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커피가 참 맛있다며 자기 얼굴만 한 머그잔을 들고 있는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온다. 그제야 내 여자친구 너머로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간신히 얼굴이 보일만 한 거리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이 밝다, 행복해 보인다.

호수로부터.

영어영문학과
20161210 김진화

낮은 핏물의 지평선은, 붉은 하늘과 호수 사이를 구분 짓고 있다. 낮은 음성의 천둥은 하늘을 간질인다. 그리고 귀신이 우는 듯한 하얀 고래의 울음. 그들의 울음은 이 핏빛 세상 사이를 넘실거린다.
힘줄이 울룩대는 듯 꿈틀대는 물결 아래론 하얀 고래 한 마리의 입술이 움찔거리다 사라진다. 놈의 숨에서 나오는 공기에 핏물이 진득하게 끓어오른다.

그런 하얀 고래의 숨결을 한 청년이 바라보고 있다. 그 거품을 바라보는 눈은 동공이 보이지 않는, 온전히 진한 붉은색만을 띠고 있다. 또 다른 피호수가 그의 눈에 들어있다.
여위고 파리한 얼굴 아래엔 양옆으로 고요히 긴 입매. 검붉은 곱슬머리는 뒤로 바짝 길게 땋아 뼈가 불거진 어깨선 위로 늘어뜨린 모습이다. 이내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어깨 위로 끌어 제 몸을 여민다. 몸을 여미는 그의 손엔 검붉은 색 핏줄이 선명하다.
피호수 위로 부는 진득한 바람. 녹진한 밀도의 바람이다. 스가루의 이마와 머리의 경계를 이루는 가냘픈 배냇머리가 뜨듯한 그것에 나부낀다.
'바람이 혀라면, 그것에 녹아버릴 것 같다.'라고 스가루는 느낀다.

스가루가 감각에 젖어있는 와중, 한 마리 하얀 고래가 그가 있는 뭍으로 다가온다. 그러곤 짓궂게 제 손으로 피보라를 일으켜 스가루에게 튀긴다.
스가루는 그런 고래의 갑작스러운 장난에 놀란다. 하지만 이내 아이가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듯 웃는다. 그리곤 자신의 어릴 적 버릇을 보인다. 검지와 중지를 입매에 가져다 대는 버릇, 상대에 장난에 어쩔 줄 모를 때, 부끄럼을 탈 때 스가루가 항상 하는 행동이었다. 스가루는 장난과 유머에 항상 수줍은 아이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얀 고래도 피호수에서 제 얼굴을 꺼내곤 스가루를 보고 웃는다. 하얀 고래들은 덩치가 거대하고 연륜 있는 외모를 지닌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말갛고 천진한 인상 또한 띤다.
하얀 고래가 입으로 피를 한껏 삼키더니 그것을 숨구멍으로 도로 내뿜는다. 육중한 숨소리. 인사라도 한 걸까. 그러고는 고요히 제 얼굴을 핏물 안으로 당겨 넣는다.
호수의 파장이 유연히 움직이며 호수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초현실적인 그림.

스가루는 하얀 고래가 장난삼아 튀긴 얼굴 위 핏자국을 손으로 닦는다. 그리곤 제 손바닥을 둥글게 말아 그것의 내음을 삼키어 본다. 문득 배가 고파진다, 너무나도.. 하지만 감히 무엇을 먹을 용기가 없다. 다시 죄악감에 삼켜질까?
그리고 문득, 그의 마음엔 부사가 떠오른다.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걱정이 된다. 이어 스가루는 닿을지 모르는, 또 오랫동안 닿지 못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부사에게.

안녕. 난 이제 막 탄생지에 도착했어. 모두가 나 홀로 가는 것을 막던 그곳 있지? 그래, 난 그곳에 왔어. 이곳의 호수는 우리 사람들이 마실 만한 영양가 있는 피가 아주 많아. 좋은 영양을 섭취할 만한 양질의 육질들도 많고.
생각해보면, 내겐 이상적인 세상이야. 물론 혈육들에겐 아니겠지만. 아, 그리고 전에 언급했다시피, 여긴 그림으로만 보던 하얀 고래가 아주 많아.

하얀 고래들은 그 모습이 굉장해. 각자 크기도 다양하고, 생긴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아. 울음소리마저 낯설고. 가끔은 호수 안으로 날 끌어당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 그들이 우는 소리는 호수 속에서 나는 것일 텐데, 그 소리가 어찌나 깊은지 피 바깥에 있는 내 귓가 바로 옆에 울리는 것 같아. 마치 나도 한 마리 하얀 고래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고래들의 성격은 낯가리지 않고 명랑해서 장난도 쳐줘. 근데 조금 이런 성격이 걱정도 들어. 해코지하는 이들 곁에서 가까이 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얀 고래가 그렇게 속없진 않을 거로 생각해. 그들도 나름 삶에 대한 노련미를 쌓아온 동물들이니까.

아, 요즘에 밖에 나온 내게 잘 먹고는 다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
부사. 마침 피호수에 왔으니 먹을 걸 많이 먹게 되겠다. 여긴 잔소리하는 누구도 없기도 하니깐. 집에 도착할 즈음이면 다른 사람이 되어있을지도 몰라. 그 뜻은 살이 오를 것이라는 소리겠지? 집에 돌아갔을 때 외모가 왜 이리 바뀌었냐고 하진 말아줘. 너무 웃을지도 모르잖아?

부사는 요즘에 어떤가 싶어. 잘 지내고는 있는지.

가끔 난 부사가 먹지 않을 때 걱정될 때가 많아. 어릴 때는 누가 무어라 하든 잘 먹어야 해.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말이지. 미안해. 자꾸만 신경을 건드려서. 하지만 내가 집에서 발을 뗄 때 네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나라도 의식적으로 먹는 것이 어렵고 괴롭다는 것은 아는데 자꾸 반복하게 되네. 웃기지? 다 늙은 혈육처럼 잔소리해대는 모습. 이것도 내 성격인가 봐.

어쨌든 육체란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신뢰를 줬으면 좋겠고. 열띤 호르몬 작용은 냉정하고 차가운 정신보다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신화 말이야.

- 탄생신화 中.

태초 이 세상이 어린 행성이었을 적, 그는 손톱으로 제 가슴을 긁어 자해하곤 했다. 자신이 어두운 우주에 홀로 남아있는 이유는 붉은 제 몸에서 고기 썩은 내가 나서라는, 자기혐오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그런데, 행성이 이렇게 제 몸을 해치는 와중에 한 묘한 일이 일어난다. 행성 몸이 온통 자학의 냄새로 진동하는 한편엔, 그 위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던 것이다.

그가 긁어낸 살점의 피 골짜기엔 하얀 고래가 노니기 시작했고,
그가 긁어낸 살점에선 두 손과 두 발 달린 하얀 혈육들이 여린 눈을 떴다.

그렇게 하여 행성 최초의 두 생명체이자 같은 상처서 태어난 두 형제는, 행성의 혐오와 고통 끝에 첫 숨을 트게 된다.

그런 탄생의 첫 순간, 인사를 먼저 건네고 싶었던 걸까. 하얀 혈육들보다 먼저 태어난 하얀 고래는, 제 입에 피를 한가득 담곤 형제들에게 피숨결을 뿜어주기 시작했다.

곧 그 따뜻한 것은 하얀 혈육의 머리 위,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들리는 그들의 외침.
“달콤한 비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따뜻한 것은 처음이다.”

하얀 고래와 달리 따뜻한 양수 밖으로 태어난 그들은, 처음 겪는 따스함에 반하게 된다. 그리곤 머리 위의 피를 손으로 닦아 먹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찌나 그 맛이 좋던지, 제 손가락에 묻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핥아낸다.

외로운 공허 위 처음 들리는 속삭임들. 솔직한 결핍의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포만의 소리.
행성은 이 모든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에겐 이 모든 것이 이질적이고 괴기하게만 느껴졌다.

‘나의 상처에서 포만의 행복을 느끼다니. 기괴하다. 질겁할 일이다.’

결국, 이어 행성은 이 배부른 혈육들에 낙인을 찍기로 한다. 고통을 겪는 자신을 좀먹는 것들에게 부끄러움을 새겨주고 싶었기에.

낙인찍는 방법으로, 행성은 제 몸을 다시는 보살피지 않는 것을 택한다. 상처와 피를 핥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끝으론 이러한 행성의 행동 덕에 작은 혈육들의 머리와 손위는 그 상태로 검붉은 딱지가 남게 되고 만다.

그렇게 고통의 표식을 낙인으로 찍힌 작은 피조물들은, 이후 식욕에 대한 영원한 죄악감과 굶주림에 곪아가게 된다. 삶을 살면서도 죄악스러운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된 것이다.

현재의 우리를 만든 이야기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사실 현세대의 혈육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거든. 아마 이미 오랜 시간을 걸쳐 우리 사회, 도덕, 문화, 법 사이에 스며들어버려 자연스럽게 잊혔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저,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자각 못 하는 것뿐.
하지만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모든' 뿌리는 저 이야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어찌 보면 그저, '재미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저 다 지난, 또 전부 심드렁한 신화라고는 하지만 현 문제의 근본은 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난 저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지 못해.

이런 구절 신화가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버린 만큼, 자연스러운 원초적 욕구를 제한하는 절제풍토는 우리 삶이 되어 버렸어. 특히나 식문화와 건강 문화에 있어서 말이야. 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부정하고 있잖아? 현시대에서 이러한 것이 우울증 유발률과 자해율, 자살률에 있어 얼마나 큰 이유를 차지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

또 보통 이런 심상태(우울과 피로)가 워낙 흔하다 보니 스스로들 정상이라고 여기고 삶의 본질을 영원한 굶주림과 고픔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 그리고 이런 본질을 정신만 차리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런데 말이야,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고, 절대 자신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어.
혈육들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란 건 머릿속 '생물적'인 '내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증거야. 이건 영혼의 문제도 아니고, 계산오류의 문제가 아니거든. 여러 생각의 주장들이 있겠지만 내 생각엔 이건 극히 생물학적인 문제야.

난 실은, 이렇게 생각해. 모든 것은 우리 육체와 호르몬 작용이 정해주는 거라는 거. 이성 등 우리 뇌가 2차로 하는 일들 말고 정말 근본적인 1차, 혹은 그 이전 '무'의 영역에 관한 것이야. 현 우리 혈육들은 '정신으로의 절제'와 '이성적 계산'을 이상으로 여기곤 하잖아?
육체보다 앞서려 하는 모든 언행은 자기파괴와 불행을 초래해. 애초 몸이란 것은 정신이란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적인 존재라 감히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거든. 어느 정도 계산했다 하더라도 몸의 진실 된 생각은 절대 예측 못 해.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 '몸' 이란 건 각 개체가 너무나 개성 있고 독특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몸의 '표준'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걸까 싶어. 마치 혈육들의 성격처럼. 이처럼 여러 부분을 토대로 보면, 현재 연구가 필요한 주제는 이론과 자기 의지, 정신부문이 아니야. 몸이 하는 생각을 들어볼 줄 알아야 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석을 공부해야 할 때란 말이지. 그런데도 혈육들이 육체 위에 군림하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얼까. 어째서 정신을 온전히 몸에 맡겨보지를 못할까. 무슨 이유에서 제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아는 것'에 매달릴까.

도대체 그들에게 '제한'과 '절제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들 사이의 우월감과 권력이란 뭘까. 무절제한 절제로 이루는 것들은 무엇일까. 나 또한 많은 점에 있어 이해가 부족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선 의문이 많아.

물론 슬슬 시대가 바뀌며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어. 그것도 사실 아직 소수라 아기의

걸음마 수준이지만. 아직도 우리 혈육들은 혈식과 즙식으로 식사하는데 죄악감을 느끼고, 든든하고 배부른 양으로 영양 섭취함을 게으름, 나태함으로 여기는 이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들도 그렇겠지만 이걸 상기하면 지치는 것 같아. 일상을 지내는데 1분 1초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잖아.

부사, 너는 내가 어째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직접 발 벗고 나와 있는지를 알지? 급격한 변화는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 알고 있을 거야. 의식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익숙해질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려면 시작해야 할 건 아직 '육식'은 아니야. 일단은 대체품으로부터 시작해 천천히 바꿔가야지.
내 말은, 짐승을 칼로 가르는 도축행위와 기름진 혈식, 즙식이라는 것이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금기 행위이자 극한 제한의 이유라면, 일단 첫 단계로 그것을 대신해서 풍부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물의 구근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경작을 성공시키면 돼. 그러면 다른 변명거리는 못 대겠지. 두고 봐. 먹지 않고는 못 배길 거야.

물론 현재까지는 딱 한 번 실험적으로 이것을 성사시켜 본 연구결과는 있어. 너도 한 번쯤은 소식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엔 엄청난 지탄 받은 사실도 말이지.
같은 식물학도가 봐도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어. 실험체로 쓴 식물종류에 대해 큰 사전조사 없이 그저 식용 가능한 내분비액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식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내는 게 말이 되겠어? 사실 그 식물은 구분해 놓은 것만 '식물군'이지 통각을 지니는 생물인 데다가 '발성 기관'도 가졌는데.. 대책 없이 그 발성하는 기관을 칼로 끊어놓고 '식용 식물 만들었어요-' 하면, 그게 대체 뭐란 말이야. 너무한 노릇이지. 덕분에 연구지원금도 끊길 뻔하고 여러모로 큰일 날 뻔했던 사건이었어. 겉핥기식 실적만 내보려고 아등바등. 무슨 의미야.

뭔가 부사 너에 관한 이야기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일방적 내 '토로'만을 줄줄이 내세운 것 같네. 너 말대로 난 여러 의미에서 바보야. 그 점 인정해. 그래서 말인데 하나 재밌는 걸 알려줄게. 원래 얘기하고자 한 '소소한' 이야기야. 물론 따분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겐 재밌는 것 같아.

사실은 우리 머리카락 색과 눈 색이 검붉은 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어? 타 연구실 내 친구 기억하지? 그가 얘기해주길, 현재 자기는 신학과 과학을 접목해서 재밌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고. 아마 겉으로는 피와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이 혈색이란 것이 사실은 '청색, 푸른색'이라는 색이라고 한 것 같아. 이 세상의 생물의 눈은 대기나 여러 요인에 따라 볼 수 있는 색깔이 왜곡되고, 달라지잖아? 그게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얘기해줬어. 자세한 것들은 네게 어려울 수 있으니 생략할게.
근데 그 아무도 이 '청색, 푸른색'이 무슨 색인지 알지를 못해. 보통 우리의 생눈으론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마 선대 혈육 눈 속엔 그 색을 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오랜 시간에 걸쳐 퇴보되어서 사라졌다더라.
꽤 재밌는 연구지? 난 그 친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알던 여러 색깔은 실제론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를 계기로 우리도 '청색'을 볼 수 있을지 몰라. 아무튼, 심심할 땐 가끔 내 친구 연구실에 찾아가 봐. 그곳엔 네가 좋아하는 곤충 껍질들도 아주 많으니까. 내가 봐도 근사한데 너라면 구경할 것이 많을걸. 장소는 알고 있지?

물론 가기 전에 사전약속 편지 보내 놓는 건 잊지 말고. 방문하는 건 좋지만 의도치 않은 방해는 실례잖아.

자, 이제 난 이만 이 주위를 돌아봐야겠다. 하얀 고래가 무얼 먹는 지도 관찰해보고. 주위를 조금 둘러봐도 먹을 것투성이긴 하다만, (이곳저곳 피가 넘쳐나.) 몇 가지는 하얀 고래들만이 섭취하는 낯선 것들이 많거든. 하얀 고래들이 먹을 수 있는 거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건지 몰라.

아 참,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내가 해오는 일, 혈육을 위한 것이라고 남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부사를 위한 거야.

우울하지 않고, 죄악감에 휩싸이는 일 없이 항상 웃고 건강했으면… 그랬으면 더할 행복이 없겠어.

사랑해 부사. 난 부사를 위해 살아.

마침. 부사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스가루가.“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 금일 6시까지 학생 생활 상담 센터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 지역 번호로 온 문자는 두 개의 발걸음을 학관으로 이끌었다. 상담 센터라는 푯말을 앞에 두고 선 두 명은 분위기가 사뭇 대비되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의 성별이 달라서일까. 아니다. 성별이 다른 것에서 나오는 분위기의 차이만은 아닌 듯했다. 하나뿐인 문손잡이를 두고 먼저 손을 뻗은 것은 쌍커풀이 없는 큰 눈이 인상적인 여자였다. 안으로 들어간 둘은 사무용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긴 책상의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고됐는지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 문자 받고 오신 거예요?"

"네."

어색한 기류에서 어렵게 꺼낸 질문치고 짤막한 대답으로 끝을 맺었다. 그 이후에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없었다. 그때 시계는 5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침이 11을 넘어 12로 달음질을 할 때까지 공간을 채우는 소리는 시계 소리뿐이었다. 여자는 노트에 뭔가를 적는 것에 여념이 없었고 남자는 쉴 새 없이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둘은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다. 그들의 옷차림만큼 딱 그만큼의 차이처럼 보였다. 다음 침묵을 깨는 소리는 그 둘이 아닌 그들을 이리로 모이게 한 다른 한 사람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그 뒤에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영진이 서 있었다.

"다들 빨리 왔네요. 시간을 맞춰 온다는 게 두 사람보다 늦을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시원시원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말간 웃음을 짓는 어른이라고 소담은 생각했다.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 웃음을 자신이 짓는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까지 미치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뻐근해짐을 느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영진은 그들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 다 문자를 받고 온 거죠? 제 소개부터 할게요. 나는 3년 전까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상담 센터를 차렸고 요즘은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 상담을 주로 하고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영진이에요."

간결하고 명료한 자기소개였다. 둘은 영진의 소개를 듣고 눈치를 보기에 바빴다. 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영진이 여자를 가리키며 소개해 줄것을 부탁했다. 지명을 받은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소담이라는 것, 재수를 해서 현역보다 한 살 많다는 것을 끝으로 소개를 마쳤다. 뒤에 소개를 이은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결한 소개였다. 온유라는 이름과 어울리게 서글서글한 인상이었다. 소개를 마친 세 사람의 정적을 깬 건 역시 영진이었다.

"두 분 다 세부적인 내용 없는 문자에 놀랐을 것 같아요. 본론만 얘기하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MMPI 검사에서 우울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영진의 말은 소담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상담사 한 명이 두 명의 학생을 맡아 한 학기 동안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다. 영진이 소담과 온유를 맡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모든 흐름이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변 없이 흘러가는 와중에 소담의 대답만이 이질적이었다.

"심리검사에 대한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업처럼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바까지 시간이 빠듯해서 하실 얘기 마치셨으면 전 일어나도 될까요?"

소담은 베갯잇을 흠뻑 적실만큼 시달린 후에야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깨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건 꿈속에서 있었던 자리에 여전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불 속. 네 살배기 자신이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깜깜하고 답답한 그곳. 발길질이 매서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자리가 좋지 못했다. 그 안에서 소담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금이 간 갈비뼈가 두 개, 부러진 갈비뼈가 한 개였다. 담당의는 아마 그 안에서 기절도 몇 번 했을 것이라고 엄마에게 전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 엄마에게는 그 일이 그저 매일 같은 일상에 딱 하루 특별한 일이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내게 전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꿈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건이라는 건 알지 못했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녀의 어머니는.

가뜩이나 부족한 수면시간인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 버린 것에도 소담은 화가 났다. 하지만 소담을 뒤흔드는 건 그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이 꿈이 스스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름끼치게 싫었다. 지겨울 정도로 똑같이 꾸는 같은 패턴의 악몽이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17년이 지나 21살로 자란 것은 정말 몸뚱이뿐인 모양이다. 소담은 여전히 4살이었고 아버지의 폭력에 무력했으며 감히 도망치지도 맞서지도 못했다.

"너까지 정말 왜 이러니."

엄마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와 똑같은 눈, 똑같은 말투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나도 딱 아버지만큼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일까. 어린 소담은 가만히 생각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거세지는 폭력에 못 이겨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었는데. 엄마를 망신시키겠다는 생각, 아버지를 도발하겠다는 생각은 한 치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꽉 막힌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가정 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만한 번호를 받았다. 그곳에 전화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런 심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을 뿐인데 눈앞에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니 내가 틀렸던 모양이다. 나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의 난 뭘 잘못했다고 생각한 걸까,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한 건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 나를 지키는 시도가 잘못됐고 다시는 아버지의 폭력에 나를 지키는 일 따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을까. 평소와 같은 정도의 폭력이었으면 아마 나는 경찰에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발길질에, 손찌검에 하늘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다. 왜 맞는지도 모르는 채 가해지는 폭력을 감당하는 건 더 할 수 없다고 느꼈다.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 아버지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나를 잠식했다. 그런 폭력성이 결국 나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소름이 돋고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경찰에 달려가 신고를 한 나를 보고 왜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냐는 엄마의 말에 나는 생각했다. 차라리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버지를 밀치고 칼이라도 쑤셔 넣어 죽이는 것이 나았을까. 그럼 엄마는 내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에까지 미치자 나는 변기를 붙잡고 몇 시간씩 토를 쏟아냈다. 내게 묻어난 그 사람의 폭력성을 다 토해낼 수 있을 때까지.

폭력성과 함께 내 행위에 대한 정당성도 토해버렸다. 그래서 자신은 그 어릴 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소담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였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는.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소담은 지난 주 영진의 상담 권유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을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나는 이불 속에 갇혀 있는 그 아이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그 당연한 말과 함께.

영진은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초조한 기분으로 표면에 물방울이 조금 맺힌 커피를 한 모금 홀짝였다. 점심 시간대도 아니고, 저녁 시간대도 아닌 애매한 시간대의 카페 안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그 한적함이 영진은 더 맘에 들었다.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소란한 분위기보다는 이런 한적함을 편해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진은 곧 다가올 만남에 더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담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소담에 대한 영진의 첫인상은 좋은 편이었다. 그렇기에 그녀가 가진 상처를 털고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랐다. 매번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문 위에 걸려 있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소담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래도 한 번 본 얼굴이라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게 신기했다. 두리번거리는 소담을 향해 영진은 얼른 손을 흔들었다. 소담이 카운터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지갑을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당연스레 자신의 카드를 내미는 영진을 소담이 의아하게 응시했지만 영진이 대신 돈을 내는 걸 저지하지는 않았다. 내담자가 커피 한 잔을 거절하지 않고 받은 걸 영진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오늘 자신은 소담에게 이후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자리에 앉을 둘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항상 침묵을 깬 것은 영진이 먼저였는데 이번에는 영진도 입을 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오늘 그녀의 역할은 소담이 자신의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저는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어렵게 소담의 첫 마디가 공기를 파열시켰다. 상담자로서 상담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내담자의 말이 조금도 실망스럽게 느껴지지 않는지 영진은 그저 소담을 가만히 응시하고만 있었다. 그 눈빛이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쳐다보는 그 시선이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소담의 시선은 조금 불안해보였다.

"지난번에 제 거절의 방식이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어요."

"무례하게 느끼지 않았으니 사과는 괜찮고. 상담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서 나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영진의 말처럼 그녀의 말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저 소담이 먼저 면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만 있는 것 같았다. 소담은 웃음기가 어린 영진의 말에 조금 긴장을 풀기로 했다. 무례가 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 상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대답해줬다. 이제 그녀가 말하고픈 본론을 얘기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이후 소담은 마치 대본이라도 써 온 듯 술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상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기대할만한 유일한 것도 상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끝이 보장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대라는 거 한 번 걸어보고 싶어요. 더 이상 뭔가에 휘둘리는 삶은 유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제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온유는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던 날 바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담이 상담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새로운 내담자를 배정받을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소담도 참여 의사를 밝혀 영진은 원래 팀대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학기 초라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았지만 영진이 가장 매달리고 있는 일은 소담과 온유의 상담이었다. 물론 영진의 개인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도 적지는 않았다. 하지만 직접 찾아오는 환자보다 찾아올 여유가 없어 의사가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더 집중해야 하는 환자라는 것은 그녀가 대학병원을 나오면서부터 가진 소신이었다.

바쁜 그녀의 일정을 대변하듯 항상 가지런했던 그녀의 책상은 여러 서류들로 정신이 없었다. 그 책상을 한 층 더 부산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모니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포스트잇과 빼곡한 달력 일정도 한 몫을 했다. 활동성을 고려한 반 묶음 머리는 이제 거의 머리를 푼 것인지, 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일에 열중하던 영진은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고 화들짝 놀라 머리를 재정비했다. 시곗바늘이 어느새 6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진이 입에 실핀을 물고 고무줄로 머리를 매고 있을 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는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사무용 책상에서 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먼저 상담 센터에 도착한 것은 소담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소담은 그 공간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구성된 상담센터와 모자부터 바지까지 유채색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소담의 옷차림은 도무지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 같았다. 소담이 문을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다시 한 번 열렸다. 급하게 달려온 모양인지 온유는 숨을 채 고르지도 못하고 인사부터 했다.

“죄송해요.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동아리 모임이 생각보다 지체됐어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는데요, 뭐. 소담씨가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둘 다 자리에 앉아요. 오늘 얘기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소담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유의 정돈되지 않은 숨소리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의 모습에 이내 영진의 본의를 짐작하곤 별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온유와 소담 둘 다 앉은 것을 확인하고는 영진은 준비된 말을 이었다.

“원래 저번 면담 때 다 끝마쳐야 하는 얘기였지만 우리가 그 날은 서로 경황이 없었으니까 오늘 마저 얘기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예정된 한 시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몰라요. 혹시 뒤에 일정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미리 알바 일정을 조율해 놓은 소담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을 대신했다. 온유는 뒤에 일정이 있지만 단 둘이 한 약속이 아니라, 양해를 구한다면 조금 늦게 가도 될 것이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둘의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을 지은 영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한 학기 동안 심리 상담이 진행될 거라는 건 둘 다 알 거고, 그 밖에 걸 얘기하면 우리는 상담 치료에 연극을 병행하려고 해요.”

“연극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심리 치료 분야 중에 연극 치료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분야를 활용한 심리 상담이 여러모로 두 분한테 맞을 것 같다는 게 제 소

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이 공연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심리 상담 과정에서 연극을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공연을 올려야 한다는 말에 둘 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영진만 멍하니 응시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영진만이 지금 상황을 즐겁게 여기는 듯했다.

"걱정 말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상담을 하면서 온유씨는 소담씨의 얘기를, 소담씨는 온유씨의 얘기를 듣게 되겠죠. 그리고 두 분은 서로의 독백 대사를 써 주는 거예요. 상대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될 거고, 내 상처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아직 4살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소담의 어조는 아주 담담하고 침착했다. 소담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다른 이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였다. 얘기하는 소담보다 그 얘기를 듣는 온유가 더욱 동요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다. 소담이 얘기를 하는 동안 온유는 계속 목이 타는지 계속 물을 들이켰다. 차마 소담의 말을 끊을까봐 염려되는 것인지 다 비어버린 종이컵을 채우지도 못한 채 가만히 소담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말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엄마에게만 향했던 폭력이 제가 입을 뗀 이후부터는 저에게도 미쳤어요."

"말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된 폭력이라면 꽤 오래됐겠네요.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어요?"

자신이 폭력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말을 잇던 소담이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 느껴졌다. 손에 든 종이컵을 연신 만지작거릴 뿐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한 채였다. 영진도, 온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넓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적막뿐이었다. 하얀색이 많은 그 공간은 가끔 꿈속의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지금이 유독 그랬다. 오로지 바람만이 시간이 아직 흐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건 소담이었다. 어렵게 얘기를 다시 시작한 소담은 아까 전과 달리 조금은 떨고 있었다. 전해지는 목소리에서, 자꾸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그녀의 동요가 모두에게 전해졌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날은 엄마도 집에 없었고 아버지는 유독 술을 많이 드시고 왔어요.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사오지 않았어요. 슈퍼에서 나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사실 슈퍼에는 가지도 않았으면서. 제 거짓말을 안 아버지가 그 날은 정말 죽일 것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 때 소담씨 기분은 어땠어요?"

"네?"

"자라오는 환경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내내 당해왔던 소담씨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거라면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 때 느꼈던 기분..... 기억해요?"

영진의 물음에 소담은 또 한 번 입을 다물었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그 날 느낀 기분, 감정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봤다. 그 날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었던 것 같다. 어디를 때릴지 정해놓고 가해지는 체벌이 아니었다. 그저 분풀이였고 자신의 말을 어긴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자신은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길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다. 옆구리도 두 어대, 등, 허리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던 때에 문득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했다. 나를 때리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나, 자리에 없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었나, 도망가지도 않고 맞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이었나.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때 자신은 아버지를 죽일까 진심으로 고민했다는 것이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못했으면서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꺼내들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어디를 찔러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제가 그 날 아버지를 죽일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때, 가정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번호가 있다는 걸 떠올리지 못했더라면 아마 전 아버지를 틀림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전 그 때 제가 가진 그 감정에 대해서 혐오감과 증오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결국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폭력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었으니까요."

"말도 안돼요. 부당하게 행해졌던 누나 아버님의 폭력과 누나의 분노가 어떻게 같은 선 상에 놓일 수 있나요?"

온유의 격한 반응에 소담도 영진도 놀란 눈이 되어 그를 응시했다. 온유의 눈은 그 기백에 찬 말투와 다르게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것은 소담 쪽이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은 경험이 처음이어서 낯선 것도 있지만 타인이 다른 누군가의 상황에 이렇게까지 공감해주는 경험 자체가 소담은 처음이었다. 소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도 딱 그 만큼만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봐줬으면.

소담이 큰 심경의 변화를 겪었던 초등학교 3학년, 10살의 나이는 영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닥뜨린 때이기도 했다. 그 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폭포처럼 내렸다. 영진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연신 집에 혼자 있을 아버지 생각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아버지였다. 술을 마시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고 술을 마신 날에는 영진을 붙잡고 울었다. 모자란 것 투성이인 아버지를 둔 자신에게 미안하다면서. 그런 아버지가 오늘따라 걱정이 됐다. 오늘도 도시락을 싸 주면서 달걀말이를 예쁘게 해 주지 못했다면서 미안해 한 아버지였다. 달걀말이는 엄마가 참 잘 만들던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락 반찬으로 달걀말이를 싸 주는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떠올리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 달걀말이가 오늘따라 미워보였다. 죄 없는 달걀말이를 푹푹 쑤시며 괴롭히다가 하나도 먹지 않고 버려버렸다.

점심을 먹은 후 이어지는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다. 수학은 원래 영진이 달가워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는 시간이라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따라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불안감이 영진을 휘감았다. 그 불안감을 어찌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던 차에 반가운 종소리가 울렸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영진은 부리나케 집으로 달음박질을 시작했다. 빗물이 종아리에 튀고 흙탕물이 흰 옷에 번졌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영진은 이상한 느낌에 집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는 내내 집 생각만 하던 자신이 아닌가. 왜 그런 집을 눈앞에 두고 자신은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일까. 오전 시간부터 자신을 휘감아 온 이 불안감이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정체를 들어낼 것만 같았다. 우산을 쥐고 빙빙 대문 앞만 맴돌고 있던 영진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옆집 아주머니였다. 영진의 엄마와도 왕래

가 잦았던 분이라 영진과도 많이 친한 분이었다.

"어머, 영진이 아니니? 너 우산도 썼으면서 왜 이렇게 다 젖었어?"

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에는 재잘거리며 살갑게 굴던 영진의 평소와 다른 태도에 아주머니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에 서 있는 영진에게로 걸어내려 왔다. 아주머니가 자신의 앞에 서자 영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하염없이 울면서도 자신이 왜 우는지는 알지 못했다. 다 자란 지금에 와서도 그 때 자신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영진은 알지 못했다. 그저 불안감과 두려움에 한참을 울었을 뿐이다.

"얘가 왜 이래? 영진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

"일단 들어가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너 이러다 감기 걸려. 응?"

"아줌마가 먼저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응? 너 아빠랑 싸웠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긍정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주머니는 영진을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곳에 세워놓은 뒤 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다급하게 뛰쳐나온 아주머니는 영진을 덥석 끌어안았다. 자신을 끌어안은 아주머니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말을 잇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격앙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영진의 불안감을 더했다.

"영진아, 일단 아줌마 집에 가 있자. 나중에 너희 친할아버지든 누구든 오시면 그때 다시 와. 오늘은 아줌마 집에서 자자. 응?"

"왜요? 우리 아빠 저 없으면 잠 잘 못 자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래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자신을 꽉 안고 있는 아줌마를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다. 무서워도 들어가 봐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아주머니를 뿌리친 영진은 후다닥 집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아주머니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은 영진은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안방 문부터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하는 안방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영진은 마침내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다. 아버지는 공중에 매달려 영진에게 안녕을 고하고 있었다.

학관 지하, 동아리방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서 고성이 오갔다. 고성이 들려오는 지점에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성이 있었다. 두 명의 남녀 사이에 놓인 그 남성은 둘의 갈등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우두커니 지키고 서 있었다. 한창 서로에 대해 독한 말을 쏟아내던 두 남녀의 화살은 이제 그 갈등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남성을 향했다. 그 자리에 있던 또 하나의 남성은 자리에 더 있기가 불편했는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최온유, 너 가만있지만 말고 말을 좀 해 봐. 솔직히 이 상황에서 네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냐?"

"아 누나..... 죄송해요."

"죄송해? 네가 나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지. 미안하다는 말은 너한테 농락당한 수진이한테 해야 하는 거 아냐?"

"그죠. 수진이한테도 제가 따로 사과할게요."

온유의 빠른 사과가 그저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여성은 온유

를 노려봤다. 자신의 사과에도 상대방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당황한 온유는 앞의 사람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기계처럼 죄송하다, 자신의 불찰이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다.

"야, 사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그리고 나는 승현오빠보다 네가 더 나빴다고 생각해. 수진이한테 마음이 없으면 그냥 끊어내면 되지. 걔가 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승현오빠랑 다리 놔 줄 생각을 하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너 내가 그 부탁 거절못하는 성격 때문에 언젠가 크게 상처 줄 일 있을 줄 알았어. 너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 수진이한테나, 다른 애들한테나."

한껏 자신을 몰아붙인 선배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 선택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고 말았다. 남에게 선해지고자 자신에게 가장 악해지기도 했던 자신인데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건지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

사거리 신호등 앞에 소담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온유는 소담을 먼저 발견하곤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들고 있는 온유를 발견한 소담은 작게 미소를 흘렸다. 사실 수업의 일종으로 만나는 것에 귀찮을 수도 있을 텐데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온유가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길을 건너오는 온유를 기다리며 영진이 준 표를 만지작거렸다. 소담은 첫 경험을 앞두고 설레는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이 낯설기 그지없었다.

연극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연극이나 뮤지컬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는 소담의 말에 영진이 준비해 준 표였다. 전문성 있게 연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영진이 표를 건네면서 한 말이었다. 연기에 대한 걸 배우라는 것보다는 자신과 온유 둘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건너오는 온유를 바라봤다.

"누나 일찍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알바하는 데가 이 근처라서 일찍 도착 한 거예요. 오래 안 기다렸으니까 걱정 말아요."

"누나 말 편하게 하시라니까..... 아직 저 많이 불편하세요?"

"내가 원래 말 놓는 데 좀 오래 걸려요. 노력 중이니까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줘요."

"누나가 편하다면야 전 상관없어요. 누나 편한 대로 하세요."

말간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온유를 멍하니 바라봤다. 온유의 상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만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밴 것도 누구를 대하든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 기저에 있는 것이 무언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적어도 자신만큼의 상처를 저렇게 씩씩하게 감추고 견뎌내는 온유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온유에게 전혀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소담은 온유에게 하나, 둘 배워가는 중이었다.

"우리 얼른 들어가요. 뮤지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요."

두 시간이 조금 넘는 뮤지컬을 감상하고 나왔을 때 밖은 해가 진 상태였다. 공연을 보기 전 밖의 분위기는 활기를 띠는 도심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공연의 여운이 아직 남았는지 둘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소담과 온유 모두 그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둘 다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에 그저 걷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온유였다.

"누나, 공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니다, 마냥 재밌지는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공연이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냥 웃고 떠들면서 볼 공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유의 말을 끝으로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둘은 각자에게 크게 다가온 공연의 한 장면, 한 대사를 생각하며 걸음을 계속했다. 두 사람의 생각이 길어지는 것처럼 그림자도 길어졌다. 멈춰서야 할 버스 정류장을 이미 지나쳤지만 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누구 하나 함께 걷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연스레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

"박사와 괴물 중에서 누가 악을 행한 걸까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악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온유씨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립되는 둘이 있었다면 어느 한쪽은 선,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악이 되지 않나요?"

"글쎄요. 난 둘 다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선이요?"

"네. 예전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헤겔의 비유는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에 대한 것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두 사람 다 악이 아니라고 했죠. 둘 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에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선과 최선을 다한 선이 부딪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기게 되든 둘 중에 악은 없는 거죠."

"그 헤겔이라는 사람 논리로는 갈등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악이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소담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영진과 온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그지없던 상담센터라는 장소가 몇 번 와봤다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다. 지난번 온유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소담은 온유에 대한 걱정이 일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지만 온유에 대한 소담의 인상은 호감에 가까웠다. 서글서글 웃는 웃음도 그랬고 이야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을 하지 않는 것도 맘에 들었다.

오늘의 상담은 온유의 얘기를 들을 차례였다. 지난 만남 때, 뮤지컬에 대한 감상을 말하면서 유독 동요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도 그렇고 학관에서 온유의 난처한 모습을 목격한 소담은 오늘 온유의 상담이 걱정스러웠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충 들은 것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제 잘못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본 온유는 남에게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할 만큼 큰 실수를 할 사람은 아니었기에 소담의 의아함은 더 커져가는 중이었다.

"저는 솔직히 왜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을 권유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다 괜찮거든요."

영진은 온유의 방어적인 태도에 작은 한숨을 삼켰다. 원래 내담자로는 소담과 같은 유형보다 온유의 유형이 다루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도 많이 괜찮아지셨고 너희 가족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말이지?"

"네."

"소담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온유가 지금 스스로 내린 '괜찮다'는 진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괜찮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이 느끼는 자신만의 감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지만?"

"괜찮다는 서술어에 대한 주어로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유가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들어요."

온유는 소담의 마지막 말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으로 소담을 응시했다. 지난번 집단 상담 이후로 두 번째로 이뤄진 상담인데 소담은 온유에 대해 꽤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담의 상처가 만든 그녀의 강점은 남들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통찰력이지 않을까. 영진은 다시 한번 때로는 상처가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소담은 말을 마친 후에도 할 이야기가 남은 듯 보였다. 그를 눈치 챈 영진이 계속 소담을 주시하자 소담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다음 말을 이었다.

"사실 얼마 전에 온유를 봤어요."

소담은 평소와 달리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온유는 아까부터 넋이 나간 상태였다. 아직 소담의 얘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온유는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채였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진은 그저 던져져버린 주사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을 계기로 온유의 단단한 벽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담이 말을 잇기 전에 온유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가 본 게 제가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건 제가 잘못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그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가야 할 만큼 잘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파탄에 누가 더 큰 기여를 했는지는 나중 문제고요."

"그건....."

정곡이 찔렸는지 온유는 그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영진은 전에 없이 동요하는 온유를 보며 상담을 멈춰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길지는 않았다. 살아오는 내내 품고 왔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이다. 고통 없이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영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똑바로 온유를 응시했다.

"저는 그냥 그런 갈등 상황이 싫을 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래. 갈등은 누구나 대하기 불편한 것이긴 하지.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까지 갈등을 피하려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야, 알고 있지?"

"제가 잘못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애초에 전 처음부터....."

속에서 자꾸만 터져 나오려고 하는 울음을 감추려고 애 쓰는 모습이 소담은 안쓰러웠다. 여기서 상담이 끝나기를 바라고 영진을 쳐다봤지만 영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신이 괜한 얘기를 꺼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소담은 자리를 지켰다. 그게 지난번 상담 때 자신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준 온유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에서였다.

"전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애였어요. 제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어머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을 무작정 내뱉던 온유는 영진의 반문에 정신을 다시 차린듯했다. 그리고는 스스로가 뱉은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경악은 스스로

를 향한 것인 듯 했다.

"어머니 얘기는 잘못 꺼냈어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온유의 간곡한 청이 이어졌지만 영진은 내담자의 상처를 인지하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럽다고 덮어놓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 더 심한 악취와 혐오감이 드는 외양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모든 트라우마에서 회피는 그저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진은 자신의 삶에서 몸소 깨달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유의 회피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어머니가 이혼 이후 많이 힘들어하셨니?"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모자란 제 쪽이에요. 안 그래도 힘들게 다 잊으신 어머니를 저 좋자고 다시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카페에서 소담을 기다리는 온유는 애꿎은 빨대를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 지난 번 상담 때 자신이 보인 모습이 너무 추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소담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소담이 그 날 일 이후로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돼서 약속 당일 전 날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약속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영진이 지정한 날짜에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한 시가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소담이 도착했다. 그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소담을 보며 온유는 괜히 맘 졸였던 시간이 억울하기까지 했다.

"독백 어떻게 쓸지 생각은 좀 해 봤어?"

"일단, 누나가 과거 아버지에 대해서 느꼈던 증오와 혐오를 아버지가 누나나 누나 어머님께 가한 폭력성에 일치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내용을 넣고 싶었어요."

첫 상담 때 소담의 고백이 온유에게는 충격인 모양이었다. 소담은 그런 온유의 태도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타당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것은 온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것이나, 자신은 늘 잘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자책이라는 점에서 소담의 자책과 다르지 않았다.

"누나 근데 있잖아요....."

"응?"

"전에 말했던 헤겔 얘기 말인데요.....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악인 것은 아니라는 거....."

"둘 다 자신의 신념대로 최선의 선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 말이지?"

"네. 만약에 제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필연적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켜야 한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평소 말주변이 좋은 편인 온유인데 오늘 꺼내는 말은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은 채로 내뱉어졌다. 소담은 온유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저번 상담 때. 자신이 회피했던 아니 평생을 회피해오던 문제를 직면하려는 시도임을 짐작했다. 그렇기에 두서가 없는 말을 정돈해서 듣기 위해 애썼다. 말 사이에 공백을 잠시 가진 온유는 다시 말을 맺기 시작했다. 오늘 온유는 중간에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그 갈등을 조장해도 저는 나쁜 놈이 아닐 수 있을까요?"

고시원으로 되돌아오는 소담의 걸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온유가 힘들게 꺼낸 얘기들에 대해 소담은 그 무엇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유가 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스로 나름의 해결 방법을 찾은 온유가 대견했고 할 수만 있다면 지지해주고 싶었다. 아니 나쁜 놈이 아닐 수 있냐는 온유의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담이 대답을 해 줄 수 없었던 것은 자꾸만 자신의 입장이 대입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잘못이 없다, 네가 나아지기 위한 결정은 절대 너를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목에서만 맴돌았던 건 같은 상황의 자신에게 해 주지 못한 말이어서였다. 영진이 둘에게 서로의 독백을 써 주라는 과제를 낸 건 이것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온유에게 그 말을 써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것을 깨고 나서야 가능한 것이라서?

이런 저런 생각에 뒤덮여 고시원에 도착한 소담은 건물 앞에 한 인영을 보고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심정으로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소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어떤 예고도 해주지 않은 채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소담은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의 아버지를 마주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두 달 만에 아버지를 본 딸 년 인사가 어쩐 일로 왔냐는 거냐? 네가 평생 안 올 것 같아 내가 왔다. 여기는 얘기하기 마땅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저녁 아직이니 같이 밥이나 먹자."

소담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하다못해 뭘 먹고 싶으냐에 대한 물음은 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아무런 언질 없이 통보처럼 찾아온 것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끌려가다시피 부대찌개 집에 들어가 앉았다. 술을 마시려고 작정을 하고 차를 끌고 오지 않은 건지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 주문보다 술 한 병을 먼저 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에 소담은 환멸을 느꼈다. 입맛이 없는 소담은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못마땅한 티를 숨기지 않으며 말을 꺼냈다.

"계집애가 먹는 것도 복 나가게 먹는다. 내가 네 애미랑 너랑 먹는 걸 보면 술맛이 뚝 덜어진다. 아주."

"그런 것 치고는 아버지..... 엄마랑 저랑 사는 동안 아버지 평생이 술이셨죠."

"내가 그거에 약점이 잡혀 딸 년 버르장머리 없이 지 애비를 애비처럼 대하지 않아도 참고 사는 거 아니겠냐? 다 내 죄다 싶어서."

뻔뻔하게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에 소담은 인내심이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었다. 그 부당한 폭력을 자신이 사는 내내 일삼았던 아버지는 억울해 하고 있었다. 자신으로 인해 병들어버린 자신과 엄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버지 죄죠. 평생을 바쳐도 지워지지 않을 죄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겠죠. 모르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고 어머니를 매일 마주하는 거겠죠. 저는요, 아버지. 아버지 보고 살지 않을 작정이에요. 아버지가 바뀌지 않으신다면 평생이요."

"뭐 이 년아?"

"외로우시겠죠. 외롭게 사세요.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몫이 그거라면 감당하시라고요. 저랑 엄마는 죄 지은 것도 없이 평생을 아버지 감당하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 못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소담이 흠칫 몸을 떨며 한쪽 팔로 다른 쪽을 감쌌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그녀의 몸은, 머리는 하나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폭력을 가할 때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손이 잠깐 위로 올라가려다가 멈칫하고 내려놓는 것을 소담은 똑똑히 보았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아 소담이 몸을 떨고 있을 때 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도 내가 네 애비다. 결국 너 살게 한 게 나야. 너 태어나게 해 준 게 나라고. 네가 나 아니었음 어디 살아서 네가 좋아하는 공부 할 수나 있었겠냐?"

손이 덜덜 떨리고 매스꺼움이 느껴져서 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소담은 자리를 떴다. 가게를 나와 골목 모퉁이를 지나 전봇대를 붙잡고 얼마 먹지도 못한 저녁을 다 토해냈다. 오늘 아버지와의 모든 순간을 잊으려는 듯 아주 절박하고 처연하게 나오지 않는 토가 끝나지 않을 듯이 구역질을 계속했다.

"너희 소곱창 못 먹는 거 아니지?"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누나는요?"

"저도 괜찮아요."

오늘 셋이 만난 장소는 학교 상담센터가 아니었다. 영진은 모이는 날도 아닌 날에 온유와 소담 둘을 호출했다. TV에서 소곱창 먹는 장면을 보고 불렀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했다. 한 학기 동안 매주 꼬박꼬박 진행된 상담이었다. 둘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한 상담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쉽기만 했을 리는 없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영진은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내담자들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게 격려와 응원을 해 주고 싶었다.

"한 학기 동안 어땠어? 둘 다 별로 내켜하는 수업은 아니었는데 생각만큼 별로였니? 아니면 더 나았니?"

먼저 대답을 한 건 소담이었다.

"솔직히 마냥 편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매번 진행하는 상담이 늘 새롭게 버거웠어요. 온유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제 얘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감정 소모가 심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힘든 수업에 속하지만 들은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담을 하는 과정 자체는 좋았지만 제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둘의 의견을 가만히 경청한 영진은 따라놓은 소주를 한 잔 들이켰다. 오늘 그녀는 평상시와 여러모로 달라 보였다. 풍겨오는 분위기 자체도 차분하지 않고 살짝 들떠있는 느낌이었고 옷차림도 평소 영진이 즐겨 입는 옷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한 학기동안 치마 입은 영진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기에 둘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선생님, 오늘 뭐 중요한 일 있으셨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평소랑 되게 달라서요."

"되게 예리하네? 오늘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을 둘이나 만나고 왔거든."

기분 좋은 만남을 얘기하는 것 같은 한 편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나는 말투였다. 영진의 감정이 평온하지 않은 상태임을 모두가 알았다. 술은 고작 한 잔만 마셨으니 취기가 올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오늘 영진의 기분이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그

다음 말을 이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이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자신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는 나도 다르지 않아. 난 10살 때, 내 아버지가 자살한 시신을 목격했고 꽤 오래 아버지를 원망했어. 그 원망하는 마음이 싫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가 됐지. 되게 아이러니하지?"

소담과 온유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영진의 그러한 상처를 짐작하지 못하기도 했거니와 그 고백을 하는 영진이 여전히 아파 보였기 때문이다. 담담하게 토해내는 고백이었지만 그녀의 표정, 몸짓이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진의 침착하지 못한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영진의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 영진의 상처가 생각보다 큼에 놀라고 당황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평생 스스로를 치료하는 중이야.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말해줄 수는 없어. 다만 확실한 건 상담을 통해 직면한 너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아야 다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제대로 직면할 때, 돌파구가 생겨."

영진의 말을 마지막으로 셋은 서로를 마주봤다. 소담은 온유를, 온유는 소담을, 영진은 그 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뒤로 셋은 한참을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전에 없이 서로의 옆에 서로가 있는 것이 익숙해보였다. 4개월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것을 나눈사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자리를 파하려는데 일어나려는 온유의 팔을 소담이 잡았다. 의아한 눈빛으로 온유가 소담을 내려다봤다. 소담은 마지막 남은 잔을 비우고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온유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눈빛이 닿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었음에도 정면으로 닿는 시선에 왠지 모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물어본 거 있잖아. 갈등을 조장하게 되더라도 네가 나쁜 놈이 아닐 수 있냐는 거..... 그 대답 바로 못해줘서 미안해. 그 대답은 독백으로 해줄게. 그래도 되지?"

온유는 당연하다는 듯 시원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활짝 웃는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이혼을 하기 몇 달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이 잦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온유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은 느끼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자신을 보며 가엾다고 혀를 끌끌 찼고 엄마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늦은 귀가에 유독 예민했고 휴일에 밖에 나가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 날 역시 그런 어머니를 뿌리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날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가위를 대면서까지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걸로 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때 온유는 엄마 옆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 곁을 맴돌았다. 몇 달 동안 온유에게 웃음 한 번, 말 한 번 살갑게 해 준 적 없었던 엄마가 온유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이 격해질수록 온유를 부술 것처럼 껴안았다. 아프고 숨이 막혔지만 벗어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두고 간 어머니를 자신마저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온유야, 온유는 착한 아들이지?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지?"

"응. 온유는 착한 아들 할게.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온유야. 그럼 착한 우리 온유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쓸쓸한 웃음이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 자리가 비어버린, 텅 빈 것만 같은 안방에 있었다. 여름의 공기와는 너무도 분위기가 달랐다. 창문 밖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지만 그 방

은 시리게 차가웠다. 공기가 차가운 것인지, 분위기가 차가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온유는 무서웠고 차마 '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저 침묵이 대답을 대신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고는 조금 몸짓으로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오셨다.

"그럼 온유야 엄마랑 같이 요구르트 먹자"

요구르트는 온유가 자주 먹던 간식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한동안 할머니가 챙겨주던 간식이었는데 오랜만에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소원은 너무나도 간단했고, 그 한동안이라는 시간동안 너무나도 원하던 것이었다. 온유는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요구르트를 잡았다. 어머니의 멈추지 않는 울음을 보며 알 수 없는 괴리감을 느꼈다. 온유는 요구르트를 입에 갖다 대다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은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온유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겁을 집어먹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채였다. 자신이 어머니가 말한 대로 요구르트를 마셔야 자신을 바라봐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유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요구르트를 다시 입에 가져다 댔다.

눈을 꽉 감고 요구르트를 마시려는데 퍽 소리와 함께 요구르트가 안방 바닥을 나뒹굴었다. 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리는 시선에는 온유도, 바닥을 뒹굴고 있는 요구르트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물은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흘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온유가 끌어당기자 그제서야 어머니의 시선이 온유에게 닿았다. 그리고 주저앉은 어머니는 다시 한 번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주문처럼 되뇌이기 시작했다.

"미안해. 온유야. 우리 잊어버리자. 다 잊자.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알겠지. 내 착한 아들....."

"아버지, 난 평생을 당신을 원망했어요. 때로는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당신만 없으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 같았으니까..... 미치겠는 건 당신에게 그런 분노를 쏟아내면서도 나에 대한 혐오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결국 나도 당신 피를 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당신을 제대로 미워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난 이제 알아요. 당신의 분노와 내 분노가 다르다는 걸. 물론 옳은 분노라는 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이유로 나를 괴롭히는 일, 더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과 나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자유로워지겠어요."

"난 모든 사람에게 선해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악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나를 좀먹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난 버림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들 나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왜 그 때, 나를 그렇게 내팽개쳐 놓으셨나요. 당신에게 나는 무엇이었나요. 잊으라고 하셨지만 난 묻고 싶어요. 잊지 않아야, 그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야만 나는 홀로 오롯이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대답해주세요, 어머니."

노란 깃털

인문학부
20191008 김규찬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이 완벽한 왕이 있었다.
백성 모두가 그를 닮고 싶어 하였고
왕이 즐기는 모든 것은 나라 안의 유행되었다.
물리학, 군사학, 검술, 승마 등
유행은 점점 다양해져 갔다.
왕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시장 귀퉁이에는 장님이 살았다.
그는 도움을 받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잔뜩 웅크린 그를 보며 혀를 차던 사람들을 향해
장님은 이따금 작게 중얼거렸다.
“왕은 알 수 없어”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어디로 보나 나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다.
조금이라도 왕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한 걸음이었다.
그날도 제 키만 한 책을 잔뜩 들고 걸어가는 아이를 향해
장님은 넌지시 말을 걸었다.
“아이야 너의 눈은 너무 과분하단다 어서 그 눈을 떼어 버리렴”
아이는 실소를 흘리며 대답했다
“제 눈은 아저씨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엔 과분하죠, 제 눈을 떼기 전에
아저씨 머리를 떼어버리는 건 어때요?”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장님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마을 초입에는 한 소년이 살았다.
허리를 구부려 길가의 고양이에게 온기를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다.
아이는 모든 동물을 사랑했지만, 그의 노란 카나리아만큼은 아니었다.
무거운 책을 들고 긴긴 하루를 마치면
소년은 곧장 새장으로 달려와 그의 다정한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즐겁게 지저귀는 카나리아의 노래를 듣는 것,
그것은 아이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아이는 해를 볼 수 없었다.
야간에 시작하는 수업료가 쌌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형편의 소년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수업을 듣곤 쓰러져 잠들곤 했다.
캄캄한 밤, 다시 눈을 뜨면 아이는 카나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주 어렸을 때 해님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기분 좋고 따뜻했어,
언젠가 우리같이 해님에게 인사하러 가자”

어느 날 왕의 새로운 취미는 매사냥이라는 소식이 돌자
사람들은 매를 키우기 시작했다.
아이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년의 길고 긴 군사학 수업이 끝나고
어둑어둑한 새벽길을 걸어 사랑하는 카나리아에게 달려갔을 땐
아이가 좋아하던 노랫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맑은 눈망울도, 반갑게 인사하던 부리도 만날 수 없었다.

텅 빈 새장 안에는 노란 깃털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아이가 특별한 그의 친구와 영영 이별한 날은 그런 날이었다.
왕의 모습을 닮으려 걸어가던 똑같은 날.

소년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노란 깃털을 손에 쥐고 나서 속삭였다.
“너에게 해님을, 아침을 보여줄게”
겨울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았다.
텅 빈 거리, 별들만이 아이의 외로운 걸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님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옅은 한숨을 쉬며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옷깃을 여몄다.
‘살랑’
부드러운 무엇인가가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깃털…?”
차가운 겨울바람에 새들도 몸을 숨겼을 텐데,
온기가 남아있는 깃털에 장님은 의아해했다
장님은 조심스레 깃털이 날아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툭’

아이가 눈을 뜬 것은 따스한 속이었다.
눈을 찌르며 부서지는 빛에 아이는 미간을 찡그렸지만
이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낯선 존재가 아침이라는 걸 알았다.
햇볕이 따뜻해서일까,
온기가 그리워서일까,
아이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너에게 아침을 보여주고 싶었어…. 안녕…. 안녕…. 내 친구….”
소년은 마음의 창을 열어 카나리아를 날려 보낸다….

장님은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찮은 짐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서 노오란 카나리아가 날아갔을 때는
닫혀진 그의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유난히 밝은 햇살 때문일 거야’
장님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눈물로 젖은 소년의 얼굴은 이내 놀라므로 바뀌었다
“누…. 누구세요??”
“널 데려온 사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잠시 마음이 쓰였을 뿐이지 장님은 아이에게
더 이상의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소년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열 살이 되기까지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아침인걸요,
이제 더 이상은…. 소중한 걸 잃는 게 무서워요….”
“아침은 언제나 온단다, 너는 또다시 아침을 보게 될 거야.”
“언젠가 다시 아침을 보게 될 때는 저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장님은 무언가 말을 해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
“저를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돌아갈게요.”

그렇게 아이는 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장님은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방방곡곡에는 아이를 찾는 전단이 붙었다.

햇살 좋은 개울가로 나온 어느 날 아이는 물었다.
“아저씨, 아저씨는 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장님은 말없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무슨 모양이니?”
“네모…! 아니 동그라미…! 음…. 울퉁불퉁하고 반짝반짝한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건?”
“반짝거리진 않지만 매끈하고 예뻐요”
“그럼, 여기서 어느 게 진짜 돌멩이일까?”
“전부 다 돌멩이죠”
장님은 웃음 지었다.
“맞아, 모두가 돌멩이지만 쓰임은 모두 다르지, 이 돌로는 유리를 만들 수 있단다.
하지만 이 돌은 단단한 철이 될 거라 유리는 될 수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돌이 유리되길 원한단다.

알겠니?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보려 하지 않아.
다만 옳은 것을 보려 할 뿐이지.
하지만 이 수많은 돌멩이 중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았단다.

아이는 옅게 웃음 지었다.
그리곤 장님을 따라 눈을 감아보았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장님의 집에는 수많은 군사가 둘러쌌다.
아이가 사라진 날부터 보이지 않은 장님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 때문이었다.
“아저씨!!!!!!!!!! 안돼요!!!!!”
소년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소년을 끌어안았지만
소년의 관심은 오직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장님에 있었다.

아이가 돌아온 평화로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장님이 아이에게 독초를 먹였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쁜 놈”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소년이 하는 말이라곤 장님이 하던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도 미쳐버렸다며 수군댔다.

장님의 사형이 결정되었다.
멀쩡한 아이의 눈을 멀게 하고 정신을 온전치 못하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장님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님의 사형 집행 날, 아이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왔다.
햇살이 영문도 모르고 밝게 비추는 날이었다.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보자기가 씌워진 장님이 군사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광장 안에는 묘한 흥분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장님에게 비난의 말들을
거칠게 쏟아냈다
“살인자”
“쓰레기”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를 조롱했다.
비난의 말들이 극에 달할 무렵, 어디선가
앳된 목소리가 소리쳤다.

“그만 하세요!”
소년이었다.
그는 이내 사람들을 해치고 집행장 위로 올라가 장님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당황한 듯 아이에게 내려오라 소리쳤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다
이윽고 소년은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은 소년에게도 험한 말을 퍼부었다.

소년은 개의치 않았다. 그리곤 다시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은 마치 틀에 부어진 쇳물처럼 살고 있어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제 작은 카나리아를 사랑했어요.
길고 긴 하루들을 버티고 나면 언젠가는 친구와 아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왕님이 매를 키웠을 때야 해님을 맞았어요,
그 친구를 영영 떠나보내는 작별인사로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왕님을 따라 하게 되면, 그래서 똑같아지면,
저는 더 이상 어디에 있나요?"

아이는 장님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여기 아저씨도요"

소년 부모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 그럼…!"
"네, 저는 여전히 해님을 볼 수 있어요,"
아이는 살짝 눈을 뜨며 말했다.

"저는 저를 잃어버리기 싫어요.
왕님처럼 투명한 유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 모습대로 빛나고 있잖아요,!
담긴 틀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 아직도 꽃밭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들 마음으로 퍼져나간 울림은
광장바닥 가득 꽃을 피워냈다.

아롱아롱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사람들은 한참이나
발밑을 쳐다보았다.

"아저씨, 이제 눈을 뜨세요"
아이가 작게 속삭이며 보자기를 벗겨냈다.

장님은 눈이 부신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입 모양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노란 깃털 같은 따스함이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둘 중 하나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인문학부
20191009 김동연

밤이 되었다.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어둠 속에서 서성인다. 나도 그들과 같이 집으로 가다가도 집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발걸음 한다. 딱히 어딘가를 가야 하거나 가고 싶은 건 아니다. 동네에서 벗어나진 못하지만 집 근처에선 벗어나 주변을 걷고 또 걷는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간다.

문고리를 잡는데 힘이 빠진다. 문을 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문고리만 잡고 있다가 집에 들어서면 캄캄한 거실 식탁 아래 누워있는 엄마와 켜져 있는 텔레비전 불빛과 소리들, 굳게 닫혀 있는 안방 문, 정리 되어있지 않은 바닥이 보인다. 씻고 대충 작은 방 안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누우면 열린 창문 사이로 시린 바람이 들어온다. 시리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린 것은 아니었다. 6살에 높은 언성이 오가는 부모의 다리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 갈수록 언성은 높아졌고 손이 오갔다. 끝끝내 지쳐 말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미 돌아선 마음을 이혼이라는 단어로 단정 내리게 된 건 내가 수험생활을 하던 때였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갈 곳 없어 거실 식탁 아래에 이불을 깔고 물건을 두고 지냈고 나 역시 말 한마디도 모조리 다 삼켜버리는 어두운 공간에서 묵묵히 지내왔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내 처지가 가엾고 억울하게 느껴졌다. 언제는 그들이 원망스러워 다들 잠이 든 밤사이에 숨죽여 울며 분통을 하다가도 다 의미 없게 느껴져 체념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했다. 입시에 전념하며 수험생활을 보내고 20살, 그래도 지원하던 대학에 원하는 과로 입학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일과가 끝나고 혼자가 된 밤이 되면 찾아오는 묵직한 감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대학교 내에 비어있는 강의실에서 동기들끼리 모여 마피아게임을 하게 되었다. 마피아게임은 시민을 살해하는 마피아와 시민을 살리는 의사, 마피아를 찾아내는 경찰 주로 세 역할을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민으로 구성해 낮에는 다 같이 마피아가 누구인지 의논하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사람을 마피아로 지목해 투표로 처형하고 밤에는 마피아와 경찰, 의사들이 각자의 일을 수행하며 마피아나 시민 중 한쪽만 살아남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임이다.

우리는 둥그렇게 모여 앉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 생각 없이 사회자가 마피아와 경찰, 의사를 고르기를 기다리다가 툭 하고 치는 손길에 눈을 떠보니 주위에 모여 앉아 있던 동기들이 안보이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을 보아도 시야가 온통 컴컴하게 뒤덮여 있었다. 놀란 마음에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소리만 귓가에 울려왔다.

“만약에 지금 당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둘 중 하나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거야?”

후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내 머리 속에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가득 찼다. 중학교 3학년, 그때 엄마와 나는 강압적인 아빠에 꼼짝 못했었다. 아빠 본인이 외가댁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와 내가 외가댁에 가는 것을 막아왔었고 당시 외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는 내가 병문안을 가는 것을 막았다.

결국 엄마와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떨려오는 가슴을 모른 체하며 아빠에게 병문안 가는 사실을 숨기고 외할아버지께서 계시는 병원에 갔었다. 잠깐만 뵈고 나오려 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병원 근처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셔서 뵈지 못하였고 아빠의 지금 어디에 있냐는 의심쩍은 물음이 담긴 연락에 둘러대다가

"너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나온다."

"거기 CCTV 가서 확인해 볼 거야."

등의 협박으로 결국 외할아버지 병문안에 왔다고 실토하게 되었다.

옆에서 대화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는 나에게 왜 끝까지 둘러대지 못하냐고 화를 내며 집에 돌아가라 하였고 지하철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돌아간 집에선 거짓말을 한 이유로 반성문을 썼다. 수시로 외할아버지의 수척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엄마의 원망스러움이 담긴 연락들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는 것마저 반대를 했었고 이틀 날 밤이 되어서야 겨우 갈 수 있었다.

이 일은 내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고 나를 애타게 보고 싶어 했던 외할아버지를 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다. 어떻게 되든 외할아버지 병문안을 간 날 꼭 뵈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아있었다.

나는 바로 가장 후회되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온통 컴컴하던 시야가 밝아지면서 외할아버지 병문안을 가기로 하고 엄마와 만난, 달리는 지하철 안에 내가 앉아있게 되었다. 덜컹거리며 떨리는 지하철 따라 나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 당시의 떨림에

'후회 안 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떨림이 더해져 떨려왔다.

병원에 도착했고 외할아버지께서 병원 근처 교회에 예배 보러 가셔서 늦게 돌아온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빠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둘러대지 않고 솔직하게 병문안을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당장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핸드폰 압수야."

부터 시작해서

"당장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와."

까지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 협박을 했고 여전히 무서웠지만 눈을 질끈 감고 나는 보고 가겠다고 하고 일단 끊었다. 미친 듯이 걸려오는 전화에 핸드폰 전원을 꺼 두고 외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외할아버지만 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핸드폰으로도 몇 번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얼마 안지나 엄마 핸드폰으로 114에서 아빠가 나를 가출신고 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너무 놀라 얼른 내 핸드폰을 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결국 저번과 같이 집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 날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것이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다시 찾아 드는 죄책감에 울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눈을 떠보니 대학교 내 비어 있는 마피아를 했던 그 강의실이다. 익숙한 풍경에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니 동기들끼리 또 둥그렇게 모여 앉아있다.

“마피아 뽑을 거야 눈 감아.”

사회자로 게임 진행을 맡게 된 동기가 마피아와 경찰, 의사를 고르는 시간이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뭐야, 그 때랑 똑같잖아.’

라는 생각에 그 때 일은 모두 꿈이었나 보다 하고 넘긴다. 툭 하고 치는 손길에 눈을 떠보니 나보고 마피아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는 사회자 얼굴이 보인다. 내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경찰, 의사를 고르더니

“이제 경찰 뽑는다.”

“이제 의사.”

“다 골랐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라 말하자마자 마피아인 나를 제외하고 경찰일지 의사일지 시민일지 모르는 나머지 동기들이 고개를 든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진짜 의사입니다.”

“시민이에요.”

“선량한 시민이에요.”

등등 서로 자기소개를 하다 마피아로 의심되는 동기 한 명이 지목을 받았다.

“내가 보기엔 쟤야.”

“나도. 그래 보여.”

“그냥 마피아 상이야.”

“쟤로 가자.”

“사회자, 마피아 맞나요?”

“선량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툭 하고 치는 손길에 눈을 떠보니 또 이렇다. 동기들이 안보이고 내 자리 빼고는 시야가 어둡게 뒤덮여 있다. 이번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반복하고 있자 하니 귓가에 목소리가 울려온다.

“만약에 지금 당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둘 중 하나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거야?”

질문까지 똑같으니 이상하면서도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온 거 같아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7살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였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출발할 때부터 나는 행복했다. 여행하면서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웃는 순간이 제일 가족 같았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후회되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처럼 어둡던 시야가 밝아지면서 7살의 내가 들뜬 마음으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차에 올라탄다. 여행지로 가는 동안에는 아빠가 아빠와 엄마, 나 셋이 좋아하는 노래로만 구운 CD를 틀어주면 다 같이 흥얼거리고 나는 아빠에게 여행하는 동안에 머무를 숙소가 어떤 지에 대해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상상해

본다.

가는 도중에 휴게실에 들러 엄마와 신나게 휴게실 간식거리를 사 먹고 바람 쐬다가 다시 출발한다. 맨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지쳐 있어 잠시 졸지만 여행지에 도착해 숙소에 가까워지면 눈이 말똥말똥 해진다. 숙소 도착 하자마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온 숙소가 맞나 빙 둘러보고 짐을 둔다. 여행지를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드는 허전한 마음과 외로움, 서글픔은 마음 한 자리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다. 20살의 내가 7살 때의 가족의 느낌을 그리워하고 떠올리면서 먹먹하고 눈물 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너무 슬펐다. 가장 행복하던 순간이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난다. 또 자꾸 지금 나의 가족과 7살 때의 가족을 비교하게 되었다. 복잡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져만 간다..

더 이상 숙일 수 없을 정도로 숙여진 내 고개에 이마가 책상바닥과 부딪혔다.

"아..어?"

빈 강의실이다.

"어어 야 깼다, 깼다."

옆에는 마피아 게임을 같이 하던 동기들이 보인다.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길래 자게 냅뒀어."

옆에 앉아있던 동기가 고개를 돌려 말한다.

"얼마나…?"

"너 꽤 오래 잤어. 강의 중간부터 막 졸았는데?"

"나 너희랑 마피아 게임 했는데…?"

"응? 아냐. 너 자고있었어. 쭉"

"맞아, 너 자는 동안에 심심해서 마피아 했지."

요즘 너무 피곤했나 보다. 이런 꿈도 다 꾸고.. 갑자기 꿈속의 마피아 게임에서 들었던 질문이 떠올라 동기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졌다.

"애들아, 너희는 "만약에 지금 당장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둘 중 하나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후회되는 순간. 바꿀 수 있잖아."

"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다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행복으로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후회되는 순간. 피아노로 전공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

동기들은 제각각 다른 이유로 후회되는 순간을 택하거나 행복했던 순간을 택하였다. 나도 꿈을 꾸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돌아갈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후회되는 건 고치면 되고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 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이다.

마피아 게임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진 누군가는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지만 몽중몽을 통해서 나는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바꾸려 노력해보았으나 여전히 후회되는 순간으로 남아버렸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온전히 행복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내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 때로 돌아가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한다. 나도 외할아버지 병문안을 갔을 때 내가 좀 더 처신을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결코 내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그 때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오히려 현재의 비교대상이 되어버렸다. 항상 마음속에 지금은 망가져버린 가족을 생각하면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그 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그리웠었다. 이제는 느낄 수 없는 가족의 따듯한 온기와 따듯한 대화는 지금의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 남은 집과 너무 비교 되어 내가 한없이 초라해 지고 비참해 졌다. 사실 과거는 후회와 욕심 덩어리인 것 같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고 지나간 일에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또한 지나간 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후회가 생기기도 한다. 나 역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아닐지라도 항상 후회를 하고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둔다. 하루의 끝에는 그 날 하루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

쉽게 생겨나는 후회들은, 지나간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마피아 게임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진 누군가가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가장 후회되는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아무것도 고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지금을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려 노력해볼 것이다.

아침이 밝았다.

찌질이의 사랑

인문학부
20191026 김의영

1장. 기억 저편의 기억들
그날따라 기분이 꿀꿀했던 나는 시연이에게 고민 상담을 하였다. 고민의 내용은 예솔이와의 관계이다. 예솔이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흔한 친구사이가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시연이에게 말을 하니, 시연이는 나에게 진심어린 말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였는가? 내 마음이 시연이에게 가는 시점의 시작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김의영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시간이 많이 늦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야지 시간 많이 늦었네, 오늘 내 고민 들어줘서 고마워 ~”
한 동안 많은 생각에 잠기고 시연이 와의 등하교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였지만 그럴수록 나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다 끊고 싶어졌다. 마치 세상과의 단절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그렇게 한 동안 시연이 와 연락을 끊어보았다. 일부로 읽씹 그리고 할 말 없게 만드는 답장 등을 하는 등 후회스러운 일들을 했다. 그렇게 시연이 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으며 그렇게 우리의 중학교 3학년은 끝이 났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하며 학업스트레스를 처음 겪어보며, 인생의 슬럼프 기간이라 그런 후회스러운 짓을 한 것 같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서 멘탈 또 한 흔들려서 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마치며 졸업식 까지 하였고, 평내중 동창들 중 평내고 로 간 동창들이 많아, 동창들과 평내고 졸업식을 가려고 하는데, 평내고 친구 성민이가 시연이도 평내고 라고 연락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잊고 있었던 시연이, 갑자기 시연이를 생각하니 알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연락해보는 거다.
‘야야야 나 내일 친구 졸업식 때문에 평내고 가는데 같이 사진 찍을래??’
‘아 헐 뭐야 ㅋㅋㅋㅋㅋ 그래 좋아’
‘ㅋㅋㅋㅋㅋ개 오랜만 너 몇 반이야’
‘그니깐 오랜만, 나 5반’
‘오케이 ~’
정말 심장이 미칠 듯이 빨리 뛰었고, 나는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다.
“누나 나 누나 팩 하나만 한다.”
“미친넘이 왜 갑자기 팩하고 난리냐?”
“중요한 날이야”
죽마고우 친구들인 동창들과 내일의 뒤풀이를 계획하고 나는 팩을 때놓고 침대에 누웠다.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다는 설렘 때문인지 잠이 잘 안와서 눈을 감으며 지난날의 시연이 와의 추억을 떠올려봤다.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결심을 했다.

2장. 사랑하고 싶었다.
아침이 밝았다. 죽마고우 동창들이 내 집으로 모였다. 내 집은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하다.

내 집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 나를 깨우는데 평소엔 짜증났지만 오늘만큼은 고마웠다.
“일어나 씨발람아”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는 지형이는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힘껏 걷으며 나를 깨우려고 노력중이다. 옆에 다른 얘들 또한 합세를 하여 나를 깨우려 한다.
몇 분후 죽마고우들의 노력이 성공해 내가 일어나게 됐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싶었지만, 저 녀석들은 이미 냉장고를 탈탈 뒤져 고기를 굽고 있다.
농사가 열심히 일한 농작물을 아마 메뚜기 때가 싹쓸어 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씨발련들아!!!!”
나의 고함소리에 흠칫 놀라 토끼눈을 하는 친구들, 아니 씨발롬들이다.
그래도 빨리 씻고 평내고등학교로 가야하는걸 깨닳고 고기 몇 점과 김치를 싸먹고, 화장실로 가 씻을 준비를 하며, 변기에 앉아 시연이와 카톡을 하였다.
‘일어났어?’
‘당연하지 나 이제 학교 앞이야’
‘몇시까지 갈까 나’
‘11시 까지 3-4반으로 와 ~’
‘알겠어~’
카톡을 마친 후 씻고 나와, 옷을 입은 뒤 상호가 안보여 친구들한테 묻자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미친놈을 보는 것 같이 쳐다본다.
“왜 씨발”
“병신아 상호도 오늘 졸업식이라 이따 뒤풀이 때 건대로 출발한데” 라고 지형이가 말했다.
“어으 서울로 전학 간 거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상호 졸업식 가야하는거 아니냐 성민이 개극혐인데”
“난 시연이 보러 가는데?”
“미친놈이 시연이 연락 끊은 새끼가 양심 어디갔냐 ”
그렇게 집을 나와 평내고등학교로 출발했다. 평내고등학교로 가는 길 내 고향 평내, 익숙한 길거리 이지만 오늘 하루는 다르게 보인다. 낙엽 한 장 없는 나뭇가지,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달라진 거리가 아닌 익숙한 길거리지만 오늘은 너무 설레였다. 학창시절 매일 탔던 165번 버스 그 버스를 타고 평내고등학교에 도착하니 수많은 인파 속 동네친구들도 여럿 보였다.
그렇게 졸업식이 끝이 나고 각 반에 가서 사진을 찍는 시간이 왔다. 나는 동창들과 성민이 반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지형이와 같이 시연이 반에 가서 시연이를 찾았다. 저 멀리 시연이가 보인다. 중학교 때랑 달라진 것은 안경하나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더 이뻐진 것 같다.
“지형아 시연이 왜이리 이뻐졌냐?”
“그대로인데 이새끼 콩깍지 씌어졌네 씨발”
“사진이나 제대로 찍어라~”
시연이에게 다가갔다. 시연이는 방긋 나를 보며 웃는다.
“박시연 진짜 오랜만이다.”
“김의영 진짜 갑자기 연락 하는게 어딨어, 진짜 왜 연락 안했었는데~”
“내가 좀 바쁘잖아 사진 찍자, 안지형 빨리 사진 찍어봐라”
지형이 핸드폰은 정말 화질 별루여서 시연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이폰 Xs, 역시 대단한 화질이다.
“박시연 이따 연락하고, 사진 보내놔 알겠지?”

“그래, 너 꼭 연락해라 저번처럼 연락 씹지 말고”
“당연하지 내가 ‘칼답’해줄게”
그렇게 졸업식의 사진타임까지 끝이 났고, 지형이가 알바하고 있는 중국집인 짬족에 가서 간짜장을 다 같이 먹으러 갔다.
먹으러 가는 도중 친구들과 시연이 얘기가 오갔다.
“시연이 왜케 이쁘냐 레알”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를 한심하게 본다.
“아니 이새끼는 맨날 못생긴 얘들만 좋아해. 예솔이도 진짜 못생겼는데 말이야”
“그니깐 말이야 의영아 정신 좀 차려”
나는 친구들에게 뻐큐를 한 번 날린 후 베시시 웃었다.
어느덧 지형이가 일하고 있는 짱깨집에 왔다.
“간짜장 4그릇이요 ~”
“ 어머, 어서와~~ 지형이 친구들이네 ?? 금방 갔다줄게 ^^ 음료수 마시고 싶은거 꺼내마셔~~ ^^”
짬족 사모님이 우릴 반겨준다. 조선족 사람이라 그런지 말은 어눌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인심 좋은 한국인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가 좋아서 자주 찾아가는 단골집이다.
간짜장이 나올 동안 우리는 건대에 놀러가서 뭐 하고 놀지 얘기를 하였고, 상호와 통화하여 5시까지 건대역 2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는 와중에 간짜장이 나와 맛있게 먹고,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러 간 뒤, 평내호평역에서 건대로 출발을 하였다.
하지만 건대로 출발하는 길에서 상호한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받는게 느낌이 쎄하다.
통수가 얼얼할거 같은 느낌, 이 느낌은 벗어나지 않는다.
역시, 남자들은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는다. 상호는 예상대로 절대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전화로 온갖 욕을 다 하며 상호를 빨리오게 만들었다. 약 20분 뒤에 나타난 상호를 우리는 또 온갖 욕을 하였다.
“이상호 씨발 존나 늦게와 레알 이새끼는 중학교때부터 존나 느려터지고 우리가 기껏 서울까지 왔는데, 20분이나 늦고 하여간 서울새끼들은 이래서 안돼요 안돼~ 씨이발~”
성민이가 상호에게 욕 한번 시원하게 갈기었다.
“아니 버스가 늦게오고 차도 막히고 그러는데 어떡함”
“그럼 너가 20분 더 일찍 나왔어야지^^”
“씨발 그냥 집갈게”
“상호야 농담이야 농담 ^^”
그렇게 말싸움을 하며 길을 걷다 보니 우리의 목적지 였던 ‘ 이공족발 ’ 집 앞까지 도착하였고 앞에 도착과 동시에 말싸움은 드디어 멈추었다.
족발집에 들어가 족발 보쌈 매운족발 비빔국수 소주를 주문하였고, 상호에게 시연이 얘기를 하였다.
“상호야 시연이가 너무 좋다.”
“아니 넌 왜 갑자기 시연이냐? 중학교 3학년 때 마음에도 없었으면서”
“마! 시연이는 딱 내 이상형이다 이거야~”
“이새끼 또 시작이네”
얘기를 하던 와중에 고기와 소주가 나왔고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마시는 와중에 우리들의 지난 중학교 때 얘기들과 고등학교 때 얘기들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무조건 한다는 여자얘기도 하면서 어느덧 소주를 4병 째 비우며 슬슬 장소를 옮기려고 했다.
“이제 슬슬 2차나 가자”
계산 한 후에 가게 앞으로 나와 식후를 찐하게 하였고, 2차는 OK포차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와중에 나는 시연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였고, 이따 시간이 된다면 만나기로 했다.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통화를 끝마쳤고,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또 다시 시작하였다.
“니 시연이랑 전화했냐?” 라고 친구들이 묻는 말에 나는 그저 베시시 웃음을 지었다.
“됐고 오늘은 백봉산 강냉이 머신 김의영이 쏜다 ! 마셔 마셔 먹고 뒤져 ~”
“역시 백봉산 강냉이 머신 의영이 형님 이십니다 !”
기분이 좋을 때 누구나 한번 쯤 베푼다는데 오늘은 내가 그런 날인가 보다.
술도 어느 정도 마셨겠다. 한번쯤은 내가 쏴야겠다고 평소에 생각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씨이발! 인생 존나 쓰노!!!”
“병신 병신 개병신 인생이 쓰면 쏘주는 달겠네? 표면장력! 표면장력!”
성민이의 한마디에 우리는 정성민을 오늘 죽여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성민이 소주잔에 표면장력을 실천한 뒤 원샷을 외친다. 주위 테이블이 우리를 아니꼽게 쳐다보지만 뭐 어쩌겠는가?
술집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원샷! 원샷! 원샷! 원샷!”
우리의 외침에 성민이는 원샷을 하였고, 우리는 성민이가 안주를 먹지 못하게 바로 술게임을 시작했다.
“안주먹을 시간이 없어요~ 성민이가 좋아하는 랜덤게임~ 무슨 게임 ~ 게임 스타트!”
“씨발! 고래~고래고래~ 으샤으샤으샤으샤 고래~ 고래고래~ 으샤으샤으샤으샤!”
“고래!”
“고래고래!”
“고래고래고래고래!”
“고래고래고래고래! 고래!”
“고래고래고래고래! 고래고래!”
“고래고래고래고래! 고,..고! 씨발!”
“김의영 저격게임 수고 ^^ 의영아 마셔 ~”
그렇다. 나는 고래게임을 진짜 못한다. 박치라서 그런지 이런 게임을 엄청 못하여 나를 저격하는 게임은 이런 종류의 게임이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다 보니 소주병은 어느덧 8병이 빈병이 되었고, 슬슬 취기가 올랐다. 나는 담배를 피러간다 하고 밖에 나가니 찬 바람이 나의 뺨을 스친다. 시원한 바람, 취기가 날아가는 기분이다. 머릿속 또한 시원해지는 기분이 든다. 나는 시연이 한테 전화를 걸며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이려는데 찬바람이 불며 라불이 잘 안붙어 핸드폰을 뺨과 어깨 사이에 두고 왼손으로 바람을 막아 불을 붙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는중 시연이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 박시연 ! 너 지금 뭐해?”
“나 이제 술마시려고 친구들 만났어, 너는 아직 건대야? 나 건대가고 싶다 ~”

“나 아직 건대지 ~ 그럼 나하고 건대 갈까?”
“좋아 ~! 이따 볼 수 있으면 보자 !”
“ 그래 ! 꼭 봐 ! 건대도 꼭 같이 가고 !”
통화를 끝내고. 담배를 마져 피는 와중 지형이가 나왔다. 한 대 더 태워야겠다.
“마~ 담배 하나 찔러봐라 ~”
나의 외침에 지형이는 쓰레기 같은 담배 보헴 미니 파이브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고 태운다 음 내 입술에 물렸다.
“남자는 마쎄지 마쎄 임마 !”
이 말을 한 뒤 입에 물린 담배를 지형이 한테 준 뒤 마일드 세븐 한 개비를 물고 불을 붙힌다. 또 다시 불이 잘 안붙어, 지형이가 터보 라이타로 태워주었다.
“시연이랑 건대 가기로 함”
“악! 뭐하기로 함”
“그건 몰라 안정했어, 아마 술마시지 않을까 ?”
“병신 병신”
담배를 한 개비 태운 뒤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니 친구들이 소리친다.
“입장주 ! 입장주! 입장주!”
“씨발”
글라스에 소주를 벌컥벌컥 따르는 장면을 보니 오늘 난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형이 또한 나랑 같은 생각인거 같다.
“나 김해김씨 상현파 36대손 김의영 이 술을 마셔 입장하겠소 !”
“나 순흥안씨 문성공파 30대손 안지형 이 술을 마셔 입장하겠소 !”
‘벌컥 벌컥 벌컥’
죽을 거 같은 기분이 안들고 오히려 술이 잘 넘어가고 달다. 이 느낌이면 이미 난 취한게 분명한거 같다. 오늘 시연이를 볼 수 있을까? 이따 시연이를 만나야하는 의지 하나로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씨발 오늘 끝까지 가즈아!!!!!!”
“가즈아!!!!!”
“나 오늘 집에 안들어가~ 책임져 씨발~~ 외박이야 외박!”
외박이라는 말에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외박이면 시연이 못보는데? 슬슬 이 자리를 탈출할 궁리를 한다. 외박..외박.. 안된다 시연이 봐야한다..
지형이한테 눈빛을 보내니 지형이 또 한 탈출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보낸다.
“화장실 갔다옴”
“me tooo”
지형이와 나는 같이 화장실을 가서 빨리 도망갈 궁리를 하며, 오줌을 싼다.
‘쏴아아아’ 물내려가는 소리와 동시에 나는 기발한 생각이 났다.
“야 그냥 튈래 ?”
3장. 우리의 첫 데이트?

‘이번역 이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평내호평 평내호평역입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마치 예전 물류센터를 추노한 기분이 든다. 뭔가 쾌감이 느껴지는 기분.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린다면 술집에 있는 친구들의 기분일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니

더욱 쾌감이 든다. 그와 동시에 시연이를 볼 수 있다는 상황이 겹치니 더욱 행복하다.
지형이는 집에 택시를 태워 보내고 나는 시연이가 있다는 ' 포차 갓성비 ' 로 발길을 옮겼다.
밖에서 기웃거리며 시연이를 찾는데 무리중에 가장 이쁜 시연이가 보였다.
그와 동시에 가게 삼촌이 담배 한 개비를 물며 나에게 인사한다.
"오늘은 왜 친구들이랑 안왔어 ?"
"아 ~ 안에 친구 있어서 잠깐 보러왔어요 ~"
"오~ 여자친구?"
"곧..? ㅋㅋㅋ 삼촌 저 일단 들어가볼게요 ~"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가며 시연이를 보았다. 정말 이쁘다.
"박시연! 나 왔어..!"
주위에 시연이 친구들이 나랑 시연이를 번갈아 보더니 시연이를 밖으로 내보냈다.
같이 술집에서 나오며 시연이는 비틀대더니 이내 내 옆에 붙었다.
시연이의 샴푸 냄새가 난다. 그 샴푸냄새는 나한테 계속 기억이 날 냄새가 될 거 같다.
시연이와 편의점으로 가는 도중에 내 손을 잡는다. 아마 아무이유 없이 시연이와 손 잡아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여자의 손, 부드럽고 새하얀 손, 나랑은 정반대인 손이었다. 알바를 하며 내 손은 많이 거칠어 졌다. 이런 거친 손으로 시연이 손을 잡는다는게 약간 쪽팔렸다. 그래도 시연이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내 손을 덥석 잡고 함께 편의점으로 갔다.
'띠리링'
편의점 문을 열자마자 나는 컨디션과 상쾌한을 둘 다 시연이꺼와 내꺼를 샀고, 곧바로 주변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상쾌한을 입안에 털어 놓고 컨디션을 물로 삼아 함께 목 안으로 넘겼다. 시연이와 벤치에 앉자, 시연이는 내 어깨에 기대고 손을 잡았다,
"많이 마셨어?"
내 말에 시연이는 감고 있던 눈을 뜨더니 나를 쳐다보며 눈웃음을 짓고, 대답을 한다.
"응, 너는?"
"많이 마신거 같아. 너 집 언제가야해 빨리 가야지"
시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보더니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 이내 다시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고 대답을 한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우리 좀 걸을까?"
"그래 우리 호만천 걷자"

벤치에서 일어나 우리의 발길은 호만천으로 옮겼고, 시연이는 술집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집에 간다고 말을 한 뒤 통화를 마쳤다.
호만천으로 가는 길 수많은 인파속과 수많은 차량들, 그 속에 나랑 시연이는 쌩판 모르는 사람이 보면 ' 커플 ' 인 줄 알정도로 손을 잡으며 호만천으로 유유히 길을 걷고 있었다.
뭐.. 이런 상황은 나에게 좋기만 하지 ㅎ
'촤하아아'
이 시간 호만천은 조깅하는 사람,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집으로 가는 사람 등등 여러 종류의 목적을 갖고 호만천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호만천, 내가 가끔씩 밤에 나와 조깅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연이와 단 둘이 산책을 하는 장소가 됐다. 시연이와의 산책, 우리의 첫 데이트 일까?
"호만천은 볼 때마다 이쁜거 같아."

시연이는 호만천을 좋아하나 보다. 호만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시연이의 모습을 보니, 마치 선녀를 보는 것 같다.
“너가 더 이뻐”
“뭐래 ~ ㅋㅋㅋㅋㅋㅋ”
나의 진심석인 농담에 시연이는 웃음을 지으며 내 어깨를 한 대 쳤다.
그러더니 자신이 생각보다 쌔게 때린 걸 느꼈는지 깜짝놀란 토끼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 어깨를 어루어 만져줬다.
“너 다른 남자가 너한테 해코지하려 하면 나 때린거보다 더 쌔게 때려라 ㅋㅋ”
“아니.. 이렇게 쌔게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야 괜찮아~”
시연이의 이런 모습이 엄청 귀여웠다.
만약, 시연이랑 사귀면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 오며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그렇게 호만천 한 바퀴를 걸을 동안 우리는 슬슬 취기가 풀렸고, 시간도 어느덧 많이 흘러 막차 시간이 왔다.
“이제 슬슬 가야겠네”
“응.. 이제 집 가야지”
“맞아 우리 건대 언제 갈까 ?!”
“2월,,? 설날 지나고 갈까?”
“ 그래, 좋아 ! 평호역 까지 데려다 줄게 ”
“ㅋㅋㅋㅋㅋ 고마웡”
“당연한건데 뭘”
시연이와 평내호평역으로 가서 개찰구 앞까지 배웅을 하며, 손을 흔들었다.
시연이도 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었다.

“잘가~”
“너도 빨리 집들어 가고 !”
“알겠어~ 당역접근이다. 빨리가!!”
“그래~~”
기분 좋은 하루다.
시연이가 떠난 뒤, 급 피로감이 몰려온다.
담배나 한 대 태워야지.
‘치이이익’
새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밤이라 그런지 새하얀 연기는 엄청 진하게 보였고, 그 연기는 바람을 통해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진다.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성민이 졸업식과 동시에 시연이의 졸업식, 시연이와의 사진, 친구들과 간만에 찐한 소주 타임, 추노 후 시연이와의 첫 데이트..? 첫 데이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 오늘 같은 하루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걱정 없는 하루,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날은 잘 없겠지?
담배는 어느덧 끝 발 밖에 안남았다.
‘칙 치익, 쓰읍 푸하아..’
돗대 하나가 남아, 마저 한 대를 태운다.

점점 사라지는 담뱃잎들, 그 담뱃잎들을 보며, 시연이는 내가 담배피는걸 싫어하겠지? 그러면 만약, 시연이랑 사귀게 된다면,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한다.

4장. 설레발
아침이 밝았다. 아침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게 오후 3시가 돼서 일어났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텅빈 집안의 온기 그리고 혼자만의 공허함. 나는 이런 분위기가 싫었다. 때문에, 난 집밖으로 나가기 위해 지형이 한테 전화했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왜 씨발"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는 지형이, 이 새끼는 인성을 헐값주고 팔아 먹은 모양이다.
"순댓국 먹게 나와 해장해야지"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정성민도 불러"
"알겠어 씨발련아 나오기나 해"
'나 가을타나봐~ 니가 그리워진 이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 나 가을..'

"병신아 컬러링 좀 바꿔 한 겨울이라 얼어 죽을거 같은데 아직도 가을 타나봐 냐?"
"이 새끼는 전화를 하자마자 욕을 박네, 왜 전화 "
"안지형이랑 해장해야지, 빨리 나와"
"진순대 아니면 안감"
"진순대를 왜가 걍 내가 먹는곳으로 빨리와 안지형 벌써 나옴"
사실 지형이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성민이를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남자들의 약속, 모든 남자들은 죄다 이렇게 분명하다.
"엥, 알겠다. 빨리간다"
순댓국집은 우리집에서 3분 걸리는 곳이기에 지형이와 성민이가 먼저 도착할 때 까지 나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기로 했다.
'우우우웅.. 우우우웅...'
지형이의 전화다. 아마도 순대국집에 다들 도착한 것 같다. 이제 나갈 준비를 슬슬 해야할 것 같다. 일단 전화를 받아야 겠다.
"왜"
"왜 안와 미친 새끼야, 이 새끼는 집 가깝다고 맨날 늦게 쳐와 씨발"
"정성민도 도착함?"
"그럼 도착했지 안했을까?"
"오케이 금방 간다."
반팔에 롱패딩 그리고 아디다스 츄리링 바지와 양말 마지막으로 나이키 모자를 쓴 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간 나는 엄동설한을 느낀다. 4계절 중 가장 추운 계절 겨울, 뒤지게 춥다.
"뒤지게 춥네"
추운 날씨 탓에 빠른 발걸음을 옮겼다. 빠른 발검을 탓인가, 생각보다 더 빨리 순댓국집 앞에 도착했다. 도착을 하니 성민이와 지형이는 없었다. 속았다 씨발.
"씨발새끼들"
깊은 빡침에 담배를 한 대 물었다. 이렇게 화가 날 때 피는 담배는 더욱 맛있다. 담배를 물고 한 모금을 빠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후우..’
담배를 거의 다 태울 때 쯤 서서히 나타나는 안지형과 정성민 멀리서부터 웃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의영아~ 벌써 도착했네? 웬일로 일찍 도착 했어 ~~”
“개새꺄 빨리와 !”
“알겠어~ 알겠어 ~ 빨리 가야지 ~”
우리는 순댓국집으로 들어갔고, 순댓국 3그릇을 시켰다. 순댓국,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 맛과 영양을 둘 다 잡은 영양 만점 순댓국, 나는 순댓국을 진짜 좋아한다. 팔팔 끓는 순댓국, 그 온기를 보호하는 뚝배기, 몇 개 없는 순대, 그러나 풍부한 돼지고기들, 내가 순댓국을 먹는 스타일은 고추기름 3바퀴, 다데기 한 스푼, 깍두기 국물 두 숟가락, 후춧가루 세 번, 새우젓 세 스푼 반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크게 두 스푼이다. 얼큰하고 본래의 맛을 건들지 않으며, 간이 딱 적당한 나만의 순댓국 레시피. 사실 나는 순댓국을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돼서야 먹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감자탕만 줄곧 먹었지만, 순댓국을 주위에서 하도 건하기에 먹어봤더니 내 입맛에 엄청 잘 맞는 것이다. 그때부터 순댓국을 줄곧 먹기 시작했다.
‘후릅 후르릅’
“키야.. 역시 순댓국, 맛과 영양을 둘 다 잡은 서민의 음식, 뜨끈한 국물에 뜨끈한 밥까지 완전 일석이조죠?”
“ㅋㅋㅋㅋㅋ 김의영특 맨날 순댓국 먹으면서 아재인척 함”
“인정, 김의영 이새끼 순댓국에 무슨 자부심 부림 맨날 지 방식이 대단한 줄 암”
“응 내가 순댓국 먹는 방식이 레알 사기야 너넨 같은 돈 주고 왜 맛없게 먹냐?”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은 돈 주고 왜 순댓국을 저리 맛없게 먹는지 모르겠다. 내가 먹는 방식대로 먹어보면 진짜 후회 없는 든든한 한 끼가 될 텐데 말이다. 문뜩 어제 시연이와의 일에 한 번 토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녀석들 놀라겠지? 일단은 맛있는 순댓국부터 먹고 말하기로 하고 순댓국부터 먹는다.
-10분 뒤-
뚝배기 밑바닥이 보인다. 맛있는 순댓국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의 식사가 끝나간다는 뜻이다. 이제 슬슬 입을 열어봐야겠다.
“어제 시연이랑 산책했다.”
“너랑 안지형 도망간 결과가 그거냐? 좋았어? 우리 버리고 시연이 보러 간게 그리 좋았어?”
“그럼 좋지 안좋을까? 쨋든 시연이랑 건대 가기로 했는데 설날 지나고.. 2월... 그래 ! 2월 7일날에 건대 가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하냐”
“그러면 술마셔야지 술”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단 둘이 술이라.. 시연이 이전에 여자애들과 술을 마셔봤지만, 막상 내가 좋아하는 시연이와 단 둘이 술을 마신다는게 참 느낌이 이상했다.
“일단 술은 마시는데 또 뭐해야하냐”
“영화를 봐야지 영화 임마 여자랑 데이트 처음해보냐 여자랑 데이트 필수코스 형이 알려준다. 첫 번째 영화를 본다. 두 번째 밥을 먹는다. 세 번째 술을 마신다. 네 번째 이쁜 길에서 산책을 한다. 다섯 번째 집을 데려다 준다. 오케이 ? 나 안지형 여자가 없는 날이 없다. 형 말 믿어라”

일리가 있다. 내가 느끼기에도 저건 데이트 필수코스 인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 안지형은 연애박사다. 그럼 어제 있었던 일도 안지형한테 물어보면 시연이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야 안지형 그럼 어제 내가 시연이랑 손 잡았거든? 이건 뭐냐 ?”
“아니 상황설명을 똑봐로 해야지 인문학부라는 새끼가 기승전결도 모르냐?”
“안지형 특 좆문대 합격함”
성민이의 말에 지형이는 멋쩍은 표정을 짓는다.
“이 새끼 경희대 붙었다고 부심 부리네”
“너는 사범대 통수 쳐 놓고 맨날 사범대 부심 부리잖아 ㅋㅋㅋ”
“ㅋㅋㅋㅋㅋ 그래도 좆문대는 아니지 씨발련아”
“아니 의영아 어쨌든 자세한 내막을 밝혀라”
어젯밤의 일을 지형이와 성민이에게 들려줬다. 놀란 표정인 것 같다. 어젯밤의 일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할수록, 더욱 흥미진진하게 듣는 녀석들이었다.
“씨발! 의영아 손잡으니 그리 좋더냐? 나처럼 까여라 씨발”
얼마전에 여자한테 고백하다 까인 성민이, 그런 성민이가 나에게 저주를 퍼붇는다. 그런 성민이를 뒤로 하고 연애박사 안지형의 대답을 기다린다.
“고백하면, 성공한다.”
지형이가 드디어 무거운 입을 꺼낸 말이 ‘ 고백하면, 성공한다. ’ 라니 엄청 기분이 좋아진다.
이어 지형이는 말을 이어간다.
“근데 씨발 설마 건대에서 고백할 건 아니지? 미친놈마냥 만난지 며칠도 안지났는데 고백하면 시연이가 뭐라 생각하겠냐?”
사실, 건대에서 술 마시고 고백을 하려 했다. 지형이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렸다.
“시연이가 마음이 있다면, 만난지 얼마 안지나도 고백 받아주지 안그러냐? 야, 생각을 해봐 아무 마음이 없으면 손을 왜 잡아? 씨발 안그러냐 ?”
성민이의 말이 이번엔 더욱 일리 있어 보인다. 마음이 없으면 손을 왜 잡겠는가? 역시 건대에서 술 마신다음 고백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

“히히 시연이랑 사귀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줘야지~ 시연이가 속상한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시연이를 위해 헌신할거야 히히히히”
“미친새끼”

5장. 건대에서
드디어 시연이와의 건대 데이트 날이 다가왔다.
매일매일 이날을 얼만큼 기다렸는가? 이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며, 멋쟁이가 되기 위해 동대문 두타에서 옷도 샀다. 동대문에서 산 검정색 코트, 니트 그리고 검정색 슬랙스와 라코스테 흰색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 향수를 뿌렸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여보세요?”
“어디야? 나 평내호평역이야”
“나 이제 평내호평역 거의 다와가 65번 버스 도착할거야”
“알겠어”

시연이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 한 개피를 태우려고 코트 주머니를 뒤적거리지만 없었다.
생각을 해보니 오늘 시연이 데이트 때문에 담배를 안가지고 온 것이었다. 시연이는 내가 담배를 피는 것을 모르고, 담배 냄새를 분명히 싫어 할 것이다. 오늘 하루 강제 금연이지만 그렇게 기분 안 좋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
“시연이가 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구만 !”
‘터억’
“혼자서 뭘 중얼거려? 빨리 가자 열차 금방오겠네 !”
“어..! 그..그래!”
깜짝 놀랐다. 내가 한 말을 듣지는 않은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는 개찰구를 지나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뒤 스크린 도어 앞에 멈춘 뒤 타이밍 맞게 오는 상봉행 열차를 탔다.
덜컹거리는 열차 속 가지가색의 냄새, 큰 소리로 떠드는 노인네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나와 시연이는 그 사람들 속에 서로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며, 지루하지 않은 상봉행 열차를 타고 있다.
“영화 극한직업 볼래?”
“나 영화 잘 안봐, 마지막으로 본 게 럭키였는데 ㅋㅋㅋㅋ”
“뭐냐, 영화 안 좋아했어? 극한직업 재밌데... 보고싶다...”
“많이 재밌데? 의영이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특별히 내가 봐줄게”
“엄청 기대된다!”

일단, 연애박사 지형이가 알려준 첫 번째 데이트 코스인 ‘ 영화관 ’ 은 성공한 것 같다.
열차는 서서히 상봉에 도착하였고, 우리는 7호선으로 환승을 하여 건대입구에 내려, CGV로 발길을 옮겼다. 싸늘한 2월의 바람, 한국지리 시간 때 배운 도시열섬현상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매서운 한파가 불었고, 우리는 재빨리 CGV에 도착하고, ‘ 극한직업 ’을 예매를 한 뒤, 좌석에 앉아 광고를 보며 영화가 나오길 기다렸다.
‘빰... 빰 빰’
조명이 꺼진 뒤, CJ엔터테이먼트 오프닝이 나오며 ‘ 극한직업 ’ 의 시작을 알린다.
극한직업은 매 순간순간 웃긴 장면이 나오는 코믹 영화이다. 특히, 이하늬와 진성규의 캐릭터들이 매 순간 코믹스러웠으며, 나와 시연이를 포함한 모든 관객들이 웃고 즐거워했다. 시연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 괜시리 내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연애박사 지형이가 알려준 2단계 밥먹기를 건너뛰고, 3단계 작전 술마시러 갔다. 2단계를 건너 뛴 이유는 시연이의 통금 시간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간 ‘ OK포차 ’ 로 발길을 옮겼고, 민증 검사를 한 뒤, 어묵탕과 내가 좋아하는 참이슬 후레쉬를 시키고 어묵탕이 나올 때 까지 수다를 떨었다.
“아니, 그때 참 웃겼단 말이야 ㅋㅋㅋㅋㅋ”
“그러게 말이야 그땐 그게 뭐가 웃겼다고 그리 재밌던지”
“야, 나 근데 귀 뚫어서 술 많이 마시면 안돼”
“어 그러면 내가 너 한잔 마실 동안 두잔씩 마실게”
“ㅋㅋㅋㅋ 무리하지마 나 술 잘마시니깐”
“백봉산 강냉이 머신 김의영 절대 취하지 않는다!”
시연이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하니 어느덧 어묵탕이 나오고 우리는 소주를 한잔 두잔 세

잔을 마시며, 서서히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술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셔 취할 것 같았다. 소주병은 어느덧 4병이 넘어섰고 시간은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시연아 내가 할 말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건 아닌 것 같아.”
“ 뭔데, 말해봐~~ ”
“안돼 안돼 이거 말하면 안될 것 같아.”
“오늘 안에 꼭 말해줘야해 알겠지?”
“몰라몰라... 나 화장실 좀 들릴게”
“알겠어~~”
남자화장실은 지하에 있어 계단을 터덜터덜 걸으며 내려간다. 소변기 앞에 서서 머리를 화장실 벽에 박으며 오줌을 싼다. 얼굴을 어루어 만지니 뜨거운 열기가 내 손을 녹인다. 내 손이 차가운 편은 아닌데, 아마 내 얼굴이 더 뜨거워서 그렇게 느껴진 모양이다.
이 느낌, 내가 취했다는게 딱 느껴진다. 산책을 한다면 괜찮아 질 것 같다. 건대에 놀러왔으면,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호수 한 바퀴를 돌아야하는게 정석이다. 시연이와 단둘이 건대 캠퍼스를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우리 이제 슬슬 나가볼까?”
“의영이 너 취했네~”
“아닌데? 아닌데? 그냥 건대에 왔으면 건대 캠퍼스 한번 걸어야지”
“오, 좋다! 건대 캠퍼스 이쁠거 같아”
“너처럼? 앜!”
“뭐래 ㅎㅎㅎ”
OK포차에서 계산을 한 뒤 우리는 건대 캠퍼스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는 도중에 내가 무슨 용기가 또 났는지 손을 잡자고 했다. 시연이는 흔쾌히 허락을 하며, 우리는 서울에 데이트를 하러온 남부럽지 않은 커플처럼 손을 잡으며 건대 캠퍼스로 갔다.
건대 캠퍼스에 도착을 하니 이쁜 광경이 펼쳐진다. 휑한 나뭇가지들 그러나 건물의 조명들이 나뭇가지를 밝혀주니 운치 있는 나뭇가지가 되었고, 가로등의 잔잔한 불빛은 주변을 무드있게 밝혀준다. 그리고 캠퍼스 안에는 수많은 커플들이 손을 잡던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나와 시연이는 건대 캠퍼스의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며 손을 잡고 천천히 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너 계속 말 안할거야?”
“뭘..?”
“아니, 아까 술집에서 나한테 할 말 있다며”
“아... 그게 그러니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
“너 이제 통금시간 얼마 안남지 않았어?”
“어? 그러게 이제 지하철 타러가자”
우리는 건대입구역으로 발길을 옮겼고, 열차를 탑승하니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시간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든 모두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위해 열차를 타다보니 사람들 모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랑 시연이도 마찬가지만 말이다.
열차 안에서도 손을 잡으며 우리는 상봉에 도착해 경춘선으로 환승을 하여 자리에 앉았다.
나는 술에 취해 시연이 손을 잡고 시연이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시연이는 그런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평내호평역에 도착할 때 까지 날 기대게 했다.

‘이번역은 평내호평 평내호평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왼쪽, 왼쪽입니다.’
시연이가 날 깨운 뒤 같이 평내호평역에서 내렸다. 시연이는 마석에 사는데 왜 평내호평역에 내리냐니깐 날 집에 바래다준다고 한다. 내가 시연이를 집에 바래다줘야하는데 오히려 시연이가 날 집에 바래다준다니 쪽팔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렇게 평내호평역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우리집은 생각보다 더 금방 도착했다.

“아니 내가 너 데려다 줘야하는데 오히려 너가 날 데려다 주니깐 하...”
“뭐 어때 다음에 너가 나 데려다 주면 되지, 그나저나 아까 술집에서 얘기 못한거 이제 하지 그래?”
“그니깐.. 내가 너 관심 있는거 같아”
“어?! 진짜? ㅎㅎㅎㅎ 고마워 ~~”
“어.. 그래 잘가고 조심해서 집가!”
“그래 알겠어~”
고백을 한 거 같은데 확답을 못들었다. 이게 뭔 좆같은 상황인가? 내가 까인건지 아니면 받아줬는지 참 에매한 상황인 것이다. 집에 도착한 나는 연애박사 안지형한테 전화를 걸어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 물어보니 일단 나오라는 것이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새끼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존나 힘든데 나오라 마라야, 그래도 일단 급한 사람은 나니깐 만나기로 했다.
“아니 씨발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뭘 만나서야”
“병신아 니 취해서 뭐라 말하는지 못알아 듣겠어 씨발”
“아니 쨋든 연애박사가 볼 땐 뭐인거 같음?”
“아니 근데 박시연 걘 뭔데 손을 잡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냐? 내가 볼 때는 존나 확실치가 않아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헤어지면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야 그냥 물어봐 아니면 너가 다시 고백을 하던가”
“아니, 하 다시 할 용기가 안나는데....”
“그럼 그냥 이도저도 아닌 사이지 뭐, 근데 내가 볼 땐 니 개취해서 걔가 걍 너가 취해서 한 말인 줄 알거 같은데”
“하... 나 간다”
“병신아 컨디션 하나 사줄게 이거 마시고 가”
“이새끼 웬일이냐 ?”

6장. 다시 한번
“마셔라! 마셔라! 씨발 마셔라!”
2월 10일 내 생일이 왔다. 세 번째 친구무리들과 마시니 정말 힘들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문과친구들 여러 무리들이 있기에 다들 따로따로 생일파티를 하고 매 순간순간 생일주를 마시니 죽을 것만 같았다.
‘꿀꺽 꿀꺽 꿀꺽’
글라스에 가득담긴 생일주, 소주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튀김도 들어있고 캐찹도 섞은 좆같은 생일주였다.
“니들이 친구냐? 씨발새끼들, 너네 만나기 전에는 그나마 글라스에 소주만 있었는데 니들은 미친새끼들이야”
“걔넨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래 병신아 우리같이 해줘야지 진정한 친구지”

“맞아 씨발 의영아 걔들 손절때려라 우리가 진정한 친구다”
“닥쳐 미친새끼들아 머리 깨질거같네”
마지막 세 번째 무리들과 술을 마시니 필름이 끊겼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4시 세 번째 무리 친구들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 내가 떡실신 돼서 10명한테 들려가고 있었다.
아직도 술이 안깨서 그런지 오늘따라 유난히 시연이가 보고 싶었다. 2.7 건대 사건 이후 시연이는 카톡이 뜸해졌고, 카톡을 하면 시연이가 눈썹문신한 사진을 보내주던가, 자기 사진을 몇 개 보내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런 시연이와의 카톡방에 내가 장문의 고백을 보내고 만 것이다.
하루종일 시연이의 대답은 없었다. 대화방의 1은 계속 없어질 생각을 안하고 나의 애타는 마음은 계속 타고있었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며 병신이라고 하고 놀려대며, 그냥 포기하라고 한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밤 10시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카톡!’
알람이 울렸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봤는데 시연이였다.
‘나 좋다고 해준건 고마워 근데 난 너를 친구이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어 미안해. 내 유일한 남사친이 너였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친하게 지낼수 있게 돼서 좋았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지금 좀 아쉽다. 예전처럼 친하게 못지낼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건대 갔을 때 재밌었어’
씨발, 눈물이 난다.
고백해서 까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걸까? 아니면 내가 시연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런걸까? 그래, 시연이와의 관계, 나는 그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어졌다.
‘그러게 많이 아쉽다. 박시연 그래도 우리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계속 지내고 싶어, 나는 우리 평호역에서 처음에 어색했지만 계속 있어보니, 안 어색했잖아. 우리 대학가서도 계속 남사친 여사친 관계로 지내자.’
‘그래그래 ㅎ’
‘그래 잘자고 ~’
‘알겠어~’
2019년 2월10일. 대학교 첫 입학 년도이자 내가 성인이 돼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다.
이날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확실하게 까였다.
나는 이 날을 잊지 못할 것 같다.

7장. 미련인가?
‘카톡!’
시연이한테 카톡이 드디어 왔다. 며칠만인가? 아니, 몇 십일 만인가?
‘수강신청 잘했어?’
‘아니.. 나 10시 반에 일어나서 망했어. 필수전공 하나도 신청 못했어’
‘헐 빨리 일어났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드랍한거 주워 먹어야지 어쩌겠어’
‘꼭 성공해 !’
시연이와의 오랜만에 카톡, 엄청 설레인 시간이였다. 그런 설레임은 금방 불쏘시개처럼 식었다. 나는 한림대학교에 입학을 한 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흔히 불리는 ‘ 아싸 ’가 됐다. 그래도 동아리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한림대에 많이 입학을 해서 심심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시연이와의 만남이 잦은 것이었다.
공강시간 시연이와 밥을 먹던가, 가끔씩 춘천역까지 택시를 타던가 걸어갔다.
나름 대학생이 되어서 시연이와 잘 지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마음 한 칸엔 시연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던 것 같다.
그러나 학기 초반에나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고, 시연이 친구들이 공강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을때만 나한테 카톡으로 밥 먹자고 연락만 오는게 전부가 되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내가 걸 때면 시연이는 카톡을 ' 안읽씹 '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알바하고 있는 와중에 시연이에게 연락이 왔다.
'카톡!'
'나 호평에서 지금 술 마시는중 ㅎ 너 일 언제 끝나?'
'나 10시 반 정도, 너 집가야지 통금있잖아.'
'아직 괜찮아 그래도 호평이라 나 진짜 괜찮아'
'적당히 마셔라'
'그래그래 야 너 알바 끝나면 안에 들어와'
'그래 알겠어'
시연이와 오랜만에 호평에서 만나기로 했다. 알바가 끝나자 마자 택시를 타고 ' 포차천국 ' 으로 빨리 갔다. 시연이가 있는 테이블로 가니 시연이 고등학교때 여자친구들이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껴서 술한잔 하게 됐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들이 집에 가야한다며 떠났고, 시연이와 나랑 둘이 남게 됐다.
"적당히 마셔야지 너 왜이렇게 많이 마셨어"
"그러게.. 마시다 보니 이렇게 많이 마셨네"
"나 너 옆에 앉아도 돼?"
"그럼 당연하지"
시연이 옆에 앉아 술잔을 한 두번 기우니 시연이가 많이 취해 내 어깨에 기대어 손을잡고 팔짱을 꼈다. 시연이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게 얼마만인가, 손을 잡은게 얼마만인가. 나는 내 마음한 켠에 있던 미련이 다시 올라 온 것 같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있으니 시연이가 술이 조금 깼는지 저거 술 남은거 다 마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괜찮다고 안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 흘렀을까? 시연이가 이제 나가자고 했다. 택시정류장까지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동안 건대에서 손을 잡았던게 계속 생각이 났다. 택시를 탄 뒤, 마석으로 택시를 출발시키고 시연이 집 앞에 도착해 시연이를 미련없이 보냈다. 그리고 난, 택시를 타고 다시 호평으로 갔다.
마음이 참 복잡했다.

8장. 이젠, 안녕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시연이에게 오랜만에 카톡이 왔다.
'카톡!'
'밥먹을래 ?'
'그래 알겠어 이따 공강시간때 봐'
시연이와 오랜만에 밥을 먹는다. 그 날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던 것 같다.
시연이는 나한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너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난 아직 생각이 없어, 너는?”
“난 생겼어.”
좇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거에.
“아 진짜? 어쩌다가 사겼는데?”
“나 알바하는 곳에서 만났어”
“착해? 너한테 잘해줘?”
“응”
“오래가”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또한 침묵 속이었다.
“수업 잘 듣고 잘가~”
“그래 너도 잘 듣고!”
수업을 듣는 도중에 생각에 잠겼다.
평내고등학교 졸업식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장면들, 그 장면들 속에 나는 글귀를 적어본다.
내가 널 좋아했던건 너의 그 웃는 모습과 남들이 볼 때 배울점이 많은 행동이었어.
너와 처음으로 술을 마시던날 내가 취해서 고백했던거 같아.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연락도 안했었지.
나는 많이 후회했어 너한테 고백했던게, 만약 고백을 안하고 계속 썸타던 시절이 계속되었다면 어땟을까?
그러던 와중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었어, 아무래도 같은 대학으로 입학했었으니깐 그리고
학기초에는 아무래도 다른사람과 어색하니 나에게 연락했었겠지.
나는 그런 연락도 엄청 반가왔어,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했지 너한테 연락이왔다고.
그런데 그 연락 또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나는 안타까웠어.
그런데 너가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는 나도 알 것 같아, 너가 할 게 없을 때 와 너가 주위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만 연락한다는 것 , 난 그게 너무 슬픈것 같아.
저번에 술집에서 나 부르고 너 친구들이 집으로 갔을때 취해서 나한테 기대고 내 팔에 팔짱끼고 내 손 잡은거 기억이 날 까 모르겠다.
나 그때 엄청 설랬었어.
그런데 있지, 그 와중에 나는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알아?
내가 그때 고백만 안했더라면 평소에도 이렇게 만나서 술한잔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날 이후로도 어김없이 연락이 없는 널 보면
정말 나는 너가 부르면 오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나 너 안 좋아할래.

참을 수 없는

인문학부
20191031 김준원

“끄응... 흐극!...하아... 시발...” 은아는 오늘도 변비로 고생 중이다.
오늘은 은아가 짝사랑하는 희상이와 둘이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묵은 친구를 배에서 깨끗하게 꺼내기 위해 변비약을 먹는다. 그리고 화장을 하며 장의 신호를 기다리다가 자랑을 하려고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둘은 은아와 희상이의 연애를 위해 작전을 계획하며 행복 회로에 놓여있다. 그런데 너무 여유를 부리는 바람에 약속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은아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수리적 사고를 사용해 나름의 시간 계산을 했더니 지금 출발하더라도 약속에 늦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아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집 앞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택시기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은아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식당으로 가주세요.”(여기서 **식당은 꽤나 유명한 맛집이라 이름만 대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 은아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챘다. 바로 아랫배가 끓기 시작한 것이다. 은아는 자신의 배를 짓누르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어 조금이라도 해방시키고자 했다. 그런 은아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은아는 무사히 목적지에 하차했다. 멋지게 꾸민 상희가 은아를 기다리고 밖에서 맞이한다.
상희가 말했다. “은아야! 여기야!”
은아가 말했다. “상희야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상희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날도 추운데 빨리 들어가자”
음식을 주문한 은아는 상희에게 화장을 고치고 온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가서 세상 밖으로 나올 뻔했던 아이를 무사히 해결했다. 은아는 한시름 놓았다. 그렇게 화장을 고치고 재정비를 마친 뒤 상희에게로 향했다.
상희가 말했다 “왔어? 밥 나왔어, 얼른 먹고 가자, 오늘은 할 게 많아”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은아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은아의 표정을 본 상희가 마치 자기도 느낀 듯이 말했다.
“맛이 이상하지 않아?”
***그들이 먹은 음식의 재료 중 하나가 상한 것이었다.
상희는 확실히 하고자 식당의 사장님을 불렀고 사장님은 자신의 불찰을 반성하며 음식값을 한 불했으며 사과를 했다.
자신이 계획한 일정을 이행하기 위해 상희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짐을 챙겨 나왔다.
그렇게 둘은 식당에서 나온 뒤 상희가 은아를 달래듯이 말했다. “배부르게 먹지 못했지만 놀이 공원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서둘러서 가자, 응?”
은아가 애써 괜찮다는 말투로 말했다. “알겠어 대신 들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렇게 둘은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식사를 하고 나왔지만, 상희가 계획한 일정에 따르기 위해 은아는 배고픔을 참고 그들의 계획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랜드’로 향했다.

입장권이 꽤 비쌌지만 상희는 은아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자유 이용권을 구매한다. 은아와 상희는 들뜬 마음으로 입장한다.
제일 먼저 둘은 머리띠를 구입하고 인증샷을 찍었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 아침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았다. 둘은 자신들이 곧 탈 놀이기구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꺄아아악"
"어떡해 저거 많이 무서운가봐"
"괜찮아, 내가 있잖어~"
"너무 긴장된다....."
둘은 꽤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드디어 앞에 몇 팀이 안남은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은아는 쎄한 기분을 느꼈다. 이내 배에 묵직한 녀석이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은아는 자신이 줄을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상희에게 화장실을 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직은 부끄러웠기 때문에 가만히 참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놀이기구를 탑승하게 되었다. 긴장감에 은아는 걱정을 했다. 바로 놀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짜릿했다. 위험하다. 은아의 창백해지고 예쁘게 한 화장을 뚫고 다크 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은아는 옆에 있는 상희가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애써 웃지만 급박한 순간에서 나오는 표정을 숨기기 힘들다. 다른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 놀이기구가 끝난 후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생각만해도 행복했다. 그토록 좋아하는 상희와의 데이트였고 오늘 결판을 낼 결심이 선 것이었다. 다른 생각을 하니 은아는 괜찮아졌고 무사히 놀이기구에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상희는 놀이기구를 타는 내내 은아의 얼굴을 보고 은아가 놀이기구를 많이 무서워하는 줄 안다. 상희는 다음에 탈 놀이기구들 중에서 덜 무서운 것으로 골라내 결정했다.
놀이기구에서 내린 은아와 상희는 배가 고파서 음식점에 갔다. 이전에 식당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은아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메뉴를 고르고 은아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상희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올게"
"어 그래 천천히 와 어차피 음식도 나오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사람이 많아서"
은아는 뱃 속의 아이와 2차전을 치루었다.
"아.....변비약을 먹는게 아이었어.....사고다 사고....."
은아는 곧 다시 올 것이라고 느껴지는 3차전 생각에 걱정을 안고, 상희에게로 향한다.
그렇게 둘은 식사를 하고 다음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
다음은 회전목마다. 둘은 머리띠를 사고 적당히 어두워진 시간에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뒤에 있는 회전목마를 탔다.
이 다음은 디스코 팡팡, 은아는 자신이 먹은 변비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탑승한다. 기구를 운행하는 스태프는 장난이 짓궂은 것으로 유명하다. 노래가 시작되었고, 은아의 뱃소게서도 마치 헤비 메탈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은아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스다.....음악소리에 묻혀서 잘만 뀌면 안들릴 수 있어....."
음악 소리에 맞춰 돌아가는 기구. 이름처럼 팡팡 튀는 것 때문에 은아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 마침 상희 쪽으로 돌아가는 기구. 덕분에 방귀를 뀌어도 상희가 냄새를 못맡을 것이다. 은아는 이내 음악소리에 맞춰 방귀를 뀌었다.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즐기는 은아를 보고 상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

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노을이 지는 시간이 되었다. 둘은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벤치에 아무말 없이 앉아있었다. 은아는 고백을 하기 좋은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정적을 깨고 상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재밌었어”
“응...나도”
은아가 갑자기 용기를 얻어 말을 꺼냈다. 때가 된 것이다.
“상희야...”
그런데 상희가 말을 끊고 선수를 친다.
“은아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은아는 깜짝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 이어서 상희가 여태껏 좋아하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은아는 당연히 좋다고 말했고 둘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했다. 둘은 시간이 늦어져 헤어질 때가 되었고 작별인사를 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은아는 집으로 가다가 자신이 상희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설레어 하던 중 아직 변비약의 효력이 다 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다행히 방귀인 것 같아서 방귀를 뀌려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참기 힘들었던 가스를 방출했다.
“푸드득푸드득 푸쉬이이...”
그런데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뒤에서 은아를 껴안았다. 바로 상희였다. 상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은아 또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전원 버튼을 누른 듯 정적이 흘렀다. 상희는 이제 막 사귀게 되었는데 은아를 혼자 집에 보내기엔 아쉬웠고 데려다 주려고 뒤따라서 가다가 은아가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포옹을 한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상희는 은아에게 콩깎지가 씌어있었고 은아의 모든 것이 귀여워 보이고, 반전매력이라고 느낀다. 은아는 창피함에 얼굴이 상기되지만 상희가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실에 모든 머리가 멍해진다. 그렇게 둘이 길을 가다가 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둘의 사이에는 핑크빛의 기류가 흐른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은아는 갑자기 배를 누가 때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핵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길을 걷다가 별 방법을 동원했지만 도저히 힘든 고비가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은아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상희는 은아에 발걸음에 자신도 모르게 맞추게 된다.
그렇게 10분 걸릴 거리를 단 5분만에 도착했고 은아는 식은 땀이 온몸을 뒤덮었다. 상희는 은아를 집에 들여보내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아는 애써 웃으며 상희를 달래어 보내고 문을 닫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헐레벌떡 화장실로 향했다. 들어가서 바지를 벗자마자 은아는 변기에 앉았고 엄청난 것들을 방출했다. 마치 소리는 무언가가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은아는 상희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것을 느끼는 순간, 은아는 깨달았다.
“아.....시발.....변기 뚜껑.....”

인연

인문학부
20191074 이중원

-악몽

‘쿵!’

“크윽... 무슨 일입니까?”

“시야가 흐려져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와 충돌한 것 같다! 일단 승객들 진정시키고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모두 대피시켜!”

“여기에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내 걱정은 나중에 하고 어서 움직여!”

“...알겠습니다.”

“헉!”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깬다.

“젠장... 이번에도 악몽이군...”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맡에 놓인 명부를 확인한다.

‘장서희 女 1985년생 2019년 7월 29일 22시 6분 사인(死因) 교통사고사.’

“29일이면 3일 뒤에 죽는 건가.”

망자의 정보와 사인(死因) 위에 빨갛게 인연(因緣)이라는 글자와 4라는 숫자가 적혀있다.

“어느덧 이 인연도 넷 밖에 남지 않았군... 벌써 412명의 죽음에 관여한 건가...”

-능력

나는 저승사자다. 망자를 저승에 인도하기만 하는 저승사자가 왜 죽음에 관여하는지 궁금한가? 그 이유는 나의 능력 때문이다. 내 능력은 416명의 인연(因緣)인 사람들의 죽음을 관장하는 것이다. 죽음을 관장한다는 것은, 인연이 죽기 며칠 전에 직접 만나본 후 내 마음에 들면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미루어 줄 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저승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권한이 있는지도, 이 인연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기준이나 공통점도 알 수 없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맡은 임무를 다할 뿐이다.

-장서희

“장서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러 가볼까.”

이제 이 인연도 4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의 죽음을 막아 주었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대부분 죽음을 막아주고 더 오래 살게 해주었다.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하나... 급하게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나나 이 세상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4명밖에 남지 않은 인연 중에서 장서희라는 여자를 만나러 간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접근할까...? 옷가게 사장이면... 옷 사러 간 손님인 척 해야겠군.”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장서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장서희
“옷 보러 오셨어요?”
“아 네...”
“편하게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이정도 크기의 가게 사장이면 꽤 잘나가는 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얼굴도 반반한데 왜 애인이 없는 거지?’
의문을 품고 장서희를 지켜봤다. 손님이 밀려와도 입가엔 미소를 잃지 않고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준다.
‘이번 인연도 딱히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어색한 것을 눈치 챘다.
‘다리가 좀 불편한가.. 저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군... 그럼 이번엔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도움을 줄까...?’
그동안 나는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유인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주어서 사망의 원인에 휘말리지 않게 도왔다. 그 방법에는 이성으로 다가가 호감을 드러내 시간을 끌어본 적도 있고, 부상자인척 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구해 본적도 있으며, 인연인 사람이 쓰러질 때에 맞춰서 구급차를 부른 적도 수없이 많다.
“10시6분에 교통사고면... 가게 문 닫고 집에 갈 때 사고가 나는 것 이겠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취객 연기를 좀 해볼까?”

-은인
며칠 간 지켜본 결과 10시가 가까워지면 한서희는 직원을 보내고 아픈 다리로 혼자 마감을 하고 집에 돌아간다. 이때가 기회다.
“어머! 벌써 10시가 다 되어가네~ 내가 마감 하고 들어 갈 테니까 얼른 들어가~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
“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아이고 힘들어 다리가 오늘따라 더 쑤시네 얼른 마감하고 가서 쉬어야겠다.”
‘알바생은 퇴근했고.. 지금 들어가면 되겠지?’
“저기요~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아휴 술 냄새! 손님 저희 마감시간이 다 되어서요.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 제가 너어무 급해서 그러는디,, 화장실 한번만 쓰면 안 되나요?”
“후.. 그러면 얼른 갔다 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시간 좀 벌고 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화장실 안에서 20분을 넘게 있었다.
‘이제 슬슬 한서희가 올 때가 됐는데...’
“아니 이 사람 화장실에서 20분 동안 뭐하는 거야!?”
화장실 문에 노크를 하는 한서희.

“저기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 퇴근해야 돼요!”
“장서희... 당신은 어떠한 이유로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다시 살게 되었다...”
“뭐라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아가라...”
“이 사람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저기요 빨리 나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나갈게요~”
그렇게 10시 10분이 넘어서야 화장실을 박차고 나왔다.
“잘썼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별 이상한 사람을 다보겠네”
그렇게 또 한 번 인연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였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한서희의 명부와 인연과의 만남을 끝낸 후 항상 찾아오는 이 설명하기 힘든 가슴 한 편의 울림과 함께 저승으로 돌아왔다.

-계속되는 악몽
“지금 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내 걱정 하지 말고 먼저 가! 금방 따라 갈 테니까.”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몸조심하고... 승객들을 꼭 부탁한다...”
“헉!”
또 다른 악몽을 꾸고서는 잠에서 깨어났다.
“새로운 꿈이군...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과 승객이라... 무슨 상황인거지? 내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인연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악몽을 꾸는 횟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다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꿈속의 상황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오고 머리가 아파지지만 혼란스러운 꿈속의 상황을 뒤로하고 자연스럽게 머리맡에 놓인 명부에 손을 뻗었다.
명부에는 역시나 망자의 정보와 사인(死因) 위에 빨갛게 인연(因緣)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고 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이젠 이 인연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 남은 3명의 인연을 모두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는 확실치 않은 믿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명부를 살폈다.
‘김동수 男 1969년생 2019년 7월 31일 13시 28분 사인 추락사.’
“사망 일이 바로 내일이군... 서둘러 가볼까?”

-김동수
이번 인연을 만나기 위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어린 아들인 종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한 김동수.
“이번 인연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이군, 그래도 아들 하나뿐 이지만 가족도 있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딱히 죽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일터의 환경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겠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인연을 죽음에서 구해줄지... 항상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이유를 찾아

야하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추락사면 높은 곳에 못 가게 막거나 아예 출근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는걸...”
그러다 문득 김동수의 초등학생 아들이 생각났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네... 홀아비의 부성애를 이용해봐야겠군.”
다음날, 그의 사망 예정 시간 20분 전에 김동수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지금 시간이면 이 반은 체육시간이어서 아무도 없을 테고... 빨리 핸드폰을 찾아야 겠어”
김동수 아들의 핸드폰을 찾고 김동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살려줘...!’
점심을 먹고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려던 김동수는 아들의 문자를 보고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종윤아...!”
김동수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안전모만 벗어 던지고 아들의 학교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종윤아! 어디니!”
‘도착했군. 이번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 말을 전해야겠어...’
“김동수... 당신은 어떠한 이유로 천금보다 귀한 생명을 다시 살게 되었다...”
“뭐야 누구야! 우리 아들 어디에 있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아가라...”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어디 있냐고!”
“어? 아빠?”
체육을 끝마친 김동수의 아들이 혼자 반에 들어왔다.
“종윤아...!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무슨 소리야 아빠? 나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아빤 우리 반에서 울면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아들을 안고서 흐느끼는 김동수를 보니 또 가슴 한 편이 뜨거워지면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시작됐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몸조심하고 오래 살아라...’
김동수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가 되어 사라지는 김동수의 명부와 함께 칠흑 같은 저승으로 돌아왔다.

-죽음의 그림자

“허억... 허억... 수...숨이...!”
거칠어지는 호흡.
‘여기서... 끝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한 거겠지...? 그래... 그러면... 됐어...’
의식은 옅어지고 눈은 점점 감겨져갔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침묵과 정적 끝에 눈앞이 점점 새하얗게 번졌고, 거대한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우면서 잠에서 깼다.
“하... 오늘도 어김없이 악몽이네... 그 실루엣은 누구지? 새하얀 공간에 이 곳 저승보다 더 어두웠던 그림자 같은 모습... 소름끼치는군...”
그 실루엣을 본 것이 꿈이라는 것에 안도하며 오늘도 머리맡에 놓인 명부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명부는 평소와는 뭔가 달랐다.
“어? 한 장이 아니네?”

명부가 한 장이 아닌 두 장이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데...? 이러면 이번 건이 마지막 인연인 건가?”
난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며 서둘러 명부를 살펴보았다.
‘황수정 女 2010년생 2019년 8월 3일 1시 03분 사인(死因) 익사.’
‘황수홍 男 2010년생 2019년 8월 3일 1시 06분 사인(死因) 익사.’
두 장의 명부에는 각 망자의 정보와 사인(死因) 위에 빨갛게 인연(因緣)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황수정의 명부에는 2라는 숫자가 빨갛게 적혀있었으며, 황수홍의 명부에는 빨간 글씨로 1이라는 숫자와 뒷면에 멸(滅)이라는 한자가 적혀있었다.
“멸이라... 결국 이 인연의 끝은 나의 소멸인건가...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것 또한 신의 의도이자 계획일 테니...”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했던 인연과 나의 운명의 끝을 마주하니 두려움이 마음 한 구석에 엄습했지만 난 억지로 내색하지 않으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이렇게 거의 매일 죽을 사람 만나서 살리는 것도 지긋지긋 하다! 될 대로 되어라 이거다!”
나름의 의지를 다진 채 명부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나저나 이 마지막 인연들의 삶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익사면 꽤 고통스럽게 죽었겠어... 채 10살이 안된 애들을 저승에 불러들여서 무엇 하려고 쯧... 8월 5일이면 바로 내일이군... 꼬마 망자들 좀 만나러 가볼까?”

-한 날 한 시
“오빠 여기 물고기 있다! 이리로 와봐!”
“야 황수정! 엄마가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일로와!”
“치... 재미없게...”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왔나 보군... 이런 소중한 추억에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빠져줘야지...”
금방 해가 저물었고 쌍둥이 남매는 부모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갔다.
“계곡이 조금만 들어가도 금방 깊어지네... 어린 애들이면 순식간에 위험해지겠어...”
이번엔 또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여 인연들을 구해줄지 고민에 빠졌다.
“어린 애들이 계곡에서 익사한다면... 부모가 곁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 주변에 계속 맴돌다가 구해줘야겠어...”
그렇게 쌍둥이의 사망예정일이 되었다.
“엄마~ 우리 빨리 물놀이하러 가요!”
“아이고 우리 딸~ 얼른 놀고 싶구나! 빨리 가자~ 오빠는 어디 있어?”
“수홍이 지금 화장실 갔으니까 수정이 데리고 먼저 계곡 가서 자리 잡아놔”
“알겠어요. 가자 수정아~”
‘드디어 왔군...’
쌍둥이 가족이 계곡에서 노는 동안 망자들의 사망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곧 있으면 1시... 사망예정 시간이군... 무슨 이유로 물에 빠지는 걸까...?’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 점심을 먹고서는 가족 모두 낮잠에 빠진 듯 했으나 황수정은 슬그머니 일어나 다시 계곡으로 들어갔다.
“물고기들 보러가야지~”
그렇게 황수정은 점점 계곡 밑쪽으로 내려갔다. 그 뒤를 그녀가 눈치 채지 못하게 계곡에 들

어가지 않고 옆길에서 몰래 따라갔다.
“야 황수정!”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황수홍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아 놀래라... 뭐야 오빠 왜 따라와?”
“너 혼자 어디까지 갈라고 그래? 위험하게!”
“나 애 아니거든!? 걱정마셔.”
“뭐래 나보다 늦게 태어났으면서! 나랑 같이 가!”
“치 몇 분 차이주제에... 빨리 따라와 내가 어제 봤는데 저기에 물고기 짱 많아!”
‘이래서 부모가 아예 알지도 못했군... 이제 슬슬 죽음을 막으러 가볼까’
점점 깊은 곳을 향해 가는 쌍둥이에게 말을 걸었다.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는 요 앞 슈퍼에서 일하는 아저씬데 너희가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와봤어~”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 동생은 제가 지켜요!”
“오빠 너나 잘하셈~”
황수홍의 믿음직한 말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지만 어쩌면 황수홍이 황수정보다 3분 늦게 사망한 이유가 황수정을 구하다가 같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찔했다.
“물론 네가 동생을 멋지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아저씨가 가져온 이 튜브랑 구명조끼 입고 놀지 않을래?”
“우와 이 튜브 짱 예쁘다!”
“이거 저희 주셔도 돼요...?”
“그럼~ 너희가 부모님 말만 잘 듣고 재밌게 놀면 이런 거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막 받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엄마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위험하게 노는 걸 더 걱정하실 걸?”
“그런가...”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안전하게 놀아~ 그럼 아저씨는 가볼게~”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줘야해”
“네~ 안녕히가세요~”
이렇게 마지막 인연들의 목숨을 구해주고서 황수홍과 황수정의 부모의 꿈속으로 들어가 한 마디를 전했다.
“그대의 자식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했으니 그대들의 목숨과 같이 생각하여 올바르게 키우도록 해라.”
황수정의 사망 예정 시간이 지나자 황수정의 명부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 마지막 명부는 뭔가 조금 다를라나...?”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황수홍의 사망 예정 시간이 지나 명부가 재가 되어 사라지자 그동안의 인연들이 주마등 스쳐가듯 내 머리를 스쳐갔다.
“정말 마지막인 것 같네...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는군... 상황이 닥치니 이제 서야 겁도 좀 나네...”
마지막임을 자각하니 가슴 한편이 또 울리기 시작했다.

“윽... 마지막이라 그런가... 울림이 유난히 심하네...”
오늘따라 더 이상한 가슴을 움켜쥐고서 저승으로 돌아왔다.
“오늘 밤에 잠들면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악몽만 아니었으면 좋겠군...”
작은 바람을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사랑? 대체 무엇이 그대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고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인가?
그 까맣고 거대한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새하얀 배경을 모두 집어 삼켜 빛이 흐려질 때 쯤 그것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눈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말을 걸어왔지만 어째서인지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 배의 총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책임감이 투철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시대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난 그대가 참 마음에 드는군... 이러한 이유로 내가 제안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그게 무슨 제안입니까?”
“요즘엔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승도 꽤 바쁘다... 그래서 그대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려한다. 바로 그대가 살린 사람들을 한 번에 한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다.”
“제...제가 그런 막대한 능력을 가져도 되는 것인 가요...?”
“난 그대의 행동에 아주 깊이 감명 받았다. 그리고 어차피 그대가 이미 한 번씩 살려준 인생 아닌가? 그대의 판단에 내 힘을 부여해주겠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생사에 관여하고 난 뒤에는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써는 환생을 시켜준다고 장담하고 싶지만... 내가 워낙에 변덕쟁이라서 말이야... 어쨌든 그대의 수월한 임무를 위해서 지금과 전생의 기억을 모두 지우겠다.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다시 날 테니 너무 걱정은 말게나. 그럼 난 이만... 올바른 판단을 하길 믿고 있겠다...”
갑작스럽게 나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겠다고 한 검은 실루엣이 사라지자 난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죽고 나서... 그 검은 실루엣이 날 이 저승사자로서의 길로 이끌었군... 그런데 그 배, 책임, 희생은 무슨 소리지...? 난 대체 어떻게 죽은 것일까...”
내 전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커져갈 때,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윽... 머...머리가...”
순간 동안 기억의 조각들이 머리에 박히는 듯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 날의 기억

“아 아 오늘도 저희 소창 크루즈에 승선하신 승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소창 크루즈의 선장 박동일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선장님! 직원들과 조타실 인원들까지 포함 탑승객 총 인원 417명입니다!”
“좋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자고!”
내 전생이 하나 둘 씩 그려지고 있었다.

“불편하신 승객들은 없나?”
“네! 컴플레인 들어온 것도 없고 모두 만족해하시는 표정입니다. 아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하신 승객이 계셔서 제가 주변에서 잘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만 운항하자고!”
“네!”
그렇게 우리의 배는 아무런 잡음 없이 순조롭게 나아가는 줄 알았으나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했네... 시야가 흐려지면 큰일이니 조금 서둘러야겠어...’
‘쿵!’
“크윽... 무슨 일입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와 충돌한 것 같다! 일단 승객들 진정시키고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모두 대피시켜!”
“여기에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내 걱정은 나중에 하고 어서 움직여! 난 선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에 남아있어야 해!”
“...알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 유람선이 피치 못 할 충돌로 인하여 선내에 충격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방 밖으로 나오셔서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주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빨리 나와! 대피하라잖아!”
“신속히 움직여 주세요!”
“동수 선배! 방금 연락 받았는데... 배 하단 부분에 결함이 생겨 물이 새는 것 같대요! 어떡하죠?”
“침착해 장서희 일단 내가 선장님께 보고 할 테니까 넌 남은 승객들을 마저 대피시켜!”
“선장님! 방금 충돌로 인해 배 하단에 결함이 생겨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지금 안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내 걱정 하지 말고 먼저 가! 승객들이 우선이니 너도 얼른 가서 승객들을 먼저 챙겨라...!”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몸조심하고... 승객들을 꼭 부탁한다...”
“승객 여러분 지금 배가 위험해졌으니 구명보트로 대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분들을 먼저 태우고 차례대로 구명보트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야 너도 얼른 보트에 타!”
“선배는요...?”
“난 선장님 모시고 올 테니까 넌 승객들 안정시키고 얼른 마저 대피시켜 얼른!”
“선배...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몸조심해라...”
“동일이 형! 지금 안 나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서 나오세요!”
“내 걱정 하지 말고 가! 선장이 조타실에서 도망치면 그 배는 끝이야!”
“지금 승객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거야...?”
“동수야... 난 선장이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 너라도 어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도와줘라... 그게 나를 위한 거고 이 배를 위하는 거다...”
“크흑.... 형... 혼자 남겨둬서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

“이해해줘서 고맙다 짜식아... 얼른 가 이제!”
그렇게 김동수는 마지막까지 보트에 타지 않고 배에 남은 승객이 있나 끝까지 확인하고서야 보트에 탑승했다.
“서희야! 너 다리가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선배... 그냥 좀 삐끗한 거 에요... 근데 선장님은요?”
“동수 형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게 무슨...?”
“모두를 위해 끝까지 핸들을 잡고 있었다...”
“아아.....”
장서희는 아픈 다리를 붙잡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렇게 배는 서서히 잠겼고 김동수 선장을 제외한 모든 탑승객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내 전생의 마지막 순간이었군... 서희... 동수... 이제 둘 다 배는 타지 않아도 각자 잘 살고 있었구나... 내가 또 한 번 죽음을 막아주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전생의 기억이 모두 떠오르니 안도와 기쁨 등의 감정이 섞여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 울음을 그치지 못하다 정신을 잃었다.

-환생
“여긴... 그 검은 실루엣이 나에게 권한을 주었던 곳이잖아?”
이윽고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 말을 걸어왔다.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여전한가보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이유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누구를 탓하기 바빴지... 하지만 너의 반응은 어땠나? 오히려 네가 희생하여 살린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음에 안도하고, 기뻐했지 않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준 이유다.”
“아...”
“자 그럼 내 일종의 시험도 통과했는데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이루어 주겠다.”
“...전생이 바다 위였다면, 이번엔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방관으로 환생하고 싶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날 감동시키는구나... 좋다, 5초 뒤에 너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겠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 박동일”

1... 2... 3... 4... 5...

‘위이이이잉’
“얘들아~ 출동이다! 오늘도 힘차게 가보자!!”

기억의 방 I

인문학부
20191093 정원화

“죽기 전 하나의 기억만 가져갈 수 있어. 자 어서 말해봐.”

나는 기억의 방을 지키며 죽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는 일을 한다, 동시에 기억을 남겨주는 일도 한다. 지금 만약 당신이 죽었다고 가정하고 남길 하나의 기억을 떠올려봐라. 쉽게 떠올리기엔 어려울 것이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두 쉽게 정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부모와의 기억, 애인과의 기억, 친구와의 기억을 말한다.

1. 2040.10.03.

할아버지는 상기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나의 기억만 가져갈 수 있어. 자 어서 말해봐.”
“기억…?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기억을 다 지울 거야, 가족이나, 친구 아무거나 이야기해봐 ”

나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남들은 기억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 하는데 왜 그냥 가려 하는 거야?”
”저는 평생을 직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부터 그곳에서 일했고 그 회사를 이름만 들으면 업계 사람들은 알아주는 회사까지 성장시켰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그냥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게 제 유일한 낙이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미련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자네 마지막 순간이 기억나나?”
“음…. 기억이 언뜻 나는데…. 비가 내리는 것 같고요, 주변이 매우 환하네요”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아온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대체 자신을 위해 살아온 순간이 있긴 한 거야?”
“저…. 대체 어떻게 죽은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거죠….”
“지내 손을 펼쳐보게”

노인의 손에는 검정 재가 가득 묻어있었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나에게 물었다.

“불이 났었군요….”

“집이 완전히 전소했어, 너는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왜 대피하지 않은 거지?“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조금의 돈만 챙겨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시골로 왔습니다.”
“그럼 다시 도전하면 되지 왜 도망친 거야?”
“제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점도 있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곳에서 살며 늘 외로웠고, 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일이 생각나며 내게 그나마 행복을 준, 이 집과 자연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야. 다시 가족을 찾을 생각을 해보지 그래?”
“사실 오래 전 몰래 찾아갔습니다.”
“정말?”

“아파트 공원에서 반나절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때쯤 아내와 둘째가 보이더라고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죄책감 때문에?”
“아니요…. 죄책감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질 감정일 뿐이고, 만약 제가 다가가 아는 척을 했을 때 아들이 저를 못 알아볼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을 흘렸다. 나는 그가 다 울기를 기다렸다.

“이제 다 운 거야? 그만 울어, 이 일 하다 보면 이제 우는 소리 듣는 것도 지겹다고”
“그때 제가 다가갔었어야 했던 거 같아요…. 시골에 와서 혼자 살며 드는 생각이, 제가 가족을 잊고 살았더군요…. 그땐 그게 가족을 위한 거로 생각했어요, 더는 나타나지 않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 이기적이었던 것만 같아요”
“뭐 나한테 하소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너한테 해줄 거라곤 기억을 저장하고 지우는 것뿐이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져가고 싶은 기억이 뭐야, 어서 말해 나 바빠.”
“20년 전 9월 30일이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 제가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준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는 9월 30일, 둘째는 10월 1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늘 9월 30일 밤은 생일파티를 하는 날이었죠.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

“저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오늘 너와 내가 나눈 대화는 물론 모든 기억을 잊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어서 가봐, 그리고 하늘 아파트 기억해”

노인은 터널의 밝은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2. 1985.03.13.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대할 때는 쉽게 감정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내 감정이 흔들리는 때는 아이를 만났을 때다.

”아저씨 엄마 보고 싶어요”
“아가, 몇 살이니”
“5살!”

아이는 울먹이면서도 꿋꿋이 대답해낸다. 나는 이 아이에게 가지고 갈 기억이 무어냐고 물을 수 없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그냥 보내면 되건만 지금 내 앞에 선 아이 정도의 나이에는 물어봤자 괜히 눈물만 나오게 한다. 아이는 유괴범에게 화를 당하게 되었다. 아주 처참하게. 더는 이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1초라도 빨리 이 아이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남길 기억을 찾아내야 한다.

“아이야 엄마 보고 싶어?”
“네!”
“저기 터널 보이지 저기로 가면 엄마 볼 수 있어.”

“엄마요? 우와 얼른 갈래요”
“가기 전에 아저씨랑 하나 할 게 있는데, 퀴즈 같은 거야”
“퀴즈? 저 잘해요! 얼른 해요, 대신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저 좋아해서 얼른 가봐야 해요.”
“알겠어,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되는 거야,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기억…? 행복,? 음…. 저는 엄마랑 있을 때 행복해요. 엄마도 저랑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엄마랑 뭐 할 때 행복했어?”
“유치원 끝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밥 먹을 때요, 어제는 미역국이랑 계란후라이 먹었어요!”

내가 대답이 없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쭈뼛대며 나를 빤히 쳐다본다.

“자 이제 엄마 보러 가자, 손잡아 줄까?”
“네!”

아이와 나는 터널 앞에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곧바로 다음으로 날 찾아온 사람은 앞에 왔던 아이와 굉장히 닮아있었다. 봐도 한눈에 남매사이라고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 넌..”
“엄마랑 동생이 보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쩌다 이곳에 왔어?”
“동생을 지키려 했지만,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놈에게 당하는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요바보같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왜 이리 많은 걸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걸 너무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 사람도 이곳에 와서 많이 반성하고 죗값을 치를 거야.”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그 인간이 불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대충 보니 아저씨가 신인 거 같은데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영화나 책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재판하고 그러던데 절 재판하시나요?”
“그런 건 없어, 단지 너의 기억을 지울 뿐이야. 대신 하나의 기억만은 남겨주지”
“기억을 남긴다고요? 그것참 신기하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해줘 그럼 이제 이곳을 떠나게 해줄게”
“이런 고민을 왜 이제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혹시…. 제 동생도 이곳에 왔나요?”
“왔어, 바로 앞에”
“…. 동생이 울지는 않던가요”
“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아이가 참 착하더군”
“지난주, 동생이랑 크게 싸웠는데 조금 미안해지네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을 기억할게요.”
“알겠어, 저기 터널로 가봐”

3. 2025.04.11.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죽었군요. 신님 제가 종교는 없지만, 이 자리에 오니 든 생각인데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잠시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벌주고 그렇진 않아, 허허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난 기억을 지우고, 단 하나의 기억만을 남기지 어서 말해봐”

“기억이라.. 유서.. 그거 쓰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 마음을 먹고 한 행동인데 손발이 떨리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후련해서 쉽게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자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왜 죽였어?”
“너무 억울해서요, 전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개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안 억울하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기껏 키우니 연락도 안 하더군요. 혼자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백화점 청소일이 제가 마지막 가진 직업이네요. 그 남자가 지나가다가 청소 중이던 걸레통을 발로 차 놓고선 자기 신발이 더러워졌다고 물어내라더군요, 전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절 때리고 욕하고

인격을 짓밟더라고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항상 저 남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모두를 무시하고 종처럼 부립니다, 그러니 저를 어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후회해?”
“전혀요, 저같이 무식하고 돈 없는 사람이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그 남자를 죽일거에요. 그리고 전 가족도 돈도 모든 게 없죠, 잃을 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알겠어, 그래도 내 일을 해야 하니 남길 기억을 말해봐.”
“다른 사람들은 무얼 말하나요?”
“가족, 연인과의 추억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
“기억이라는 거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생에 간다면 어차피 새로운 삶을 살 텐데 말이죠,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그 날,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할게요”
“이제 저 문으로 나가면 이번 생이 모두 끝나”
“감사합니다, 또 만날 수 있겠죠?”

4. 2025.04.11.

“어? 꿈.. 꿈인가?”
“눈부터 뜨고 말하지?”
“어…. 어!! 누.. 누구세요”
“죽었어, 난 기억을 지우는 신이고 지우기 전에 단 하나의 기억만을 남기지, 어서 말해봐”
“예..? 이게 무슨 에이 제가 죽었다뇨, 방금까지 백화점에서 여자친구랑 쇼핑 중이었다고요!”
“기억도 안 나나 보구나”
“예, 무…. 무슨 말이에요,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예요? 몰래카메라인 거에요?”
“나는 신이다, 너는 죽었고.”
“그니깐요 죽으면 죽는 거지 에이 말도 안 돼, 아 재미없으니까 이제 나가게 해줘요.”

나는 큰 굉음을 내고 빛을 반짝였다. 젊어 보이는 남자는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남자는 한참을 고심하다 나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제가 어쩌다 죽었습니까?”
“옥상에서 떨어졌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다 말해봐”
“그러니깐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점심은 카레를 먹었고, 제 가방이랑 코트를 샀던 거 같아요.”
“저녁 7시쯤, 주변은 어두웠고 너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 누가 너를 밀었고 너는 즉시 사망했어, 이제 기억이 조금 나?”
“맞아요, 여자, 어떤 여자가 날 밀었어요”
“그 여자 기억은 나고?”

“몰라요! 처음 봤는데, 아니 저 진짜 죽은 거에요? 대체 왜요, 억울하잖아요”
“저 여자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청소부야. 너는 저 여자를 발로 차고 욕을 했지, 그리고 …”
“잠깐,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람을 왜 때려요!”
“기억은 하기 나름이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난 일을 해야 하니 어서 지우지 않고 남기고 싶은 기억을 말해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건가요?”
“바쁘니 어서 말해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날을 기억하겠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떠난 날이거든요.”
“이제 저 터널로 나가”

첫 번째 나에게 찾아와 눈물을 흘린 노인은 젊었을 적 강도질을 하던 중 남아와 여아를 살인했다. 살해당한 둘은,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온 어린아이와 그의 누나이다. 네 번째로 나를 찾아온 중년의 여성은 편집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피해망상 같은 정신질환이며, 아무 죄가 없는 남자를 자신만의 생각에 규정해 죽였다.

기억의 방은 꿈같은 곳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꿈을 꾼다. 앞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자신 맘대로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르다고 믿는 지경에 이른다.

05. 2025.04.11.

“어..? 뭐지.. 꿈을 꾼 건가?. 진짜 죽은 건가?...”
“일어나셨어요? 정신이 드시나요?. 담당 형사입니다. 어제 4월 10일 오후 10시경에 여자분이 선생님을 옥상에서 미셨어요.”
“정말이었어.. 꿈이 아니었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살아나셔서 기적이고 다행인데 혹시 그 여자 아세요?”
“청…. 청소부아닌가요?”
“예? 정신병원에 있던 여자예요, 어제 없어졌는데 옥상에서 자살하기 전에 선생님이 보이기에 밀었대요, 어떻게 된 게 옥상에서 떨어지고 여자도 살긴 했어요. 일단 선생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와서 조사하겠습니다.”

06. 2025.04.20.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보려고 왔습니다..”
“네? 몇 동, 몇 호 사신데요?”
“그건 잘 모릅니다….”

“하늘 아파트…. 라고..”
“네? 아드님인데 번호도 모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돈 많으신 잘나가는 분들 사시는 데에요. 일단 외부인 출입 금지니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하시고 오세요.”

노인은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아들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 아들아!”
“누구세요..?”
“애비다.. 너 아버지라고..”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 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정신도 없고 몸도 불편하니까 가세요. 제발, 뭔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 변호사한테 말하세요”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제불황으로 회사가 부도나며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연락을 끊은 것, 강도질을 하던 중에 살인을 저지른 것, 전부. 아들은 어머니와 누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키웠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 버젓이 손에 꼽는 자본가가 되었다. 아버지는 죽음에 문턱에서 자신의 평생의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나를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세상은 가혹하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한다. 운명은 지나치게 가혹할지 모른다.

6. 1985.03.13.

“엄마 먼저 나갈게, 동생 잘 데려다주고, 오늘은 못 태워줘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얼른 먼저 가봐, 이러다 늦겠다. 아아 엄마 잠깐 잠깐만, 태울 가방 어디 있어?”
“태울 방에 있지, 태우야 너도 잠바 입어야지 얼른! 밖에 추워. 엄마가 미안 오늘만 누나랑 유치원 가”
“웅.. 알았엉!”

이게 이날의 엄마와 아들, 딸의 마지막 대화였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일하던 엄마는 자기 삶의 전부를 잃고 만다. 모든 걸 잃은 엄마는 미쳐간다.

7. 0000.00.00

“기억의 신님 보고서 자료 다 정리했습니다. 인간들이란 참 재밌네요”
“고마워, 이제 들어가 봐도 좋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사람들 면담 시작할 거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걸 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분들 밑에서 근무할 때는 그냥 일만 하시고 일지도 대충 적으시는 게 태반이던데, 그냥 기억 지우고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자기 전생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기억의 방에서 진실을 알게 될 거고.”

평범한 일상 보내기 프로젝트

일본학과
20171635 정주연

내 하루의 시작은 동생이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이다. 어느 순간부터 동생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움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한 집에 살면서도 동생과 멀어진 각자의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수연아, 밥 먹어야지.”

그 말이 들리자 수연이는 알았다는 대답과 함께 바로 나왔다.

“또야?”

수연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이에 당황한 목소리로 답하셨다

“아니야, 수연아. 언니도 사정이 있겠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 수연이는 공부에만 집중하자. 응? 이제 곧 고3이잖아 그치?”

대답을 듣고 수연이는 다시 조용해졌다.

“다녀오겠습니다.”

방 밖으로 나왔다. 방문 앞에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을 택했다. 식은 된장국과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오징어 젓갈 여러 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반은 수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남은 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밥을 밥통에 다시 넣고 따뜻한 밥으로 담은 뒤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연주 나왔네?! 된장국 데워 줄까?”

엄마는 빈 빨래 통을 들고 내 옆으로 걸어왔다. 나는 엄마의 눈을 마주하며 말했다.

“아냐 엄마. 괜찮을 거 같아. 것보다 역시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는 맛있네.”

“우리 딸 말고 예쁘게 하네~ 그려 밥 맛있게 먹어.”

그래, 내 일상도 이렇게 평범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뒤엉켜 버린 일상이 되어버린 걸까? 이유는 가늠할 수 없다. 굳이 추측해 보자면 사건의 발단은 저번 주 화요일인 거 같다.

그날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이었다. 중간고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엄마가 걱정된다며 사주 신 노란 우산을 쓰고 있었다. 차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노란색 우산이 잘 보인대나 뭐라나. 혼자서 뚜벅뚜벅 걷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다리를 덥석 잡았다. 잡힌 부위는 축축하게 젖어 들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붙잡은 건 처음 보는 여자아이였다. 그것도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

‘보통 이 시간이면 유치원에 있을 시간인데?’

일단 아이의 키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꼬마야 왜 여기 있어? 지금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잖아..?!”

아이는 내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내 무릎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팔은 덜덜 떨고 있었고 눈동자는 계속해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꺼림칙한 느낌이 자꾸 들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의 명찰에 낯이 익은 이름이 적혀있었다.

“어라? 꼬마야 네 이름 언니 동생이랑 이름 똑같다. 서수연이네?!”

아이는 '서수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황급히 명찰을 가리려고 애를 썼다.

"왜 가리려고 해.. 그렇게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는 나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듯이 작게 말을 했다.

"언니가 나에 대해서 알면 안 되니까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언니랑 닮아서!!! 그래서 말 걸어봤어요!!!"

갑자기 나에게 소리치듯이 말을 했다. 나는 화들짝 놀랐고 아이는 뛰어갔다. 그러고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돌아왔다. 자기 목걸이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주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던 거 같은데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다. 나는 목걸이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상한 아이네. 근데 내가 그렇게 흔한 얼굴인가? 그리고 이건 뭘까'

일단 선물이라고 하니 무작정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건 안일하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왠지 수연이의 얼굴을 보면 그 아이의 얼굴과 어렸을 적 기억이 겹쳐져서 정신을 자꾸 잃게 되는 거였다.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을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원래 말이 없었던 우리가 더 말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아, 빨리 돌아가고 싶다 평범한 일상으로."

이렇게 읊조린다고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말이다. 월 공강이어서 오늘은 밖에 안 나가야겠다 생각했다. 과제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웹툰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과제를 했다.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시간은 오후 12시를 훌쩍 넘어섰다. 때마침 근처에 사는 대학 친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다.

'엄마는 장 보러 가셨고 집 근처 떡볶이나 먹으러 가 볼까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여서 떡진 머리를 하나로 묶고 편한 추리닝으로 밖을 나섰다.

"야, 너 진짜 그대로 나왔구나."

"너도 뭐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 거 같은데?"

"진짜 너는 배로 돌려주냐? 야 고등학교 때 맨날 가던 떡볶이집으로 가실?"

"와 역시 너는 내 진정한 친구가 맞다. 가자!"

떡볶이집은 수연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인근이었다. 친구와 고등학교 때 늘 먹던 대로 주문을 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왜 여태까지 안 왔지?"

"대학 다닌 지 이제 8개월 아니냐? 누가 보면 대학 다닐 내내 안 온 줄 알겠다."

"진짜 너는. 어휴 그 성격 어디 가겠냐? 아 맞다 수연이 고3 아니냐? 요새 어떻게 지내냐?"

"어, 그게 말이야. 더 멀어진 기분이 드네. 그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헤에, 거기서 더 멀어질 수도 있냐? 뭔 일이 있었길래 그래?"

나는 예린이에게 지난 일주일 간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예린이는 가만히 듣다가 거짓말 아니냐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야기가 끝날 때 즈음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다.

'어차피 학교 밖으로 나올 애도 아니고 조용히 급식이나 먹겠지.'

맛있게 떡볶이를 먹던 도중 학생들이 조금씩 나오는지 여럿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낯이 익은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설마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수연이와 수연이 단짝인 가영이가 같이 이쪽으로 걸어오던 중이었다. 순간, 그 여자아이와 기억들이 오버랩 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털썩 주저앉았다. 떡볶이

집 아주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왜 그러냐며 물으셨지만 나는 잠깐 빈혈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야.. 설마 수연이가 여기로 오는 중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예린이는 쓰고 있던 모자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일단은 모자 눌러 쓰고 고개 절대 들지 마라. 너 그러다가 또 쓰러지면 골치 아플 테니까."

예상대로 둘은 분식집으로 들어왔다. 수연이는 예린이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앞에 앉아 있는 게 나라고 생각은 안 했는지 지나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2인분에 순대 1인분 주시겠어요?"

"알겠어~ 학생들 금방 줄게."

아주머니가 애들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갖다 주시고 애들은 이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담임선생님이 편애를 하신다거나 수능이나 내신 등 고등학생이라는 때 묻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간 뒤에 가영이가 수연이에게 내 안부를 물었다.

"수연아, 너희 언니 잘 지내셔? 대학 들어가고는 한 번도 못 봤던 거 같은데?"

수연이의 한숨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다. 그리고 수연이는 말을 내뱉었다.

"어, 나름 잘 지내긴 하는데, 내가 싫은지 계속 나만 보면 쓰러지더라.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하던데. 되게 속상한데 짜증 나.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먼저 거리를 두긴 했지만."

수연이의 말은 진심이었다. 내가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란해졌다. 나는 내 일상이 평범해지지 않았고 뒤틀려져 있었고 그 사실에 나만 힘들어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린 수연이에게도 내 행동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왜 몰랐던 걸까.

나는 예린이에게 먼저 일어난다고 말했다. 계산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 빠르게 나왔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걸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서연주. 아, 언니 잠깐 멈춰보라고!!!"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다. 나는 수연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본 채로 수연이에게 말을 건넸다.

"어, 왜 불렀는데."

그나마 평소였으면 너와 마주 보면서 말했겠지. 하지만 지금 이 대화들이 왜 이렇게 낯설고 남처럼 느껴지는 걸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다른 가족들도 아니고 내가 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건데?!!"

수연이가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또 쓰러지는 것이 무서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게 된다면 수연이에게도 피해가 갈 테니까.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내가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거냐고. 그래 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마주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냥 내가 그만두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게."

수연이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말만은 동의할 수 없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돌아섰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둔 말을 내 뱉었다. 큰 소리로.

"그러는 너는 왜 그때 왜 나한테 거리를 두었던 건데?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지도 않았을 거 아냐?"

나는 멈춰진 수연이의 발걸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빠르게 점점 빠르게 수연이의 곁에서 달아났다. 이기적일 수도 있다. 나만 생각해서 수연이에게 상처를 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가까워지고 싶었다. 그게 이렇게 단단히 꼬인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그 뒤로는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었던 거 같다. 엄마 역시 내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은 걸 알고 나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으셨다.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내 행동들이 수연이를 상처 입혔다 것과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의 일은 나와 수연이에게 너무나도 아픈 일로 남아있었다. 그 일은 내게 너무 나도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다.

수연이와 나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종종 할머니 댁에 맡겨졌었다. 그럴 때마다 나와 수연이는 여름에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계곡에 놀러 가 물놀이를 했다. 가을에는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크게 돌았다. 겨울에는 할머니가 피워주신 모닥불에 고구마를 구워서 나눠먹기도 했었다. 수연이가 계속 이야기하던 일은 부슬비가 내리던 가을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와 수연이는 할머니 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수연이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며 떼를 썼다.

"언니! 나 2인용 자전거 타고 싶은데.. 타러 가면 안 돼?!"

"오늘은 비 내리잖아. 비 내리는 날에는 엄마 아빠가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하셨어."

수연이는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러 나가자며 징징거렸다. 하지만 나는 완고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 수연이의 말을 따라 자전거를 타러 나간다면, 혼나는 건 수연이가 아닐 것이다. 분명 수연이의 뜻을 따라 준 내 탓이 될 거고 나는 미움을 받을 게 뻔했다.

"됐어, 언니가 나랑 안 타준다면 나 혼자 타러 갈 거야!"

"그래, 어디 혼자 타러 가 봐라!! 키도 작아서 너 혼자는 그 무거운 거 절대 못 끌고 다닐 걸?"

수연이는 내 말에 화가 난 듯 같이 있던 방을 박차고 나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수연이는 나보다 10센티 넘게 작았고 그 작은 몸으로 커다란 2인용 자전거를 끌고 돌아다니는 것은 무리였으니 말이다.

'그 땅꼬마가 운전을 어떻게 해. 분명 자전거 타려고 하다가 못 타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30분이 지나도 수연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져만 갔다. 온 집안과 마당까지 다 뒤져봐도 수연이는 보이지 않았다. 2인용 자전거랑 함께 말이다. 나는 서둘러 할머니에게 수연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수연이가 사라졌다고 어떡 하냐며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는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진정하고 할머니와 같이 동네를 천천히 살펴보라고 하셨다. 나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비와 장화를 신고 수연이를 찾기 시작했다.

"수연아!!! 서수연!!!!!"

비바람에 묻혀 소리가 안 들릴 까봐 제일 큰 목소리로 수연이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회관에 들려 손녀를 보신 분이 있다면 할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셨다. 한참 동안 수연이 이름을 불렀다. 지친 나는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오르막길 맨 꼭대기에 살고 있는 은정이네까지만 보고 오자고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몸은 점점 떨려오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갔다. 하지만 수연이가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수연이를 생각해서 꾸역꾸역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오르막길 끝에 다다를 때 즈음 은정이네 논두렁에서 추락한 2인용 자전거가 눈에 보였다. 은정이네 집 앞에서 아래로 3미터나 떨어진 그 논밭에 수연이는 2인용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있었다.

"야, 서수연!!"

나는 황급하게 수연이 곁으로 달려갔고 할머니는 서둘러 119에 연락을 했다. 수연이는 발목을 삐어서 논밭에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비는 내렸지만 논두렁이 물 밭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수연이는 발목을 다친 거 외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안심한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커다란 병원이었다. 내 옆에는 엄마가 기대어 자고 있었고 수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셔서 의사선생님을 불러오겠다며 나가셨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다. 다행히 날씨는 비가 아니라 먹구름으로 바뀌었고 점점 날씨가 개어가는 중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잠시 정신을 잃은 거뿐이니 하루 동안만 입원하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나는 엄마에게 수연이의 안부를 물었다. 다친 건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혹시 수연이가 내 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수연이 역시 옆방에서 잘 쉬고 있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수연이가 있는 314호로 찾아갔다. 6인실이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서 수연이는 바로 보였다. 나와 똑같은 자리인 창가 옆자리에서 수연이는 멍하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수연이를 툭툭 건들며 말을 걸었다.

"야, 야! 이수연.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언니 왔는데 반겨줘야지."

수연이는 TV에서 눈을 돌려 나를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이 고정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수연이는 "응, 언니 온 거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한 건데~."라고 말하며 반갑게 맞이해 줬을 것이다. 지금의 수연이는 무언가 많이 달랐다.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나와 거리를 두는 것만 같았다.

"뭐야.. 너 왜 그래..? 수연아 많이 아파?"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수연이는 조용했다. 마치 나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고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수연이에게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병실을 뛰쳐나왔다.

그게 나와 수연이의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닮았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자매가 되어버렸다. 필요할 때만 찾고 가족들끼리 외식을 할 때도 마주 보면서 할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나와 수연이의 관계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노을 진 저녁이 되었다. 문득 나는 아이가 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목걸이는 은으로 되어있었는데 영어로 글씨가 적혀있었다.

'Da Capo'

낯이 익은 스펠링들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쳐보니 음악 기호 중 하나라는데, 처음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그 꼬마 아이가 준 이 목걸이가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 목걸이가 지금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해결해 주는 열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평범하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니까. 일단 무턱대고 생각에 잠겨보기로 했다.

'다카포에는 무조건 피네가 있어야 한다고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거 같은데.. 이 목걸이에

는 다카포밖에 안 나와 있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수연이 방 앞에 섰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안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수연이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 거의 한 8년 만에 처음 들어가보는 수연이의 방은 몇 년간의 단절을 이야기해주는 듯 어렸을 때와 많이 달라져있었다. 책상에는 수험서들이 꽂혀 있었고 커튼은 핑크색이 아닌 베이지색으로 바뀌었으며 침대는 아침에 일어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듯 이불이 잔뜩 구겨져 있었다.

'덜렁대는 예전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네, 성격이 여전하구나.'

내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더 놀랍던 건 문 옆에 놓여 진 서랍장 위에 여러 사진들이 액자에 끼워져 있었는데 그 사진들 중에서 유난히 빛바랜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 사진은 나랑 수연이가 유년시절 찍었던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를 매몰차게 거부했던 건 수연이었고 거리를 둔 것도 수연이었는데 왜 이 사진이 유독 빛바랜 것이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야자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아까와 다르게 최대한 수연이를 마주 보려고 노력해야 해. 그래야 바뀔 테니까.'

시간은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갔다. 수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온통 머릿속은 다카포와 수연이 방에 있던 사진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과제도 때려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11시가 되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연이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할 말을 정리를 하고 내 방의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째깍째깍째깍."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는 반갑게 맞이했고 고생했다며 수연이를 다독여주었다. 수연이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심란했었을 것이다. 수연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나는 바로 수연이의 방문 앞으로 갔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들이마시고 방문을 노크했다.

"똑똑"

방문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자칫하다가 수연이가 방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꽉 쥐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다가 수연이가 말을 뱉었다.

"뭐야.. 왜? 낮에 내 말은 기어코 안 듣더니 무슨 할 말이 생긴 거야?"

"응, 너랑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 좀 해보려고, 비록 내가 이런 몸이라서 너와 마주 보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못하잖아."

내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이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역시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나와 수연이를 위해 안방으로 자리를 비켜주셨다. 잠깐 동안의 정적을 깬 건 수연이었다.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나 곧 있으면 고3인 거 언니도 잘 알잖아. 용건만 빨리 말해."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날이 서있었고 나와의 대화가 귀찮은 듯 무심한 말투로 말을 뱉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8년이라는 거리감이 만들어낸 대가였고 이번 일주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거리감을 조금씩 좁혀 나가면 내 일상도 그리고 수연이와의 관계도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는 마른침을 두어 번 삼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음.. 어디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너와 대화다운 대화라는 걸 하는 게 자그마치 8년 만이라서.. 음.. 일단은 저번 주부터 너만 보면 쓰러지게 되어서 가뜩이나 입시 스

트레스 받을 너를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그 점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으로 정리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 할 수 있어. 쓰러지지 않아 나와 수연이는 지금 방문이라는 벽을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사실 나 이 증세가 일어나기 전에 너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작은 여자아이를 봤어. 그 아이가 나한테 목걸이를 주고 갔었거든.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증세가 시작된 게 그 목걸이 때문인 거 같아. 진짜 미친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는 갑자기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해,"

"언니.. 그거 진심이야? 진짜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지?"

수연이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말하는 나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상대방이 믿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내가 생각한 그대로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진심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응, 진심이야. 일단 내 이야기마저 들어줘. 부탁이야. 내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너라고 생각하니까."

수연이는 이내 알았다는 듯, 내 이야기를 일단 다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목걸이가 다카포라고 적혀져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더라. 그래서 이 처음부터 다시라는 게 너랑 내 관계를 얽혀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매듭을 풀면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아까 너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네 방에 잠깐 동안 있었어."

"아... 진짜!! 왜 남의 방에 들어와.. 하... 아, 일단 됐고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그 방 안에서 너랑 나랑 새삼 소통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느껴지더라. 네 방도 동화책이 아니라 수험 서적으로 채워져 있고 인테리어도 핑크색으로 덮여져 있던 것들이 회색이나 베이지색으로 변했는데, 덜렁대는 건 여전하더라. 그냥 그 8년이 무색하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를 알아서 되게 신기함을 느꼈던 거 같아. 그리고 거기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바랬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묻고 싶었어. 왜 그 자전거 일 이후로 나에게 거리를 두었는지 말이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다 전달했고 이제 수연이의 답만 들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말이 없었다. 적막한 시간이 계속되고 수연이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래, 언니도 꽤나 진심인 거 같으니까, 나도 얘기를 해 볼게. 사실 나는 언니가 맨 처음에는 미웠었어. 왜 그때 언니가 나랑 자전거를 타러 가주지 않았는지, 시간이 흘러서는 왜 나를 말리지 않았는지 생각 때문에 증오심이랄까 미워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던 거 같아.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그 비가 거세게 내리던 그곳을 언니는 나를 찾겠다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는데 나는 언니를 계속 미워한다는 게 오히려 미안한 감정으로 느껴지더라. 근데 그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늦었고 이미 우리 둘 사이는 멀어진 이후였어. 내가 다가간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언니한테 미안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언니한테 말을 걸어볼까 싶다가도 방 밖으로 나가면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나는 묵묵히 수연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사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도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내 스스로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내뱉을 줄은 나 역시도 몰랐거든. 다 뱉고 나서 아차 싶더라. 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 탓만 하고 있구나, 나는 왜 계속해서 언니 탓만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낮에 한바탕 일 저지르고 나니까 수업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있지? 어차피 언니랑 나랑은 거리가 있을 텐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언니랑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되게 우습더라. 그래서 집으로 걸어오면서도 한참을 생각했어. 드디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결심이 섰는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 그렇게 안 될 거 같았어. 사실, 언니가 나만 보면 쓰러지는 게 어렸을 때랑 겹쳐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 근데 언니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내심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어. 고마워 언니. 먼저 말을 걸어줘서."

정말 오랜만에 나눈 대화라서 그런지, 서로 간의 쌓였던 오해들이 사르르 녹는 기분을 느꼈다. 둘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완전히 오해가 풀렸을 때 나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Fine'

목걸이의 스펠링이 바뀌고 나는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수연이에게 말을 걸었다.

"수연아, 나 문고리를 여태까지 계속 쥐고 있었어. 혹시나 문이 열릴까 봐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놓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문을 네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 문, 열어줄 수 있어?"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며 셋을 세고 문을 열겠다고 했다.

"하나"

8년간의 거리감을 뒤로 한 채

"둘"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직 완전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셋"

하나의 이야기를 완결시킬 정도의 끝맺음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언니, 설마 눈 감고 있는 거야?"

수연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내게 되물었다.

"열라고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언니 쓰러지면 당황 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다줄 테니까. 한 번 눈 떠봐. 밑져야 본전이지. 안 그래?"

수연이의 말에 큰 마음먹고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바라보는 동생 얼굴인데 한참 낯설게만 느껴졌다.

"와, 나 진짜 안 쓰러지네?? 정말인가? 믿기지가 않아."

"그러게,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다."

일주일 만에 바라보는 동생 얼굴이라고 하지만 동생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것도 알았지만 교복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어렸을 때와 조금씩 다른 수연이의 모습에 내심 놀랐다.

"근데,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이 먹었어. 너?"

"아니, 오랜만에 바라보는 동생 얼굴에 나이 먹었냐는 게 할 말이야?."

그렇게 한동안 웃다가 수연이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 같아.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언니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왜 우리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산 건지 의문이 들 정도야."

그건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걸까.

"음.. 일단 언니 방 앞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내 방으로 들어올래?"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나는 수연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를 갈라놓던 또 다른 하나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나와 수연이가 함께 있는 그 방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뒤로 수연이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동생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평범하지 못한 순간들이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비현실을 넘어 나는 거리를 좁혔고 비현실적인 일을 현실 속으로 녹아들 게 만들었으며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넘어왔다. 드디어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을 나는 지금부터 경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오, 나의 베르단디!

철학과
20141312 민지영

1

"석고 알갱이네요."

아, 짧은 탄식과 함께 밤바르바는 양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며 뭔가 나은 생각을 떠올려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막막하고 캄캄하여 새하얘져가고 있었다. 빈약한 머리숱의 의사는 아랑곳 않고 다시 밤바르바의 입을 열어 이름모를 쇠막대기로 밤바르바의 혓바닥 안쪽을 꾸욱 눌렀다.

"목구멍 안쪽으로 석고알갱이들이 차오르고 있어요."
"그엄 더느 어커믄 덧더?(그럼 저는 어쩌면 좋죠?)"
"일단 석고가루때문에 목안에 잔상처들이 많이 난 상태거든요. 소염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
"그래도 아직 초기니까 너무 비관하진 말어요. 그만큼 밤바르바 씨가 더욱 노력해 줘야 해요. 이제 나가보셔도 되구요, 좋은 배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밤바르바는 터덜터덜 진료실을 나와 처방전을 받았다. 간호사들의 숙덕거림이 느껴졌지만 밤바르바는 그러한 관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밤바르바는 여전히 터덜터덜 병원을 나와 근처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약사 할아버지가 무어라 큰소리로 나무라듯 말했지만 이 또한 밤바르바의 주의를 끌 수 없었다. 화장실이 급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듯, 지금의 밤바르바의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다.

2

단순히 편도결석일 뿐이라고, 그럴 거라고 믿고 싶었건만,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나 밤바르바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 석고병에 걸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목구멍이 석고알갱이로 까끌까끌 따끔따끔한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허여멀건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사지가 굳어가겠죠. 이제 더 이상 베르단디에게 물줄기를 쏟는 기쁨도……
밤바르바는 일기를 마구 휘갈겨 내리다 문득 펜을 멈추었다. 아, 베르단디! 내가 석고상이 되어 버리면 이제 누가 베르단디에게 물을 주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쳐도 지진이 나도 세계대화재가 닥쳐도 매일마다 베르단디의 뿌리를 적셔줄 그런 사려 깊은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 또 누가 있던가?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렸다. 절망에 빠져 있던 밤바르바는 조금 고민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 밤바르바였지만 오늘만큼은 이례적이었다. 석고상이 되기 전 세상에 베푸는 작은 선심이랄까.

"여보세요?"
"밤바르바씨 되십니까?"
"네, 밤바르바 됩니다만."
"<석고병에 걸려 끝내 석고상이 되고 만 비극의 인간들 박물관>입니다. 밤바르바씨가 석고상이 돼 버리면 저희가 수거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집주소 확인 차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계신 주소가 도레도 파솔라시 딩동댕동 우르르꿀꿀멘션 701호 맞습니까? 그리고 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나는 베르단디를 두고 석고상 따위 되지 않을 거요!"

밤바르바는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고함을 지르고는 핸드폰를 침대 위에 집어 던졌다.

3

<석고병에 걸려 끝내 석고상이 되고 만 비극의 인간들 박물관>이란 뭘 하는 박물관인가? 석고병에 걸려 끝내 석고상이 되고 만 비극의 인간들(석고상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그리고 끌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박물관을 들르는 VIP 관람객이었다. 매주 금요일, 퇴근 후 두 시간 정도 석고상들을 감상하고 귀가하는 게 그녀의 오랜 생활이었다. 매끈하고 창백한 피부, 저 먼 곳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두 눈,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인간(석고상)은 색깔과 체취를 지닌 인간들로 하여금 묘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그리고 왜 어떤 인간들은 자기의 인간다움을 견딜 수 없어하는 것일까?). 끌로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비극이 얽혀 있는 석고상들을 사랑했다. 물론 못생긴 석고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개 루저들을 떠올리기 쉽상이지만, 그건 전혀 뚱단지같은 판단이다. 루저들, 못난 인간들만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출중한 외모의 석고상들은 살아 있는 인간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끌로에에게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자신 또한 석고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끌로에는 안타깝게도 사랑이 가득한 인간이었다. 심지어 석고상마저 사랑할 정도로(앞서 말했듯 못난 석고상은 예외이다).

4

어떤 사람이 좋을까? 어떤 색깔과 체취가 좋을까? 밤바르바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노트에 이런저런 것들을 끄적이며 앞으로의 연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금발? 아니, 머리칼은 베르단디를 닮은 부드러운 갈색머리가 좋겠어. 눈색은 베르단디의 살랑이는 잎사귀를 닮은 싱그러운 녹색이면 더할 나위 없겠고. 그리고 또…… 몇 시간째 카페의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있던 밤바르바의 엉덩이는 좀이 쑤셨다. 밤바르바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저녁식사를 하러 갈 참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풍기는 풀내음이 밤바르바의 코를 찔렀다. 밤바르바는 걸음을 멈추고 향이 나는 곳을 찾아 재빠르게 두리번거렸다. 휙 뒤를 돌아보니 풍성한 갈색 머리의 여인이 밤바르바를 막 지나치고 있던 참이었다. 밤바르바는 다짜고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여인이 놀란 미어캣같은 눈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이 비록 초록빛을 담고 있진 않았지만,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밤바르바는 생각했다.

5

끌로에가 그날 우디계열의 향수를 뿌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거울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끌로에는 한 손에는 진주 귀걸이, 다른 한 손에는 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반짝이는 귀걸이를 들고 십분째 고심하고 있었다. 이미 새로운 로맨스는 시작되었고, 잠시 후면 그 묘한 신사와 저녁을 먹으러 갈 터였다. 밤바르바가 자긴의 어깨를 다짜고짜 붙잡고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 말한 그 순간부터 끌로에는 밤바르바를 떨쳐낼 수 없을 운명에 돌입했다. 자신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어 보이는 얼굴로 첫눈에 반했다느니 머리색이 아름답다느니 하는 시답잖은 소리만 하는 밤바르바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의 분위기, 그의 무미건조한 두 눈은 마치…… 그렇다, 그는 어딘가 석고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우리는 미남 미녀에게 종종 비유적으로 조각이라고 칭한다. 그다지 빼어난 미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끌로에에게 밤바르바는 순백의 석고상과 자꾸만 겹쳐 보였다.

6

별이 한 두개 총총 박혀 있는 밤. 밤바르바는 끌로에가 깨지 않게 슬금슬금 방에서 나와 물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아 뒤뜰로 나갔다. 밤바르바는 관리하지 못해 무성해진 잔디를 헤쳐 은은한 달빛을 받아 더욱 매력적인 베르단디에게로 향했다. 그는 베르단디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적셔주며 자신 또한 슬며시 행복감에 젖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3분 24초 뒤 또다시 슬픔이 그를 덮쳤다.

“왜 그렇게 슬픈 석고상같은 얼굴을 하고 있니?”

베르단디의 연약한 가지 하나가 밤바르바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끌로에랑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섹스도 하고, 해장을 하고, 전시회를 가

고, 인생네컷도 찍고, 럽스타그램도 하고, 다시 섹스를 하고, 한 달 간 연인스러운 짓은 모조리 했는데도 그녀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끌로에가 싫니? 얼굴로는 그녀가 너보다 아까운데."
"싫은 건 아냐. 좋은 편이지. 그런데 내가 끌로에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여기저기 사랑 타령을 하지만 사실 사랑만큼 초현실적인 게 또 있을까? 사랑은 돼지가 날아다닌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말랑한 인간으로 살고 나는 석고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어디가 석고상이 되었다고 그래?"
"어?"

그렇다. 밤바르바는 여전히 말랑했으며, 요즘은 목구멍이 석고가루로 까끌따끔하지도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제의 운명에서 벗어난 걸 축하해."

고심하던 밤바르바의 눈앞에 번쩍, 번개가 내리치는 듯했다. 지나가던 들쥐가 번개를 맞고 풀썩 쓰러졌다. 익어버린 들쥐의 몸통에서 모락모락 김이 난다.

"알았다.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향한 나의 순결한 열정이 굳어가던 엉덩이를 녹여버리고 만 거야!"
"그럴까?"
"베르단디, 사랑해."

밤바르바는 베르단디의 거칠고 딱딱한 몸통을 양손 가득 않고 입을 맞추었다. 베르단디의 잎사귀들이 바람도 없이 팔랑거렸다.

7

"그렇네요. 석고 가루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머리숱이 빈약한 의사가 밤바르바의 열린 목구멍 안으로 플래시를 쏘아 보았다.

"드디어 인생의 짝을 찾으셨군요."
"네, 모두 베르단디 덕분이죠. 베르단디가 없었으면 저는 꼼짝 없이 <석고병에 걸려 끝내 석고상이 되고 만 비극의 인간들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거예요."
"베르단디라니…… 당신네 그 늙은 나무요?"
"예! 표현이 조금 무례하시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동네에서 당신과 베르단디를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

도 지진이 나도 세계대화재가 닥쳐도 당신이 항상 나무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베르단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목구멍 속 석고결석을 없애버렸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없기는요. 보세요, 석고병이 이렇게 다 낫지 않았습니까?"

밤바르바가 입을 크게 벌려 보였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병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무슨 병이요?"
"그야 나도 모르죠!"
"예? 그럼 왜 저한테 병이 걸렸네 어쨌네 떠들었던 겁니까?"
"병이란 게 뭡니까? 사람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게 병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베르단디를 향한 열정은 우리와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은 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양반은 지금 후건긍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정할수록 병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다고요!"

책상을 힘껏 내리친 밤바르바의 팔이 저릿하더니 이내 손끝부터 감각이 둔해져갔다.

8

"다양한 환자분들이 계시네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로운 분들도 보이고, 석고병이 꽤 진행되어 팔다리가 하얗게 질려가는 중인 분들도 보이고요. 아이고 저런, 저분은 얼굴 아래로는 모두 굳어버렸군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석고상은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말랑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니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저는 비교적 초기에 병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운명적 사랑이 하늘에서 똑 떨어졌냐고요? 그럴 리가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간만 가도 만사 오케이'라는 말이 있죠. 남들 하듯이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어쩌다 결혼도 해보고 다시 이혼하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길! 그럼 오늘 강연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끌로에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만!"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한쪽 팔이 굳어버린 환자들은 다른 편 팔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짝짝 비슷한 소리를 보냈다. 목 아래로 전부 굳어버린 환자는 턱으로라도 열심히 딱딱 소리를 냈다.

피는, 카네이션

철학과

20161002 강병교

어느 도예가가 있었다. 그 도예가는 마음에 꼭 드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도자기들을 만들고, 또 부수기를 반복하였다. 그렇게 수 십 년이 흐르고 더이상 도자기를 계속 부수고 만들 형편이 되지 않자, 도예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만든 도자기 하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

아버지와 나는 똑같이 빚은 두 개의 도자기처럼 서로 닮았다. 한눈에 보게는 마르고 각진 무뚝뚝함이 묻어 나오는 인상이 그랬고, 팔자걸음으로 팔을 앞뒤로 휘적이며 유유히 걷는 걸음걸이가 그랬으며, 물 잔이나 술잔을 들 때 쥔 손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치켜드는 무의식적 습관이 그러했다. 가장 닮았고, 또 놀라웠던 부분은 가치관이었다. 전통적 유교관을 기반으로 하는. 어쩌면 강제적인 상하 위계. 나이에 따라, 역할에 따라 철저했고, 냉정하게 보면 폭력적인 지위 설정. 그 고전적 가치관은 아버지와 내가 공유하는 정신적 감옥이었다. 그러나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듯이, 자식과 아버지란 극도 서로 밀쳐내기 마련이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도 불쾌하고도 미묘한 전류가 흘러 서로를 불편한 손님처럼 대하게 했다. 아버지의 눈에 나는 당신의 단점 혹은 결점들을 그대로 빚어낸 자기인 듯 비쳤고, 내 눈에 아버지는 당신의 결함들을 그대로, 혹은 살을 더해 물려준 존재인 양 비쳤다. 느닷없이 마주한, 불편한 손님처럼 그렇게 도플갱어들은 미묘한 기류로 벽을 가로놓아둔 관계를 지속했다.

*

언제부터였을까, 그 불편하고 미묘한 기류의 원천은. 내 아버지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이다. 어렸을 적 반지하 집엔 습기가 가득했고, 싱크대 뒤의 녹색이 점점이 펼쳐진 곰팡이 벽에는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으로 시궁쥐들은 자주 드나들곤 하였다. 쥐들은 도플갱어들처럼 서로를 빚어내며 점점 대가족을 이루었다. 자다가 쥐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칠 무렵이었다. 오밤중 잠에서 깬 아버지는 무심하게 쥐들의 구멍에 파란색 쓰레기통을 갖다 댔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쓰는 긴 쇠파이프로 벽을 마구 두드려댔다. 통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쓰레기통을 세운 아버지는 통 안에 가득한 쥐들을 무심히 바라봤다. 그러곤 쇠파이프를 통 안으로 미친 듯이 눌러 찍기 시작했다. 쓰레기통 안에선 더이상 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장면은 내게 자주 강렬한 심상을 가져다주곤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쥐들을 내리찍은 것처럼 어머니를 발길로 내리찍곤 했다. 쥐들처럼 어머니도 꽥꽥대다 발길질이 계속되면 웅크려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쥐들처럼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면 쥐처럼 뭉개진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

유년 시절, 학교 미술 시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면 난 늘 파란 쓰레기통에 으깨진 쥐들을 그리곤 했다. 미술선생은 왜 만날 이따위 그림만 그리냐고 핀잔을 줬다. 그 후 나는 쥐 대신 낮의 하늘을 그리기 시작했다. 넓은 하늘을 그린 뒤 온통 검은 색깔로 칠했다. 마치 세상에 검은색밖에는 없는 듯, 칠하고 또 덧칠했다. 미술선생은 나에게 밤하늘을 그린 것이냐 물었다. 난 다시 핀잔을 듣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말했다. 그 하늘이 내가 아침에 보던 하늘이라는 것은 은밀히 숨겼다. 매일 웅크리며 맞는 쥐들의 존재를 숨기듯이.

*

어머니가 쥐들의 세계에서 떠났을 무렵, 학교 선생은 숙제로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느꼈던 생각에 대해서 여쭤보고 일기를 쓰라고 했다.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적게나마 했을 적이었다. 숙제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린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안에서 씹고 또 씹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불편한 기류가 스멀,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또 생쥐를 뭉개던 아버지의 모습에 망연하게 도자기를 응시하는 모습이 겹친 건.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군인이 되었다. 군인으로 사는 것은 간단했다.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됐다. 무심한 듯 병사들을 보지만 예의주시했고, 쥐들처럼 찍찍대면 팼다. 병사들과 나 역시 서로가 공유한 정신적 감옥에서 생활했다. 창살 안에서 공포는 배태되고, 이어 생성됐다. 그 감옥 속에서 난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자주 의식했다.

*

그런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어버이날은 일 년 중 가장 곤란한 날이었다. 나에게 어버이날은 불편한 벽 너머의 도플갱어 같은 아버지에게, 즉 불편한 손님에게, 그나마 벽 너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날이었다. 한마디로, 유교적 가치관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의식이었다. 그러한 의식의 날을 저버린다는 것은 불효를 넘어 범법을 의미했다. 그래서 난 매년 어버이날에 어색하게, 옷걸이에 걸린 아버지의 정장 한 켠에 카네이션을 슬쩍 달곤 하였다.

그래도 우린 같은 피로 빚어졌으니까.

그러나, 올해 카네이션은 다르게 피었다.

*

아버지의 문자메시지는 뜻밖이었다. 처음엔 누가 보낸 건지 의심했으나 딱딱함이 전파 너머

로 느껴지는 문자의 어투가 누군지를 알게 했다. 뜻밖이었다. 충격적인 선물을 요구하는 문자의 내용보다도 더. 선물의 이유를 납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플갱어들이 공유한 정신의 감옥 문을 열고 들여다보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이해와 공감의 절차를 거쳐 선물의 내용을 납득했다. 공감이란 훗날 내가 자식에게 같은 선물을 요구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리고 나를 빚어낸 도예가의 정체가 서서히, 그러나 선연히 윤곽을 드러냈다.

*

선물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먼저 나를 죄어온 군복을 벗는다. 아무 데나. 속옷까지 다 벗는다. 역시 아무 데나. 이윽고 욕실 문을 열었다. 문고리를 쥐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찰나 문득 섬뜩함을 느낀다. 수증기가 가득 찬 새하얀 욕실. 타일과 벽지, 대형 욕조마저 새하얗다. 내 선물을 더 진하게 빛내 줄 것만 같다. 미리 받아놓은 따뜻한 물이 욕조 안에 가득 차 아무 파동도 없다. 이 물조차 배경 때문인지 새하얗게 눈에 맺힌다. 편안하고 가볍게 선물을 투신한다. 미세하게나마 남아있던 긴장과 의구심마저 물속으로 깊이 침잠한다. 욕조 턱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단도를 집어 든다. 칼날이 예리하게 반짝인다. 포장하기에 손색이 없다.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무참히, 그리고 깊숙이 손목의 파랗게 빛나는 카네이션 줄기에 선을 긋는다. 욕조 안에 작은 카네이션들이 서서히 흩어진다. 뚝, 뚝. 온몸이 나른해지고 입가엔 미소가 슬며시 번진다. 점점 카네이션들은 커지고 빨갛게 무르익어간다. 머릿속엔 오직 등지고 도자기를 빚었다 깨기를 반복하는 도예가의 모습만이 꽉 찬다.

욕조 안이 온통 새빨간 카네이션들로 물든다.
포장이 다 되어간다.
심장박동이 더 느려진다.
머릿속의 도예가가 마침내 슬며시, 뒤를 돌아본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로.
내가 짓던 웃음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아니, 완벽히 동일하다.
그렇게 올해 카네이션은, 피였다.

무대 위의 이방인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1

눈을 감기가 두려웠다. 오늘 밤에도 어둠이 다가올 것이다. 벌써부터 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슬금슬금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꿈속에서 내 자신이 수많은 문을 하나씩 열며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붉게 칠해진 커다란 철문이 마지막으로 열릴 때, 어둠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무대가 보였다.

무대의 조명은 켜져 있으나, 객석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무대에 올랐다. 어느 순간 내 손에는 새파랗게 날이 선 칼이 하나 들려져 있었다. 화들짝 놀라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리려 했지만, 칼은 이미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수도 없이 손을 털었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칼날이 서서히 적색 빛으로 물드는 것이 보였다. 온몸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 귓가에서 울려댔다. 내 발 밑으로 붉은 피가 흥건히 젖어들었다. 제발 나를 내버려 둬! 계속 절규했으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이 나의 목소리를 잠식했다.

어둠 속 어디에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속의 나는 홀린 듯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엎어져 있는 사람을 들쳐서 얼굴을 내 쪽으로 돌렸다. 극단 대표 이종철 씨가 쓰러져 있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사람을 쳐다보자, 이번에는 주연을 맡고 있는 후배 민지로 변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내 여자 친구인 서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자라나 있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흥건한 피가 되어 서린의 옷을 물들여 갔다. 박혀 있는 장미 줄기의 형태가 달라져 보였다. 예리한 칼이었다. 서린아.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니? 제발 여기서 나를 꺼내줘! 나는 절규했다. 이건 꿈이야! 이건 가짜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이 텅 빈 객석을 울렸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나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문 바로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였다. 이질적이고도 소름끼치는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녀석으로부터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기대할 만해. 넌 최고의 유망주야. 자, 친구. 더욱 더 연기에 충실해야 해. 네가 나와 현실에서 마주하는 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2

“하여튼 그랬어. 떨떠름한 꿈이야. 으,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아.”

서린은 잠자코 내 말을 듣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리까지 늘어뜨린 금발머리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웃음을 멈추고 그녀는 미소 진 얼굴을 내게 들이대며 말했다.
"준호야, 너는 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살잖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이야기인데, 무대에는 숨어 살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대. 이 녀석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연기를 펼치는 배우를 보면, 그 배우의 내면에게 말을 건다 하더라고.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나는 온몸에 오한이 드는 걸 느꼈다. 스케치로 남은 어제의 꿈에 탁한 물감이 번지는 기분이 들었다.
"넘어가면?"
"겁먹기는, 뭘 그리 진지하게 듣니? 거기서 끝이야. 이어지는 글은 없었어. 조회 수도 얼마 없었고, 서너 개 달려 있던 댓글도 관심종자라며 맥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 보나마나 헛소리야. 신경 쓰지 마."
서린은 내 뺨에 입을 맞췄다.

"준호 왔나? 요새 정말 부지런해. 제비야 제비."
극장에 들어서자 중년의 사내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나도 허리를 꾸벅 숙였다. 이종철 극단대표. 씰룩거리는 입주름이 길어진 걸 보니, 요새도 자신은 무대를 그리는 화가라며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연극의 흐름과 배경을 짜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대표가 연출을 맡은 연극에서는 크게 울리는 박수갈채를 즐길 수 있었다. 소속된 배우의 입장에서 그거면 됐다.
얼마 전부터의 일이다. 젊은 배우가 주연을 맡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여러 단원들이 나를 대하던 시선이 달라졌던 것이 생각났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돌덩이는 몸을 비틀수록 조금씩 다듬어졌다. 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신출내기가 연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는 비웃음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연기력이었다.
"자, 모두들 모여 봐. 새 시나리오다! 내가 몇 날 며칠을 새벽이슬 맞으면서 만든 결과물이야. 한 달 후에 시작할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모두들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알지? 알아서 잘 하리라 믿는다."
나는 새로운 대본을 펼쳤다.
'주연 : 최준호, 샐러리맨 역'
마음속으로 크게 탄성을 질렀다. 지난 연극에서의 활약이 다시 한 번 대표의 눈에 든 걸까. 이번에도 주연을 맡게 되었다. 뿌듯했다. 나는 기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여 시나리오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첫 장에는 대략적인 시놉시스가 있었다.
'샐러리맨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평범하다. 중소기업의 대리직을 맡은 수혁은 직장의 중간 직책급 인물이다. 아랫사람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윗사람들에게는 아부하며 지낸다. 언제나 실적이 좋은 사람들과 줄을 놓으려 애쓴다. 수혁은 항상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얼마 전 친하게 지냈던 상사와 틀어진 일 때문일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갑작스런 회의감에 사로잡힌 것 같다. 윗사람뿐만 아니라 동기와 아랫사람을 대하는 일에도 자신이 없다. 회사원이 된 후 처음 느끼는 불안감은 커져만 가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관객들의 시선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낙엽을 쓸며 단풍잎을 예찬하는 축 처진 어깨의 청소부가 주인공이었던, 지난 연극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리타분하지 않았다. 관객들은 내 연기를 바라보며 삶의 큰 부분을 공감

할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빠져들 테고.

- 수혁(준호), 주호( )와 민희의 조언을 쓴 소리로 여긴다. 분에 못 이겨 자신의 주먹을 그들에게 휘두른다. -

다음 대사는 과연 어떤 전개를 보여줄까. 이상할 정도로 손이 떨렸다. 대본을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다음 장에는 잠자코 있던 인물이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이 있었다. 술자리에서 광분한 나를 제지하는 사람이었다. 내 팔을 꽉 잡고, 자신의 손으로 있는 힘껏 내 뺨을 후려치는 역할이었다. 긴 한숨과 함께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다. 조금 편안한 시선으로 대본을 다시 보았다.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내 손에 잡힌 칼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적혀 있지 않았다.
"단장님, 대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할 하나에 들어갈 인원이 빠졌어요."
"그거? 사람 구해질 때까지 비워 둔 거야. 이번 연기에서 그 역할이 약방의 감초인데, 우리 극단에서는 잘 소화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극단에서 찾는 게……."
"내가 봤을 때 없으면 없는 거야. 준호 너, 대학교 때 연극부 출신이었지? 아는 사람들 중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남자 애가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봐."

3

"그랬단 말이야? 웬일이냐. 꾸리는 가족이 아니면 곁도 안 주시는 분이. 이거 특종감인데."
재훈은 술잔에 담긴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회색빛 티셔츠와 구겨진 반바지가 재훈을 더욱 초라해 보이게 했다. 자기가 믿는 신념 앞에서는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못 본 사이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야위어 있었다. 한창 잘 나갈 수 있던 시기에 제 마음을 여자에게 전부 주기 위해 연극판을 떠난 재훈이였다. 여자도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다른 일거리를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후에 그 여자와 갈라선 녀석은 다시 연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상처 난 심장은 재훈의 뛰어난 연기력을 좀먹고 말았다. 녀석은 설 자리가 없어 비틀거렸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못 박듯 말했다. 예전보다 야위고 피곤해 보였다. 그래도 눈에서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말라붙은 오징어 다리를 하나 씹었다.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말랐던 걸까. 계속되는 이빨의 잘근거림에도 잘릴 기색이 없었다. 저 녀석이 그랬었는데. 내가 연극을 그만 두어야겠다고 절망할 때마다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던 녀석이었는데. 나는 다시 한 번 재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새 연극 대본을 가방에서 꺼냈다.

며칠 후, 재훈과 함께 극단으로 들어섰다. 극단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다 말고 수군거렸다. 여기저기서 숙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봤더라? 많이 본 얼굴인데."
"왜, 걔잖아. 2년 전에 00신문 '예술인을 만나다' 란에 실렸던 애. 기억 안 나?"
"정말? 왜 저렇게 변했대? 얼굴이 너무 상했는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재훈의 눈빛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향했다. 극단

선배 현정 누나와 미주 누나 쪽이었다.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잘거리다가 재훈과 눈이 마주친 미주 누나의 손짓에 조용해졌다.

핸드폰 게임에 열중이던 대표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개 숙인 그의 앞에 다가가서야 인기척을 느꼈는지, 주섬주섬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대표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재훈을 바라보았다.

“이 유명 인사를 다시 보게 될 줄이야. 그런데 얼굴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은데? 하하하. 어쨌든 반갑군 그래.”

“저도 반갑습니다. 아직도 이 판에서 전전긍긍하시나 봐요.”

날카로운 신경이 서로를 오고 갔다. 혹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했다. 주위의 시선이 모두 이쪽을 향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대표였다.

“그래! 바로 이거야. 방금 얼굴 표정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거야.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그 표정.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연극단에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하네. 사실 난 단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주연으로 발탁해도 문제없겠어. 아우라가 살아있는 걸.”

잠자코 단장을 노려보던 재훈도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이윽고 연극단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얼싸안는 두 남자를 보게 되었다. 단장과의 포옹 후 돌아선 재훈은 웃음을 금세 거두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것이 그저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온 현기증일 거라고 생각했다. 녀석에게 다가가 슬쩍 어깨를 쳤다. 재훈은 어색한 미소를 건넸다.

4

‘한 번 빠졌던 것은 뼛속까지 새겨 둘 거야.’

만취한 재훈은 필름이 끊기기 직전엔 꼭 이 말을 남기고 쓰러졌다. 무대 위에서 재훈과 함께 연극을 연습할 때면 불현듯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연기에서 손을 뗀 시간이 길었기에 다시 감을 찾기도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다. 녀석의 야위어진 얼굴이 외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닌, 괴물을 무대에 세워놓고 연극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재훈은 무대 위에서 포효하고 있었다.

“준호 오빠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데려왔네요.”

극단에 1년차 후배로 들어온 민지는 재훈의 연기를 볼 때마다 무서워했다. 대기실에서도 마주치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지는 연극 연습을 할 때면 항상 재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으면서도 떨리지 않는 눈꺼풀은 감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민지도 다양한 역할을 맡아 본 경험 있는 배우였다. 그런 민지가 내 연기를 볼 때에는 저런 표정을 지어준 적이 없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만큼 재훈의 연기는 압도적이었고 무대를 장악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재훈은 보란 듯이 자신의 공백을 채워 가고 있었다.

연습실 청소를 하기 위해 나 혼자 남겨졌다. 모든 구역의 청소를 마치고 남은 마지막 공간은 민지와 다른 여자 후배 두 사람의 분장실이었다. 간단히 가구들만 정돈하고 나가려는데, 민지의 화장대 아래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재훈이 있었다. 풋풋했던 시절 속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브이를 그리고 있었다. 민지였다.

‘나는 연기에 내 자신밖에 못 담았는데, 그 아이는 모든 상황의 사람을 매 연극마다 보여주

더라. 나는 병든 싹이야. 푸른 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곁에서 멀어지는 게 옳을 것 같아.'
재훈은 단 둘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연인과의 이별을 이렇게 고백했었다. 그 아이가 민지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곳에 민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일까? 녀석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굳이 녀석이 감추고 있는 걸 일부러 들춰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의 마음을 들쑤셔 놓아서 좋을 건 없었다.
내 역할에 주어진 대사를 외우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는 준호가 아닌 샐러리맨 '수혁'이 되었다. 어깨를 펼 때 펴고, 남의 비위를 맞출 때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놈이 되어 가고 있었다.
'멋있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구나.'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다. 꿈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현실에서도 들리는 건 처음이었다. 꿈속의 목소리는 내가 대사를 외우며 연기하는 내내 따라다녔다. 나는 그저 압박감 때문이려니 생각하려고 애썼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는 서린의 말이 떠올랐다. 모든 대사를 말하고 나서야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극장 건물을 나오는데, 검은 무언가가 뛰어가는 게 보였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형체를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꿈속의 목소리와 방금 본 정체 모를 존재가 교차하는 것을 얼핏 보았다. 애써 그 모습을 잊으려 노력했다. 그건 단지 꿈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중압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는 머릿속이 단련되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걸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갔다. 연극을 준비하던 첫 시작 때부터 일 주일을 남긴 지금, 모든 것이 절정에 다다랐다. 드디어 첫 무대의 막이 오를 날이 가까워졌다. 특별히 신경 쓰이던 장면을 연습할 때였다. 식탁에 놓인 철 과도가 유난히 반짝거렸다. 뾰족해 보이는 칼끝이 연기에 생채기를 낼까 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내가 순간에 빠져들수록 칼은 흉기가 아닌 철제 소품에 불과했다. 날 서 있는 내 연기를 좀 더 도드라지게 할 소품.

-샐러리맨인 수혁은 대하는 사람의 직책에 따라 다른 인격을 행사한다. 쌓이고 쌓이는 눈초리와 비난에도 아랑곳 않는 그였지만, 형 동생 하며 지내던 권력 있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수혁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 어느 날 수혁은 직장 내 지인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다.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수혁의 행동을 타이르자, 화가 난 수혁은 이성을 잃고 지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친구 주호가 수혁을 막아서며 사건은 잠잠해지지만, 수혁은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결국에는 완전한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린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혁은 세상으로부터 점차 도태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나락으로 빠져든다. -

"준호야 이것 좀 봐. 객석을 예매한 관객들이 정말 많은걸?"
"오빠, 어마어마한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기대돼요."
컴퓨터로 연극 예매 사이트를 확인하던 민지와 미주 누나가 말했다. 나는 씩 웃어 보였다. 연기자는 무대 밖에서도 맡고 있는 역에 충실해야 했다. 여전히 근거 없는 허세가 옷차림에서 흐르고 있었다. 동전까지 털어 주문한 자판기 에스프레소가 혀에서 미끄럼을 타더니 목구멍을 살살 간질이고는 넘어갔다. 쓰디 쓴 맛을 감추기 위해 웃음을 지었다. 자그마한 잔에 담긴 진한 원액의 깊이가 끝이 없어 보였다.

5

연극이 시작되기 전날, 서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극장과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을 때였다. 까치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돌아다녔다. 떼를 쓰며 울어대는 녀석이 시끄러웠지만 오랜만에 보는 까치가 반갑기만 했다. 손에 들린 식빵 조각을 조금 떼어 주자 고개를 이리저리 굴리며 다가왔다.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마귀가 빵을 채 갔다. 까치가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까마귀가 빵을 남길 리는 없었다. 까치는 바락바락 악을 쓰며 까마귀를 쫓아갔다. 혹시나 해서 그 자리에 부스러기를 놓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까치는 다시 오지 않았다. 부스러기는 다른 까마귀들의 좋은 요깃거리가 되었다.

"네가 할 연극을 보러 가고 싶어. 준비 많이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그 이유일 테고. 얼마나 배역에 깊이 스며들었을까, 궁금한 걸?"

서린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내게 들이댔다. 섣부르게 초대하기가 꺼림칙했다. 아무리 연기라 할지라도, 내가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 않았다.

"응? 내 남자친구인 배우 최준호가 얼마나 배역에 녹아들어 있을지, 궁금해 미치겠단 말이야."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한 시간 남짓의 대화 후에 서린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금발머리가 검정색으로 물들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염색물이 들지 않은 금빛 머리카락 한 올이 잠깐 반짝였지만, 어느 새 캄캄한 어둠 속으로 파묻혔다.

"내일은 새 연극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이야. 첫 단추를 잘 채워 보자!"

대표의 말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연극은 오후 다섯 시 시작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서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다섯 시. 늦지 마. 그리고 기대해.'

"야, 고맙다. 덕분에 나도 술을 살 기회가 생겼구나."

오래간만의 복귀를 앞둔 재훈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늘은 보이지 않았다. 연기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나 생기가 돌았다. 나는 씩 웃으며 답례를 보냈다. 관람석을 꽉 채운 관객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서린이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수혁이라는 인물로 살아가는 순간이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최준호는 세상에서 사라져. 내 세계는 지금 서 있는 열 평 남짓한 무대 위야.'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굴려가면서 무대 위의 나를 만들어 냈다. 조명이 켜지며 무대 위의 나를 비추는 것을 보고는 가슴을 폈다. 하지만 뭔가가 떨떠름했다.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했다. 그러나 더욱 움츠러들고 있었다. 초반부에서 보여 줄 모습은 당당한 샐러리맨이어야 하는데……. 대사가 자연스레 흐름을 타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이상을 눈치 챈 민지가 옆구리를 찔러서야 말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후임 앞에서의 당당함,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의 초라함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끼니를 거른 게 오래여서였을까? 현기증으로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무대 위에서, 나는 직장 동료들과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 앉아 '소맥'을 들이켰다(보리차에 물을 타 색깔만 그럴듯하게 만든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텁텁한 맛이 혓바닥에서 노닐다가 목구멍으로 흘러 넘어갔다. 미리 맛보게 된 가까운 내 미래 같았다. 무대 위의 배우들과 관객석에 앉은 관객들도 그것을 저마다의 감각으로 느낀 걸까? 찡그리는 얼굴과 당황스러운

표정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곁눈질로 관객석에 앉아 있는 서린을 쳐다보았다. 내 상태를 모르는지, 한껏 들뜬 얼굴로 무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는 그녀의 시선이 나를 더욱 옥죄였다.

민지와 재훈 두 사람과 소주를 나누면, 어렴풋이 술잔에 비춰져야 할 내 상태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다. 연극은 생방송이다. 그러나 미리 찍어놓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재생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종업원 역을 맡은 후배에게 눈짓을 주어 진짜 소주를 가져오게 시켰다. 보다 확실한 연기를 보여 주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였다. 급하게 목구멍으로 털어 넣은 빨간 뚜껑의 클래식이 그렇게 밍밍할 수 없었다. 소주잔에 비추어진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수혁은 없었다. 평범한 최준호가 위태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재훈과 민지가 측은해 하면서도 쌤통이라는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작품에 이미 녹아들었다. 헤어진 연인 사이라 얼굴을 맞대기가 힘들 텐데, 아무리 연극이라지만 같은 공간에서 딱 붙어 있다니. 그 순간 더 큰 회의감이 몰려왔다. 이곳은 무대다. 무대 위에서 난 무대 바깥을 생각해 버렸다. 아슬아슬하게 수혁을 잡고 있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수혁은 무대 위에서 떠났다.

어느 새 식탁은 엎어져 있었다. 음식이 담긴 그릇들과 술병이 산산조각 났다.

"김수혁을 데려 와! 나는 최준호가 아니야!"

손에 무언가 잡혔다. 반짝이는 은빛 날이 보였다.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아니, 그게 뭐가 됐던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 나는 인정받은 주연이다. 실수 따위는 없다. 어차피 수혁은 사고를 일으킨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자극적인 사고가 생긴다면 나는 수혁을 최준호라는 방해꾼으로부터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있는 힘껏 팔을 휘둘렀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귓가에 몰려왔다.

"짝! 누, 눈 떠."

뺨이 얼얼했다. 묵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넋 나간 표정으로, 혹은 파르르 떨면서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 바로 앞에, 재훈이 서 있었다. 아랫배에 칼날이 박혀 새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채로. 민지는 주저앉아 울먹거렸다.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연극 중에 다른 배우의 상태에 신경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배우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순간,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다. 상대 배우에게 신경을 기울이는 일은 서로의 역할이 극중에 배어들도록 합을 맞춰야 할 때의 일이다.

"난 연극을 하는 중이야. 연기자고, 주연이야.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내 연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아……. 내, 내가 왜 연극판을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줄까? 두려워서야. 무대에 오, 올라서기만 하면 시커먼 존재가 나, 하아, 나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 기분이 들었어. 계속 이곳에 있으면 다, 다시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웠어."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넌 왜 돌아왔는데."

"다시 한 번 그, 그놈과 무대에서 싸우고 싶었어. 이, 이기고 싶더라. 진정한 배우는 그, 그놈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해. 정신 차려! 하, 멍청아. 너, 넌, 너는 지금 잠식되고 있어. 최, 준, 호."

내 이름 석 자를 숨 가쁜 채로 부르고 나서 재훈은 내 앞으로 고꾸라졌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존재의 실루엣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소란한 객석에서 창백한 얼굴을 한 채로, 출구를

향해 뛰쳐나가는 서린의 뒷모습이 보였다.

6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극장을 떠났다. 재훈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상황을 정리한 대표는 내 뺨에 수차례의 손찌검을 날리며,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나도 응급실에 실려 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대표를 말린 것은 대표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까 두려워서였다.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재훈을 따라 응급실로 간 민지로부터 그의 상태가 전해지는 대로, 나를 경찰서에 넘길 거라고 동료들은 차갑게 이야기했다. 나는 구석 먼지더미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쥔 채로 나가버린 넋을 찾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지였다. 얼른 받아 이 새끼야. 모두가 윽박질렀다. 떨리는 손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민지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재훈 오빠는 무사해요. 방금 정신이 들었어요. 전 준호 오빠, 당신이 소름 돋고, 두렵고, 미워서 치가 떨려요. 그런데, 그런데 재훈 오빠는……. 본인이 이야기한대요.”

휴대폰 건너편이 잠깐 소란스러웠다가 조용해졌다. 가라앉고 숨 가쁜 목소리였으나, 틀림없는 재훈이었다.

“멍청한 새끼. 난 무사해. 걱정 마라. 나, 아니었으면, 하아……. 넌 끝장났어. 너 내가 살린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잘 판단해. 먹히면 아, 안 돼……. 하아, 씨, 아프네. 끊을게. 널, 잊지 마.”

대표와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훈이 민지를 통해 전한, 나에 대한 용서이자 그들에게 전하는 부탁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싸늘한 눈빛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병원 입구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도저히 재훈과 민지를 볼 자신이 없었다.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라면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네 줄 거라고 생각했다. 수신음 1,2초 만에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사서함 멘트가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 나왔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텅 빈 극장으로 돌아왔다. 비상등만 켜진 어두침침한 공간에 들어선 나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날 괴롭혀 왔던 검은 존재가 이제는 내 곁을 떠난 것 같았다. 지금 이 자리에 쓰러져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성가셨던 그 놈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다. 천천히 눈을 감아 보았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붉은 철문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무대로 가는 문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미 문을 통과해 있었다. 조명이 켜진 넓디넓은 극장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아직 이방인이구나.”

무대 한가운데에 소품 가방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 공기가 오싹해졌다. 검은 존재가 곁을 맴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훌륭한 연기를 펼쳤더라고. 잘 보았어. 다만 뭔가 부족해. 자, 네게 주는 선물이야. 둘 중 하나를 가져가도록 해. 도움이 될 것 같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얻게 될 결과는 달라. 네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니까,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검은 존재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이번 만남도 특별했다. 형체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검은 존재가 무엇일까 추측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소품 가방을 열었다. 하나는 열

쇠, 다른 하나는 칼. 두 쇠붙이들은 차갑고도 묵직한 기운을 풍기며 내게 강요를 해 왔다. 칼로 다시 광기어린 연기를 확실하게 펼쳐 보이던가, 열쇠로 여기를 탈출하던가 하라는 것 같았다. 섣불리 답을 짓는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녀석이 비웃는 느낌이 들었다.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칼날을 만지작거리며 해답이 떠오르길 기다렸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꺼져갈 때쯤, 나는 답을 찾았다.

"이게 내 선택이야."

손바닥에서 빙글빙글 돌던 칼날이 무대 위로 떨어졌다. 마루에 꽂힌 그것은 조금씩 녹이 슬더니 그 자리에서 가루가 되었다. 나는 열쇠를 잡았다. 행여나 다시 찬 기운이 들까 해서 더더욱 꼭 잡았다. 차갑고 서늘하던 쇠붙이는 피부의 온기를 받아 조금씩 따뜻해졌다.

단순한 탈출의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기에 빠져 잠가 두었던, 진정한 나를 되찾을 열쇠였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순간이 있었던가? 그저 자신을 저울질하며 내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곁눈질로 바라보았던 건지도 모른다.

"이제 됐어."

애초에 칼이란 것은 무의미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큰 사고를 저질러서, 배역에 실패했기에, 다시 한 번 칼을 잡아 재기를 노려 볼 거라 생각했던 걸까? 분명 검은 존재도 나와 같은 배우였으리라. 연기와 본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헤매던……. 녀석은 이 상황에서 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둠에 먹혀 버려, 무대를 겉돌며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망령이 되었을지도. 그러나 이 열쇠를 얻게 된 나는, 나만의 무대 위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진짜 주인이다. 내 삶에서 자유자재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배우가 되었다.

보통잡부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의외로 달콤한 냄새가 나서 잠시 멈추어 서서 보았다. 석면가루가 물안개처럼 가라앉은 바닥 위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폭죽마냥 산산이 튀는 불똥. 마스크 같은 안전장치 하나 없이 그라인더로 철을 자르고 있는 아저씨가 보인다. 저런 불꽃을 맨눈으로 본다면 눈이 상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걸까. 한 순간 튀어 오르는 불꽃은 담뱃불이나 낭떠러지 같아서 아늑한 위협을 느끼며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학생! 학생 맞지? 거기 서서 뭐해? 빨리빨리 좀 와요.”

앞서 가던 반장님의 짜증 섞인 재촉에 서둘러 뒤를 따랐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반장님은 무언가 늦었는지 급해 보인다. 작고 주름진 눈으로 매섭게 볼 때면 누렇게 변색된 흰자가 무섭게 느껴진다.

공사현장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나고 있다. 대체로 철골 등이 담긴 황금포대가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지나간다. 신입들은 첫날 안전교육을 받느라 세시간정도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나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쭈뼛거리는 신입들의 무리에 섞여있었다. 한 명씩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된다. 공사현장이 처음인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티가 난다. 우리들은 서로의 어수룩한 모습에 친근감을 느껴 헤어질 땐 같잖은 눈인사마저 주고받을 정도였다. 과장 좀 보태면, 학년이 바뀌어 멀어지게 될 동창에게 안부를 보내는 느낌이었다.

배당된 반장님을 따라 가다보니 페인트 냄새가 심한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의 벽면은 덜렁이는 푸른 비닐로 포장되어 있다. 벽보가 몇 장 붙어있다. 안전에 대해 주의하라, 목숨이 위험하니 안전모와 안전화 등의 복장을 제대로 하란 것이다. 특이한 것으론, 현상범 제보 비슷한 것이 있다. 맨손으로 벽을 타는 빌딩 등반가들에 대한 것이다. 주로 외국인들이 가벼운 복장에 두리번거리거나 벽을 타려한다면 제보 바란단 것이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등반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다. 그들이 등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허락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들어와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등반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떨어져 죽으면 회사입장에선 자신들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욕을 먹게 될 것이다.

사십 몇 층인가. 이번에 따라온 반장님은 낮은 층수를 맡는다 하였다. 백을 넘기는 층수를 가진 이 높은 타워에서는 사십이 낮은 숫자이다. 꼭대기의 공사만 남긴 상태였기에 낮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완성이 된 상태이다. 낮은 층에서는 인테리어 적인 부분만 남아있기에 청소만 하면 된다.

벽돌이 대충 깔린 바닥을 지나면 가끔씩 대리석이 잘 깔린 바닥이 나온다. 그러나 잘 닦인 부분은 박스 같은 것이 깔려 더렵혀지지 않게 감싸여있다. 공사가 미흡한 곳에는 배수구나 지하철 환풍기에나 덮여 있던 방충망 같은 쇠판이 바닥 위로 덮여 다리가 되었다. 벽과 벽은 아직 안 막힌 곳이 있어 개구멍을 지나듯 사이를 건넌다.

미완성의 미로를 지나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반장님은 상자의 자물쇠를 번호를 맞추어 열며,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것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 난 미처 챙긴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 상자 안에는 새 장갑, 방진 마스크 뭉치가 몇 있고 형광조끼 몇과 안전모 깨

끗한 몇 개 케이블타이 등이 들어있다. 그는 마스크와 장갑을 꺼내 건네준다. 형광조끼는 이 층에선 꼭 필요하진 않다고 계속 이 층으로 오게 되면 주신다 한다. 상자 옆에는 거리를 지나며 흔히 보았던 녹색 빗자루와 주황빛 쓰레받기가 세워져 있다. 둘 다 충분히 길어서 허리를 많이 굽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청소도구를 챙겨 비상구를 통해 두 층 정도를 올라갔다. 거의 마감된 공사현장에는 석면가루와 작은 철골 조각을 쓸고 있는 사람 두어 명이 보인다. 딱히 환기되는 시설이나 창도 없이 비질을 하는 공사현장은 마치 콘크리트가 불타는 화재현장에 들어선 것만 같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해 본다. 첫날이기에 안전교육을 두시간정도 받고 온 것인데도 오전 9시 반 정도이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 것만 같다.

반장님이 문턱과 틈 사이를 가리키며 쓸어보라고 한다. 화단 청소를 하듯 모래 먼지를 쓸어본다. 대충 쓰는 법을 지적하고는 구역을 정해준다.

다른 사람을 보니 한 구역에 혼자 있던 것 같은 아직 잘 몰라서인지 반장님과 둘이 이인 일조로 청소를 한다. 청소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깔깔한 눈과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흐르는 땀 그리고 땀에 젖은 옷에 달라붙는 석면가루가 따가울 뿐이다.

11시 정도인가. 반장님의 눈치를 보며 요령껏 쓸지도 못하고 힘만 주어 먼지를 헤집을 때였다. 반장님이 슬쩍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보았다.

“밥 먹으러 가자”

반장님은 군인이 총기를 총기함에 모시듯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모아 한쪽 벽면에 잘 기대어 두었다. 나는 말없이 반장님의 뒤를 따랐다. 가는 길에 그는 다른 구역에서 청소하고 있던 사람들도 불렀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바글 거렸다.

“어차피 요 밑에도 있는데 뭣 하러 밑에 갈려고 그런다냐.”

“그야, 20층이 더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차라리 일찍 먹고 좀 더 자는 게 낫죠.”

“그렇지?”

반장님과 따라온 내 또래의 사내가 엘리베이터를 보며 대화를 하였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옆의 비상구를 통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40층. 비상구를 나오니 밝은 빛의 분위기와 학교에서 보던 식당의 냄새와 분위기가 느껴졌다. 복도에는 좌우로 일렬로 조끼, 장갑 등이 담긴 안전모가 일렬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다를 뿐이었다. 식당에 들어서는 입구 한쪽에 반장님과 몇 사내가 똑같이 안전모를 벗어두기에 같이 따라서 옆에 두었다. 그러고는 입구 옆의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손을 씻었다. 손은 비누로 빡빡하게 씻어야 회색빛 먼지가 떨어져 나갔고, 콱 막힌 코는 까만 콧물이 나왔다. 뻑뻑한 눈과 모래 같은 눈곱을 씻어내고 나니 시야가 더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식당한편에는 매점이 있고 식권을 팔고 있었다.

“밥은 사야 하나요?”

식사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어, 그 4천원이면 돼. 여기 맛있어. 양도 많고. 대기업이라 달라.”

반장님은 그렇게 말하곤 식권을 샀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왜? 속 안 좋아?”

“아, 그게…돈이 없어서요. 사야 되는지 몰라서 안 들고 왔어요.”

“에이. 그래도 먹어야지.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그, 돈은 내일 드릴게요.”
“됐어. 사줄게.”
반장님은 퉁명스럽게 말하는 편이었다. 일할 때까지는 그렇게 불편하던 목소리가 약간 친근하게 느껴졌다.
식당은 메인 음식만 배식이고 나머진 마음껏 퍼도 되었다. 군대 배식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배식을 받으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밥, 김치, 나물들과 제육볶음. 이정도면 메인 음식이지 양도 많고 퍽 적당해 보였다. 그런데 국이 된장국이나 시래기 국 같은 것이 아니었다. 기사식당에서 팔 것 같은 그릇 크기로 콩국수가 나왔다. 메인 메뉴가 2개나 되었다. 힘든 일을 한 만큼 잘 먹이는 걸까? 그것도 있지만 대기업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일한 사람들 끼리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였다. 양도 많은데 맛도 기사식당 수준은 되었다.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시장이 반찬이고 맛이 꽤 좋았다. 과연 대기업인가 싶었다.
식사를 끝낸 사람들은 안전모를 챙겨서 한 층인가 올라갔다. 대리석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기둥만 있는 홀이 보였다. 깔끔하고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 층이었다. 사람들이 어디선가 깔판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왔다. 사람들은 그늘진 곳에 자리를 깔더니 안전화를 벗고 누웠다. 반장님과 같이 온 분이 내 것까지 챙겼다. 한 숨 자라고 한다. 배가 좀 아픈데 언제까지 쉬냐고 물었다.
“여기 노가다판은 점심시간이 2시간이야. 화장실은 식당 옆에 있으니 갔다 오고. 뭐 매점에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쉬어도 되는데, 길 잘 모르면 와서 좀 자다가 같이 가. 1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린 10분 전에 가도 돼.”
낮잠타임이 있다니. 생각보다 공사현장 막노동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욕을 먹으며 쉴 새 없이 짐을 테트리스 해야 되었던 택배 상차 보단 단연코.
낮잠까지 채우고 1시쯤 되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다. 그저 안개와도 같은 석면가루 속에서 비질을 하는 일. 몸이 편한 층이다. 점심을 먹고 났더니 반장님의 감시가 덜 해져서 쉬엄쉬엄 쓸었다.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반장님이다. 내려가자고 한다. 4시. 4시 반까지 아닌가요?
“거, 내려가다 보면 4시 반쯤 돼. 가서 씻고 올라가면 대충 비슷해. 그래도 혹시 모르지만 4시 반 전에는 지문을 찍으면 안 된다.”
땀과 석면가루에 돌로 된 눈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멍청히 반장님을 따라 지하까지 내려가 샤워실로 간다. 챙겨온 게 있는 사람은 씻을 것도 따로 가져오고 없다면 안에 배치된 비누로 씻는다. 씻고 땀과 먼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니 묵은 때가 10년 치는 벗겨진 기분이다.
사람들을 따라 씻고 올라가니 긴 줄이 보인다. 잠실타워의 공사현장에는 보안검색대 같은 회전문이 있다. 사람들은 빨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고 출퇴근한다. 4시 30분. 바쁘게 사람들이 돌아간다. 나오는 줄을 기다리며 인력사무소에 일이 끝났다는 문자를 보낸다. 어렵사리 공사현장을 나오니 아직도 해는 파랗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 마냥, 공사판 사람들은 특유의 복장으로 구분이 된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하거나 한참 근무 중이라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걸어 다닌다. 그 낯익은 구분됨이 약간의 창피함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 개미굴에서 나온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곳곳을 파고들듯 우리들은 늦은 오후에 줄줄이 나와 일상 속에 섞여든다.

전화기가 계속 울린다. 부재중이 몇 통이나 와 있었다. 전화를 보니 민성이다. 시간은 6시 10분.

“형, 일어났어? 이제 준비해야죠. 나 아니면 늦었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원래 다음날이 피곤해서 잘 못 일어나요. 인력사무소에 일한다고 문자는 보냈어? 아, 예약문자 보냈다고, 잘했어. 오늘은 내가 있는 쪽에 줄서면 되니까 같이 올라가자.”

잠실타워는 등록이 끝나면 인력사무소에 들를 필요 없이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면 되었다. 그저 아침에 출근한다는 문자만 넣어주면 되었다. 민성이는 다른 곳에 가보고 자신 있는 곳에 오라고 했다. 비교해보고 괜찮은데 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첫날은 교육 때문에라도 임의로 배정된다는 점도 있었다.

두 번째로 가다보니 길이 어렵다. 잠실역에 나와서 일반적인 입구가 아닌 옆의 길로 돌아간다. 현장입구가 보이며 앞의 벤치에서 민성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낯선 곳의 길잡이라고 생각하니 어린 동생이지만 괜히 더 반갑다. 늦는다며 같이 지문을 찍고 바쁘게 지하 2층까지 내려간다.

혼자서는 못 찾을 것 같은 대기 장소에는 앉아서 수다 떠는 사람들과 바쁘게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우리는 우선 근로계약서를 쓴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써야한다고 한다. 계약서를 쓰고는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나 조끼 등을 챙기고 복장을 점검한다.

7시가 되었다. 주차장 입구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줄을 선다. 민성이를 따라 줄을 서니 다른 곳보다 적은 편이다.

“여기는 왜 다른 줄 보다 적냐?”

“아, 이곳이 다른 곳보다 더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더 힘든 곳은 왜 가는 거야?”

“여기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든요. 120층. 그래도 여기서 일한다면 꼭대기까지 가봐야하진 않겠어요?”

“오, 그거. 뭔가 혹하는데?”

“네, 그리고 딴 데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정리중이잖아요. 여기는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야간도 많고 가끔은 철야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건가…?”

“아 형, 돈 벌어야죠. 방학 끝나려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등록금은 부모님이 대주신다 해도 생활비는 벌어야 한다면서요.”

“ 그건 그렇지.”

“여기가 일급이 9만원이잖아요. 딴 데보다는 적은데. 솔직히, 여기는 그만큼 편하잖아요. 근데 야간 뛰면 16만원이고 철야는 23만원이에요. 하루에 개꿀이죠.”

“와, 대박이네.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해서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야근은 하고나면 10시 반쯤 되요. 집에 자고 바로 일어나야 하죠. 철야는 하고 나면 다음날 쉬어야 되요. 끝나면 새벽 3시쯤 되나? 여러 인력소에 등록해서 바로 일하는 꼼수도 있는데. 솔직히,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면 몸 망가져요.”

민성이와 잡담을 하다 보니 120층에 도착했다. 침을 삼켜 먹먹한 귀를 풀어본다. 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창에 그물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창도 없이 비어있는 곳이다.

어딘가의 캐릭터처럼 키 작고 고집 세 보이는 인상의 반장님이 사람들을 모아 조회를 한다. 오늘은 가볍게 시멘트를 옮긴다. 120층에서 12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아직 설치되어있지 않기에 공사를 위해 옮긴다고 한다. 아, 이게 말로 듣던 노가다 일이구나 싶다. 속으로 민성이를 욕한다.

한 명씩 허리에 시멘트 포대를 메고 올라간다. 마른지 얼마 안 되어 물기가 남아있는 계단을

타고 오른다. 아무 표시도 없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복도를 보며 오르다 보니 한 층이 길기도 짧게도 느껴진다. 의외로 20키로 정도의 들 만한 무게 정도만 지고 가며 위험하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 천천히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른다.

하나씩, 하나씩. 포대를 짊어지고 오르는 길은 쉽게 익숙해진다. 점점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찬다.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이번 학기에는 여자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보다 노가다가 쉽구나. 일정한 고요함이 마치, 해 뜨기 직전의 열대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다. 흐르는 땀이 온몸을 적셔 열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도 느껴진다.

어느새, 벽을 쌓은 포대를 모두 옮겼다. 고생했으니 모두 충분히 쉬라고 한다.

"이봐, 민성이 친구. 아, 선배랬나? 여기 층은 처음이지? 그래도 여기 왔으니 특등석 한 번 봐야지."

사람 좋게 생긴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건다.

사람들을 따라 포대를 옮긴 123층을 넘어 한 층 더 올라간다. 아직 벽도 다 갖춰지지 못한 꼭대기 층이다. 사람들은 녹색 망으로 되어있는 벽면으로 가서 담배를 핀다. 이곳은 롯데 회장도 못 와본 우리들만의 특등석이라고 한다.

아찔한 바람이 덥힌 몸을 기분 좋게 식혀준다. 천연 에어컨이 따로 없다. 아래를 보니 절벽에서 내려다보듯 구름이 발밑에서 흐르고 있다. 멀리 보이는 도시건물들이 미니어처처럼 보인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찍은 컴퓨터배경사진에 구름만 흘러가는 느낌이다. 창 쪽으로 다가가 바람을 느껴보니 어지럽다. 그러나 망막에 맺히는 그림 자체는 너무나 익숙해서 어쩐지 현실감 없이 4D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어때, 재밌지?"

"네?"

"여기 풍경 좋잖아. 솔직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나중에 완공되어도 여기까진 못 올라가고. 손님들은 안에서 유리창에 갇혀서 봐야할걸?"

호탕하게 생긴 아저씨가 등을 툭 치면서 지나갔다.

"오늘로 이 팀에 온 지 3일째인가?"

공사판을 다닌 지 나흘째. 반장님이 근무시작 전에 노란색조끼를 주었다. 이제 뭔가 동료로 인정받은 기분이다. 다른 층에 옮겨 다니거나 하루 이틀 다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조끼를 빨리 주진 않는다. 수습이 끝난 기분이다. 어차피 똑같이 받는 노가다인데 괜히 더 힘든 일 주는 층에 정착했나. 이젠 다른 층에 가기도 힘들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인정받고 정착한 기분이라 안정감이 느껴진다.

길쭉한 합판을 옮기고 철근 쓰레기를 옮기고 나니 일과시간이 끝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반장님이 부른다.

"오늘, 야간 있는데 해볼텨? 힘들다고 다음날 안 나올 거면 하지 말고, 나올 수 있으면 해."

야간이라. 초보자나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 시키는 기회가 왔다. 더 일하는 걸 기회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돈이 거의 두 배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고 싶어 한다.

처음으로 저녁을 먹고 야간 쉬는 시간을 가졌다. 6시 반까지 쉬는 시간을 갖는다. 점심에는 낮잠을 잤지만 오히려 저녁에는 잠이 안 온다. 민성이와 매점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떤다. 처음 노가다를 하는 날만큼은 아니지만 걱정과 설렘이 느껴진다.

"형, 너무 긴장 하지 마. 야간이 개꿀이에요. 4시 반까지 오전, 오후로 2타임 일하잖아? 야간은 1타임 더 뛰는 건데 돈은 거의 일당치가 나온다니까? 일이 조금 더 힘들 때가 많은데 그

래봤자 비슷해."
적당히 수다를 떨다가 대기하던 지하층에 모여 빈 합판을 깔고 잠을 청한다. 잠이 오지 않아도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다. 그런데 깜빡. 핸드폰 알람 소리가 들린다. 졸리지 않은 것 같은데 눈감고 누우면 또 금방 잠든다. 집에서는 금방 잠들지 못했는데 노가다판에서는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야간 조. 넥센팀 여기 모이세요."
다른 반장이 사람들을 부른다.
우리도 저기야. 민성이와 같은 팀에 있던 아저씨들을 따라 합류한다.
야간이라고 해서 일의 방식이 다르거나 하진 않는다. 다만, 낮 시간에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거나 밤에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대체로 무거운 것을 드는 모양이다.
야간 조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몇 명씩 묶어 팀 단위로 만들었다. 우리는 거대한 배터리를 운반했다. 어느, 설비 쪽의 기계 장치에 쓸 배터리 혹은 모터인 모양이다. 물건이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량이 많은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을 이용해서 처리할 생각인가보다.
정사각형의 블록모양의 쇳덩어리. 한 면씩 4명의 사람이 잡고 두어 명 정도가 보조를 한다. 대체로 커다란 카트에 실어 옮기지만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그리고 카트가 다닐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 땐, 사람들이 힘을 써야했다. 저녁이라 시원한 편인데도 사우나마냥 쉽게 땀이 쏟아진다.
포장이 덜 벗겨진 기둥을 지나, 자재들 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건너 하나씩 필요한 자리에 옮긴다.
"작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보이는 자재를 다 옮기자 우리 팀의 담당자가 외쳤다. 환호를 하며 시간을 보니 9시. 종료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다. 야간은 주어진 업무가 끝나면 그대로 쉬어도 된다고 한다. 씻고 나서 대기층에서 합판을 깔고 누워 수다를 떨다가 시간 맞춰 나온다. 일급이 거의 두 배라니 뿌듯함도 두 배이다.

"야, 마. 오늘은 내가 쏜다."
"와, 이 새끼, 노가다 한다더니 돈 많이 벌었나보네."
"아 진짜? 노가다 힘들잖아. 할 만해? 돈 얼마나 주는데?"
"많이 벌어? 나도 할 수 있을까?"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학기 중에 못 보았던 친구부터 바로 저번 주에 만났던 친구까지. 그래봤자 일주일 차인데 친구들에게 역전의 용사마냥 노가다판 썰을 푼다. 몇 일만에 크게 번 돈으로 한 턱을 내니 호응도는 최고이다. 낯설고 경험해 보기 힘든 일이기에 과장이 섞여도 친구들은 모르고 신기해만 한다. 덕분에 힘든 일주일을 버틴 스스로에 대한 상이 되었다. 힘들게 번 돈이지만 그까짓 하루 일당, 호기롭게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
민성이는 주 1회 정도 쉬고 계속 일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번 주말엔 쉬기로 하였다. 목표한 금액까지 아직 여유시간이 남았고 첫 주부터 무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성이 말을 들으니, 주말에 이틀씩 쉬면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돈을 쓰게 된다고 한다.
평일에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 주말에는 쉰다. 주6일 일하는 사람도 꽤 있지만 토요일에 쉴지, 일요일에 쉴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말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없는 편이다.

물론, 주말까지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지만 당장 돈이 급한 것이 아니면 보통 일반 사원처럼 평일만 일을 한다고 한다. 그래도 평소엔 알바 하는 학생, 주말 알바 회사원들이 꽤 있다고 하지만 7~8월이나 1~2월 같이 방학시기에는 휴가도 겹쳐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럴 경우엔 주말에 일하는 것이 이득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적어서 기본적으로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 감시하는 인원도 적지만 그만큼 일하는 사람도 적다. 하지만 그렇기에 야간이 항상 있다고 한다. 평소 일해 와서 반장님께 눈도장 찍히면 거의 원할 때 야간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성이는 이럴 때 눈도장을 찍어두고 학기 중에는 주말만 와서 야간일 몇 탕씩 뛰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한다.

"…거, 언제까지 일한다고 했더라?"
"이번 달 말까지요. 이제 음,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 고생해서 돈 모았으니 학교 가서 공부 잘 하고. 얼른 졸업해서 취직하는 것이 효도여. 목표한 일수 채웠으니까 돈도 벌고 좋은 경험도 되었지? 또 노가다판 기웃거리지 말고 다신 오지 말어."
반장님이 다 같이 모여 쉬는 중간에 훈화말씀 하듯 말하였다.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일과 집을 반복하던 나날이었다. 그만두는 날이 얼마 안 남으니 주변 아저씨들이 부쩍 오지 말라는 말을 한다.
"민성이 봐봐. 틈틈이 나온 게 벌써 일 년이 넘었다. 노가다도 중독이야. 너희 나이에 이렇게 큰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스무 살 애들이 용돈 벌이하러 왔다가 노가다만 뛰는 애들이 많아. 그래도 쟤네들은 곧, 군대에 가잖아. 근데 넌 군대도 다녀왔다면서. 목표한 기간만 벌 만큼 벌었으면 뒤도 보지 말고 떠나. 자꾸 노가다판 기웃거리면 노가다꾼 밖에 안 돼. 하려면 제대로 기술자 밑에 들어가던가."
박 씨 아저씨는 담배를 안 펴서 쉴 때, 같이 쪼그려 앉다보니 친해진 이름 모를 아저씨였다. 야간 일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지원해서 최근 오일 정도 연속으로 야간을 하며 부쩍 친해졌다. 아저씨는 40대에 회사를 퇴직당하고 나니 어딘가 당장 갈 곳을 못 구했다고 한다. 생계비 유지를 위해 타워가 반 정도 지어질 때 쯤 시작했다는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떠나서 안정적인 곳에서 일할거야. 그런데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 당장 빼야되는 돈이 얼만 돼. 아, 너 어릴 때 영어학원 다녀봤지? 한 달에 40정도면 괜찮은 거야?"
학교 다니는 중에 알바로 짬짬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식이 빡빡하다. 노가다를 하면 이런저런 잡생각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사고가 단순해지는 기분이 든다. 일이 힘들고 매일 찍히는 액수가 크다보니 하루에 번 걸 한 탕에 다 써버리기 쉽다. 자신에게 주는 상이 후해지기 쉽다. 때문에 스스로도 노가다판에 오래 있는 것 자체에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매몰되는 기분이다. 하지만, 주말 알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층계 팀으로 가야하는 걸까?

“여기 아저씨들이 자꾸 더 오지 말라는데 민성이 너한텐 안 그러냐?”
“아, 아재들 오지랖이야. 형. 그래도 맞는 말이긴 하지. 여기가 편한 편이라고 해도 노가다가 몸이 힘들다보니 오늘 할 고민을 내일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하다보면 벌이가 세서 하루쯤 안가도 되겠지 하면서 쉬게 되고. 뭐 그러다보면 하루살이 되는 거죠. 그래도 난 주말알바로는 괜찮다고 생각해. 여기 팀으로 오면 야간이 거의 있거든. 매주 올 필요도 없이 며칠만 뛰어도 한 달 생활비는 충분히 되는데 뭘.”
“그렇지? 어차피 고기 집이나 이런데서 단타로 알바 하는 것도 빡센 건 마찬가진데 괜히 더 오기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니까. 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주말에 나올 거면 같이 나오자.”
“아, 미안. 나는 벌어둔 걸로 이번 학기 생활하고 군대 갈 생각이야. 이번에 좀 바쁠 것 같아서…그래도 형이 같이 가자는 날 미리 말해주면 갈게.”
“아니, 그렇다면 음. 나중에 한 번 물어나 볼게. 안되면 혼자 와보지 뭐.”
민성이와 대화를 하며 오랜만에 정시 퇴근하는 길이었다. 1층 중간에 못 보던 검은 천막이 크게 펼쳐져있었다. 사람들은 웅성이며 지나가고 나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자세히 보려했지만 가려져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몇 사람들이 쓰던 빗자루를 들고 천막 안쪽으로 사라졌다. 흙무더기를 새로 파나?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저게 뭐지? 우리 가서 물어볼까?”
“아?…잠깐만 형. 내가 가볼게.”
민성이는 웅성거리며 스치는 사람들을 헤치고 자신이 아는 반장님을 찾아갔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지만, 멀리서 보아도 손사래 치는 것이 보였다. 민성이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돌아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별 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며 우리는 현장을 나왔다. 시퍼런 낮을 찌르는 매미울음 소리는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
“아 그래도 형,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 다 털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오, 그치? 이런 날은 기념해야지! 네 덕분에 소개받아 왔는데 쏘는건 내가 해야지. 아, 그럼 술은 내가 쏠까? 시원하게 꿀막걸리가 땡긴다 야.”
“이 형 술 엄청 좋아해. 알았어. 가자.”
갑자기 민성이가 말을 바꾸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기념으로 한 잔 하자고 했지만 바쁘다면서 학교 가서 보자고 했는데 말이다.

“어어? 학생. 내가 진짜 또 오지 말라고 했죠? 왜 또 왔어.”
“그게. 방세랑 이거저거 내다보니 생활비가 떨어져서요….”
“벌써? 술 마시다 다 써 버린건 아니고? 그래도 오늘 야간 뛰니까 숨통 틔우겠지? 다른 알바 찾아. 담에 또 여기서 보면 죽는다, 진짜?”
“아…그게. 그래도 내일까진….”

“내일? 아 주말. 그래, 그래. 내일까지만 나오고 더 나오지 마. 알았지?”

몇 번 보았던 야간팀장 형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였다. 갓 서른이 되어 팀장 중 가장 젊었으면서 유독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었다. 일을 할 때에는 잘 대해주지만 마주칠 때마다 목표 일수만 챙기고 떠나라고 하였다.

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하고도 반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다. 한 달뿐이지만 꽤 벌었다고 생각한 돈이 벌써 자릿수가 달라졌다. 당장 구하려 해도 학기 중에는 쓸 만한 알바를 찾기가 힘들었다. 자연스럽게 노가다로 생각이 잡혔다. 안전화, 안전증, 각반 등 초기투자 비용의 물품이 아까웠고 아직 해 온 가락이 남아있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랜 만에 찾아간 노가다판은 마치, 돌아온 탕아를 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 나를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훈계를 했지만 한편으론, 대단히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다. 어찌 보면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사이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를 맞이하는 착각도 들었다. 여름에 입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와서인지 서늘해진 가을바람이 유난히 따가웠다.

“어때, 오랜만에 일하려니 힘들지? 적당히 하고 가. 적당히.”

젊은 팀장형의 장난 섞인 협박을 들으며 일을 하니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해졌다. 그렇지만 예전에 노가다를 하며 단순한 움직임 속에 복잡한 생각으로 매몰될 때와는 달랐다. 망막의 낀 거미줄과도 같은 필터 하나를 제거한 기분이었다. 어쩌면, 단순히 오랜만이여서 일지도 모른다.

누구와 어울리지도 않고 조용히 퇴근할 때였다. 민성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 형. 오늘 같이 못가서 미안해. 오랜만에 일은 어땠어? 솔직히 개 힘들지? 나도 쉬었다 일하면 더 힘들더라고. 군대 가면 휴가 때 나와서 짬짬이 할까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오버인 것 같아. 아, 그런데 그거 들었어? 우리 일 끝난 마지막 날 있잖아. 그 때 그 천막. 누가 자살한 거라고 하더라. 알고 보니, 나는 몇 번 같이 일했던 아저씬데.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이유?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빚 있고 이혼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뻔한 거 아니겠어? 아무튼, 형. 고생 많았고 학교에서 보자. 이번엔 형이 한 턱 쏴! 끊는다.”

문득, 잠실타워를 돌아보았다. 높이 솟은 타워는 높고 넓은 가을 밤하늘에도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달이 어두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가 흔들려 내가 두 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잠실역을 찾았다. 입구가 환한 계단인데 이상하게도 검은 천막이 떠올랐다. 나는 내려간다. 지하에는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내일은 나오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이유는 추워서일 것이다. 밤바람이 땀구멍을 타고 관통한다. 물기가 바짝 말라 건조한 찬기가 무게감 없이 남았다. 날숨의 사이사이에 부스럼처럼 따가움이 느껴진다. 내 속의 또 다른 내가 감기에 든 것 같다.

.

화의(花意)

사학전공
20181015 김세연

1862년 7월 13일, 조선 전주.

스치듯이 눈앞을 가득 채웠던 풍경은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집을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앉아서 손을 흔들던 그곳이 반으로 갈라졌고, 남동생이 뛰어나오던 마당에는 여러 물건이 나뒹굴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곱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손은 흙과 상처로 뒤덮인 채로 제 눈 앞을 가렸다. 난 멍하니 선 채로 어머니의 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부서지는 소리와 깨지는 소리들이 뒤섞여 귀를 삼켰다. 남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이 내려가 제 눈은 현실을 마주했다. 마치 몇 시간 전의 상황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이 제 삶이었던 것인데 부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새하얗게 지워졌던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입술을 달싹여도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다. 고개를 돌려 눈물로 채워진 어머니의 눈과 마주하자, 그제야 조금씩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다. 궁금한 것이 많았다. 탓하고도 싶었고, 이유를 묻고도 싶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것이 현실이냐고. 뒤섞인 생각들이 어머니의 눈과 마주하자, 맑은 눈물로 흘러내렸다. 말을 이을 새도 없이 흐르는 눈물에 멍하니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품에는 울고 있는 남동생을 꽉 안은 채 마주한 어머니의 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미안하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분명히 어머니의 탓이 아님에도,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그 눈을 마주하며 난 무너지는 감정을 억지로 움켜쥐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반역을 했다고 외친다. 역적을 죽여야만 한다며, 아버지를 무릎 꿇린 채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고는 바라본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그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 말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던 아버지의 등 뒤로 긴 칼이 바람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다. 언제나 소중하고 귀하게 자라야 한다며 가족들을 따뜻한 곳에서만 있게 하시던 아버지가 돌이 깔린 차가운 땅 위에 무릎 꿇고 계셨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남동생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난 한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아무런 말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어느새 칼은 아버지의 주위를 돌고 있었고, 난 찢어지는 듯한 느낌에 그제야 아버지를 불렀다. 무언가에 눌린 듯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뜨이며 제 눈과 마주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 웃으셨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이고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다. 그것을 끝으로 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붉은색의 액체가 바닥을 적시고, 제 눈에는 붉은색만이 가득 채워졌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마지막까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은 기울어져 바닥으로 추락했다. 가족들은 전부 흩어져 각기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갔다.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난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친우였던 분의 집으로 보내졌다. 하루 만에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고,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졌다. 흙으로 뒤덮인 마당에 던져지듯이 놓이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예전이었으면 당황하며 내 몸에 묻은 흙을 털었을 사람들이 이제는 멸시하듯이 내려다보며 일어나라고 소리친다. 나에게 저들을 원망할 자격은 없다. 신분의 차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다만,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을 가족들이 생각나 마음이 짓이겨지는 것만 같았다. 주먹을 쥔 손을 흙 위에 놓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곧 도련님이 오신다며 큰 소리와 함께 발이

날아와도 그저 떨리는 몸을 그대로 바닥에 고정하고만 있었다. 곧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발길질이 멈추고 주위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고, 그 시선이 문에서 나에게로 향하기까지는 일각도 채 걸리지 않았다. 멸시의 눈빛들이 당혹스러움으로 바뀌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 몸을 일으키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자신들 주인의 행동에 달려와 자기가 하겠다며 만류하는 모습이 조금 전과는 대조적이라 쓴 물을 삼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외면하며 허공을 향해 말을 꺼냈다.

“어찌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장소만 알려주신다면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직도 양반의 말투를 버리지 못했네.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말인지 황급히 입을 다무는 사람과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고는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계급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업보라면 그 죄를 갚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고, 갖고 있던 것을 버리고, 인연의 끈을 모두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른 하늘이 왜인지 눈물을 가득 삼킨 것처럼 보였다. 지금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유일한 시선에 속에 담긴 감정을 쏟아낼 것 같은 내 감정을 대신해, 울어주는 것처럼.

*

여명 스스로는 노비 계급 생활에 적응한 듯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차별은 하지 않으며 살아와서 어렵지 않지만 무의식중에 섞여 있던 양반 시절 생활과 사상이 함께 일하는 노비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여명을 배척하며 살아갔다. 오로지 여명의 집에서 일하던 여명과 함께 시운의 집으로 온 노비들만이 자신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여명을 챙길 뿐이었다. 밝고 당당했던 여명의 성격은 점점 말수가 적고 순종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자신이 사라진다면 고통스러울 가족들 때문일 뿐이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힌 존재를 억지로 지워내며 감정 없는 사람처럼 지내려고 마음먹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여명이 시운의 집으로 가게 된 지 열흘이 지난날. 시운은 여명을 만나기 위해 매일 찾아다녔으나 여명은 보이지 않았다. 여명을 찾으라고 말해야만 하나. 깊게 고민하던 시운이 이내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강요하고 싶지 않다. 터덜거리는 발걸음으로 방으로 돌아가던 시운의 시야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인영이 보였다. 고개를 갸웃거린 시운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명이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훌쩍거리는 여명은 달빛 아래에서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운이 여명에게 천천히 다가가 여명의 옆에 똑같은 자세로 앉았다. 몸을 흠칫거리며 눈을 크게 뜬 채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명과 눈을 마주한 시운이 입꼬리를 올려 웃고는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보았다. 밝구나. 별도 없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환하게 길을 내고 있어. 가만히 달을 보던 시운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명에게 손을 내밀었다.

“달빛도 좋지만, 나는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이 더 좋다. 그것이야말로 하루의 시작이 아니냐.”

시운이 내민 손을 보며 고민하던 여명이 시운의 손을 잡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홀로 남은 제 손을 멀뚱히 보던 시운이 웃음을 내뱉었다. 여전하구나, 너는. 몸을 빙글 돌려 돌아가려는 여명의 앞으로 다가가 막아선 시운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할 말이 있으니 내 방으로 오

거라. 아니다, 어차피 만난 김에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어디로 숨을지 모르니까 말이다. 시운의 말에 거절하려고 입을 열던 여명이 잠시 멈칫하다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말을 듣는 여명의 모습에 의아해진 시운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여명이 먼저 꺼낸 말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얼른 가시지요, 도련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바람에 뒤섞여 흘러들었다. 이런 목소리를 들은 것은 여명이 시운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던 첫날 뿐. 쓰라린 마음을 억누른 채 시운은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겼다. 시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여명 역시 시운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방에 도착했고, 시운이 제 자리 위에 앉자 여명이 멀찍이 떨어져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았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은 채 마주 보고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온갖 감정이 뒤섞인 오묘한 기류 너머로 침묵을 깨기 위해 입술을 달싹이는 시운이 보였다.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 쉽게 입을 열지 않던 시운이 이내 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여명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작게 몸을 움찔거린 여명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쓴 숨을 삼킨 시운이 좀 더 부드럽게 여명의 이름을 불렀다. 여명아. 어째서 오라비 얼굴도 보지 않는 것이야. 그 정도로 내가 미운 것이냐. 그제야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하는 여명에 시운이 환하게 웃으며 여명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나를 보는구나. 하마터면 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을 시켜 물어볼 뻔했다. 다정하게 웃는 시운을 가만히 바라보던 여명이 울컥하며 차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말을 내뱉었다. 어찌, 천한 것이 도련님의 얼굴을 함부로 보겠습니까. 여명의 말에 시운이 굳어진 표정으로 여명을 바라보았다. 말을 끝으로 다시 고개를 숙인 여명을 보던 시운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명에게 가까이 다가가 여명의 바로 앞에 앉았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바라보는 여명과 눈을 마주하며 시운이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여명의 손을 잡았다.

"천한 것이 어디 있어. 내 앞에는 소중한 사람만이 있을 뿐인데."

항상 나를 이겨보겠다고 낑낑거리던 꼬마 아이가 말이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시운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내뱉은 여명이 허탈하다는 듯 시운을 바라보았다. 으쌰, 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시운이 여명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의아하다는 듯 보는 여명을 보며 밝게 웃은 시운이 팔을 끌며 말했다. 가자,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시운이 여명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밭이었다. 연한 분홍빛의 무궁화로 가득 채워진 꽃밭을 멍하니 바라보는 여명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시운이 천천히 말을 내뱉었다. 언젠가 너에게 이 꽃밭을 보여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 잠시 말을 멈춘 시운에 여명이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하자, 옅게 웃은 시운이 다시 말을 이었다. 무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운의 말에 생각하는 듯 가만히 있던 여명이 이내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고개를 돌려 무궁화를 시야에 담은 시운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궁화의 의미는, 일편단심이란다. 다시 고개를 움직여 눈을 크게 뜬 채 바라보는 여명과 눈을 마주한 시운이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달빛도 고운데 담소나 나눌까. 너와 내가 만났던 이야기의 첫

부분을.

8년 전, 시운이 13살, 여명이 11살이었던 때.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둘은 어릴 적부터 친우였던 아버지들의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났다. 아버지의 뒤에 선 채로 고개만 조금 내밀어 바라보는 여명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 큰 눈을 깜빡이며 아버지의 옷을 꽉 부여잡았다. 그런 여명의 모습을 아버지의 옆에 선 채 멀뚱히 바라보던 시운이 손에 쥔 꽃을 꽉 쥔 채 여명에게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갔다. 더 안쪽으로 숨으려는 여명에게 시운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쥐여준 무궁화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머뭇거리며 받지 않고 보기만 하는 여명의 모습에 여명의 아버지가 부드럽게 여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받으렴, 여명아. 그제야 여명이 아버지의 뒤에서 나와 꽃을 받고는 다시 뒤로 숨은 채 한 손으로는 옷자락을, 다른 손은 꽃을 꼭 쥐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버지들이 마주 보며 작게 웃었다. 머리카락만 살짝 보인 채 숨은 여명을 보던 시운이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들어 웃고 있는 아버지들을 보았다. 아버지의 등에 숨은 여명 역시 꽃을 꼭 쥔 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둘은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만나 어울렸다. 어린 남동생만 있을 뿐 윗 형제가 없는 여명은 시운을 잘 따르고, 시운 역시 자신의 동생처럼 여명을 잘 돌보았다. 학문에 뛰어난 시진에게 틈틈이 학문을 배우거나, 저잣거리로 나가 노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족만큼 깊은 관계를 쌓아갔다. 이러다가 나보다 더 좋다고 하면 어떡하나. 윤 대감의 장난기 섞인 한탄을 듣던 유 대감이 호탕하게 웃었다. 이미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유 대감의 말에 허망한 표정을 한 윤 대감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여명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깨가 처진 채 중얼거리는 윤 대감을 웃으며 바라보던 유 대감이 고개를 돌려 열린 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았다. 쭈그리고 앉은 채 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기 자식들을 보는 유 대감을 따라 같은 풍경을 바라보던 윤 대감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시운이라면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 말에 유 대감이 윤 대감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자식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녀석이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먼저 하다니 영 기분이 별로구만. 여명이라면 뭐, 가장 견줄만한 여인이지. 두 아버지의 투닥이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싸움은 끝이 났다.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 모두가 이런 일상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망각하고 있었다. 여명의 아버지가 반역이라는 이야기가 마을에 모두 퍼졌을 때, 시운은 다급한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시운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잖습니까.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단 것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대체 왜... 말을 이어가던 시운이 이내 굳게 입을 다물었다. 무너져가는 표정으로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본 시운은 혼란스러움에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문 채 탁상을 바라보던 유 대감이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냈다. 수없이 말렸고, 다른 방법이 없을지 생각했다. 가장 깊은 벗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어. 친우와 같은 길을 걷더라도 그릇된 것을 바로잡을까도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다, 그 녀석이... 나마저 없으면 제 가족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처음으로 내게 눈물을 보이며 말하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 거절을 할 수 있겠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벗으로서 하는 간청이라고 말하며 우는데, 내가 어찌... 안 된다고 말하겠느냐. 울음이 섞인 말을 끝낸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던 시운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열린 문틈 너머로 햇빛이 새어 들어와 둘을 쓰다듬는 것처럼 길게 비추었다.

시운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여명의 볼에 눈물이 길게 흘러내렸다. 우는 여명의 모습을 본 시운이 과거 이야기를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여명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여명을 보던 시운이 여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조심스럽게 여명의 머리를 쓰다듬

었다. 너의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으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던 여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까만 밤하늘 한가운데 홀로 뜬 달이 만든 달빛이 은은하게 둘과 꽃밭을 비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그믐하고도 보름이 지난날. 누군가 도련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에 마당으로 나온 시운은 눈을 크게 뜬 채 풍경을 바라보았다. 방대한 양의 돈과 금품을 마당에 쌓아둔 채 자신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와 시선을 마주한 시운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마당에 서 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하 은성이라고 합니다. 노비를 사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는 은성을 보며 당황스러워하던 시운이 마루에서 내려와 은성의 앞에 선 채 말을 꺼냈다. 연락을 주고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시운의 말을 무시한 채 시운의 뒤쪽을 힐끔거린 은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 여명의 노비 문서를 사러 왔습니다. 은성의 말에 표정을 굳힌 시운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인상을 찌푸린 은성이 가라앉은 눈으로 시운을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사람들은 모두 사고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중한 목소리로 거절하는 시운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은성이 한쪽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그 아이도 돈을 주고 사 온 것이 아닙니까. 가식적인 대답은 그만해주시죠. 기분이 영, 불쾌합니다.”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억지로 삼킨 시운이 주먹을 꽉 쥔 채 은성을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말없이 은성을 보던 시운이 싸늘한 목소리로 돌아가라고 대답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시운의 모습에 얼굴을 구긴 은성이 시운이 들어간 곳을 노려보다가 이내 짧게 혀를 차고는 발걸음을 돌렸다. 거칠게 말에 올라탄 은성이 길게 숨을 내뱉고는 시운의 집을 떠났다. 속에서 차오르는 화를 삼키기 위해 호흡을 고르던 은성이 문득 여명을 떠올렸다. 여명과 만나던 날, 은성은 평소처럼 검은색 옷을 입으려다 화사한 여명의 옷과 모습을 떠올리며 사람을 시켜 하얀색 옷을 만들어오라고 말한 뒤 평소 입던 검은 옷을 장 안으로 집어넣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채 어색하게 여명을 만나러 온 은성을 보며 밝은 옷이 더 잘 어울린다며 환하게 웃었던 여명. 그 모습과 대비되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은성은 말의 고삐를 세게 쥐었다.

뿌리 깊은 양반 가문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은성은 본처에게 멸시받으며 온갖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집 안에서 유일하게 은성을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죽은 듯이 지내며 은성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갔다. 스스로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로는 첩의 자식이라 학문을 공부하지 못하기에 은성은 15살부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예를 시작했다. 딱히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하자. 그 생각을 안고 무예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무예를 하지도 않았기에 은성은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우연히 아버지의 눈에 무예를 연습하던 모습을 보이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상으로도 하지 못했었다. 은성이 무예를 연습하던 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은성을 불렀다. 무언가 잘못을 한 건가 싶어 잔뜩 움츠린 채 방 안에 앉은 은성에게 아버지는 다과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과를 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은성에게 언제부터 무예를 했냐며 물었다. 보름 정도... 어물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호탕하게 웃었다. 가르쳐 준 이는 있느냐? 아버지의 말에 은성이 고개를 젓자, 아버지는 더욱 환하게 웃었다. 재주가 아주 뛰어나구나. 앞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 무예에 더 열중하거라.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의심할 법도 했건만, 어릴 때의 은성

은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 무엇도 보지 못했다. 평소 자신에게 폭력을 퍼붓고 한심하게 바라보던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은 어린 은성을 무예에 더 몰두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은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본처의 아들이 은성을 시기하며 무언가 생각한다. 며칠 뒤, 본처 아들이 은성에게 다가가 무예를 가르쳐 달라 청한다. 매일 자신을 하찮은 취급하던 본처 아들이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의 무예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은성은 기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 근처는 위험하니 집 근처 산에 있는 수련장에서 수련하자는 본처 아들의 말에 은성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하며 칼을 챙겼다. 수련장에서 수련하던 중, 자신의 무예 자세를 봐달라는 본처 아들의 말에 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칼을 내려놓았다. 본처 아들이 안 되는 척 어색하게 칼을 휘두르자, 은성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제 알 것 같다며 은성에게 보여주는 척 은성이 있는 쪽으로 칼을 돌린 본처 아들이 빠르게 칼을 휘둘렀다. 칼에 가까이 있던 은성이 놀라 뒤로 물러나다 칼에 오른쪽 팔을 길고 크게 베이고 말았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은성을 비웃으며 바라보던 본처 아들은 은성을 버려둔 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비틀거리며 겨우 집으로 돌아온 은성을 발견한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차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에게서 느껴지는 멸시와 무관심 속에서 은성은 끝없는 절망을 느끼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어머니의 품에서 오열하며, 은성은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은성의 오른쪽 팔에는 긴 흉터가 생겼다. 검술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이따금 상처가 아려와 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상처를 안은 채 마지막 희망으로 본 무과 시험에서 은성은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무예 시험에서 진 사람에게 밀려 장원을 실패하였다. 부당한 세상을 원망하던 은성은 그 후로 갖은 방법을 다하여 부를 긁어모았다. 서자였으나 높은 가문의 아들이었기에 이를 악용하여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나라에게 버림받은 검술의 재능을 악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부정으로 가득 찬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은성에게 사람들은 그저 부를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자신과 어머니를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를 줄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년 후, 은성이 25살이 된 봄. 감흥 없는 표정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저잣거리를 걷던 은성은 하늘을 바라보다 제 앞에서 달려오는 누군가와 부딪혔다. 인상을 찌푸린 채 은성이 자신과 부딪힌 사람을 내려다보자, 그곳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은성의 허리춤까지도 겨우 닿을 정도로 작은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덜덜 떨며 은성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허름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몸 상태를 본 은성이 짧게 혀를 차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다. 그 순간, 누군가 달려오다 은성의 몸을 세게 치고는 황급히 도망가려는 남자아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붙잡았다. 불쾌한 눈빛으로 자신을 친 사람을 바라보는 은성에게 뒤에서 쫓아오던 남자가 다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일하던 아이가 도망을 가서 붙잡으려다가 그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남자의 말은 무시한 채 어깨를 툭툭 턴 은성이 남자아이를 바라보았다. 울음을 터트리며 바둥거리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사람을 가라앉은 눈빛으로 바라보던 은성이 짧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도망가는 것도 화나는데, 돈까지 훔쳐서 달아나? 도둑놈의 새끼야! 얼굴을 팔로 감싼 채 남자의 구타를 막던 아이는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 북적이는 사람들 중 누구도 아이를 위해 나서지 않았고, 은성 역시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누군가 뛰쳐나와 아이를 때리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이를 떼어낸 사람이 아이를 제 뒤로 숨기며 남자와 눈을 마주했다. 누가 봐도 양반집 규수라고 말하는 것 같은 비단옷을 입은 여자를 보며 흠칫한 남자가 다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를 노려보았다. 귀한 집 아가씨라도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지요. 아이 이리 주시죠. 남자의 말에 인상을 찌푸린 여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어찌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어인 일인지

는 모르겠으나 어린아이를 이리 가축 잡듯이 패다니,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잖습니까. 여자의 말에 울컥 화가 차오른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아이는 부모도 없이 버려져 있길래 저희가 데려다 돌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지 이 녀석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갔기에 저희가 잡으러 왔어요. 됐습니까? 금방이라도 손을 올릴 듯 노려보는 남자의 눈을 응시하던 여자가 뒤로 숨긴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도망갈지 고민하던 순간, 악에 받친 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키운 게 아니라 그저 노비 한 놈이 필요했을 뿐이잖아요! 밥도, 옷도 안 주고 심지어 잘 곳도 마구간에서 자라고 했으면서. 돈도 한 푼 안 주기에 지금까지 일한 값을 들고나온 것 뿐이라고요.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말을 끝낸 아이가 여자의 옷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지자,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리던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뒤로 휘청거린 여자가 뒤에 있던 아이가 다칠까 몸을 돌리고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짝 인상 쓴 채 앉아있는 여자 너머로 한 여자아이가 보자기를 들고 인파를 헤쳐 달려왔다. 여명 아씨! 여명이라 불린 여자의 팔을 잡고 일으킨 여자아이가 남자를 노려보며 외쳤다. 이 분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여요! 아씨는 이조판서 대감님의 딸이시란 말입니다! 여자아이의 말에 눈을 크게 뜬 채 당황하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의 안부를 살핀 여명이 몸을 돌려 자신을 향해 몸을 숙인 남자를 바라보았다. 제가 미리 누구의 딸인지 말하지 않은 것은, 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것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하늘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가만히 모든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은성은 여명의 말에 눈을 살짝 크게 떴다. 어릴 적 자신이 바랐던,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가장 원했던 말을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처음 보는 사람의 입에서 듣다니. 허탈하게 웃은 은성이 멍하게 바라보던 사이 여명은 아이와 시종을 데리고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무심코 따라가기 위해 발을 옮기려던 은성이 멈칫거리며 그저 여명이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조판서의 딸이라. 금방 찾을 수 있겠군. 단호하고 곧은 눈빛으로 말하던 여명의 모습을 떠올린 은성이 실소를 내뱉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작은 등에 의지한 채 은성과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마주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탁상 위에 얹어진 종이를 툭툭 두들긴 은성이 남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였다. 느릿하게 종이를 들고 접혀있는 부분을 펼치고 안을 살펴본 남자가 종이를 내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값은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최대한 빠르게 해. 은성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남자가 종이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남자의 뒤로 낮게 가라앉은 은성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절대, 그 녀석 외에는 다치지 않게 해. 특히 거기 있는 아가씨, 아니 계집종은. 의문을 담은 채 빤히 은성을 바라보던 남자가 입을 다물고 자신을 응시하는 은성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 밖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던 은성이 긴 한숨을 내뱉고는 눈을 감았다. 유달리 밤이 긴 것처럼 느껴졌다.

*

거대한 집을 감싸 안은 불길은 열기를 뿜어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매캐하게 목을 막는 연기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느릿하게 재생되며 시간을 움직이는 것처럼 풍경이 재생되었다. 두려움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순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 중 한 마디가 귀를 찔렀다.

“안에 도련님이 계셔!”

그 목소리를 기점으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불길은 위협적으로 타올랐고, 사람들의 대화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저 불길 너머에 계신 도련님을 구해야만 해.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고? 도련님을 구하면 큰 상을 내리실 수도 있잖아. 내가 죽으면 상이 다 무슨 소용이야!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길게 숨을 내뱉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신을 다독이며 몸에 힘을 싣고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뛰어들어갔다. 무어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삼킨 채 열기와 마주했다. 불이 무섭다고, 죄를 고하는 것처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했던 말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불씨가 작을 때 발견하였더라도 분명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였을 그 사람. 어릴 적 기억에 묶여 두려움 속에 빠져있을 그 사람을 구해주어야만 한다. 그 생각만이 나를 삼키고 있어, 다른 무언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

그날의 하늘은 검은빛으로 가득했고, 내 시야는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화염은 다리를 옭아매고 생각을 잡아먹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몸을 찌르고 구속하여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인다면 숨통을 끊어놓을 것만 같았다. 내가 나의 의지를 쥐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손에 놓인 동백꽃을 더 꽉 쥐는 것뿐이었다. 불길을 담은 동백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화염을 동백꽃이 다 삼켰으면 하는, 어리석은 소원을 빌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불길로 인해 흐릿해지는 눈을 느리게 깜빡였다. 몽롱해지는 기억 사이로 네가 떠올랐다.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무언가를 선물하고자 했는데. 희미하게 웃으며 동백꽃을 바라본 순간, 불분명하게 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움에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몸이 크게 흔들렸다. 뿌연 연기 너머 일렁이는 너의 얼굴이 조금씩 뚜렷해지며 불길로 인해 검게 얼룩진 너의 모습이 보였다. 입을 열어 너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었으나 입안으로 다시 삼켜질 뿐 내뱉어지지 않았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왜 이 붉은 곳에 들어왔냐고 말해야만 하는데. 입술만 달싹이는 내 앞에서 너는 울면서 내 몸을 일으켰다. 작은 몸으로 나를 안은 채 힘겹게 나를 새빨갛게 타오르는 화염 밖으로 이끌었다. 그런 너를 바라보며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들이 미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의지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에 대한 분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힘겹게 나아가는 너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무력감과 그로 인한 고통, 슬픔, 죄책감, 미안함. 뒤섞이는 감정들로 인해 울렁거림을 느낄 때 즈음, 갑작스럽게 몸이 기울어지며 열기가 가깝게 느껴졌다. 바닥에 쓰러진 채 너를 바라보자 너 역시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 네 발목에 놓인 불길에 휩싸인 나무 조각이 보였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과 어릴 적 보았던 모습이 겹쳐져 보이며 호흡이 불균형해졌다. 혼자 갇힌 채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 시절의 나와, 너와 불길의 휩싸인 지금의 내가.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나와, 나를 구하러 온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너는 나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프고, 쓰고, 예쁘고, 찬란하게 웃으면서.

“제가 도련님을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영원히 기억해주세요.”

마치 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무 목재들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쥐어 짜내듯이 너를 바라보며 속에 삼켜졌던 말들을 내뱉었다. 영원을 약속하겠다고, 너에게 사랑을 말하고 싶었다고. 너에게 닿았는지조차 불분명한 마음을 악에 받쳐 내뱉으며 너

를 삼킨 화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으스러질 것처럼 쥐고 있던 동백꽃을 품에 안고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죽어서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끝이 어떠한 비극이더라도.

*

어릴 때부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부모님의 애정, 함께 하는 사소한 시간, 진심을 담은 칭찬.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다. 원하지 않았던 돈, 명예, 권력.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날 받들게 만드는 것들만이 내 손에 놓였다. 마치 원하는 걸 앗아간 대가로 주듯이, 던져지듯이 나에게 건네졌다. 세상이 나에게 그걸 운명으로 정해놓았다면 그것에 순응해야겠지. 대신 그만큼 지독하게 대가를 받으리라. 그 생각만을 갖고 미친 듯이 재산을 긁어모았다. 어떠한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나의 부를 위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나에게 원망을 담은 목소리를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도 나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대신 다른 대가를 받겠지.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너를 얻지 못했으니, 그 대가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없앨 기회를 얻기를 바랐다.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었다. 운명의 신은 나에게 지금까지 한 악행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벌을 내리는 것일까. 난 너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닌데. 욕심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그걸 위해 한 행동이 아닌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얻은 자를 사라지게 하고자 한 것이 내가 바란 대가였는데. 왜, 왜 너를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것일까. 대가를 얻기로 결심한 이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눈물이 턱 밑까지 흘러내렸다. 뜨겁고, 맑게 흘러내리는 눈물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웠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은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구나. 허탈하게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죄하고 싶어도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곳에 있지 않구나. 느리게 눈을 감자, 눈가로 길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이 고요하게 흐르며 나를 매만지고 지나갔다.

나란히 놓인 무덤 앞에 한참을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에 내가 와도 되는지 한참을 고민하였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뒤돌아가기를 반복하다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영원히 너희에게 사죄하는 일에서 도피할 수 없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 쥔 꽃을 매만지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술을 떼고 말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너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조금이라도 씻어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이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니 이 꽃만이라도 받아주기를 바라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둘의 무덤 사이에 자주색 히아신스를 내려놓았다. 조금이라도 나의 사죄가 닿기를. 고개를 숙여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고개를 들고 꽃을 바라보았다. 나를 원망하여도, 미워해도 좋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입꼬리를 올려 옅게 웃고는 몸을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생에서는 꼭 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도할 테니, 꼭 행복하기를.

***

2018년 3월 24일, 대한민국 서울 홍연대학교.

붉은색 실로 감싼 검은색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는 작게 한숨을 내뱉었다. 감수성이 풍

부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화로군. 고개를 저으며 들고 있던 책을 거칠게 덮고는 손에 쥔 채 뻐근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기댔던 몸을 똑바로 일으키자,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에 늘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렸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다가왔네. 따스하게 제 몸을 비추는 햇빛을 받으며 가만히 책을 바라보았다. 원래 이렇게 감수성이 짙은 편이 아닌데. 봄을 타나. 시야에 가득 찬 붉은색 실에 짧게 혀를 차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알 수 없는 감정에 불쾌해져 가는 기분을 느끼던 중, 제 시야에 가득 차는 모습에 그대로 굳고 말았다. 처음 보는 사람. 새까만 머리에 하얀색 이어폰을 꽂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과 나 단 두 사람만이 남겨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영화에서나 존재할 것만 같은, 오묘하고 신비한 느낌. 그런 이상하게 오늘은 처음 보는 것들에 매료되는 날이었다. 어쩌면, 나에게도 존재할 인연이라는 붉은 실에도.

*

핸드폰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던 지연에게 누군가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들겼다. 고개를 들어 누구인지 확인한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우인 선배. 지연의 물음에 우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보이길래. 우인의 손에 들린 바구니를 발견한 지연이 우인에게 묻기 위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우인이 바구니를 들어 지연의 품에 안겼다. 당황한 지연이 눈을 크게 뜨자, 쑥스럽다는 듯 웃은 우인이 싸한 향을 내는 바구니를 가리켰다. 민트야. 예쁜 꽃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너에게 가장 주고 싶은 거라. 여전히 물음표를 띄운 채 바구니를 바라보는 지연을 가만히 보던 우인이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혹시 전생을 믿어? 우인의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짓던 지연이 이내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뭐야, 선배 생각보다 순수하시네요. 전생도 믿으시고. 혹시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건 아니죠? 생글거리며 웃는 지연의 모습에 따라 웃던 우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안 믿었는데, 얼마 전부터 믿었어. 민트를 매만지는 지연을 가만히 바라보던 우인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트의 꽃말이 뭔지 알아?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멍하니 우인을 쳐다보던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입꼬리를 올려 웃은 우인이 바구니 안에서 민트 잎 하나를 꺼내 지연의 손에 쥐여주었다.

“다시 한 번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둘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멍하니 민트 잎을 바라보는 지연의 모습에 우인이 작게 웃음을 내뱉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겠지. 과거를 아는 건 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현재를 살아가자. 우리가 정말로 운명이라면, 진실된 인연이라면. 우리의 붉은 실로 엮인 책의 끝은 행복한 결말일 테니까.

해저담

심리학과
20192140 지서이

어느 날 어른들이 사라졌다.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오래전인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티브이에서는 몇 차례 이상 기후의 징조를 보도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바닷물이 범람하여 전 세계가 서서히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다가올 재난을 대비해 빠르게 해저 도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제1 해저 도시 ‘봄내’는 물을 하늘 대신 보고 살 수 있도록 위쪽이 다 투명했다. 비가 떨어지면 투명한 하늘이 막아줬다. 우산이 필요가 없어졌다. 전기가 거의 끊겼다. 모두 외부의 주파수를 잡아 라디오를 틀었다. 보도국에서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 보도일지 모른다며 겁을 줬다. “오늘이 마지막 보도일지도 모릅니다.”를 한 열 번 들었을 때쯤, 거짓말처럼 많은 양의 물이 쏟아졌다. 예보가 맞았다. 바로 그때가 보도의 마지막이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답게, 사람들은 해저 도시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다. 한껏 쟁여둔 식량을 아끼고 또 아꼈다. 죽을 때까지 녹여 먹을 요량이었다. 해저의 마을 봄내는, 바다 위 도시의 풍경은 이제 모른다는 듯 까르르 울리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모두가 비극을 이겨낸 것처럼 굴었다. 이 정도면 희극인 것처럼 굴었다.

설사 그것이 희극이었다고 해도, 비극적 요소는 어느 극에나 존재한다. 봄내에 또 다른 비극의 막이 올랐다. 어른들이 사라졌다.

건재하던 해저 도시 안의 라디오는 어느새 끊겼다. 없어진 어른들이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버리고 떠난 어른들은 이런 즐거움마저도 전부 가져갔다. 해저 도시에 남은 청소년들은 아는 것이 없었다. 알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 외에는 살 수 있는 도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냥 어른들이 모조리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버려진 아이들은 스스로를 묶어 ‘우리’라고 칭했다. 도시의 이름도 새로 정했다. 얼마 없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니 쉽게 스며들었다. 이제 이곳은 봄내가 아니라 ‘해저담’이다. 바다 아래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곳. 봄내를 물들이던 웃음소리는 해저담으로 옮겨갔다.

◆◆◆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재난의 시발점 같은 것들을. 다만 어른들이 별안간 죽었(다고 생각하)고, 식량도 다 떨어진 해저담에서 우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만은 알고 있었다. 넓은 해저담을 돌아다니다 죽은 아이들을 보면, 권은선의 무리가 시체를 바다 위로 보냈다. 그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그렇게 해야 드디어 바다 밖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투명한 고체 하늘에 비치는 사람의 인영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길을 따라 흘러갔다고 여기기로 했다. 뭍으로 올라간 시체가 시체를 올리는 인원보다 많아졌을 때쯤, 마침내 살아남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둥그렇게 앉아 겨우 맞잡던 눈물 젖은 손이 하나둘씩 떨어져 물 위로 떠오르면, 또 남아버린 우리는 빈자리를 채

워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저쯤에 청비가 있겠지, 저기엔 차희 누나가 갔겠고. 높은 진짜 하늘 대신 깜깜한 물을 하늘 삼았더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울했다.

"불 좀 피울까?"

묵묵히 앉아있던 은석이 일어났다. 멀리 던져놓은 성냥을 가지러 갔다. 어느새 밤이었다. 시간이 무의미했다. 은석은 익숙하게 성냥을 밀었다. 금세 작은 불씨가 탔다. 은석은 우리가 만든 원 한가운데에 빨간 불을 던졌다.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은선이 바로 앉았다.

"호건이는 어디 갔어?"

"산책?"

"별……."

은선이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불 주변으로 가까이 모였다. 연지가 가져온 담요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은선의 옆을 파고들어 이불을 같이 덮었다.

해저담의 밤은 이렇듯 고요하다. 낮에는 하늘에 일렁이는 물을 보며 먼저 떠오른 친구들을 셌고, 밤에는 새빨갛게 타는 불꽃을 보며 우리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대체로 같이 잠들고, 대체로 함께 눈을 떴다. 해저담에는 "좋은 아침"이라거나 "좋은 꿈 꿔"라는 말이 없었다. 없게 되었다. 대신 "안녕"이었다. 언제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니까. 안녕. 미리 안녕. 입버릇처럼 "미리 안녕" 하던 해원은 어제 떠났다.

해저담에는 불이 타는 소리만 가득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해원과 가장 친했던 하림이 하루 사이 비쩍 말라 있었다. 어제 부표처럼 떠오르는 해원을 보고 하림은 나쁜 새끼, 난해원 개새끼, 하며 울었다. 하림의 옆에 앉은 은석이 더운물을 건네었다.

"고마워."

"찬물이 없네."

"…난해원이 다 가져갔나 봐."

하림의 음성은 착 가라앉아 있었다.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내려놓았다. 뚜껑 닫힌 물병 안에서 물이 찰랑거렸다. 오빠 이거 봐, 꼭 우리 같다. 꽉 막힌 곳에서 물처럼 고여 흔들리는 것이. 해원이는 바다를 좋아해서 벌써 가버렸나. 그렇게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더니 그 길로 영영 가버렸나. 숨이 막힐 때까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하림이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를 박았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청승이 길었다.

"야 백호건! 빨리 와, 추워!"

산책 다녀온 호건이 아리송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은선이 빨리 오라고 손짓했다. 호건은 총총 뛰었다. 곧장 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다. 밤이 추웠다. 바람도 잘 안 통하는 해저담의 공기는 늘 차가웠다. 의지할 데라곤 서로와 이 작은 불꽃 하나였다. 호건은 주로 불씨에 기댔다. 가진 것이 성냥뿐이라도 괜찮았다. 춥지 않았으니까. 은선이 호건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다. 추위도 많이 타는 게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이 좁은 곳 볼 게 뭐 있다고. 잔소리도 좀 했다.

"네 엄마."

우씨. 은선이 호건의 등짝을 때렸다. 그 주변만 웃음이 왁자했다. 잠깐이었다. 호건이 금세 얼굴에 웃음기를 지웠다.

비극의 막이 오르고 며칠이 지났는지 세지도 못할 지경이 된 해저담에는 웃음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 관객 없는 무대에 오른 배우들은 울면서 웃는 낯을 꾸몄다. 그들의 미소에는 물기가 있었다. 비극에도 하나의 달콤한 장면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의 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통했다. 아마 끝까지 그럴 것이다. 일관됨이 재미없다. 그래서 막은 오르는데 관중이 없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다. 온통 적자였다. 무얼 해도 무조건 지는 장사였다. 무대를 올린 대가가 너무 지독했다. 자주 행복을 앗아갔고, 때로는 목숨까지 요구했다.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지쳤기에 이 연극이 끝나길 원했다. 공연 기간이 감당 못 하게 길었다. 차라리 오프 더 레코드를 찍고 싶었다. 아무도 죽지 않고, 해저담이 아닌 해상의 도시에서 웃으며 비하인드를 풀어놓고 싶었다. 이때 참 힘들었지, 꼭 진짜인 것 같아서. 애써 웃으며 무마하려 들면 '그게 진짜야'하고 현실이 개입했다. 맞다. 그게 전부 진실이다. 우리가 지켜본 사실이다. 우리가 서 있는 추운 무대는 무대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이었고, 우리는 비련의 연극배우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인물들이었다. 운명이 너무 가혹했다. 어른들은 우릴 버리고 가서 잘살고 있을까? 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은 다 뒤졌어. 맞다 우린 그러기로 했지. 합리화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

호건이 답지 않게 말이 없었다. 답 없는 라디오의 버튼을 하나씩 눌러보던 연지가 슬쩍 물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그의 물음에 호건은 담요를 아예 뒤집어썼다. 가끔 이럴 때가 있었다. 연지는 그냥 '저 오빠 또 저러네' 하고 말았다. 버튼에서 자꾸 스프링 튀는 소리가 났다.

"여기 말고 살 수 있는 곳이 더 있는 것 같아."

별안간 호건이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은선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전부 호건을 주목하고 있었다.

"기차 소리를 들었어."

모두가 말을 잃었다. 기차라니. 선로 하나 깔려있지 않은 이곳에서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는 기차는 물론이고 이동수단 같은 건 정말 단 하나도 드나들지 못했다. 호건을 향한 몇십 개의 눈들이 초점을 놓쳤다. 그저 멍했다. 이윽고 은선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너 이젠 환청도 듣니? 호건이 고개를 저었다. 결백해 보였다. 그런 것 같았다.

"진짜야. 예전에 들었던 그 기차 소리였어."

"예전에 언제?"

"바다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기차가 어떻게 여기엘 와? 은선이 마른 나무판자를 불 속으로 던지며 힐난했다.

"어른들이 있을 때도 기차 같은 건 없었어.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쭉 기차는커녕 이동수단 하나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은선은 조금 화난 듯했다. 불길에 사로잡힌 판자가 까맣게 녹았다. 호건은 입 다물고 있었다. 은석이 다가와 누나 왜 이렇게 화났냐, 하고 과장되게 웃었다. 그래도 얼어붙은 기류가 풀어지지는 않았다. 싸우는 건 아니었다. 호건의 비현실적 진술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다른 아이들도 은선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 기차가 어떻게 다녀. 호건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자신의 경험담이 거짓으로 혹은 환각으로 치부되는데도, 호건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중을 알 수가 없었다. 고개 처박고 소리 없이 울던 하림이 중얼거렸다. 해원이도 기차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개미만큼 작은 목소리여서 아무도 듣지 못했다. 느닷없이 은선이 호건을 발로 뻥 차버렸다. 벌러덩 드러눕게 된 호건이 의문 가득한 얼굴로 은선을 쳐다보았다. 은선이 호건의 어깨를 축으로 널브러진 담요를 더 견고하게 말았다.

"헛소리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헛소리 아닌데…."

"헛소리 맞아. 그니까 빨리 자."

은선이 고개를 숙여 호건의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였다. 희망 같은 거 심지 마.

호건의 말이 신뢰를 얻게 된 것은 그다음 날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석이 우리의 원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연지가 나누어준 담요를 둘렀다. 일찍 불을 피워 그런지 어제보단 덜 추웠다. 이 시간이 되면 늘 먼저 말문을 텄던 은석이 오늘따라 조용했다. 은선이 연지를 끌어안고 담요 위로 누웠다. 올려본 하늘은 오늘도 새까맸다. 물의 일렁임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권은석, 자?"

은선이 허공에 대고 물었다. 어차피 은선이 못 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은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오늘은 왜 조용해?"

"그냥……."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눈치 빠른 은선이 몸을 뒤집어 누웠다. 상체를 반쯤 들고 팔꿈치로 바닥을 받쳤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은석을 쳐다보았다. 역시 피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나 은석은 은선의 눈을 피하며 어른스러운 척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을 은석은 종종 어른스럽다고 표현했다.

"없었어."

은석이 담요를 끌어 올려 얼굴을 덮었다. 은선이 눈을 치켜떴다. 너 오늘 이상해. 은석이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다. 별다를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선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은선은 은석이 말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궁할 기세였다. 호건이 그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은선이 참을성 있게 열 번쯤 물었으나, 은석은 번번이 대답을 피했다. 결국 은선이 그가 덮고 있던 담요를 억지로 끌어 내렸다. 은석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들었어."

"뭐?"

순식간에 사방이 고요해졌다. 은선이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다. 뭐라고? 아직 무슨 의미인지 파악 못 했다. 은석이 벌떡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나 오늘 기차 소리를 들었어. 아니, 기차를 봤어.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해저담을 지나가는 기차가 있다고 누나. 근데 누나가 어제 호건이 형한테 그랬잖아, 희망 심지 말고 자라며. 그래서 난 그냥 자려고 했어. 그냥…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건 줄 알기로 했단 말이야."

은석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생각의 정제를 거치지 않고서. 그러므로 두서없었다. 담요로 몸을 둘둘 말고 있던 연지가 얼굴만 쏙 내놓았다. 내일은 당장 권은석 줄 약 찾아와야겠다, 언니. 연지는 약이란 게 없는 해저담에서 그런 말을 농담처럼 했다. 약이 없었기에 가능한 것일지도 몰랐다. 은석이 거봐, 하며 도로 누웠다. 안 믿을 거면서, 왜 말을 하래? 불만 가득한 것을 티 내기라도 하듯 절로 볼이 빵빵해졌다. 해저담의 아이들은 어제처럼 "그래, 기차가 어떻게 다녀," "은석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했다. 익숙한 치부였다.

해저담을 채우던 야릇한 분위기는 빠르게 환기되었다. 어떤 과거에도 구속받지 않는 우리의 특성이 한몫했다. 이쯤이면 정말 깜깜해졌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얇은 담요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바로 백호건과 권은석의 말이 더는 환상이 아니게 된 시점. 오늘 해저담의 마지막에는 메마른 땅이 짓눌리는 소리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진동, 그리고 점점 우리의 눈앞을 밝히는 하얀 빛이 있었다. 누워있던 우리는 마치 짜기라도 한 듯 함께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거봐."

은석이 주먹을 꽉 쥐고 입꼬리를 양쪽으로 당겼다.

"거봐, 권은선. 내가 봤다고 했잖아."

죽어가는, 외로운 우리의 눈앞에 물이끼가 낀 열차가 선로 없이 정차했다. 지나온 자리를 알려주듯 바퀴 모양이 난 자리에 물이 고여 있었다. 은석이 마침내 웃었다. 호건이 형이, 내가, 있다고 했잖아. 기차.

◆◆◆

현실과 극(劇)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연극은 막이 내리면 죽어버리고, 다음 날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전날 사망한 그 연극을 모방한다. 이것이 현실이 극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쳇바퀴 돌 듯 어제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만, 어제를 따라 하지는 않는다. 어제 했던 일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해내고 만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은 새로운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 비현실적 요소의 유무도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러한 요소는 이름 그대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거의 없고 극에서는 거의 구현 가능하다. 보통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불길한 징조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극으로 가면 그 비현실이 오롯한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그들 삶의 한 요소일 뿐이다.

해저담의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으나 극의 배우인 줄로 안다. 계속 그런 줄로 착각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저담은 그저 무대의 배경일 뿐이다. 메소드 연기가 이런 것일까. 우리의 밤은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갈수록 죽어가는 우리는 어제와 같지 않다. 또, 해저담은 이미 재난이기에, 우리는 기차의 등장을 불길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마땅한 길도, 선로도 놓이지 않은 바다 아래의 마을에, 물에 흠뻑 젖은 열차가 들어섰다. 문장으로 나열하여도 역시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현실과 비현실이 서로 치열하게 머리를 디밀고 있는 거였다. 결국 해저담과 그곳의 우리는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도, 극이 되기 위한 조건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현실이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해저담은 극 중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단지 연기를 하고 있는가. 현실을 살고 있나.

이렇게 해서는 현실과 극을 분리할 수 없다.

물이끼를 잔뜩 뒤집어쓴 3량 열차의 외관은 고즈넉했다. 증기 기관차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까만 증기가 분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동력을 얻는 장치는 증기 기관이 아닌 듯했다. 선로도 없이 달리는 것이 무엇인들 불가능할까. 아직 아무도 열차에 타지 않았으나, 우리는 가끔 기차를 보기 위해 정차역으로 나갔다. 애매하게 3량인 것이 묘하게 웃겼다.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된 그 날부터, 열차는 며칠 간격으로 해저담에 정차했다. 그날 은석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나무 막대를 땅에 꽂고 이곳이 해저담의 유일한 역사(驛舍)라고 정의했다. 주변은 휑뎅그렁했으나 편의상 '역사'라고 말했다. 열차는 약 하루 동안 해저담에 머물다 미련 없이 떠났다. 우리에게 만 하루의 상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이 기차를 타고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동시에 어떤 행운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살 수 있는 곳은 해저담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타의로 멍청했다. 도망친 어른들이 죄책감에 기차를 보낸 것일까? 우리의 눈과 귀를 모두 막아두고, 우리가 저걸 탈 것으로 생각한 건가. 해저담을 무지(無知)로 물들여 놓고.

해저담의 우리는 아둔함을 탈피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 중 몇 명을 뽑아 선발대로 기차에 태웠다. 기차 너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자원한 이들이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모험을 좋아하고, 불행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표한 아이들. 거기에는 하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혹시 도착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도망쳐 이곳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해저담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면, 기차 안에 그곳의 물건 하나를 던져놓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기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모험을 걸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을 잘 알아둬야 해. 은선이 선발대 아이들에게, 특히 믿을만한 하림에게 신신당부했으나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었다. 돌아온 기차에 선발대가 몸을 싣고 떠났다. 해저담에 몇 개의 숨이 떠났다. 은석은 계속 해저담에 불을 피웠고, 연지는 담요를 나누었고, 은선은 남은 물을 관리했고, 호건은 우리의 근거지 근방을 정찰했다. 며칠 뒤, 기차가 다시 도착했을 땐 선발대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았다. 그러나 다른 물체도 없었다. 이래선 선발대의 근황과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는, 떠날 땐 3량이었던 기차가 돌아왔을 땐 2량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용인원이 줄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을 들먹이는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엉엉 울었다. 기차에 타고 싶다고 마구 졸랐다. 이거 타면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다 은석아 너도 알지. 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 어쩌고저쩌고. 다들 비슷한 사연을 팔았다. 몇 날 며칠을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으니 레파토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 해저담에서 가장 주도적이었던 은석과 은선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몰렸다. 얼떨결에 책임을 전가 받았다. 판단을 잘해야 했다. 은선은 그때 잠시 당황했다. 나도 살고 싶은데 얘들아.

"우선… 우린 이번에 다 못 타. 아마."

"이번은 보내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

은석이 거들었다.

"다음 열차가 똑같이 두 칸일지, 아니면 한 칸으로 줄어들었을지 어떻게 알고 그냥 보내?"

생존에 눈이 먼 아이들이 다 같이 반발했다. 듣고 있던 연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은선이 한 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선발대가 타기 전에 아무도 타지 않은 기차는 그대로 3량이었어. 기억나? 계속 그대로 세 칸이었다고. 우리 중에 누구도 타지 않으면 기차의 칸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장담해."

은선은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정말 그렇게 보였다. 은선의 말에 아이들이 조금 주춤댔다. 은석이 옆에서 덧붙였다. 지금 이 열차는 그냥 보내고, 다음에 온 게 한 칸이 줄어있으면 나는 안 탈게. 파격적인 발언이었다. 은선이 그를 홱 돌아보았다. 너 미쳤어? 음성으로 듣지 않아도, 은선의 형형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었다. 은석이 넉살 좋게 웃었다.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홀로 서 있는 기차를 뒤로하고 아이들이 등을 돌렸다. 그날 기차가 떠난 것은 평소보다 더 일렀다.

"은석이 형, 태허 형 어디 있는지 알아?"

불이 꺼진 해저담. 빈 기차는 떠나고 모두가 눈을 뜰 때쯤, 은석의 왼쪽에 앉아있던 해서가 조용히 물었다. 은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야 이연지야 깼냐. 어. 너 태허 형 봤냐. 담요 깔고 누운 연지가 고갤 저었다. 그 오빠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 해서가 "그렇구나" 하고 말았다. 연지의 옆에 있던 은선이 물었다.

"한태허는 왜?"

"어제… 산책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

해서가 고개를 모로 기울였다. 의아함이 담겼다. 얘기를 들은 은석과 연지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밤에 주변 다녀봤어? 응. 어디서 죽었나? 근데 역 있는 데까지 다 봤……,

"헐,"

미친.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해서가 고개를 번뜩 들었다. 아, X발. 이 미친, 미친 형. 미친 새끼…. 진짜 설마. 연유(緣由)를 알 수 없는 비속어를 잔뜩 흩뿌려 놓은 해서가 상체를 쓰러트려 드러누웠다. 은석이 해서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왜, 뭔데. 해서는 벌써 아예 정신을 놓은 것 같았다. 설마? 이 미친 새끼가 진짜로. 눈을 감고 비속어를 섞어 중얼거리는 모습이 낯설었다. 마침내 해서가 상체를 말아 쿡쿡 웃어 재꼈다.

"이 형 기차 타고 간 거 아니야?"

해저담이 순식간에 얼었다. 막 일어난 아이들이 해서의 말을 듣고 얼었다.

두 칸짜리 열차를 등지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때, 태허는 자꾸만 기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태허의 팔을 잡고 끌다시피 가던 해서가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억지로 태허의 고개를 돌렸다. 형, 며칠 늦게 간다고 해서 죽진 않아. 태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건 또 모른다 표해서야. 나 그냥 몰래 확 타 버릴까? 해서가 태허의 팔뚝을 찰싹 때렸다. 미친 소리 하지 마, 형. 지금 안 가도 안 죽는다고. 정신 차리자, 어? 태허는 따끔한 팔을 살살 문지르며 따끔한 해서의 말을 새겨들었다. 그런 것처럼 보였다.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한 것이, 정말로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산책을 가장하여 모두를 속인 뒤 몰래 기차를 타고 훌쩍 떠나버렸다니. 기가 막혔다.

"…그럼, 다음 기차는 한 칸이라는 거잖아."

누군가의 발언으로 어색한 기류마저 흘렀다. 더 진행될 곳 없는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해저담에, 마지막 재앙의 닻이 올랐다. 적신호였다.

한태허가 혼자 기차를 타고 떠났다. 해저담을 배신하고 도망쳤다. 해서의 가정을 사실로 만든 것은, 은석과 호건이 함께 한 해저담 정찰이었다. 태허의 낡은 운동화 자국이 역에서 끊겨 있었다. 돌아와서는 전부가 멍했다. 한태허는 그럴 만한 새끼라며 호건이 이를 갈았다. 태허와 가깝게 지냈던 해서는 문득문득 욕지거리를 뱉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재난이라고 믿고 싶었다. 재난_최종_찐최종_진짜마지막_이거진짜최종.mp4 같은 상황이었다. 은선과 연지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남은 인원과 수용인원을 맞춰 아이들을 태워 보내야 했다. 모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누군가는 "한태허 이 배신자 새끼 만나면 죽이고 본다"며 분노를 표했다. 모두가 이해 가능한 격노였다. 태허의 독단적 행동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였던 단 하나의 씬에 브레이크가 걸려 덜컹댔다.

은선과 연지, 은석, 호건이 계획을 짤 동안, 삶에 눈이 먼 아이들은 이성을 잃어갔다. 수용인원이 부족할 거야. 우리는 다 못 타. 한 명의 발언으로 눈이 반쯤 돌았다. 누군갈 죽여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 곧장 재난의 연장선이었다. 실제로 몇 명이 사라졌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맞았다. 여러 명이 합세하거나, 혼자서 몰래 한 명을 죽이고 조용히 바다 위로 올렸다. 피를 닦지 못해서 들킨 이도 있었고, 피가 튀지 않도록 목을 졸랐기에 들키

지 않은 이도 있었다. “어디 갔어?” 하고 물으면 “안 보이던데”가 대답의 전부였다. 해저담의 마지막 비극에선 안 보인다는 말이 죽었다는 것과 통용되었다. 동시에 발화자가 그를 죽였다는 뜻도 되었다. 이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비극이었으나, 우리는 파산이 눈앞이다. 기차는 이틀 뒤에나 온다.

◆◆◆

연지가 역 근처에 쪼그려 앉았다. 남아 있는 태허의 발자국을 한참 바라보다가, 발로 그의 마지막 자취를 지웠다. 배반자의 흔적이 보이면 감정의 동요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었다. 미친놈, 이왕 간 거 잘살든가 곧장 죽든가. 생각하며 헛웃음을 쳤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도 오는구나. 마음에 남은 응어리도 다 쪼개어 털어냈다. 뒤를 돈 순간, 연지는 바닥에 나뒹굴게 된다. 단말마의 비명이 울렸다.

“너도, 너도 죽어야지!”

연지를 몰래 뒤따라온 상도가 확 덮친 것이다. 상도는 그가 상도덕이 없다고 해서 상도 빼고 다 아는 그의 별명이었다. 상도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 연지의 위에 올라타 몰래 가져온 날붙이를 들이밀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맨날 붙어 다니는 권은석도 마음에 안 들고, 네가 권은선이랑 친한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상도가 살기 가득한 눈을 하고 마구 지껄였다. 두꺼운 손으로 연지의 목을 꽉 졸랐다. 동시에 날카롭게 갈린 날붙이를 연지의 복부에 가져다 댔다. 연지가 꽉 막힌 기도(氣道) 틈으로 간신히 숨을 터트려 기침했다. 연지의 기침 소리는 그저 백그라운드에 깔린 효과음일 뿐, 큰 의미를 띠지 못했다. 죽어버려, 너. 너도 나쁜 새끼야. 너도 똑같아. 상도의 말은 지리멸렬했다. 상도가 손에 힘을 실어 얇은 피복을 가르고 살을 헤치려는 순간, 연지가 간신히 그의 뺨을 쳤다. 상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몇 초 뒤 다시 마주한 상도의 눈에는 더 농도 짙은 살의가 있었다. 상도가 욕지거리를 뇌까리기 시작했다.

“야, 안 떨어져?”

상도가 손을 높이 치들고 연지를 찌르려 하는 순간, 어느 틈에 다가온 은석이 상도에게 주먹을 갈겼다. 순간적인 강한 힘에 나가떨어진 상도가 고통에 신음했다. 숨통이 트인 연지가 괴롭게 기침했다. 호건과 은선이 함께 달려왔다. 함께 연지를 일으켜 자리를 옮겼다. 눈물이 맺힌 연지의 눈에 공포가 가시질 않았다. 상도의 손자국이 평생 목에 남을 것만 같았다. 은석은 미친 척, 상도의 위에 올라타 그를 무차별적으로 팼다. 너나 죽어, 너나. 너부터 죽어. 먼저 죽어 봐. 은석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말을 뱉었다. 이러다 영영 정신을 놓칠 것만 같았다. 아무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상도가 피를 뱉었다. 은석의 낯에 피가 튀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은석이 손을 놓고 떨어졌다.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바닥을 구르고 누운 상도를 가볍게 차며 몸을 일으켰다. 이건 정당방위다. 정당방위. 사실 이곳에서 법 따윈 필요가 없었으나, 은석은 애써 합리화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다 죽어버려. 다 뒤졌으면 좋겠다고 너희들. 상도가 패배감에 찢어질 듯한 데시벨로 괴성을 질렀다. 아마 이연지를 죽이지 못했다는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무력한 내가 죽겠구나.

은석이 뒤돌아 세 걸음 내딛자마자 뒤에서 기이한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찔리는 소리, 사람의 마지막 신음. 아마도 상도가. 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엮이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관했다.

은석이 돌아온, 좁아진 반경의 해저담에서 연지는 아직도 손을 떨고 있었다. 은석은 입을

다물고 피를 닦았다. 얼굴에 자꾸 상도의 흔적이 번졌다.

해저담은 단단히 미쳤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던 아이들의 성질이 변모했다. 은선은 그러한 사태로 몇 번 눈물을 보였다. 연지가 알았다. 연지는 울지 않는 척했으나 가끔 눈가가 촉촉했다. 은선과 호건이 알았다. 호건은 눈을 호랑이 같이 치켜뜨고 자신과 은선을 지켰다. 은석은 연지의 옆에 있었다. 모두가 알았다. 다들 죽지 않기 위해 거의 밤을 새웠다.

중첩된 우리의 비극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만약 이것이 연극이었다면 커튼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았을 테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그저 바라고 바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모두 기차를 타고 해저담이 공간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가 마지막 장면일 것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전부 열차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 아포칼립스에서 살인극으로 변질한 이 무대가 과연 평화로 끝맺어질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했다.

상도는 그날 이후로 홀연히 사라졌다. 연지는 금세 정신을 차렸으나, 은석은 내내 얼빠져 있었다. 호건이 그를 겨우 붙들었다. 그 뒤에도 몇 명이 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민함은 하늘을 찔렀다. 계산이고 계획이고 할 것 없이 시간이 날랐다. 어느새 기차가 도착하는 날이 되었다.

"오늘이다."

"……."

"뭐가?"

"기차."

아이들의 말이 허공에 떠돌았다. 해저담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다. 사라진 지 꽤 되었다. 아마 그 기점이 기차였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열차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도 몰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시간이 찼다. 메마른 땅이 짓눌리는 소리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진동, 그리고 우리의 눈앞을 밝히는 하얀 빛이 익숙하게 밀려 들어왔다. 고작 한 칸만을 달고 온 것이 꽤 요란하게 정차했다. 아이들이 역으로 달려갔다. 서로 탑승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다. 그 축에는 은석과 은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도 살고 싶다니까….

"이연지, 안쪽으로 들어가."

은석이 연지를 열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연지가 떠밀려 갔다. 호건이 연지를 따라 들어갔다. 출발하려면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을 텐데, 벌써 자리가 꽉 찼다. 기차 내부는 생각보다 빈약했다. 앉을 자리도 몇 없을뿐더러 마땅히 설 자리도 거의 없었다. 보는 것보다 훨씬 좁았다.

이전부터 그 누구도 은선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시선이 권한을 부여했다. 막중한 책임감이 은선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은선은 아이들이 모두 탄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열차에 올랐다. 내부가 미어터질 듯했다. 이제 마지막 테이크인데, 정말 그럴 것인데. 끝까지 쉽지 않았다. 해저담의 모든 숨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기차는 벌써 출발할 준비를 했다. 좁아터진 열차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혔다. 문이 몇 번씩이나 닫히려다가 도로 열렸다. 과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같았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은선이 크게 숨을 내쉬었다.

"권은석!!!"

출발하지도 못하고 삐걱대는 열차 가장 끝에, 은선과 함께 서 있던 은석이 돌연 흙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꽉 찬 틈으로 그걸 본 연지가 소리 질렀다. 움직일 수는 없었다. 연지의 비명과 같은 소리에 모두가 열차 밖을 쳐다보기 위해 고갤 돌렸다. 중량이 조금 가벼워지자 기차의

문이 닫혔다.

"언니!"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은선이 그 사이를 지나 은석이 있는 쪽으로 뛰었다. 기차에서 내린 두 명이 결국 해저담의 희생양이 되었다. 제물을 자처했다. 이 고통 같은 현실을, 연극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한 제단에 올랐다. 기차가 움직였다. 호건과 연지가 창문에 붙어 그들과 연결된 시선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은선이 애써 웃었다. 우리는 이렇게 종결 날 것이다.

"누나는 왜 내렸냐."

"너는 왜 그랬는데?"

함께 살던 모두가 떠나고 둘만 남은 해저담. 항상 불을 피우던 자리에 불을 피운 은석이 은선의 옆에 가 앉았다.

"나는 안 가도 상관없었어."

은석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은선도 마찬가지였다. 은석이 헛웃음을 쳤다. 되게 사이좋은 남매인 줄 알겠네, 누가 보면. 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건 그래. 실속 없는 대화가 오갔다. 은선이 물병에 남은 것을 전부 버렸다. 바닥이 금세 물을 다 빨아 마셨다.

"잘 살겠지?"

내가 여기 남은 보람은 있겠지. 은석이 그대로 드러누우며 물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답을 몰랐다. 기차를 타고 어딜 가 본 적이 있어야지. 은선이 체념한 목소리로 "글쎄다" 하며 누웠다.

'해저담'은 결국 평화롭게 끝날 것이다. 살인극으로의 전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생(生)을 버린 두 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던 것은 공백의 해저담이었으나, 해저담은 두 개의 숨을 머금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결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에 속하는 이들이 두 명보다 많으므로. 해저담은 소음도 소란도 없이 조용했다. 은선과 은석은, 그저 고요히, 그들의 말로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밤이었다.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판타지의 유무라고 했던가. 해저담은 아직도 그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져 있었다. 남매가 오붓하고 평온하게 삶을 마감했다면 그것은 완연한 현실이 된다. 그러나, 이들을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비현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떠난 연지가 계속 만지작거리던 고장 난 라디오에 거짓말처럼 전원이 들어왔다. 스프링이 튀는 소리도 없었다. 은선과 은석이 귀 아픈 잡음을 청취했다. 작은 소식의 발로가 번쩍였다. 이것이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희망의 씨앗 정도는 되었다.

두 명의 눈이 감기며, 마지막 암전이었다.

전장으로부터

융합인재학부
20186524 최윤하

나는 이 편지가 너에게 가지 않길 바란다.

이 편지는 나의 생애 마지막 육성일 것이며 나의 삶을 옹호하는 마지막 문장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만약 아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차가운 긴 총대가 쏟아내는 작지만 뜨겁고도 강렬한 검은 탄환에 찢긴 후일 것이라 예상한다. 나의 마지막은 아마 여전히 붉게 물든 들판에서일 것이며 죽음의 순간에서도 누군가의 숨통을 죄려 노력하는 한낱 악한 전쟁광의 모습을 띄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 마지막 글을 쓰는 이유는 단지 나의 전보로서가 아니며 또한 내가 생애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들의 나열을 위해서가 아님을 알려둔다. 나는 그저 글을 쓰는 지금도 하염없이 번쩍이는 막사 뒤의 현장과 인간의 감춰두었던 암담한 본성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쓰고자 하는 것이다.

아들아, 일단 나는 열일곱 명을 죽였다. 그 중 다섯은 총으로, 또 열은 수류탄으로, 남은 둘은 칼로. 물론 열일곱은 내가 눈을 뜨고 그들의 죽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지, 두 눈을 꼭 감은채로 휘갈겼던 총알에도 대여섯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깨지 못하는 영원의 시간을 주며 했던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다. ‘안타깝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은 그저 사치스러운 것이었을 뿐이며 난 우리 어머니의 흰 쌀밥과 다 늙은 얼굴만 보고픈 생각뿐이었다. 아들아, 여기서 나의 행동과 본성을 추악하고 잔인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때의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지친 상태였다.

처음 작전에 투입한 날은 내 생애 가장 잊을 수 없는 역겨운 날이었다. 내 첫 임무는 함경도 어느 마을 뒷산까지 전진하는 것이었다. 말이 전진이었지 이는 그 마을을 휩쓸어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서울을 다시 수복하여 한창 사기가 잔뜩 오르고 반공 하나만을 내세우며 총을 휘갈겼단다. 나는 처음 쥐는 총대를 그저 등신같이 어깨에 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쏠 사람이 있어야 쏘는 것인데, 그 날 내 눈 앞에는 그저 어린 계집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실성한 모습뿐이었다. 모퉁이에는 우리 군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반공만세’,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하는 외침들도 있었지만 이들도 검은 탄환의 포효에는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혔던 것이다.

아들아, 너도 알겠지만 나는 장사를 위해 함경도라면 진절머리가 나게 갔었단다. 그 마을도 내가 가본 마을 중 하나일 것이 분명한데 내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피와 불로 붉다 못해 사라질 것 같은 이 마을은 없었다. 그렇게 총구를 세우지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분대장은 나를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정신 차리라며, 너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며 묻더구나. 내가 아니라니 그럼 이 빨갱이 사내새끼를 쏘라며 언제 데리고 온 앳된 얼굴의 소년을 내 발 아래에 꿇어 앉혔다. 기껏 해봐야 열 살 정도, 딱 네 또래이겠구나 싶었다. 나는 차마 그를 쏘지 못하겠다했지만 분대장은 내 손위에 구약성서에 나오는 간사한 뱀의 혀 같은 자신의 손가락을 걸쳐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곤 빨갱이를 죽였다며 호탕하게 웃는데, 세상 남은 일 중에 이보다 역겨운 일이 더 있을 수 있을 까 생각이 들었단다. 하지만 다른 이들 눈에는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제 할 일을 한 자랑스러운 우리 군이었다.

난 열댓 소년이 공산주의자라 생각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를 죽인 이유는 아마 분대장

마음속에 강렬히 피어난 살육의 불꽃 때문일 뿐 아니라 벌겋게 물든 마을 어귀의 형상도 한몫 했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나는 첫 번째 '애국 행위'를 했단다.

하지만 전쟁 통에 세 달 째 있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구나. 그때까지 총 여섯을 죽였고 난 게릴라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총소리를 헤치고 전진했다. 마침내 새벽이 오고 두 진영은 계속되었던 총질을 잠시 누그러뜨린게지. 우리가 서로 그만하자. 쉬고 내일 다시 전투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언의 움직임과 신호로 우리는 스스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만들어갔던 것이었단다. 물론 해가 떠오르면 다시 총질을 퍼붓고 서로를 향해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짧은 눈 맞춤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지만 말이다. 그 순간에는 누구도 그 약속을 깨려 하지 않았고 그 순간은 함께 쉬고자 했단다. 앞서 말했듯, 우린 너무 지쳐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직접 겪어 고통스러웠다. 그 짧은 적막을 깬 건 너도 알고 있듯이 나였다. 물을 마시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뗀 내 눈에는 이 백보 밖 상대 진영이 피운 모닥불이 보였다. 모닥불 이래봐야 겨우 가스라이터 불꽃만한 크기였지만 그걸 주위로 둘러앉아 '집에 가고 싶다', '가족들이 무사할까'며 대화를 나누는 그들에게서 나는 뜻 모를 열을 느꼈고 이는 이내 공포심과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곤 내 품에서 작은 수류탄을 꺼내 그들 사이로 던졌고 이는 또 시작되는 치열하고 끝없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잠시 쉬어볼까 눈 붙이던 군인들, 총대를 내려놓은 군인들은 모두 정신 차리느라 바빴고 고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후에 우리 부대가 승리하고 나의 수류탄은 용맹함과 반공의 표상으로 나는 상까지 받지 않았더냐.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상을 받을 때 창피하고 얼떨떨한 감을 느꼈겠지만 그때 나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고 나는 이를 정당하다고도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수류탄을 던진 이유는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일 것이다. 상을 받은 후로 나를 무시하던 분대장의 태도도 바뀌더구나.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길렀다며 나를 자랑스럽다하는데, 정말 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난 더 호랑이처럼 살려고 애썼고 점점 감정도 잃어갔고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전장에서의 나는 마치 전쟁을 위해 태어난 전쟁광처럼 보였을 것이고 나의 이런 추잡한 변화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풀이하거나 약탈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 느끼는 감정은 희열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이니 나의 육신과 정신 모두 피폐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 들었다. 또한 죽음을 선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다보니 정작 그 전쟁 통 속에서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없었고 우월감만 들더구나. 아, 그럼에도 내가 감정을 느꼈던 건 어느 눈 덮인 마을에서였으니 한 예닐곱 달 전쯤 일 것이다. 여느 때와 같이 마을을 불 지르고 청년들은 모두 매질하며 심문하고 있는데 한 과부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기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달라며 울더구나. 순간 나는 마음에 물결이 이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를 군인으로서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북쪽 가장 추운 수용소로 데려가라 명하고 내 바짓가랑이를 잡은 과부의 손을 내쳤다. 솟아오르는 피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장갑차에 태워져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니 실성한 듯 뛰어가더구나. 그때 나는 무슨 오기에서인지 과부를 칼로 베었다. 그 과부의 외침이, 아들을 향한 눈물이 나에게는 한없이 부러운 것이었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혹여 나에게도 전해질까 두려웠었다. 나는 그 날의 기억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하느님을 뵐 때에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제 기계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국가가 바라는 전사의 형상을 띄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쓰레기 같은 짓은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분대장의 모습을 본받

아 따라 했던 일이다. 그는 전투에 나가 살육을 하고 돌아온 후 늘 손을 깨끗이 씻고 성호를 세 번 그은 후, 하느님께 꼭 '신이시여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고백했다. 그리고는 꼭 클래식 한 곡을 들었다. 딴에서는 분대장 자신도 배운 지식인으로서 방금 전까지의 총질은 순수한 신념의 표현 방법이었을 것이고, 신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클래식을 들었다는 것인데, 폭탄이 떨어지고 총구에서 발사되는 탄환의 울음과 뒤섞인 그 까만 라디오서 나오던 클래식이 얼마나 모순이었는지 모른단다. 곱상한 척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자 틀은 음악에는 그 본연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그저 육신만 남은 악마의 귀에 아첨하는 달콤한 속삭임만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존경했고 나도 꼭 그처럼 따라했다. 방금까지 피칠갑을 하고 총을 갈기던 군인에게 베토벤이라.....이 또한 역겹다.

이렇게 나 역시 구제할 수 없는 쓰레기였고 그때의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에는 아들, 네가 있는 고향 때문인 것 같다. 나 같은 인간도 인간인지라 생사람을 잡고 그들을 찢어 놓고도 남은 가족 소식이 두렵더구나. 남쪽 마을 하나가 폭삭 주저앉았다니 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바들바들 떨렸으니 이는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은 아닐 것이요. 단지, '내 사람들'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다. 참 웃기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는 내가 '내 사람들'이라니..... 결론은 너희가 궁금하여 나는 부대를 새벽에 탈출했고 쉼 없이 달려서 파주의 한 마을에 도착했다. 사실 나의 도망침에는 가족이라는 변명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피비린내가 지겨웠고 잠을 자지도 못하는 공습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뿐 일수도 있다. 암튼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 이 거지꼴의 군인을 남아있던 마을사람들이 데리고 갔고 난 꼬박 사흘을 잠들어 있다가 깼다고 한다. 내가 일어나자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나를 측은하게 여겼는지 남은 식량을 내오더구나. 자기들 먹기 바쁜 와중에 자기 이웃을 죽이던 군인에게 대접을 한다니 난 처음에 독이라도 탄 줄 알고 입에 대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리를 피해주었고 나는 죽어도 때깔 좋게라도 죽자며 찐 감자를 입에 우겨넣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다시 우리 집으로 걸음을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지 않느냐. 이 와중에 자신의 진영을 이탈한 나는 빨갱이가 되어 수소문으로 찾고 있다더구나. <무장한 빨갱이가 남으로 내려가는 중>.나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만 이 총만큼은 내려놓지 못 하겠더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죄는 포위망은 좁혀오고 나는 남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결국 총을 내려놓았다. 그때의 감정은 너무나도 가벼웠다. 내려놓으면 위험할 줄 알았던 것이 나를 진정으로 평화의 길로 걷게 하는 것 같더구나. 덕분에 나는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상도 받은 일류 군인'이라 그런지 나는 발악 끝에 잡혔고 여러 수난과 고문을 당하며 공산주의자로 추궁을 당해야 했다. 왜 탈영했는지 묻는 대대장의 말에 가족의 안부가 궁금했다라고 답하니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증스럽고 역겨운 표정으로 나에겐 그런 걱정도 할 수 없다는 비웃음만 되돌아왔고 나는 다시 총대를 들어야만 했다.

이 끝없는 살생의 현장을 언제쯤 벗어나 너를 한 번 더 볼 수 있나 궁금도 하다만은, 이는 내가 저질렀던 악함의 과업이요, 죽은 망령들의 마지막 입김이라 생각이 들 뿐이다. 아들아 나는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나의 손에 죽어나간 생명들과 나의 내면에서 썩어간 내 영혼을 생각해서도 나는 죽어도 죽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국 은 탄환에 몸이 찢긴다 해도 너는 나를 쏜 그를 원망하지마라. 나는 그 죽음조차 받아들일 것이며 나의 과거의 추악함을 사죄하러갈 구원의 총소리로 느낄 것이므로.

내가 너와 남겨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한이지만 만약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면 너 조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무정한 나를 욕되게 생각한다면 불꽃 속으로 내 남은 영혼의 목소리마저 태워주길 바란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애비가.

밤의 고아

언어청각학과 청각학과
20163951 전은진

지현 누나가 ABC초콜릿을 건넸다. 지현 누나는 나와 주은이의 어깨를 두드리고 골목길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향했다. 나는 초콜릿을 입 속에 넣었다. 우리는 들킬 때를 대비해 항상 시간차를 두고 들어간다. 적당한 틈을, 우리는 초콜릿을 입 속에 넣음으로써 보낸다. 같은 패밀리지만 물건에 손을 댈 때면 모르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우리는 항상 그래왔다. 우리는 이것을 암호로 특산물이라 불렀다. 특별한 산책의 물건. 나는 초콜릿을 깨물어 먹기 시작했다. 초콜릿은 달달함 끝에 씁쓸함을 남겼다. 주은이가 입을 벌려 자신은 초콜릿을 다 먹었음을 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까만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지현 누나는 안쪽 진열대에서 알바생을 부르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막 나온 알바생은 우리를 보지 못한 채 지현 누나 쪽으로 갔다.

"편의점 라면은 다섯 개씩 묶어서 안 팔아요?"

알바생은 지현 누나의 황당한 질문에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CCTV를 살폈다. 천장 구석에 한 개씩, 총 두 개가 달려 있었으나 우리를 포착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건 더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손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마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자 진열대로 자리를 옮겼다. 가득, 그러나 티 나지 않게 안쪽에 진열된 과자를 챙겼다.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게 낱개로 포장된 과자 위주로 주머니에 넣었다. 주은이는 능숙하게 껌과 사탕까지, 종류별로 골라가며 담고 있었다. 지현 누나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살게요."

지현 누나의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와 벽을 붙잡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과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면봉이 있었다. 긴장한 탓에 과자 옆에 있던 면봉까지 챙긴 모양이었다.

"급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주은이는 가방을 열어 가져온 과자와 사탕, 면봉을 챙겼다. 잠시 뒤, 편의점에서 나온 지현 누나가 라면 봉지를 흔들며 인사했다. 다시 모인 우리는 편의점과 반대쪽으로, 집으로 향했다.

지현 누나가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다. 빨래를 하던 소정이가 비누를 손에 든 채로 우리를 반겼다. 지현 누나는 겉옷도 벗지 않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너무 많아."

"라면 양이 많은 거라 생각해."

소정이는 싱거운 라면은 질색이라며 투덜거렸다. 지현 누나는 라면 3봉지를 한 번에 넣었다. 라면 끓는 소리에 자꾸만 침이 고였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에 들어갔던 주은이가 기지개를 켜며 나왔다. 나는 바닥에 신문지를 접어놓고 그 위에 냄비를 얹었다. 지현 누나가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냈고 소정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종이컵을 내밀었다. 지현 누나는 종이컵에 한 숟가락을 덜어주고 나머지 밥은 냄비에 말았다. 나는 냄비에 있는 밥을 종이컵에 담아 호호 불어 열기를 식혔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인사했으나 안방에서는 TV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는 베개가 반쯤 찢어져 솜을 내뱉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를 깨웠던 날카로운 소리가 알코올 냄새에 섞여 코를 찔렀다. 엎어진 반찬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때까지 안방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학교와 반대방향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교과서 대신 여벌의 옷이 자리하고 있었다. 손에 쥔 종이를 펼쳐 다시 주소를 확인했다. ‘부평역 3번 출구. 신드롬 모텔 골목길 노란색 쪽문으로. 403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천까지 혼자라는 게 무서웠지만, 나는 혼자라는 익숙함을 조금 오래 느낄 뿐이라고 위로했다. 도착할 때까지 단잠을 원했지만 지하철이 계속 덜컹거리는 바람에 1시간이라는 긴 거리를 눈을 뜬 채로 가게 되었다.

3번 출구로 나왔지만 모텔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싶어도 그럴 용기도 없을뿐더러, 입고 있는 교복 때문에 모텔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출구 앞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막다른 길이 나왔고 나는 한숨과 함께 길을 돌아 나와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출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골목길이 보였다. 나는 그 골목길로 들어갔다. 두 명 정도가 드나들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 나는 좌우를 살피며 노란 철문을 찾았다. 한참 끝에 찾아낸 노란 문은 노란색 페인트가 아닌 빗물에 슨 녹으로 뒤덮인 누런빛이었다. 손잡이조차 없는 문을 나는 발로 살짝 밀어서 열었다. 어두운 계단이 나를 마주했다. 나는 벽을 짚으며 계단을 올랐다. 403호 앞에서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똑, 똑똑.

잠시만요, 안에서 대답소리가 들렸다. 나는 땀에 찬 손을 비볐다. 긴장이라도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씨익, 웃어보였다. 이리저리 무언가 치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살며시 문이 열렸다.

고등학생 대호 형과 지현 누나. 나와 동갑인 주은이와 한 살 어린 소정이가 내가 함께 할 패밀리였다.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경계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던 소정이가 살짝 웃어보였다. 대호 형이 컵라면을 건넸다.

“아침 안 먹고 왔지?”

감사합니다. 나는 라면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대호 형은 가까이 오라며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빨래할 때 보니까 양말에 구멍 나 있더라.”

소정이가 내 팔꿈치를 툭툭치며 말했다.

“내 양말은 멀쩡했어?”

대호 형의 물음에 소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오빠는 팬티 앞에 구멍이 나있던데요?”

“넌 그런 말을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떡하냐?”

소정이의 말에 지현 누나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대호 형은 소정이의 머리에 꿀밤 때리는 시늉을 했고, 지현 누나는 그런 대호 형을 보며 다시 한 번 웃었다. 소정이가 왜 팬티에 구멍이 뚫렸냐고 물어볼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현 누나가 웃음을 멈추고 현관을 쳐다보았다. 대호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찰칵, 소리와 동시에 주인아줌마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줌마 뒤에는 대호 형보다 몸집이 큰 형이 서 있었다.

“운동하고 있는 내 아들이야.”

아줌마가 말했다. '운동'이라는 말에 나는 라면을 내려놓고 올려다보았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달 방세 받으러 왔어."

아주머니는 대호 형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호 형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줌마는 팔짱을 끼고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방세 낼 돈은 없고 꼬박꼬박 밥 챙겨먹을 돈은 있나봐?"

"꼬박꼬박 안 먹는데요."

아줌마의 말을 가로채기라도 하듯 소정이가 말했다. 아줌마는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하여튼 안 배운 티를 낸다니깐."

아줌마의 말에 지현 누나가 바닥에 젓가락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줌마는 아들의 등을 살짝 밀며 말했다.

"내가 무서워서 돈이나 받을 수 있겠어?"

아들이라는 사람은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말로 할 때 방세 값 가져오라며, 손목을 돌리며 말했다. 다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만요."

지현 누나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가방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자 안에 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소리 내며 떨어졌다. 지현 누나는 떨어진 물건 사이에서 봉투를 꺼내 먼지를 털듯 후, 하고 불었다.

"나머지는 직접 가지고 갈게요. 애들도 있는데서 얼굴 붉히며 이야기 할 거 아니잖아요."

아줌마는 지현 누나에게 받은 돈 봉투를 열어 돈을 세 보았다. 거봐, 돈 있을 줄 알았다니까. 아줌마는 혼잣말을 하며 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금요일까지 가져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어른 행세를 하고 그런담, 아줌마는 보다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현관을 나갔다. 지현 누나는 복도에 소리가 울릴 정도로 문을 세게 닫았다.

"무슨 돈이야?"

"아르바이트로 꼬박꼬박 모아 온 생활비."

지현 누나는 자리를 치우고 일어났다.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은이는 입맛이 떨어졌다며 물로 입을 헹궜다. 어차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운영이라 신고도 못 할 거면서, 주은이는 현관문을 향해 말했다. 대호 형은 그만하려며 주은이를 진정시켰다. 소정이가 일어나 현관문 고리를 걸었다.

"언니, 이제 저 아줌마 못 들어와."

소정이가 문을 탕탕, 두드리며 말했다. 소정이를 보던 주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대호 형이 라면을 더 먹을 거냐 물었다. 들어오던 소정이가 엄마가 음식은 남기는 게 아니라며 자신이 먹겠다 대답했다. 대호 형은 피식 웃으며 소정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주은이가 거실로 나와 대호 형을 찾았다. 주은이가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본 대호 형이 물었다.

"늦었는데 어디 가려고? 데려다줄까?"

주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랑 소정이한테 벌써 인사했다며 다음에 연락이 되면 종종 놀러 오겠다했다.

"아까 소정이 보고 생각났어요. 만날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오늘은 가서 보려고."

주은이는 집에 있는 동생 때문이라고 했다. 매일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 때

문에 가출했던 것인데, 그 뒤로 혼자 남겨 논 동생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아버지한테 맞다가 동생과 방으로 도망치면 동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누나, 아빠 이제 못 들어와.'
라 말한 게 머릿속에 맴돈다고 했다.

"그래도 인마, 너는 가려면 아침에 가야지. 어두워서 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 가려고."

대호 형이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뭐해, 인사하고 나와. 대호 형의 말에 주은이는 피식, 웃었다. 나는 주은이한테 손을 흔들었다.

"잘 있어."

웃는 주은이의 눈이 반달처럼 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은이가 떠난 다음 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일정을 계획했다. 석달이라는 시간동안 방세가 밀려 이번 주 안으로 모두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현 누나가 보도방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놨지만, 대호 형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대호 형이 주차장으로 특산물을 구하러 가자는 의견을 보였다. 평소 특산물을 가져올 때면 손 솜씨가 좋은 주은이가 앞장섰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주은이도 없어서 인원수도 맞추지 못해. 하지말자."

지현 누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정이가 자신이 할 수 있다며 손을 들었지만 지현 누나는 특산물을 가지러 가는 건 위험하다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 했다.

"어쩔 수 없어. 이번 주 안에 방세도 내야하고 주은이 자리는 네가 대신해 줄 수 있잖아."

"특산물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우리 규칙이잖아."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기. 계획에 없는 일을 충동적으로 계획하지 않기. 혼자 결정하지 않기. 우리의 규칙 목록이었다. 대호 형은 낮게 한 숨을 쉬며 말했다.

"한 번이잖아. 규칙도 어겨야 때가 있는 거야."

지현 누나는 보도방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 소정이가 곧바로 따라가려했으나 대호 형이 오늘 저녁이면 들어 올 테니 잡지 말라며 도로 소정이를 앉혔다. 대호 형은 소정이에게 같이 갈 수 있겠냐 물었다. 소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주은이가 옆에 있었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지만, 한 번도 일을 맞춰보지 않은 대호 형과 소정이를 둘 다 데려가는 건 문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차장 특산물은 둘이서 하기에 부족했다. 결국 소정이를 데려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나는 어깨에 떨어진 빗물을 털어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라 바람이 더 차가웠다.

"여기네."

비상계단이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문이 바람에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대호 형이 안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비상등이 켜지지 않아 도로 나왔다. 결국 주차장 출구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만약에 도망친다면, 신호는 뻐꾸기."

소정이는 뻐꾸기처럼 팔을 벌리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이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깨워주던 뻐꾸기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는 얘기를 종종 했다. 엄마가 깨워주는 아침보다 뻐꾸기 소리에 깨는 것이 더 달콤하다는 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다는 이야기도 더했다.

"날 깨울 때면 정말 엄마 같다고 느낀다니까."

상기된 목소리와 달리, 소정이는 뻐꾸기 얘기를 할 때마다 시선은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이미 지나간 생일을 축하하며 지현 누나가 사준 뻐꾸기 알람시계는 서랍 속에서 꺼내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우산을 접어 주차장 입구 옆 화단에 두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빗물이 약간 차있었고 빗방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사위는 조용했다. 소정이는 긴장한 듯 모자를 깊게 눌러 섰다. 나는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쓰고 천천히 주차장을 둘러보다 맞은편에 있던 까만 승용차 쪽으로 갔다. 자동차 안을 살피던 나는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두드렸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옷걸이를 꺼내 창문 틈에 끼워 넣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소정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안에서 선글라스와 돈을 꺼냈다. 성에 차지 않는지 대호 형은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콧소리를 흥얼거리며 뽑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외제차 앞에서 서서 소정이에게 손짓으로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였다. 소정이는 주변을 살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주변 차들을 손으로 두드리며 걸었다. 울리지 않았다. 한껏 편안해진 얼굴로 옷걸이를 창문에 집어넣었다. 달칵, 이번에도 성공임에 나는 잇몸을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조수석 서랍에는 비상금으로 보이는 돈이 있었다. 나는 돈을 챙기고 대호 형 쪽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대호 형은 보이지 않았고 소정이가 차창 유리에 옷걸이를 집어넣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곳에 꽂기만 하면 열리는 간단한 작업이기에 나는 쉽게 고개를 돌렸다. 나는 왼쪽으로 향했다. 베이지색 체어맨이 주차되어있었다. 주차장 조명에도 체어맨은 깔끔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차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려 소정이 쪽을 쳐다보았다. 이어오던 리듬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소정이 쪽으로 뛰었다.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소정이에게 마스크를 건네지 않았던 게 떠올랐다. 소정이는 차 안에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왔다. 나는 소정이의 팔을 붙잡았다.

"뭐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내 물음에 놀랐는지 소정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소정이에게 마스크를 건넸다. 내 목소리에 반대쪽에서 대호 형이 달려왔다. 나는 소정이가 나왔던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작은 초록색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블랙박스를 뗐다. 대호 형은 내 손에 들린 블랙박스와 소정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들고 있던 가방을 소정이에게 건넸다. 소정이는 여전히 커다란 눈으로 나와 대호 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대호 형은 우리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 쪽으로 향했다. 작은 마티즈 앞창 너머로 우리를 향한 카메라의 초록색불빛이 눈앞에서 번쩍이는 듯했다. 대호 형은 마티즈 옆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뻐꾸기."

내 신호에 대호 형은 우리를 쳐다보았다.

"뭐하냐, 갈 준비해."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대호 형이 낮게 실소를 터트렸다. 이어 형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옷걸이를 집어넣었다. 경보음이 울렸다. 나는 한 쪽 눈을 찡그리고 귀를 막았다. 삐익- 높은 경보음이 내 귀를 파고 들어오는 사이 형은 차 문을 열어 블랙박스를 뜯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차 앞으로 희미하게 손전등 빛이 비춰졌다.

"거, 누구요?"

경비원이었다. 순간 목구멍까지 헉, 소리가 올라왔다. 옆에 있던 소정이가 내 옷소매를 꽉 쥐었다.

"차 주인인가?"

손전등 빛은 형이 들어간 마티즈로 향했다. 나는 상체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메고 있던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발소리가 다가오는 만큼 나는 더 떨렸다. 형을 두고 가야할지 아니면 형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할 때 조수석 차 문이 열리고 블랙박스를 손에 든 형이 소리쳤다.

"물건 훔쳐갑니다!"

형은 블랙박스를 바닥에 던지고, 들어왔던 출구와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운전석을 열려던 경비원이 형이 도망간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주자창 안은 경비원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가 가득 울렸다. 나는 형이 던진 블랙박스를 챙겼다. 소정이의 손을 잡고 주차장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출구를 올라와 숨을 고르는데, 안쪽에서 아찔한 소리가 들렸다.

"잡아!"

나는 숨을 멈췄다. 재빠르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설마, 하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비상계단 쪽으로 가야하는지 고민했다. 형이 잡힌 거라면? 찾으러 갔다가 같이 잡히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빗방울을 튀기는 발자국 소리도, 쫓아오던 후루라기 소리도, 형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정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놀란 탓인지 어깨가 아래위로 흔들렸다. 나는 소정이를 진정시키며 비상계단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인도보다 화단이 안전했다. 가로등이 없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뿌리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발을 높이 들어 움직였다. 물을 잔뜩 머금은 진흙이 발에 묻어 끈적거렸다.

"뻐꾸기 나와라. 뻐꾸기."

소나기 소리에 내 작은 목소리는 금방 빗물에 섞여버렸다. 조용했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손전등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화단에서 내려와 비상계단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다시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뻐꾹 뻐꾹, 계속해 울어봤지만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했다. 추위를 떨치기 위해 팔을 비볐지만, 팔짱이라도 끼듯 차가운 바람은 계속해 내게 바짝 달라붙었다.

궂은비가 내린 새벽거리는 어두웠다. 가로등이 없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끝까지 차오른 숨이 힘들게 공기와 맞닿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이 깜깜해 기댈 곳을 찾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다. 뒤따라 올라온 소정이를 먼저 골목길로 보냈다. 뒤 돌아 형을 찾았지만, 형의 모습 대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골목길로 들어갔다. 모텔 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소정이가 서 있었다.

"문이 잠겼어."

나는 자리에 멈춰 소정이를 쳐다봤다. 소정이는 노란 쇳물이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질렀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소정이가 담을 넘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소정이의 떨리는 숨소리가 바닥을 타고 내 귀를 때렸다. 소정이는 나를 밟고 올라가는 대신, 가방을 들고 내 옆에 섰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었다. 차가워진 손으로 소정이의 손을 꽉 잡았다.

봄, 그 죽음의 계절

일본학과
20171633 임다운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이다. 나는 그렇게 고귀하게 태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풍경은 온통 회색이었다. 앞뒤로 마주본 조그만 주택 사이 공터에 유일하게 자라난 나무 하나. 주변에 풀이라곤 깨진 시멘트 바닥 틈새로 비죽이는 잡초 몇 개뿐이었다. 사람 사는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죽어갈 거라는 사실을, 희미한 안개를 들이마시며 새삼 실감했다.

온통 여름이었다. 분명 여름이었을 텐데 이곳에는 매미가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뜨거운 햇빛조차 내리쬐지 않는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희미한 사람들의 말소리, 요리의 냄새, 도로를 내달리는 차 소리…. 어째서 이런 응달에 나무를 심은 걸까? 어차피 피고 질 운명이라지만.

나무가 말하길 나무는 아주 예전에 심어졌다고 했다. 아직 주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에, 이 공터 바닥이 아직 시멘트로 덮이지 않았을 때에. 그 때도 주변에 풀들이 무성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했다. 나무는 여느 나무들과 같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따스한 햇살과 빗방울을 양분삼아 자라났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변에 건물들이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다. 땅 주변에 담을 쌓고 원래 있던 조그마한 집 한 채를 부숴 작은 주택으로 만들자 더 이상 바람이 나무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조그만 집 한 채와 작은 땅으로 만족했던 주인은 땅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쓸모없는 땅에서 쓸모 있는 땅으로. 이름 없는 풀들은 전부 뽑혀 버려졌다. 온갖 벌레들과 지렁이, 풀들이 살았던 땅은 시멘트로 덮였다. 다행히 건물 외곽 쪽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뽑히지 않을 수 있었다. 죽어가는 생명들의 단말마를 들으며 나무는 가장자리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무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차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쓸모없는 땅이었다. 적어도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주인은 다시 시멘트를 걷어내고 빈 땅에 또 다른 건물을 세우기로 했다. 원래 있던 주택과 주차장을 허물고 3층짜리 주택을 두 개 세웠다. 거대한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지자 나무는 더 이상 온전히 햇빛을 내리쬘 수 없게 되었다.

주인은 주택에 사는 사람을 위해 남은 땅을 또다시 시멘트로 채웠다. 아파트 흉내를 냈다고들 했다. 흙 있는 땅이 사라져갈수록 땅은 쓸모 있는 땅이 되었다. 높게만 자라났던 가지들은 예쁘게 수평을 맞춰야 했으며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수많은 잎들은 모두 쓰레기가 되었다. 제 몸을 깎는 고통을 버티며, 나무는 쓸모 있는 관상용 나무가 되었다. 그 사이 많은 사람이 주택을 오고 가며 울고 웃었다. 나무는 더 이상 울고 웃지 않게 되었다.

20년이 지나자 새 건물이었던 주택은 낡고 비루해졌다. 건너편에 있던 건물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다. 듣기로는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듯 했다. 큰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 주택 근처의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아파트는 여전히 지어지는 중이다. 지금처럼.

목련의 꽃눈은 여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추운 겨울을 버티면 마침내 꽃이 핀다. 얇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꽃눈 하나. 목련의 가지는 높이 자라는 습성이 있어 마치 해바라기 마냥 우리는 전부 해를 바라보며 태어났다.

“난 태어나면 푸른 초원이 보이는 넓은 들판에서 자랄 줄 알았어.”
“나도. 이런 시멘트 바닥이라니…. 아, 떨어지기 싫다.”
새로 자란 꽃눈들은 태어나자마자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나는 회색빛 시멘트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어차피 새 여름이 오기 전에 전부 죽을 운명인데 기껏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숭고하고 고귀하게 내 죽음만을 기다려야지. 하지만 우리는 곧 아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가을 날, 주택 앞에서 수많은 비명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살려주세요! 아악, 살려줘!”
“타죽고 싶지 않아! 제발….”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날,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곧 그게 사람 소리가 아니라, 여러 나무들의 가지가 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주택의 출구, 나무가 세워진 앞으로 여러 잔가지들이 묶여 옮겨지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자르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나뭇잎들이 담 너머로 흩날렸다.
위이잉 하며 나무를 자르던 기계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나? 호박에 줄긋는다고 해서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여. 건너편에 아파트 생긴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구먼.”
“우리네야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빨리빨리 함세. 아파트 아녀도 가지치기는 원래 해야 되는 거여.”
사람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들은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중이었다. 쓸모없는 가지들은 자르고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작업. 그럼 지금 잘리고 있는 저 가지들은 전부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일까? 그리고 어차피 가지를 잘라내야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그럼 잘린 저 가지들은 나무가 아닌가? 애당초 쓸모가 있고 없고를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예쁜 모양은 뭐지? 다 다른 나무들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그들이 말하는 예쁜 나무인가? 단지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건가?
고민하는 와중에도 가지들은 차례차례로 죽어가고 있었다. 늙고 노쇠한 가지부터 새로 자라나기 시작한 파릇파릇한 가지들까지. 그들은 모두 쓸모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잘려졌다. 모두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가 변하면 잎은 죽는다. 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끝이 정해져있다. 1년도 채 안 되는 수명.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다. 가장 만개했을 때 아름답게 흩날리며 죽고, 죽은 뒤에는 땅의 거름이 된다. 그 사실은 본능적으로 나무에서부터 가지로, 가지에서부터 잎으로, 그리고 꽃잎으로 전해진다.
막 뻗기 시작한 가지가 잘려나간다. 갓 태어나 초록으로 물든 잎들이 떨어진다. 단풍이 되지 못한 채, 땅의 거름도 되지 못한 채 떨어져나가는 잎들은 침묵한다. 말라비틀어진 단풍이 되어 죽을 바에야 온전한 상태로 버려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가? 꽃은 잎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각오한 잎과 태어날 때부터 먼 미래를 생각한 가지는 결코 같을 수 없다.
학살은 계속됐다. 한참 그 광경을 바라보던 가장 꼭대기에 매달려있던 꽃눈이 얘기했다. 근데 타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뭐지? 그는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주택 옆에는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고물상이 나뭇가지들을 불쏘시개로 쓰겠다며 전부 가져간 것이다. 그 꽃눈은 그 나뭇가지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전부 지켜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는 다시

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계속 수군대자 아무 말 않던 나무가 생각을 전해왔다. 가지치기는 원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며 담담해했다. 담담한 척 하는 걸까? 나무의 이파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나무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본 걸까?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죽어간 걸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까?

자연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언젠가 나도 꽃을 피우고,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럼 난 흙이 되겠지. 흙이 되면 다시 나무로 되돌아갈 것이다. 우린 여느 꽃들과는 다르게 가볍지 않아 바람에 날릴 일이 없으니, 그대로 다시 이 나무가 되겠지. 그럼 언젠가는 가지가 되고, 또 언젠가는 다시 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잎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트럭에 실려 가고, 가지들은 고물상에 옮겨져 전부 불에 집어넣어졌다. 다시 침묵이 주변에 내려앉자 꽃눈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금 떠들기 시작했다. 그 안에 나 홀로 이방인처럼 침묵했다.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간다는 게 기쁜가보다. 자란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죽어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 그것을 성장이라고 부른다. 그 시기가 지나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노화라고 한다. 늙어가는 것과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일까?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과연 정 반대의 것일까? 우리는 모두 끝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전부 똑같은데, 왜 어떤 것은 젊음이라 부르고 어떤 것은 늙음이라고 하는 걸까? 꽃을 피운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과 같은데 그게 그렇게도 기쁠까?

나는 졸지에 우울해졌다. 그리고 일순간 우쭐해졌다.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보잘 것 없는 꽃눈일 뿐이지. 급격하게 오락가락하는 기분을 느끼며 어느새 겨울이 되었다.

겨울은 춥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털이 빼곡한 담요를 한 장 한 장 만들었다. 상하지 않게 담요를 곱게 포개야지. 그래야 겨울을 날 수 있을 테니까. 한동안 우울에 젖어있던 나도, 겨울만 지나면 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쩐지 마음이 들떠있었다.

어느 날, 한동안 주택을 찾지 않던 주인이 찾아왔다. 주택 안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온 모양이었다. 곧 한 집이 이사를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옆집도 이사를 갔다. 같은 시기에 두 집이 이사를 나가다니, 별 일이네. 가지가 말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쪽 주택에 한 집이 이사를 나가 새 집이 들어왔으므로 나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는 건 흔한 일이니까.

두 집이 또 이사를 나갔다. 어느덧 앞쪽 주택은 빈 집이 되었다. 뒤쪽 집에도 한 집이 이사를 나갔다. 또 다른 집이 주택을 나갔다. 겨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뒤쪽 주택의 두 집만이 남아있었다. 아무도 이사를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게 퍽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나무의 떨림을 통해 알았다.

“재개발을 또 한다는군.”

누군가 입을 뗐다. 그 말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해서, 담요 속에서 깊은 잠을 자던 꽃눈부터 곧 자라날 가지와 새싹까지 전부 얼어붙게 했다. 그 소리의 근원지는 나무였다.

“우리는 모두 죽을 준비를 해야 해. 전부.”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모두 여름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비명 소리를 떠올렸다.
“가지치기인가요?”
한 가지가 용기 있게 물었다. 그 가지는 딱 봐도 곧 죽을 것 같이 보였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잘려서 죽나, 떨어져서 죽나, 매한가지 아닌가요?
“아니. 우리 모두 죽는다.”
우리 모두라니? 침묵 속에 잠겨있던 나무가 곧 소음에 잡아먹혔다. 방금까지의 정적은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나무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꿈틀대며 아우성쳤다. 우리 모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봄이 되면 죽는 건 꽃뿐이잖아! 쓸모 있는 가지들은 죽지 않는 거 아니었냐고!
모든 소리가 한데 뒤엉켜 마치 아주 커다란 구멍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차마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해 가만히 멍하게 있을 뿐이었다. 재개발? 모두 다 죽는다?

…아.

오래 전 나무가 심어졌을 때, 나무는 쓸모가 있었다. 모든 풀들이 다 뽑혀 시멘트 바닥에 가라앉아 숨 못 쉬어 죽어갈 때도 나무는 쓸모가 있었다. 지금까지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나무’도 죽어야 한다.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나무가 아주 천천히 입을 뗐다. 그는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씩 느긋하되 어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개발이라는 건, 모든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 저 밖의 나무들은 가로수다. 가로수는 땅 밖, 건물 밖에 서 있는 나무지. 가지치기는…. 나무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또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우린 더 이상 예뻐야 할 필요가 없어. 더 잘 자라날 필요도 없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지도 오래고…. 매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게 우리다. 가지들은 알 테지. 게다가 우린 땅 안에 있는 나무니까. 곧 있으면 건물을 부수고 시멘트 바닥을 죄다 부수겠지. 쓸모없는 풀들도 전부 뽑을 거고.”
모든 말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사이 칼바람에 담요조차 채 두르지 않은 가지 꼭대기에 매달린 꽃눈이 꽃잎을 하나씩 버렸다. 그는 말라비틀어져 초라한 이파리를 하나씩 벗으며 입을 열었다.
“차라리 지금 떨어져 죽는 게 낫겠어.”
꽃눈이 매달린 가지가 파르르 떨렸다. 가지는 최대한 꽃대를 굳게 잡았다. 안된다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왜? 너도 봤잖아!”
그 말에 가지가 추욱 늘어졌다. 꽃눈은 어느새 마지막 담요를 버리고 있었다.
“재개발? 재개발이라고? 너희 재개발이 뭔지는 알아? 저기 반대편 재개발 부지, 한 번도 본 적이라도 있어? 건물을 죄다 부수고 땅을 다 갈아엎는다고! 겉보기에 튼튼하고 예쁜 나무들은 뿌리 채 뽑아가더라. 아마 다른 곳에 심는 모양이지. 그런데 우리처럼 볼품없고 비쩍 마른 쓸모없는 나무들은 전부 다 베어서 죽여! 꽃이고 잎이고 전부 쓰레기 비닐에 담겨 버려지는 거라고….”

나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꼭대기에 매달린 꽃눈을 부러워했다. 오직 그 꽃눈만이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수 있었으며,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일전의 가지치기 때에 저 꽃눈이라면 분명 잘려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부러웠다. 나는 사실 죽음이 두렵다. 죽고 싶지 않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무섭다.

"그리고 가지치기가 더 낫다고? 어떻게 가지를 자르는지 본 적도 없는 주제에! 너네, 쓸모없는 가지만 자른다고 생각하지? 아니. 가지치기를 한다면 바로 잘리는 건 바로 나야!"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 나는 또다시 멍해지고 말았다. 가장 튼튼한 꼭대기 가지. 목련은 원래 높게 솟아 자라는 나무인데…. 왜?

"인간들은 참 잔인해. 모든 가로수를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 심지어 조경을 한답시고 위로 솟은 가지들은 모두 잘라냈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앞을 가린대나 뭐래나. 가지치기가 더 낫다고? 어떤 가지가 선택받을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이딴 나무, 누가 가지치기 한 대니? 내가 아까 말했지? 쓸모없는 나무들 전부 다 베어버린다고. 난 쓰레기통에 버려질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차마 손쓸 새도 없이 그는 뛰어내렸다. 앙상한 꽃대가 툭 하고 땅에 떨어졌다. 차마 낙화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볼품없는 추락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꼭대기 가지에 달린 조그마한 가지가 바람에 몸을 맡겼다. 곧이어 꽃눈들이 차례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 살고 싶어서, 그래도 아직은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 자신을 달랬다. 어차피 피고 질 운명이라지만. 조금 더 살고 싶었다.

그 후로 나무는 더 앙상해졌다. 매일 조금씩 무언가가 스스로 죽어나갔다. 우리는 조용히 침묵했다. 침묵 속에 어느덧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죽음이, 온다.

봄이 채 안된 추운 날, 마지막 집이 이사를 나갔다. 우리는 모두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꽃잎을 꼭꼭 부여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간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나면 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내가 떨어지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재개발이 먼저일까?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날이 점점 따뜻해지자 꽃들은 슬슬 만개할 준비를 시작했다. 덮고 있던 담요를 깨끗이 털어 펼쳐놓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꽁꽁 잡고 있기도 했다. 나는 점점 벌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훌쩍훌쩍 울었다. 늙은 가지는 그런 나를 지긋이 바라보다가 더 이상 영양분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 나름대로의 배려였을 것이다.

앙상했던 나무가 하얗게 물들었다. 꽃이 만개했다. 오직 나만이 꽃잎을 펼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잎이 하나둘씩 떨어져간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띤 꽃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편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가지에게 인사를 하고, 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주변의 꽃들과 인사를 하고…. 아름답게 낙화하는 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다른 꽃들이 떨어질 때마다 꽃잎을 더 세게 부여잡았다. 윤기가 흐르던 털은 푸석해지고 볼품없어졌다. 말라간다. 떨어질 때가 되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살고 싶었다. 힘이 빠졌다. 잎을 부여잡는 것도 버거워졌다. 나는 모든 잎을 버리고선 나뭇가지를 부여잡았다. 이 짧은 생이 아쉬워서, 너무나도 아쉬워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만개하지 못한 꽃은 익을 대로 익어 땅으로 떨어진다. 곤두박질친다.

겨울 내 곱게 간직했던 꽃잎은 이미 다 버려 버렸다. 바닥에 부딪힌 홀몸이 아팠다. 시야가

흐려져 간다. 추잡스러운 죽음이다. 꽃잎이 흐드러지게 깔린 시멘트에서는 철지난 낙엽의 소리가 났다.

목련이 다 떨어지고 나서 완전한 봄이 되자 주인이 주택에 찾아왔다. 폐허가 된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어차피 다 갈아엎고 새로 지을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지 몰라. 목련이라도 치우면 그나마 덜 하겠지. 새로 짓고 나면 절대 목련은 심지 말아야겠어. 주인이 혀를 차며 주택 구석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들었다. 꽃들이 시멘트 바닥에 쓸리며 사박사박 소리를 냈다. 꽃들이 쓰레받기에 담겼다. 쓰레받기에 꽃들이 가득 차자 주인이 쓰레기통에 꽃들을 버렸다. 쓸고 버리고, 쓸고 버리고…. 어느새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 바닥에는 더 이상 꽃잎이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그게 꽤나 만족스러웠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지고 나무와 가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어차피 피고 질 운명이라지만, 나무와 가지는 꽃들에게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다. 그렇게 발악해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건 마찬가지라고. 봄은 생명의 계절이 아니라고, 죽음의 계절이라고. 쓰레기통 뚜껑 사이로 하얗고 검은 꽃잎이 보였다. 이제는 흐르지도 않는 눈물이 왠지 상처를 비집고 새어 나오는 것만 같았다.

나무는 떨어지고 나면 가장 더럽기로 유명한 목련이었다. 목련꽃의 말로는 다 똑같다. 고귀한 목련은 땅에 버려져 검게 갈변되면 처리가 귀찮은 쓰레기가 된다. 그럼 치워져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낙엽과 달리 예쁘지 않으니까. 나무와 가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허나 말한들 무어가 달라질까?

곧 재개발이 시작된다. 나무는 죽을 것이다. 나무는 이미 살만큼 충분히 살았다. 더 이상 삶에 미련도 없다. 주인이 가지치기를 그만 둔 그 때부터 나무는 이미 쓸모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어차피 피고 질 운명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생을 태초부터 알고 있던 꽃과 이파리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을 것임을, 타인에게 목숨을 의존하는 가지는 얼마나 가련한가? 모든 생명의 책임을 짊어진 채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나무는 얼마나 슬픈 생명인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을 반드시 안다. 모든 것은 살아감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죽음에 익숙해지지 못한 걸까?

나무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 시체가 뿌리 밑에 채이던 그 날부터.

- 비평 부문 -

동심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를 깨닫다, <우리들>

국어국문학과
20151122 이인혜

Ⅰ. 서론

청룡영화상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영화제에서 쟁쟁한 대작 상업 영화들을 제치고 저예산 독립 영화로 여러 차례 상을 받은 작품이 있다. 바로 영화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성공은 이렇다 할 스타 캐스팅이나 홍보 없이 입소문과 영화의 완성도만으로 이끈 쾌거이다. 감독도 영화 제작 경험이 많은 감독이 아닐뿐더러 출연하는 배우들도 연기 경험이 처음인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많은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의 덕분일 것이다. 이 작품의 주요 소재는 '관계'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열한 살의 초등학생이 겪는 '관계'에 대한 성장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소개에 나와 있는 고작 열한 살짜리의 소녀들의 우정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보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유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 이토록 어린 열 한 살의 소녀들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얼마나 절실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지, 그 시절을 지나온 어른들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를 보다가 이내 엔딩크래딧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는 '선'에게, 혹은 '지아'에게 또 누군가는 '보라'에게 공감하면서 말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정의되며 우리는 좋든, 싫든 사는 동안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관계'란 때로 아주 절박하게 붙잡아야 하는 어떤 것이 되곤 하는데 그 시기는 또래 집단과의 유대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학창시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른이 되어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게 누구든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다. 그것이 어린 '선'과 '지아'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렇기에 마침내 우리는 이 영화를 마치 내 얘기인 것처럼 공감하며 보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영화가 초등학생끼리 투닥거리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우리 각자의 학창시절을 지나며 '선'과 '지아'의 입장, 혹은 '보라'의 입장에 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시기에 맺는 '관계'가 됐든 '관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관계에 대한 성장통을 겪는 건 우리가 어떤 집단에 어느 위치에 서 있든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보편적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느 세대, 누가 보든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화는 비평할만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참 어리고 미성숙한 단계에서 겪는 '관계'에 대한 성장통을 그려내지만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유,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 주목하여 이 영화의 연출방식,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을 분석함으로써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주제를 관통하는 연출 기법

<우리들>에서 카메라의 활용 기법은 특이한 지점이 있다. 카메라의 높이와 앵글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이 대부분이니 의도한 연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화면에 담기는 몇 안 되는 장면에서도 아이들을 비추는데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면 의도된 연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프레임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카메라 화면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카메라 연출 기법이 갖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카메라의 초점을 아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이들임을 명백하게 하는 효과이다. 이 영화는 열한 살 소녀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양상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감독은 아이들만을 집중해서 비추는 카메라 연출을 통해 그 뜻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카메라 연출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집중된 관객들의 시선이 다른 인물들로 분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윤가은 감독은 이러한 카메라 연출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 기반을 더 확고히 다지고 있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이 맺는 '관계'에 있으며,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본인이 조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영화의 카메라 연출 기법이 갖는 효과는 하나 더 있다.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만의 문제이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이들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영화에는 아이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도 여럿 등장한다. 선의 부모님, 지아의 할머니, 둘의 선생님 등이 그들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어른의 시선으로 보나 아이의 시선으로 보나 그들은 꽤 괜찮은 어른처럼 보인다. 아이들의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선' 또는 '지아'에게, 둘의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영화의 여러 부분에서 확인된다.

'선'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시는 소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딸의 행동을 보고 무작정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친 상처를 먼저 살피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거듭해서 묻는다. 하지만 '선'은 상처가 난 손을 쉽게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감추려고 애쓰고 엄마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한다. 지아의 할머니도 둘의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할머니는 '지아'가 우울해하는 것 같으니 손녀의 친구인 '선'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고 잘 지내달라는 당부를 전한다. 선생님은 '지아'의 악의가 담긴 말실수에 대해 지적하며 사과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듯 아이들에게는 꽤 괜찮은 보호자가 있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음을 계속해서 피력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어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 그 속에서의 문제가 오롯이 자신들이 감당하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한 암시를 카메라 연출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촬영기법은 아이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세계를 구분 짓기 위한 장치가 된다. 감독은 조금도 한눈팔지 않으면서 우직하고 뚝심 있게 아이들의 관계만을 조명한다. 감독은 이러한 우직함이 카메라 연출을 통해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맺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오로지 그들만의 몫이며 자신들의 세계에서 해결해

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ⅱ.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한 섬세한 연출

이 영화는 어린 아역 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영화를 끌어간다. 94분이라는 상영시간은 짧은 편이 아닌데도 영화를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완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아역 배우들의 연기는 나무랄 데가 없다. 섬세한 감정선이며 표정 연기도 어지간한 성인 배우 못지않은 모습이다. 성숙하고 완성된 연기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여러 비평에서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을 중요한 비평 지점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에 대한 비평에서 아역들의 섬세한 연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감독이 어떤 배려와 연출 방법으로 아역들의 연기를 그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었는지 중심적으로 보고자 한다.

가장 처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촬영 환경이다. 배우에게 촬영 환경은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작용을 한다. 연기하는 동안 촬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배우가 촬영 환경을 얼마나 익숙하고 편하게 여기느냐가 결과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는 말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독이 촬영 환경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조성했는지, 그 결과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얘기해볼 것이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것은 두 가지인데 조명과 카메라의 위치이다. 먼저, 조명과 관련된 부분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영화 안에서의 실내화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주로 등장하니만큼 그들의 생활반경에 해당하는 학교 교실이나 학원 강의실과 같은 실내에서 찍은 장면이 많다. 교실과 학원 강의실 말고도 여러 실내 장면이 등장하는데 두 아이의 관계가 변화를 겪는 포인트들이 ‘선’의 집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이 봉숭아 물을 함께 들이며 진짜 친구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나,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바다를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둘이서 같이 가자는 약속을 하는 곳도 바로 ‘선’의 집이다. 이 실내 장면들을 보면 자연광 외에 인위적인 조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외에 다른 조명을 쓰지 않은 것이다. 조명은 촬영 화면을 더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카메라에 담는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조명이 가지는 효과를 버리고서라도 감독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영화를 보면 카메라의 위치가 배우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줌을 활용한 카메라 앵글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 개중에는 줌을 통한 방식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도 몇 보인다. 이런 카메라 앵글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위의 자연광을 활용한 이유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다.

감독은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보다, 영화다운 카메라 앵글보다 배우를 배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영화의 배우들은 대부분 연기 경험이 없거나 아주 적은 친구들이라고 앞서 밝혔었다. 그런 배우들에게 있어 촬영현장은 낯선 환경이 될 수 있다. 배우가 느끼는 그런 이질감은 결국 연기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러운 연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감독이 가장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은 배우가 낯설어하지 않을 환경이다.

영화를 보면 카메라의 위치가 배우에게서 멀리 떨어져 찍은 장면이 여럿 있다. 카메라를 배

우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줌을 활용해 촬영한 것인데 이는 관객에게 독특한 감상을 느끼게 한다. 영화를 보는 느낌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는 가짜의 세계를 그리는 영화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연출 기법이다. 자칫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감독은 가장 편한 분위기에서 배우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도출될 수 있게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다양한 소재들로 활용해 표현하는 '관계'

'관계'라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이다. '관계' 안에서 보이는 양상들도 아주 미묘하고 섬세해서 구체화해서 영상으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 안에서는 그 추상적인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관계는 '선'과 '지아'의 관계이니만큼 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학을 온 '지아'는 방학동안 '선'과 많은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가 된다. '선'을 만나기 전까지 '지아'는 '헤드폰'을 쓰고 있다가 둘이 친구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는 '헤드폰'을 끼지 않는다. 둘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에게 느끼는 '지아'의 느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헤드폰'은 또 등장한다. 둘을 가로막는 한 장치가 생기게 된다.

'선'이 '지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를 조르는 모습을 보면서 '지아'는 자신에게는 없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선'에게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낀다. 그리고 바로 헤드폰을 쓴다. 뒤에 이어지는 말은 '지아'의 거리감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근데 너희 집 왜 이렇게 덥냐?"라는 말이다. '선'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가진 유일한 비교우위,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을 자신이 우위인 계급에 관한 이야기로 선에게 상처를 주는 식으로 짜여있는 연출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피구'다. 영화의 첫 시작도 '피구'를 하기 위해 편을 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구기 종목들 중에서 굳이 '피구'를 영화에 넣은 것은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피구'라는 종목의 규칙을 살펴보면 잔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꽤 많다. 다른 여러 구기 종목들이 공을 특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피구'는 공을 이용해 상대 선수를 아웃시켜야 하고 모두 아웃시켜야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포커스가 '공격'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스포츠가 승패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아웃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맞춰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칙은 어쩐지 서글프고 무섭게 느껴진다. '피구'를 하는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다. 공격을 피할 곳은 오로지 내부뿐이기에 내부로 깊이,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특히 또래 집단과의 유대가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우리는 소수의 비주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비주류의 역할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 시기의 아이들은 내가 비주류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쓴다. 심지어는 스스로가 비주류가 되지 않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를 비주류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은 '피구'와 참 많이 닮은 것처럼 느껴졌다. 감독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영화에 '피구'하는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닐까. 내부로 파고드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관계'의 잔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ⅰ. 아이들의 말을 통해 제시하는 '관계'의 해답

"개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그럼 언제 놀아?"
"연우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우가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난 그냥 놀고 싶은데."

"한지아 금 안 밟았어. 진짜 금 안 밟았어. 내가 다 봤어."

'선'과 '지아'가 처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둘의 상황을 숫자가 길게 놓여 있는 직선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선'은 마이너스에서 머물러 있는 아이, '지아'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아이는 모두 왕따의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선'은 현재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이런 학교 폭력의 특성상 학년이 바뀐다고 해도 학교에 다니는 내내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아이에게 한 번 씌워진 '왕따'라는 프레임은 쉽게 벗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학을 가지 않는 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선'의 가정 형편상 그런 식의 해결방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선'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자신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모르는 '지아'라는 인물이 동아줄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반면, '지아'의 경우 다니던 학교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가진다. 자신에 대해 모르는 집단에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아'가 '선'을 외면하고 '보라'를 선택을 했던 건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학교에서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지아'는 함께 마이너스에 머물러줄 '선'과 같은 친구가 아니라, 손을 붙잡고 플러스로 끌어 올려줄 '보라'와 같은 친구가 더 절실했던 것이다.

'지아'의 그런 선택으로 '선'은 다시 외톨이가 된다. 그렇다고 '지아'가 주류가 된 것은 또 아니다. '보라'는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사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지아'를 다시금 외톨이의 자리로 내몬다. '지아'를 외톨이로 만들기 위해 '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선'과 '지아' 둘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상처를 내게 되고 둘 다 외톨이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

둘의 이러한 관계의 위기는 의외의 인물의 대사를 통해 극복될 수 있겠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마 이것이 영화가 말하고자 한 바가 아닐까 싶다. 이 관계의 해답은 이 시기를 지나서 성장한 어른을 통해서나,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선'과 '지아'를 통해서 제공되지는 않는다. 대신, '선'의 동생. 이 영화에서 가장 어리고 맑은 존재를 통해 해답의 실마리를 살짝 던져준다. 매일 동네 친구에게 맞고 오는 동생을 답답하게 여기며 너도 똑같이 때렸어야 했다고 다그치는 누나에게 하는 동생의 대답은 큰 울림을 준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감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관계의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울림은 실제로 '선'에게로 가 '지아'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지아'가 '선'이 함께 지켜주는 것이다. 이후에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었을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감독은 모두에게 어렵기만 한 이 '관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지 영화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영화 ‘기생충’과 모스부호

국어국문학과
20181115 한지인

<목차>

1. ‘기생충’의 화제성 및 주목해야 할 점
2-1. 전체적인 영화 줄거리
2-2. 영화감독 ‘봉준호’가 가지는 특징과 세계관에 대하여
2-3. 작품 속 등장인물 분석
2-4. 상징물 분석, 산수경석과 인디언을 중심으로
2-5. 하류층의 언어 모스부호와 모스부호 편지의 의도에 대해서
2-6. 상류층의 언어인 영어에 대하여
3. 앞에서 다룬 내용 요약 및 영화의 의의를 중심으로

1. ‘기생충’의 화제성 및 주목해야 할 점

우리는 기생충을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벌레”[4]라고 정의한다. 어쩌면 이 단어는 벌레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닐지도 모른다.

올해 5월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이러한 단어에 빗댈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개봉하기도 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라는 것으로 먼저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황금종려상이기 때문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화제만큼 비평문이 많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에 제작된 영화이기에 더욱 이 영화를 비평하거나 연구한 사례가 드물다.

이 영화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영화관에 앉을 때까지 무슨 영화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향이 컸다. 그가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는 자신의 영화가 무슨 느낌인지까지도 많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영화의 연출 면에서 추측해볼 수 있다. ‘기생충’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는 관객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를 미리 알고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영화의 주제는 ‘바뀌지 않는 숨겨진 계급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기생충'의 등장인물들을 크게 기택네 가족, 박사장네 가족 그리고 문광네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족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영화의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가족 간의 숨겨져 있는 계급을 통해 감독은 이와 같은 사회와 차별 등을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에서 주제를 돋보이게 한 것은 ‘연출’이다. 영화 속에는 같은 사물이나 소품을 사용하는 가족들을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주면서 계급은 있어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수미상관과 같은 기법으로 영화의 처음과 끝을 같은 장면으로 끝내는 등 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생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양한 연출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화 연출 부분에서 주목해야할 요소는 '모스부호'이다. 모스부호는 영화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전개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모스부호에 주목하였고 관련 장면을 찾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모스부호와 더불어 여러 상징물이 쓰인 이 영화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1. 전체적인 영화 줄거리

'기생충'은 기우네 가족의 이야기부터 전개된다. 이들 가족은 일자리는 없지만 노동할 인력만 있다. 즉 백수 가족이다. 이들은 반지하에 살고 있다. 어느 날 기우가 친구가 하던 영어 과외를 대신하게 되어 학력을 속이고 박사장네 가족에게 접근하게 된다. 그는 박사장네 첫째인 다혜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게 된다.

기우는 박사장의 부인인 연교가 둘째 다송의 미술 선생님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는 것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다. 그는 연교와 얘기하던 도중 미술을 했던 자신의 동생인 기정이 생각난다. 그래서 기정이도 학력을 속이고 미술 전공 학생으로 사모님에게 소개한다. 결국 기정이는 둘째인 다송이에게 미술 치료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와 운전기사를 각각 결핵 환자, 변태 마약범으로 몰아 연교가 자르게 만든 후 도우미로 기우의 엄마 춘숙이, 운전기사로 기우의 아빠 기택이 취업하게 된다. 온 가족이 박사장 집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우네 가족은 이 집에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기생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바로 전에 일하던 도우미 문광의 가족이 박사장 가족들이 살기 전부터 그 집 도우미로 지내면서 알고 있던 지하 벙커에서 '기생충'같이 지내왔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기택네 가족, 기택네 가족이 서로 가족인 것을 속이고 취직한 것을 알게 된 문광네 가족이 충돌하면서 이 영화는 극에 달한다.

그 싸움으로 인해 문광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화가 난 문광의 남편이 지하 벙커에서 올라왔다. 부잣집 막내 생일날, 그는 파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문광의 남편은 기정을 죽이고 춘숙은 그러한 문광의 남편으로부터 기정을 보호하려하다 그를 죽인다.

많은 충돌 속에서 박사장은 자기 아들이 놀라서 쓰러진 것만 보고 차키를 찾는데 그 차키는 문광의 남편 밑에 깔려있었다. 그것을 가져오면서 박사장은 그의 지하 냄새로 역겨워한다. 이를 본 기택은 박 사장을 죽이고 도망쳤지만 결국 기택은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끼고 박사장네 지하 벙커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기택의 기생 생활,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사회 속 계급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2. 영화감독 '봉준호'가 가지는 특징과 세계관에 대하여

봉준호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 중 하나이다. 그는 제작하는 영화마다 작품성,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놓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특히 '기생충'으로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의 영화가 사랑받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봉준호의 개성으로 연출된 영화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섬세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는 그 구조를 활용하여 초반부의 복선이 후반부로 갈수록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였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초반부를 다시 한 번 곱씹게 한다. 또한 후반부로 가면 그가 이 영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충

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봉준호는 영화를 연출할 때 구체적인 외부 세계를 텍스트 안으로 끌어들여 서사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 그와 같은 예를 기생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생충에서의 구체적인 외부 세계는 숨겨진 현대의 계급 사회일 것이고 이러한 세계를 영화 속으로 가져와 영화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봉준호의 영화가 작품과 현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는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작품은 80년대 한국 사회라는 현실과 영화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기생충'은 이보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뿐 아니라 다른 곳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차별과 생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봉준호 감독이 가진 세계관의 스펙트럼이 '살인의 추억'을 제작할 때에 비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작품 속 등장인물 분석

우선 기택네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기택, 기우, 기정, 춘숙이 있다. 이들에게 기우의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는 여기서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기우에게 박사장네 집에서 과외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에서 중요한 상징물 중 하나인 '수석'을 기우 가족에게 선물한다. '수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이 가족 중에 기정과 기우는 기택과 춘숙에 비해 초반에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애쓰는 등 자신의 계급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 가족들 중 의지가 있는 이 둘에 대해서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기우에 대해 분석해보면 그가 친구인 민혁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민혁이 기우에게 다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있다. "나 진지해. 내후년에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 영화의 대사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기우가 이 대사와 비슷한 대사를 했다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 "대학교 들어가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 요. 진지하게." 이 대사는 박사장네 집에서 기택네 가족이 술을 먹으면서 한 것이다. 이는 민혁처럼 되고 싶은 기우의 마음이 가장 돋보이는 대사이다. 또한 기우는 문광의 남편과 문광을 지하 벙커에 감금하고 집으로 도망쳐오면서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말한다.

이러한 여러 대사를 통해 민혁이 되고 싶은 기우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빈곤층이 중산층을 동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정이는 기택네 가족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가족 중 유일하게 죽는 인물이다.

"너 아까 욕조에서 목욕할 때" - 기우
"목욕 뭐?" - 기정
"뭐랄까 어울린다고 해야 하나? 이 부잣집 분위기랑 잘맞어. 우리랑은 달러. 얘가 아까 욕조에 앉아서 텔레비전 딱 보는데 이 집에서 오래 산 느낌?" - 기우

- 영화 기생충 中

---

5) 박문수. (2012). 봉준호 영화(映畵)의 서사구조(敍事構造)와 현실성(現實性)의 문제(問題). 어문연구, 40(2), 343-366.

앞 대사는 기우가 박사장네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과 관련지어 기정이 죽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기정이 박사장네 집과 잘 어울린다는 것은 반대로 기정이 하류층에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문광의 남편이 다송의 생일파티에서 하류층 사람을 죽이려 할 때, 하류층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기정을 먼저 죽일 수 있다고 기정이 죽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송의 생일 파티에는 상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다면 기정은 그 사람들에 섞여 하류층 사람들 중에 가장 찾기 힘든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 의견대로라면 기정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기정의 죽음과 박사장의 죽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 기정의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그 둘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정의 죽음은 기택네 집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도움이 되는 인물이 죽은 것을 의미하고, 박사장의 죽음은 박사장네 집에서 상류층을 유지시켜 주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하는 인물이 죽은 것을 의미한다. 각 가족의 중요한 역할이 죽으면서 이 영화의 부제인 데칼코마니가 생각나는 부분이었다.

앞처럼 생각해보면 기우를 만난 이후가 박사장네 가족들에게는 지옥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박사장네 가족은 박사장, 연교, 다혜, 다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있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 집의 위치부터 기택네 가족과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족의 집은 수직적인 계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박사장에 대해 더 분석해보고자 한다. 박사장은 항상 '선'을 중요시한다. 차안에서 기정의 속옷이 발견됐을 때 운전기사를 의심한 그는 관계를 맺더라도 앞에서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자리인 뒷자리를 침범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관계를 맺었다는 불쾌함이 아닌 자신이 정한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또한 그 사건으로 운전기사로 기택이 들어갔을 때, 그는 기택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지만 결국 안 넘어서 좋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박사장은 자신과 다른 계층에게 선을 긋지만 연교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그는 상류층들도 다른 계층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다음 문광네 가족은 문광의 남편과 문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기택네 집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하벙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계급에서 가장 아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계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기택네 가족과도 대비가 된다. 적어도 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썼지만 문광네 가족은 지하벙커만으로 행복해하며 살기 때문이다. 특히 문광의 남편은 자신을 지하벙커에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박사장이라며 굉장히 존경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문광의 남편과 문광은 현대사회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장사를 하다가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지하벙커에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감독이 현대 사회의 폐해를 보여주려 함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다.

2-4. 상징물 분석, 산수경석과 인디언을 중심으로

'기생충' 속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물이 있다. 그 중에서 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산수경석과 인디언, 그리고 모스부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 중에서 모스부호는 이야기 나눌 장면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산수경석은 영화 포스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징물을 포스터에 등장시킨 점을

통해 영화에서 산수경석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산수경석은 20대, 30대에게는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물건이다. 일상에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다.

이러한 상징물을 봉준호 감독이 영화로 끌어들인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아버지가 산수경석을 수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린 시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영화에 드러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영화 속에서 산수경석과 연관되는 인물을 찾아보면, 그 인물에는 기우가 해당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산수경석에 대해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돌인데 그것을 자연에서 가져와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진열장에 넣은 것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이 기우와 유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기우가 박사장네 집에 과외를 하러갈 때 그는 자신의 학력을 속였다. 물론 돌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사람에게 지어짐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기우도 자신의 의지로 학력을 속인 것이 아니라 기우의 친구가 제안하면서 속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영화 후반부에서 기우는 산경수석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기우도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면서 그 둘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 이외에도 기우의 행동과 대사로 둘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우는 집이 물에 잠긴 상황에서도 돌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 이에 대해 기택이 돌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아래와 같이 대답한다.

“돌은 왜 그렇게 껴안고 있냐?” - 기택
“이거요? 얘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는 거에요.” - 기우
“너 좀 자야겠다.” - 기택
“진짜로요. 얘가 자꾸 날 따라와요.” - 기우

-영화 기생충 中

이 대사를 통해서도 산경수석이 기우와 뗄 수 없는 물건이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듯이 기우가 곧 산경수석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기우가 ‘Y대학교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진열된 진열장은 박사장네 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상징물은 ‘인디언’이다. 일단 인디언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잘못 생각한 데서 유래되었다. 영화 속에 인디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송이다.

“아니 이게 인디언 화살이에요. 심지어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한 거야. 쟤가 작년부터 완전히 인디언 오타쿠가 되가지고 아휴.”

- 영화 기생충 中

영화에서 다송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도 다송은 인디언 화살을 날리고 인디언 모자를 쓰는 등 인디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그 장면에서 연교가 위에 언급한 대사를 하기 때문에 다송이가 인디언을 좋아한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송이 인디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송이 인디언을 좋아하는 것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인디언은 외부 침략자로 인해 자신들의 땅을 한순간에 잃는다. 이 역사를 활용해서 영화 속 인물에 비유해본다면, 인디언이 박사장네 집 사람들이고 외부 침략자가 기택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박사장네 가족네 집에 하나씩 침범하는 것은 기택네 가족이니 말이다.

다송의 가족에게 기택네 가족이 기생충처럼 스며들어 결국은 박사장이 희생 당하고 박사장네 가족은 자신들의 땅, 그리고 가족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다송이 인디언을 좋아하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외부 침략자가 결국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는 것처럼 박사장네 집의 모든 것을 기택네 가족이 빼앗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처럼 기택네 가족은 '기생충'일 뿐이다. 기생충은 숙주 그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말이 나오지 못한 것이다.

2-5. 하류층의 언어 모스부호와 모스부호 편지의 의도에 대해서

모스부호는 영화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모스부호는 점과 선을 배합하여 문자·기호를 나타내는 전신 부호를 의미한다.[6] 하지만 본래 의미와 달리 영화 속에서 모스부호는 빛의 점멸만을 모스부호로 사용하고 있다. 모스부호는 영화 속에서 하류층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뭘 그렇게 봐. 민망하게. 박사장님 오늘도 저를 맥여주시고 재워주시고.. Respect! - 문광의 남편
너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 기택
그치. 감사 인사를 아예 단어 째 올려 보낼 때도 있고,, 아저씨 나이면 알잖아 모스부호. 다송이는 알 텐데. 컵스카우트니까. -문광의 남편

- 영화 기생충 中

위 대사는 문광의 남편이 지하벙커에서 버튼을 눌러 지상에 있는 복도의 불을 키는데, 가끔 모스부호를 활용하여 불을 키며 박사장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박사장이 이 고맙다는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박사장은 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즉 모스부호는 상류층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대사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상류층 중에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인물은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다송'이다. 영화 후반부에 문광이 죽기 직전, 문광의 남편은 울면서 도와달라는 모스부호를 불빛으로 보낸다. 다송은 혼자 텐트에서 해독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해독에 성공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류층의 인물인 다송도 하류층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계층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계층은 물리적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더 확실하게 두 계층을 나누고자 한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하고 추측해볼 수 있다.

문광의 남편뿐 아니라 기우와 기택도 모스부호를 사용한다. 기우는 후반부에 산에 올라가서 박사장네 집을 지켜보다가 기택이 자신에게 보내는 모스부호를 우연히 보게 된다. 여기서 기택이 모스부호를 사용하는 목적은 '생존'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우가 해석하는 것도 아버지가 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므로 결국 '생존'과 연관성이 있다. 이처럼 하위 계층에게 모스부호란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이와 달리 다송이 모스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취미'이다. 모스부호를 자신의 놀이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인 다송이 모스부호를 아는 것은 하류층이 모스부호를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모스부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기택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모스부호를 기우에게 보낸 이후, 기우는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모스부호로 적는다. 기우가 적은 모스부호로 된 메시지는 기택에게 전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런데 왜 모스부호로 편지를 적은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같은 하류층 간에는 모스부호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감독의 의도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기택의 모스부호를 기우가 이해하는 장면으로도 소통간의 소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둘째, 기우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다짐을 하고 싶어서 적은 것이다.

아버지,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대학, 취직, 결혼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돈을 벌면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 저는 엄마와 정원에 있을게요. 햇살이 좋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계단 위를 올라오시면 됩니다.

- 영화 기생충 中

위의 대사는 기우의 모스부호 편지를 기우가 읽은 것이다. 이처럼 기우의 모스부호 편지에는 기우의 돈을 벌겠다는 다짐과 박사장네 집을 살 것이라는 포부가 담겨있다. 이 포부를 쓸 때 기우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그 집을 사지 않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이고 자신으로 인해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다. 즉 기우가 이러한 포부와 다짐으로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읽더라도 자신의 상황이 안 좋으니 마음을 다잡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택이 모스부호로 자신에게 편지를 전했으니 기우 자신도 따라서 모스부호를 사용하면 기택에게 정말 편지의 내용이 전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6. 상류층의 언어인 영어에 대하여

하류층의 언어가 모스부호로 존재한다면, 상류층에게는 따로 언어가 존재할까? 우리는 “Is it okay with you?”, “I’m deadly serious”와 같은 대사를 영화 속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을 연교는 과장된 발음으로 사용하며 웃음을 주기 때문에 연교 역을 맡은 조여정이 한 애드리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조여정은 이것을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는 대사였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7)]

필자는 영어가 상류층의 언어로 영화 속에서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일단 단순히 생각해보면 영어는 연교가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스부호와 달리 더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는 기우와 기정이 알아듣기도 한다. 이것을 통해 상류층에 세계에 발을 딛고 싶은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은 상류층이 되기 위해 상류층들과 소통하고자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누구든 하류층의 언어보다는 상류층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기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언어가 되고, 영어가 보편적인 언어가 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7) ‘기생충’ 조여정 관련 기사, https://news.maxmovie.com/399196.

있다. 기우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박사장네 집에서 가장 높은 층인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에게 영어가 상류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 된 것이다.

영어는 문광네 가족과 기택네 가족의 육체적 갈등 장면에서 또 등장한다. 문광은 기택네 가족의 약점을 알게 된 후 계속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 "talking about", "fresh"와 같은 영어를 쓰지만 안 어울리는 상황에 영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모습은 그녀가 건축가, 사업가 등의 상류층 사람들과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녀가 상류층과 어울리면서 그녀에게 상류층의 언어가 어설프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앞에서 다룬 내용 요약 및 영화의 의의를 중심으로

영화 기생충은 우리나라의 사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에서는 세 가족이 나오고 이 세 가족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수직적인 계급을 보여준다. 박사장네 가족이 상류층을 상징하고, 기택네 가족과 문광네 가족은 하류층을 상징한다.

기택네 가족과 박사장네 가족에서 이 영화의 부제인 데칼코마니를 찾을 수 있는데 데칼코마니 단어는 '죽음'이다. 기택과 박사장의 가족 모두 각각의 가족 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기정과 박사장이 죽는다. 이것을 통해 데칼코마니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영화 속에는 굉장히 데칼코마니와 상징물 등이 있었는데 그 많은 상징물 중에서 산경수석, 인디언, 모스부호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경수석은 일단 감독의 어린 시절과 관계가 있다. 봉준호의 아버지가 산경수석을 모으셨는데 그 때 느낀 감정이 영화를 통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속에서 산경수석은 기우를 뜻한다. 기우와 산경수석이 많은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모두 수동적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다가 마지막엔 결국 산경수석은 다시 자연으로, 기우는 반지하로 돌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인디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인디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디언은 외부 세력자에 의해 자신들의 땅을 침범당하고 빼앗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인디언은 박사장네가 될 것이고 박사장네 집으로 한명씩 취직하는 기택네가 외부 세력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인디언은 박사장네가 기택네에 의해 부정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모스부호에 대해 필자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징물로 보았다. 모스부호는 하류층이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상류층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상류층 중에서 유일하게 다송이가 모스부호를 알지만 모스부호로 구조요청을 하는 문광 남편의 메시지를 결국 해독하지 못한다. 다송이에게 모스부호는 취미이자 놀이일 뿐이다. 하지만 기택이나 기우, 그리고 문광의 남편에게는 생존의 수단이 된다. 모스부호는 상류층에게는 놀이에 불과하지만 하류층에게는 생존의 수단이자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보았다.

모스부호가 하류층의 언어라면 상류층의 언어는 영어일 것이다. 상류층의 언어는 하류층의 언어와 달리 기우, 기정과 같은 하위층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그들과 같은 하류층이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 상류층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류층의 언어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고 상류층의 언어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기생충에 숨겨진 많은 상징물과 감독의 의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론 감독의 의도가 아닌데 관객들 혹은 필자가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물이 된 것도 분명 있을 것이

다. 하지만 감독 뿐 아니라 관객도 영화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 할 수 없다. 또한 이처럼 영화에 나온 모든 것이 상징이 되는 영화는 관객들이 해석을 하고 그 의견을 관객들끼리 나누면서 더 재밌어진다.

처음 이 영화로 비평문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모스부호'의 효과를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스부호만의 효과는 영화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모스부호를 포함한 여러 상징물과 감독의 의도, 영화의 주제 그리고 필자의 의견과 같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효과를 내 영화가 더욱 재밌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이다. 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화가 감독의 의도만을 찾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영화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물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생충',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박문수. (2012). 봉준호 영화(映畵)의 서사구조(敍事構造)와 현실성(現實性)의 문제(問題). 어문연구, 40(2), 343-36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모스부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기생충' 조여정 관련 기사, https://news.maxmovie.com/399196.

히치콕의 서스펜스가 담긴 4편의 영화

인문학부
20191093 정원화

1. 서론

알프레드 히치콕은 영국, 미국의 영화 감독이다. 가장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이자 영화사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알려진다. 그를 늘 따라다니는 말은 “서스펜스의 거장”이라는 키워드다. 물론 공포, 스릴러 이외의 다양한 장르에서 명작들을 만들어냈지만 공포,스릴러 장르를 다룬 히치콕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서스펜스 연출은 최고로 평가받으며, 현대 영화 감독들에게 일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히치콕이 쓴 다양한 편집과 촬영 기법은 아주 새로웠고 독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촬영기법 및 히치콕이 만든 개념들은 후대에 재생산 되며 현재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히치콕의 많은 영화들 중 <새>,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사이코>를 통해 어떻게 히치콕이 서스펜스를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평문을 작성한다. [8]서스펜스란 영화, 드라마, 소설 따위에서, 줄거리의 전개가 관객이나 독자에게 주는 불안감과 긴박감을 말한다. 스릴러, 공포 같은 장르에서 자주 나오는 요소다. 히치콕은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의 개념을 언급하며 탁자 밑의 폭탄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등장인물들이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터진다면 관객도 등장인물들과 동일하게 놀랄 것이다. 반면에 폭탄이 탁자 밑에 설치되는 것을 등장인물들이 탁자에 앉기 전에 관객들이 미리 보게 된다면, 전자의 상황과는 다르게 관객들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9]앞의 상황은 공포영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서프라이즈’ 이고, 뒤의 상황은 ‘서스펜스’다. 즉, 서스펜스 영화의 묘미는 얼마나 관객들을 놀라게 하느냐가 아니라 상황을 지연시키며 얼마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히치콕은 이 서스펜스를 적극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한다.

2. 공포스럽지 않는 요소로 공포감을 조성한 <새>

알프레드 히치콕을 처음 알게된 영화, 바로 <새>이다. <새>는 공포적 요소 없이 새만을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영화다. 현대의 영화 장르 중에는 재난영화와 공포 영화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다. 서스펜스의 거장으로 불리는 히치콕의 감각은 이 영화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2019년에 <새>를 본다면 어색한 CG장면들이나 흑백 영상이 어색하고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는 배경음악도 없어 불완전하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반대로 1963년에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낸걸 감안하면 히치콕의 기술은 놀랍다. 영화의 내용은 단순하다. 별다른 설명·설정 없이, 새

8) "네이버 국어백과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백과,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9) "아트인사이트 : 알프레드 히치콕의 서스펜스 , < 싸이코 > [시각예술]," 아트인사이트,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3843.

들이 갑자기 인간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좋은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아름다운 여성 멜라니는 애완동물점에서 변호사 브레너를 만나게되고 호감을 느낀다. 브레너를 만나러 고향 마을로 찾아가게 되는데 향하던 도중 멜라니는 갑자기 갈매기의 공격으로 인해 이마에 상처를 입는다. 멜라니가 마을에 온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떼들은 인간들을 공격한다.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도망가고, 새들의 공격을 피해 멜라니와 브레너의 가족들도 집에 갇혀있다 탈출하게 된다, 지금 영화에서 새를 가지고 공포스럽게 연출해보라고 말한다면 누구던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히치콕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던 '새'를 소재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대성공이었다. 영화가 흥행한 이후에 미국에서 새, 조류 공포증 발병이 증가했다는 연구보고까지 있었다.

공포영화 중 재난을 통해 공포를 주는 영화는 지금도 쉽게 흥행한다. 좀비라는 국가적 재난을 다룬 <부산행>, 악어와 허리케인으로 공포를 주는 <크롤>,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의 출현을 다룬 <죠스> 등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난공포 장르는 유행해 왔다. 이 영화들을 보면 대체로 두려운 대상을 재난으로 다룬다. 좀비, 허리케인, 상어 모두 흔히 우리가 조심해야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두는 객체들이다. 좀비에게 물리면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된다는 설정을 통해 영화 <부산행>에서는 기차를 타고 좀비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크롤>에서는 허리케인이 닥쳐오고 악어까지 인간을 공격하며 이 둘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모습이 보여진다. <죠스>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며 이에 대피하는 영화다. 하지만 히치콕의 <새>는 분명 다르다. 영화 처음 주인공이 가게에서 새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면 새는 애완동물로서 길러지기도 하고, 새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에도 크게 개이치 않아 크게 화를 본다.

"당신들 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학교에서 공격하는걸 봤다면..."
"왜 그걸 안믿으려고 해요?"
"무슨 공격?"
"누가 학교에서 공격했어요?"
"새들이요. 까마귀들이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새들이 공격을 했다는 것에 믿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객들은 새가 공격하는 것은 알지만 배우들은 알지 못해 서스펜스가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새>가 다른 공포영화들과 달랐던 점은 공포가 점차 다가온다는 것이다. 멜라니는 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모습에서 새의 공격이 거듭될수록 점차 불안을 느끼며, 특히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 새라는 존재가 멜라니로 대표되는 공포를 받는 대상을 변화시킴을 알 수 있다. 공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존재가, 어느새 공포의 존재로 다가왔다. 영화 처음부터 공포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과 영화를 전개해가며 나중에 공포의 존재를 설정한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 점이 히치콕의 영화를 명작이라고 부른 이유라고 생각든다.

3. 정적인 공간과 유동적인 공간의 서스펜스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히치콕의 영화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큰 차이점은 공간의 이동이다. <이창>은 영화 내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영화를 전개해나간다. <북북서로진로를돌려라>의 경우 첩보스릴러 답게 계속해서 공간을 이동한다. 두 영화는 서로 다른 공간의 이동을 가지고 최고의 스릴을 선사한다.

히치콕의 서스펜스가 폭발한 영화라고 평가받는 <이창>이다. 주인공 <제프리>가 다리를 다치고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된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기는 일로 내용이 전개 된다. 제프리가 앞집 살인이 벌어졌다는 망상을 하면서부터 내용이 시작된다. 자신이 보는 대로 내용을 추리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추리를 확신하며 살인의 비확신을 확신으로 바꾼다. <이창>은 카메라의 시선, 즉 관객의 시선을 제프리의 시선에 동일시 시킨다. 제프리가 보는 정보는 곧 관객들이 보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객에게만 노출되는 한 쇼트를 보여주며 제프리의 추측이 잘못된것임을 관객들이 알게 해준다.

카메라, 관객은 잠자고 있는 제프리를 바라본다. 그 이후 카메라를 돌려서 쏜월드의 집을 바라본다. 검은 복장의 아내와 밤에 외출한다. 제프리가 놓친 이 광경은 관객만이 유일하게 목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객이 제프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준다. 관객은 히치콕이 바라보는 시선에 한정된 채 바라보는 정보만을 습득하게 된다.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었고 그 남자가 복도니 거리니 뒤뜰을 걸어 다녀서 다 봤잖아요"
"뒤뜰에서 꽃을 가꾸는 걸 봤지만..."
"제프, 진짜 살인자라면 그런 걸 다 보도록 내버려뒀겠어요?"
"블라인드를 내리고 숨지 않았겠어요?"
"영리하게 태연한 척하는 거야"
"당신은 전혀 영리하지 않군요"
"살인자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창문들 뒤로 훨씬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대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은 관음을 통해 살인을 예측한다. 이와 함께 관객역시 관음을 주제로 서스펜스를 느끼게 한다. 주인공의 시선, 쌍안경, 망원렌즈를 통한 관찰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또 피아노 치는 남자의 음악과 사람들의 떠드는 웅성거림, TV소리 등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해 다가올 위협과 긴장감을 유발한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는 첩보물이기에 앞서 촘촘히 짜여진 스릴러이다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장면들로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두뇌 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액션을 선보이며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엮어간다. 그렇기에 히치콕식 서스펜스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결집시켜 히치콕 서스펜스의 결정판이라는 별칭을 얻은 영화이다.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뒤이어 복선을 깔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동안 의문의 사건들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는건 히치콕 영화의 흔한 패턴 중 하나다. 배우들이 사건에 대해 조금씩 접근해 갈수록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치밀한 극적인 구성이나 사건의 진실에 접근 할수록 위험 역시 증가한다는 히치콕식 서스펜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 서스펜스가 주목을 받는 두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손힐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인물 케플란을 만나기 위해 밭에서 그를 기다린다. 그는 나타날 생각이 없고 심지어는 경비행기가 나타나 손힐을 위협한다. 주인공을 향해 비행을 하고 급기야 총까지 난사한다. 비행기의 습격을 받는 장면은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의 서스펜스를 극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명장면이다.

경비행기 추격전에 버금가는 서스펜스가 폭발하는 다른 장면은 러시모어 산에서의 추격전이다. 비밀의 인물인 켄달의 정체가 후에 밝혀지지만 손힐은 그녀를 포기하지 못한다. 손힐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악당들이 숨어있던 곳에 접근하여 비밀스러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화 마지막 러시모어 산에서의 유명한 클라이막스 장면이 펼쳐진다. 악당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손힐이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켄달을 구해내는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이자 최후의 명장면이자 두 남녀의 로맨스를 완성시키는 극적인 결말이다. 스릴러이지만 끝은 로맨스로 마무리하게 된다.

4. 공포요소를 통해 서스펜스를 전개하는 <싸이코>

<싸이코>는 알프레드 히치콕을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은 영화 중 하나이며, 히치콕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지만, 서스펜스의 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다. 릴라 크레인과 샘이 싸구려 모텔에서 시작되는데 첫 장면은 둘의 관계와 이 둘이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짧고 굵게 보여준다. 샘은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 다소 격양되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릴라는 보다 침착하고 차분해 보인다. 4만달러를 훔치는 일에 휘말리는 것은 일을 저지를 것만 같던 샘이 아닌 릴라다. <싸이코>의 서스펜스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충동적으로 보이는 샘이 돈을 훔쳤겠지만 <싸이코>는 침착하던 릴라가 충동적으로 돈을 훔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릴라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 부가적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한다.

<싸이코>는 주인공 마리온의 시점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샘과 결혼을 원했지만 빚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고 있던 때에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 현금 4만 달러가 들어오게 된다. 사장으로부터 그 돈을 맡은 그녀는 애인 샘에게로 도망가버린다. 이 때 마리온은 외곽지역 인적이 드문 한 모텔에 도착한다. 모텔의 주인인 노먼이 등장하고 모텔 뒤의 저택에서 노모와 산다고 말한다. 그날 밤 그녀는 샤워 도중 의문의 사람에게 살인 당한다. 한편, 사립탐정은 라일라, 샘과 마리온을 추적한다. 추적하던 중에 사립 탐정이 살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모텔 주인 노먼은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10년 전에 죽은 어머니의 인격을 가진 싸이코 살인마 라는 것이 드러난다.

공간과 사운드에 의해 <싸이코> 속 긴장감은 완벽하게 지배된다. 마리온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잠시 머물게 된 고속도로 옆 외딴 '베이츠'모텔은 영화의 핵심적인 배경이 된다. 그리고

모텔 뒤쪽에 보이는 집은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핵심 객체로 기능한다. 2층 창문 불빛의 실루엣을 통해 작지만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노먼의 노모의 미스테리한한 모습은 영화 전반적으로 음산하고도 낮은 첼로 선율이나 고음의 바이올린 선율은 음산한 연출을 한다. 더불어 흑백 화면과 어우러져 이러한 극적인 긴장은 화면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몰입을 준다. 잠시 논외로 <싸이코>속 등장하는 버나드 허먼의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로 유명한 노래는 최고의 영화 배경음악 중 하나로 꼽힌다.

영화 '싸이코'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샤워장면이다. 서스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림자의 음영으로 살인마를 등장시키는 이 장면은 관객을 놀라게 하기 위해 히치콕이 완벽하게 그려냈다. 자넷 리가 샤워를 할 때 카메라의 시선을 샤워를 하는 자넷 리가 아닌 오른쪽 측면에 자넷 리를 배치하고 정면에 샤워 커튼을 둔다. 그리곤 천천히 커튼 뒤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완전히 관객만이 알 수 있는 장면 연출을 했다. 히치콕 감독이 서스펜스를 아주 잘 의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살해장면을 그려낸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계획된 장면임을 보여준다. 히치콕이 왜 위대했고 서스펜스의 대가인지 알 수 있다.

영화 속에서 2번째 등장하는 살해장면은 자넷 리의 실종을 추적하는 아보개스트가 계단 위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 역시 샤워 장면 만큼 서스펜스가 강하게 느껴진 명장면이다. 샤워 장면과 마찬가지로 아보개스트의 살해 장면은 한 인물의 살인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관객의 긴장을 증폭시킨다. 계단은 중요한 역할인데, 우연치않게 노먼 베이츠의 자택을 발견한 아보개스트는 실내로 들어가 계단 위를 차례 차례 걸어올라간다. 실제 계단 보다 아보개스트가 올라가는 계단의 수가 많은 것처럼 연출을 해 살해장면 벌어지기 까지 관객들의 서스펜스를 유지하며 긴장을 유지한다. 쉽게 말해 즉 관객의 긴장을 자극시키고 서스펜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계단 수였다면 오르고도 남을 시간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스릴러 영화와는 차별화되는 히치콕만의 연출을 느낄 수 있다.

5. 다른 영화가 서스펜스를 다루는 방법

히치콕이 다룬 서스펜스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자면, 공포스럽지 않던 요소가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서스펜스, 공간의 이동 또는 정적에 따른 서스펜스, 공포적요소를 통한 서스펜스 로 나눈ㄹ 수 있다. 현대의 영화들에서는 이러한 히치콕식 서스펜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

첫째 영화 <샤이닝>의 경우 <새>와 같이 공포스럽지 않던 요소가 공포스럽게 변하는 서스펜스를 차용한다. 주인공 잭은 소설가로 겨울 간 오버룩 호텔의 관리인으로 취직한다. 폭설로 인해 호텔은 고립되고, 샤이닝을 보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잭의 아들 대니는 아버지를 유령들이 미치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잭은 과거에 두 딸과 아내을 죽인 관리인 그래디의 유령을 만난다. 스티븐 킹의 공포를 영화 기법 중 하나인 스테디 캠의 이미지로 옮겨낸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영화다. 평범했던 가장 잭은 오버룩 호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가며 비공포의 대상에서 점차 공포의 대상으로 변한다. <새>역시 공포의 대상이 아닌것에서 새들이 이상행동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두 번째로 공간에 대한 서스펜스를 다루는 대표적 영화는 <베리드>가 있다. 주인공은 이라크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미국인이다.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습격을 받게되고 영문도 모른채 관 속에 갇힌다. 전화기에 의지해 깊은 땅 아래 관속에서 탈출하는 사투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생존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한다. 관 속이라는 고립적인 공간을 강조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다루고 사회와 완벽하게 고립시킨다. <베리드>는 마치 관객이 주인공과 함께 관속에 갇힌거 같은 효과를 주어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켜 서스펜스를 전달한다. 히치콕과 정적인 공간에서 서스펜스를 전달하는 것과는 차이는 있다. 히치콕의 <이창>은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구조다. <베리드>는 관 속에 갇혀있는 구조다. <베리드>는 주인공의 표정을 통해 그 마음이 관객에게 전달되며, 그를 고립시키는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서스펜스를 유지하며 과연 주인공이 관 속에서 탈출 할 수 있을지 과정에서 죽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로 공포적요소를 이용한 서스펜스를 활용한 영화로 <조난자들>을 들 수 있다. 줄거리는 홀로 산속 주인 없는 펜션을 찾아온 여행자 '상진'은 우연히 동네 청년 '학수'를 만나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수'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를 부담스럽게 느낀다. 게다가 펜션 주변에 있는 공격적인 사냥꾼, 다짜고짜 숙박을 원하는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치며 짜증과 위협을 느낀다. 그날 밤 폭설로 인해 '상진'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펜션에 고립되고, 설상가상 손님 중 한 명이 피를 흘린 채 시체로 발견된다. [10]누가 살인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진'과 수상한 사람들 간의 오해와 의심은 점점 쌓여만 가고, 뒤가구린 듯한 경찰의 등장으로 의문의 살인 사건은 알 수 없는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된다. <싸이코>와 같이 살인자라는 공포적 요소가 작용하며 서스펜스를 유지한다. 이 영화는 한국의 독립영화임에도 서스펜스 부분이 뛰어나 많은 평론가에게 극찬을 받은 영화다.

6. 히치콕 영화의 다른 특징

지금까지는 히치콕의 영화들을 서스펜스 측면에서 비교하고 비평해보았다. 서스펜스 외의 히치콕 영화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히치콕의 촬영기법은 당대에 새로웠고 지금까지도 연구된다. 히치콕의 촬영기법을 뜻하는 "히치코키언"이라는 용어까지 탄생할 정도이다. 〈현기증〉에서 쓰인 이른바 현기증 기법(Vertigo effect)은 히치콕이 만들어낸 새로운 촬영기법이다. [11]카메라를 뒤로 빼면서 렌즈를 줌하면 발생하는 영상효과로화면 가장자리는 그대로인데 화면 중앙은 멀어져보인다. 반대로 트랙인/줌아웃을 하면 화면 중앙이 가까워 보인다. 이 기법은 〈죠스〉, 〈폴터가이스트〉, 〈이벤트 호라이즌〉,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라이프 오브 파이〉, <공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2>등 후대 영화에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거나 인물을 강조할 때 쓰인다. 또 히치콕의 영화 〈로프〉에서는 단 한 번의 커트 없이 촬영하는 기법인 롱테이크로 촬영된 것으로 유명하

10) "동아닷컴 : 영화 '조난자들', 고립된 펜션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오싹"," 동아닷컴,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328/62080271/1.

11) 줌인 트랙아웃(Zoom-in and Track-out)과 줌아웃 트랙인(Zoom-out and Track-in)," 네이버 블로그,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https://m.blog.naver.com/mmpictures/220894970074.

다. 지금은 흔히 쓰이는 기법이지만 시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법으로 평가 받는다.

맥거핀을 정의하고 활용하기도 했다. [12]맥거핀이란 이야기에 동기를 부여하고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퇴장하는 장치를 일컫는다. 더 이상 역할이 없으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재조명되지 않거나 다른 맥거핀에게 배턴을 넘기기도 한다. 히치콕의 영화 중에서는 <사이코>가 맥거핀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힌다. 사이코의 초반에는 마리온이 훔친 돈다발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중요한 내용이 되지만, 도망친 마리온이 노먼 베이츠의 호텔에서 살해당한 이후부터 스토리에서 돈다발이 존재의의를 상실한다. 현대 창작물에서의 사례 중 맥거핀의 사례로 유명하게 손꼽히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3의 토끼발이다. 주역과 악역은 궁극의 무기라고 알려진 토끼발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받고 싸우게 되는데, 정작 관객에게 토끼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영화 도중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며 화면에 잠시 스쳐지나가는 정도로 등장하지 않는 등, 관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의도된다. 토끼발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시 스토리에 중심에 서지 않는다. 영화 마지막까지 주인공과 국장의 입을 빌려서 맥거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7. 결론

알프레드 히치콕은 “서스펜스의 거장 ”이라는 키워드다. 물론 공포,스릴러 이외의 다양한 장르에서 명작들을 만들어 냈지만 공포,스릴러 장르를 다룬 히치콕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서스펜스란 [13]불안정한 심리 또한 그러한 심리 상태가 계속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을 말한다. 히치콕은 이 서스펜스를 적극 활용해 공포감을 조성한다. 서스펜스를 활용하는 양상에 따라 영화를 비평해보았다.

히치콕의 <새>는 공포스럽지 않는 요소로 공포감을 조성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떼들이 일제히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던 ‘새’를 소재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대성공이었다. 영화 처음부터 공포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과 영화를 전개해가며 나중에 공포의 존재를 설정한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 또는 정적을 통해 서스펜스를 이끌어낸 영화로 <이창>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가 있다. 두 작품의 큰 차이점은 공간의 이동이다. <이창>은 영화 내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영화를 전개해나간다. <북북서로진로를돌려라>의 경우 첩보스릴러 답게 계속해서 공간을 이동한다. 두 영화는 서로다른 공간의 이동을 가지고 최고의 스릴을 선사한다. <이창>은 자신이 보는대로 내용을 추리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추리를 확신하며 살인의 비확신을 확신으로 바꾼다. 카메라의 시선, 즉 관객의 시선을 제프리의 시선에 동일시 시킨다. 우리는 제프리가 놓친 이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객이 제프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준다. 이렇게 서스펜스가 생겨나게 된다. <북북서로진로를 돌려라>는 첩보물이기에 앞서 촘촘히 짜여진 스릴러이다다. 매우 긴밀하게연결된 장면

12) '맥거핀' 이란 무슨 뜻?" tistory,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https://magicred.tistory.com/395.
13) "네이버 국어백과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백과, n.d. 수정, 2019년 11월 13일 접속,

들을 바탕으로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때로는 두뇌 싸움을, 때로는 액션을 펼쳐보이며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엮어간다. 배우들이 사건에 대해 조금씩 접근해 갈수록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치밀한 극적인 구성이나 사건의 진실에 접근 할수록 위험 역시 증가한다는 히치콕식 서스펜스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세 번째는 <싸이코>이다. <싸이코>는 알프레드 히치콕을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은 영화 중 하나이며, 히치콕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지만, 서스펜스의 묘미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다. 침착하던 릴라가 충동적으로 돈을 훔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사건의 진행과는 별개로 릴라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 부가적으로 서스펜스를 유발한다. 싸이코 속 긴장감은 철저히 공간과 사운드에 의해 지배된다.

히치콕 감독의 연출이 단순한 스릴러 영화의 살해장면과는 차별화되는 그 만의 특성을 느끼실 수 있다. 히치콕의 영화들은 당대에 흉내낼 수 없는 히치콕만의 영화들을 만들어냈다. 서스펜스 적인 측면에서도 큰 족적을 남김은 틀림없다. 히치콕의 영화를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히치콕의 영화를 볼때면 많은 생각을 들게한다.

<참고문헌>

- 문관규. (2018).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의 서스펜스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8), 123-135.
- 김미정. (2018). 히치콕의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감시, 스펙터클, 그리고 서스펜스. 현대영미어문학, 36(4), 43-64.
- 이봉희. (2001). '영화인 세상'에서의 창과 방 그리고 엿보기. 문학과영상, 2(2), 45-72.
- 김시무. (2008). 앨프레드 히치콕의 관음증 삼부작. 영화연구, (35), 285-320.
- 노순택. (2019). '현기증'을 '버티고'. 황해문화, (), 136-154.

이 세상 모든 지영이에게

미디어스쿨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72534 박지현

얼마 전, 오랜만에 엄마와 영화를 보러 갔다. 개봉 전부터 꼭 엄마와 같이 보리라 다짐했던 '82년생 김지영'을 봤다. 영화는 악인도, 선인도, 반전도 없이 담담하게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인 김지영의 삶을 풀어냈다.

영화의 내용은 잔잔했지만, 그 속은 무거웠다. 1982년 봄에 태어난 김지영(정유미)은 남편 대현(공유)과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 잘나가던 홍보대행사 직원이던 지영은 출산 후 퇴사를 하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한다. 그러던 중 지영은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마치 빙의라도 된 것처럼. 대현은 그런 지영을 걱정하지만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는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지영이 살아온 삶의 단면을 담담하게 풀어낸다.

나는 결혼도 육아 경험도 없지만 영화 속 지영이 겪은 일들이 공감됐다. 엄마도 공감이 갔는지 영화를 보며 눈물을 보였다. 엄마가 우는 것은 처음 봐서 적잖이 당황했다. 당신의 삶을 떠올렸던 걸까, 당신의 어머니가 생각나서일까, 아니면 두 딸 생각에 그러셨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옆에서 울고 있는 엄마가 신경 쓰였다. 여태껏 엄마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다. 영화를 보며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고 처음으로 엄마와 내가 살아온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엄마는 결혼하기 전 의류 유통 회사에서 일했다. 열심히 노력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엄마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는 기회도 생겼다. 하지만 그 무렵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나를 가지게 되며 엄마는 회사를 나오게 됐다. 그 후 엄마는 연년생인 두 딸을 낳고 키우며 복직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두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했다. 영화 속 김지영과 너무나도 비슷한 삶이다. 엄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그래서 엄마가 영화를 보며 울었던 것이 이해가 됐다. 나도 그런 엄마의 삶을 떠올리며 울었다.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요즘, '82년생 김지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갈등이 아닌 공감이다. 이 영화를 통해 '나'만의 이야기라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며 공감될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김지영'들의 일상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화 속 지영이 '맘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리를 피하지 않고 반박하며 "저를 아세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라고 반박하는 것처럼, 지영이 포기했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다크나이트 비평문

인문학부
20191001 강규민

우리는 히어로 영화에 열광한다. 그 이유는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권선징악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당이 이김에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있다. 다크나이트 가 바로 그 영화다.

1. 스토리

조커가 포섭한 광대분장 한 강도5명 이 은행을 털면서 시작 된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면 더많은 몫을 받게 된다고 하는 조커의 말에 서로 죽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은행직원이 총을 쏘며 강도를 죽이게 되고 한 강도가 그를 제압한다. 모든 강도를 죽인 그 강도는 돈을 챙기고 도망갈려는데 직원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도발한다. 강도는 그의 입에 폭탄을 물리고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더욱 해괴해진다고 한다고 말하고 가면을 벗는데 그가 이 작전의 계획자 조커라는 것을 보여준다. 폭탄을 스쿨버스 에 줄로 이어 뽑는다. 그러나 그건 폭탄이 아니라 연막탄이라 연기만 뿜게 된다.

한편 고담시에 다른 곳에는 마피아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다. 베트맨 민병대가 그 현장을 급습 했지만 마피아들 에게는 역부족이었고 진짜 베트맨 이 나타나 민병대를 구해주고 마피아들을 체포한다. 베트맨 브루스 웨인은 루시우스 폭스 에게 슈트를 좀 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고담시에는 정의로운 검사 하비덴트 가 부임 되어 백기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고담의 경찰 고든과 베트맨 과의 도움으로 고담시 내에 범죄를 척결하게 된다. 웨인그룹 은 리우라는 금융업자가 세운회사 와 계약을 맺는데 사실 그 회사는 마피아들의 돈세탁을 맡아 하는 회사였다. 마피아들은 베트맨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돈과 세력을 잃어가자 베트맨 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그때 조커가 나타나 베트맨 을 처리하는 대신 마피아들의 돈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 이에 화가 난 겜블 이라는 마피아가 조커의 목에 현상금을 걸게 되고 부하들이 조커를 죽여 시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조커가 일어나 왜리리 심각하냐면서 겜블 을 죽이고 겜블 의 부하 들중 싸워서 이기는 놈만 살려주겠다 합니다.

브루스는 리우를 잡기 위해 홍콩으로 가게 되고 그를 하비에게 넘겨주게 된다. 라우 는 자신을 풀어주면 마피아 명단을 주기로 했고 하비는 그 마피아들을 기소하여 거의 다 구속하게 된다. 그때 조커가 가짜 베트맨 을 죽이는 영상을 보내면서 베트맨 이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매일 시민을 죽이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판사와 경찰청장이 죽게 되고 웨인이 열어준 자선파티 에 하비가 있다는 걸 안 조커가 그를 죽이러 오자 웨인은 그를 숨긴다. 조커는 하비의 연인 레이첼 에게 자기입 에 상처가 난 이유를 말해주면서 그녀를 위협한다. 그때 베트맨이 나타나 조커와 싸운다. 조커는 레이첼 을 인질로 삼으며 베트맨 에게 정체를 밝힐것을 요구했지만 묵살하자 레이첼 을 창밖으로 던진다. 이에 베트맨 도 뛰어내려 그녀를 구한다. 이후 조커는 시장을 암살하기 위해 의장대로 위장했고 이 과정에서 고든 이 총에 맞고 죽는다.

자꾸 시민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볼수 없었던 브루스는 자신이 베트맨 이 라는걸 밝히기로

했고 하비를 통해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서 하비는 자신이 베트맨 이 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스스로 체포된다. 하비가 호송되는중 조커는 이를 놓치지 않고 하비의 호송차량을 공격한다. 베트맨 도 그런 조커를 저지하기 위해 나타난다. 조커와의 추격전 끝에 조커의 트럭을 전복시키 는데 성공한다. 조커가 차에서 나와 자신을 들이받으라고 자극한다. 하지만 베트맨 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조커를 죽이지 못한다. 조커가 넘어진 베트맨 을 죽일려 했지만 죽은줄 알았던 고든 이 호송하는 경찰로 위장한 채 그를 체포했고 고든 은 조커를 체포를 한계기로 시장으로부터 경찰청장의 지위를 얻게 된다. 조커도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을 조롱하듯이 박수를 친다.

조커가 매수한 고든 의 부하들 때문에 하비가 납치되고 시간이 지나면 폭살 한다는 걸 안 고든과 베트맨 은 그를 취조한다. 베트맨 과의 심문 도중 조커는 레이첼 역시 납치했다고 말한다. 베트맨은 이성을 잃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레이첼 의 위치를 묻는다. 조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둘의 위치를 알려주고 베트맨 은 레이첼 을 고든 과 경찰들은 하비를 구하러 가게된다. 베트맨 이 장소에 도착 했을땐 레이첼 이 아니라 하비가 있었다. 조커가 일부로 그둘의 위치를 반대로 알려준 것이다. 베트맨 은 하비를 구하는 데 성공하지만 레에첼 은 그러지 못해 폭살하게 된다. 하비도 탈출할 때 얼굴에 기름이 묻었는데 폭발하면서 얼굴의 반이 탄다. 조커는 경찰하나를 도발해 인질로 삼고 전화를 한통 빌리게 된다. 전화는 한 범죄자의 배속 에 있었고 배안 에 폭탄이 터져 조커는 탈출하게 된다.

웨인사 의 직원이면서 베트맨 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콜먼리스 는 언론에서 진짜 베트맨 의 정체를 폭로하려다가 조커가 1시간 이내에 그의 입을 막지 않으면 고담시의 병원을 터트리겠다고 말한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는 시민들이 그를 죽일려 했고 브루스와 고든 은 그런 시민들로부터 그를 구해준다. 한편 병원에선 조커가 간호사로 변장해 부상당한 하비를 만나게 된다. 분노한 그를 만나면서 레이첼 의 죽음을 마피이 와 경찰의 탓으로 돌린 그는 운과 혼돈만이 공평하다며 그를 타락시킨다. 하비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살고 뒷면이 나오면 죽는다는 룰로 조커를 심판한다. 이후 조커가 멀쩡히 나온 다음 병원을 터트린다. 병원에 나온 하비는 악당 투페이스 가 되어 자신과 레이첼 을 납치한 경찰과 마피아들을 죽인다.

조커는 고담시의 다리와 터널을 터트리고 시민들과 게임을 하겠다고 협박한다. 시민들과 죄수들은 배를타고 고담시를 탈출하는데 그 배에는 폭탄이 설치되었고 각자 서로의 배를 터트릴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다. 12시까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두척의 배가 폭발했다. 이후 조커는 인질을 데리고 베트맨 을 기다렸고 베트맨 은 인질들을 구하고 조커와 싸움을 한다. 한편 시민 쪽 배에서는 투표를 통해 상대편 배를 폭파시키고자 한다. 투표는 찬성으로 끝났지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차마 스위치를 누르지 못했다. 죄수 쪽에서는 한 죄수가 간수들이 끝내지 못한일을 끝내준다며 스위치를 가져간다. 이후 그는 스위치를 배 밖으로 내다 버린다. 조커는 12시가 되도 배가 폭파하지 않자 처음으로 짜증을 낸다. 조커는 자신이 배를 폭파할려 했지만 베트맨 에게 제압당한다. 그는 아직 정의로운 사람이 많다고 조커의 패배라고 말한다. 조커는 그 말에 웃으며 너는 영원히 나와 이 짓거리를 함께 할 것이며 자신의 비장의 무기 하비가 타락했다고 알려준다.

하비는 고든 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며 레에첼 의 죽음이 부하의 관리를 잘못한 고든 에게 있다고 하면서 고든 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 그때 베트맨 이 등장하여 레에첼 의 죽음은 우리3명에 책임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풀어달라고 한다. 하비 역시 동의해 동전으로 운명을 결정하기로 한다. 베트맨 은 총에 맞았고 하비는 살았으며 고든의 운명이 결정되려 할 때 베트맨 이 하비를 덮쳐 죽이게 된다. 고든 은 하비의 죽음으로 고담이 다시 무너질거 라고 절망 할때 베

트맨 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하비 살해 등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기로 한다. 경찰의 추격 속에 베트맨 은 도망가게 되고 고든 의 아들은 베트맨 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도망가냐고 묻자 고든 은 그가 영웅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침묵의 수호자 다크나이트 라고 하며 영화는 끝이난다.

2 작품해석

다크나이트 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 초반부에는 조커가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악이라 는걸 느끼고 베트맨 이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걸 보며 확실히 선이라는 걸 느낀다. 히비덴트 역시 초반에 정의로운 검사로서 선을 상징하고 있다. 허나 이건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너지는데 베트맨 은 조커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마피아들을 고문하듯이 심문하고 자경행위 를 하는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조커는 고담시에 해가 되는 마피아들을 죽였고 12시가 되면 배를 폭파 할려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시한폭탄 스위치를 주어 그들 스스로 자아성찰 과 반성을 일 깨울수 도 있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하비 역시 나중에 타락하여 사람을 5명이나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이렇듯 이 영화는 선과악 이 오묘하다. 베트맨 과 조커는 닮은 점도 많은데 위에서 말했듯이 조커는 사람들에게 자아성찰 과 반성 깨달음을 주는데 이건 베트맨 이 궁극적으로 품는 이상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주겠다 와 비슷하다. 영화 초반에 조커는 은행을 털려고 유리창을 깨고 베트맨 은 라우 를 납치할 때 유리창을 뚫고 나온다. 조커는 찢어진 입을 강조하는 반면 베트맨 은 입만 보이는 것 역시 둘의 비슷함을 강조한다. 이렇듯 베트맨 과 조커는 겉모습과 각각의 출발선이 선과악이라는걸 제외하면 그 둘은 참 모호하다.

조커는 영화내내 끊임없는 실험을 하였다. 처음에는 강도들에게 동료를 죽이며 그 동료 몫까지 가진다고 하여 강도들 사이에서 의심의 씨앗을 퍼트려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였고 마피아 겜블 을 죽인 다음 그의 부하들에게 한명 만 살리는 조건으로 그들이 서로 싸워 죽이게 만들었다. 시장암살을 한다고 경고를 보낸 다음 베트맨 의 행동도 지켜봤고 하비와 레에첼을 납치한 다음 시한폭탄을 장착하여 베트맨 은 레이첼 을 경찰들은 하비를 구하러 갔지만 둘의 위치를 거짓말 한 것도 조커 에게는 그저 실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실험은 영화 막바지에 배에서 클라이막스 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배에는 시민을 한배에는 죄수를 태운다음 서로에게 배를 터트릴 기폭스위치를 주면서 12시 안에 터트리지 않으면 두배 가 터진다고 말한다. 이에 사람들은 공포심에 서로 분열된다. 즉 조커는 실험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분열을 야기시켰다 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문명인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분열과 공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커의 흉터 역시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 흉터는 작중 3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겜블을 죽일때 흉터가 자기 아버지가 그은 것이라고 하고 레에첼 앞에서는 사채업자에게 입이 찢긴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트맨 을 만났을 때 에는 말을 할려 했지만 베트맨 이 제압을 하여 끊기고 만다. 이 세 가지 모두 흉터가 왜 났는지 모르겠는 이유와 **거짓말과 웃음**을 동반한다. 거짓말은 영화 초반부에 은행을 터는 장면과 중반부에 하비와 레이첼에 대한 거짓말 마지막 고담시 시민과 죄수들을 나란히 태운 배를 태운 장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고담시 시민들은 우리가 희생 될수 없으니 범죄자들을 죽여야 된다 는 논리는 은행을 터는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담시 시민들의 민낯은 조커의 흉터와 같고 시민들은 우리가 살고 범죄자가 죽어야 된다 는 이유와 주장은 조커가 흉터가 생긴 이유를 말하는 합리화와 거짓말에 지나지 않다. 웃음은 조커가 시민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다를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중간에 하비와 레이첼 을 납치한 거짓말은 그런 합리화를 부수는 역할을 한다. 베트맨 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고담시의 질서와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는 이상을 포기한 것과 고담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하비덴트 를 포기하는 등 그동안의 행동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거짓말 때문에 베트맨 은 레이첼 이 아니라 하비를 구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민낯과 마주치게 된다.

하비의 동전 하비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데 그건 그가 운명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첼 이 죽고 자신의 얼굴의 반이 타들어 가면서 동전 역시 한 면이 타들어 간다. 이때부터 그는 타락하여 결국엔 대한 통제권을 잃고 동전을 던져 그 운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고담시를 마피아와 범죄로부터 수호하겠다는 그의 이상은 사라지고 고담시의 백기사였던 그 역시 자신의 민낯 을 맞이하게 된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은 것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인 질서를 말한다. 얼굴의 반이 타 악당 투페이스 가 되었을때에는 50%의 확률의 우연 즉 혼돈으로 사람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하게 된다. 그는 이 잔인한 세계에서 믿을 건 운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말 은 자기가 믿고 실천할려 했던 질서는 레이첼 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음으로 결국 믿을 건 혼돈밖에 없을 보여준다.

조커의 진짜 목적 그럼 조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조커는 베트맨의 몰락을 볼려는게 진짜 목적이었다. 그를 타락시키기 위해 고담시 시민들을 죽이고 하비를 타락시키는 장난을 한 것이다. 베트맨 은 표면적으로는 조커를 잡고 배가 터지는 참사를 막는등 성공했지만 조커의 비장의 수 하비가 타락하여 고든 을 죽이려 할때 베트맨이 그를 잡고 건물에서 떨어지는데 이건 조커가 타락시킨 하비에 의해 베트맨 이 몰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그는 고담의 백기사 하비덴트 및 5명을 죽인혐의 로 경찰에 쫓겨 고담시에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조커가 베트맨을 몰락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맨 은 영화 마지막에 개에게 쫓기게 되는데 개는 영화 초반에 베트맨 에게 신체적 상처를 주었으며 후반부에도 상처를 주게된다. 또한 조커가 자신을 개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조커는 베트맨 을 정신적으로 몰락시킨 개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끈질기게 베트맨 의 정체를 물어보고 몰아친 것은 그가 슈트를 벗고 대중들 앞에 브루스 웨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있지만 그의 만낯 을 스스로 마주하는 것은 원했다. 그건 브루스 자신의 신념인 모든 사람 들을 일깨우게 하겠다, 고담을 지킨다, 범죄자를 제압하되 죽이진 않는다는 것을 레이첼 을 구하기 위해 베트맨 자신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념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한쪽만을 선택한 다는건 반대쪽은 죽게 내버려 둔다는 사실과 똑같으며 베트맨 역시 조커 자신과 다를 바 없이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버린 것이다.

가면 가면은 영화 초반에 강도들이 은행을 털었을 때 악이 쓰는 가면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정의의 상징인 베트맨 이 쓰는 상징이기도 하다. 허나 모순인게 베트맨 이 범죄자들에게 쓰는 폭력은 과연 정당화 될수 있을까? 결국에는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으로 막는 것 밖에 생

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한 인물 빼고는 다 가면을 쓰고 있다. 먼저 사회정의를 위해 밤의 자경행위 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가 위험에 빠지자 그녀를 택한 베트맨 똑같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버리고 타락한 하비덴트, 고담시의 평화보다는 현 시스템 보존을 주장한 고담시의 시장, 범죄가 일어나도 그걸 방관하거나 되려 범죄자들 에게 협력을 한 경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러면 협력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마피아들 마지막으로 고담시의 선량한 시민들조차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자 남을 희생하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변모한다. 반면에 조커는 미치기는 했어도 저들처럼 때에 따라 벗어던지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가장 자신의 신념 즉 베트맨의 몰락과 혼돈 그 자체를 추구하는 등 가장 잘 지켰던 인물이다.
이렇듯 다크나이트 는 결국엔 모호한 선악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선한사람 과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악으로 변모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3. 캐릭터

조커: 조커는 트럼프카드와 타로의 광대 카드에서 비롯되었는데 광대 카드는 눈앞에 놓인 절벽 즉 현실과 하늘 즉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 카드의 의미는 현실에 대한 거부이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석에 있는 개는 본능을 상징한다. 이렇듯 조커는 본능을 쫓아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동시에 이 작품에 진짜 주인공이자 승리자 혼돈 그 자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조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며 사람의 목숨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조커는 무엇일까?** 조커는 많이들 조커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이코패스 가 선천적인 반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커의 대사 죽을 만큼 고난을 겪고 나면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 철학자 니체의 Whatever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죽을 만큼의 고난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는 명언을 stronger 을 stranger로 바꾼 것으로 보아 조커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일 로 인해 괴물이 되었다 는걸 알 수 있다. 조커는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인 하비덴트 를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게끔 하여 후천적으로 타락시켜 괴물로 만들었으며 하비덴트 를 자신과 같이 만들었다는 점을 통해서 그가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 악당이 되었는가? 조커가 후천적으로 타락하였으면 어떠한 계기로 타락하였을까? 그건 조커가 타락시킨 하비 를 보면 일단 그가 가진 신념, 사랑하는 여자 등을 빼앗아 그를 나락으로 몬 다음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찬 그를 그 분노와 복수심을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시킨다. 조커는 하비에게 세상과 사회 떄문 에 너는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그 세상과 사회를 미워하고 파괴하라고 길을 제시해준 것과 똑같다. 이런 방법을 봤을때 조커 역시 하비가 타락한 것처럼 실제로는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어떠한 일을 계기로 자신이 가졌던 소중한 것을 모두 잃고 분노와 복수심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 그 분노와 복수심이 사회로 이어져 지금의 조커가 탄생한 것 같다.

조커는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 인가? 조커는 고담시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과 정의의 상징인 검사 하비덴트 를 나락까지 추락시켰다. 허나 무정부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최선

으로 여기는 신념을 가진자들로 그들은 질서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를 원했던 자들이다. 즉 혼돈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수 있다. 허나 조커는 혼돈 그 자체로 베트맨 의 집사 알프레드는 조커를 설득도 협박도 햡상도 통하지 않는자 또는 그저 세상이 불타는 걸 보고 싶은자라고 부른다. 조커는 그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관습, 도덕, 제도 등을 부정하고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간 본연에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을 원할 뿐이었다. 그렇기에 베트맨 이 무너지는걸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그에게는 무정부주의는 어울리지 않다.
조커와 베트맨 의 관계? 조커에게 베트맨 은 자신의 장난을 받아줄 존재이자 세상이 불타는 게 보고 싶어 하는 조커에게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베트맨 은 자기가 무너트리고 더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반대로 베트맨 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대상이다. 조커의 대사 네가 날 완성시켜 라는걸 보면 조커는 선을 상징하는 베트맨 마저 악인으로 만들고 싶어함 이 잘 드러난다. 결국엔 불살주의 의 원칙을 가진 베트맨 이 레에첼 이 죽었으나 조커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되는 이 원칙을 하비를 타락시키고 하비가 아이를 죽이려 할때 베트맨 이 그를 죽여 스스로 의 신념을 깨고 악당이 된 것이다. 그건 베트맨의 대사에도 잘드러나는데 영웅으로서 죽거나, 끝까지 살아남아 악당이 되어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한 베트맨 은 결국 영웅 이 아닌 흑기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
다들 조커를 괴물이라 하지만 그는 그저 시대를 앞서나간 인물이고 어쩌면 순수한 혼돈이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순수한자라고도 생각된다.

베트맨: 베트맨 은 브루스 웨인이라는 갑부가 어린시절 부모님을 강도에게 잃고 나서 자기 내면에 고통 을 잊고 나아가 고담시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베트맨 은 정의를 실현 시키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베트맨 이 자경단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엔 위법행위 라고 생각한다. 결국엔 악을 벌하기 위해 자신 역시 악이 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 결국 그는 정의를 실현 시키는 점에서 베트맨을 마냥 정의옵다고 볼순 없다. 허나 그는 정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하비가 죽인 사람과 자기가 하비를 죽였다고 스스로 누명을 씌운걸 보면 그는 본인 보다 세상의 선과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 영화 제목대로 다크나이트 다크히어로임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비덴트: 영화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면 하비덴트 일 것이다. 그는 법과 질서를 앞세워 고담의 범죄를 척결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좋은사회 를 만들려 했으나 고담시의 마피아들과 부패한 경찰 조커 때문 에 실패한다. 위 해석 부분에서 말했듯이 하비는 앞면과 뒷면이 같은 동전을 늘 갖고 다녔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정도로 신념이 있는 자였다. 허나 그런 그도 레이첼 을 잃고 얼굴의 반이 타면서 그 시점부터 그는 자신의 신념이 사라지고 분노와 복수심만 남은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때 조커가 나타나 그의 분노를 살짝 밀어 광기로 물들였고 그 분노를 사회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 한건 운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때부터 악당 투패이스 가 되어 뒷면이 타버린 동전으로 법과 질서가 아닌 운으로 마피아, 부패한 경찰들을 심판한다. 어쩌면 그는 조커가 가장 공들여서 만든 장난감이 되 버렸다. 그러나 그가 죽고 베트맨 이 그 죄를 뒤집어 스스로 뒤집어써 그는 고담시의 백기사로서 남을 수 있었다.

4. 감독과 배우

다크나이트 를 만든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으로 그는 할리우드에서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하니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셉션, 메멘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등이 있다. 그는 다크나이트를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가 아니라 범죄영화 로 초점을 맞추었고 뛰어난 촬영기법과 cg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특수효과를 사용한 액션신 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는 다크나이트로 제 35회 [14]새턴 어워즈에서 최우수 액션, 모험상 을 받았고 아카데미에서 남우조연상과 편집상을 받았다. 특히 놀란 감독은 cg를 사용 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특수효과를 많이 썼는데 그는 베트맨 이 트럭을 전복시키는 신을 cg없이 실제로 트레일러 트럭에 강력한 피스톤을 설치한 후 전문 스턴트 배우가 전복시켰다고 한다. 병원을 폭파 시키는 신은 더는 사용되지 않는 영국의 건물에서 촬영되었는데 그는 건물이 폭발하면서 순차적으로 무너트리는 걸 찍기위해 건물구조를 사전에 절단하였고 각층과 바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 이 모든 준비에 3주가 걸렸다고 한다. 특히 어렸웠던 장면은 초반 은행강도 씬에 스쿨버스 가 은행벽 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스쿨버스 가 들어오는 장면은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는데 실제 영화 촬영장에서는 바깥도 실내로 되있었기 에 큰 버스가 들어올 출입구가 없었다. 그래서 버스를 실내에서 재조립 했다고 한다. 리얼리즘 을 추구하는 놀란 감독은 다크나이트 를 찍을때 일반 필름이 아니라 아이맥스 필름을 사용하였다. 아이맥스 필름은 일반 필름보다 9배 이상 크고 해상도 와 정보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영화 전체 시간 2시간 32분중 37분을 아이맥스로 촬영되었다고 한다. 아이맥스로 촬영하면 무겁기에 여러대로 촬영을 할 수 없고 한번 촬영하면 [15] 롱테이크 로 촬영되는 아이맥스의 특성상 다크나이트 는 통편집이 줄어들고 디테일 과 사실감이 극대화 되었다.

히스레저: 히스레저 의 조커는 영화 속에서 미친 존재감을 내뿜었고 지금도 조커라고 하면 히스 레저의 조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조커의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혼자 호텔방에 들어가 조커에 대한 만화와 영화를 닥치는 대로 보고 조커에 심정에 대해 일기를 쓰고 자학을 하는 등 조커 에 대한 연구 를 미친 듯이 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가 조커 연기에 너무 몰입을 하여 미쳤다는 소문도 돌 정도였다. 그렇게 완성된 히스 레저의 조커는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엄청난 연기력을 넘어서 조커 그 자체라고 불릴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심지어 배우들의 애드립을 싫어 하는 놀란 감독이 히스 레저의 애드립 은 허용할 정도였다. 그 애드립 은 고든 이 경찰청장에 임명되었을 때 조커가 감옥에서 박수 를 치는 장면이었다. 히스 레저는 안타깝게도 영화가 개봉하기 전인 2008년 1월 22일 약물과다 복용과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28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만다. 그는 이후 죽어서 아카데미의 남우 주연상 을 수상하게 된다.

크리스찬 베일: 비록 히스레저 의 조커에 묻혔지만 크리츠찬 베일의 베트맨 역시 연기가 훌륭했다. 그는 베트맨 삼부작 시리즈 베트맨 비긴즈 부터 다크나이트 라이즈 까지 출현한 배우로

14) 새턴상(Saturn Award)은 영화, TV 드라마 등의 우수한 과학 소설, 판타지, 공포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다. 1972년 처음 시작되었다.

15) 영화의 쇼트 구성 방법 중 하나. 1~2분 이상의 쇼트가 편집 없이 길게 진행되는 것.

베트맨 시리즈 중 가장 장기적으로 출현한 배우이다. 다크나이트 에서는 고뇌하는 베트맨의 연기를 심도 있고 깊게 해내었다. 또한 베트맨 을 가장 귀족 스럽게 연기한 배우같다..

에럭 엑하트: 하비덴트 를 맡았던 배우로 다크나이트 를 찍고 나서 인지도가 생겼다. 개인적으로 그는 법과 질서, 정의의 상징인 하비덴트 가 소중한 것을 잃고 조커에게 타락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광기로 물들여 가 결국엔 타락하는 연기를 무척 잘하였다.

<사바하> 비평문

-욕망의 변천 김제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181062 윤은진

1. 서론
 1.1. 종교
 1.2. 마태복음 2장 16절
 1.3. svāhā
 1.4. 줄거리
2. 본론
 2.1. 선과 악
 2.2. 김제석과 그것
 2.3. 그것의 진면목
 2.4. 김제석의 죽음
 2.5. 아쉬운 점
3. 결론

1. 서론

1.1. 종교

종교는 언제부터 인지 모를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의 삶에 함께했다. 유물과 유적지에 남아 있는 종교적인 행위의 흔적이 이를 말해준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든 종교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종교는 인간이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를 표현하는 통로의 역할도 도맡아 해왔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일까? 명확히 답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종교는 신 개념과 신에 대한 신앙이다.[16] 때문에 누군가 특정 종교를 가진다면 신앙심은 자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때때로 신앙심은 무조건적이며 무비판적인 성격을 가진다. 종교에서 신은 절대자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궁금증을 갖는 행위는 절대자를 향한 일종의 불신이 되고만다. 하지만, 본고에서 알아볼 영화 <사바하>의 감독 장재현은 영화를 통해서 절대자에게 스스럼없이 질문을 던진다.

1.2. 마태복음 2장 16절

장재현은 영화 속 인물 박목사를 자신의 페르소나로 설정한다. 페르소나 박목사는 장재현을 대신하여 신에게 끊임없이 원망 섞인 질문을 한다. 장재현의 원망이 합리화하는 것이 영화 <사바하>인 것이다. 장재현이 마태복음 2장 16절의 내용을 <사바하>의 모티프로 삼은 이유도 이에 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은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난다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분노한 헤롯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사내아이들, 그때 기준으로 2살부터 그 밑에

1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1997, pp. 13-16. 참조.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내용이다.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 속에서 탄생한 예수,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화 속 아이들의 모습은 절대자를 원망하는 것에 정당성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 가족이 전부 총에 맞아 죽었거든 … 근데 범인으로 잡힌 13살짜리 무슬림아이가 한 말이 뭔줄알아? 신의 뜻이래.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정말 개미들처럼 지지고 볶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하고 계시는지"[17]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 매년 성탄절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이날은 너무 슬픈날이라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18]

"어디계시나이까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렇게 울고만 계시나이까 깨어나소서 저희의 울음과 탄식을 들어주소서 일어나소서 당신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19]

결국, <사바하>는 이단 종교에 속아 살인을 저지르는 정나한의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놓고 박목사의 시선을 빌려 관객에게 종교의 잔인함, 신에 대한 원망을 고발하는 영화이다.

1.3. svāhā

'svāhā'란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다. 불교에서 사용되는 말로 주문을 말한 후, 말미에 덧붙임으로써 앞선 주문을 마무리 함과 동시에 기원의 의미를 담아낸다.
본고에서 알아볼 영화 <사바하>도 여기서 제목을 따왔다.

1.4. 줄거리

극동종교문제연구소에서 일하는 박목사는 신흥 종교 '사슴동산'을 조사한다. '사슴동산'은 불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종교이다. 종단 집행부의 힘을 빌려 '사슴동산'에 압박을 가하려던 박목사의 계획은 증거 부족이라는 스님들의 의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슴동산' 건물을 뒤지던 박목사는 '사슴동산'의 경전을 찾게 된다. 경전을 쓴 풍사 김제석을 조사하던 박목사는 경전에 등장하는 4명의 장군이자 '사슴동산'이 모시는 존재가 사천왕이고, 김제석이 소년 교도소에 찾아가 소년수 4명을 꼬드겨 경전 속 사천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제석의 목적은 네충텐파가 해준 예언,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날 자신의 천적을 죽이는 일이었다. 박목사는 최근 발견된 여중생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도 김제석의 짓임을 알게 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영월의 1999년생 여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사천왕의 손을 빌려 1999년 영월 출생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한 김제석을 제지한 것은 1999년 5월 22일[20]에 태어난 '그것'이라 불리는 괴물이었고, 그것의 희생과, 진실을 알아버린 사천왕 광목 정나한의 희생으로 김제석은 죽게 된다.

2. 본론

영화 <사바하>는 데뷔작 <검은 사제들>로 국내 오컬트 영화계에 이름을 알린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다. 두 영화는 제작 시기의 텀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17)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18)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19)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20) 1999년 5월 22일은 석가탄신일이었다.

명확하다. 오컬트 영화계의 수작이라 불리는 <엑소시스트>의 흐름을 따라한 <검은 사제들>과 다르게 <사바하>는 장재현, 본인만의 색채를 담았기 때문이다. <사바하>는 창작 계기부터 장재현, 자신을 담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사바하>는 장재현의 페르소나, 박목사의 눈을 빌려 이단 종교와 잘못된 믿음에 의해 희생 당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관객이 집중할 것은 정나한과 김제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본고의 본론에서 필자는 <사바하>에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는 선과 악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설이다. 선과 악은 성불에 가까이한 김제석의 몰락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고, 연기설은 악으로 몰락한 김제석과 그런 김제석이 불러낸 그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결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본론을 끝내도록한다.

2.1. 선과 악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불교의 정신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각자가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행을 말한다. 각각의 시대와 지역[21]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언제, 어디 서나 불교의 수행과 실천은 선이 중심이 되고 있었음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선은 부처가 제시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각자가 직접 실천하는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선은 불교의 정신을 깨달아 자기화하고, 생활화하고, 인격화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며 수행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22]

영화에서 김제석은 '신이 된 사람'이라고 불리며, 성불의 극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0년쯤에도 일본에서 김제석을 스승으로 모실 정도였고 광복 이후에는 일본이 착취한 보물을 다 받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종국이 애매해지면서 그는 모든 것을 종교계와 복지에 썼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동방교였다. 동방교가 무엇인지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김제석이 만든 불교의 종파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불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이 부처의 말을 설하는 것은 자기 주체적인 불법의 수행과 실천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경전을 집필하기 전까지 불교의 '선'에 서있던 김제석은 성불에 대한 집착으로 '악'에 가까운 사람으로 변모한다. 김제석은 자신의 성불을 도와줄 수호신, 사천왕을 소년 교도소에서 찾는다. 김제석이 찾은 4명의 수호신은 모두 부친 살해 소년수들이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소년수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자신을 대신해 손에 피를 묻힐 만한 깜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제석이 앞으로 할 일은 자신의 천적을 죽이는 일이다. 종교에 몸을 담근 자가 수많은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고 싶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소년수를 이용해서 죄책감 없이 천적이 될만한 아이들을 죽인 것이다.

"별의 강에 정씨야 들어라, 광목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광목이야. … 서쪽 귀신들을 잡는 용맹한 장군이다. 너는 별이 될 것이야. 나의 별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될 것이야 … 제가 꼭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을 이루시고 어두운 이 사바세계를 비추실 것입니다."[23]

두 번째, 소년의 마음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다. 소년수가 부친을 살해한 데에는 다 이유

---

21) 인도, 중국 한국 등의 지역을 말한다.

2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1997, p. 275. 인용.

23)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가 있다. 물론, 살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바하>에서 부친 살해 소년수들은 부친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을 상처입은 소년수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낯설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해온 아버지의 포근함과 따뜻함으로 다가간다. 아버지의 품을 부러워했을 소년수들은 김제석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김제석이 선을 저버리고 악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다. 영화 후반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승려들이 왕에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 코끼리 눈을 한번 봐 봐요. 어떤가요? 코끼리 눈이 무섭게 느껴지면 마음이 악한 거라고 인도의 승려들이 매일 들여다보라고 왕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 왜 넌 코끼리가 무섭지 않을까"[24]

이 인용문은 김제석과 정나한이 코끼리를 바라보며 하는 대화이다. 김제석은 저 대사와 함께 코끼리와 정나한을 총으로 쏜다. 그러고는 정나한에게 왜 '너는' 코끼리의 눈이 무섭지 않냐고 묻는데, 이는 자신은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아이들을 죽이고 다닌 너는 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질문으로 김제석이 코끼리의 눈을 보고 자신의 악함을 느꼈음을 증명해준다. 악으로 완전히 변모함을 인정받은 김제석은 9000천만 원을 들여 받은 코끼리를 죽이게 된다.

2.2. 김제석과 그것

<사바하>의 중요한 인물인 '김제석'과 '그것'은 연기설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연기설이란 서로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연기설은 관계의 정의[25]를 따왔을 뿐 완전한 연기설이라고 불 수는 없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26]

이 문장이 연기설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적격이다. <사바하>에서 연기설은 김제석과 그것, 둘 사이에 적용된다. 관계의 시작은 김제석이 영생에 대한 욕망을 품었을 때이다.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맺고 있지는 않았다. 김제석은 1899년 출생이고, 그것은 1999년 5월 22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100년의 시간 동안 김제석은 밀교의 성불인 '육체를 이김', 즉 영생에 가까워진 사람이었다. 그의 성불에의 소망은 네충텐파의 예언에 의해 욕망으로 변하고 만다.

"낮은 땅에서 지렁이가 태어나면, 그위 높은 곳에서 그것을 잡는 매가 태어나는 법이죠"[27]

"제 예언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28]

티베트 대승인 최고의 예언가 네충텐파는 김제석에게 1999년,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를 위협할 천적이 태어난다고 예언했다. 구체적으로, 그 천적이 피를 흘릴 때, 김제석은 죽을 것이

24)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25)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관계의 정의를 말한다.
2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1997, pp. 75-76. 참조.
27)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28) 장재현, <사바하>, 외유내강. 2019. 중에서

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의 성불, 즉 영생(永生)에 방해꾼이 있음을 알아버린 김제석은 영생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인간의 번뇌 가운데에 가장 뿌리 깊다는 삼독[29] 중 하나인 탐욕[30]을 하게 된 김제석은 더 이상 성불에 가까워질 수 없게 된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영생을 탐하는 악이 생겨나고 이 악은 '그것'을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 김제석과 그것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정확히는 영생을 원하는 김제석의 '욕망'과 '그것'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영화가 진행되는 초반은 그것의 존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그저 금화의 쌍둥이 언니, 괴물로 생각될 뿐이다. 때문에 이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 이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전부다. 김제석의 '악'이 만들어낸 관계, 그것은 김제석을 닮아 '나쁜 기운'을 가진 채로 태어난다. 그것이 태어나는 날 짐승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고,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고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쌍둥이가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할아버지는 말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목을 매고 자살했다. 그것의 탄생이 불러온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이후 금화의 가족이 이사를 가서도 집요하게 달라 붙은 비극은 마을의 모든 짐승을 죽였다.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짐승에 굿을 했지만, 무당도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을 느끼고 그것은 해결되지 못 한다.

그것은 '사슴동산'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드러나게 된다. 김제석의 욕망에서 시작된 살인을 막으려는 이유로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영화의 후반 김제석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정나한을 통해 김제석을 없앤 후 자신도 목숨을 잃게 된다. <사바하>에서 그것의 존재는 오직 김제석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그것의 진면목

괴물이라 부를만한 그것은 금화가 초경을 하는 날, 즉 김제석의 죽음이 예고된 날에 진면목을 드러낸다. 그것은 부처의 모습을 하고 정나한을 기다린다. 게다가 그것은 정나한과 얘기할 때 수인을 사용한다. 수인이란 부처가 깨달음의 덕을 표시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표상이다. 그것은 총 3가지의 수인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전법륜인'이다. 이는 불교의 진리를 전하는 수인으로 지혜를 의미한다. 앞에 있는 정나한에게 나를 똑바로 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두 번째는 '시무외인'이다. 이는 두려움을 없앤다는 의미로 정나한에게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항마촉지인'이다. 이는 석가모니가 수련을 할 때, 온갖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땅의 강력한 울림을 주는 모양새다. '항마촉지인'을 한 그것은 '그 자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부처의 형상으로 수인을 쓰면서 정나한을 마주한 이유는 정나한이 불법에 귀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불교에 몸 담근 정나한의 신뢰를 얻을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믿는 존재. 그에게 가장 깊은 신앙의 대상의 모습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행색을 바꾸기까지 하면서 김제석을 없애려 한다. 김제석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한 '항마촉지인'을 쓰는 모습도 보인다. 비록, 그것이 김제석의 악을 닮아 비극을 달고 태어났지만, 본래 그것은 선한 존재였던 것이다.

2.4. 김제석의 죽음

정나한은 사천왕 중 한 명인 광목천왕이다. 사천왕은 짐승으로 자라났지만, 부처를 만나고

29)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해당된다.
30) 불교방송 편성제작국, 「알기쉬운 불교」, 불교방송 출판부, 1992, p. 53. 참조.

불법에 귀의 하면서 신이 된다. 신이 된 사천왕은 부처의 곁을 지키며 악귀를 잡고 승천하여 결국 부처가 된다.

<사바하>는 김제석이 정나한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이 난다. 정나한은 보면 볼수록 사천왕과 비슷한 면모가 많다. 짐승으로 자란 사천왕처럼 정나한의 삶도 인간답지 않았다. 그는 사창가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그가 사는 사창가에서 일했고, 그의 아버지는 포주로 추정된다. 인간의 이성은 느껴지지 않는 사창가에서 자란 정나한은 짐승처럼 자라 짐승에 가까워진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소년원에 오게 된다.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도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폭력성과 잔혹함, 야만성이 느껴진다. 그 후 정나한은 소년원에서 그의 부처라 할 수 있는 김제석을 만나고 불법에 귀의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불법이 흔히 불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석의 욕망에 물든 손에서 만들어져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요구하는 잘못된 불법이지만 말이다. 이제 신이 되어 악귀를 잡고 승천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정나한이 해야 할 남은 일이다. 하지만 이 순간, 정나한은 그것을 만나게 되고 김제석. 즉, 정나한 자신만의 부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결국, 광목천왕 정나한은 그것의 진면목을 보고 선의를 잃어버린 악귀, 김제석을 잡게 된다.

김제석을 잡기는 했지만, 결국 정나한도 목숨을 잃는다. 잘못된 부처를 따른 정나한이 광목천왕처럼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약한이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이단 종교의 잔혹함이 더욱 짙게 느껴진다.

2.5. 아쉬운 점

<사바하>는 한국 오컬트계에서 주목 받는 인재 장재현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검은 사제들>이 5,443,232명의 관객수에 달한 것에 비하면 <사바하>는 2,398,519명으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 또한, 영화의 평점을 보면 이마저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한다.

영화 <사바하>는 복잡한 이야기 구조로 인하여 인물의 목소리를 빌리게 된다. 하나 하나 장면으로 설명을 하자니 너무 방대하고 길어져서 인물이 하는 설명에 정보를 넣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자주, 오래 등장할수록 영화의 재미는 반감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남은 <사바하>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멈추지 못한다.

이런 방식의 전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아무리 긴 설명이라 하더라도 인물 간의 대화에 잘 녹아들면 집중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면에서 <사바하>는 몇 가지 설명 장면은 잘 녹여냈지만, 대부분의 설명이 영화 자체에 스며들지 못하고 영화에 얹혀있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다.

또한, 상징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종교와 관련한 상징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동물들이 그렇다. 종교 소재라는 것도 충분히 어려운데 이에 더해진 수많은 상징물은 영화의 이해를 돕기보다 방해할 뿐이다.

이런 점들이 관객에게 아쉬움을 남겼고, 영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3. 결론

본고에서 필자는 정나한, 김제석과 그것을 중심으로 영화 <사바하>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은 불교에 기반하고 감독의 영향으로 기독교의 향이 살짝 남아있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비록 장재현 본인도 감당하지 못할 양의 다양성을 영화에 담아서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끝

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양한 종교의 합일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사바하>는 의의를 가진다. 다양한 종교가 한 데 잘 어우러졌다는 것이 장재현 감독의 수고에 박수 쳐 줄 점이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사바하>의 주된 내용들이 모두 굵직한 것들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선과 악, 연기설, 사천왕.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성할 정도의 규모임에도 중첩하여 영화에 담은 것, 특히 두드러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사바하>는 신, 절대자에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보장되지만 왠지 모르게 신에게 질문은 던지지 못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진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남들은 무서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영화들이 한국에서 제작되기를 바란다.

다크나이트의 영향.

영어영문학과
20151207 김태민

히어로 영화의 패러다임과 히어로 영화가 아이들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고 평론가들과 다른 영화감독들에게 극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가 '다크 나이트'다. 보수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히스레저가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 여러 부분에 후보가 되었다는 것만 봐도 이 영화의 상징성을 알 수 있다. 물론 다크 나이트 이전에 스파이더맨 2 도 있었다. 스파이더맨 2는 유치하지 않고 인간 피터 파커의 성장 스토리를 담아내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크나이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크 나이트의 영향으로 어두운 분위기의 히어로 영화가 나오면 제2의 다크 나이트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까지는 다크 나이트처럼 영화사에 영향을 끼친 작품을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크 나이트는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생각 해 볼 것을 많이 준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다크 나이트가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 생각한다.

우선 이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게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이다, 여기에서 배트맨의 존재감이 다른 배트맨 영화에 비해서 떨어져 보이는 인상을 준 것이 바로 조커다. 그렇다면 조커가 어떻게 인상을 남겼을까?? 이유는 간단 할 수 있다. 우선 영화사에 제일 기억에 남는 등장 장면 중 하나가 조커의 캐릭터성을 너무 잘 보여줬다. 조커는 은행을 털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서로를 죽이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서로를 배신하게 한다. 이러면서 조커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종용하면서 인간은 썩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자기부하도 죽여 버리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조커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 했듯이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커는 말 그대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상처가 생긴 이유도 모른다. 그야 말로 예측 불허의 캐릭터이다. 또한 히어로영화의 악당 중 하나인 세계정복이나 돈을 터는 게 목적도 아니다. 알프레드가 이야기 했듯이 조커는 그냥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를 바라는 암흑의 사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커가 나올 때 등장하는 특유의 음산한 ost가 조커를 각인 시키고 공포의 존재로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조커는 하비 덴트를 투 페이스로 타락시킬 때 했던 말이었던 자기는 무계획적이고 즉흥 적으로 일을 벌인다고 주장하는데 하비 덴트를 투 페이스로 타락 시킬 때의 과정이나 배트맨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테러들을 자행 할 때 하는 짓들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 된 것을 생각해보면 앞뒤가 다른 인물이자 말 그대로 혼돈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또한 조커의 대척점으로 있는 인물들이 조커를 더욱더 영화에서 개성이 잘 드러나게 만든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조커의 대척점으로 있는 인물이 배트맨 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하비 덴트야 말로 조커의 대척점으로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조커는 법의 영역 밖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하비 덴트는 법의 질서를 수호하는 검사답게 질서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자신의 신념을 관찰시킨다. 배트맨은 정의를 수호 하고 고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커와 다르게 보일 수 도 있지만 조커처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배트맨이 조커와 성격이나 행동은 완전히 다르지만 행동 영역이 법을 어기는 무질서적인 것을 보면 서로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지 조커도

마지막에 배트맨에게 잡혔을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영원히 싸울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하고 싸우는 게 재미있고 자기를 완성 시킨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이 둘에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하비 덴트와 제임스 고든이다. 하비와 고든은 공직자로서 법의 이름하에 범죄와 싸우고 자신의 일을 진행 시킨다. 물론 하비도 영화 중반의 시장 암살 사건이 저지된 이후 거기에서 잡힌 정신 분열증이 있는 범죄자를 동전 하나로만 심판 하려는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선을 넘을 뻔한 지만 투페이스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자신의 행동을 법의 울타리안에서 집행하였다. 또 다른 공직자인 고든은 모두가 부패한 고담 경찰 중에서도 배트맨이 신뢰하는 가장 큰 조력자 이자 고담에서 배트맨과 하비 덴트와 더불어 가장 정의로운 인물이다. 물론 하비는 연인의 죽음과 자신의 공권력에 대한 회의감이 겹치면서 타락하면서 조커처럼 무질서 하게 행동을 하면서 연인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든의 아들을 심판하려 들면서 자신의 신념과 선을 잃어버리면서 투페이스가 되어 버렸다. 그에 비해 고든은 후반부에 조커 검거작전에서 덴트가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병원폭발에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강박적으로 작전을 진행시키면서 배트맨의 일을 어렵게 만드는 등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비처럼 자신의 선을 잃고 폭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의를 지켰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트맨도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자신을 대신 할 수 있다 생각한 하비가 타락했지만 조커나 덴트처럼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정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커와는 다른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크 나이트의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부두에서 조커가 범죄자들의 배와 일반 시민들의 배에 폭탄을 심어두고 서로에게 기폭기를 주면서 서로의 배를 터트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사회게임 이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마이클 센델의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온 사회게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기차의 방향을 두고 선택을 물어본다. 기찻길의 방향을 바꾸면 한명이 죽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고 그대로 안 바꿀 경우 한명은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죽는 다는 선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한 명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구하는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다크 나이트에서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시민들의 배에서 드러난다. 범죄자들은 수감을 받고 처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누르면 범죄자들이 누를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에 결국 투표로 정하게 되는데 찬성이 더 많아서 기폭장치를 누르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살고는 싶으나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쉽사리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명의 지원자가 나와서 누르려고 하나 범죄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어서 결국 누르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범죄자의 배에서는 기폭장치를 누를 것 같았던 범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폭장치를 바다에 던져 버린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가혹한 2가지의 선택 사항 중에 놓여 있을 때 아예 그것을 아무것도 안하는 방식으로 피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은 자의든 타의든 조커처럼 엄청 뒤틀린 인물이 아닌 이상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본 양심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를 반증 하듯 작중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조커가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준다. 배트맨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이 너처럼 추하지 않고 고담에는 정의를 믿고 수호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장면 직후에 조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담의 백기사인 하비의 타락을 보면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배트맨을 무너뜨리려 하고 인간의 내면은 썩었다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 한다. 결국 하비 덴트가 투페이스로 타락한 것을 보면 조커

가 승리했다고 고든이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을 한다. 그러나 배트맨이 고담을 위해서 자신이 하비 덴트가 저지른 죄를 대신 뒤집어쓰면서 스스로 악당이 되어서 고담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으려 한다. '때론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생각한다. 사람들은 특정 불편한 진실을 마주 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려서이거나 실망감을 안겨 줄 수 도 있기 때문 일 수 도 있고 어쩌면 자기 안에 내제되어 있는 욕망이나 안 좋은 모습과 비슷해서 마주하기 힘들어 하는 걸 수 도 있다.
위의 조커 검거작전 직후에 나온 배트맨과 조커의 대화에서 나온 배트맨과 조커가 사람들을 생각 하는 방식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생각한다. 배트맨처럼 사람은 선하고 그 선함을 바탕으로 사회가 나아 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조커처럼 사람들의 내면은 추악하고 쉽게 타락하기 때문에 사회는 좋아지기 힘들다고 보는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조커의 생각은 배 폭파 상황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깨진다. 배트맨처럼 인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커처럼 생각 하는 사람이 대다수 일 경우 아마 우리 사회는 전세계 적으로 무정부의 혼돈의 상태로 빠졌을 것이다.
다크 나이트는 우리에게 또한 정의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배트맨이 조커 검거를 위해서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CEO인 폭스에게 고담 시민들의 휴대폰에 도청장치을 심어서 조커를 추적하도록 부탁한다. 우리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정의를 위한 것 이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등 결과가 괜찮으면 목적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법 관련 이슈를 떠오르게 한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정원에게 핸드폰 통화내역과 은행 감찰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또한 무슨 권리로 국정원이 함부로 남에 대해서 도청을 하고 감시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법의 테두리를 넘는 배트맨을 보면 확실히 조커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 물론 배트맨은 본인도 이것이 안 좋은 행동임을 알아서 나중에 폭스에게 도청장치를 파괴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선을 지킨다.
영화 다크 나이트를 처음에 봤을 때의 충격은 조커가 정말 무서웠고 배트맨은 멋있고 너무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여러 번 보고나서는 철학적인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을 보고 나면 인간이나 사회의 옳고 그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이슬람의 두 얼굴, 그들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중국학과
20161512 박예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사실은 아무런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이 말이 우리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이 표현은 서구인들에 의해 생겨난 말로 이슬람 세력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에서 탄생된 용어이다. 서구인들과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며 편견과 증오를 양산해 온, 망령 그 자체로 표현된다. 아직 우리에게도 이슬람은 다소 낯선 문화이다. 이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와 거리가 먼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종교의 모습, 이슬람의 여성인권, IS의 소행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이슬람의 부정적인 면모들만을 머리 속에 어렴풋이 그려낸다. 세계 인구의 4/1을 차지하고, 한국에만 무슬림이 4만명,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다면 약 15만명 정도에 달하는 이슬람과 이슬람 세계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문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슬람과 이슬람의 세계에 대해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간 이슬람에 가장 적대적인 미국과 유대 중심의 언론과 자료를 통해서만 이슬람 세계를 이해할 수 박에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지적 편중이 가중되었고, 서구식 패러다임은 이미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양산해 왔다.

저자 이희수 교수는「이슬람 문화」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들을 보다 친근한 이웃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슬람교와 종교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기독교와의 차이점, 무슬림들의 삶, 마지막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의 실상에 대해서 까지도 설명한다.

먼저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적인가? 에 대한 물음이다. 지구상에서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꾸란의 60%가량은 구약의 내용과 비슷하고, 18% 정도는 신약성경과도 유사하다. 꾸란에도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기적, 예수의 재림 그 이외에도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한다. 이슬람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신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이슬람교를 지목해 왔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한 이슬람의 믿음 체계에 있어서도 무슬림들은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언어학적인 어원은 ‘평화’, 즉 이슬람의 핵심이자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냄을 강조한다.

책의 2부에서는 무슬림의 삶과 낭만을 말한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어떤 사회보다 강하다. 남아의 출생을 신의 은총으로 보는 이슬람 사회는 생존전략상 가부장적 사회, 부계중심사회로 성행되었으며 절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속되어야 했고, 여아살해 관습과 일부다처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무슬림의 일생에 의식은 빠질 수 없다. 출생의례부터 성장과 교육, 결혼과 죽음까지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식과 행위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뿌리와 관습에 바탕을 둔다. 이슬람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두 동물을 소개함이 흥미롭다. ‘낙타를 알면 아랍이 보인다.’ 낙타를 알면 아랍인들이 보인다는 표현만큼이나 낙타는 아랍인들의 교역이나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 곧 생존이라 불린다. 아랍인들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낙타와는 대조적으로 돼지는 꾸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기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송과 이동기능 전쟁보조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기능을 하지 못해 철저히 배척된다.

2부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이슬람 문화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바자르 전통시장, 아랍의 먹거리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이슬람 지역 어느 곳에 가도 바자르가 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닌, 감동과 애환, 역사가 있는 곳으로 표현된다.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모든 무슬림들이 단식을 한다는 사실이다. 단식의 목적은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똑 같은 조건을 공유하게 해서 배고픈 자와 빼앗긴 자의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케 하자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다.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공동체가 강화됨이 놀랍고 매우 긍정적임을 강조한다. 종교축제 이드와 터키 커피는 아랍의 정서를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저자는 이슬람의 낭만적인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의 실상에 대해 말한다. 저자 이희수는 이슬람 원리주의, 폭력과 테러의 이념적 온상으로 자리잡은 이 개념은 1940년대 서구식 정치질서와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이슬람 운동에 서방세계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한 용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끊임없는 경제적 착취와 이슬람 가치체계에 대한 흠집내기가 이슬람을 과격주의와 폭력주의로 발전하게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하드에 대한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다. 극렬 테러조직의 이름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지하드는 그 자체가 무력투쟁을 위해서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명 자기방어의 방식, 순수한 방어목적이며 옳은 길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하드는 단계를 밟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방식이 가장 졸렬한 소지하드로 분류되고 있다. 저자는 이슬람권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서구의 전략적 음모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 총 3부에 걸쳐 저자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이슬람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보다 가까이 취재하여 설명하는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 간다. 우리는 이슬람을 떠올릴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사막과 아랍인들의 모습, 히잡을 쓴 여성들, 무슬림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는 IS의 세력 등 이슬람을 떠올릴 때 각기 모든 사람이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만큼 이웃나라의 느낌보다는 먼 나라, 우리와는 생김새와 문화 생활도 다르고 낯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들의 삶과 가치에 대한 뿌리 즉 역사와 풍토를 곁들어 알게 되니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와 사고의 전환이 가볍고 쉬워진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독자로 하여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저자는 정작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과 증오심이 있으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슬람,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한다. 가장 먼저는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다. 언어학적인 어원으로 '평화'를 뜻할 만큼 신성하고 존중 받아야 마땅할 이슬람교가 '왜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지' 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 의문만 던질 뿐. 기독교 교리와 이슬람의 교리가 무엇이 다르며 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실체는 드려다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실제로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를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종교로 말한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마의 교리라고 불리는 코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교리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성한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고 여성들과 노예에 대한 폭행과 살해 또한 서슴지 않는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

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코란9:111) 등의 교리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 증오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교의 핵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와, 평등은 진정으로 어디 있는가. 코란 속에 등장하는 교리들 가운데 폭력이 곧 IS의 극악무도한 테러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사랑은 어디 있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 저자가 '낭만' 이라 표현한 무슬림의 일생 그 가운데 '여성들의 낭만은 어디에 있는가' 이다. 책에서는 무슬림의 일생을 소개함에 앞서 '남자를 위하여' 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저자는 교역, 목축, 전쟁이 주요한 삶의 방편이 되는 오아시스 구조에서 여성의 생산 활동과 생계유지가 지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리 환경의 근거를 들며 여성의 지위와 모든 생활을 통제함이 당연시 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여성의 남성의존과 일부다처제의 문제를 아랍의 유목사회가 갖는 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21세기 사회의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문화를 가진 종교가 또 어디 있던가. 일부 아랍권의 나라에서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여성의 할례가 허가 되는 등 조금씩 여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과 지위는 여전히 남성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교리에 의해, 남성들의 힘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받는 이슬람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 이슬람의 문화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토착화된 관습과 문화에 의해 굳어진 악습들이 끊어지고 개혁되어야 함이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과 테러의 대한 오해이다. IS 이들은 누구인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슬람의 테러 집단은 진정으로 이슬람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다. 안타깝게도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구의 전략적인 음모라 두둔하기 바빠 보인다. 『사탄의 본문』(The Satanic Verse)저자 살만 루시디는 이슬람에 대한 서방 세계가 이슬람 테러와 이슬람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하며 "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빈 라덴과 알 카에다를 지지하며, 수만 명의 무슬림 전사들이 성전을 촉구하는 물라의 호소에 응답하여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는가?" 라고 반문한다. 저자가 말하는 이슬람의 원조주의 역시 '운동에 서방세계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한 용어' 라고 말하지만, 정치와 폭력을 정당화한 운동이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 근거로 빈 라덴은 190년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고 알 카에다를 조직,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이 전쟁은 이슬람 테러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악순환 되고 있는 테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진 자로서 먼저 푸는 것을 순리라고 말한다. 땅을 빼앗긴 자의 아픔과 약자의 응어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테러 조직의 소행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감싸 안을 수 없다. 책은 이슬람 문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슬람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해결해 주지 못한 채 그치고 만다. 그저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말하기에는 풀리지 않는 편견들이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와 다문화시대, 다양성을 존중하는 움직임 앞에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슬람,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적으로 두어 경계해야 하는가? 말씀에 순종함이 철저하고 세계 곳곳에 종교를 전파함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교리를 변별력을 가지고 살펴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 이희수 외, 「이슬람: 이슬람 문명 올바로 이해하기」 라는 책을 추천한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역사와 문화, 정치 사회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입문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드림웍스의 전략

–<쿵푸팬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171093 정예빈

{목차}

1. 서론
2. <콩푸팬더>
2.1. 소개 및 줄거리 요약
2.2. 주요캐릭터 분석
2.3. 서사 구조 및 전략 분석
2.4. 서사 구조 및 전략과 매체로서의 특성 및 전략 사이 관련성의 분석
3. 결론

1. 서론

<쿵푸팬더>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다섯 손가락에 드는 작품인 만큼 누구나 알고 있는 큰 흥행을 성공한 작품이다. <쿵푸팬더>의 매력을 무엇이라고 하자면, 그것은 디즈니에서 볼 수 없는 코믹한 전개와 더불어 많은 개그적 요소와 아름답거나 멋있는 캐릭터가 아닌 게 우스꽝스러우면서 그런데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를 주요 인물로 설정하여 보는 사람이 지겨울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코믹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작품의 주제는 개그적 요소 사이사이에 드러난다. 하지만 주제는 너무 진지한 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코믹한 흐름에 맞게 맛을 내는 역할을 하기에, 다른 애니메이션에 비해 다소 가벼운 분위기에서 풀어낸다. 즉, 이 작품의 핵심은 코믹한 요소 그 자체에도 있지만 코믹한 전개 가운데 주제를 알맞게 나타내면서 결코 작품의 주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코믹'과 '주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냄으로써 단순한 개그 영화의 평이 아닌 향유자가 주제를 인식하게 만든 것이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쿵푸팬더>가 단순히 코믹한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주제를 코믹한 전개 사이사이에 잘 녹여냈다는 강점을 초점을 두고 서사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고 매체로서의 특성 및 전략 사이에 관계 분석 후 전반적인 비평을 하고자 한다.

2. <쿵푸팬더>

2.1. 소개 및 줄거리 요약

<쿵푸팬더>은 2008년 드림웍스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 자이언트 팬더 포가 천신만고 끝에 콩푸를 배우고 적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이다.[31)]

31) 양세혁,「<콩푸팬더> 캐릭터의 욕망과 두려움 분석」,『예술과 미디어』,한국영상미디어

<쿵푸팬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평화의 계곡에서 평범하게 살며 쿵푸 마스터를 꿈꾸는 국숫집 아들 포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 용의 전사로 지목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하지만 몸집이 크고 공처럼 둥그런 배를 가진 뚱뚱한 몸매의 포를 지도해주어야 하는 시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적의 5인방과도 갈등이 생긴다. 우그웨이 조언으로 이 갈등을 극복하고 포는 쿵푸의 고수가 된다. 하지만 타이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의 전사가 되어야 하는데 용문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위기는 극에 달한다. 결국 시푸는 마을 주민들을 피난을 가게 하고 홀로 타이렁을 맞서지만, 역부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다. 이때 포가 자신을 믿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타이렁을 물리치고 진정한 용의 전사가 되어 마을의 영웅이 된다. 그리고 마을을 지킨 포는 시푸 사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고 다행히 살아있었던 시푸 사부는 우그웨이의 예언대로 '평정심'을 찾고 행복하게 마무리가 된다.

2.2. 주요 캐릭터 분석

2.2.1. 포

<쿵푸팬더>의 주인공이자 역대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가장 코믹스러운 캐릭터. 자신 나름대로 노력함에도 뚱뚱한 몸과 운동신경이 거의 없는 몸치인 것 때문에 항상 웃긴 상황을 연출한다. 쿵푸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무적의 5인방의 피규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쿵푸 마니아이며, 몸집이 다른 마을 주민에 비해 크고 뚱뚱하며 맹목적 식탐 능력을 자랑한다. 그의 장점이라면 국숫집 아들로서의 요리 실력과 시푸 사부의 성대모사 등 남들을 웃기게 해주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포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쿵푸 마스터'와 다르기 때문에 시푸 사부조차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푸 사부의 강렬한 식탐을 이용한 훈련을 통해 몸을 단련시켜 자신감을 높였고, 타이렁의 결투 때 탄성 덩어리에 가까운 크고 펑퍼짐한 몸집이 아이러니하게 쿵푸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완벽하게 긍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이로써 포는 크게 성장하며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2.2.2. 시푸

형회,2011, 99쪽

시푸는 포의 스승이자 우그웨이의 수제자로 몸집은 작지만 당찬 외모의 소유자이다. 그 정도로 쿵푸의 실력은 탁월하지만 냉정하고 한 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깐깐한 성격의 캐릭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유가 있었다. 이전에 양아들이자 첫 제자이었던 '타이렁'이 정성스럽게 길렀지만 타이렁이 힘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결과 타이렁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용의 문서를 노리고 달려들 때도 도저히 해칠 수 없었다. 하지만 우그웨이 제자로서 스승과 같이 마을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여만 했던 그는 결국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위해 완벽한 스승이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려 했고 그런 자신의 철학으로 무적의 5인방을 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포가 '용의 전사'로 지목을 받을 때,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고 쫓아내려고 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우그웨이의 조언과 포의 강렬한 식탐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한 후 포에 맞는 훈련을 시키는 등 이전과 달리 사고가 열리게 되었고 자신도 알지 못했던 용문서의 의미를 포를 통해 깨닫게 된다. 이로써 시푸는 스승으로서 제자인 포를 용의 전사로 성장시켰고 포를 통해 자신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2.3. 타이렁

<콩푸팬더>에서 포와 대립하는 캐릭터로 시푸의 양아들이자 첫 제자이면서 유일한 악당이다. 갓난기 때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시푸에 의해 전폭적인 사랑과 훈육을 받으며 자랐다. 어릴 때부터 쿵푸에 천재적인 재능을 시푸가 눈치채면서 쿵푸에 큰 성장을 보이지만 우그웨이가 그를 용의 전사로 지목하는 것이 거절하는데 여기에서 시푸는 아무말도 못하고 수긍한다. 이에 그는 시푸도 자신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평화의 계곡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지만, 탈출에 성공하여 또다시 마을을 공격하며 용의 문서를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고 포와의 대결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용의 전사'와 너무나도 달라 끝까지 포를 용의 전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전히 용의 문서의 힘 때문에 강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용의 문서에는 아무런 비결도 쓰여 있지 않고 자신만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종이 한 장만 있음을 알고 이에 크게 분노한다. 하지만 포를 공격함에도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

2.2.4. 우그웨이

우그웨이는 시푸의 스승이자 쿵푸의 창시자이며 신선의 경지에 이른 초고령 캐릭터이다. 앞날을 볼 수 있으며 인자한 성격으로 서사 속에서 시푸와 포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쿵푸 실력뿐만 아니라 인자한 성격과 타인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는 배려심이 좋다. 그는 항상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필연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포를 용의 전사로 지목함은 작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그도 이 작품에서 오래 가진 않는다. 시푸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맡기고 포를 믿으라는 조언을 남기고 복숭아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비로소 신선이 되며 끝난다.

2.2.5. 핑

핑은 대대로 내려온 국숫집의 가업을 이어받은 국수의 장인이며 포의 아버지이다. 초반에는 포를 하루빨리 가업을 물려받게 하여 국수집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여 포가 국수 꿈을 꾸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늘의 계시라고 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용의 전사를 보러 장사할 도구를 던지고 간 포가 용의 전사라고 선택받은 것에 놀랐고, 후반에 포가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옴에 기뻐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포를 친부처럼 사랑하고 있지만 언젠가 포가 자신을 떠나가길 두려워하며 포를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그도 포를 사랑하기에 포가 침울해하며 자신과 함께 피난을 떠날 때 포를 걱정한다. 이때 핑은 가업 대대로 전해지는 국수 국물의 비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포에게 알려주고 포는 이를 통해 용의 문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포가 타이렁의 결투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핑은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포를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하며 포옹을 한다. 이것을 볼 때, 비록 포를 자신의 곁에 두려는 행동하는 등 아버지로서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포를 사랑하는 것에는 진실한 모습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쿵푸팬더>의 캐릭터들 중 주요 캐릭터 5명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코믹한 연출을 빼고 살펴보면 작품 속 내용에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

릭터의 완결성이 뛰어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단순히 코미디한 내용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들의 행동이 어색하지 않고 잘 흘러가게 해준다.

2.3. 서사 구조 및 전략 분석

2.3.1. 서사 구조

<쿵푸팬더>의 서사 구조는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성장 영웅 서사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영웅 서사를 영웅 여정 단계로 본 서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브글러의 영웅 여정을 중점으로 위 작품을 파악하고자 한다. 브글러의 영웅의 여정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웅은 일상세계에서 소개되어, 그곳에서
2. 영웅은 모험에의 소명을 받는다.
3. 영웅은 처음에 결단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거나 소명을 거부한다, 그러나
4. 정신적 스승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5. 첫 관문을 통과하고 특별한 세계로 진입한다. 그곳에서
6. 영웅은 시험에 들고,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게 된다.
7. 영웅은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접근하여, 두 번째 관문을 건너게 되는데
8. 그곳에서 영웅은 시련을 이겨낸다.
9. 영웅은 이의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고
10. 영웅은 세계로의 귀환의 길에 오른다.
11. 영웅은 세 번째 관문을 건너며 부활을 경험하고, 그 체험한 바에 의해 인격적으로 변모한다.
12. 영웅은 일상 세계에 널리 이로움을 줄 은혜로운 혜택과 보물인, 영약을 가지고 귀환한다.[32)]

위의 영웅 여정 단계를 토대로 <쿵푸팬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단계	여정 내용	작품 내용
1단계	일상 세계	국수 만드는 일이 포의 하늘의 계시라고 말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국숫집에서 일하는 포
2단계	모험의 소명	우그웨이 대사부가 포를 용의 전사로 지목함
3단계	소명의 거부	감옥을 탈출한 타이렁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용의 전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자 도망치는 포
4단계	정신적 스승과 만남	신의 눈물샘에 포를 데려간 시푸, 시푸와 포가 본격적으로 훈련함
5단계	첫 관문 통과	시푸의 훈련시험(만두를 먹는 것)을 통과함
6단계	시험, 협력자, 적대자	무적의 5인방이 타이렁과 만남, 패배한 무적의 5인방
7단계	동굴 깊은 곳으로 접근	용의 문서를 얻는 포

32) 김수정, 「영웅여정단계 내러티브 분류에 기초한 애니메이션 분석」, 『애니메이션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15, 47쪽

8단계	시련	용의 문서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음
9단계	보상	아버지가 국수를 잘 만드는 비법은 애초에 없었다고 포에게 말함. 덕분에 깨달음을 얻은 포, 용의 문서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봄으로써 의미를 깨달음
10단계	귀환의 길	타이렁과 싸움에서 패배한 시푸, 위기에 처한 시푸를 돕기 위해 포가 등장함
11단계	부활	포와 타이렁이 대결함
12단계	영약을 가지고 귀환	우쉬 손가락 권법으로 타이렁을 제압한 포, 마을 주민들과 무적의 5인방에게 진정한 용의 전사로 인정받음

위에서 보았듯이 <쿵푸팬더>는 보글러의 영웅 서사 12단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할리우드 영웅 서사 전형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시도를 넣은 서사보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너무 전형적이며, 클리셰가 많은 작품은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쿵푸팬더> 제작진은 '코믹 요소'를 특화 및 주제를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사의 클리셰를 보다 새롭게 느껴지게 해주는 역할을 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2. 전략 분석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작품의 전략을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쿵푸팬더>라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제목은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제목만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면, 그만큼 전체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쿵푸팬더>는 이러한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서양이 동경하는 오리엔탈리즘을 넣었다. 산업화 이후, 동양과 서양에 대한 내용이 양쪽에서 서로 동경하게 되었다. 드림웍스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부러 '동양적 요소'를 넣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양적 요소만 넣으면 동양 이외의 국가들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동양적요소는 중국이라는 배경과 '사부'라는 요소를 말한다. 그렇기에 드림웍스는 동양적 요소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지화할 필요가 있었다. 캐릭터의 가치관을 보자면, 우그웨이 대사부와 시푸 사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가치관이 서양과 별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양적 요소를 약간 첨가는 방식으로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를 잘 녹여냈다. 모든 작품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가 있지만 모든 작품이 주제를 잘 녹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코믹이 주로 된 작품일 수록 더욱이 주제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면에서 <쿵푸팬더>는 주제를 확실히 내용 안에서 흐름에 맞게 구성하였다는 것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드림웍스의 목표에 맞게 어른들도 끌어들일 수 있었다.

2.4. 서사 구조 및 전략과 매체로서의 특성 및 전략 사이 관련성의 분석

디즈니는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1937년 최초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 공주>를 발표한 후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물론 월트 디즈니가 사망한 후 디즈니가 침체하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디즈니를 대적할 자는 감히 없었다. 그리고 디즈니가 <인어공주>를 시작으로 다시 흥행하고 잇따른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이후 그 누구도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의 거장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4년 설립된 드림웍스라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면서 디즈니에 점차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애니메이션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코 사람들은 디즈니와 픽사를 뽑는다. 그럴 정도로 디즈니는 아직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드림웍스는 경쟁력을 생기기 위해서는 디즈니와 맞설, '기존 디즈니'와 다른 차별점을 두어야 했다.[33)]
그 중에서 가장 큰 차별점은 어린이만의 위한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 성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디즈니의 주제는 늘 한결같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애, 연인과의 사랑. 이 두 가지로 디즈니의 대부분의 작품을 함축할 수 있을 정도로 디즈니는 '획일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쿵푸팬더>도 위의 차별점을 두면 일치한다. 코믹스러운 전개를 걷어내고 작품의 주제만을 본다면, 과거와 현재에 메이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만을 바라보면 성인들조차도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이다. 하지만 작품은 어렵게 풀어가지 않는다. 이는 보는 대상이 어린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인을 저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드림웍스의 유명한 대표작품인 <쿵푸팬더>. 애니메이션 매체이기에 거장인 디즈니와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드림웍스가 선보인 작품으로 흥행도 나름 성공했다. 그 흥행의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캐릭터의 완결성이 뛰어나다. 두 번째 보글러의 영웅 서사 12단계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전형적인 영웅 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제목을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네 번째, 동양적 요소의 현지화에 성공했다. 다섯 번째, 코믹한 내용 안에서 주제를 잃지 않았다. 여섯 번째, 어린이와 어른 모두 공략했다.
따라서 이번 분석을 통해 <쿵푸팬더>의 흥행의 이유는 완결성 높은 캐릭터들과 서사 전개, 코믹스러운 연출이 합쳐져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면서도 진지하게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탄생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흥행에 실패한 점이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33) 노시훈,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내리티브와 패스티쉬의 문제」, 『현상과 인식』,한국인문사회과학회,2004,94쪽

서정주 작품의 신라(新羅) 정신에서 보이는, 영원(永遠)주의의 궁극적 목표

국어국문학과
20177004 최동희

목 차

Ⅰ 시인, 未堂 서정주
Ⅱ 신라(新羅) 정신과 영원(永遠)
Ⅲ 영원히 후세에 남을 서정주의 글
Ⅳ 참고문헌

Ⅰ 시인, 未堂 서정주

서정주는 1915년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서 출생했다. 호는 미당(未堂), 아호는 궁발(窮髮)이다. 그의 부친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민족 자본가였던 인촌 김성수 일가의 농토와 소작인을 관리하던 '마름' 이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었다.[34] 1933년(19세)에는 박한영 대종사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대원암 내 중앙불교전문강원에 입학하였다. 1935(21세)에는 박한영 대종사의 권고로 그가 교장으로 있는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한다. 이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벽」으로 당선하여 그해 11월에는 동인지『시인부락』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된다.[35] 서정주의 문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문단에서는 여러 동인이 결성되었고, 서정주는 여러 단체에서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된다. 1946년 3월 중앙문화협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조선문필가협회'에서 시분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1948년에는 동아일보 사회부장 자리를, 1948년 8월 156일에는 문교부 초대 예술과장의 보직에 앉았다. 이 외에도 1950년 문총구국대의 서리 실무책임,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선거를 통해 주요 문학인으로서 인정받는다. 교육 활동에도 몸담아 온 그는 1960년에는 동국대학교 국문과 강사를, 1963년 봄부터 1968년까지 성심여자대학 국어 강사로 지내기도 했다.[36]

서정주의 삶에서 큰 오점으로 남은 부분은 두 가지다. 친일 행위와 독재 정권 찬양이다. 그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친일시를 썼다. 1942년 7월 평론 「시의 이야기」를 '다츠시로 시즈오'라는 창씨명으로 《매일신보》에 발표하면서 친일 행위가 시작되었다. 친일어용문학지 『국민문학』과『국민시가』의 편집 일을 맡게 되면서부터 양산한 친일 작품을 포함하면, 여러 장르를 통틀어 11편에 이른다.[37]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독재 지도자들의 행적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써 문젯거리가 되었다.

---

34) 이남호,『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도서출판 열림원, 2003, 12p
35) 이남호,「서정주 작가 연보」,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도서출판 열림원, 2003, 112~113p
36)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24~28p
37)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23p

등단 이후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서정주는 여러 시집과 함께 수많은 시를 세상에 남겼다. 1941년(27세)에 출간한 그의 첫 시집 『화사집』을 시작으로 1991년(77세)에 출간한 제 13시집 『산시』까지 총 13권의 대표 시집을 남겼다. 『귀촉도』(1948), 『서정주시선』(1956),『신라초』(1961),『동천』(1968)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외에도 1973년(59세)에 『현대문학』에 연재한 장편소설 『석사 장이소의 산책』, 1980년(66세)에 발행한 세계여행기 『떠돌며 머물며 무엇을 보려느뇨?』,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선보였다.[38)]

서정주 시의 특징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현 하나하나가 사람의 감각들을 자극한다. 관능적이고 본능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룬다.[39)] 이는 제 1 시집 『화사집』의「화사」에서 드러난다. '사향 박하의 뒤안길' 이라는 구절은 후각적인 감각과 시각적 감각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시를 읽으며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 역시 뱀의 입술을 진한 색감이 두드러지는 관능적 표현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부각시킨다.

서정주의 작품들 중에서는 '신라' 시대의 인물과 설화를 배경으로 한 것들이 있다. 문태준(2011)에서는 두 번째 시집 『귀촉도』부터 전통 지향적이고 동양적인 세계로의 정신적인 탐사를 감행하였으며, 시집 『신라초』를 출간하면서 '신라' 표상으로서의 미적 기획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미당 개인의 시사에서 돌올한 것이었으며, 한국현대시사에서도 독창적인 미학이었고, 동시 문단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문학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40)] 또한 이러한 신라 표상은 이후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영원(永遠)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정주 작품 중 '신라'를 주제로 하고, '신라 정신'이 드러난 시들을 감상하고 탐구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영원주의가 내재된 시 일부를 통해, 서정주가 전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Ⅱ 신라(新羅) 정신과 영원(永遠)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더불어 고조선 이후 등장한 삼국 시대의 세 나라 중 하나이다. 시조 박혁거세를 시작으로 마지막 대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근 천년의 역사를 이어 온 국가이기도 하다. 528년(법흥왕 15)에 때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국력을 성장시켰다. 이후 진흥왕, 선덕여왕, 태종 무열왕과 같은 성군들이 등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외교관계를 굳건히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문무왕 때 이르러서는 삼국을 통일하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답게 신라는 정사(正史)와 야사(野史)를 합쳐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불교를 늦게 수용하였으나, 가장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다. 한반도의 왕조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였고 그에 걸맞게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남긴 나라는, 옛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쓰기 시작한 서정주에게 매혹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그리움으로 여기 섰노라
조수(潮水)와 같은 그리움으로

이 싸늘한 돌과 돌 새이

38) 이남호,「서정주 작가 연보」,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도서출판 열림원, 2003, 113~116p
39) 박호영, 『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50p
40) 문태준, 「서정주 시의 '신라' 표상과 불교적 상상력, 시집 『신라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 2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p6

얼크러지는 칡넌출 밑에
푸른 숨결은 내 것이로다.
세월이 아조 나를 못 쓰는 티끌로서
허공에, 허공에, 돌리기까지는
부풀어오르는 가슴 속에 파고와
이 사랑은 내 것이로다.

오고 가는 바람 속에 지내는 나달이여.
땅속에 파묻힌 찬란헌 서라벌,
땅속에 파묻힌 꽃 같은 남녀들이여.

오- 생겨났으면, 생겨났으면
나보단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

천년을 천년을 사랑하는 이
새로 햇볕에 생겨났으면

새로 햇볕에 생겨나와서
어둠 속에 나-ㄹ 가게 했으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 한마딧말 님께 아뢰고, 나도
인제는 바다에 돌아갔으면!

허나 나는 여기 섰노라.
앉어 계시는 석가의 곁에
허리에 쬐그만 향낭을 차고

이 싸늘한 바윗속에서
날이 날마닥 들이쉬고 내쉬이는
푸른 숨결은
아, 아직도 내 것이로다.

-서정주「석굴암 관세음의 노래 전문[41]

제4시집『귀촉도』(1948)에 실린 시다. 서정주가 '신라'와 관련된 대상을 주제로 쓴 첫 작품이기도 하다. 석굴암 본존불 곁을 지키는 '관세음보살 상'이 화자가 되어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움'을 조수(潮水)에 비유함으로 보아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설레게 만드는 그리움을 가진 화자는 '푸른 숨결'을 통해, 아직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3연을 통해 더욱 부각된다. 오래 된 존재지만, 아직 내면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땅 속에 파묻힌 찬란한 서라벌'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신라를 언급하는 대목이다. 신라를 생각하는 서정주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와 '천년을 사랑하는 이'를 찾으며 '새로 햇볕에 생겨나 어둠 속의 나를 가

41) 서정주,「석굴암 관세음의 노래」,『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p79

게' 바라며, '사랑한다' 아뢰고 '바다'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긴 세월 동안 고된 시련을 겪고 있던 화자(관세음보살 상)가 찬란했던 신라 시대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시를 쓰기 위해 고뇌하다가, '신라'라는 천년 역사의 왕조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갈망한 시인의 내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날마다 들이쉬고 내쉬는 푸른 숨결'이, 어떤 일이 있더라고 계속해서 시를 쓰고 있는 서정주 시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영원토록 '시'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신라 천년'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짐의 무덤은 푸른 영(嶺) 위의 욕계 제 2천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 잡는 데 - 그런 하늘 속.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너무들 인색치 말고
있는 사람은 병약자한테 시량도 더러 노느고
홀어미 홀아비들도 더러 찾아 위로코,
첨성대 위엔 첨성대 위엔 그중 실한 사내를 놔라.

살의 일로써 살의 일로써 미친 사내에게는
살 닿는 것 중 그중 빛나는 황금 팔찌를 그 가슴 위에,
그래도 그 어지러운 불이 다스려지지 않거든
다스리는 노래는 바다 넘어서 하늘 끝까지.

하지만 사랑이거든
그것이 참말로 사랑이거든
서라벌 천 년의 지혜가 가꾼 국법보다도 국법의 불보다도
늘 항상 더 타고 있거라

짐의 무덤은 푸른 영(嶺) 위의 욕계 제 2천
피 예 있으니, 피 예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구름 엉기고, 비 터 잡는 데 - 그런 하늘 속.

내 못 떠난다.

-서정주 「선덕여왕의 말씀」전문[42)]

제4시집 『신라초』(1961)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서정주 시에서 '신라' 표상이 제일 진하게 녹아 있는 시들을 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선덕여왕의 말씀」이다. 신라 제 27대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명군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선덕여왕의 말씀」은 그런 그녀를 짝사랑한 평민 남성 '지귀'의 설화를 배경으로 하였다.

'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시의 화자는 선덕여왕이다. 짐의 무덤은 '푸른 영(언덕) 위의 욕계(오관의 욕망이 존재하는 세계, 또는 탐욕의 세계) 제 2천'에 있다. 욕계 제2천은 불교적인 해석에서 '도리천'에 해당된다. 서정주는 '도리천'은 불교에서 땅에서 가장 가

42) 서정주,「선덕여왕의 말씀」,『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p160~161

까운 하늘이고, 이 하늘은 식욕이나 색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욕망들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라 말한다. 그래서 그곳은 아직 인간의 욕망이 살아 있는 '구름 엉키고 비 터 잡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43] '피 예 있으니'를 강조하며 있는 자는 병약자에게 베풀고, 홀어미 홀아비들을 위로하라고 한다. 선덕여왕은 충분히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이 아직 남아 있는 하늘에 머무르며 백성들을 살피겠다고 한다. 선덕여왕의 마음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살아생전 덕망 있던 군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짐작된다. '첨성대 위에 실한 사내를 놓으라' 고 한다. 미혼으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인간적인 미련'이자, 스스로 격을 낮추는 여왕의 친근한 자세일 것이다. 4연과 5연은 선덕여왕에 대한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불귀신이 된 '지귀' 에게 건네는 이야기로 보인다. 지귀가 불귀신이 된 이유가 본인에 대한 사랑임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렇기에 진정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불길이 사랑으로 인한 행위라면 천년의 법보다도 더 타라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여왕 자신의 살이 닿는 황금 팔찌를 가슴 위에 건네는 장면은 선덕여왕의 아름다움과 덕망이 한 번에 느껴지는 부분이다. 설화에서는 금팔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달아올라 불귀신이 되었지만, 시에서는 불귀신이 된 지귀를 달래기 위해 그것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성군인 그녀는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불길은 이해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라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5연에서는 욕계 제 2천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불귀신이 된 지귀를 위해서라도, '내 못 떠난다'고 전하는 마지막 행이 아련하기만 하다.

선덕여왕이 지귀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가, 한편으로는 시를 통해 서정주가 주변 사람들과 독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신라를 주제로 한 시답게 '천 년' 이라는 시간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천 년은 영원에 가까운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선덕여왕의 말씀」은 시인의 글이 본인 사후에도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영원히 가슴에 남기를 바라는 시라 추측된다. 선덕여왕이 백성들을 죽어서도 살피는 것처럼, 타고난 글 솜씨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토록 헤아리는 것이 서정주의 소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여 탐구한 두 시로 보건대, 서정주가 신라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를 '정신의 영원주의'로 요약할 수 있겠다.[44] 이러한 시적 형상화는 제5시집『동천』(1968)에 이르러 보다 완전해진다.[45]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43) 서정주,「문치헌밀어」, 『미당수상록』 , 민음사, 1976, 130p
44)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81p
45)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78P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전문[46)]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는『동천』에 수록되어 있는 시다. 1연과 2연은 '섭섭함'과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섭섭한 것과 좀 섭섭한 것은 다르다. 전자는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추후에 있을 만남이 기약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아주 영 이별'과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는 이별'도 마찬가지이다. 후자는 연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영원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꽃을 만나러가 아닌 만나고 가는 바람과, 엊그제가 아닌 한두 철 전에 만나고 가는 바람을 이야기한다. 3연과 4연을 살펴본다. 연꽃은 부처를 상징하는 대상이다. 이를 만나고 왔다는 것은 극락에 다녀와 내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엊그제와 한두 철의 시간 차이는 크다. 짧게 스치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닿을 '연(緣)'으로 생각된다. 결정적으로 바람은 우리의 곁에 항상 존재하는 대상이다. 그렇기에 3, 4연 역시 1, 2연과 마찬가지로 '영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에서는 앞서 본 두 시 보다도, '영원'에 대한 강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대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필자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를 서정주의 '시' 에 대한 본인의 신념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글 솜씨를 가져 그것을 자랑으로 살아가는 시인에게, 작품이 영원히 남는 것만큼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내 영원은
물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이로라.

가다 가단
후미진 굴헝이 있어,
소학교 때 내 여선생님의
키만큼 한 굴헝이 있어,
이뿐 여선생님의 키만큼 한 굴헝이 있어,

내려가선 혼자 호젓이 앉아
이마에 솟은 땀도 들이는

물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이로라
내 영원은.

---

46) 서정주,「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p242~243

-서정주, 「내 영원은」전문[47]

이 시에서는 '영원' 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물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은 여선생님을 떠오르게 하는 곳이고, '후미진 굴헝'은 화자가 여선생님과의 사랑을 꿈꾸는 공간이다.[48] 서정주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이 볕을 생각할 때 하필에 물빛 라일락을 합쳐서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긴 하다.
나는 그가 부임하여 한 달인가 두 달 지난 뒤의 어느 날 오후, 학교서 나오는 걸음으로 책보를 옆에 낀 채, 영전리 콧등이란 데에 있던 빈 제각으로 한 반 애들과 함께 꽃을 꺾으러 갔었는데, 웬일인지 그 앞마당에 있던 여러 꽃들 중에서 물빛 라일락을 한 가지 꺾어 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안고 달음질쳐 땀을 흘리며 작은 언덕들을 넘어오다가, 나중엔 지쳐 어느 언덕과 언덕 사이의 구렁에 그것을 안은 채 주저앉아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개고 있었다. 그런데 이 쑥하고 그 비슷한 것들밖에는 없었던 구렁의 그늘 속에서 내가 맡고 보고 있던 그 물빛 라일락의 향기와 빛과 아울러서 내가 내 속에 지니고 있던 것은 이상하게도 요시무라 선생의 모양이었다. 그 구렁의 높이는 꼭 요시무라 선생의 키만큼 내게는 흡족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을 오래 떠나기 싫게 싱그럽고 좋았었다. - 그래 그 뒤 나는 요시무라 선생을 생각할 땐 그 꽃빛과 그 냄새를 거기 섞는다.[49]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시인과 동일시된다. '선생의 키만큼 한 굴헝'은 시인이 선생에 대하여 자신만의 사랑을 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다. 자서전의 내용과 시의 제목을 연결 지어 보면, 화자(시인)가 그리워하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여선생님이다.[50]

「내 영원은」에서의 사랑은 시인 개인의 사랑이지만, 영원주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는 신라정신의 바탕이 되는 영원주의와 연결이 된다.[51] 반대로 보면 『신라초』에서 드러나고 있는 '신라'를 상징하는 영원주의가, 『동천』으로 이어져 오면서 더욱 뚜렷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선생에 대한 사랑을 추억하면서, '시를 쓰는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 역시 같은 영원주의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영원히 후세에 남을 서정주의 글

본고에서는 서정주 『신라초』의 시 중 '신라'를 주제로 하여, '신라 정신'이 드러난 시들을 감상하고 탐구하였다. 이어서 『동천』의 영원주의가 내재된 시 일부를 통해, 서정주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장하였다.

시인이 추구하는 '영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지는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다. 앞서 본 「석굴암관세음의 노래」나「선덕여왕의 말씀」은 신라가 배경이 되는 시들이다. 여기서의 영원은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이어져 오는 문화유산과 정신이거나, 옛 성군의 참된 마음씨로 볼 수 있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나 「내 영원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대상에 대한 연(緣)이나 사랑의 영원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짐작된다.

본론에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필자는 '신라 정신'과 '영원주의'를 통해 이야기하는 서정주의 궁극적인 목표를, 시인의 '시', 더 나아가서는 '글'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 그의 마음으로 해석하였다. '얼크러지는 칡넝쿨'과 '싸늘한 바윗속'에 있을지언정 들이쉬고 내쉬는 푸른

47) 서정주, 「내 영원은」, 『미당 서정주 전집』, 은행나무, 2015, p249
48)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86~87p
49) 서정주, 『미당 자서전 1』, 민음사, 1994, p189
50)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87p
51) 박호영,『서정주,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87p

숨결은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글'은 살아 있음을 뜻하고 있다(「석굴암관세음의 노래」). 선덕여왕은 그녀의 백성들과 지귀에게 '내 못 떠난다'며 가슴 아파하였다면, 서정주는 자신의 글을 읽으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한다. 본인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 있는 글로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선덕여왕의 말씀」). 영원이라는 것은 '조금 섭섭한' 감정과 '다시 만나는 이별' 속에서 '바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보일 수도 있다. 시인이 생각하는 영원에 대한 강조가 심화되면서 시인의 '글'에 대한 신념 역시 단단해진다. 읽고 나면 섭섭하나 언젠가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것이고, 독자의 머릿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 저 구석 어딘가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기에, 글과 바람과 영원의 삼박자는 맞아떨어진다(「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시인이 추억하는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가 글을 쓰는 행위 역시 사랑의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시인이라는 업에 대한 사명을 떠나서 말이다(「내 영원은」).

서정주는 겨레의 말을 가장 잘 구사한 시인이며, 겨레의 고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인으로 평가된다.[52] 친일과 반독재 정권 옹호라는 오명이 남아 있지만, 작품을 감상하고 느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할 부분이다. 그가 한평생 글을 쓰는 것을 사랑했음은 수많은 작품이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있음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그가 추구했던 영원주의처럼, 서정주의 글은 앞으로도 영원히 후세에 남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호영, 『서정주 - 영원주의와 떠돌이 의식』,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서정주, 『미당수상록』, 민음사, 1976
서정주, 『미당 자서전 1』, 민음사, 1994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 1』, 은행나무, 2015
이남호, 『서정주의 화사집을 읽는다』, 도서출판 열림원, 2003

문태준, 「서정주 시의 '신라' 표상과 불교적 상상력, 시집『신라초』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 2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52) 이남호 외 4인, 「발간사」, 서정주, 『미당 서정주 전집1』, 은행나무, 2015, p9

- 시나리오 부문 -

배달시키신 분

국어국문학과 20171024 나지수
국어국문학과 20171070 이예림
중국학과 20171537 조주연

시놉시스

비가 와서 짜장면이 먹고 싶었을 뿐이었던 세 명의 고3 학생들. 학교라는 현실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생님 몰래' '야자시간에'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수 밖에 없었다. 짜장면의 행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일탈.

주요 등장인물

냠냠이　　항상 맛있는 밥에 대한 열정이 넘친다. 맛있는 밥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

똑똑이　　공부머리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잔머리 하나는 잘 굴러간다. 무인도에 혼자 떨궈 놓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인물.

투덜이　　겉으로는 투덜거리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통통 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다.

선생님　　3학년 1반의 담임선생님. 권위적이고 무섭기보다는 친근하다.

1. 교실 / 오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3학년 1반 교실 내부. 밖이 슬슬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교실 내부는 학생들로 반쯤 들어차 있다.
공부하는 학생,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 전부 정수리를 내보이고 있다.
감독 선생님, 교탁 옆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 여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는다.

냠냠이　　(책상 아래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카톡으로) "오늘 밥 뭐임"

스마트폰 분할 화면으로 영어 인강과 유튜브를 함께 보던 학생. 카카오톡 팝업창을 발견한다. 사전을 검색하는 것처럼 영어책을 향해 고개를 기웃거리며 자연스럽게 답장을 보낸다.

똑똑이　　"고등어조림"
"근대된장국"
"콩자반"
"메뉴 ㄹㅇ별로"

냠냠이　　"(좌절하며) ㅇㄴ왜!!!"

"(분노하는 귀여운 이모티콘)"
"오ㅗ늘 금요일이자나ㅠㅠㅠㅠㅠㅠㅠㅠ"
"원래 금요일은 맛난거자나ㅜㅜㅜㅜㅜㅜㅜ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스마트폰의 센서가 계속해서 반짝거린다. 신경이 거슬린 듯 인상을 찌푸린다.

투덜이 "(선생님의 동태를 곁눈질로 확인하며)야 야자시간이면 공부를 해."
냠냠이 "!!!!!!넌 이 메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고니"
투덜이 "안 될 건 또 뭐야."
"그냥 먹어."
냠냠이 "난 인정할 수 ㅇ벗어"
투덜이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똑똑이 "ㅋㄱㄱㅋㅋㄱㅋ쟤 화났다ㅋㅋㅋㅋ 삐순이다 삐순이ㅋㅋㅋ"
냠냠이 "ㅠㅠㅠㅠ쟤가 나한테 뭐라고 햇서ㅜㅜㅜ"
똑똑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냠냠이 "솔직히"
"난 먹기 위해 학교다닌단마랴"
"이 메뉴 용납 못한다ㅂㄷㅂㄷ"
투덜이 "응, 공부해~"

입을 삐죽대며 다시 수학 문제집을 푸는 냠냠이. 표정이 좋지 않다. 창가를 바라본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냠냠이의 눈에 생기가 돈다.

냠냠이 "나 좋은 생각 났어"
똑똑이 "???"
투덜이 "아 왜."
냠냠이 "궁금하면"
"3층 화장실로 따라오셈"
"(음흉하게 웃는 이모티콘)"

벌떡 일어나서 사물함으로 향하는 냠냠이.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사물함에서 꺼낸 두루마리 휴지를 흔들며 배시시 웃는다. 그러고는 발랄한 걸음걸이로 교실을 나간다.
시차를 둔 후 똑똑이, 교탁 앞으로 나아가다.

똑똑이 쌤.
야자 감독 왜?
똑똑이 저 보건실 좀.
야자 감독 어디 아프냐? 야자 끝나고 가.
똑똑이 (곤란한 듯 웃으며) 보건쌤 퇴근하시기 전에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똑똑이를 실눈을 뜨고 본다. 이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한다.
당당한 발걸음으로 나서는 똑똑이.
투덜이, 잔뜩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살핀다. 다들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다. 살금살금 걸어 나가는 투덜이. 교실 뒷문을 닫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난다. 투덜이, 흠칫한다.

2. 3층 여자화장실 / 오후

투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그래서 뭔데.

똑똑이와 냠냠이, 서로 마주보고 씩 웃는다.

투덜이 뭐야... 왜 저래...

냠냠이 (투덜이의 팔을 잡고 매달리며)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고~
오늘 같은 날엔 짜장면 콜?

똑똑이, 숨죽여 웃는다. 투덜이, 기묘한 표정으로 냠냠이를 바라본다.

냠냠이 (시무룩하게 떨어지며) 아 뭐.

투덜이 (비웃으며)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

투덜이 그리고 짜장면은 무슨. 얼마 전에 교감 장난 아니었던 거 몰라? 3반에 희영이 배달음식 시켜 먹었다가 난리 난 거 아냐. 그걸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똑똑이 야, 걔가 혼난 게 시켜 먹어서냐? 사고 쳐서지.

냠냠이 아 그거! 나 알아! 화장실에 남은 거 버렸다가 변기 막혔던 그거 말하는 거지? (깔깔 웃으며) 하필 그 화장실이 교감실 바로 앞에 있는 교사 화장실일 게 뭐람. 노린 거 아냐?

투덜이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배달음식 절대 안 된다잖아. 전부터 환경미화네 뭐네 불만이 많더라니, 이때다 싶은 거지.

냠냠이 아니 근데 잘못은 걔가 했는데 짜장면은 왜 우리가 못 먹어?

똑똑이 괜찮아, 걔도 짜장면 못 먹어.

투덜이 (엉뚱한 소리에 속이 터지며) 너네 진짜!

냠냠이 근데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똑똑이 그치그치.

냠냠이 몰래 시켜 먹자, 몰래. 짜장면은 그릇 반납되잖아. 그리고 나 안 남길 자신 있어.

똑똑이 음식을 남기는 건 고3의 수치지!

서로 화기애애하게 배달 어플로 음식을 고르는 두 사람.
투덜이, 조금 소외된 기분을 느낀다.

냠냠이 (투덜이를 바라보며) 넌 뭐 먹을 거야?

투덜이 (새침하게) 난 먹는다고 한 적 없는데.
냠냠이 (다 안다는 듯 웃으며) 탕수육도 시킬까?
투덜이 (마지못하는 척)... 2번 세트로 시켜. 그게 더 싸.

3. 복도 / 오후

한창 자율학습을 하고 있을 시간이라 어둡고 조용한 복도.똑똑이가 앞장 서고 두 사람이 간격을 유지한 채 뒤따라간다. 최대한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살금살금 걸어간다.

냠냠이 (포즈를 잡으며) 오, 첩보물 찍는 것 같아.
투덜이 (불안한 목소리로)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미리 가 있자. 누구 만나기라도 하면...
똑똑이 괜찮괜찮. 요즘 시험기간이잖아. 쌤들 교무실에 콕 박혀서 안 나오시지. 화장실이라도 가는 거 아니면.

복도 반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인다.

냠냠이 (속삭이며) 뭐야? 누구야?
똑똑이 조용히 해 봐.

벽에 붙어 슬금슬금 움직이는. 코너를 돌아 그 구역을 벗어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투덜이 (강한 어조로 속사이며) 너 이 자식,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교무실에 콕 박혀서 뭐? 저기 저기는 누군데!
똑똑이 (눈을 피하며) 화장실이라도 가시나...?

손전등 불빛이 세 사람을 비춘다. 정확히 학생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불빛.

냠냠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우리 망한 것 같지? 들킨 것 같지?
선생님 거기 누구야. (손전등을 비추며) 너네 지금 어디 가는 거니? 야자시간 아니야? (투덜이를 가리키며 장난스러운 어조로) 쟨 그렇다 치고 너네 야자 째는 거니?

선생님 몰래 냠냠이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꼬집는 투덜이. 냠냠이는 아픈 얼굴로 허리를 숙인다. 투덜이의 의도를 알아챈 똑똑이가 선생님 앞으로 나선다.

똑똑이 쌤, 얘가 아프대서요. 보건실 데려다주려고요.
냠냠이 (다급히 연기하며) 네! 네! 아, 쌤. 배가, 배가 너무 아파서요.
투덜이 (배신감이 역력한 얼굴로) 근데 선생님, 저는 왜 그렇다쳐요?
선생님 (툴툴이의 눈빛을 피하며) 어, 어 그치? 거, 불시에 들어가서 인원 체크 할 거니까 도망가지들 말고.
냠냠이 (연기를 멈추고) 근데 웬 손전등이에요?

선생님 아 복도 등 센서가 고장 나서. 불 하나도 안 켜지잖아. 근데 너 하나도 안 아파 보인다?

냠냠이, 다시 아픈 연기를 시작한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겠다는 듯 웃으며 화장실 방향으로 사라진다. 때마침 울리는 전화벨.

4. 학교 앞 철조망 /저녁

약속된 장소로 황급히 뛰어나온 세 사람. 철조망 너머 저편에 배달 가방을 든 배달원이 서성이고 있다. 배달 주문이 많은지 배달 가방을 두 개나 들고 있다.

냠냠이 배달 아저씨다!

냠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 뛰어가는데.

똑똑이 스탑. 멈춰 봐.

냠냠이를 제지하고 학교를 가리키는 똑똑이. 아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급정거한 채 굳어버린 냠냠이. 똑똑이를 돌아본다. 흔들리는 동공. 점점 철조망 쪽으로 다가오는 선생님.

투덜이 야, 튀어!
냠냠이 우리 음식은 어쩌고?
투덜이 아 일단 튀라고!

선생님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만한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세 사람. 풀숲 뒤에 나란히 쪼그려 앉는다.

냠냠이 (눈을 비비며) 헛것이 보이나. 헛것이라고 말해줄래.
투덜이 이제 어떡해? 쌤이 왜 저기 계시는데?
냠냠이 헐 혹시! 우리의 계획을 간파한 것인가!
투덜이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일단 자리부터 옮기자. 다른 곳으로 가져다 달라고 해.
냠냠이 (걱정스럽다는 듯) 배달 아저씨가 귀찮다고 화내시진 않겠지?
똑똑이 화를 내시기야 하겠냐마는... 죄송하다고 하지 뭐.

냠냠이를 끌고 자리에서 벗어나는 투덜이와 똑똑이. 냠냠이는 하염없이 뒤를 돌아본다.

5. 학교 뒤뜰의 한적한 정자 / 저녁

오른손에 배달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는 배달원. 짜증이 난 표정.

배달원 (신경질적인 어조) 배달시키신 분 맞으시죠?

돈을 받고 가방을 건네준다.

배달원 사람 오라고 해 놓고 기다리게 만든 것도 그렇지만, 아 왜 한 번에 좀 시키면 안 돼요? 왜 따로따로 시켜, 사람 귀찮게 말이야.

똑똑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 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해요.

배달원 그릇은 거 가방에 담아서 교문 앞에다 내다 놓고.

투덜이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냠냠이 (배달원이 가자) 난 우리 투덜이보다 투덜대는 사람 처음 봐.

투덜이 내가 왜 투덜이인데!

두 사람 아웅다웅 다툰다. 가방에서 짬뽕과 볶음밥을 꺼내는 똑똑이. 음식을 보고 표정이 굳는다. 스마트폰를 꺼내 전화를 건다.

똑똑이 거기 중국반점이죠? 아까 학교로 주문한 사람인데요, 음식이 다르게 와서요.

사장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 아닌데, 맞게 갔는데. 2번 세트 하나랑 짬뽕, 볶음밥.

똑똑이 저희는 2번 세트 하나 시켰는데 짬뽕이랑 볶음밥이 왔거든요.

사장 응? 같이 시킨 거 아니었어? 아유 난 또 같은 데서 같은 시간에 같은 주문이 왔길래 같이 시켰는 줄 알았지.

똑똑이 마음대로 짐작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사장 아니 내가 알고 그랬어? 모르고 그랬잖아! 학생들, 우리도 바빠. 같은 학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가기도 그렇고, 그냥 서로 연락해서 바꿔 먹고 좋게 좋게 끝냅시다, 응?

똑똑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에요? 아저씨가 실수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는 똑똑이와 중국반점 사장. 가만히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냠냠이와 투덜이. 문득 아까의 장면을 떠올리는 냠냠이. 배달 아저씨의 손에는 가방이 두 개 들려 있었고, 때마침 철조망이 있는 후문으로 향하던 선생님... 냠냠이의 눈이 커진다.

냠냠이 (떨리는 목소리)선생님이었어.

투덜이 뭐?

냠냠이 (투덜이를 돌아보며)우리 음식 가져간 사람이 바로 쌤이었다고.

투덜이, 입을 틀어막는다. 얼굴 과장되게 클로즈업.

6. 학교 복도 / 저녁

아이들과 마주친 후 교사화장실 옆에 위치한 계단으로 내려가는 선생님.
학교 밖으로 향한다.

7. 학교 앞 철조망 / 저녁

배달원을 향해 걸어가는 선생님.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린다.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것도 없다. 고개를 갸웃 하고 배달원에게서 배달가방을 받아드는 선생님.

8. 학교 뒤뜰의 한적한 정자 / 저녁

투덜이 어, 어떡해?

냠냠이 불쌍한 내 짜장면...

투덜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냐?

냠냠이 (연극조로) 넌 짜장면이, 탕수육이 구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어쩜 그리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똑똑이 (전화를 끊으며) 그래, 억울해서라도 난 먹어야겠어 짜장면.

불타오르는 두 사람을 보고 고개를 내젓는 투덜이.

투덜이 어떻게 바꿔치기 할 건데?

냠냠이 잘!

똑똑이 분명 쌤도 아직 안 먹고 있을 거야. 누구랑 바뀌었는지 모를 테니까. 게다가 쌤 전에 자기 짜장면 못 먹는다고 한 적 있어. 어렸을 때 먹고 체했었다나.

투덜이 (작은 목소리로) 얜 이걸 어떻게 아는거야?

똑똑이 일단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자.

9. 학교 / 저녁

음식을 찾아 학교를 구석구석 뒤지는 세 사람. 급식소, 강당, 탈의실, 실험실, 음악실...

10. 상담실 / 저녁

음식을 찾아 학교를 구석구석 뒤지는 세 사람. 학교 급식소, 강당, 탈의실, 실험실, 음악실... 상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 본다.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짜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냠냠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헉...!

똑똑이, 냠냠이, 투덜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동시에 문을 열어 젖히고 책상 앞으로 달려간다. 언제 투덜거렸는지 모를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 투덜이와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는 냠냠이.

투덜이 이거 우리꺼 맞지, 그치?

냠냠이 우리꺼 아니면 누구꺼야 이게, 야야, 일단 빨리 가자. 쌤 오기 전에 바꿔야지!

똑똑이 (같이 들떠있다가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아 잠깐만. 이게 왜 여기있지? 분명 아무도 없는데... 이 상황 되게 이상하지 않아?

똑똑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 사람 뒤로 천천히 등장하는 선생님.

선생님 이게 누구야?

똑같은 표정으로 얼어붙는 세 사람.

선생님 (비아냥거리며) 어이구, 되게 오랜만이다? 여기가 보건실인가? 보건실에서 짜장면도 먹고?
투덜이 (중얼) ...요.
선생님 뭐라고?
투덜이 (다급하게) 안녕히 계세요!

11. 복도 / 저녁
선생님을 밀치고 나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뛰는 세 명. 선두에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똑똑이. 이 때 냠냠이가 넘어진다.

냠냠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아아!

똑똑이와 투덜이가 냠냠이를 양 쪽에서 팔을 잡고 일으켜서 다시 뛴다.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선생님.

선생님 (여유로운 목소리) 거기 안 서나~?
똑똑이 (간신히 뛰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빨리!
냠냠이 야... 나 너무 힘들어...
투덜이 (체념한 듯) 얘들아, 우리 쌤... 체육이야...
똑똑이 (낮게 탄식) 아...

12. 상담실 / 저녁
상담실 한 가운데 책상 앞에 앉은 똑똑, 냠냠, 투덜. 냠냠이는 방금 넘어져서 아팠던 다리를 주무르고 있고, 투덜이는 눈치만 살피고 있다.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의 똑똑이.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세 명의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윽고 건너편 의자에 앉는다.

선생님 니들 죄를 니들이 알렷다, 엉?
투덜이 (눈치 보며, 볼멘소리로) 아, 쌤...
선생님 (투덜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됐고. 학교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지 말라고 아침 조회 때 말 했어, 안 했어?
투덜이 ...
선생님 이것들이 담임 말을 개 똥으로 들어! 주동자가 누구야!

세명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똑똑이가 먼저 할 말이 있는 듯 쏘아붙인다.

똑똑이 쌤도 배달음식 시키셨잖아요!
선생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며) 무, 뭐?
똑똑이 (당당하게) 선생님도 배달 시키셨으면서,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쌤은

되고 저희는 안 돼요?

눈이 휘둥그레진 냠냠이와 투덜이. 똑똑이가 친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치자, 너 미쳤냐 하는 표정으로 눈빛을 쏘는 투덜이. 똑똑이는 아랑곳 않는다.

선생님 (눈을 부릅뜨고) 어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구만. 그래서 지금 니들이 잘했다는 거야?

똑똑이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잘못했다면 선생님도 똑같이 잘못하신거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야, 이 녀석 이거 안되겠네?

똑똑이 (뭔가 아는 표정으로, 은근히 눈짓하며) 근데 쌤, 두 그릇 시키셨더라고요?

잠깐 정적. 사뭇 달라진 표정의 선생님. 승기를 잡은 기분으로 씨익 웃는 똑똑이. 뭔 소리야? 몰라. 조그맣게 오가는 투덜이와 냠냠이의 대화.

선생님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흠, 흠. 무슨 말이지? 운동하고 와서 배고프면 두 그릇 먹을 때도 있어 나는.

똑똑이 (강한 어조로) 아~ 상담실에서요? 두 그릇을? 혼자? 애들도 있는데... 그냥 말 할까요?

똑똑이는 말을 끝내고 배시시 웃는다. 반면 선생님은 한 대 쥐어박고 싶지만 애써 참는 표정.

선생님 난,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잘못은 잘못이야 너희들.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똑똑이 상담쌤~!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나오세요!

똑똑이가 갑작스레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흠칫 놀라는 선생님과 투덜, 냠냠. 그러나 똑똑이의 외침이 무색하게 상담실 내부의 방 문은 굳게 닫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한 30초쯤 지났을까, 안쪽에서 달칵 문고리 여는 소리가 들리고 상담 선생님이 천천히 나온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아직도 영문을 모르는 듯한 투덜이와 냠냠이.

상담쌤 (멋쩍어하며) 우리... 들켰나요, 박 쌤?

선생님 (눈에 띄게 당황해하며) 어어? 아니야 아니야, 은영쌤, 계속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에.

상담쌤 에고, 그럴 걸 그랬다... 실수했어요.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 은영쌤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답지 않게 허둥지둥하는 선생님을 보다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마주보는 투덜과 냠냠. 똑똑이는 웃음을 참기에 바쁘다. 두 선생님의 얼굴 클로즈업. 잘 살펴보면 귀에 똑같은 귀걸이를 걸고 있다.

똑똑이 (음흉한 표정으로)두 분...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선생님 어허, 괜히 오해하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푸하하, 하고 아예 웃음이 터져버린 똑똑이. 냠냠이와 투덜이도 가세해서 대놓고 뚜루뚜 하며 사랑 노래를 불러준다. 귀가 빨개진 채 이마를 짚는 담임 선생님과 조금 부끄러운 표정의 상담쌤.

똑똑이 (웃음을 추스르고) 쌔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 드릴게요, 진짜로요! 저희 셋만 알고 있을게요.
선생님 뭐... 니들이 그래도 의리는 있다 이거냐?
똑똑이 의리라뇨~ 다 조건이 있죠. 저희 셋은 쌤이랑 상담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모른 척 해 드리고, 쌤은 저희가 배달 시켜먹은 거 모른 척 해 주시고... 콜?
투덜이 오오, 딱이네 딱이야.
냠냠이 그러게요, 괜찮네. 그쵸 쌤?

서로 큭큭대며 웃는 똑똑, 냠냠, 투덜. 상담 선생님은 그저 그런 아이들이 귀엽다는 듯이 웃으며 바라본다. 허휴, 한숨을 내쉬다가 웃는 담임 선생님.

상담쌤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 조건 같은데, 그렇게 해요.
선생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살다살다 요놈들이랑 거래를 하게 될 줄이야.

투덜이와 냠냠이, 똑똑이와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똑똑이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선생님 너희들이야말로.
투덜이 걱정마세요, 쌤들 결혼하실 때까지 입 꾹 닫고 있을거니깐.
선생님 뭐?!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의 얼굴이 동시에 빨개진다. 또다시 웃음이 터진 똑똑이와 같이 웃는 냠냠, 투덜.

똑똑이 (태연한 척 하며) 아 짜장면 다 불었겠다, 저희 여기서 같이 먹어도 되죠? 평화와 신뢰의 의미로다가?
냠냠이 (똑똑이와 투덜이의 손을 잡아끌며) 저희는 젓가락 가져올게요! 먼저 드시지 마세요!

선생님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빠르게 상담실을 빠져나오는 세 사람. 서로 까르르 웃으며 복도를 달린다.

표면세계

국어국문학과
20111116 김홍인

어둠 속에 삐-거리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린다. 어둠이 살짝 밝혀지며 쓰러져 있는 젊은 여성 '지혜'가 보인다. 그녀의 얼굴이 줌인 되며, 그 위로 흰 글자제목 '껍질'이 페이드인 된다. 잠시 후, 글자의 껍질이 벗겨지며 페이드아웃. 어둠 속에서 빛이 모여 서서히 지혜의 얼굴에 동그랗게 집중된다. 얼굴을 찌푸리는 지혜. 그녀가 신음을 내며 악몽을 꾸는 기척을 내자, 암전과 함께 소리도 같이 사라진다.

S#.1 밀실1-지혜 시점

잠에서 깨는 신음 소리와 함께 지혜가 깨어난다. 1인칭 시점으로 화면이 밝아진다. 머리가 아픈 지혜. 어지럽다는 듯 흔들리고 뿌연 화면의 초점이 잡힌다. 앞에는 뚱뚱한 여성 '나라'가 등이 보이지 않게 옆으로 쓰러져있다. 하지만 어깨의 끈을 통해 가방을 매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당황으로 멈춰 있는 지혜. 그때 뒤에서 어떤 중년 남성의 소리가 들린다.

준화 : 으아 씨발! 그지같구만.

깜짝 놀라는 지혜. 카메라가 뒤를 돌아본다. 멀리서 중년 남성 '준화'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 다시 옆에서 젊은 남성의 소리가 들린다.

룡옥 : 아저씨. 그렇게 갑자기 소리 지르시면 막 일어나신 분이 깜짝 놀라잖아요.
준화 : (코웃음 치며)애는 지랄.

카메라가 빠르게 옆으로 돌며 소리가 들린 쪽을 본다. 젊은 남성 '룡옥'이 어떤 철문 앞에서 지혜를 본다.
카메라의 광각이 넓어진다. 화면의 중앙에는 철문이 있다. 배경은 주차장과 같은 어둑한 콘크리트 밀실. 가방을 앞으로 매고 철문을 조사하던 것으로 보이는 룡옥. 화면을 등진 채로 고개만 돌려 뒤를 보고 있는 상태이다. 준화는 가방을 한 손에 들고 화면의 끝에서 중앙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 무심한 듯 보이는 그의 얼굴이 카메라(지혜)를 보자 멈춰 서서 물끄러미 쳐다본다. '랄랄랄라 랄라 랄랄라~'하는 CM송과도 같은 음악이 잔상처럼 은은하게 들렸다 사라진다.

S#.2 가방-알 수 없는 시점

가방을 뒤지고 있는 손이 보인다. 가방 속에는 간단한 비스킷과 같은 음식과 500ml 생수 몇 통이 있다.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듯 움직이던 손이 멈칫한다. 무겁게 들어 올리는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다.

S#.3 밀실2

대화를 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경직되어 있는 룡옥과 여유로워 보이는 준화 그리고 불안해하는 지혜의 모습.

룡옥 : (잔뜩 굳은 얼굴)상황이 거지같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고는 앞에 맨 가방을 뒤져 물을 꺼내 마신다.)
지혜 : (의아스럽다는 듯 룡옥과 가방을 본다. 경계하는 태도로)저, 두 분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나요?
룡옥 : 아 물론 알죠.
지혜 : (더욱 의심스럽다는 듯 몸을 움츠리며)정말인가요? 저,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이 무슨 상황인가요?
준화 : (옆에서 경쾌한 느낌으로) 네. 지금 우린 좆된 상황입니다.
지혜 : 네?
준화 : (낄낄거린다.)
룡옥 : 장난치지 마시고요.
준화 : 너무 심각해 보여서 분위기 좀 풀려고.
룡옥 : (사방을 가리키며)주변을 둘러보세요. 뭣도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도 몰라요. 나도 깨어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지혜 :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그를 흘긋 보면서)정말이요? 그렇지만 왠지 그쪽은….
룡옥 : (지혜의 눈치를 깨닫고는 가방을 가리킨다.)아, 이거요? 이거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도 매고 있잖아요?
지혜 : (그제야 자신이 가방을 매고 있단 사실을 깨달으며)아? (쓰러져있는 여성을 살핀다. 그녀도 가방을 매고 있다.) 진짜?….
룡옥 : 가방을 살펴봐요. 저도 저 아저씨랑 비교해봤는데.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화 : (낄낄거리며 짜증을 낸다.)누가 우릴 이곳에 데려다 놨는지 이거 재밌는 놈이야. 영화를 많이 봤는지 무슨 밀실에다 가둬놓고 생존게임을 하잔 건지….
지혜 : (가방을 뒤진다.)물통 몇 개, 비스킷, 마른과일 아, 먹을 거 약간 그리고…어?(권총을 들어 올리며 헉 소리를 낸다.)
룡옥 : 아. 조심해요 그러다 다칩니다.
지혜 : 이거 진짜에요?
룡옥 : 글쎄…. 무게가 진짜 쇳덩이처럼 무겁긴 한데.
준화 : 총알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쪽도 아마 그럴 거야. 진짜인지 장난감인지 공포탄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고 싶으면 노래처럼 상큼발랄하게 러시안룰렛이라도 해보던가. (스스로의 농담이 웃긴지 낄낄거린다.)
지혜 : (기분이 상해서 말없이 준화를 노려본다.)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그때,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준화 : 하, 드디어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가. 지각이야 지각.

하지만 나라는 쉽사리 깨지 않고 괴로운 듯 가슴을 움켜 죄며 숨을 가쁘게 내쉰다. 눈을 뒤집고 발작을 한다.
룡옥과 지혜는 당황해서 멈칫거린다.

준화 : (화들짝 놀라 달려들며) 뭐야, 지랄병이야? (나라의 옷을 좀 풀고 가방을 벗긴 후 바르게 눕혀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준다.)어이, 처자. 진정해봐. (나라의 손발을 주무르면서) 어이, 거기들 뭐 약 같은 거 없어? 빨리 뭣 좀 찾아봐!

룡옥과 지혜는 서둘러 가방을 뒤지며 괜찮은 물건이 있는 지 찾아보지만 마땅한 것이 보이질 않는다.

준화 : (신경질을 내며) 에이 씨벌. (나라의 얼굴을 툭툭 치며)이봐요 아가씨. 진정 해봐요. 자, 날 따라 숨을 내쉬어 봐요 천천히 (마치, 산모가 출산 시 숨을 내뱉는듯한 행동을 반복한다.) 자 옳지 좋아. 천천히.

S#.4 밀실3

사건이 진정되어 있다. 네 사람이 대화를 한다. 부끄러운 듯 고개 숙인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

준화 : (한 시름 놓았단 듯이)휴, 그지같구먼.
나라 : (정신 차린 나라가 힘없이 걸터앉는다. 부끄럽다는 듯이 기어가는 목소리로)…가…감사해요.
준화 : (말없이 손을 휘휘 내젓는다.)
룡옥 :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벌써 진땀만 뺐군요.(심각하게 나라를 바라보며)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병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혹시, 이곳에 오기 전에 무언가 일이라도? 아니면 설마 이 방에…?
나라 : (화들짝 놀라서)아, 아뇨. 그냥 제가 가끔씩…….몸이 좀 안 좋아서요. (문득 정신을 차려서) 어…. 그런데 여기는…?
준화 : 어이 처자. 혹시 여기까지 오게 된 기억이 있어?
나라 : (약간 멍해서)기억…?
룡옥 : (주변을 환기시키며)자자, 이제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었으니 서로의 퍼즐을 한 번 맞춰보도록 하죠.
지혜 : 어떻게요?
룡옥 : 우선 저부터 말하자면, 방송국에서 새끼피디를 하던 '김룡옥'이라고 합니다. 분명 어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사우나에서 잠시 눈을 부쳤는데 이상하게 눈 떠보니 이곳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어올리며) 이 이상한 가방하고 말이죠.
지혜 : 와, 피디라고?
나라 : (눈을 반짝이며)와, 어느 프로그램이셨나요? 저도 예전에 방송작가하려 했는데….
룡옥 : (담담함을 가장하며) 이거저거 하다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팀으로 갔습니다.

지혜 : 우와, 그거 유명하잖아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나라 : (흥분해서)공중파잖아요? 게다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면 능력도 있어야하고 목적의식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힘든 만큼 승진도 잘되는 곳일 텐데?
룡옥 :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겸손을 피우며)아닙니다. 뭐 그래봤자 똑같은 일인데요. 차라리 좀 편한 데가 낫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준화 : 잘난 양반이었구먼.
룡옥 : (헛기침을 하며)아무튼, 저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나라는 우물쭈물한다.)
준화 : (시큰둥한 목소리로)뭐, 나는 '최준화'라고 합니다.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들 일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긴 했는데 별 일 없이 집에 가서 발 닦고 잤을 겁니다.
지혜 : 사회복지사? 혹시 봉사기관인가요?
준화 : 뭐, 일종의?
지혜 : 어딘데요? 그럼 어쩌면 제가 알 수도 있어요. 저, 주말마다 봉사 가거든요! 요즘엔 <늘 밝은 집>에 가고 그랬어요.
준화 : 뭐 사회복지과야? 봉사시간 필요해?
지혜 : 아, 처음에는 봉사시간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들 도와주고 기뻐하는 게 좀 뿌듯해서요.
준화 :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이야…. 진짜 닮았네. (조금 풀어진 모습으로 낄낄 웃으며) 거, 얼굴도 예쁜 처자가 마음도 예쁘네. 처자가 알긴 힘들 거야. <춘천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
룡옥 : 아 거기라면…….
준화 : 왜, 그쪽에서 유명한가?
룡옥 : 훌륭한 곳이라고 누가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혜 : 아,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스무 살 대학생입니다. 아, 음 어제는 학교 애들과 약속이 있어서…아마,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준화 : (언짢은 듯)으음.
룡옥 : 흔한 대학생의 생활이군요.
나라 : 흔한가요?
지혜 : (부끄러운 듯)아뇨 뭐….
룡옥 : (나라를 보며)그쪽은요?
나라 : (우물쭈물하며) 아, 저기 저는 일종의 선생님이에요.
지혜 : 와, 선생님이라니 무슨 과목이신데요?
룡옥 : '일종의'라니 학원 강사 같은 겁니까?
나라 : 아, 아뇨. 한국어교사라고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센터 같은데 돌아다니며 수업해요.
준화 : 호, 신기하구먼. 근데, 몸이 그런데 가르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룡옥 : 흠, 그럼 직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납니까?
나라 : 아…. (목소리와 행동이 움츠러들며)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돌아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학원 다녀와서 공부하다 집에서 잔 것 같은데….

룡옥 : 흐음.
지혜 :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자기할일 하다 갑자기 이곳에 온 것 같은데요?
준화 : 뭐, 자는 사이에 납치라도 당했단 거야? 무슨 이유로?
지혜 : 어…. 글쎄요?
준화 : 무언가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지혜 : 어…. 봉사?
룡옥 :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죠.
지혜 : (화들짝 놀라) 설마?
준화 : (시큰둥하게)뭐, 그럴 수도 있지.
지혜 : 어, 아니. 아저씨는 왜 그렇게 담담하세요?
준화 : 아니,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복수를 위해서 모았겠어? 유괴? 정부의 실험쯤 되나? 아 저기 피디양반이면 당할 수도 있겠구먼. 하지만 여기 아가씨와 나를 보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장난이라면 금방 풀어주겠지.
룡옥 :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미친 놈이 '그냥' 눈에 띄는 사람들을 모아 '재미로' 감금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릴 관찰하고 있다거나, 가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나라 : (공포에 질려)네?
준화 : (여전히 시큰둥하게)그럼 뭐, 그냥 좆된거지 뭐.
(모두가 잠시 침묵한다)
지혜 : 아, 저기. 그럼 일단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않을까요?
룡옥 : …사실, 아가씨들이 깨어나기 전에 준화씨와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운데 문을 가리키며)저기 용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철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방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면 우리가 매고 있는 가방정도가 되겠죠.

S#.5 - 숫자 4
갑자기 철문 위로 디지털 숫자'4'가 떠올랐다 사라진다.

S#.6 - 밀실 4
철문 위로 조용히 떠오르는 '숫자 4'를 지혜가 본다. 깜짝 놀라서 가리키지만 무언가 뜬 것 같은 인상만 본 사람들.

룡옥 : 정확히 어떤 글자였죠?
지혜 : '숫자 4'였어요!
준화 : (와락 인상을 구기며)이런 씨벌…….
지혜 : (달려가 철문 위에 숫자가 생겼던 곳을 만지며)안에서 조정하는 걸까요? 이음새가 없어요!
나라 : (안색이 흐려지며 숨을 다소 가쁘게 쉰다.) 설마, 사람 숫자일까요?
룡옥 : (심각한 표정으로 관객을 둘러보며)이로써,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증명됐군요. 누군가 우리에게 원한이 있는 걸까요?
나라 : (마치 재채기가 터지듯)저, 전 아니에요! 저는 선량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실 때도 조용히 참았고, 어머니의 기대에 항상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누

군가와 다투지 않으려고 힘들어도 항상 참고, 착하게. 착하게 살았어요! 남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노력하고, 지금도 조용히 공부하고 있고요!
준화 : (지루하다는 듯이 쳐다본다.)
지혜 :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에 그저 당황한다.)아….
룡옥 : (약간 짜증을 내며)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다만, 조금 진정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사고'현장에서는 재채기 같은 감정보다 숨을 고를 수 있는 이성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 : (패닉에 빠져)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 저는….(숨이 가빠진다.)
준화 : (나라의 등을 쓸면서)자자, 젊은 처자. 진정해 진정. 잘 했네. 잘 살았어.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구먼. 원래 뭐,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부모라고 마냥 잘하진 못해. 나도 뭐 좋은 가정을 이루진 못했지만 처자는 뭐, 좋은 딸내미가 되려고 노력했잖아. 그럼 된 거지. 부모가 몰라줘도 이미 좋은 딸이야.
지혜 : (가만히 중얼거리며) 그러면… 좋은 딸…?
룡옥 : (낯설다는 듯 팔짱을 끼며) 흠.
나라 : (조금씩 진정이 되며)감사합니다. 아, 그, 죄송합니다.
룡옥 : 신기하네요. 감성팔이가 도움이 되군요.
준화 : 나는 잘 모르겠지만 때론 그렇지. (가방을 뒤져 음식을 꺼내 먹는다.)이거, 진짜 오래 가두면 어쩌지. 이런 아무소리 없는 곳에서 굶어 죽는 건 싫은데.
룡옥 : 우릴 가둔 범인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혜 : 하지만 바라는 것이 없다면요?
룡옥 : 그건…. 이유를 알아봐야죠. (사람들을 둘러보며) 혹시, 이곳에 오게 된 소스, 의심 가는 정황이 없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 최근에 조사하던 곳을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추궁하듯)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라 : (약간 날카로워져서)우리가 그 사이비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납치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군요?
룡옥 : 네. 사실, 누굴 납치하고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추측했었는데 제 주변에서 건질만한 사항이 그것 밖에 없거든요. 만일 맞는다면. 꽤나 흥미진진한 오판이 되겠죠.
나라 : 확실히 단언하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인이에요. 사이비도 아닌 장로회 쪽이며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신앙생활은 저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에요. 더 의심하신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룡옥 : 음….
준화 : 오, 처자, 문자 좀 쓰네.
지혜 : 아, 아저씨. 지금 진지한데!
준화 : 알았어. 알았어. 딸 같은 아가씨한테 혼나네.
지혜 : 딸이 있어요?
준화 : 아 뭐. 딸이 하나 있는데. 스무 살 이랬나? 아가씨랑 같을 거야 확실히….
나라 : (그들을 멍하니 보다 소리를 지른다)다들 절 무시하는 거예요?
지혜 : 네? 네? 아뇨. 아뇨!
준화 : (손사래 치며)워워, 진정해 처자. 원래 말이란 게 흘러가다보면 삼천포가 일상이잖아. 미안해 미안.

나라 : (말없이 노려보다가)…그리고 처자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좀 불편해요.
준화 : 아 그래,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하셨더라?
나라 : 나라요.
준화 : 맞아 맞아. 나라. 나라씨. 이제 조심할게요.
룡옥 : (헛기침을 하며)저 때문에 괜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의심 가는 상황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나라 : (한숨을 쉬며)네 그건 맞죠. 저도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준화 : 암 맞지. 맞죠. 아, 나도 무교요. 종교단체 껴서 운영하던 센터에서 일했을 때 좋은 기억이 없어서….
지혜 : 일단 저는 기독교이긴 한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아요. 부모님 따라 갔던 건데 부모님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진 않거든요. 차라리 주말에 봉사를 하는 게 더 뿌듯하기도 하고.
룡옥 : …그렇군요. 음. 아, 참고로 저도 무교입니다. 맹목적으로 누굴 믿는 게 영 체질에 안 맞더군요.
준화 : 종교인이 하나 뿐인데 사이비종교에서 공격했단 건 억측이 아닐까? 물론 거짓이 없다는 전제 하에.
룡옥 : 네 음. 이런저런 사건이 많아서 말이죠.
나라 :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손해는 아니니 제가….
룡옥 : (단호히 끊으며) 잠깐! 잠깐 잠깐. 지금은 종교에 대한 논의 보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준화 : 맞아 맞아. 친한 친구래도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하는 게 아니랬어.
나라 : 아, 하지만…!
룡옥 : 일단. 우리 생존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진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가정해야죠. 가방을 모아서 식량을 공동분배 합시다. 총은……위험하지만 혹시 모르니 가방 하나에 넣어두고 숨겨둡시다.
준화 : 그려, 그려.
나라 : (다소 불만족스럽게)…네.
지혜 : (바로 몸을 움직여 가방을 모아둔다.)여기 철문 앞에 둘까요? 가운데이고 공동으로 보고 지키기 쉬우니까요.
룡옥 : 네 좋습니다.(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다.)
나라 : (말없이 같이 가방정리를 돕는다.)
지혜 : (가방에서 총을 꺼내 한 곳에 모아두다가) 아 설마?
룡옥 : 왜요?
지혜 : 아까 분명 '숫자 4'가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총이 4개이고 총알도 마찬가지이니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나라 : (그렇게 믿고 싶다는 듯)아 그럼, 사람 숫자가 아니라 총알 숫자가 아닐까요?
지혜 : 맞아요! 확실하게… 일단 쏴봐요!
룡옥 : 아니, 잠깐. 그 글자가 '숫자 4'인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준화 : 만약 숫자면 0이 되게 해야 하는 건가?
지혜 : 총알을 다 쏘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닐까요?
룡옥 : 하지만 단순히 총알이 0이 된다고 문이 열리는 건 너무 쉽지 않나요?

나라 : 그건 그렇죠. 의미도 없고 이상하긴 하네요.
지혜 : 애초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이상해요.
준화 : 뭐, 배고프다고 밥 대신 먹고 죽으라고 준 것은 아니겠지.(낄낄거린다.)
나라 : (불쾌해져서)뭐가 웃겨요…?
지혜 : 아저씨, 진짜 이상해요.
준화 : (그 소리를 듣고 또 낄낄거린다.)
룡옥 : 일단은, 넣어두고 좀 더 이곳을 살펴본 다음에 한 번 쏴보도록 합시다.
지혜 : 에이, 그냥 지금 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룡옥 : 혹시 다른 때 필요할지도 모르잖습니까.
나라 : 누가 그냥 우리를 놀리는 것일 수도 있죠. 무작위로 사람을 뽑아서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룡옥 : 음…. 우리나라 특성상 무리입니다. 사전에 동의 받지도 않았고, 검증받지 않은 일반인이 얼마나 재밌을 지도 모르고, 그리고 총까지 있죠. 이런 위험한 상황은 힘들어요.
지혜 : 그런데 저 총알이 진짜인지도 모르잖아요?
룡옥 : 그건 그렇죠.
준화 : 아.
지혜 : 왜요?
룡옥 :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건 어쩌지?
지혜 : 설마 큰 거 인가요?
준화 : 아니,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닌데….
나라 : 아….
룡옥 : 으음. 일단 구석 한 구석에 보는 건 어떨까요?
지혜 : 모두가요?
나라 : 그건 싫어요.
룡옥 : 그럼, 저기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끝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여성분들 측에는 옷을 걸어서 좀 안보이게….
지혜 : 윽, 그게 뭐야.
룡옥 : (드물게 우물쭈물한다) 하지만 음, 원룸마냥 다 똘려서 여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나라 : (한숨을 푸욱 쉰다.) 우리의 존엄을 헤치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탈출해야겠군요.(총을 들어 올리려 한다.)
룡옥 : 아니, 그런….
준화 : 아 그럼, 일단 난 저쪽 끝에서 물 좀 빼고 올게.(우측 구석 끝으로 달려가 소변을 본다.)

S#.7 - 밀실의 화장실

구석의 시점에서 다가오는 준화를 찍는다. 굉장히 급한 표정으로 오던 준화는 오히려 구석에 다가올수록 무표정이 된다. 지퍼를 내리며 소변을 보는 준화. 준화를 두고 등 뒤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진다.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나라 : (총을 만지작거리며)아, 이거 어떻게 써야하죠? 먼저 장전을 해야 한다고 했던가?

지혜 : (같이 다른 총을 만져보며)생각보다 무겁네요. 뭔가 신기하다.
룡옥 : (당황해서)자, 잠깐. 조심해요. 그러다 발사되면 어쩌려고. (둘에게서 총을 뺏으려 한다.)주세요.
지혜 : 잠깐만요. 잠깐. 좀만 더 보고 드릴게요.
룡옥 : (단호하게)주세요. 그건 장난감이 아닙니다.
나라 : (뺏기지 않으려 총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잠깐만요. 자꾸만 명령하려 드네요. 우릴 무슨 애처럼 보세요? 잘 살펴보고 드릴게요. 방아쇠만 안 당기면 되는 거잖아요?
룡옥 : (나라의 총을 뺏으려고 하며) 아니, 제가 언제요? 저는 그저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이 방아쇠만 안 당긴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총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통에 나라의 총이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커다랗게 격발음이 울린다. 철문에 불꽃이 반짝인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른다.
뒤에서 벌어지는 소란 속에 준화는 무감각하게 소변을 보고 있다. 그러다 비명소리를 듣고 흐린 카메라의 초점 속에 뒷모습을 보이며 허둥지둥 달려가는 준화.
철문 위에는 어느 새 떠올랐던 숫자 3이 막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아무도 숫자를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S#.8 - 밀실5

준화 :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오며)뭐야, 무슨 일이야. 누가 쐈어?
룡옥 :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가)아….(멍하니 총을 내려 보며)
나라 : (머리에 손을 얹고는)…저기 괜찮으신가요.
룡옥 : 아, 예…. (조용히 총을 주우면서) 누구 다치신 분 없나요.
지혜 : (갑자기 운다.)
룡옥 : (화들짝 놀라서)무슨 일이시죠?
지혜 : (울면서)다리가….(다리를 보여준다.)

-지혜의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다.

준화 : (혀를 차며)이런, 총알 파편이 튀었나보구먼. (가까이 가서 지혜의 상처를 살핀다.) 뭣들 한 거야? 총을 쏘려면 아무도 없는 벽에다 쏠 것이지 왜 철문에다 쐈데? 이런, 피가 많이 나네.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상처에 물을 붓는다.)
지혜 : (신음한다.)
준화 : 다행히 스친 거 같아.(옷을 벗어서 지혜의 다리에 묶어준다.)
룡옥 : 쏘려고 쏜 게 아닙니다. 총을 떨어트리며 발사가 됐어요. (나라를 보고 화를 내며) 아니, 그세 장전을 다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위험하다고! 차라리 애가 낫네요!
나라 : (거의 울상에 잠겨)그게,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룡옥 : 됐습니다.
나라 : (중얼거리다 숨을 헐떡인다.)
준화 : 워워, 진정해 처자. 어쨌든 총알은 공포탄이 아닌가 보구먼.
나라 : (조그맣게) 처자 아닌데….

룡옥 : (무시하며)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봐야할 것 같군요. 총은 4개 총알은 이제 3개가 되었고. 사람은 4명. 화장실은 없고 식량과 물은 조금….
준화 : (철문 위에 숫자가 있던 자리를 본다.) 친절하게 진행사항을 더 알려줄 생각은 없나보구먼.
룡옥 : 네….
지혜 : (울음은 잦아들어있다. 약간 쉰 목소리로) 어떻게 하죠 우리?
준화 : (가방 속의 과자를 꺼내들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룡옥 : (그런 준화를 저지한다.)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식량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준화 : 뭐 어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뽀사시하다는데.
룡옥 : (황당해서) 아니, 당장 배고파서 죽을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립니까. (과자를 뺏는다.) 이리 주세요.
준화 : (툴툴거린다.)독재자 같으니라고.
룡옥 : 뭐요?
준화 : 아 들렸어? 미안, 미안.
나라 : (고개 숙여있다 킥- 웃는다.)
룡옥 : (분개해서) 당장 오늘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요!
준화 : 어, 그러니까 공산당 같다.
룡옥 : 뭐라고요?
나라 : (비웃으며) 맞네요. 혹시, 북쪽에서 오셨어요?
룡옥 : (기가차서) 아니,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나라 : (다 들으라는 듯 중얼거린다.) 자기만 잘났어. 아주.
룡옥 : 아니, 하! 참! (준화를 보면서)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까?
준화 : 아니, 그건 아니긴 하지.
룡옥 : (나라를 노려보며) 저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가 싫어서! 이게 불편한 거면 당신이 쓸데없이 예민해서 그럴 뿐입니다.
나라 : (마주 노려보며) 쓸데없이 예민하다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불편해 했어요. 마치 당신이 선생님처럼 우리를 통제하려 했잖아요!
룡옥 : 통제라니요? 그저 상황에 맡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생각하세요, 생각. 방금 전도 당신이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나라 : 뭐라고요?
준화 : 워워, 진정해요 진정.
나라 : 아니, 아저씨는 왜 그렇게 여유로워요? 놀러 나왔어요? 여기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혼자 낄낄거리기나 하고!
준화 : 아니, 처자. 진정해. 나한테 왜 그래?
나라 : (소리지르며) 악! 그놈의 처자란 소리도 그만둬요. 옛날사람인거 티내세요? 제 이름은 '이나라'에요! 제대로 불러달라고요! 아, (말을 끝으로 휘청 이며 벽에 기댄다.)
준화 : 워워, 진정해. 나랴 양? 나라 씨? 암튼, 몸도 안 좋으면서 열을 내고 그래.
나라 : (힘이 빠진 목소리로) 하아, 이건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그냥, 빈혈 같은 거예요.
준화 : 괜찮은 겨? 혹시 과호흡 같은 게 오진 않아?

나라 : (작은 목소리로)…아직 괜찮아요.
룡옥 : (혀를 차며) 쓸데없이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누워서 쉬시죠.
나라 : 뭐요?
준화 : 말이 좀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자네.
룡옥 : 죄송합니다. 저도 좀 예민해져서. 그래도 아프시면 대우해 줄 테니까 지혜씨랑 같이 여기 쉬시죠. 괜히 있어봤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네요. 이 상황에서 뭐가 도움 될지 모르겠으니 방해나 하지 마세요.
나라 : 대우가 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룡옥 : (귀를 막으며 낮은 소리로 짜증을 낸다.) 히스테리 말기증 환자 같으니라고.
나라 : (눈이 돌아가 거친 몸짓으로 총을 들어 룡옥을 겨누려 한다.)
룡옥 : (달려가서 나라를 차버린다.)예상했다. 예상했어. 나한테 총을 겨눠? 홧김에 살인할 쌍년 같으니라고! (분에 못 이겨서 나라를 계속 밟는다.)
지혜 : (소리를 지른다.) 아저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준화 : (느릿하게 달려가서 룡옥을 잡아끈다.) 워워, 진정해 진정. 차분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열이 올랐어.
룡옥 : (숨을 헐떡이며) 저는, 이런 히스테릭한 여자가 싫어요.
준화 :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 대부분 그렇지.
룡옥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말하려다) 됐습니다.
준화 : 뭐, 뻔한 사연이 있나 보구먼. 무슨 일인데 그려?
룡옥 : (약간 울컥해서) 예, 뭐. 뻔한 이야기지요…. 됐습니다.
준화 : (영혼 없는 말투로) 아니,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되는데….
지혜 :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나라 씨 좀 보세요!

그 순간 커트되며, 카메라는 나라의 몸을 찍지 않고 손만 클로즈업 한다. 발작하듯 움직이는 손. 그러면서 가슴이 아픈 지 가슴 쪽으로 양손을 움켜쥔다.
다시 커트되어, 줌-아웃 된 카메라가 뒤에서 세 사람의 모습을 찍는다. 룡옥과 준화가 놀라 그녀에게 다가가 나라의 옷을 편하게 풀고 손발을 주무른다.

준화 : (나라의 목을 세우며) 자네 아까 너무 세게 찬 것 아닌가?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숨을 잘 못 쉬어.
룡옥 : (패닉에 빠져서) 아니, 그게 아까는 갑자기 화가 너무 나서 저도 잘….
준화 : 어어?

두 남자의 모습에 가려져 잘 안 보이는 나라. 그렇지만 순간, 그들 사이로 힘 없이 떨어지는 손이 보인다.
화면이 전환되며 클로즈업된 룡옥의 얼굴이 잠시 비춘다. 신음만 내며 넋이 나간 표정. 다시 화면이 전환되며 전체 사람들을 찍는다.

준화 : (나라를 흔들어본다.)이봐, 처자? 아, 나라 양? 씨? (뺨을 때린다.) 이봐요, 처자! 처자! 죽었어요? 죽은 거야? 진짜?
지혜 : (놀라서 숨을 들이키며)진짜요? 이렇게 갑자기?

룡옥 : (준화를 밀치더니 나라의 코에 손을 대어본다.) CPR의 기본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어, 어….(고장 난 것처럼 삐걱거리며 우왕좌왕하다가 나라의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전 한다.)하나, 둘!….

준화 : (그런 룡옥을 보다가 슬쩍 일어난다.) 습관이 아주 예의바른 친구구먼.(그러고는 철문 위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배낭 쪽으로 무심히 걸어가면서) 이거 참. 이렇게 된 이상. 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구먼.

지혜 : (배낭 쪽으로 걸어온 준화를 보고 정신이 나가 다급하게) 아저씨, 아저씨! 어떡해요! 어떡하죠? 무슨 방법이 없어요?

준화 : (태연하게 가방이 모인 중앙 쪽으로 가서 걸터앉으며)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든 해야겠네. 이게 이 상황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지혜 : 네?

준화 : (가방을 슬쩍 가져와 뒤지면서) 근데 아가씨는 진짜 내 딸내미랑 비슷한 것 같아. 아가씨만 보면 노래가 들려.

지혜 : (멍해져서)에?…그래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에요?

준화 : (가만히 지혜를 바라보며) 예전에 와이프가 내가 싫다면서 나가버렸거든. 그런데, 나갈 거면 혼자 나가지. 내가 애 정서에 안 좋다고 딸내미까지 데려간 거야. 어이가 없지? 그렇지?

지혜 : (분위기가 이상하여 겁을 먹고)네? 아, 네….

준화 : (텐션이 점점 올라간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정부에서도 애가 엄마랑 사는 게 좋다고 해버린 거야. 빌어먹을 와이프가 내가 병이 있다고 걸고 넘어졌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애를 학대하기라도 한데? 나는 딸내미를 사랑하고 진짜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숨을 고르듯 한 층 다운되어)…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상 같은 것도 받고 뉴스에 잠깐 나오기도 했다?

지혜 : (기분이 이상해져 몸을 슬쩍 빼며)아, 네….

준화 : (마치, 유혹하듯) 지혜 씨는 내 딸을 정말 닮았어. 그래서 확신할게. 댁네 부모님도 지혜 씨를 정말 사랑할거야.

지혜 : (갑자기 예상치 못한, 듣고 싶었던 말에 혹해서) 아…진짜요?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시는 거겠죠?

준화 : (확신을 담아 인자하게 웃으며) 물론이지! 나는 내가 그렇게 자식을 좋아할 줄 몰랐어. 그런데, 딸내미를 처음 보았을 땐 아주 깜짝 놀랐다니깐? 아니 글쎄, 아기 얼굴을 보니까 머릿속에 노래가 들리는 거야? 그것도 아주 유쾌한 노래가. 그래서….

지혜 : (무언가 감동을 받아 기뻐하며) 와아, 네. 네! 그래서요?

준화 :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딸내미를 보면 아주 기쁘거든? 웬만하면 전날에 일을 다 처리해 두느라 딸내미 만나기 전날이면 일을 늦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일을 늦게까지 했단 말이지?

지혜 : 아, 그래요?…. 오늘이 따님 분을 만나려는 날이었어요? 아, 상심이 크시겠네요.

준화 : (의미심장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지혜 : 네?

준화 : (가방 속에 두 손을 집어넣는다. 달칵-하는 장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뭐가 어쨌든.

지혜 : (상황을 이해 못하고 얼어서) 네? 어, 아저씨?

준화 : 난 사랑스런 내 딸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준화는 말을 끝으로 가방에서 총을 꺼낸다. 카메라는 걸터앉아 가방에서 총을 꺼낸 준화의 모습을 담는다. 준화는 느긋하게 웃으며 총을 쏜다. 탕! 쏘았던 총은 바로 버린다. 바로 가방에서 다른 총을 꺼낸다. 일어서면서 장전을 한다. 느릿하게 걸어가며 총을 겨눈다. 카메라는 계속 준화만 담고 있다. 룡옥의 당황하는 소리와 욕설이 들린다. 탕! 준화는 무표정하게 쏜 총을 버린다. 몸을 돌리고 어깨춤에 손을 올려 철문을 바라본다.
화면이 커트되며, 철문 위에 '숫자 1'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준화 : (이상하다는 듯)흐음? 여보세요? 1이 사라져야 끝인가요? 승자가 없는 게임인가? (철문에 다가가 두드린다.) 여보세요? 헬로? (철문을 두드리다 이내 거칠게 발길질을 한다.)씨발! 이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보내 달라고!

준화는 한참을 철문을 발길질하며 발광을 하다 갑자기 뚝-하니 멈춘다.

준화 : (살벌하게 뒤로 돌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아, 설마?

준화는 무서운 얼굴로 뚜벅뚜벅 카메라를 향해 걷다가, 방향을 틀어 카메라의 앵글에서 벗어난다. 옆으로 움직인 카메라에는 나라의 시체를 지나치는 준화가 보인다. 그리고 나라에게서 떨어져 나간 총을 줍는다.

준화 : (멍하니 총을 보며) 설마 이건가? 흠. (그러다 나라의 시체를 본다.) 혹시, 모르니 겸사겸사 확인해 보지. (나라의 시체에 다가가 그녀를 발로 찬다.) 이봐, 젊은 처자. 혹시 살아있나? 죽은 척 한 건 아니지? (나라의 시체를 향해 겨눈다.) 미안해, 처자. 겸사겸사 확인해볼게 있어서. (탕! 총을 쏜다.)

화면전환 되며 철문을 클로즈업하여 찍는다. 철문 위로 '숫자 0'이 떠오른다. 곧, 숫자가 사라지고 덜컹-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린다. 다시 화면이 전환되어 철문을 바라보는 준화, 바스트샷.

준화 : (철문을 보고 총을 본 다음 능청스럽게) 총알이었나 보네? (총을 버리고 유쾌하게 철문을 향해 걷는다.)

뒤에서 준화가 철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롱샷으로 담는다. 준화가 나가고 철문이 닫히며 줌아웃 되며 페이드아웃.

에필로그(Epilogue)

시작할 때의 삐- 거리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리더니 규칙적인 신호음으로 바뀐다. 중환자실에나 나올법한 건조한 기계음이다. 마치, 심정지 된 사람이 맥을 회복하는 소리 같다.

- 페이드인 되며 중환자실이 보인다. 병실침대에는 준화가 누워 치료받고 있다.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서있고 중년 여성과 스무 살로 보이는 여인이 준화를 간호하며 앉아있다. 스무

살 여인은 지혜와 닮아있다.

의사 : (차트를 넘기며) 최준화 씨. 더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준화 : 글쎄요. 대체로 불편한 것 같은데….
의사 : 기적입니다. 그날 추돌사고로 실려 온 사람들 중에서 최준화 씨만 멀쩡히 깨어나셨습니다. 사회봉사로 유명하시다면서요? 평소에 덕을 쌓으셔서 하늘이 보우하셨나 봅니다.
준화 : (갑자기 낄낄거리며) 하늘이 보우하셨죠.
전 부인 : (눈살을 찌푸리며 그러나 모질지는 못한 목소리로) 그 속 빈 강정 같은 웃음소리 좀 내지 말라니까.
준화 : 아, 미안, 미안. 윽.
의사 : 어디 편찮으신가요?
준화 : 웃을 때 가슴이 좀 아픈데요?
의사 : 아 네, 아직 갈비뼈가 덜 아물어서 그렇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웃으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진통제를 좀 놔 드리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간다.

준화 : 이런, 이런.
전 부인 : 잘됐네. 이 기회에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 좀 고쳐봐.
딸 : 아빠 웃음소리가 어때서 그래. 좀 경박하긴 해도 정감 넘치고 좋은데. (침대에 누워있는 준화의 손을 애달프게 잡으며)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빠 힘드신데 무리하게 우릴 만나러 오려다가…. 이제부턴 제가 찾아갈게요. 엄마가 차 사주신다고 해서 운전면허도 따고 있어요.
전 와이프 : 그러라고 사주는 차 아니다. 이제 대학교 갔으면 공부나 하지 귀찮게 뭘 자꾸 아빠를 찾아가?
딸 : (엄마한테 신경질 내며) 엄마는 만날 아빠한테만 그래! 아빠도 일 끝나고 피곤하신데 바쁘게 우릴 만나러 오다가 다치신 거잖아.
준화 : (허허롭게 웃으며) 괜찮아, 딸내미. 까짓 거 좀 무리할 수도 있지.
딸 : 그래도 그렇지….
준화 : (힘겹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찾아갈게. 아빠가 딸내미 사랑하는 거 알지? 드라이브할 겸 데리러 가는 거야. 기분 전환도 되고 좋다구.
딸 : 그래도…. 아빠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자주 올게. 학교생활 때문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주 올게.
준화 : 얼마나?
딸 : 어, 적어도 일주일에 네 번? 아니, 세 번? (귀엽게 웃는다.)
준화 : 무리하지는 말아. 그래도 입원하니까 편하게 쉬다가 딸내미 얼굴 자주 봐서 좋구먼.
전 부인 :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고) 그럼, 이제 가자. (준화한테) 나 바빠서 이만 갈게. 푹 쉬어.
딸 : 어, 어? 그래. (준화를 껴안고) 아빠 나 갈게. 푹 쉬어.
준화 :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 몸 다 나으면 아빠가 또 데리러 갈게.
딸 : 아이 참, 이제 안 그래도 된다니까.
준화 : 아빤 걱정 마. 몰랐어? 아빠 완전 주윤발이야. 우리 딸내미 보러가기를 막는 자, 누구

든 내 총탄에 쓰러지리라!(재밌는 농담을 했다는 듯 혼자 낄낄거린다.)

‘랄랄랄라 랄라 랄랄라-’하는 CM송 같은 발랄한 노래가 흐른다. 낄낄거리는 준화를 두고, 전 부인은 인상을 찌푸리고는 또각또각 뒤돌아 나간다. 딸은 다소 안쓰럽게 준화를 보고는 엄마를 따라 나간다.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노래가 뚝- 끊긴다. 준화는 무표정하게 손을 흔들고 있다.

---THE END---

그들의 말 못할 입시

국어국문학과 20171029 문지원
사회학과 20182206 김선빈
사회학과 20182226 이아로

시놉시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세 친구가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다. 각자 의외의 학과, 학교에 있는 걸 의아해하며 선주와 유리, 지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등장인물
문선주: 전 연극영화과 입시생. 현재 사회학과 재학중.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심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출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김유리: 불같은 성격으로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의 소유자. 그러나 인정도, 사과도 빠르며 정도 많다.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이지혜: 현재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글 쓰는걸 좋아하는 낙천적인 성격. 시인인 학원 선생님의 권유로 문예창작과 입시에 도전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허공을 보며 자주 멍 때린다.

1. 현재. 술집. 실내. 늦은 저녁

동아리 개강총회가 열려 시끄러운 어느 술집.
저 마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있느라 바쁘다.
지혜는 선주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다.
그걸 바라보다 입을 여는 유리

유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다 만나네.
선주　　(작게 웃음소리를 내며) 그러게. 웃기다.

지혜는 유리의 잔이 미리 차있는 걸 보고는 자기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한다.

지혜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회 같다.
선주　　(맞장구치며) 그러게. 고등학교 동창회도 아닌데 여기서 너흴 다 만나네.

유리는 지혜를 빤히 바라보다 입을 연다.

유리　　근데 선주 너 연극영화과 희망하는 거 아니었어? 아까 자기소개 할 때 보니까 연영과랑 아주 딴판인 학과던데?

선주　　(머뭇거리며) 그게, 이야기가 좀 길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혜도 똑같지 뭐.. 원래 문예창작과 지망하지 않았었나?

선주가 지혜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지혜는 마시던 술을 내려놓는다.

지혜　　(어색하게 웃으며) 음, 뭐 인생사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안 그래?

유리는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쉰다.

유리　　우리가 좀 데면데면한 사이였던 건 맞는데, 이정도면 무심함이 너무할 지경인데?
지혜　　(호쾌하게 웃으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유리　　야, 웃지만 말고 지금 학과 어쩌다 가게된 건지 얘기나 해주라. 궁금해.
선주　　(눈을 반짝이며) 그러게. 문창과는 어쩌고 여기 온 거야? 나도 궁금하네.
지혜　　(손을 턱에 얹으며) 음, 그게 그러니까…

2. 과거. 학원. 실내. 오후

지혜의 학원 선생님이 지혜가 쓴 글을 꼼꼼히 읽고 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조금 긴장된 얼굴의 지혜.

선생님　　(지혜가 쓴 글을 내려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잘 쓰네.
지혜　　(굳은 표정이 살짝 풀린다.) 후,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에도 지혜의 얼굴은 완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혜의 모습에 선생님은 걱정스럽게 묻는다.

선생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살핀다.) 지혜야, 어디 아프니?
지혜　　(고개를 젓는다.) 예? 아니요! 저 완전 멀쩡해요!
선생님　　그럼 표정이 왜 그래?
지혜　　(머뭇거리며) 제가 지원한 학교는 경쟁률도 센데, 저는 준비한 기간도 짧`고….
선생님　　아, 그렇구나.
지혜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네.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혜에게 원고지 뭉치를 내미는 선생님. 눈을 크게 뜨는 지혜.

지혜　　(어리둥절해하며) 엥?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밝게 웃으며) 걱정되면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지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저 방금 하나 쓰고 왔는데요…?
선생님　　글쓰기 싫으면 문제 풀래?

지혜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원고지에 글을 쓴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걸 좋아하는 지혜는 깔끔하게 쓰기 위해 빈 종이에 글을 먼저 쓴 뒤, 원고지에 썼던 글들을 전부 옮겨쓴다.

선생님　　(글을 옮기는 지혜의 뒷모습을 보며) 시간 내에 써야하니까, 글씨 예쁘게 쓸 필요 없어. 깔끔하게 안 써도 돼.

3. 과거. 입시장. 실내. 오전.

원지 대학교의 전경이 전체 화면으로 담긴다.
급하게 글을 옮겨 쓰는 지혜. 이미 반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제출했다.
앞자리의 사람이 일어난다. 당황한 지혜는 고개를 살짝 들어 주위를 살핀다.
이제야 겨우 원고지에 절반 정도 옮겨 쓴 상태.

어떻게든 글을 써보려 한 유리. 그러나 시간이 되어 감독관이 원고지를 가져가 버리고 만다.
지혜는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고 짐을 싸서 입시장을 나선다.

지혜　　(울먹이며) 엄마…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는 지혜.

어머니　　(놀란 목소리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혜　　(울면서) 다 못쓰고 나왔어요….

어머니에게 안기는 지혜.

지혜　　(눈물을 닦으며) 화장실 갔을 때 휴지 없어라. 킁.
어머니　　(지혜에게 휴지를 건네주면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을까?
지혜　　(코를 풀면서) 네.

4. 과거. 음식점. 실내. 오후

지혜에게 고기를 구워주는 어머니. 지혜는 코를 훌쩍이며 고기를 먹는다.
점심 시간대라 손님은 많지 않다.

어머니　　(앞 접시에 고기를 덜어주며) 맛있냐.
지혜　　(코를 훌쩍이며 고기를 입에 쑤셔 넣는다.) 네.

목이 막히는지 가슴을 두드리는 지혜. 어머니가 콜라를 급히 따라준다.

어머니　　(콜라를 따라주며) 체하겠다.

테이블에 떨어지는 눈물.

지혜　　(눈물을 흘리면서) 흐엉…
지혜의 어머니는 지혜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다. 지혜를 다독이는 어머니.

어머니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마.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 보이잖아.
지혜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전부 삼킨다.) 아 엄마~.

슬퍼하는 지혜를 위해 어머니는 장난을 치며 지혜를 달랜다. 자신을 타박하지 않는 어머니께 감사해 슬퍼도 애써 웃는 지혜.

5. 현재. 술집. 실내. 저녁

유리　　야 그래도 비슷한 과 왔으니까 된 거지.
선주　　맞아. 국문과에서도 글 실컷 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혜　　(술잔으로 선주를 가리키며) 어차피 나 문학 좋아했었어. 국문과도 재밌더라. 그러면 선주 너는 왜 사회학과 온 거야?
선주　　(멋쩍게 웃으며)나는…

6. 과거. 학교. 실내. 낮

적막이 흐르는 복도에 나란히 서 있는 선주와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한숨을 쉬며) 수지대, 원상대, 세빈대. 전부 연극영화과. 너 정말 여기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선주　　(고개를 푹 숙인다) 네….
담임 선생님　　네가 그렇게 잘해? 사람들이 네가 쓴 글 다 좋대? 전국에서 글 좀 쓴다고 날고뛰는 애들, 연극영화과 가겠다고 몇 년 동안 준비한 애들보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냐고.
선주　　열심히 해볼게요….
담임 선생님　　말만 열심히 열심히. 너 이러다 재수하면 어쩌려고 그래? 너 이 학교들 원서 넣고 싶으면 넣어. 대신 떨어져도 네 책임이야.
선주　　네….

7.과거. 학원. 실내. 낮.

힘없이 학원 앞에 선 선주. 한숨을 푹 쉬더니 교실로 들어가 앉는다.
잠시 후 들어오는 학원 선생님.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한 장씩 나눠주신다.

학원 선생님　　오늘은 글쓰기 연습하는 날이야. 시간은 1시간. 제시어는 나눠준 시험지에 쓰여 있어. 그럼 시작.

시험지가 비춰진다. 제시어는 악어, 사다리, 원피스, 꽃.
표정이 어두운 선주. 시계 소리와 글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끝을 알리는 알림소리가 들리고 학원 선생님은 아이들의 시험지를 하나씩 걷어 간다.

학원 선생님　　수고했다. 실기도 얼마 안 남았고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은 일찍 보내줄 테니까 푹 쉬어. 선주는 잠깐 선생님 좀 보고.

빈 교실에 마주보고 앉은 선주와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선주의 시험지를 꺼내 보여준다.
백지인 선주의 시험지.

학원 선생님　　(목소리를 높이며) 너 어떡하려고 이래? 내일 모래 시험이야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힘들어? 글 쓰는 게 벅차니?
선주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네… 조금….
학원 선생님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대학 가면 글 잘 쓰는 애들 천지고 매일 밤새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 성격으로 선배들 군기는 어떻게 버틸 건데?

다그치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속 시선을 바닥에 두는 선주.

학원 선생님　　나는 연출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삼수를 했고, 나보다 어린 애들한테 군기 잡히면서도 참았어. 근데도 힘들더라. 힘든 거 아는데도 힘들었어. 근데 너는 그런 거 버틸 수 있어? 참을 수 있냐고.
선주　　그게..

학원 선생님은 소심한 선주가 답답한지 한숨을 내쉰다.

학원 선생님　　재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너한테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 선주야 너 연출을 하고 싶은 게 맞아? 왜 연출이 하고 싶어?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너 스스로 알긴 아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선주.

학원 선생님　　(머리를 짚으며) 가뜩이나 준비도 늦게 시작한 애가 태도가 이게 뭐

야? 다른 애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지. 너 이러면 진짜 대학 못가. 다음 시간까지 네가 왜 연극영화과가 가고 싶은지, 왜 연출이 하고 싶은지 그 이유 찾아와.

선주 (입술을 깨물며) 네….

8. 과거. 집. 실내.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선주.
저녁을 먹는 선주와 마주앉은 어머니. 선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한다.

어머니 (걱정스럽게) 우리 딸,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잘 하고 있는 거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갑자기 흐느끼는 선주. 어머니가 무어라 말하지만 선주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어머니 (다급하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울지 말고 말해봐.
선주 몰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선주.
책상 앞에 앉은 선주는 그동안 공부한 자료를 모두 찢는다.

9. 과거. 시험장. 실내. 낮

세빈 대학교 앞. 홀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선주.
시험장에서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아 앉은 선주. 곧 감독관이 들어온다.

감독관 세빈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으로 시험을 끝나신 분들은 먼저 나가도 좋습니다. 모두 합격을 기원하며 시험 시작합니다.

시험을 알리는 감독관의 설명과 함께 분주히 글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손에 볼펜을 들고 있는 선주. 그러나 아무 글도 쓰지 않는다.
작은 한숨을 내뱉는다.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제일 먼저 시험장을 나서는 선주.

10. 현재. 술집. 실내. 저녁

선주 이렇게 된 거야. 사회학과도 원래 가고 싶은 과였기도 했고….
유리 (감탄하며) 대단하다 대단해.
선주 치… 뭐가 잘났다고. 그러는 너야말로 왜 이 학교 온 거야? 너 원래 아리대학 붙은 거 아니었어?
유리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다들 나 거기 간 줄 알긴 하더라. 난….

11. 과거. 교무실. 실내. 낮

유리　　그렇게 대답 못한다니까요!
담임 선생님　　그럼 뭐, 대학 그냥 떨어지게? 꼭 가고 싶은 학교라며?
유리　　다른 학교 갈게요. 그럼!
담임 선생님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유리는 교무실을 박차고 나온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온다.
유리는 프린트한 면접 질문지를 꾸긴다.

꾸겨진 질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있다.
'동성애를 찬반해보시오.'

12. 과거. 학교 운동장 벤치. 실외. 저녁시간

유리는 화가 나는 듯 숨을 고른다.
담임의 말이 떠오른다.

담임 선생님　　(단호하게) 거기 기독교 학교야. 무조건 반대해.
유리　　누가 누군갈 좋아하는 걸 왜 찬성하고 반대해요? 찬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질문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고요!
담임 선생님　　야, 네가 대학교수야? 네가 그렇게 다 알아?

유리는 낮의 일이 떠올라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헤집는다.

유리　　(벤치에서 일어나며) 떨어지고 말지. 난 절대 굴복 안 해.

교실로 돌아온 유리는 면접 예상 답안을 준비한다.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적혀져간다.
'동성애는 찬반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지향의 다름일 뿐이며… 우리가 가치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13. 과거. 대학 면접장. 실내. 낮

다른 학생 두 명과 함께 면접장에 입실하는 유리. 긴장한 표정.

교수1　　만나서 반가워요. 면접 질문은 미리 제시해준 질문에서 나올 거예요.
교수2　　김유리 학생?
유리　　네!

교수2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한번 찬반해보세요.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는 유리. 손이 조금 떨린다.

유리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찬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적인 질문입니다.

정적이 뜨는 면접실 안.
다른 면접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 때 정적을 깨고 교수1이 호쾌하게 웃는다.

교수1　　(크게 박수치며) 학생 정말 당돌하구만! 하하.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교수2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외의 반응에 벙찐 유리.
뒤에 이어진 질문을 무사히 끝마친 후 면접장을 나선다.

14. 과거. 학교 컴퓨터실. 실내. 오전

딸깍거리는 마우스 소리가 울려 퍼진다.
긴장한 표정의 유리. 덩달아 긴장한 친구들.
한 번의 클릭 소리 이 후 컴퓨터 화면에 창이 하나 뜬다.

'면접번호 000000 김유리. 합격.'

유리　　(믿을 수 없다는 듯) 야, 나 붙었어….

친구와 유리 사이에 잠시간 정적이 흐른다. 이내 커지는 친구의 눈.

친구　　(눈이 점점 커지며) 헐, 김유리! 축하해!

유리와 친구는 합격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얼싸안는다.

15 현재, 술집, 실내, 늦은 저녁

유리의 이야기에 놀라는 선주, 지혜

지혜　　(손으로 작게 박수를 치면서) 대박.... 유리야 너 진짜 멋지다. 나 반할 뻔했잖아.
선주　　근데 너 되게 웃기다. 가고 싶었던 학교 아니었어? 왜 여기로 온 거야?

지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런 문제를 낸 학교에 실망해서...?
유리　　(소주 한 잔을 홀짝이면서) 그게 제일 크긴 한데,(싱긋 웃으며) 뭐, 장학금제도나 유학지원 같은 것도 있었지.
선주　　(유리를 툭 치며) 하여튼 특이해.
지혜　　야, 너도 만만치 않잖아.
유리　　(지혜의 말에 동조하며) 자료 전부 찢어버리고, 시험장에 백지 내고 나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지혜　　(조심스럽게) 후회하지는 않아?
선주　　(단호하게) 전혀. 굳이 꼽자면 후회보다는 내 돈과 시간이 아까운 정도?
유리　　그럼 사회학과로 올 생각은 어쩌다 하게 된 거야?

선주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입시할 때 내 유일한 목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출가가 되자' 였거든. 그래서 은연중에 사회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유리　　(소주 한잔 들이키며) 크, 상여자네.

선주와 유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주를 먹고 있던 지혜. 쓴 웃음을 짓는다.

지혜　　나는 문창과 떨어지고 국문과 왔다! 혹시 몰라 준비했던 학생부 교과전형도 떨어지고. 국어 위주로 공부했는데, (킬킬 웃으며) 국어 5등급 나왔다?
유리　　국어 1등급인데 글 못 쓰는 애들 많아. 수능 잘 본다고 글 잘 쓰냐.
선주　　국문과 출신 작가들도 많아~

술 한 잔 마신 지혜. 선주와 유리를 향해 몸을 붙인다.

지혜　　우리 나중에 취업 못하면 다 같이 치킨 집이나 차릴래?
선주　　가게 이름은 지어놓긴 했고?
지혜　　(씩 웃으며) 전공 살려서 '나랏말싸미' 치킨!
유리　　(어이없다는 듯 픽 웃으며) 너 취했냐? 그만 마셔 임마.

취한 듯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지혜는 안취했다며 손사래를 친다.
선주도 기분이 좋은지 웃는다. 유리는 둘의 모습을 보며 술 한 잔 마신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간다.

불꽃 놀이

광고홍보학과 20152672 신지민
광고홍보학과 20152680 이호준
영어영문학과 20121244 최재형

등장인물

철민 : (33살, 남 , 백수)

1987년 11월 5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철민은, 3대째 물려받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그나마 그가 8살이던 해, 납품 대기 중이던 물건들이 오던 중 다리가 무너져 사업이 망하고 풀리려던 가난이 더욱 자리 잡은 것이다. 사업에 망한 아버지는 낮엔 자고 밤에 일어나 일용직 노동을 하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가정을 책임지며 새벽마다 기사 식당일을 나선다. 집엔 재미있는 것들이 없다. 그를 달래는 것은, 밤에 들려오는 축제 분위기의 사람들 소리뿐,

33살인 현재의 철민도 다를 바 없다.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 보니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군대 시절 동기와 함께 동대문에서 옷을 팔다가 수입 명품 도매업자라고 속인 사기꾼에게 가게 대금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몰려 하루하루를 배달, 서빙, 심지어 조선소까지 들락거리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어머니의 친구 세영의 도움으로 꽃가게에서 배달하게 된다. 모처럼 쉬는 날 주말 오후, 그는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서울 깍쟁이 친구, 희준의 전화를 받는다.

희준 : (33살, 남, 은행직원)

1998년 서울에서 춘천으로 전학 온, 철민의 어린 시절 몇 없던 친구. 부도난 회사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아버지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춘천에 오게 된 것이다. 그나마 배운 기술이 있으니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이는 하는 모양,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누나 희선과 눈물로 이별을 하고 춘천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왔다 하여 모두가 관심을 주지만, 그런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철민에게 매력을 느껴 먼저 말을 걸게 되고 같이 다니면서 친해진다.

33살인 그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여, 연세대에 합격하였으나, 그를 지원하기에 가정에 어려움이 커 서울시립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노력 끝에 대기업 은행에 합격한다. 은행직원이 되고 나서 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 12월 중순, 추운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친구 철민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게 된다.

시놉시스

백수인 철민은 우연히 희준의 전화를 받는다. 평범한 안부와 비속어가 오가던 대화에서 문득 어린 시절 '그 사건'을 아느냐는 희준의 질문에 날이 추워 대추차를 끓이던 중 '그 사건' 에 대해 회상한다. 철없던 시절 어른들 몰래, 학교 뒷산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둘은 폐가를 태우게 되고 도망친다. 작은 동네의 일이라서 걸리지 않고 운 좋게 넘어간다.

S#1 철민의 집 (낮 / 안)

12월 21일 토요일
낮인데도 어두운 교동(춘천)의 어느 전경, 원룸촌을 돌다가 자줏빛의 옛 건물을 비춘다.
철민의 집이다.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난 듯 숙취에 고통스러워 화장실을 향하는 철민

화장실에서 나와 차를 끓여 먹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철민. 그리고 그때 걸려온 전화

철민　　(잠긴 목소리지만 최대한 밝은 톤으로) 웬일이야.

희준　　*(V.O.)* 바쁘지도 않은 놈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해 임마.

철민　　(웃으며, 오바하듯) 이새끼야 어제도 배달만 10건이었던 거 몰라? 하는 일로 따지면 은행은 뭣도 아닐 거다.

희준　　*(V.O.)* (전화기 넘어 들릴 정도로 크게 웃으며) 하하하 이새~끼.
야야 한참 송년회 할 시즌이잖냐 우리도 빨리 봐야지 안 그래?
춘천에도 오랜만에 한번 가고 싶기도 하고 ....

송년회 이야기에 잠깐 달력을 보는 철민
아직도 11월이다. 뒤늦게 찢는다.

철민　　와 시X 벌써 12월이야?

희준　　*(V.O.)* 이 미친놈아 뭐가 벌써야 이제 중순 막바지인데
일부러 바쁜 티를 내요. 하여튼 ...

철민　　그래서 언제 보자고?

희준　　*(V.O.)* (긴 숨을 내쉰다. 고민하는 모양) 으으음 어디 보자... 세미나가...

바쁜 일정을 늘어놓는 희준
그리고 내심 부러운 듯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본다.

희준　　*(V.O.)* 야, 다음 주는 되겠는데? 요즘은 다들 워라밸이다 뭐다 자기 일 챙기기 바쁘니까 시간이 많네.

철민　　몰라 오기나 해. 난 계속 춘천이니까.

담배를 무는 철민, 라이터가 없자 다시 주방으로 향하여 가스 불로 키려 한다.
가스 불 켜는 소리가 들리자 뭐 하려고 했는지 눈치챈 듯한 희준.

희준　　*(V.O.)* (걱정하는 듯한 그러나 불같이 화를 내며) 야 이 새꺄 또 담뱃불 가스 불로 켜려고 하냐? 위험하다니까

철민　　(담배를 입에 물고 발음을 흐리며) 근츠나 스고는적 흔븐도 읎어(괜찮아 사고 난 적 한번도 없어)

희준　　*(V.O.)* 뭐가 없어 임마 우리 예전에 불장난하다가 춘천 다 불태울 뻔했잖아

연기를 내뱉으며 물을 끓이는 철민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웃고 있다.

철민　　야! 불장난이 아니라 불꽃놀이! 지겹다. 지겨워 우리 맨날 만날 때마다 안줏거리잖아.

희준　　*(V.O)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너와 나 사이에서 가장 기억날만한 에피소드인데.

철민　　그러게, 그것도 벌써 20년도 넘었다 야 어찌 살아있나 몰라.

희준　　*(V.O.)* (하품하며) 기억은 나냐? 진짜 지금 생각하니 다 추억이다.

철민의 담뱃불에 클로즈업되면서, 철민은 과거를 회상한다.

(FLASH BACK)

S#2. 과거 철민의 집 (아침/안)

1998년 12월.
겨울 날씨와는 다르게 조금은 따뜻한 아침,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밥 잘 챙겨 먹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

철민　　(귀찮은 듯) 알았어요.

어머니　　(그냥 가기 아쉬운 듯) 대충 먹지 말고, 엄마 일 가느라 바쁘니까 전화할게.

철민　　네. 다녀오세요.

어린 철민은 급하게 나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주방으로 향한다.
끓는 주전자를 놓고 컵라면을 먹으려 한다. 방에서는 새벽 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의 신음이 들린다.

컵라면을 다 먹은 철민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문을 닫으려는 중
아버지가 부른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야... 야 철민아!!

철민　　(고민하다가 나지막이) 다녀오겠습니다...

쿵! 문을 크게 닫고 다시 학교를 향한다.

S#3. 학교 교실 (아침 / 안)

지저귀는 새소리. 교실에선 어제의 일을 나누는 대화 소리가 한창이다.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꺼내는 철민.
(드르륵) 담임 선생님이 들어온다. 정장 바지에 후줄근한 스웨터 차림. 나무회초리로 문을 탁탁 두들기며 학생들을 쳐다본다. 이윽고 조용해진 교실 분위기.

학생들을 훑어보던 중, 철민과 눈이 마주치고 회초리로 오라는 듯. 손짓한다.
철민.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나선다.

학생 1　　뭐야 쟤 뭔 사고 쳤나?

학생 2　　쟤 아버지 맨날 밤에 술 먹고 다니잖아. 사고 안 치게 생겼냐?

학생 1　　(철민의 뒷모습을 보며 허겁지겁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하며)
쟤 듣겠다 x 친 놈아.

S#4, 교무실 (아침 / 안)

조용한 분위기. 담인 선생님은 출석부를 계속 넘기고 있다.
철민 반성하는 듯한 자세로 서 있고, 지나가던 체육 선생님이 뒤통수 한번 치고 간다.

체육 선생님　　(한심한 듯 쳐다보며) 에휴 에휴!

담임 선생님. 쭉 말이 없다가 철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모니터를 보며 말을 꺼낸다.

담임 선생님　　5일이다, 5일 벌써 결석이 말이다.

철민　　(들릴 듯 말 듯 조용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아시나? 어머니는…? 걱정 많이 하실 거다.

철민　　몰랐으면 해요…. 새벽에 폐지 줍는 것 아시면 걱정 많이 하실 거에요.

담임 선생님　　(화를 내려다가 손을 잡는다) 니….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다.. 알지?
공부할 나이야 집안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가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 사정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한다잉.

철민　　예 ..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가봐라.

그때 교무실로 들어오는 한 아이. 생긴 것이 멀끔하다.

담임 선생님　　어. 네가 오늘 전학 온다는 희준이지?

희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담임 선생님　　철민아. 네가 희준이 데리고 먼저 반에 가 있어라.

철민　　네...

S# 5. 복도 (아침 / 안)

아무 말 없이 교실로 가는 철민과 희준.

희준　　너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없어?

철민　　(차갑게) 어.

희준　　(무안하게) 그래.

다시 아무 말 없이 교실로 가는 철민과 희준.

S# 6. 교실 (아침 / 안)

교실에 도착한 철민과 희준. 희준이 도착하자 반 아이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때마침 뒤에서 오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신다. 관심이 없는 철민은 그냥 자기 자리로 간다.

담임 선생님　　자 모두 자리에 앉아라.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으니 잘 챙겨줘라. 알겠지? 자 자기소개 해봐라.

희준　　안녕!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이희준이라고 해! 춘천은 처음이라서 낯설어. 앞으로 잘 부탁해!

담임 선생님　　음...자리는 저기 철민이 옆에 빈자리에 앉으면 되겠다. 아까 복도에서 같이 간 친구니까. 철민이는 앞으로 희준이 모르는 것 있으면 잘 알려주고, 알겠지?

철민　　네.

쉬는 시간에 반 아이들이 희준 곁에 몰려서 질문 공세를 한다. 희준은 자신에게 몰린 아이들의 관심이 난감하다고 느낀다.

학생 1　　서울은 엄청 커?

희준　　응...

학생 2　　서울에는 외국인 많다며? 외국 사람들 많이 알아?

희준　　많기는 한데... 나도 잘 몰라...

새벽에 폐지를 주워서 피곤한 철민은 옆에서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찮고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낀다.

철민　　야! 그만 조잘대고 너희들 자리로 돌아가!

아이들은 억센 철민이 무서워서 자리로 돌아간다. 희준은 그런 철민이 고맙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관심을 안 갖는 철민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없이 수업시간이 흘러간다.

S# 6. 수돗가 (점심시간 / 밖)

점심시간 도시락을 안 갖고 온 철민은 수돗가에 와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

철민　　후...이제 이 물도 지긋지긋하다.

그때 어디선가 희준이 나타나 도시락을 철민에게 건넨다.

희준　　그럼 내꺼 같이 먹을래?

철민　　뭐야. 언제 쫓아왔냐? 스토커냐?

희준　　아니... 아까 애들 쫓아내 줘서 고마워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가 어디로 가더라고... 오늘 점심 도시락 안 갖고 왔어?

철민　　신경꺼라. 너 알빠는 아니잖아.

희준　　그럼 도시락이라도 같이 먹자. 나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있어.

그때, 마침 철민의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철민　　(마지못해 먹는 것처럼) 무슨 반찬이 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소시지, 계란, 김치, 멸치, 콩자반이 있다.

철민　　니네 집은 무슨 부자냐? 반찬도 많네...

희준　　부자였는데... 망해서 춘천 온거야...

철민　　부자였으면 니네 집도 좋은 것 많겠네.

희준　　좋은 것? 좋은 것은 별로 없고, 좋아하는 것은 있어!

철민　　좋아하는 것? 그게 뭔데?

희준　　폭죽! 밤에 불꽃놀이 하면 뭔가 나쁜 일들을 잊게 되는 것 같아.

철민　　(조금만 목소리로) 나쁜 일...

철민은 요즘 자신을 괴롭히는 일상들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요즘 자기한테는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희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밤에 갖고 와 볼까? 어디 불꽃놀이 하기 좋은 장소 있어?

철민　　불꽃놀이? (장소를 생각하다 생각이 난 듯이) 어 거기면 좋겠다. 밤에 학교 운동장으로 와.

S# 7. 학교 운동장 (밤 / 밖)

철민　　여기야!

희준　　어. 왔구나! 안 오는 줄 알았어.

철민　　됐고. 따라오기나 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뒷산에 있는 폐가로 향하는 철민과 희준.

S# 8. 폐가 (늦은 밤 / 밖)

폐가 근처에 우거진 수풀 사이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철민　　(어서 오라는 손짓을 하며) 야! 여기야!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불꽃놀이 하기 좋은 곳이야.

학교 뒷산에 있는 폐가는 아래로 동네가 훤히 보인다. 탁 트인 풍경에 둘은 야경을 바라보며 희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잠깐 동안 바라보고 있다.

희준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곳이 있었네

철민　　폐가 앞이라서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탁 트여서 좋아.

희준　　그러게 불꽃 놀이하기 딱 좋은 곳이네! 그럼 이제 불꽃놀이 하자!

철민　　뭐... 어떤 것부터 할 건데?

희준　　(부스럭부스럭) 일단 이 막대 폭죽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폐가 앞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아이들.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을 보며 철민은 그동안 생겼던 나쁜 일들을 잊게 된다.

희준　　(부스럭부스럭) 와! 나 이 분수 폭죽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해보는구나.

철민　　야. 그거 할 때 조심해라.

희준　　알았어, 조심하면서 한 번 해볼게.

치직치직 거리며 라이터를 꺼내 폭죽에 불을 붙인다.
갑자기 수풀 사이에서 황소개구리가 튀어나와 희준의 앞으로 뛰어오르고 놀란 희준은 손에 있던 폭죽을 놓치게 돼서 폭죽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철민　　야, 폭죽 떨어졌잖아! 조심하라고 말한 지 1분도 안 돼서 아까운 폭죽 날리냐!

희준　　미안... 갑자기 엄청 큰 개구리가 튀어나와서...미안!

철민　　엄청 큰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뭐, 어쩔 수 없지… 분수 폭죽 1개 더 있으니까 그걸로 다시 해봐!

그때 바닥에 놓여있던 분수 폭죽이 소리를 내며 버려져 있던 휘발유 통에 새어 나온 기름에 가까워지게 된다. 순식간에 화재가 일어나서 수풀을 태우다 바로 폐가에 옮겨붙게 된다. 둘은 가지고 있던 폭죽을 손에서 떨긴 채 몸이 얼어붙은 희준과 철민.

희준　　철민아, 어떡하지...불이 너무 커서 우리가 끌 수 없을 것 같은데…

철민　　뭘 꺼! 어떻게 끄겠냐! 오늘 x나 재수 없네. 일단 빨리 도망가자, 뛰어!

화재가 일어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큰 불길이 번졌다. 불이 멀리서도 보이게 되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다. 뒤이어 소방차도 빠른 출동을 하게 되어 화재는 다행히 더 크게 번지지 않고 빠른 소방관들의 행동으로 불길이 금세 잡혔다.

 # 9.　교실 (오후 / 안)

그 사건 이후 철민과 희준은 불안함을 느낀 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경찰차가 학교에 찾아온다.

담임 선생님　　철민이하고 희준이는 청소시간 끝나고 잠깐 교무실로 와라?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알고.

철민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아 x발. 걸린 것 아니야?

희준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아니야, 그냥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시지 않을까? 좋게 생각하자...

철민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아, 뭔가 좀 불길한데...

담임 선생님　　마! 들었으면 대답해라!

철민, 희준　　(동시에) 네! 선생님 청소시간 끝나고 찾아갈게요.

담임 선생님　　그려, 그럼 청소시간 끝나고 얘기하자.

청소하는 도중에도 둘의 표정은 불안감을 띠고 있다. 대걸레질하는 철민의 표정은 더욱 어둡게 비춰 보이며 클로즈업된다.

S# 10. 교무실 (오후 / 안)

철민, 희준　　(드르륵) 선생님 저희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그래, 왔구나. 여기 앉아계신 경찰 아저씨한테도 인사해라.

철민, 희준　　(불안한 목소리로) 네, 안녕하세요...

경찰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에 있던 화재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다. 저번 주에 경비 아저씨가 밤에 너희를 봤다고 하셨거든. 혹시 뭐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짓 하는 사람 못 봤니?

희준　　사실...

철민　　(희준 말을 끊으면서) 사실 그때 검은 비닐봉투 들고 뒷산으로 가는 형들을 봤어요.

경찰　　얼굴은 정확히 못 봤니?

희준　　네... 어두워서 잘 보였어요...

경찰　　알겠다. 혹시 다른 것이라도 생각나면 말해주렴. 그만 가봐라.

S# 11 복도 (낮 / 안)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교실로 돌아가는 철민과 희준.

철민　　야! 거기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희준　　나는 거짓말 잘 못 해...

철민　　그래도 구라는 쳐야 하는 거야! 암튼 잘 넘어갔으니 다행이지...

희준　　맞아! 우리 안 들켰어! 너무 걱정하지마...

철민　　그래... 그래도 나쁜 일은 이제 사라졌네...

철민은 복도 창문에 따사롭게 비추는 햇빛을 지그시 본다.

S# 12. 철민이네 집(현재/ 낮/ 안)

(*FLASH BACK*)

다시 현재로 돌아온 철민은 대추차가 끓는 가스 불을 끈다. 화창한 날씨를 보려고 커튼을 걷고 따스한 햇볕이 비춘다.

철민　　날씨 정말 좋네. 나는 언제 취업하냐...

휴대폰 진동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 (지잉지잉~)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최근 면접 본 xx회사로부터의 면접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결과는 최종합격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한 뒤 신입사원 연수안내도 곧 해준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철민　　(흥분하고 떨리는 목소리로)와...이거 실화야? 앗싸! (하늘을 보며)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희준이한테 알려줘야겠다.

희준이에게 바로 전화를 거는 철민의 행복한 모습이 클로즈업.

(Black out)

아이스크림

20171093 국어국문학과 정예빈
20171014 국어국문학과 김은희
20141213 영어영문학과 박찬주

<주요 등장인물>

김찬영: 15살 남자로 주인공이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향적이지만 고민이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싸우려는 성향이 있다. 그는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노력한다.
이현주: 현명하고 인자한 품격을 가지고 있지만 집안에서는 아버지보다 큰 위엄을 가지고 있어 다소 권위적이다. 집안 대대로 교회를 다녀서 자녀들 또한 교회를 다니도록 교육을 시킨다.
이형준: 15살 남자로 김찬영의 친구이다. 외향적이고 김찬영의 편을 자주 들어주지만 잘 삐치는 경향이 있다.
김영찬: 18살 남자이고 김찬영의 형이다. 하지만 공부를 잘 하는 점과 엄마(이현주)의 말씀을 잘 듣는 성실한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찬영과 상반되는 인물이다.

<시놉시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김찬영. 친구와의 시간이 더 중요해진 그는 엄마(이현주)와 싸우게 된다. 결국 형(김영찬)이 반에서 10등 하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걸고 김찬영은 이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 오해가 쌓아가고 생일파티에서 싸운다. 형준이 엄마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오해가 해결된다. 성적이 나오고 비록 11등을 했지만 엄마의 허락으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가게 된다.

#1. 인도(人道), 실외, 오후
무더운 여름 오후.
땅 지면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매미 울음소리가 울린다.
교복차림의 남학생 세 명.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걸어간다.
커다랗게 '슈퍼마켓'이라고 써진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2. 슈퍼마켓, 실내, 오후
김찬영　　(슈퍼마켓 문을 열며) 아 시원하다~!
친구1　　더워 죽을 뻔했네.

학생 세 명, 아이스크림 코너로 향한다.

이형준 (냉동실 문을 열면서) 야! 오늘을 내가 쏜다! 다 골라!
김찬영 (쭈쭈바를 집어들며) 올~ 이형준, 웬일이냐~!
친구1 (구구콘을 들고서 웃으며) 나는 구구콘.
이형준 야! 양심상 500원 이하로 해라.
친구1 (구구콘을 놓으며) 와~ 알았다, 알았어!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가는 세 학생.

#3. 인도(人道), 실외, 오후
친구1 (아이스크림 봉지를 뜯으며) 야. 내일은 뭐할래?
이형준 내일? 너 교회간다고 하지 않았냐?
김찬영 아씨.. 그러네.
친구1 뭐야, 김찬영. 너 신도 안 믿는 자식이 뭣하러 교회 가냐?
이형준 (찡그리며)야. 넌...
친구1 뭐,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언제까지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가냐?
김찬영 아씨...야! 나 먼저 간다.

김찬영, 무리에 떨어져 홀로 집으로 향한다.

이형준 (가고 있는 김찬영을 보면서) 야! 김찬영…!
친구1 그냥 가게 냅둬.
이형준 (친구 1을 째려보고) 아씨….

#4. 김찬영의 집, 실내, 오후
00아파트 105동, 아래에서 위로 화면에 잡힌다.
집 문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김찬영.
삐리릭.
엄마, 이현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김찬영,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세게 닫는다.

쾅!
문소리에 놀란 채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현주.
옷과 만화책으로 어지럽혀진 방. 김찬영은 교복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다.

이현주 김찬영,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김찬영 몰라. 그냥 문 닫고 나가!
이현주 (언성을 높이며)김찬영!

김찬영 (인상을 찡그리며) 아, 뭐!
이현주 뭣, '뭐'? 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널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김찬영 (이현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씨!
이제는 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말없이 김찬영을 바라보는 이현주.
김찬영, 이현주를 밀어내고 현관 쪽으로 향한다.
이현주, 김찬영을 쫓아 현관 앞까지 나선다.

이현주 (소리치며) 김찬영!

삐리릭. 도어락 해제소리.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김찬영의 뒷모습.
이현주, 한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에 앉는다.

#5. 미용실, 실내, 오후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찬영.

미용실 아줌마 어머, 오랜만이네!
김찬영 (주춤거리며) 안녕하세요.
미용실 아줌마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 앞에 앉아.
김찬영 네.
미용실 아줌마 오늘은 어떻게 해줄까? 머리는 기른다고 했으니깐.
다듬어만 줄까??
김찬영 아니요! 오늘은 그냥 귀 밑까지 잘라 주세요.
미용실 아줌마 응? 정말 자르는 거니?
김찬영 네. 잘라주세요.
미용실 아줌마 웬일이래. 그래, 알았어.

미용실 아줌마, 미용가위를 들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른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김찬영의 머리카락.
김찬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한다.

#6. 학교 정문, 실외, 오전
학교 정문. 옆에 '개웅중학교' 이라는 팻말이 있다.
정문을 들어가는 학생들.
교문 앞에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선도부 학생들이 서있다.
옆에 몇몇 학생이 무릎꿇고 손들고 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 (회초리를 탁탁 내리치며) 욘석들아! 손 똑바로 안 들어!

김찬영, 정문에 들어간다.
생활지도부 선생님,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김찬영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생활지도부 선생님 (기쁜 목소리로) 김찬영. 너 머리 잘랐구나.
어휴, 진작에 그럴 것이지. 깔끔하고 보기 좋네! 어여 들어가~!
김찬영 네.

#7. 교실, 실내, 오전
김찬영 2-3반 교실로 들어온다.
교실 뒤쪽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는 학생들.
칠판 앞쪽에 앉은 몇몇 학생들은 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김찬영,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본다.

김찬영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학교에 오자마자 바로 공부하는구나.
이형준 (김찬영 머리를 보며) 어? 김찬영! 너….
친구1 헐~ 머리 잘랐어?
이형준 대박!
김찬영 그냥 어쩌다보니.
이형준 게다가 일찍 오고?
친구1 올~! 우리 찬영이. 대단한데!
김찬영 (웃으면서)뭐야? 놀리지마.
친구1 (김찬영을 따라하며)놀리~~쥐마?

#8. 학원, 실외/실내, 오후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
그 가운데 학원이 우뚝 솟아있다.
그 앞에는 매년 서울대학교에 10명 이상 보냈다는 플랜카드가 붙여있다.
“서울대학교 김지영, 한예찬, 서예원, 진서영……”

교실 안에서는 칠판 판서를 쓰며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
선생님, 시계를 확인한다.

수학 선생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끝나고 오도록!
학생들 네~!

학생들, 우르르 교실에서 나간다.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학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김찬영.

김찬영 (문제를 손으로 가리키며) 선생님 이거 이해가 잘 안가서...요
수학 선생님 이햐~ 찬영이가 웬일로 질문을 다하니 누구랑 뭐 내기했니?
김찬영 그런 거 아니거든요...그냥요.
수학 선생님 (찬영이에게 설명해주시는 선생님) 이 문제는 말이야…

선생님 김찬영에게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한다.
수학 선생님 이해 됐니?
김찬영 네 감사합니다.

수학 문제집을 가방 안에 챙기고 교실에서 나가는 김찬영.
영어 선생님이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영어 선생님 (나가는 찬영이를 바라보며) 어머. 쟤 찬영이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 맞아요.
영어 선생님 근데, 찬영이. 머리가…?
수학 선생님 저도 오늘 보고서 놀랬어요. 엄청 단정해졌죠?
영어 선생님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 네, 모르는 게 있다면서 왔어요.
영어 선생님 호호,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9. 이형준의 집, 실내, 오전
컴컴한 방 안. 핸드폰에서 시끄러운 알람소리가 울린다.
이형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이형준 (기분 좋은 함성 소리를 내며) 으어어 ~~ 오늘은 무슨 날?

이형준, 달력을 본다.
6월 30일에 큰 별이 그려진 달력. 옆에는 '형준의 생일'이라고 적혀있다.

이형준 (흥얼거리며) 투데이 이스 마이 벌스데이~ 요호!

이형준, 미소를 지으며 옷장에서 교복을 꺼낸다.

#10. 학교, 실내, 오전
8시 반을 가리키는 시계.
딩동댕동.
선생님이 시험지를 들고 교실로 들어온다.

선생님 다들 자리에 앉아. 줄좀 똑바로 좀 맞추고.
김찬영 (두 손을 모으고) 아 제발, 제발…쉬워라..
이형준 (찬영이의 궁시렁을 듣고) 뭐해?
김찬영 어? 아니야 좀 손이 차가워서.

12시를 가리키는 시계.
딩동댕동.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린다.

선생님 자, 뒤에서 시험지 걷어.
이형준 와~ 드디어 끝났다!!.
친구1 아싸! 야, 오늘 6시 맞지?
이형준 어! 오늘 늦지 마라. 엄마가 너희 온다고 피자도 구워준다고 했어.
친구1 헐~ 너희 엄마 피자 완전 존맛이잖아!
이형준 (어깨를 으쓱이며)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 하나는 끝내주지.
친구1 (김찬영을 쳐다보며) 그건 그렇고. 김찬영!
너는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때리냐?
김찬영 어? 아니. 좀 피곤해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훑는다.

선생님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친다.
오늘 시험 끝났다고 너무 놀지 말고 알았지?
학생들 네에!!

#11. 인도(人道), 실외, 오후
집에 가는길. 많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재잘거리며 하교한다.
김찬영과 함께 하교하는 이형준과 친구1.
김찬영은 친구들보다 앞서서 걸어간다.

친구1 (찬영이를 보며) 야! 어디가? 이쪽이야.
김찬영 (뒤돌아보며) 아.. 미안 나 어디 좀 들렀다 갈게. 좀 있다가 봐.
친구1 야, 6시 알지? 늦지 마!

김찬영은 말없이 뛰어간다.
찬영이가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비추어진다.

#12. 이형준의 집, 실내, 오후
친구들이 이형준네 집으로 하나 둘씩 들어온다.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들. 식탁 위에는 피자가 올려져있다.
친구들은 식탁 주변에 앉으며 찬영이에게 선물을 건네준다.

친구1 야, 김찬영 얘 왜 안 오냐?
이형준 조금 있다 오겠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째깍째깍 거리는 시계.
6시에서 6시 10분, 6시 20분으로 긴 바늘이 움직인다.
6시 20분. 딩동.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
문 앞에 김찬영이 서 있다.

김찬영 (머쓱하게 웃으며) 야.. 미안하다 늦었지?

아무 말 없는 이형준.

친구1 (형준의 눈치를 보며) 야 김찬영! 너 왜 이렇게 늦었냐?
김찬영 아니, 그게…
친구2 야 근데 너 형준이 생일인데 설마 빈손으로 온거야?
이형준 그만해! 둘 다…!

친구1, 다시 언성을 높인다.

이형준 (식탁을 내리치면서) 그만하라고!!

친구들, 이형준에게 시선이 쏠리고 정적이 흐른다.

이형준 야, 김찬영. 너 말이야 요즘 피씨방도 같이 안 가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뛰어가는데. 대체 뭐 하는 건데...?
김찬영 그게 사실…나 요즘 공부해서...
친구들 뭐? 공부?

다들 박장대소한다.

친구1 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뭐! 명문고라도 갈려고?
김찬영 그런 거 아니야.
친구2 그럼 뭔데? 말해봐!

아무 말 없는 김찬영. 이형준, 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김찬영, 고개를 푹 숙이며 밖으로 나가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3. 김찬영의 집, 실내, 오후(김찬영의 과거회상)
식탁 의자에 마주 앉아있는 이현주와 김찬영.
이현주, 찻잔에 커피를 마신다. 찻잔 옆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이현주, 종이를 김찬영에게 보여주며 건넨다.

이현주 이거 네 책상 바닥에 있더라.
김찬영 책 정리하다가 떨어졌나보지.

한숨을 크게 푹 내쉬는 이현주. 가슴을 툭툭 치고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이현주 (시험 문제지를 가리키며)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점이 말이 돼?
김찬영 뭐 잘 봤네. 나 공부도 안 했는데 20점이나 맞은 거야.
이현주 (언성을 점점 높이며) 그게 변명할 소리니?
너희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까지 쭉
90점 아래를 놓친 적이 없어.
김찬영 (이현주를 쳐려보면서) 아씨...엄마는 항상 그러더라.
내가 조금만 못하면 혼내고. 형만 좋아하고.
이현주 (소리치며) 김찬영!
너 집에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거 엄마가 모를 줄 알아?
김찬영 그건 매주 교회때문에 피곤하니깐 그러는 거라고!
이현주 너…정말…!

이현주, 자신을 노려보는 김찬영의 얼굴을 응시한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 때, 방문이 열리고 김찬영과 비슷하게 생긴 안경 쓴 남자가 나온다.

김영찬 (안경을 올리면서) 듣다보니 어이가 없네.
김찬영 뭔 상관이야. 김영찬, 넌 좀 빠지지?
이현주 김찬영!
김영찬 그럼 해봐. 지금 40명중에 30등이니까. 10등 안에 들어보든지?
김찬영 10등? 아니, 지금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다고! 뭔 개소리야!
김영찬 왜? 싫으면 그냥 계속 교회 다니든가.
김찬영 아씨...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쾅! 김찬영,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세게 닫는다.

이현주 저...저...저게!

#14. 학교, 실내, 오전

선생님 (출석부를 교탁에 치며) 주목! 니들 아직 조례 시간인거 알아,

몰라? 조금은 조용히 좀 해! 어디 보자~. 다 왔지? 그럼…

선생님, 교탁 위에 출석부를 두고 교실 문 쪽으로 걸어간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반 학생들에게 말한다.

선생님 아~ 김찬영은 열이 나서 못 온다고 하니깐.
반장, 다른 선생님들 오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출석부에 체크해.

선생님 교실 밖으로 나간다.

친구1 (놀란듯이) 헐…김찬영 아픈가봐.
이형준 (김찬영 자리를 쳐다보며) 약해 빠져가지고... 나쁜 자식.

#15. 슈퍼마켓, 실외, 오후
학원을 마치고 슈퍼마켓으로 가는 이형준.
슈퍼마켓 앞에서 형준이네 어머니와 찬영이네 어머니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
이형준,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다.

이현주 (한숨을 내쉬며) 실은, 찬영이가 요즘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열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형준이네 어머니 어머, 웬 공부래요~?

#16. 김찬영의 집, 실내, 오전(이현주의 과거 회상)
밤이 깊은 아파트 단지.
불이 켜져 있는 김찬영의 방.
김찬영,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책장을 넘긴다.

이현주 (김찬영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 찬영아!
너 아직도 안 잔거야?
김찬영 어? 엄마.. 지금 몇 시야?

1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

이현주 벌써 한 시인데. 자야지.
김찬영 1시라고? 안돼! 나 아직 공부할게 이렇게나 남았는데...
이현주 오늘은 쉬고, 내일 일어나서 해.
김찬영 안 돼. 더 해야 돼.
이현주 (한숨을 쉬며) 하아… 그래, 알았다.

#17. 슈퍼마켓, 실외, 오후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이현주와 형준이네 어머니의 시점을 돌아온다.

이현주 그렇게 된 거에요. 얘가 매주 교회를 가다보니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없다고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길래.
반에서 10등안에 들면 안가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공부할 줄은 몰랐네요.
형준이네 어머니 찬영 엄마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에효~,우리 형준이도 공부 좀 해야 할 텐데…
찬영이가 하루빨리 낫으면 좋겠네요.

형준이 얼굴이 비추어진다.
형준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벽에 기대면서 한숨을 쉰다.

#18. 김찬영의 집, 실내, 오후
삐리릭. 도어락 열리는 소리.
이형준, 찬영이네 어머니와 함께 현관까지 들어온다.
문 앞에서 주춤거리는 이형준.

이현주 왜 안들어가니 형준아?
이형준 네? 아니에요!

김찬영의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이형준.
김찬영, 침대에 누워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다.

김찬영 이형준?
이형준 어…누워있어…아프다고 해서 잠시 들렸어…
김찬영 (침대에 앉으며) 안 와도 괜찮은데…거의 다 나았어.
이형준 바보같긴…

형준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낸다.
아이스크림이다.

이형준 얼른 나아라! 그리고 다 나으면 이거 먹어.
김찬영 어? 고마워

형준이가 방에서 나간다.
찬영은 형준이가 준 아이스크림을 쳐다본다.

#19. 교실, 실내, 오전
선생님이 종이뭉텅이를 손에 들고 교실로 들어온다.
성적표라는것을 직감하는 김찬영.

김찬영 (중얼거리며) 아.. 제발.. 제발…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한명씩 부른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는다.

선생님 김찬영.
김찬영 (성적표를 받으며) 네!

김찬영, 성적표를 확인한다.

#20. 김찬영의 집, 실내, 오후
찬영이네 아파트가 비추어진다.
이현주가 소파에서 티비를 보고있다.
김찬영이 이현주에게 걸어온다.

김찬영 엄마 할말이 있는데요...
이현주 뭔데?
김찬영 (성적표를 내밀며) 오늘 성적 나왔어요... 근데...
이현주 (성적표를 확인하며 눈이 커진다) 어머!!!! 11등이라고?
김찬영 약속한 10등은 못했어요...
이현주 (김찬영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하...사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김찬영 네...
이현주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엄마가 찬영이를 오해했구나 하구...
김찬영 엄마.. 그럼…!
이현주 모르겠다. 그래. 이번은 봐줄게.
김찬영 (눈이 커지며) 어?
이현주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성적 유지 못하면 매주 다녀야 해! 알았지?
김찬영 정말로? 아싸!

#20. 공원, 실외, 낮
토요일 오후.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들이 주위에 쌓인 공원.

김찬영, 축구를 하고 있다.

친구1 야! 패스, 패스!

김찬영이 찬 축구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
기뻐하는 김찬영의 친구들.

#22. 슈퍼마켓, 실외, 낮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나오는 김찬영, 이형준, 친구1

김찬영 내일은 피시방 어때? 다들 시간 돼?
친구1 뭐? 김찬영 너 내일 교회 가야하지 않아?
김찬영 (미소를 지으며)아니, 안 가!

친구들과 길을 걸어가는 김찬영의 뒷모습.
TNE END

노란 깃털

인문학부
20191008 김규찬

S#1. 왕국 앞 광장(오전/실외)

큰 궁전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앞에 놓인 분수대. 분수대 주변엔 가판대가 여러 개 놓여있다.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여인들. 한편에는 마구간에서 남자들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아이들은 분수대에 앉아 장난감 카드를 보고 있다.

여인1 (야채 가판대를 둘러보며) 요즘 바이올린이 그렇게 유행이라며?

여인2 (콜리플라워를 집으며) 왜? 임금님이 바이올린 하신대? 그럼 우리 딸도 바이올린 시켜야겠다.

여인3 정확히 임금님이 하는 건 아니고, 임금님께서 공주님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졌어. 지금 바이올린 선생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잖아. (여인2의 손을 바라보며) 그나저나, 콜리플라워는 왜 사는 거야? 맛도 없는데.

여인2 (화들짝 놀라며) 말조심해, 이 사람아. 내가 어제 왕국에서 일하는 우리 제부한테 들은 말인데. 임금님이 콜리플라워를 주문하라고 하셨대. 임금님이 찾는 물건인데 나도 미리 사두고 먹어봐야지.

(Over Lap) 마구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들.

남자1 (담배연기를 뿜으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체스야. 잘 두덜도 못하면서.

남자2 아따, 형님. 이게 요즘 왕국에서 유행이라 안하요. 못해도 배워야 한당께. 사방팔방에서 아주 나한테 체스 좀 알려달라고 난리랑께요.

남자1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으며) 오메, 너한테 체스를 배워야. 시방, 사람들이 뭘 모르는구먼. 나같이 잘 두는 사람을 냅두고 굳이 너냐? 오메, 아우 들어오랑께. 요즘 유행이라면 한번 둬야 쓰지 않겠냐.

남자2 형님 또 알 수 없는 자신감 뽐내고 계시네, 좀만 기다려요. 곧 가지고 와 블랑께.

(Over Lap) 분수대에 앉아있는 아이들.

아이1 (카드를 펼쳐 보이며) 짜잔! 이게 뭐게~

아이2 (카드 한 장을 뺏으며) 와, 이게 진짜 그거야? 누가 사줬어? 엄마가?

아이1 (카드를 도로 뺏으며 짜증 난 목소리로) 아! 진짜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또 망가지면 안 사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2 (카드를 바라보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엄마도 왕자님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사준다고 했는데.. (분수대를 박차고 일어나며) 아!! 나는 엄마 없냐?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기다려라. 내일 카드게임하게!
(야채 가판대로 뛰어가며) 엄마!!!!!

S#2. 시장 구석 허름한 집(오후/외부)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집.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집 밖으로 나오는 남자. 이내 집 앞에 웅크리고 앉는 남자.

아이2 **(엄마의 팔에 매달리며) 아니~ 엄마 나도 사달라니까! 애들 다 가지고 있어. 임금님도 왕자님한테 사줬대! 그래서 진짜 애들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 아니 엄마는 아들이 친구들한테 뒤떨어졌으면 좋겠어?**

여인2 **뭐? 왕자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이고.. 이번에 느그 누나 바이올린도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을 바라보며) 그럼 엄마가 그럼 내일 사다 두면 되지? 그러니까 그만 징징거려! (아들을 자신의 반대편으로 당기며 혀를 차며) 어휴 쯧쯧, 임금님이 하는 건 그렇게 다 거부하더니. 결국 저 모양 아니야? 내가 다 꼴 보기 싫은데, 임금님은 오죽할까. 아들, 빨리 가자!**

노인 **(조그마한 목소리로) 왕은 알 수 없어..**

여인2 **(아들의 귀를 손으로 막으며) 저 장님이 뭐라는 거야. 아들 저런 거 듣지 말고 임금님의 좋은 말씀만 듣자.**

노인을 흘겨보는 여인2와 아이2. 곧바로 시장을 빠져나간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이3. 자신의 키만한 책을 여러권 들고있는 아이3. 책을 들고 노인의 앞을 지나가는 아이3.

노인 **(아이 쪽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며) 아이야.. 너의 눈은 너무 과분하단다.. 어서 그 눈을 떼어 버리렴..**

아이3 **(비웃으며) 제 눈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엔 과분하죠. (큰소리로) 할아버지! 제 눈을 떼기 전에 할아버지 머리를 떼어버리는 건 어때요? 안 그래요? 동네 사람들?**

노인을 보며 비웃는 사람들.

노인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로) 아니.. 나는 그런 말로 한 말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Fade Out)***

S#3. 오두막집(어두컴컴한 새벽/실내)

시장과 멀리 떨어진 오두막집. 집의 외부는 허름하다. 집의 내부 벽난로에는 불이 피워져 있다. 한편에는 새장이 있고, 그 안에는 노란 카나리아가 있다. 문을 열고 입김을 내비치며 들어오는 모드니.

모드니 **(새장의 문을 열고 카나리아를 꺼내며) 안녕! 오늘도 잘 지냈어? 집이 좀 춥네.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어려워서 너를 이런 환경에서 밖에 키울 수 없어. 요즘 우리 엄마 아빠도 왕국의 유행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나봐.. 내가 듣기 싫다던 군사학도 제일 저렴한 새벽반에 기어코 왕국의 유행이라고 억지로 시켰잖아.. 요즘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카나리아를 자신의 어깨에 놓으며 벽난로에 장작을 더 가져다 놓는다. *(Close Up 얼마 남지 않은 장작)*

모드니 **(어깨에 있는 카나리아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힘들어졌으면서 꼭 왕국의 유행을 따라야만 하는 걸까..?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으며) 나는 언제쯤 다시 밝은 해를 볼 수 있을까? 아주 어렸을 때 해님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기분 좋고 따뜻했어. 언젠가 우리 같이 해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모드니. 지저귀는 카나리아. *(Fade Out 화면이 어두워지며 "노란 깃털"이라는 타이틀이 뜬다)*

S#4. 사냥꾼의 가게(오후/실외)

북적이는 사냥꾼의 가게. 사냥꾼의 가게 앞에 놓여 있는 수십 개의 새장. 새장 안에 들어있는 매.

사냥꾼 **(큰소리로) 여러분 구경하세요~ 요즘 임금님이 푹 빠져있는 새로운 취미! 바로 이 매사냥 아닙니까~ (가게를 지나치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어이 거기 지나가들 마시고, 들려서 매 구경 좀 하고 가세요! 나중에는 없어서 못 산다니까? 요즘 임금님이 제일 즐겨 하는 취미라는데, 안 하면 섭섭하지.**

아빠 **어이, 사냥꾼! 매 한 마리 주쇼. 얼마요?**

사냥꾼 **(남자1을 바라보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500유로만 주세요!**

아빠 **(깜짝 놀라며) 뭐? 500유로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번 주만 하더라도 200유로였는데, 반 이상이나 올려서 받는 게 어딨어?**

사냥꾼 **(손사래를 치며) 에이, 임금님이 즐겨 하시는 취미를 어떻게 그런 헐값에 팔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임금님의 명성에도 먹칠이죠! 원래 1000유로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것도 싸게 주는 거라니까? 안 살거면 말아!**

아빠 **(사냥꾼의 손을 잡으며) 에이, 장사하는 사람이 성격이 뭐가 그리 급해? 누가 안 산다 했나? 한 마리 주쇼!**

S#5. 오두막집(어두컴컴한 새벽/실내)

카나리아의 새장에 들어있는 매. 의자에 앉아있는 아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모드니.

모드니 **카나리아야! 나 왔어! (새장에 다가간다)**

아빠 **(깜짝 놀라며) 모드니! 새장 열지 마!**

모드니 **(아빠를 바라보며) 네? 왜요 아빠?**

아빠 **문 열면 다친다. 열지 마.**

모드니 **(가볍게 웃으며) 아빠 제가 카나리아를 한두 번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도 알잖아요. 카나리아는 순해요! 제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걸요?**

아빠 **(식탁에 있는 신문을 펼치며) 이제 카나리아는 없어. 오늘부터 카나리아는 없는 거다. 앞으로 매를 키우기로 했어. 그게 왕국의 유행이래.**

모드니 **(주먹을 쥐고 소리치며)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거 알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싫어하던 군사학 수업도 카나리아랑 얘기하는 순간만 기다리며 버텼어요! 아빠는 일하느라 바빠서 정작 제 얘기를 들어주신 적도 없잖아요! 오직 저한테는 카나리아밖에 없었는데, 카나리아도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빠 **(신문을 넘기며) 매가 카나리아를 좋아하더라. 카나리아를 보자마자 달려들더라.**

모드니 **(울부짖으며)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새장 밑에 떨어진 카나리아의 깃털 뭉치를 줍는 모드니. *(Close Up 카나리아 깃털)* 깃털을 응시하던 모드니.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S#6. 숲속(새벽/실외)

눈으로 뒤덮인 숲속. 눈바람은 강하게 불며,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있다. 눈물을 흘리며 걷는 모드니.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있는다. 모드니의 뒤편에 더듬거리며 장작을 줍는 노인.

모드니 **(깃털을 얼굴에 대며) 너에게 해님을, 아침을 보여줄게.**

쓰러지는 모드니. 모드니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깃털 하나. 노인에 뺨에 스치는 카나리아 깃털

노인 **(놀라며) 깃털..? 겨울바람이 차가워서 새들도 몸을 숨겼을 터인데.. 어째서 이런 곳에 온기가 있는 깃털이..?**

깃털이 날라온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노인. 노인의 발에 닿은 모드니. *(Fade Out)*

S#7. 노인의 집(오전/실내)

창가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빛을 손으로 가리고 미간을 찡그리며 몸을 일으키는 모드니. 모드니는 창문을 통해 하늘에 떠있는 해를 바라본다.

모드니 **(울음을 터트리며) 너에게 아침을 보여주고 싶었어…. 안녕…. 안녕…. 내 친**

구…

카나리아의 깃털을 창밖으로 날려보내는 모드니. 식탁에 앉아서 모드니를 지켜보며 눈물을 떨어트리는 노인.

노인 ***(Narration)***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유난히 밝은 햇살 때문일 거야. 저 아이도 남들과 다를 바가 없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식탁에서 일어나 방문 손잡이를 돌리는 노인. 화들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는 모드니.

모드니 **(눈물이 고인 채 놀란 표정을 하며) 누…. 누구세요??**
노인 **널 데려온 사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건 이 정도 까지다.**
모드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열 살이 되기까지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아침인걸요. 이제 더 이상은…. 소중한 걸 잃는 게 무서워요….**
노인 **아침은 언제나 온단다. 너는 또다시 아침을 보게 될 거야.**
모드니 **(눈물을 닦으며) 언젠가 다시 아침을 보게 될 때는 저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노인.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본다.

노인 **(머리를 쓸어넘기며)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
모드니 **저를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돌아갈게요.**

S#8. 노인의 집 마당(몽타주 오후/실외)

겨울 - 눈을 치우는 노인과 모드니. *(Cut Back)* 시장에 나가 모드니를 찾는 모드니의 부모.

봄 - 꽃을 가져다가 꽃병에 넣는 모드니. 모드니를 바라보는 노인. *(Cut Back)* 군사들에게 찾아가 모드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우는 모드니의 부모.

여름 - 마당에서 물놀이를 하는 모드니. 꽃에 물을 주는 노인. *(Cut Back)* 모드니의 전단지를 붙이는 부모.

가을- 낙엽을 치우는 노인과 모드니.

S#9. 개울가 (오후/실외)

개울가에 앉아 물장구를 치는 모드니. 모드니를 바라보는 노인.

모드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노인　　(돌멩이를 집어 모드니에게 건네며) 모드니, 이게 무슨 모양이니?
모드니　　(돌멩이를 받아들며) 네모…! 아니 동그라미…! 음…. 울퉁불퉁하고 반짝반짝한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노인　　(다른 돌멩이를 들며) 이건?
모드니　　(돌멩이를 바라보며) 반짝거리진 않지만 매끈하고 예뻐요!
노인　　그럼, 여기서 어느 게 진짜 돌멩이일까?
모드니　　(활짝 웃으며) 전부 다 돌멩이죠!
노인　　(미소 지으며) 맞아. 모두가 돌멩이지. 하지만 쓰임은 모두 달라. (모드니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가리키며) 저 돌로는 유리를 만들 수 있단다. (자신이 들고 있는 돌멩이를 들며) 하지만 이 돌은 단단한 철이 될 거라 유리는 될 수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돌이 유리가 되길 원한단다. (모드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드니, 알겠니?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갈 뿐이지. 하지만 이 수많은 돌멩이 중 무엇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았단다.

미소를 짓는 모드니. 노인을 바라보다 이내 자신의 눈을 감는다.

모드니　　할아버지! 진짜 저도 볼 수 있어요! *(Fade Out)*

S#10. 노인의 집 마당(저녁/실외)

노인의 집을 둘러싼 군사와 주민들. 모드니에게 달려가는 모드니의 부모

여인1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글쎄, 여기가 그 집이잖아. 모드니를 납치해간 집.
여인2　　(놀라며) 뭐? 모드니 엄마 아빠가 모드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고생을 했는데, 모드니가 이 집에 납치되어 있었던 거야? (손으로 입을 막으며) 어머머, 어떻게 하니.
여인3　　모드니네 집만 딱하게 됐지 뭐. 모드니 찾는다고 얼마 없는 재산까지 다 쏟았다던데. 저 장님이 한건 했네. 나도 우리 애들 무서워서 집 밖에 내보내겠어?
엄마　　(모드니에게 뛰어가며) 모드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 거야?
아빠　　(눈물을 닦으며) 모드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이제 집으로 가자. 다 안정됐어..
군사1　　(노인의 손을 밧줄로 묶으며) 당신을 아동 유괴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모드니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할아버지!!!!!!!! 안돼요!!!!!!!!!!!!! (울부짖으며) 할아버지를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안돼요!!!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는 노인. 모드니를 보며 미소를 짓는 노인. 모드니는 노인을 바라보며

부모님 품에서 발버둥 친다.

S#11. 왕국 앞 광장(오전/실외)

마구간에서 남자들이 앉아 담배를 피우며 체스를 두고, 여인들은 자신의 아이 손을 꼭 잡고 장을 본다.

남자1 (체스를 두며) 그 얘기 들었어?
남자2 (담배 연기를 뿜으며) 또 뭔 얘기?
남자1 그 모드니네 집. 모드니 눈이 안 보인다며?
남자2 (체스를 두며) 그 이야기는 진작에 들었어야. 그거 완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놈이랑께요. 우리 아내가 앞에서 말은 그렇게 심하게 했어도 얼마나 신경을 썼는디, 계란도 가져다주고 왕국에서 유행이라는 식재료는 그래도 하나씩 꼬박꼬박 나눠줬는디. 거 장님이라 그런지 다 필요 없다고 맨날 거절을 해 불드만. 결국 아 하나도 납치해가지고 지처럼 장님을 만들어 부네.
남자1 (한숨을 쉬며) 어휴 세상이 말세야.

(Over Lap) 장을 보는 여인들

여인1 (딸을 바라보며) 딸! 엄마 손 꼭 붙잡고 다녀! 엄마 손 놓지 말고 알겠어?
딸 (짜증 부리며) 아! 알겠어! 내가 무슨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여인1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 얘가! 너도 모드니처럼 납치되고 싶어서 그래?
여인2 (여인1을 말리며) 그래도 엄마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나저나 모드니도 미쳤다며? 그 장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안된다고 잡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잖아.
아이2 (여인2를 바라보며) 엄마, 진짜 모드니형 미쳤어? 진짜로?
여인2 (아이2를 보며) 넌! 좀 조용히 해!
여인1 소리만 쳤을 뿐이겠어. 집에 와서도 그렇고 군사들이 모드니한테 괜찮다고 있었던 일 설명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 말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했대잖아.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게 아닐까?
여인2 (눈을 크게 뜨며) 어머 정말? 이건 또 몰랐네. 나는 그저 그 장님 할아버지 불쌍해 보여서 애 아빠 통해서 계란도 가져다주고 콜리플라워도 가져다주고 한 내가 바보다. 어휴 사람이 어쩜 그래?

S#12. 광장 앞 분수대(오후/실외)

왕국을 나와 분수대 앞으로 걸어오는 남자.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 분수대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 남자를 둘러싼 사람들.

남자 (큰소리로) 여러분, 장님의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죄목은 독극물 사용, 납

치입니다. 모드니를 납치하여 독을 사용해 눈을 멀게 하고 모드니의 정신 또한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에서는 사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자1 (혀를 차며) 쯧, 결국 사형이 되는구먼?

여인1 (남자1을 팔꿈치로 치며) 당신은 결국이란 말이 나와? 우리 딸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사형은 당연한 거지! *(Fade Out)*

S#13. 광장 앞 분수대(오전/실외)

햇살이 밝게 비추는 광장. 보자기가 씌워진 노인이 군사들에 의해 끌려 나온다. 노인을 에워싼 사람들. *(Close Up) 가볍게 떨리는 노인의 손.*

남자2 (화를 내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오?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를! 당신은 살인자야!

남자1 (돌을 던지며)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 나가 죽어!

여자3 당신은 죽어서도 벌받을 거야! (계란을 던진다)

광장으로 들어온 모드니는 노인을 바라본다. 돌을 맞는 노인.

모드니 (소리치며) 그만하세요!!

모드니는 사람들을 해치고 집행장 위로 올라가 장님의 손을 잡는다.

엄마 (소리치며) 모드니! 당장 내려와!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아빠 모드니! 당장 내려오렴! 어서!

모드니 (담담한 목소리로) 여러분은 모두 눈이 멀었어요.

남자1 (화를 내며) 저 미친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여자1 모드니!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아!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모드니 여러분은 마치 틀에 부어진 쇳물처럼 살고 있어요.

모드니에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모드니 (울먹거리며) 저는 제 작은 카나리아를 사랑했어요. 길고 긴 하루들을 버티고 나면 언젠가는 친구와 아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임금님이 매를 키웠을 때야 해님을 맞았어요. 그 친구를 영영 떠나보내는 조건으로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할까요? 임금님을 따라 하게 되면, 그래서 똑같아지면. 저는, 제 자신은 더 이상 어디에 있나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여기 할아버지도요.

아빠 그... 그럼!

모드니 네, 맞아요. (눈을 살짝 뜨며) 저는 여전히 해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잃어버리기 싫어요. 임금님처럼 투명한 유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 모습대로

빛나고 있잖아요! 담긴 틀안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 아직도 꽃밭이 보이지 않으세요?

꽃으로 뒤덮인 광장 바닥. 사람들은 발밑의 꽃을 바라본다.

모드니　　(노인에게 속삭이며) 할아버지, 이제 눈을 뜨세요. (노인의 보자기를 벗긴다)

햇살에 미간을 찌푸리는 노인. 미소를 짓는 노인. *(Fade Out) 하늘에 흩날리는 노란 깃털*

-The End

다시 만난 시간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67062 황지현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72531 박소영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72532 박시연

S#1. 카페 (실외/실내, 낮, 2019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대로변 낙엽 가로수 뒤로 새로 지은 듯한 건물.
1층 Café. 커피를 들고 희주에게 다가와 앉는 민지.

민지 (반갑게) 오랜만이야, 진짜.
희주 (커피를 받으며)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카페 깔끔하고 예쁘게 잘 꾸몄다.
민지 (웃으며) 고마워. (커피 마시다 생각난 듯) 회사는 어때?
희주 (한숨 쉬며) 지겨워, 지겨워.
(불만스레) 오랜만에 만나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

민지가 웃는다.
카페 음악이 바뀐다. 궁 OST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희주 (의아한 듯) 이거 궁 OST 아니야? 갑자기 웬 옛날노래?
민지 (과장되게) 왜? 너 이 노래 엄청 좋아했잖아, 중학교 때 매일 들었으면서.
희주 그랬나? 궁 드라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중얼거리며) 왜 그렇게 좋아했지?

딸랑. 종소리에 민지가 일어난다. 나 잠깐만.
희주는 자리를 뜨는 민지를 보다 무언가 떠올린 듯 먼 곳을 본다.

S#2. 초등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06년)

6학년 1반. 학급안내판. 아래 벽면에 타이틀.
들어가는 현지 뒷모습. 신발주머니 이름표, 김현지.
창가 쪽 자리, 학생들이 몰려 있다. 그 중간에 있는 희주.
그거 봤어? 드라마 궁 이야기로 소란스러운 자리.
현지가 다가가 희주의 옆자리에 앉는다. 눈치 보다 제 자리로 돌아가는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희주를 데려가는 학생들. 드라마 궁 이야기로 교실이 왁자지껄하다.

S#3. 하굣길 (실외, 오후, 2006년)

아파트 초입. 다른 학생들과 헤어지는 희주. 앞에 현지가 걷고 있다.
외진 골목길 쪽으로 빠지는 현지. 희주는 의아한 듯 현지를 따라간다.

S#4. 아지트, 비밀 장소 (실외, 오후, 2006년)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 구석 계단. 현지가 앉아있다.
희주가 들어서자 놀라는 현지.

희주 왜 여기 있어?
현지 (놀라며)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희주 (현지 옆에 앉으며) 너 따라왔지,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 집에 안가?
현지 (땅바닥에 돌멩이를 소심하게 차며) 집 답답해.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공부하래.
(한숨 쉬며) 너라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
희주 (고민하며) 음..
현지 (다급하게) TV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놀 시간에 공부나 하래.
(시무룩한 표정으로) 드라마도 못 봐.
학교에서 다 그 얘기하는데, 난 끼지도 못해.
희주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싫다. 그러면 넌 여기서 뭐해?
현지 (작은 목소리로) 아무것도 안 해.
희주 뭐야, 재미없는 건 똑같잖아.
현지 (한숨 쉬며) 집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백배는 재미있어.
희주 그러면.. (웃으며) 내가 재미있는 얘기해줄까? 드라마 얘기!
너 드라마 못 본다며. 내가 얘기해줄게.
현지 (기대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궁금해, 그 드라마.

드라마 궁 이야기를 하는 희주.

희주 (신이 난 목소리로) 드라마 끝나면,
곰인형이 옷을 입고 나와서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게 진짜 진짜 귀여워!

차분하게 시작한 이야기에서 희주의 격정적인 몸짓까지 더해진다. 현지의 웃음소리.
흐르는 날만큼 변하는 옷차림, 머리, 표정, 자세. 한껏 편해진 분위기.

S#5 초등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06년)

교실 뒤 초록색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하는 종이가 붙어있다.
이름, 그림, 취미, 특기, 장래희망 칸.
희주의 이름 아래 장래희망 칸은 빈 칸이다. 옆에 현지의 이름, 의사 그림.

그 옆으로 다양한 꿈과 그림, 드라마 궁의 한복을 닮은 옷을 입고 있는 그림.

S#6 희주의 집 (실내, 밤, 2006년)

드라마 궁 화면 속 한복 입은 윤은혜.
희주의 방에서 나오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희주의 언니

희주언니 희주,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웬일로 일찍 자네?
희주엄마 (TV를 보며) 냅둬, 낮에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밥 먹자마자 곯아떨어졌어.

TV 속 드라마 궁의 엔딩 장면.

S#7. 아지트, 비밀장소 (실외, 오후, 2006년)

나란히 앉아있는 희주와 현지. 시무룩한 희주.

희주 (아쉬워하며) 나 어제 드라마 못 봤어. 오늘은 얘기해줄 게 없어.
현지 (과장되게) 괜찮다니까!
드라마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야기해줘서 재미있는 거라니까!

현지의 칭찬에 금세 풀어진 희주가 현지와 웃으며 떠든다.

희주 나는 드라마가 좋아. 나도 그런 드라마 써보고 싶어!
현지 쓰면 되지!

희주는 현지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는다.
현지 역시 그런 희주를 따라 웃는다.

S#8. 초등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06년)

교실 뒤 초록색 게시판 앞에 서 있는 희주 뒷모습.
Frame Out하면 희주의 이름 아래, 장래희망 칸. 드라마 작가가 적혀 있다.
나란히 붙어있는 희주와 현지의 자기소개서.

S#9 아파트 단지 입구 (실외, 저녁, 2006년)

나란히 걷는 희주와 현지. 어둑어둑한 하늘.

희주 (손을 흔들며) 잘가!

손을 흔들며 가는 희주를 보던 현지, 뒤를 돌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다.

S#10 현지네 집 (실내, 저녁, 2006년)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지, 운동화를 벗는다. 현지 앞에 서는 현지의 엄마, 미진.

미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어조로) 현지, 너. 뭐하다 이제 들어와?
현지 (고개를 들어 미진을 보고 눈치 보며) 방과 후 활동..
미진 (인상을 쓰며)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수준 떨어진다니까! 시간 낭비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공부해!
현지 (작게 한숨을 쉬며) 네..

현지는 그런 미진을 피하듯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으로 들어가는 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진.

S#11 하굣길 (실외, 오후, 2006년)

아파트 초입 길,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는 현지와 희주.

S#12 경비실 (실내, 오후, 2006년)

Zoom out 되며 그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보고 있는 미진.

S#13. 아지트, 비밀장소 (실외, 오후, 2006년)

아지트로 들어가는 입구 앞. 작게 들리는 희주와 현지의 목소리.
아지트 입구 앞에 미진. 미진은 한숨을 쉬며 아지트 안으로 들어간다.

미진 (화를 애써 가라앉히며) 너희 둘 여기서 뭐하니?
현지 (미진의 목소리에 놀라) 아... 엄마..

놀라서 눈이 커진 희주와 현지.

미진 (언성이 점점 높아지며) 뭐? 방과 후 활동?
여기가 학교야? 어?! 당장 일어나!
현지 (울먹이며 일어나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현지는 억울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인다.
현지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미진.
희주는 급하게 미진의 팔을 잡는다.

희주 (우물쭈물 눈치를 보며) 아줌마...
저희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러고 논 거에요.
현지 너무 혼내지 마세요.

미진 (단호한 어조로) 우리 현지는 공부해야해. 너랑 여기서 이럴 애가 아니야.
앞으로 둘이 여기서 안 놀았으면 좋겠구나.

현지는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떨군다.
미진은 현지의 팔을 잡고 아지트를 나간다.
빠르게 끌려나가는 현지.

아지트에 혼자 남은 희주.
현지가 끌려간 자리에서 멍하니 서있는다.

S#14. 카페 (실내, 낮, 2019년)

멍하게 앉아있는 희주. 손에 잡지를 들고 다가오는 민지.

민지 미안, 미안. 손님은 꼭 갑자기 몰린다니까!
(잡지를 건네며) 이거라도 보고 있어. 내가 불러 놓고 미안하네.

급하게 돌아가는 민지. 받은 잡지를 보던 현지.
천천히 표지를 넘기고, 페이지를 넘긴다. 그러다 멈춘 손.
잡지 속 배우 이민호.

S#15. 중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08년)

희주의 책상에 놓여있는 브로마이드 잡지, 표지에 꽃보다 남자 주인공들. 구준표(배우 이민호)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야기로 시끄러운 주위 아이들.
교복을 입고 앉아있는 희주. 옆에서

아영 (흥분한 채 높아진 언성으로) 아, 윤지후 명예 소방관 대사가 미쳤다니까!

소희 무슨 소리야! 소라빵 구준표가 주인공인데!

가만히 턱을 괴고 생각하던 희주는 브로마이드 잡지 표지를 넘긴다.
희주는 꽃보다 남자 페이지 빈 곳에 안부 인사와 꽃보다 남자의 내용을 적는다.

S#16. 아지트, 비밀장소 (실외. 오후, 2008년)

현지와 만나던 아지트를 찾은 희주. 둘의 발길이 닿지 않아 적막한 공기만이 맴도는 곳.
희주의 손에는 브로마이드 잡지가 들려 있다. 잡지를 아지트 한쪽에 놓는 희주. 떠나는 희주.

하늘이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아지트를 다시 찾은 희주.
희주는 두고 갔던 브로마이드를 펼쳐본다. 다른 사람의 글씨가 적혀 있는 브로마이드.
현지의 글씨로 안부가 적혀 있다. 활짝 웃는 희주.

S#17. 중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08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야기로 여전히 시끄러운 교실. 앉아있는 희주.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다.

S#18. 고등학교 교실 (실내, 오전, 2010년)

아이돌 노래, *미쓰에이의 Bad girl good girl, 씨엔블루의 외톨이야, 비스트의 Shock.*
시끄러운 교실. 앉아있는 희주.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다.

S#19. 카페 (실내, 낮, 2019년)

노래,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거지*
노래 소리 외 비교적 조용한 카페. 앉아있는 희주. 앞에 앉아있는 민지.

민지 뭐? (놀라며) 뭘 하겠다고?
희주 (또렷한 눈으로) 나 꿈 다시 도전해볼래.

S#20. 희주의 집 (실내, 저녁, 2019년)

암전된 공간. 도어락 열리는 소리. 켜지는 현관 불.
들어오는 희주. 민지와 통화 중이다. 스피커폰으로 설정 변경하면

민지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줄 몰랐어.
희주 (가방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으면 바로 행동해야지.

희주가 방으로 들어간다.

S#21. 희주의 방 (실내, 저녁, 2019년)

불을 켠다.

민지 드라마 학원은 다닐만 해?
희주 (무언가를 찾으며) 재미있어. 내가 하고 싶던 거잖아. 소재가 문제지.
(무언가를 찾은 듯) 찾았다.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 브로마이드 잡지와 공책.

잡지를 잠깐 보고, 희주가 공책을 꺼내 책상에 앉는다.

민지 뭘?

공책을 펼쳐보는 희주. 까만 글씨로 빽빽한 종이.
페이지를 휙휙 넘긴다.

희주 옛날에 쓰던 시나리오 공책.
(페이지 넘기던 손이 멈추며) 의학 소재로 쓴 게 있네.
(살짝 미소를 지으며 보다가) 으! 진짜 오글거려!
민지 몇 년 전인데 당연히 오글거리겠지. 재밌어?
희주 나름?
민지 오, 그거 제대로 다듬어보면 되겠네.
희주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러면 좋은데, 난 의학 지식이 없어서 어려워.

이제야 겉옷을 벗는 희주. 의자에 걸친다.

민지 내 친구 중에 의대생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줘?
희주 (웃으며) 정말? 그러면 진짜 고맙지!
민지 내가 물어보고 금방 연락 줄게.

끊기는 전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희주, 자리를 떠난다.
펼쳐 놓은 공책 속 의학 시나리오에 보이는 주인공 이름, 현지.
휴대폰의 화면이 밝아지고, 민지에게 온 문자.

민지 *내일 우리 카페로 와!*

S#22. 카페 (실내, 낮, 2019년)

빠른 발걸음으로 카페에 도착한 현지.
카페에는 잔잔하고 조용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민지와 앉아있는 누군가, 익숙한 얼굴.

민지 (반갑게) 어서와!
(희주를 가르키며 누군가에게) 여기는 내 중학교 친구, 서희주.
(누군가를 가르키며 희주에게) 여기는 내 고등학교 친구, 김현지.

앉아있는 현지와 서있는 희주. 서로 마주보며 끝. 타이틀.

스마트폰 우정 알람

국어국문학과 20181111 최지혜
영어영문학과 20171210 김신형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0182587 홍혜준

S#1 휴대폰 대리점 앞. 실외. 아침
휴대폰 대리점에 스마트폰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는 광고가 붙어있다.
등교하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 광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민지.

친구A, 길 건너편에서 민지의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본다.

S#2 교실. 실내. 아침 자습 시간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으로 향하는 수빈.

수빈 (큰 목소리로)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 전에 학습지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뒷사람이 걷어오자.

반 아이들이 일어나 학습지를 제출한다.

S#3 교실. 실내. 오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종이를 찢어 글을 쓰는 수빈. 쪽지를 민지에게 건넨다.
쪽지를 받아 읽는 민지.
수빈이 스마트폰을 새로 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민지 (소곤거리면서) 진짜로...? 이따가 구경할래.

S#4 교실. 실내. 오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수빈이가 민지에게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서랍 속에서 꺼내자 아이들이 몰려든다.

친구A (놀라면서) 뭐야? 수빈아 새로 산 거야?
수빈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스러워 하지만 침착해하며) 어 맞아! 어제 엄마가 사줬어.
친구B 우와 부럽다...
수빈 뭐가~ 너도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꾸면 되지.

새로운 스마트폰을 산 수빈을 속으로 부러워하는 민지.
겉으로 티를 내지 않고 어색한 미소만 짓는다.

S#5 민지 집 거실. 실내. 저녁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민지네 가족들.

민지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조심스럽게 수빈이의 새로운 휴대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민지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수빈이가 새로운 핸드폰을 가져와서 자랑했어.

엄마 (민지를 쳐다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그래?

민지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작아지며) 나도 수빈이처럼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면 안 돼...?

엄마 (민지를 쳐다보며) 민지야, 너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그리고 민지야, 우리 집 형편이 수빈이네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

민지 그래도 갖고 싶어.... 나도 그걸로 바꿔줘, 엄마.

엄마 (밥 먹다가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김민지. 너 저번에도 다른 친구가 새로운 필통 가져와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줬잖아. 이번에는 안 돼. 어서 들어가서 숙제해.

울음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민지.

S#6. 교실. 실내. 오후

체육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아이들이 교실에 우르르 들어온다.

책상 서랍에서 무엇을 찾는 듯한 수빈.

불안한 표정. 책가방도 샅샅이 들추며 헤쳐본다.

수빈 애들아, 어떡해? 내 스마트폰 없어진 거 같아...

수빈이의 자리에 모여드는 아이들.

친구A 뭐, 진짜? 체육 시간에 없어진 거야?

수빈 그런 거 같아. 체육 나가기 전에는 있었거든. 산 지 얼마 안된 건데 어떡하지...

친구B 누가 체육 시간에 훔쳐간거지?

친구A (민지를 쳐다보며) 민지 아니야? 민지가 핸드폰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광고 들여다보는 거 내가 등교하다가 봤어.

아이들의 시선이 민지에게 쏠린다.

친구C 맞아. 민지 네가 예전부터 수빈이가 산 스마트폰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민지 (손사래를 치며) 난 아니야! 내가 수빈이 부러워한 건 맞지만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부러워 했잖아!

수빈, 아무 말 없이 민지를 가만히 응시한다.

민지 (말이 높고 빨라지며) 수빈아, 왜 날 쳐다봐? 나 의심하는거야? 진짜로 내가 안훔쳤어...

수빈 아니, 그건 아닌데... (말 끝을 흐린다)

친구B (수빈이의 말에 불쑥 끼어들며) 아! 잠깐. 아까 태우가 발야구 하다 말고 화장실 가던데.

친구B가 태우를 빤히 쳐다본다.
태우,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먹을 불끈 쥔다.

태우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숨을 씩씩거리며) 나 아니거든? 화장실 갔다가 바로 운동장으로 왔거든?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친구B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안 훔쳤으면 안 훔쳤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네가 화장실 갔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야. 뭐 찔려?

태우와 친구B가 싸울 듯이 서로를 노려본다.
수빈,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며 진정시킨다.

수빈 (태우와 친구B 사이에 서서) 그만, 그만! 왜 싸우려고 해. 그냥 내가 선생님께 스마트폰 없어졌다고 말씀드릴게.

뒤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친구들이 다투는 상황을 보고 있던 친구 D.
수빈이의 어깨를 툭툭 친다.

친구D 수빈아, 아까 유진이가 배 아프다고 보건실 가더라고. 유진이가 훔친 거 아닐까?

친구C (할 말이 있는 듯이 앞으로 나서며) 유진이는 아니야. 내가 유진이 보건실에 데려다줬거든. 나도 데려다 주고 바로 운동장에 왔고. 그리고 유진이 아직 보건실 침대에 누워있어.

친구D (팔짱을 끼며) 네가 교실에 들렸다가 운동장으로 왔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 너도 체육 시간에 잠시 자리 비웠으면서 아까 민지는 왜 의심한거야?

친구C (발끈하며) 뭐? 이게 어디서····

민지, 수빈이에게 제티 초콜릿 맛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민지 저기, 수빈아... 나 제티 초콜릿 맛 가져왔는데 너도 먹을래? 우유 급식 시간에 먹자..

수빈 (당황해하며) 어...어? 아니야 괜찮아... (제티를 든 민지의 손을 살짝 밀어낸다) 고맙지만 다음에 먹을게.

민지 (힘없이 손을 내리며) 응... 알겠어.

교실은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로 가득하다.

S#7. 교실. 실내. 오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교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
손바닥으로 교탁을 탁탁 치신다.

선생님 (엄격한 목소리로) 여러분, 무슨 일이죠?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가 복도에 다 들려요. 반장, 반장이면 친구들을 조용히 시켜야죠.

수빈, 교탁으로 나가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수빈 체육 시간 끝나고 와서 보니 제 스마트폰이 없어져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진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빈이 스마트폰이 없어졌다고요? 도난 사건이 있었으면 먼저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우선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정적만 흐르는 교실. 아이들은 서로 눈치 보기 바쁘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시는 선생님.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하다.

혼란스러운 표정인 수빈.

선생님 여러분, 친구를 함부로 의심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난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겠어요. 스마트폰을 훔친 친구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빈 종이를 나누어주신다.

선생님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어요. 다들 빈 종이 받았죠? 맨 위쪽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꼭 쓰고, 수빈이의 스마트폰을 훔친 범인은 아무 표시라도 하세요. 점도 좋고 별 모양도 좋아요. 자신이 범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를 해주세요. 알겠죠?

곁눈질로 연필을 움직이는 친구가 있는지 주변을 살피는 민지.
몸을 움츠린 채 한 손으로 종이를 가리고 작은 점을 찍는다.

선생님 여러분, 다 썼나요? 선생님이 돌아다닐 테니 종이를 두 번 접어서 상자에 넣어 주세요.

민지, 두 번 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는다.
주변을 힐끔거리다 제티 초콜릿 맛이 타진 수빈이의 우유를 발견한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빈이를 슬쩍 바라본다.
민지와 눈이 마주친 수빈. 민지의 눈을 황급히 피해버린다.

S#8. 학교 밖. 실외. 저녁

하교 후, 공원에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민지.

선생님 민지야, 선생님한테 수빈이 스마트폰 왜 훔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을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민지.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낸다.
민지의 말을 가만히 경청하는 선생님.

민지 (울음 가득한 목소리로) 사실은 제가....

(민지 과거 행동 제시-플래시 백으로 흑백처리) 체육 시간 끝나기 10분 전. 민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온다. 교실 밖에 누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수빈이의 책상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낸다.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만져보는데 복도에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당황한 민지. 허둥대다가 자신의 가방에 수빈이의 스마트폰을 숨긴다.

선생님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민지가 그랬구나. 민지의 마음을 선생님이 잘 알겠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민지가 수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게 좋을 듯 해요. 수빈이는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이해해줄거야.

민지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민지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선생님 잘 생각했어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웃는 얼굴로 만나요.

S#9 수빈이 집. 실내. 오후
주말 오후, 수빈이가 방에서 숙제를 한다.
갑자기 현관에서 익숙한 알람 소리가 들린다.
현관 우유통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편지를 발견한다.
스마트폰에는 핸드폰 고리가 걸려 있다.

수빈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수빈이에게. 수빈아, 스마트폰 훔친 사람은 사실 나였어. 저번에 범인이 나 아니라고 발뺌해서 미안해.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 하고 싶어. 오늘 저녁 8시에 네 집 앞에서 기다릴게... 꼭 나

와줘... 민지가.' (편지 마지막 부분 클로즈업)

편지지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수빈.

S#10 수빈이 집 앞. 실외. 저녁
수빈이 집 앞에 도착한 민지.
집에서 내려오는 수빈.
민지, 달려가서 수빈이를 꼭 껴안는다.

수빈 (당황해하며) 어... 어 민지야...
민지 (울먹이며) 수빈아...미안해...
수빈 사실, 다른 애도 아니고 네가 내 스마트폰 훔쳤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
민지 (흐느끼며) 정말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도...돌려주려고 했는데...
수빈 (말을 끊으며) 거기까지! 난 네가 나쁜 감정으로 절대 스마트폰을 훔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어. 오히려 학교에서 너한테 쌀쌀맞게 굴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좀 낫다.
민지 좀 더 일찍 사과 했어야 했는데... 바로 돌려줬어야 했는데... 네가 다시는 나를 안 볼까 겁이 났어.
수빈 (삐진 척 히며) 에잇! 내가 널 왜 다시 안 봐~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얄팍했어?
민지 너한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 밖에...
수빈 됐어! 이제 그만 미안해 해도 돼. (핸드폰 고리를 민지 눈앞에서 흔들며) 서로 마음도 풀고 이렇게 예쁜 핸드폰 고리도 얻었잖아?

민지가 눈물을 닦고 옅은 미소를 짓는다.

수빈 (놀리는 듯한 목소리로) 어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던데, 너 엉덩이에 뿔 나는 거 아니야?

민지와 수빈이 크게 웃는 소리가 골목에 가득하다.

S#11 등교길. 실외. 아침
수빈이와 민지가 서로 전화하면서 등교한다.
두 사람의 핸드폰에는 똑같은 핸드폰 고리가 달려있다. (클로즈업)
수빈이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태우.

태우 (놀란 목소리로) 어? 수빈? 너 스마트폰 찾은거야? 그래서, 범인은 누구야?
수빈 (장난스럽게) 넌 몰라도 되네요. 비밀이야. (민지를 발견하고 손짓하며) 민지야 빨리 와! 우리 이러다 지각하겠다!

S#12 교실. 실내. 아침

수빈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반 친구들.

친구D 어? 수빈아, 핸드폰 찾았네? 어디서 찾았어?

태우 (짓궂게 빈정거리며) 내가 등교할 때 물어보니까 반장님이 비밀이시랜다! 우리 묻지 말자.

수빈, 교탁 앞으로 나가 친구들을 둘러본다.

수빈 저번 주에 내 스마트폰 때문에 소란스럽게 했던 거 미안해. 다들 걱정 해주어서 고마웠어. (단호한 표정으로)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찾았으니까 서로 의심하면서 더 이상 범인 찾는 건 하지 말자. 알겠지?

1교시 시작 종이 울리고 자리에 앉는 반 친구들.
수빈이와 민지는 각자의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는다.
두 개의 핸드폰에는 똑같은 핸드폰 고리가 걸려있다. (클로즈업)

야욕(野慾)

국어국문학과 20171020 김진경
국어국문학과 20171039 박정훈
국어국문학과 20171105 하정민

1. 초등학교 교실. 실내. 낮

ㅁㅁ 초등학교. 6학년 3반의 교실의 모습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반에서 한 두명씩 결석을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빈자리도 많고, 반의 분위기도 차분한 듯하다.

반 아이들은 점심을 다 먹었는지, 교실의 뒤편에서 유희왕 카드 게임을 하거나 공기놀이를 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다.

무리에 껴서 공기를 하던 서현이는 시계를 한 번 보더니 반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다.

서현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얘들아. 수업 시작 오분전이야! 다들 이제 정리해!

한동 (아쉬운 표정으로)아 벌써.. (아이들을 향해 소리치며)야! 다들 빨리 정리해!

한동이도 주위 친구들과 가지고 놀던 유희왕 카드를 정리한다.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서현이도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서현이의 옆자리에는 민지가 앉아 있다.

엎드려 있는 민지의 안색은 하얗게 질려있고, 열이 나는지 땀을 흘리고 있다.

서현 (걱정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민지야 괜찮아? 너 어디아픈거야?

민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모르겠어…… 토할것 같아..
엄마 보고 싶어…….

서현 (갸우뚱 거리며) 어? 보건실 갈래?

민지 (고개를 끄덕인다.)

종이 울림과 동시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서현 (손을 들며) 선생님! 민지 토할 것 같대요!

김 선생님 (놀란 표정과 말투로 민지를 쳐다보며) 민지? 민지가 왜?

선생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민지가 토를 하며 쓰러진다.

김 선생님 (놀라는 표정으로 민지에게 달려가며)민지야!
서현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지야!

반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선생님이 민지를 업고서는 서현이와 한동이를 쳐다본다.

김 선생님 (다급한 말투로)반장,부반장! 선생님이 민지 데리고 보건실 다녀올테니깐 앞에서 애들 조용히 시키고 있으세요!

선생님이 서둘러 교실 밖으로 나가고, 서현이와 한동이가 교실 앞으로 나간다.

반 아이1 (토하는 시늉을 하며) 우웩 토했어.
반 아이2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며)윽 냄새나.
서현 (칠판을 두드리며) 애들아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잖아..!
한동 맞아! 선생님 없다고 떠들면 안돼! (분필을 집어들며) 지금부터 떠든 사람 칠판에 적는다!

서현이와 한동이의 말에 반 아이들이 점차 조용해진다.
서현이는 한동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뒤 청소도구함에서 걸레를 꺼내 토사물을 치우기 시작한다.

2. 보건실. 실내. 낮
민지를 업은 김 선생님이 보건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김 선생님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다. 김 선생님이 보건실을 둘러본다.

김 선생님 (숨이 찬 상태로) 이게 다 무슨..

보건실의 침대에는 아이들이 모두 누워있고, 진찰을 받기 위해 온 아이들도 5명 정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던 김 선생님은 민지를 소파에 눕히고 보건 선생님에게 다가간다.

보건 선생님 (심각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아무래도 집단 감염 같은데..

김 선생님 (매우 놀라며) 네에? 집단 감염이요?

보건 선생님 (누워있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아이들 증상을 보면 대부분 고열에 구토를 하거나 탈수 증상을 보여요…흐음...구토랑 탈수 증세를 보면 신종플루가 아닌 것 같은데…..열은 또 높아서.…. 일단 신종플루로 의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 (울듯한 표정으로) 어떡해..제가 교장쌤한테 연락드릴게요.

보건 선생님의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급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핸드폰 연락처에서 교장선생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며 김 선생님이 다급하게 보건실 밖으로 나간다.
보건 선생님은 자신의 맨 아래 서랍에서 마스크를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3. 교무실, 실내, 낮

교무실에 문자 알림소리와 핸드폰 진동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울린다.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문자를 확인한다.

선생님1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뭐지..?

선생님2 (핸드폰을 든 채로) 선생님도 문자 보셨죠?

선생님1 (이해가 안 간다는 듯 한 표정으로) 네.. 문을 잠그라는데요?

선생님2 (체념한듯) 교장쌤이 하신말씀이니까 일단 하라는대로 하죠 뭐..

4. 학교의 복도. 실내. 낮

선생님들은 복도에서 교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교무실로 가면서도 창문을 다시 한 번씩 건드리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잠근다.
곧이어 학교 전체에 교내 방송이 울린다.

'아아- 지금 당장 모든 학교 관계자분들은 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은 교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 교장실. 실내. 낮

심각한 표정의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앉아 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이 하나 둘 교장실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어느새 교장실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 모여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교장 선생님 (가라앉은 목소리로)다들 모였나요?

경비 아저씨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저는 선생님도 아닌데 왜..?

교장 선생님 (엄격 근엄 진지하게)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오늘 아이들과 접촉한 모든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영양사 선생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래도 그렇지 저나 경비 아저씨는 아이들과 거의 접촉했다 할 수 없는데,,

교장 선생님 (갑자기 버럭하며) 다들 뭐가 그리 불만입니까? 모이라면 모이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며) 크흠..그나저나 보건 선생님은 아직 인가요?

김 선생님 (머뭇거리며) 교장 선생님.. 그게.. 보건실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고 언제 응급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말을 흐린다.)

교장 선생님 (화를 참는 듯한 말투로) 아니...거 보건실에 애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당장 오라고 하세요!

김 선생님 (난감한 표정으로) 네..네..!

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호통에 보건실로 전화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무실 문이 열린다. 보건실 선생님이 들어오고 교장선생님이 자세를 고쳐 앉는다.

교장 선생님 아니..보건선생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신종플루라는 겁니까..?

보건 선생님 아직 의심만 하는 상태예요. 학교에서는 확진을 하기가..

교장 선생님 확진도 못하면서 거 애들 열이 좀 난다고 신종플루라고 그래요?

보건 선생님 (강단있는 목소리로)교장선생님. 신종플루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 (손을 저으며) 아아 시끄럽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요?
생각 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보건 선생님 (한숨을 쉬며) 최대한 빨리 지역 보건당국에 알리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그게 말입니까? 신종플루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신종플루가 확실하다고 판명되면 그때 가서 알려도 늦지 않아요. 알겠어요?
절대 외부에 알려지는 일 없도록 다들 잘 하세요.

보건 선생님 (언성을 높이며) 교장 선생님! 그러다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구요!

교장 선생님 (제일 큰 목소리로) 어디서 큰소립니까? 그렇게 알리고 싶으면 확진 내리세요!
신종플루 확진 전까지 절대 알려져서는 안돼요! 아시겠어요? 일단 반에 있는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과 격리시켰으니.. 보건 선생은 책임지고 보건실에 있는 아픈 아이들 돌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들은..

띠리리리리링- 띠리리리리리리링-

그 순간 교장을 말을 끊는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교장 선생님 (심기가 불편한 듯) 누구 전화입니까?

김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의 말에 급히 핸드폰을 꺼낸다. 김 선생님은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김 선생님 저희 반 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전화를 받으며 교무실 밖으로 나간다.

6. 서현이네 교실. 실내. 낮.

서현이와 한동이가 의자를 가지고 앞으로가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서현 얘들아 선생님이 올 때 까지 절대 교실 밖에 나가지 말고 각자 책 읽으면서 조용히 기다리자.

한동 선생님이 왔을 때 우리가 약속 잘 지키고 있으면 초코파이 사주신대!

한동이의 말에 반 아이들은 초코파이를 생각하며 바로 조용해진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표정을 찌푸리며 손을 든다.

반 아이3 반장..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서현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가지 말랬는데..

한동 음.. 그래도 화장실은 괜찮겠지!

한동은 말을 하며 급해 보이는 친구를 위해 앞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려 한다.
그러나 밖에서 자물쇠로 잠긴 문은 열리지 않고, 한동은 여러 번 더 힘을 주어 문을 열고자한

다.

한동 (놀라며) 어? 문 안열리는데

한동의 말에 뒷자리의 친구가 뒷문을 열어보지만, 뒷문 또한 열리지 않는다.

반 아이4 (다급한 말투로) 뭐야 뒷문도 안 열려!
반 아이5 (눈을 크게 뜨며)헉! 우리 교실에 갇힌 거 아니야?
반 아이6 (울먹이며)뭐야 나 무서워. 엄마아!
반 아이7 (조금 큰 목소리로)창문도 안 열리는 것 같아!
반 아이8 (울기 시작하며) 으아아앙! 나 나갈래 흐어어엉!

순식간에 갇혔다는 상황을 알게 된 서현이네 반 아이들은 겁에 질려 흥분한 모습을 보인다.
서현이와 한동이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을 쳐다보며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곧 서현이는 당황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침착한 표정을 짓는다.

서현 (침착한 목소리로) 얘..얘들아 진정해..! 선생님 곧 오실거야..! 응?
한동 그..그래..! 다들 일단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자!

서현과 한동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몰려오는 공포감으로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되지 않는 듯 보인다.
몇몇 아이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 더더욱 겁을 먹은 듯 자리에 굳어있다.

서현은 일단 앞문에 붙은 아이들을 문에서 떼어 놓고자 앞문으로 간다.
한동도 뒷문에 있는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뒷문으로 간다.
그러나 한 명의 힘으로 아이들을 떼어놓기에는 역부족인 듯 보인다.
그 때 서현이가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이 쪽을 쳐다본다.

서현 아! 맞다! 한동아! 핸드폰 가방!
한동 어..어? 핸드폰 가방?
서현 선생님 책상에서 핸드폰 가방 꺼내서 선생님한테 전화해보자!
한동 아!

서현의 말에 한동은 선생님 책상으로 달려가 핸드폰 가방을 찾아 교탁위에 올려둔다.
교탁에 놓인 핸드폰 가방을 본 반 아이들 중 몇 명이 자신의 핸드폰 또한 찾고자 교탁 쪽으로 달려간다.

여러 아이들이 교탁에 몰려들어 가방을 당긴다. 그러다 핸드폰 가방이 떨어지면서 핸드폰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아이들 모두 자신의 핸드폰을 찾기 위해 마구 행동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난장판이 되어 간다.

한동이는 떨어진 핸드폰들 사이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찾는다. 빠르게 자신의 핸드폰을 낚아챈 뒤 다급하게 전원을 키고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건다.

7. 교무실 밖. 실내. 낮
김 선생님이 한동이의 전화를 받으며 교무실 밖으로 나온다.

김 선생님 (다급한 목소리로) 한동아 무슨 일 생겼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매우 소란스러웠다.

한동 선생님! 교실 문이 잠긴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무서워해서..
막.. 지금 문 두드리면서 울어요! 애들이 저랑 서현이 말을 안 들어서..

상황을 전하는 한동이의 말 또한 정신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듯이 두서가 없었고, 이를 들은 김 선생님이 매우 놀라며 한동이를 진정시키며 금방 간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는 교무실 문을 열고 현재 교실의 상황을 알린다.

김 선생님 (교무실 문을 열며 매우 다급하게) 선생님들! 지금 모두 교실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바로 서둘러서 교실로 올라갔고, 김 선생님의 말을 들은 선생님들 또한 사색이

되어 서둘러 교무실을 나서 자신의 교실로 돌아간다.

8. 보건실. 실내. 낮
보건실 소파에 누워 기력을 회복한 민지가 천천히 일어나 물을 마시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 주위를 둘러본다.

민지 아픈 애들이 엄청 많네.. 누울 자리도 없고.. 선생님은 어디가셨지..?

민지는 조금 더 보건실을 둘러 본 뒤 다시 교실로 돌아가기 위해 보건실 문을 열고 나간다.

9. 복도. 실내. 낮
보건실에서 교실로 가기 위해 민지는 긴 복도 걸어 그 끝이자 교무실 앞의 계단으로 향한다. 절반 정도 왔을 때 자신의 담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이 우르르 교무실에서 나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본다.

민지 (멀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어.. 쌤! 뭐지...?

아직 학교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민지는 그저 천천히 걸음을 계속 옮긴다.
민지가 계단에서 2층과 3층 사이쯤까지 올랐을 때, 교무실에서 영양사 선생님이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나와 민지가 있는 곳의 아래층에서 전화를 한다.

바로 아래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민지는 계단 사이로 인기척의 주인공을 쳐다본다.
영양사 선생님은 민지의 존재를 눈치 채지 못한 채 주위를 살피며 통화를 한다.

영양사 선생님 (신경질적으로) 지금 난리났어. 아니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정도라며!
학교 애들 단체로 열나고 토하고 난리야! 다들 신종플루 집단 감염 아니냐고 그러고 있다고!
(잠시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는 어이 없다는 말투로)아니 그렇다고 내가 급식 재료비 빼돌리려고 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생긴 집단 식중독인 것 같다고 대놓고 말해?
(목소리를 높이며)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도망갈 시간 정도는 벌어야지! 아 정말..!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는데 이번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 알려지면 난 진짜 끝장인거 알지? 영양사일도 다신 못하고 알바나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 일단 나 지금 짐 챙겨서 갈 테니

까 기다리고 있어.

영양사 선생님은 그대로 민지를 못 보고 1층에 위치한 급식실을 향해 빠르게 내려간다.
놀란 표정으로 민지는 다급하게 교실로 돌아간다.

10. 서현이네 교실. 실내. 낮
아이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모두 앉아 있고,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교실로 민지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선생님에게 다가간다.

김 선생님 어머 민지야..! 괜찮니? 열은..?

민지가 선생님의 바로 앞까지 가서 선다.

민지 선생님! 제가 오는 길에 들었는데 영양사 선생님 때문에 저랑 애들 다 아프다는데 선생님도 아셨어요?
김 선생님 (놀라는 표정으로) 뭐..뭐라고..?

민지가 선생님께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설명한다.
김 선생님은 민지의 말을 듣고 다급하게 어디론가 연락을 한다.

11. 학교 운동장. 실외. 낮
학교 운동장에 경찰차와 구급차 여러 대가 들어서고, 보건실에 있던 아이들은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구령대에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영양사 선생님이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운동장으로 나와 경찰차로 향한다.

영양사 선생님 (고개를 푹 숙이며) 이제 다 망했어... 나도 내 인생도 이제 다 끝이야..

영양사 선생님이 경찰차에 태워진다.
곧바로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학교를 빠져 나간다.
교장선생님 또한 구령대에서 학교 밖으로 사라지는 경찰차를 뒷짐을 지며 바라보고 있다.

교장 선생님 (혼잣말로) 쯧쯧 저 사람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저럴 줄 알았다니깐.
(후련하다는 듯이) 자, 일도 다 해결됐으니 (선생님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그만 시간 낭비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교장 선생님은 사라진다. 그런 교장 선생님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선생님들이다.

12. 서현이네 교실, 실내, 낮.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는 교실에서 아이들 또한 평소처럼 떠들며 놀고 있다.
빈자리가 곳곳에 보인다.
선생님이 들어오자 아이들은 빠르게 자신의 자리에 앉는다.
아침 조회시간인 듯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몇 마디를 한 뒤 가정통신문을 나눠 준다.
그 가정통신문에는 어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학교 측에서 했던 대처, 또한 죄를 지은 선생에 대한 추후 징계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

신음

국어국문학과 20141135 정예찬
국어국문학과 20141138 한가희
국어국문학과 20171107 한지성

등장인물 : 가연 - 승진에 대해 열망이 있는 인물, 성희롱에 대해 무언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큰 키와 냉철한 성격으로 학생주임을 맡고 있다.
채희 - 가연과 반대되는 인물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시를 받는 인물이다.
도현 - 담배를 피다 걸린 학생. 신음소리로 가연의 심기를 건드린다.
도현 어머니 - 어머니회 회장. 학교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

시놉시스 :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잘 못 보내는 고3 교사 가연은 교장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학생 주임을 맡으며, 가연은 폭력을 통해 상사들의 신임을 받고 편안한 수업을 한다. 하지만 폭력으로 허무감을 느끼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신뢰와 윤리적 모습 그린 이야기.

1. 집, 실내, 새벽
가연이 안방에서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그 때 들어오는 6살 아들

아들: 엄마 오늘도 지금 가?
가연: 엄마가 일이 바쁘잖아 좀 더 자고 있어

가연은 머리를 만진다. 거울 밖으로 보이는 자는 남편의 모습.
여가연은 한숨을 쉬며, 방에서 나간다.
현관 앞.

가연: 다녀올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가연은 문을 열고 나간다. 움직임이 없는 현관.
타이틀이 올라온다. <신음>

2. 차 안, 실외, 이른 아침
집 앞에 세워둔 차를 타고 가방을 조수석에 놓는 가연.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걸려다가 문득 다시 집을 쳐다본다. 잠시 멍하니 생각하다 이내 시동을 걸고, 인상을 찌푸리며 출발한다.
차를 타고 가는 여성. 차에는 시계가 '07:04'를 가리킨다.

가연은 엑셀을 좀 더 밟는다. 엔진 소리
잠시 후.
앞 유리에 신정 고등학교라는 글자가 박힌 정문을 지나간다. 가연은 심호흡을 한번 한 후,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고 휴대폰에서 메모장을 켠다.
가연: (스마트폰을 치며) 오늘 올려야할 서류.. 수업 내용 확인하고...

휴대폰에 학교에서 할 일을 들을 적어두고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은 뒤, 화장을 조금 고친다. 화장을 고쳤음에도 한동안은 움직이지 않는 가연.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은 듯 머뭇거리다가 백미러에 한 번 더 얼굴을 확인하고 나간다.

3. 학교 운동장, 실외, 이른 아침
학교에는 백발의 노인이 트레이닝 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다.
또각또각 트랙 사이로 지나가는 하이힐
자신 쪽으로 오는 노인에게 밝게 인사하는 가연

가연:(웃음)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자 쓰고 하세요
이사장: 최선생님은 항상 일찍이시네.
가연: 수업 준비죠. 뭐.

목례 하고 걸어가는 가연
이사장은 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가연의 뒷모습을 훑어본다.
걸어가는 가연.(시선을 느낀 가연) 꼭 쥐어지는 주먹이 클로즈업 된다.

4. 학교 복도, 실내, 아침
종소리가 울린다. 2층 중앙 복도에 남학생들이 엎드려 있고, 엉덩이가 일렬로 보인다.
어딘가로 전화하는 가연
가연 :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xx 고등학교 수학 선생 최가연입니다. 오늘 xx 학생이 아침에 담배를 펴서요. 혹시 체벌을 해도 될는지 여쭤 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가연은 핸드폰을 넣고, 수업봉을 고쳐 잡는다.
가연: 한 대 맞으면 알아서 일어나.

수업봉으로 힘껏 엉덩이를 때린다. 바로 바로 일어나는 학생들.
반 정도 때리는 데 한명이 희롱하듯이 야릇한 신음을 흘린다. 키득 거리는 학생들
가연의 얼굴에 당황, 두려움이 잠깐 지나간다.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며

가연: 다시 엎드려.

주저하며 천천히 엎드리는 학생. 다 엎드리기 전에 가연은 수업봉으로 학생의 몸을 사정없이 때린다.

가연: (이를 물며) 더해봐 새끼야. 니 성 노리개야? 해봐 새꺄! 더 해봐!!

학생은 엎어져 팔뚝으로 최대한 몸을 가리며 웅크린다. 때리는 모습 뒤로 지나가던 채희
채희는 달려들며 가연을 뒤에서 붙잡는다.

채희 : (다급하게) 최선생님! 최선생님! 진정하세요! 아직 애에요
(학생들을 쳐다보며) 얼른 교실로 돌아가! 도현이 너는 보건실로 먼저 가고, 얼른가!

도현과 아이들은 급하게 각자 반으로 들어간다. 반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등.
가연은 힘이 풀어지고, 채희는 잡았던 손을 푼다.

가연 : (채희를 보며) 뭐하시는 거에요?
채희 :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덜 자란 애들이잖아요....
가연 : (이죽거리며) 이러니까 작년에 학교에서 강간 미수범이 나오는 거예요.
허구헌 날 성교육을 시키면 뭐해요. 여선생 앞에서 신음소리나 내는 새끼들을.
정선생님 반에서 나와서 아시잖아요. 경찰서랑 교도소 다니면서 생각하신게 없어요?
채희 : (침울해지며) 진혁이는...

채희는 입을 다문다. 가연은 당황해하지만 이내 등을 휙 돌리며, 반으로 들어간다. 클로즈업 되는 수업봉

5. 가연 교실, 실내, 낮

수업봉이 매치컷 되면서 칠판을 가리키며 수업을 하는 가연.

가연 : 숙제 안 해온 사람 나와.

몇몇 학생들이 나온다. 칠판 구석 한 쪽에는 손바닥 자국이 기름(학생들이 칠판에 손을 대고 맞은 자국)으로 번들번들하다.

가연 : (귀찮은 표정) 엎드려.

가연은 때리려고, 수업봉을 고쳐잡다가 귀찮은 표정과 함께 내려놓는다.

가연 : (한숨) 힘들다. 그냥 들어가

놀람, 기쁜 얼굴로 자리로 들어가는 학생들

가연: 숙제 풀이 하니까 안한 애들은 보면서 따라와.
학생들 : 네!

6. 채희의 교실 , 실내, 낮

수업종이 울린다. 채희가 양 손 가득 유인물을 들고 교실로 들어온다.
학생들이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든다.

채희: 얘들아, 모두 앉자.

학생들. 여전히 떠든다.
채희.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이윽고 책 아래를 만지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교무실 채희 자리 위에 보이는 출석부.

채희: (학생들을 보며) 선생님 잠깐 교무실 다녀올거니까 다들 앉아있어.
(큰소리로) 알았지?

채희의 목소리가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채희. 작은 한숨을 내쉬고 교실 밖으로 나선다.

7. 교무실. 실내. 저녁 시간 한 시간 전

수업 종소리가 울리고, 교무실 안 선생님들이 아침에 있던 체벌에 대한 말들이 오고간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가연. 지친 기색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앉는다. 수업봉을 책상 위에 넣는 가연. 그 때 40대 후반의 남자 선생이 가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한다. 가연은 어깨를 칠 때 놀라서 수업봉을 떨어트린다.

중년 남선생 : 도현가 저희 반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요즘 시기에 아이들에게 손 대는 것도 힘든데 전화까지 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사람은 최선생 밖에 없을거에요!
가연: (표정을 감추며) 아뇨! 직책이 학생주임이니까 하는거죠…
중년 여선생 : 학생들 인권이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어떤 선생님들 보면 안쓰럽다니까요?

하며 중년의 여선생은 채연을 힐끗 본다.
가연은 채희의 자리를 쳐다본다. 못듣는 척하며 자신의 일을 하는 채희

교무실로 들어오는 교무부장선생.

교무부장: 오늘 어머니회 있는 날이니까. 선생님들 몇 분만 다과상 준비하는 거
도와주세요! 저녁 시간 끝나면 오실 것 같아요! 이따가 교장 선생님도
오신다니까 잘 좀 준비해주세요!

재빨리 일어나는 가연

가연 :　　교무선생님!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올게요! 어제 저녁 시간 지나고,
　　학생들 시켜서 청소 시켜 놔서 다과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교무부장 :　　교내봉사 얘들 부르려고 했는데 최선생님이 그냥 빨리 해주셨네 (웃음)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가연은 회의실로 준비하러 간다.

8. 회의실, 실내. 저녁시간 한 시간 전

책상들 뒤쪽으로는 믹스커피 와 녹차 여러 과자 박스가 놓여져있다.
과자를 집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올려 놓는 가연. 주위를 보니 다 강사로 들어온 선생들이다. 힐끔힐끔 눈치보는 것을 느낀 가연.

가연 :　주스를 하나 사야할 거 같은데...
강사1 : (어색하게 웃으며) 매점 가서 하나 사 올까요?
가연 :　(웃으며)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 의철쌤만 사 뒤쪽에 놓아주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올라가죠.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며 수업 종소리가 울린다. 부산스레 학생들이 움직이는 소리
학생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뛰어가고, 선생님들은 눈만 굴리면서 살짝 웃는다.

9. 학교 건물 뒤. 실외. 저녁
학교 뒤쪽 계단 아래에서 담배를 다 피어가는 도현.
담배를 끄고 담뱃갑을 후드 안쪽에 집어넣는다.
가래침을 뱉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현.

10. 복도. 실내. 저녁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으로 어딘가 전화하는 도현.
마이를 걸치지 않은 가디건 위에 후드를 입고 있다.

도현:　이따가 언제 오는데?
　　아...곧? 알았어. 이따봐

짜증난다는 듯이 머리를 헝클이며 복도를 지나다 출석부를 들고 있는 가연과 마주친다.

가연 :　후드 벗어
도현 :　(퉁명스럽게) 네.

도현은 그냥 가연을 지나친다.

가연 : (코를 찡그리는 가연) 야... 김도현
도현 : (뒤돌며 짜증나는 표정) 네?

후드 주머니 속 사각형 담뱃갑 형태
가연은 후드 주머니에 담뱃갑을 꺼낸다.

도현 : (짜증, 체념) 아....쓰...
가연 : 너는 학습효과가 없는거야?
(도현의 머리를 출석부로 치며) 너희 부모님도 담배 피지 말게 지도교육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너는 느끼는 게 없어? 중독이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럼 이거 피고 성적이라도 좋아야 하는 거 아냐? 뭐가 문제지?

그 때 중앙 현관 쪽에서 급히 달려오는 중년의 여자

도현 어머니 : 선생님 안녕하세요. 도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연 : (놀란 표정. 급히 공손하게)안녕하세요. 도현 어머님.
저는 3학년 수학 맡고 있는 최가연입니다.
아침에 도현이가 담배를 피고, 지나가다 방금 전에 담배 핀 걸 걸려서요.

듣고 놀라는 도현 어머니. 손바닥으로 도현의 팔을 때린다.

도현 어머니 : (조용히 도현에게 속삭이며)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봐.
(가연을 돌아보며) 죄송한데, 쥐어박는 교육 같은 건 제가 하겠습니다.
가연 : 죄송합니다.

가연과 도현 어머니. 짧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교무실로 향하는 가연

11. 교무실. 실내. 저녁

가연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 때 들어오는 도현 어머니 도현도 같이 따라 교무실로 들어온다. 두리번거리며 가연의 자리로 오는 도현 어머니

가연: 아! 도현 어머님!
도현 어머니 :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잡으며) 우리 애가 개새끼에요?
가연 : 네?
도현 어머니 : 우리 애가 개새끼냐고요! 그게 아니면 애를 왜 개 패듯이 패요?
(등을 들추며)아니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온 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패요? 당신은 가족도 없어? 애도 없어?

도현의 어머니의 큰 폭언이 뭉뚱그려지며 들린다. 애 라는 말이 울리면서 무릎을 꿇은 가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잠깐 지나가는 아침에 본 아들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

주위에 보이는 진정시켜주는 교무부장과 급히 들어오는 이사장의 모습
가연은 짧게 신음을 흘린다.

12. 계단식 강의실, 실내, 밤

야자 시간. 창문 밖이 어둡다. 계단식 강의실에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있다.
가연이 강의실 앞에 있는 교탁에 서서 출석부를 부른다.

가연:　(약간은 귀찮은 듯이) 강기영
기영:　네
가연:　김규진
규진:　네

강의실의 뒤쪽에서는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책상 밑으로 핸드폰을 잡고 분주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도윤이 핸드폰을 책상 위로 툭 던지며 인상을 찌푸린다.
도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가연의 모습

도윤: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아 좇됐네 진짜...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혼잣말로) 그래, 모르겠지...

가연. 아직 출석을 부르고 있다.

가연: 김진석
도윤: 네에

가연. 무표정하게 출석부를 보다가 살짝 고개를 든다. 진석의 목소리가 아니다.

가연: (목소리에 살짝 힘을 주며) 김진석
도윤: (목소리를 조금 크게) 네

가연. 출석부에서 눈을 떼고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본다.

가연: 김진석
도윤: 네

도윤의 대답이 끝나고 가연은 출석을 마저 부른다. 출석을 다 확인하고 출석부를 닫는 가연.

탁. 가연.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간다. 하이힐 소리힐
어느새 도윤이 있는 줄로 온 가연. 도윤을 보며

가연: (도윤을 내려다보며) 진석이는 내일 중앙복도에 있으라고 해. 넌 따라와.

가연. 뒤돌아 문 쪽으로 걸어간다.
도윤이 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라 걸어간다.

쾅. 양쪽으로 여닫는 강의실 철문이 크기만큼이나 큰 소리를 내며 닫힌다.
이윽고 문 너머로 매타작 소리와 함께 도윤의 신음이 들린다.

강의실 밖에 가연은 앙다물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도윤을 때린다.

0. 가연의 집. 실내. 늦은 저녁.

불 꺼진 집 안. 현관문이 조용히 열린다.
가연이 현관문 옆의 벽을 짚으며 힘겹게 구두를 벗는다.
집 안은 냉장고의 작은 소음만 들린다.

가연: (힘 빠진 작은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가연. 터덜터덜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살짝 연다.

어두운 방 안. 작은 무드등의 불빛이 남편과 아들의 모습
침대 위에 자신의 자리 없이 남편과 아들이 대자로 누워 미동도 없이 깊이 잠들어있다.

가연.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계속되는 냉장고의 작은 소음
방문에 기대 있는 가연의 모습과 편히 자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다 담긴다.
가연은 냉장고 옆에 쪼그려 앉고 냉장고의 소음보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페이드 아웃된다.

끝

흩어지는 이의방 형제

사학과
20151428 이석원

스토리
1170년 고려의 무장들이 일으킨 정변으로 이의방, 이고, 정중부 셋이 고려의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합은 얼마 가지 못하였고 먼저 이고가 다음 해에 제거가 되었다, 3년 후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반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의방도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하여 암살되는데...

s1-1174년 12월. 심야. 고려의 수도 개성 문극겸의 집 앞
수십의 고려 중앙군이 문을 포위하고 한 장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쾅!쾅!쾅!)
이석린: 어서 이 이문을 여십시오 장군!! 여기에 역도 이린이 있는 것을 알고 왔소이다!!
(문을 열고 시종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밖으로 나와 장교를 밀친다).
시종1 : 여기가 어느 집인줄 알고 이리 소란을 떠는 것이오? 여기는 용호군 대장군 문극겸 장군의 집이외다!!
이석린 : 네 이놈! 종놈주제에 그게 무슨 말 버릇이냐!!
장교(칼을 빼들며) : 여기에 역도가 숨어든 것을 뻔히 알고 왔느니라!! 네놈 역시 역도 이린과 한패가 아니더냐!!
시종`1 :(당황하며) 구..군관나리 이..이러지 마시오, 내 여기서 잔심부름만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석린: 문극겸 장군은 어디 계시느냐?
시종1 : 바..방금 경진 평장사(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댁에 가셨습니다.
이석린 :(칼을 칼집에 넣고 뒤로 돌아보며)어이! 이 집을 철통같이 지켜라, 역도의 무리가 숨어들수도 있을 것이다.
병사들 : 옛!!(병사들은 외침과 동시에 문극겸의 집을 에워쌓았다)
(그리고 병사들이 볼 수 없는 거리에서 한 사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린 : 배신자 녀석들, 형님들과 내가 배푼 은혜를 저버리다니..

(이린의 회상)
S2-그날 오후 개경, 이린과 그의 형 이의방은 개경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이의방 : (이린의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고)요즘 아우는 왜 그리 이 형이 못마땅한가?
이린 : 서경에서 일어난 반란이 쉽게 진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형님과 큰 형님과의 일도 그렇구요
이의방 : 아아, 반란이야 지난번에 역도들이 그놈들 본거지인 서경으로 도망갔으니 곧 진압되지 않겠나. 그리고 큰형님과의 일은 내가 곧 풀걸세. 그나저나 장인어른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이린 : 요즘 날씨가 춥고 고뿔에 걸리셨는데도 쉬지 않고 입궁하셔서 업무에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의방 :(크게 웃으면서) 하하 그러한 위인이 아우의 장인이고 이 대 고려의 신하로 있으니 마음에 걸리는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린 : 그렇지만 작은 형님, 저번 전투로 형님의 힘은..누구냐!(그들의 앞에 나타난 수십명의 자객들을 보고 말을 멈추고 외친다)
자객 1 : (칼을 빼들며)역도 이의방과 이린을 척살하라!!
이린과 이의방은 무기를 빼들고 자객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린 :(적 한명을 죽이고 뒤를 돌아보며) 형님! 놈들의 수가 많습니다!
이의방 : 일단 흩어지세, 나는 병부로 갈테니 아우는 장인어른께 가서 도움을 청하게!!
이린 : 알겠습니다 형님, 꼭 살아서뵙죠.
이린은 옆으로 말을 타고 도주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의방 앞에 갑주를 걸친 한 사내가 다시 앞을 막았다.
정균 : 그럴필요 없습니다. 전중감.
이의방 : (크게 분개하며)정균 네 이놈!! 네 아비가 시킨 일이더냐!!
정균 :(활을 들며)그 궁금증은 저승에 가서 푸시지요.
이의방은 정균이 쏜 화살을 튕겨냈다. 그리고 정균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친다
이의방 :오늘 너희 해주 가문은 도륙이 날것이야!
이의방이 정균에게 돌진하였다.

s3 다시 심야, 문극겸의 집 앞
이린은 문극겸의 집을 둘러쌓고 있는 병사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린 :(독백으로) 이석린, 조원정, 모두 형님의 수하였거늘 언제 저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 :(이린의 뒤에서 몰래 나타나며) 형님!!
이린 :(화들짝 놀라며) 거야!! 어떻게 여기를..
이거 : 병부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글도 황도에서 우리가 안전할만하다 생각될만한 곳은 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왔죠. 형님들 소식은 못 들었습니까?
이린 : (표정이 어두워지며) 작은형님과 아까 싸우다가 헤어졌네. 큰 형님은 뵌적 없고.
이거 : 아쉽군요.(문극겸의 집을 가리키며) 어 저기 보십시오 형님!!
문극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문극겸 : (말에서 내리며) 너희들은 어느 소속의 병사들인데 내 집을 포위하고 있는가?
이석린 : (경례하며)소장은 참지정사 정중부 어르신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의방 일당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고발을 받고...(문극겸이 지휘관 부채로 이석린의 얼굴을 때린다.)
문극겸 : 그래서, 그 역도들이 내 집에 숨어들어오기라도 한다는겐가 뭔가?
이석린 :(머뭇거리며) 소장은 그저 참지정사 어르신의 명을 받고 여기에...
문극겸 : 내 역도들이 여기로 오는 것이 보이면 사람을 보내겠네. 그러니 집안 분위기 안좋게 하지 말고 썩 군사를 물리게
이석린 : 하오나...
문극겸 : 어허! 난 용호군 대장군이야! 상명하복의 질서까지 잊어버린겐가!
이석린 :(경직되며) 존명!(뒤를 돌아보며) 모두 돌아간다!
이석린은 병사들을 이끌고 문극겸의 집에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돌아간다. 문극겸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린과 이거가 숨어있는 곳으로 온다

s4 문극겸의 집 안 본채. 문극겸과 이린, 이거는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였다.
문극겸 : 아무래도 전중감과 참지정사 간에 드디어 전투가 벌어진 모양이로군
이린 : 형님들과 우리 가문을 살려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장인어른.
문극겸 : 방금 병부에서 오는 길일세. 중방에서 모두가 이의방에게 등을 돌렸다네
이거 :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며) 뭐라구요? 이 배신자들이!(밖에 나가려 일어선다)
문극겸 :(이거를 말리며)진정하게 진정해. 작은 사위 혼자 황궁으로 가서 뭘 하겠나.
이린 : 그럼 저희 형제는 어찌해야한다는 겁니까?
문극겸 :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입궁을 하고 상황을 알아볼 터이니 자네들은 여기서 조용히 숨어있게나. 아무리 참지정사라 하여도 내 집까지 수색할 수는 없으니 말일세
이거 :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형님들의 생사를 꼭 알아봐주십시오
문극겸 : 이만 가서 쉬게. 나 역시 내일 일찍 가야하니 쉬어야겠네.
문극겸과 이린,이거 형제는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간다.

s5 아침이 된다. 개경 황궁. 중방 회의실 안에 장수들이 모두 앉아 있는다.
정중부 : 방금 토벌군이 이의방의 목을 회수하여 황궁으로 가져왔다는 정보요.
정중부의 말에 모두가 술렁인다
경진 : 참지정사, 이의방의 수하들은 어떻게 다독이시려는 겁니까?
정중부 : 어제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았으니 그들 역시 이의방의 원수를 갚으려 들지는 못할것이외다. 비록 견룡군 장군 이의민이 날뛴다 하더라고 병사 없는 장수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소이까
이소응 : 이의방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태자비 마마와 형제들 말입니다.
정중부 : 태자비 마마는 폐위하라고 주청을 드렸소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그 이유인데 각 6위의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이의방 형제들을 모두 추포하라고 하게 해주시오.
정중부는 침묵하고 있던 문극겸을 유심히 본다.
정중부 : 문극겸 장군, 장군의 두 딸이 이의방 아우들과 혼인을 하였다 들었는데 이 사건에 의견이 없소이까?
문극겸 :(비아냥거리며) 4년전부터 이 황궁 안에 피비린내가 끊이지를 않았소이다. 내 사위들의 안전이야 그들이 알아서 챙길거라 믿소이다. 여기 계신 제장도 같은 생각 아니겠소이까
양숙 : (분개하며) 어허 문 장군, 말이 좀 과하신 듯 하오이다!
정중부 :(양숙을 말리며) 자자, 양 장군 진정하시오. 문 장군께서 사위 둘을 잃을 처지라 매우 예민해지신거 같나보오. 그러면 오늘 중방회의에서는 이번 이의방 일파의 제거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모두 협조해줄것이라 믿소이다. 이만 회의를 마치겠소이다.
회의가 끝나며 장수들은 모두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문극겸만이 혼자 앉아있는다.
문극겸 :(독백) 전중감, 천하를 호령하던 그대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구려. 잘 가시게. 장군의 아우들은 내가 힘써 구해보겠네.
문극겸도 자릴르 나서고 어두워진다.

s6 문극겸의 집 본채, 문극겸이 이린, 이거형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린 :(한숨을 쉬며) 결국 작은 형님께서...

이거 :(책상을 치며)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정중부를 비롯한 중방 놈들에게 원수를 갚아야합니다!
문극겸 :(고심하며)자네 둘이 무슨 수로 저 많은 황궁의 군사들을 대적할 수 있겠나.
이린 : 큰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바 없습니까?
문극겸 :아직 들은바는 없네만. 황궁에 있다면 필시 살아남지는 못할 것일세. 자네들도 여기 있기 보다는 황도를 빠져 나가는 것을 생각해보게나
이거 : 하오나 원수를 갚지 않고는..(머뭇거린다)
이린 :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는 없는거 같구나. 장인어른, 지금까지 저희를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극겸 : 자네들 어디로 가려는 겐가?
이린 : 일단 전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가서 가문을 재정비하고 나서 후일을 기약할 생각입니다.
이거 :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이린 :(이거의 말을 듣고 놀란다) 거야, 여기서 혼자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거 : 서경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서경 유수 조위총에게 의탁하려합니다
이린 : 그곳은 안된다. 조위총의 아들을 작은 형님이 손수 목을 베었다. 네가 가면 조위총이 받아 줄것이라고 생각하냐?
이거 : 어짜피 죽을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위총 역시 고려 조정에 반기를 들었고 역도로 몰려있는 처지입니다.
이린 : 정말 역도가 되어 역사에 오명을 남길수도 있다
이거 : 승자가 되면 역도가 되지 않겠지요. 지금 여기서 잡혀 죽거나 서경에서 싸우다 죽으면 역도로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문극겸 : 큰 사위, 작은 사위의 결심이 완고한거 같네. 그만 그를 보내주는 것이 어떤가?
이린 : (체념하며) 어쩔수 없군요. 오늘 밤이 되는대로 이 황도를 빠져나가겠습니다. 거야, 이제 서로 볼 수 없겠지만 행운을 빈다
이거 : 저도 형이 전주까지 잘 내려갈수 있게 행운을 빌겠수.
셋은 자리를 파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린과 이거는 문극겸의 집을 나섰다

s7 서경 반란군 본거지 감옥
조위총은 이거를 포박한 채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조위총 :(증오 섞인 눈으로) 네놈이 이의방의 막내 동생이렸다?
이거 : 그렇다. 나는 전중감 이의방의 동생인 이거다. 역도 정중부의 칼에 참살당한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
조위총 : 네 형이 내 아들을 죽인거 기억하고 있나?
이거 :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고려 조정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지 않은가. 유수의 복수는 고려 조정의 간신들을 척살한 이후에 내가 받도록 하지.
조위총 :(크게 웃는다)하하하, 형과 닮아서 겁내는 티를 내지 않는구만. 이의방 정말 좋은 아우를 두었구만 그래.(옥졸을 보며) 어이 풀어줘라.
옥졸은 묶인 이거의 밧줄을 풀어주었고 이거는 바닥에 앉았다.
조위총 : 그래서, 지금 황도의 사정은 어떠한가?
이거 : 정중부가 형님을 따르던 군사들을 제압하고 자기편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우리 형님을 배신한 자들이다. 한번 더 배신을 안 할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 거기다가 지난번에 형님이 서경출신의 장수들을 대거 배제한 것으로 인하여 병사들의 사기 역시 바닥에 떨어져있다.
조위총 : (골똘히 생각하며)현재 우리의 군사력으로 황도의 병사들과 맞설 수 있다고 보는가?
이거 : 그렇다. 하지만 여기 패서도 이외에도 삭방도와 관내도에서도 힘을 끌어모아 확실하게 전력을 모야한다. 그렇다면 황도를 점령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조위총 : 이의방에게 동생 둘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나?
이거 :(한심한 표정으로) 이린 형님은 이 대업에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겁이 많으신 분이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너희들과 힘을 합쳐 형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조위총 : 일단 쉬고 있어라. 이 문제는 내 부하들과 생각 좀 해봐야겠다.
조위총은 감옥을 나가려 한다.
이거 :(조위총이 들리도록 외친다.) 잘 생각해라. 시간을 지체할수록 황도의 병사들은 지방에서 증강될테니

s8 전주 지역
이린은 피곤한 모습으로 홀로 거리로 들어온다.
이린 :(독백)여기서 출발할 땐 형제들와 금위환향 하며 돌아올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것도 한순간의 꿈이었다는 말인가(이린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린다)
이린 :(거리의 농부들을 보며 계속 독백을 한다) 형님들이나 동생들처럼 더 이상 권력에 미련을 가지지 말자. 권력은 부질 없는 욕심일 뿐이다. 이름 없는 촌부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린은 계속하여 말을 타고 거리를 거닌다.

s9 개경의 황궁 감옥. 이의방의 형인 이준의은 아직 죽지 않고 감옥에 있었고 정균이 그러한 이춘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준의 : (모든 것을 다 포기한 표정으로)내 아우들 소식은 없는가?
정균 : 당신의 막내 동생 이거가 서경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들었소이다. 아마 조위총을 만나 당신들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계획이겠지.
이준의 : 나는 그 복수를 볼 수 없는게 한 스럽구만.
정균 : (비웃으면서)글세올시다. 그가 여기로 복수를 하러 올지 아니면 토벌군에 잡혀서 여기에 끌려온 다음 당신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거 아니겠소이까?
이준의 : 나와 우리 전주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지만 언젠가는 자네 해주 가문 역시 우리의 뒤를 따를걸세. 자네와 자네 아버님께 내 말 잘 기억하라 하게.
정균 : (칼을 빼들며)그 말, 유언이라고 생각하겠소
정균은 이준의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개경의 거리에 전시하게 하였다.

s10
수십년 후 전주, 다시 겨울이 찾아온다, 이린의 아들 이양무와 이안사는 전주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사망한 이린의 묘소에 들르게 된다.

이안사 :(이린의 묘소를 정리하며) 저희 할아버지께서 전주에 이러한 이유로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에 깊은 이야기가 있는 줄도 몰랐구요.
이양무 : 그래, 그분들도 이 곳을 떠나 황도로 올라가실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셨겠지.
이안사 : (짐을 매며)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디로 떠난다구요?
이양무 : 일단 삭방도 지역으로 갈 생각이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윤관장군을 도와 개척한 옛 여진의 땅이었지.
이안사 : 그런 곳이라면 매우 험하지 않을까요? 금나라 사신만 봐도 사람들 소문을 들으니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양무 : 하지만 그곳인 이 전주나 고려와는 달리 자유가 있지. 그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 타락한 무신들, 최충헌을 비롯한 난신적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문을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다.
이안사 : 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 말씀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매년마다 향리들이 수탈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한번 가봐서 나쁜곳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양무 : 아마 너도 거기에 가면 마음에 들거다.
이안사 : 네네. 여기보다는 나으니까 아버지께서 가자하시는거죠. (밖에 인는 큰 짐을 꾸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런데 우리만 가는 것은 아닌거 같네요?
이양무 : (씁쓸하게 웃으며) 지금 동경지역에서나 이 곳이나 민란이 안 일어나는 곳이 있겠느냐.
이안사 : 뭐..여행길이 외롭지는 않겠네요. 가면서 친구들이라도 사귀면더 좋구요.

이안사와 이양무는 이야기를 하며 짐을 모두 꾸렸다. 그리고 그들은 전주를 떠나 지금의 함경도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유예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82544 용은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82524 박민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82564 이지수

주요 등장인물
은주
소심한 성격.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휩쓸린다. 중학교시절 수아와 가장 친하다.
수아
밝고 활발한 성격. 성격과 귀여운 외모로 인기가 많다. 은주와 가장 친하다.
예지
질투가 많다.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친구들이 많고 무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
시놉시스
결혼을 준비 중인 은주는 짐정리를 하던 중 한 상자를 발견한다. 그 상자 안에 있던 편지를 보고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수아와의 추억 떠올리며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1막-1. 은주의 집 방안. 실내. 오후

창문에서 해가 지는 게 보이는 베란다와 연결된 은주의 방안.
박스와 그 안에 채울 짐들로 방안이 엉망이다.
그 안에서 은주는 곧 결혼식을 올린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다.

은주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오래 걸려. 응. 자기 전에 전화할게.

1막-2. 은주의 집 베란다. 실내. 오후

밝은 얼굴로 전화를 마친 은주. 베란다로 향한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은주가 쌓아두기 좋은 장소.
버릴 것이 대부분인 짐들을 은주는 추억에 잠긴 채 바라본다.
그때 은주에 눈에 띈 핑크색 상자. 기억이 날 듯 말 듯.
먼지가 쌓인 상자를 손으로 쓸고 상자를 연다.

은주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얼굴로) 뭐지..?

옷 입히기 스티커북, 메이플스토리딱지, 공기놀이...
어렸을 적 즐겨하던 놀이들이 상자 안에 담겨있다.
그때 은주의 눈에 띈 핑크색 편지.

그제서야 상자에 대한 추억이 생각난 듯 은주는 편지를 쥔 채 서있던 그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라본다.
편지가 보여지며 그 옆에 타이틀이 세로로 적힌다. <유예>

1막-3. 은주의 집 방안. 실내. 오후 / 교실. 실내. 낮

은주는 손에 든 편지를 쓰다듬듯 만진다.
불안한 듯 흔들리는 은주의 눈동자.
과거를 회상한다.

(회상 씬) 책상에 엎드려있는 수아의 모습과 고개를 숙인 채 혼자 교실복도를 걸어가는 수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눈을 꽉 감은 은주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하다.

2막-1. 교실. 실내. 아침

새학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들린다.
은주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배치표를 보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은주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댄다.
수아가 교실에 들어오고 자리배치표를 본다. 은주 옆자리에 수아가 앉는다.

수아 (밝은 목소리로 새콤달콤을 내민다) 안녕! 새콤달콤 먹을래?
은주 (새콤달콤을 받아든다) 고마워...
수아 내 이름은 한수아야. (은주의 명찰을 본다) 은주야 잘 부탁해.
은주 (웃으며) 나도 잘 부탁해.

2막-2 교문앞. 실외. 오후

방과후, 은주와 수아는 함께 팔짱을 끼고 교문밖을 나선다.

수아 너 어디살아? 방향이 같으면 같이가자.
은주 나는 사거리 앞에 대우아파트 살아. 105동!
수아 (놀란다) 우와. 신기하다. 나도 105동 살거든.
은주 (기뻐하는 목소리로) 진짜? 완전 신기해!

둘은 아파트에 도착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다.

은주 (버튼위로 손을 가져간다) 몇층 살아?
수아 14층.
은주 (놀란 목소리) 나는 13층 사는데 진짜 가까운데 산다.

수아 (은주에게 더 가깝게 달라붙는다) (장난스러운 목소리) 역시 우린 운명인가봐

둘은 키득거린다. 엘리베이터는 13층에 도착하고 은주가 내린다.

수아 잘가 은주야, 내일봐.
은주 (손을 흔든다) 응, 너도 잘가.

은주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방 침대에 앉는다.
주머니에서 수아에게 받은 새콤달콤을 꺼내 포장을 벗기고 입에 넣는다.
얼굴에 웃음이 퍼진다.

(나레이션) 수아같은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야.

2막-3 교실. 실내. 아침

교실 뒤편에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있다.
예지와 친구 2명이 함께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
교실 군데군데 아이들이 무리를 이뤄 떠들고 있다.
수아와 은주가 교실로 들어온다.

반아이1 (수아를 발견하고 손을 흔든다) 수아 안녕.
수아 (밝은목소리) 응, 안녕

반아이 1,2,3이 수아에게 다가온다.

반아이2 (젤리 봉지를 들고) 이것봐봐. 매점에 새로 들어온 젤린데 진짜 맛있어.
수아 (기쁜목소리) 우와 맛있겠다! 내가 젤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최고야.

반아이2.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반아이3 (은주에게 시선을 돌린다) 옆엔 누구야? 은주? 반가워.
은주 (어색하게 웃는다) 응...

수아 주변으로 몇몇 아이들이 더 모인다.
은주도 어느새 아이들과 친해져 웃고 있다.
수아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뒤돌아본 예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다른곳을 보고있는 예지에게 친구가 말을 건다.

예지친구1 : (예지를 툭 친다) 야, 뭐해? 말하다 말고 어딜봐?
예지 : (수아를 향해 턱짓을 한다) 너네 쟤 어떻게 생각해?
예지친구1 : (고개를 갸웃한다) 글쎄. 별생각 없는데.

예지친구2 : (수아쪽을 힐끔 보더니 파우치에서 아이라이너를 꺼낸다) 애들이 다 쟤 좋아하던데? 좀 착한듯.
예지 (말끝을 흐린다) 그치,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예지친구2 (걸려있는 큰 거울을 보며 아이라인을 그린다) 왜? 뭔일있음?
예지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근데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예지친구1 (답답해 하며) 뭔데 왜 말을 하다말아. 말해봐.
예지 (망설이는 척 한다) 사실... 쟤네 아빠 사기꾼이잖아.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 도망쳐 온 거래.
예지친구1 (놀란다) 뭐? 그게 정말이야?
예지친구2 (경악하는 표정) 어머, 웬일이니...
예지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 그래서 나쁘게 보려는 건 아닌데 좀 찜찜해서.
예지친구1 (인상쓰며) 네 말 듣고보니 기분 나쁘다.
예지친구2 (고개를 끄덕인다) 응, 정말.

예지와 그 친구들, 속닥거린다.
교실 뒷편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 한명이 우연히 예지의 대화를 듣고 놀라는 표정을 한다.

2막-4 교실. 실내. 낮

다음날 교실 앞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수아.
뒤를 돌아 은주를 찾으려하지만 은주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휙휙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하지 않는 아이들.
엎드리는 수아.
그런 수아를 보며 수군대는 아이들.

반 아이1 (소곤소곤대며) 예지가 그러는데 수아네 아빠 사기꾼이래. 그래서 전학온거래.
반 아이2,3 (눈이 커지며)헐 대박 진짜?
반 아이1 (수아를 흘겨보며)응 대박이지.
반 아이2 (조심스레 물으며)나 지민이한테 말해도 돼?
반 아이1 (고민하면서)음... 근데 내가 말했다는거 비밀이야..!
반 아이2 (큰소리로)당연하지!

아이2는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려 복도로 향한다.
다른 아이들이 귓속말 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교차로 보여지는 혼자인 수아의 뒷모습.

화장실을 갔다온 은주.
수아에게 가려는 중 아이1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
발걸음이 멈춰지고 머뭇거리다 수업시작 종이 울린다. 클로즈업 되는 발.

터벅터벅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은주.

2막-5 학교 화장실. 실내. 낮

파란색 타일이 햇빛에 비쳐 차가운 느낌을 주는 화장실 안.
예지와 친구들이 화장실에 몰려있다.
고데기를 하면서 수아의 얘기를 한다.

예지 (앞머리를 말면서) 근데 나는 걔네아빠 사기꾼이라는거 듣기 전부터 별로였어.
아이1 (공감하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걔네 아빠 사기꾼인거 진짜 충격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 아빠가 사기꾼인데 그렇게 잘 웃지?
아이2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이. 그래서 더 안 좋게 보여. 수아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소름돋아....

화장실의 가장 마지막 칸.
닫힌 칸의 위를 잡으며 수아의 정수리가 보인다.
자신을 왜 피했는지 알게 된 수아.
눈물이 고인채로 손으로 입을 막고 있다.

고데기를 다 끝낸 예지와 아이들.
시끌벅적 웃으면서 화장실을 빠져나간다.

터벅터벅. 화장실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수아.

2막-6. 교실. 실내. 낮

눈가가 붉은 채로 자기 자리에 앉는 수아.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엎드린 채 숨죽여 운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는 은주.
다가갈 용기가 없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은주의 머리카락을 헝큰다.
그렇게 숙여지는 고개.
다시한번 은주는 수아를 모른 채한다.
교실에 함께 있지만 떨어져있는 수아와 은주가 보여진다.

2막-7. 실외. 집으로 가는 길. 낮
말없이 하교 하는 둘.
같이 있지만 어딘가 서먹한 분위기가 돈다.
수아가 은주를 향해 숙였던 고개를 휙 돌린다.

수아 (망설이며) 은주야 오늘도 우리집 올거지? 꼭 와... 같이 놀자...
은주 (숙였던 고개를 들고 은주를 쳐다보며) 응 당연하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까의 서먹했던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고 떠들썩해진다.
집으로 가는 은주와 수아의 뒷모습이 비춰진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은주와 수아의 꺄르륵 소리 들린다.
수아 딱지치기할까? 아니면 우리 저번에 했던 공기놀이 또 하자!
은주 (웃으면서) 응!
그리고 그 앞엔 은주와 수아의 아파트가 보인다.

2막-9. 교실. 실내. 아침

여느때와 다름없는 아침.
선생님의 조례전. 아이들은 왁자지껄이다.
한 편 은주는 비어져있는 수아의 자리를 보고 갸우뚱한다.

은주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이상하다... 오늘 수아가 왜 늦지...'

선생님이 들어온다.
교탁을 탁탁치며 아이들을 집중시킨다.

선생님　수아가 전학을 가게 됐어. 선생님도 갑작스러워서 많이 놀랐다. 너희들에게 인사라도하라고 가라 했는데 사정상 못하고 가게 됐다. 수아랑 친한 애들은 따로 연락 해봐. 수아랑 친한애들 많았잖아 그치? 오늘도 수업 잘 듣고 떠들지말고. 이상 조례 끝.

놀란 표정의 반 아이들.
예지도 표정이 묘해진다.
선생님이 나가도 조용한 반 분위기.
그 가운데 은주가 새빨간 눈가를 비비며 울음을 참고 있다.
수업시작 종이 울린다.
비워진 수아의 자리가 비춰진다.

2막-9. 실외. 아파트 복도. 은주의 집 문앞. 낮

회색의 텅 빈 아파트 복도.
소화전의 빨간 불빛만 색을 가진 듯 빛이 난다.
은주는 수아와의 즐거웠던 하굣길을 떠올린다.
그렇게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주의 신발에 어떤 것이 부딪힌다.

은주 (편지를 주으며) 어..? 이게 뭐지...?

핑크색 편지는 '은주에게'라고 써져있다.
은주는 수아가 쓴 것임을 알아본다.

은주 (울먹거리며) 수아야...미안해...

3막-1 은주의 집 방안. 실내. 오후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편지를 비춘다.
은주는 편지봉투를 열까말까 망설이다 이내 각오하는 표정을 짓는다.
천천히 편지봉투를 열고 반 접혀있는 편지지를 꺼낸다.
접힌 편지지를 보며 깊게 심호흡을 하고 펼쳐 읽기 시작한다.

3막-2 은주의 집 방안. 실내. 오후

한번도 펴보지 않은 편지는 새것처럼 빳빳하다.
편지를 눈으로 읽어내려가는 은주의 눈이 비춰진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 고개가 숙여지고 같이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은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수아의 이름을 읊조린다.

은주의 모습과 함께 수아의 편지내용이 나래이션으로 들린다.

(수아의 목소리로)
'은주야 안녕. 나 수아야.
갑작스레 전학을 가게 돼서 편지를 쓰게 됐어.
널 꼭 보고가고 싶었는데... 급하게 가게 돼서 이렇게 편지를 놓고 가.
은주야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가 너한테 말을 건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
같은 아파트에다가 비슷한 층이었잖아. 그걸 듣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 기억나?
운명이라고. 정말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거 같아...
있지... 요즘 학교에 퍼진 내 소문말이야.. 그거 나도 우연히 듣게 됐어...
우리 아빠는 그런 분 아니셔... 우리아빤 군인이셔서 이사를 다닌건데 소문이 그렇게 퍼질 줄 몰랐어... 이번에 이사가는 것도 아빠 또 다른 곳으로 부대를 옮기게 되셔서 가게 됐어. 그래도 너는 그런 소문 믿지 않았지? 소문 때문에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봐 무서웠는데 네가 유일하게 놀아줬잖아 그게 정말 고마워...ㅎㅎ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게 됐지만 은주 너랑은 꼭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가 그때 한 말 잊지 않았지?
이 편지를 보면 이메일로 꼭 연락줘! 은주야 우리 꼭 다시보자 . 수아가.

은주 수아야... 수아야...

흐르는 눈물을 닦는 은주.
편지지에 적힌 이메일이 보여진다.

3막-3 실내. 은주의 방안. 낮

어질어진 방안.
은주는 그 안에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킨다.
수아의 메일을 천천히 입력하는 은주의 손이 보여진다.
망설이는 수아의 손가락.
이내 다시 키보드를 입력한다.
한자 한자 천천히.

‘수’
‘아’
‘야’

‘안’
‘녕’

천천히 입력한 글자는 다섯글자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내 은주는 글자를 써내려간다.

‘나’

‘은’
‘주’
‘야’

미안한 마음 반 수아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은 은주.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써내려가는 은주의 모습과 옆에 놓인 핑크색 편지가 보여진다.

(회상)
실외. 하굣길. 낮

수아 (밝게 웃으면서) 은주야 우리 서로 이사를 가도 꼭 다시 만나자!
은주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해? 너 이사가?
수아 아니... 그냥 우린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은주 (웃으면서) 풉 뭐야! 그래 우리는 싸우더라도 서로 먼저 연락하기다!
수아 (은주를 웃으며 쳐다보며) 너 왜 싸울 생각을 벌써하니? 그래! 우리 이말 꼭 지키자! 잊으면 꿀밤 한 대 !
은주 콜!

은주와 수아가 꺄르르 대는 소리가 들린다.
눈을 마주치고 웃고 있는 은주와 수아 느리게 잡힌다.
은주와 수아의 얼굴이 보여지고 이내 청명한 하늘이 비춰진다.

공모전 심사평

[시 부문]

시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도 시인의 내면에 가까운 장르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선의 정확성, 그것을 형상화하는 언어의 감각성, 다채로운 해석을 이끄는 언어의 깊이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응모된 100여 편의 시 중 단 하나를 고르자면 단연 「반지하」다. 이 시는 삶의 고통을 공간을 통해 탁월하게 형상화한다. 하늘과 별의 이미지는 시 전체를 관통하면서 외롭고 어두운 우주를 펼쳐 보여준다. 이 우주가 반지하이자, 반지하의 삶이다. 놀랍다. 우수작으로 꼽은 「겨울 나무」는 겨울 나무를 바라보는 시인의 사유의 깊이와 그것의 감각화가 뛰어나다. “찬바람은 너의 그림자가 너무 오래 머문 탓이다”와 같은 구절은 이 시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이다. 장려작으로 꼽은 「열꽃」은 열과 불의 감각을 밀고나가는 것이 장점이다. 때때로 파괴적인 언어는 가장 깊은 감정을 끌어올린다.

더불어 신입생 특별상 또한 시 부분에서 나왔다. 제출한 4개의 작품 모두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림 남자」의 경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펜 끝에서 나타나는 남자의 형상으로 묘사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독창성도 훌륭하지만 기묘한 분위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언어의 힘 또한 훌륭하다.

심사위원
박슬기

[비평 부문]

비평은 학술 논문과는 다른 글쓰기를 요구한다. 좋은 비평은 그 작품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데서 출발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좋은 비평가란 핵심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구절, 단 하나의 장면, 단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투고된 비평문들이 대체로 작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지만 이런저런 군더더기를 덜어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작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비평은 결코 있을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욕망은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최우수작으로 꼽은 「동심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우리’를 깨닫다, <우리들>」은 아이들의 관계와 성장통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연출기법과 영화 속 소재들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말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깔끔한 문장이 돋보인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영화 <기생충>과 모스 부호」는 모스 부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였다. 모스 부호와 영어라는 두 개의 언어 장치를 계급적 상징으로 포착해 낸 시선은 매우 좋으나, 이 지점에 조금 더 천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너무 많은 정보는 글에 방해가 될 뿐이다. 장려로 선정한 「히치콕의 서스펜스가 담긴 4편의 영화」는 서스펜스 개념을 중심으로 히치콕의 영화를 살피는 글이다. 다소 일반적인 논의로 일관되어 있는 점은 아쉽지만, 각 영화의 핵심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착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비평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했다.

심사위원
박슬기

[시나리오 부문]

시나리오는 영상의 대본이라는 점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태생부터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장르다. 영상이 되기 전에는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단순한 이미지에 불과한 영상 이미지를 탄탄한 내러티브로 구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다. 대사와 지문으로만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사와 지문이 각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최우수작으로 꼽은 「배달시키신 분」은 학생들의 작은 일탈이 주는 긴장감을 재치있게 구성했다. 무엇보다 각 학생들의 성격을 각각 선명히 묘사한 점, 짧은 사건을 잘게 쪼개어 구성하여 디테일을 잘 살렸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수작으로 꼽은 「표면세계」는 영문을 모른 채 밀실에 갇힌 네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결말 부분의 개연성이 아쉽긴 하지만, 다른 장치의 도움 없이 오직 대사만으로 네 사람의 성격과 처지를 입체화시킨 점을 높이 샀다. 장려로 뽑은 「그들의 말 못할 입시」는 세 사람이 겪은 입시의 경험을 세 사람의 성장과 연결시켜 구성했다. 짧은 분량 안에 세 사람이 겪은 사건을 다 다루다보니 서사 구구조가 상당히 헐거워진 아쉬움은 있으나, 유연한 장면 전환과 짧은 지문과 대사로 이들의 내면까지 입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
박슬기

[소설 부문]

올해 문예창작공모전 소설부문에 제출된 작품은 총 22편이었다. 형식과 주제의 양면에서 다양한 색채를 지닌 작품이 투고되었고, 일부 작품은 조금 더 다듬으면 대학문예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대체로 가족, 친구, 연인 등 '나'와 주변 인물과의 관계와 그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냈을 법한 상상들이 많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가출팸 문제, 세월호 사건 등 시대의 문제와 아픔에 주목한 작품도 여러 편이었다. 전쟁과 반란이라는 과거사를 끌어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원론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유사한 문제의식을 과학기술이 가져올 근미래를 배경으로 펼쳐 보인 작품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주제나 착상의 선명함에 비해 그것을 끌고 가는 인물과 사건의 개연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뤽 고다르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자와 총이 전부"라고 말했다지만, 소설은-사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그런 방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사건과 그것을 통과하는 인물이 필요하고, 그 인물과 사건은 철저히 개별적인 것인 동시에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달력 있으면서 개성적인 문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가령 거대한 타워 건설 아르바이트 경험,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갈등,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의 애틋함이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절실함을 넘어 '세계에 대한 작자만의 인식'이 필요하며, 그것이 작자가 만들어낸 허구적 세계를 매개로 독자 앞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골든 디스크>를 최우수작으로 정했다. 낙원상가라는 구체적 장소를 배경으로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그 그늘 속 어딘가 있을 법한 인물 군상을 주조해냈으며, 사건들의 결구력과 문장력 또한 돋보였다. 팝의 역사를 음모론과 함께 엮어내 지식소설을 읽는 느낌을 준 것 또한 신선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음모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보다 분명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자가 상당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공들인 작

품이라고 보았으며 그 성실성이 앞으로 작품을 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참치캔 속 목소리>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목소리가 사물 속에서 발견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설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재력을 지닌 이들은 업체를 고용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물건을 빠르게 찾아내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은 구성상 좋은 대조를 이룬다. 동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날카로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문장을 다듬고 사건의 개연성을 확보하면 더욱 좋은 작품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인조인간>은 인공지능 후의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연극판이라는 배경을 설정하여 인간과 인조인간의 모호한 구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주인공과 남자친구의 관계 등 주변 서사에서도 인간과 비인간의 대조를 강조하며 상징이 과잉 사용된 점이 아쉽다. 또한 문제제기는 좋았으나 그에 대한 작가의 전망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에 장려작으로 삼았다.

수상작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언급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다. <오, 나의 베르단디!>는 아마 <오, 나의 여신님!>을 패러디한 작품인 듯한데,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면 석고상으로 굳어버린다는 기발한 착상이 돋보였다. <무대 위의 이방인>은 문장이 탄탄하고 예술가의 광기라는 주제의식도 뚜렷했으나, 그 뚜렷함이 진부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방법이 필요할 듯하다. <꽃잎의 시점>은 나무와 가지, 꽃잎의 시점에서 탄생과 죽음을 논한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저담>은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창조해낸 점이 주목된다. <보통잡부>와 <찌질이의 사랑>은 손에 그릴 듯 잡히는 장면과 심리의 묘사가 인상적이었다. 장점을 간직하면서 신변잡기의 수준을 넘어 소설로 발전시켜보기를 권한다.

수상한 모든 작가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아울러 아쉽게 탈락한 모든 응모자들이 작품을 한층 가다듬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문예창작공모전이 지금,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

심사위원
이승은